2024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6

일러두기

이 책은 '2024 충청남도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만난 143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각 시군에서 고연령층 8인 이상의 구술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든 대화를 채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구성하였다.

구술자는 모두 광복 이후 전쟁과 폐허 속의 국가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삶을 일구어 온 토박이들이다. 평생 고향을 지킨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어려운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살려 삶을 개척하였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왔지만 모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증언한다.

※ 책의 수록 순서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6개 시군별로 나누고, 구술자는 채록 순임

※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기획하고, 그에 적합한 구술자를 모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역사, 민속, 향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구술자 면담 후 본 책자의 원고를 작성함

※ 본 책자의 내용은 구술자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발행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둠

2024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6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발간사

근대와 현대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기록하며...



임 호 빈
충남문화원연합회장

올해도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6'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지역이 겪어온 근대와 현대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기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던 충남의 민속과 이야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있는 기억을 담아내고, 우리가 왜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충남은 그 역사적 특성상,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많은 문화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많은 전통과 민속은 잊혀져 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흔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 여전히 중요한 가치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 책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을 통해 그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6'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구술채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그들의 삶과 기억을 듣고, 그 기

억 속에 숨어 있는 충남의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구술을 통해 기록된 이야기들은 한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충남의 다양한 마을과 고장, 그리고 그 지역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 그로 인해 변화한 지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민속과 전통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간을 통해 우리는 충남이 겪은 잊혀진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역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우리 지역 사회가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주민들의 따뜻한 협조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구술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기억이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이 단지 한 권의 기록물로 끝나지 않고, 충남의 향토 민속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발간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향토 민속과 구술채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12월

일러두기 • 2
발 간 사 • 4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음성의 넷째 딸 엄마 · 12 우리 순복아 ~ · 17 즐거운! 신나는! 인생을 즐겨요 ~ · 22 막내딸 할머니 · 26 산골소녀, 봉연 · 31 한약방 집 막내 손녀 · 36 항아리 속 담긴 사연 · 41 방앗간과 모시 길쌈 · 46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우리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설화연구가 · 52 천안에 음악을 더하다, 팔색조 음악인 · 59 천안의 소리를 찾아 온 열정을 불사르는 국악인 · 66 동심을 사로잡는 할머니 작가 · 73 평론을 통한 문학 생명력, 그 매개자로 한평생 · 79 수묵화에 평생을 기울인 한국화 작가 · 87 감성을 렌즈에 담는 작가 · 93 문화재청 퇴임 후 귀향한 고궁연구가 · 102 향토문화와 문화원 발전에 헌신해 온 산 증인 · 108

공주시 6.25 그 앞과 뒤

목숨 열 둘 · 116 아버지! 나의 아버지. · 123 교육계 – 6.25 전후 이야기 · 131 50년 6월 25일부터 휴전까지 · 138 천하 명당 동해동 · 146 훈장이 없어도 참전 용사다 · 152 학교 교실이 인민재판정이 되다 · 159 7일을 굶고 · 165

보령시 보령의 바다 Ⅳ

원산별장 후손의 생활·174 청라면 황룡리 용머리마을의 주민생활·188 신흑동 고잠마을의 주민생활·218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 마을 주민생활과 보령경찰의 역사·230 오천면 소성리 주민의 생활·246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의 주민생활·256 오천면 소성리 주민의 생활·274 오천면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293 오천 양조장의 운영과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310 남포면 옥서리 사현마을 주민들의 생활·322 청라면 신산리 주민 생활과 오서산 산중 생활·334

아산시 온양의 오일장

온양온천시장의 변화를 위해 꿈과 비젼을 만드는 사람·360 성악가의 꿈과 맞바꾼 고추 기름집 여사장·366 광천상회 김은 사람들의 밥상에 언제나 입맛을 돋구었다·371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며 봉사하는 온양온천의 참 일꾼·377 타고난 근면 성실함이 사업으로 성공하였다·382 아산의 전기와 재료는 국제사의 역사다·388 한복 한 벌 한 벌에 정성과 미소도 함께 담아 팔았다·393 아가와 엄마들이 선택한 아기 옷이제는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옷·398

서산시 6.25 전쟁의 상흔(傷痕)

의용군으로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 학도호국단으로 활동하다·404 전쟁 중에 피난은 부산으로 기차타고 갔다·409 6. 25 전쟁 동안 서울과 서산에서 전쟁을 두 번 겪다·413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숱한 순간을 회고하다·418 조실부모로 의가사 제대하다·423 전쟁 중에 후방에서 위생병으로 활동하다·428 “어려워, 어려운 시기였어”라고 되뇌며 말을 삼키다·434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위생병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440

논산시 4H와 새마을운동

4-H, 시대정신을 담다·446 농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4-H·452 삶의 뿌리, 농촌을 위하여·456 시대 정신이었던 4-H·461 놀뫼새마을금고의 산 역사·466 4-H 후원으로 풍요로워진 삶·471 농업 실천 운동 4-H·475 살며 사랑하며 베풀며·480 새마을지도자를 하던참 좋은 시절·484 봉사활동으로 이어진 새마을운동·489

계룡시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애향심이 만들어 낸자랑스러운 계룡사람 '이덕재'·494 국사봉아래 계룡토박이 '정병선'·498 신도안 엿의 명맥을 이어가는 신도안종합식품 대표 '안봉인' 사장·503 전통 백중놀이의 본고장에서 뿌리를 지켜가는 토박이 '김용한' 왕대리 이장·508 95세의 연세에도 변함없이 지역사랑, 나라사랑을 강조하신 '김원섭' 6.25 상이용사·513 계룡에서 태어나 계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해상' 전 계룡시 새마을지회장·518 6.20사업소장을 지내며 계룡시 건설의 초석을 놓은 '김정수' 전 대전시 건설교통국장·523 공직자로 은퇴한 뒤 낙향 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장·528 꼿꼿한 유학자로서 전통 서당 문화를 지켜가는 '박성기' 훈장·533

당진시 당진의 오래된 가게

2대째 이어가는, 인심이 나는 뻐꾸기 둥지·540 사랑과 정성이 담긴 당진의 대표 브랜드 '독일빵집'·547 당진의 대표 서점 '당진서점·554 민속떡집, '잇담'으로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다·560 80 평생을 오롯이 한길만 걷다·565 어머니의 손재주를 나누며 당진을 지켜온, '영의상실'·570 빛의 삼원색(三原色)을 더욱 선명하게 '정일칼라'·576 이발소의 맥을 지키는 기지시 '길이용원'·582

금산군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한국동란 참전·588 한국동란 참전·593 한국동란 참전·598 한국동란 참전·603 한국동란 참전·608 한국동란 참전·614 베트남 파병·620 베트남 파병·625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은산대동국수, 대를 이어 명품 국수를 만들다·632 단학이용원, 가위 하나로 멋진 사람을 만들다·638 옥산목공소, 나무에 솜씨를 담다 ·643 청일양복점, 부여 학생들의 교복을 만들다·649 평생을 무사고로 달린 부여의 택시기사·654 금강동물병원, 한평생 부여의 동물을 돌보다·659 영진혼수, 혼수에 정과 인심도 담아 팔다·664 신애철공소, 내 맘에 들어야 다른 사람 맘에도 든다·669 시골 통닭, 맛과 추억을 담다·674

서천군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전기동 생산의 산실 전련과·682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 해결사 박종성·688 찌꺼기 속에서 건져낸 분은실의 쾌거·694 장항제련소 조동을 지게차로 운반하다·699 노부부의 사랑을 지킨 장항제련소·704 힘들어 그만 둔다는 사람이 오래 다니는 장항제련소·709 QC활동 전국 최다 제안자 노쌍석·715 장항제련소와 지역 상생의 매개자 오세문·721 42년 경력을 가진 장항제련소 중장비 운전기사 유영휘·726 곽만기는 품질관리 명장이며 장항 택시 운전사·732

청양군 청양의 장인

청국장 제조 장희문 – 향도 맛도 깔끔한 청국장·740 내포제 시조창 김영애 – 내포제 시조를 보존하자·745 춘포짜기 김희순 – 명주실과 모시의 사랑탑·750 구기자 재배 명영석 – 구기자로 청양을 빛내다·756 조각가 이한수 – 나무에 숨결을 불어 넣는다·761 묵(도토리) 제조 김정숙 – 찰지고 탄력있는 묵·768 술(칠장주) 제조 이영채 – 물이 좋아서 청양·774 대목장 송찬의 – 목수의 꽃·779 대금장 우종실 – 대밭만 봐도 좋다·784 짚공예가 윤장훈 – 생짚 찾아 삼만리·790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광천양조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찾아서·796 결성양조장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모습을 찾아서·803 사라진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811 홍동양조장의 창업부터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찾아서·816 사라진 은하양조장의옛 모습을 찾아서·821 사라진 서부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825 사라진 금마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831 사라진 홍북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834

예산군 예산의 참전 용사

한국동란 참전·840 한국동란 참전·845 한국동란 참전·851 한국동란 참전·857 한국동란 참전·862 한국동란 참전·867 한국동란 참전·872 한국동란 참전·877

태안군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태안의 새마을운동 – 근흥면·884 태안의 새마을운동 – 원북면·889 태안의 6 · 25전쟁과 새마을운동 – 원북면·894 태안의 6 · 25전쟁 – 안면읍·899 태안의 새마을운동 – 안면읍·904 태안의 새마을운동 – 태안읍·909 태안의 새마을운동 – 소원면·913 태안의 새마을운동 – 이원면·918 태안의 6 · 25전쟁과 새마을운동 – 이원면·923 태안의 새마을운동 – 남면·928 태안의 6 · 25전쟁 – 태안읍·933

천안시 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음성의 넷째 딸 엄마 12
우리 순복아 ~ 17
즐거운! 신나는! 인생을 즐겨요 ~ 22
막내딸 할머니 26
산골소녀, 봉연 31
한약방 집 막내 손녀 36
항아리 속 담긴 사연 41
방앗간과 모시 길쌈 46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전 병 길 (1944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음성의 넷째 딸 엄마



음성의 넷째 딸 엄마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44년 10월 12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문화동 618번지.

총 10남매 중, 넷째이자 딸로서는 셋째 딸인 전병길 할머니가 태어났다.

전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남매의 형제까지.. 총 12인의 대가족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916년생의 동갑내기이고, 어두웠던 역사적 시기인 일제 강점기 시절, 태어나고 자라나던 분들이었다. 생각해 보니,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전까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빈에 시달렸던 그 시기에 두 분께서는 결혼하여 4명의 자식을 낳고 극한 환경 속에서 이후 6명의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양육하던 분들이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현대 사회의 결혼관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당시에 대한 사회상이 쉽사리 그려지지 않았다.

전 할머니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만 해 오면 하루 일과 끝. 그냥 헤헤 거리시는 마음씨만 좋은 그런 아버지였다. 어머니도 좋은 분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랐다. 생활력이 남달랐다. 남의 집안일, 품팔이, 삯바느질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 그렇게 간신히 자식들을 먹였지만, 12식구의 배가 충분히 부르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큰언니(1935년생)를 음성에 있는 '선일정'이라는 기생집 내, '미용'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부탁하였다. 당시 언니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였다. 언니는 그곳에서 미용 기술을 익혔고, 손재주가 꽤나 좋았던 큰 언니 덕에 몇 년 후에는 따로 가게도 개업하였고, 집 건물도 2층 집으로 새로 지어 전씨 집안 열두 대가족이 꽤나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동글동글한 한량 같은 아버지의 이러한 성향 덕분에, 오히려 전씨 집안 여자들이 오기 섞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큰언니 덕분에 그 시절 동생들은 모두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전 할머니도 공민학교를 거쳐 음성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한글을 간신히 배웠다. 후에, 청주에 있는 세광중학교를 입학하려 했지만, 입학금이 없어서 입학하지는 못하였다. 여든의 전 할머니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속상하다고 한다.

10남매 중 둘째였던 하나뿐인 오빠는 청주고등학교 졸업에 서울까지 대학교를 보내야 했기에, 전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본인의 배움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랜 후에 오빠는 고향 음성으로 돌아와 약국을 개업하였고, 꽤나 대성하는 지역 약국으로

커나갔다고 한다.

전 할머니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속상한 마음을 운동으로 달랬던 것으로 보인다. 18세 때, 사촌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허드렛일도 했는데 재미 삼아 치던 당구 구력이 120이나 될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학교를 다닐 여고생이어야 하지만, 자라나는 동생들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고 집안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전 할머니. 사실 이 시기쯤,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시기이다. 이제 전 할머니는 딸이면서도 엄마 역할도 하는 딸엄마가 된 것이다.

이런 '특이한 삶'이 고된 우리 시대를 살아왔었던 모두의 할머니들에게는 '흔해 빠진 삶'일지도 모른다.

괴산의 복덩이 며느리

1969년. 26세의 나이로 할머니는 근처 지역인 괴산군 청안면 어느 산골로 시집을 갔다.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시집을 간 그곳의 남편 얼굴은 조금 험상궂었다. 한마디로 산골의 산적 같았다.

주변엔 뭐가 없었고, 괴산 산골의 초가집 하나가 전부였다. 전국 팔도 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지역인 충북 지역은 산세가 험하였다. 시댁의 본업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과일 농사가 전부였다. 식사는 점심에는 감자를 짓이겨서 먹고, 저녁은 칼국수.. 거의 매번 그래 왔다.

증조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동생들까지 8명의 식구였고, 시어머니는 결혼 이듬해 위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였다. 남겨진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돈독하였다.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소지하고 있는 재산을 조금씩 탕진하는 위인이셨던 것처럼 보인다.

한번은 이 지역 이장이라는 사람이 감나무 수백 그루가 딸린 집안의 땅을 시아버지에게 서류를 잘못 해석하게 하여 갈취하려 했다가, 당시 한문을 알고 있는 오빠에게 문서를 가져가서 확인을 받는 혜안을 발휘하여 온전히 감나무 땅을 지킬 수 있었다. 하마터면 못된 심보의 이장에게 감나무 땅을 홀라당 빼앗길 판국이었다.

한문을 모르는 전 할머니였지만, 큰언니 덕에 풍족히 배워 두었던 오빠가 있었고,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전 할머니에게 큰 행운이었다. 아니, 더 나아가 시댁에 크나큰 행운

이고 복이었다.

또한, 전 할머니는 시누이도 미용을 배워 보라고 권하였고, 시동생도 기술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것 아니겠냐면서 산골 속 시댁 가족들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방향도 잡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산골 외딴 초가집 사람들에게 그 누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앞날을 걱정했었겠는가.

괴산의 한 산골 초가집. 복덩이 며느리가 굴러 들어왔음을 알린다.

한없이 주고 싶은 어머니이자 할머니

아들 둘. 1972년생 쥐띠, 1975년생 토끼띠.

1980년 시기에 천안 병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괴산의 산 대부분을 팔아 집을 하나 장만하고, 남은 자금으로 남편은 자전거포 가게를 개업하였다.

오일장이 열리는 이곳 장사가 꽤나 될 것 같았지만, 자전거포는 기존 대여섯 가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장사가 될 리 만무하였다. 산적 같은 얼굴의 남편 인상을 괜스레 탓하였다. 어려워지는 형편에

할머니는 제재소, 튀김 장사, 식당 일 등 할 수 있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일했다. 전 할머니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런 고된 일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핍한 삶이었지만, 친정에는 알리기 싫었다. 괜히 자존심이 상한 할머니만의 성향이다. 그러나 이 지역 할머니의 지인이 친오빠에게 전보를 부쳐 할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알렸고, 오빠는 음성에서 부리나케 이곳까지 찾아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한탄스러워 하였다.

오빠는 도와주려 했고, 할머니는 마다하였지만, 끝내 오빠의 도움을 이내 못 이겨냈고, 전병길 할머니는 작은 식당 하나를 개업하였다.

첫 줄에서 언급했던 두 아들을 이런 삶 속에서 키워냈다. 배우자는 곁에 없지만, 이제 여든이 넘은 엄마가 되었고, 두 명의 아들은 벌써 오십이 넘거나 오십을 채워 간다. 그리고 여든이 된 할머니 옆에는 20살 초반의 귀엽고 예쁜 손녀딸도 하나 있다.

지금도 한없이 주고 싶은 전 할머니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

하나뿐인 손녀와 아들 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바라는 그것.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이 금 선 (1939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우리 순복아 ~



송악 막내딸 순복이

우리(천안) 지역 바로 옆에는 아산시가 인접해 있다. 이곳 아산에서 자랑하는 전통적인 관광지 중에 '외암민속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이곳에서 막내딸 순복이가 1939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태어났다.

순복이 바로 위에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순복의 언니는 세 살 터울인 1936년생.

그리고, 순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915년, 1916년생으로 두 분은 서로 한 살 터울이다.

순복 가족의 공통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고 가정해 볼 만한 이야기를 뒤에 적어 보았다.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식민의 역사를 안고 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10년 8월 29일 시작된 국권 강탈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 만 35년간의 이 시기를 우리는 사회·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라고 칭하고 있다.

송악 막내딸 순복이와 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총 네 식구가 태어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태어나고 자라나다 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는 현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 순복이 부모님 동세대 선조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고, 어리고 젊은 청춘을 바치고, 결혼에 자손 번식에 육아까지,, 게다가 해방 후에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전쟁까지.. 이후의 피난 생활과 사회 복구, 가족의 돌봄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

조심스레 상상해 보지만,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고, 하물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숭고한 선조들의 희생과 고생스런 노고에 감사를 드려 마땅하다.

서두가 길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 적어 보았다. 그럼 다시 순복이 얘기로 돌아가 보자.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농사에만 전념했던 분이었다. 옆에 계신 어머니는 인자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다. 두 분 모두 모난 성격 하나 없는 분들이었다. 더군다나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밭일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품앗이도 하였다. 세 살 위인 큰언니는 똑 부러지고 똑똑했으며, 힘든 어머니를 많이 도왔다. 그렇지만 막내딸로 자라면서, 몸이 허약했던 순복이는 집에서도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다.

순복이네는 순복이와 언니뿐.. 남자 형제가 없었다. 즉,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당시로 보면 상대적으로 형제 수가 적은 편이기도 하다. 이유는 어머니는 볏가래 일을 하시다 떨어져서 몸을 좀 다쳤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아기를 갖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들을 꼭 낳아야만 했던 사회 시대였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동네에서 사별한 11살이나 어린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 어머니는 싫었지만, 이씨 집안 대를 잇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참고 또 참으셨다. 그렇게 2남 2녀를 갖게 되었고, 당시에는 익숙한 풍습이었던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는 귀여운 막내딸이 있는 집보다,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작은집 출입이 잦았다. 그곳에도 핏줄이 있으니 어쩌랴. 그렇게 잦은 출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혹여 순복이네 집에만 오면 작은집은 펄쩍 뛰었다. 그런 어린 순복이 눈에는 작은집이 좋아 보일 리가 없다. 아들을 중시하고 대를 잇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다.

순복이는 중학교를 입학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 몸이 허약했던 순복이는 힘이 부친 모양이었다. 물론 학교를 다닐만한 여유도 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 이유는 작은집에 찾아도 되지 않을까.)

소녀가 되어 버린 순복이는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다. 기차 타고 학원을 다녀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엔 취득하지 못하였다. 아쉬운 마음에 당시 온양백화점에서 심부름하는 일도 하면서 용돈 수준의 급여도 받았다. 10대 때의 순복이 인생은 이것이 전부였다. 당시의 또래 여자들 중에 중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여학생이 있다는 것은 진귀한 풍경이었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친다는 것은 고학력 여성으로 분류되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집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스무 살 초반의 막내 순복이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

재만이와 가족사랑

어머니와 순복이의 모녀 관계는 남달랐다. 애지중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 단순한 혈연으로 맺어진 모녀 관계라서가 아닌 그녀들의 밑바탕에는 인간적 · 가족적 사랑으로 가득하였다.

어린 순복이 시절의 이야기를 팔순이 훌쩍 넘어 버린 순복 할머니가 기억을 되살려본다. 인간애를 엿 볼수 있는 대목인데다가 당시의 궁핍한 사회상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옛날 당시 기차역에는 어린 거지들이 꽤나 많았다. 어머니께서는 쓰레기를 뒤적거리고 있는 어린 거지를 셋이나 송악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들을 깨끗이 씻기는 것은 물론, 먹이고, 입히고, 자식처럼 잘 돌아주었다. 기억에도 선명하게 남는 남자아이. 재만이라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재만이는 서산에서 왔는데, 재만의 형수가 어린 재만이를 학대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였다. 재만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과 형수랑 셋이 살았었던 모양새였다. 그렇게 집에 나와 기차역에서 배회를 할 때 어머니 눈에 띄었던 것이고, 그런 거지꼴의 재만을 데려와 순복의 집에서 어머니가 2년 동안을 정성껏 아들처럼 돌봐주었다.

그러던 중 동네 어느 한 도로변에 있는 서 있는 재만이를 누군가가 알아보고, 서산에 있는 친형한테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다. 친형은 재만이가 죽은 줄 알았다고 하고, 곧장 순복의 집에 찾아와 재만이를 데려가려 하였다. 재만이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엔 재만이는 형과 함께 순복이네 집을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는 2년 동안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만이 형의 손에 돈 봉투도 쥐여 주었다. 아마 재만의 형도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인정 깊은 어머니는 그렇게 재만이를 떠나보낸 뒤 눈물을 훔치셨다. 아마도 아들같이 대했던 재만의 빈자리가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순복이 아닌 순복 할머니라 불러야겠다. 현재의 할머니 또한 그런 친어머니와 많이 닮아 있다. 몇 해 전에 순복 할머니는 자신보다 연세가 더 있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너저분한 차림의 할머니는 마치 옛날 기차역에서 어머니가 데리고 왔던 재만이를 연상시켰다. 일단 깨끗하게 씻겼다. 자식들은 왜 저런 모르는 분을 집에 데리고 왔냐면 성화였다. 자식들도 이해는 된다. 시대가 급변하여 이제는 타인에 대한 동정도 색안경을 끼게 되

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이렇듯 순복 할머니는 사랑과 정으로 삶을 살아왔다. 친정어머니가 작고하실 때까지 어머니들 잘 돌봤고 그런 어머니도 순복 할머니와 여생을 보낸 것에 행복해하셨다.

이제 순복 할머니의 바람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뿐이다.

여든여섯의 순복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누굴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듯 집에 가는 길, 떠도는 고양이에게 시선을 보인다. 그리고 배고파 보이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거울 속 순복 할머니를 보면서, 비춰진 모습과 함께 어릴 적 재만이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구십을 바라보는 힘이 많이 부치는 자신을 보면서 말이다.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이 의 순 (1942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즐거운! 신나는! 인생을 즐겨요 ~



할머니의 시 '인생관'

'웃을 때라고 마음 놓지 말고,
울 때라고 낙심할 것 없다.
편안함을 바라거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즐거움이 부럽거든 괴로움을 사양치 말라.
진실함은 인생의 자본이요.
거짓함은 스스로 병세를 만들고,
불안한 기상은 집안을 쓸쓸하게 하나니,
못 참을 것을 참고 참어,
인생의 하루하루를 아무 깨우침 없이 살지어다.'

24살의 귀여운 막내딸이 청주 본집을 떠나 이곳 천안 타지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시댁 대문 벽 정 한가운데에 적어 놓은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시로 표현하였다.

이제는 팔십을 훌쩍 넘은 이의순 할머니를 표현하는 인생관이 무엇인지 할머니의 자작시를 시작으로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보려 한다.

청주사람

1942년 12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막내딸이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50마지기 정도의 큰 농사를 지었다. 이러한 가정상황 때문에 첫째 큰오빠는 어머니,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야만 했다. 첫째 큰오빠는 본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도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국민학교 시절, 졸업할 때까지 교내 전교 회장을 도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기,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계속 보내기는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둘째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진학시키고 배우게 하였다. 둘째 오빠도 유독 총명하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컸다.

그런데, 갑자기 6.25 전쟁이 발발하고, 집안이 어수선할 때쯤, 둘째 오빠가 북한군 포로로 끌려 가버린 것이다. 그때의 이의순 할머니 나이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다. 그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양철통을 가위로 잘라서 한글과 숫자를 가르쳐 준 기억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생생하다. 그런 와중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하여 학교를 더 이상 가지 못한 속상함도 컸지만, 둘째 오빠의 행방불명은 가족들을 비통하게 만들어 버렸다. 어머니는 매일 밤 청초수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으시고, 둘째 오빠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세월쯤.. 집 대문을 보니 아침부터 까치가 유독 시끄럽게 울어대는 날이었다.

담장 밖에 어느 건장한 청년이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오빠인 것이다. 자초지종을 물을 새도 없이 가족들은 둘째 오빠의 생존에 너무나 기쁜 마음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둘째 오빠는 한글도 배우지 못한 막내 여동생을 발견하고, 이내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근처 학교로 향하였다. 한글과 숫자는 배워야 한다면서... 오빠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의순 할머니는 한참 어린 친구들과 초등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졸업쯤에는 공부도 곧 잘하고, 흥미도 붙어 반에서 7등까지도 하였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었다. 그만큼 꿈도 야무진 소녀였으리라, 그렇지만 집안에서 여자는 어차피 일찍 결혼할 텐데 더 이상의 학교 교육이 무슨 필요냐면서 할머니의 의지를 꽃가지 꺾듯 꺾어 놓았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너무 서러워 선생님이 업고 집에 데려다 준 사실도 잊은 채 말이다.

즐거운 인생

아들은 셋.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모두 2살 터울이다. 딸을 갖고 싶었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주변 부부들보다 자녀를 적게 갖게 되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녀가 셋이면 애국을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셋이면 적은 편이었다. 당시에는 그랬다.

남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당시에는 조금 늦은 24살 나이에 남편을 중매로 만났다. 남편의 첫인상은 촌스러웠고, 키도 작았다, 할머니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도망치듯이 중매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내, 남편 쪽 가족들이 결혼해 달라고 양손을 무겁게 이것저것 들고 청주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니 할머니

숨이 턱 막히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주버니, 맏동서, 홀시어머니,, 고모들까지... 시댁살이 앞날이 옆에 있는 모두 타버린 장작처럼 어두컴컴하였다.

이의순 할머니는 청주 막내딸로서 그동안 스물넷 평생을 꽃같이 살아왔는데 말이다..

할머니의 최초 자작시 '인생관'이 이쯤에서 탄생하게 된다.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여러모로 힘들었던 그때, 할머니는 시를 한 편 적어내고, 시댁 대문에 붙여 시댁 식구들과 공유하였다. 그때의 그 시대를 거스르는 당찬 여자의 표본. 할머니의 평생을, 일생을, 잡아 준 인생관. 당시의 할머니는 멋진 여자였으리라.

시골의 고루한 형상의 남편에게 한마디 하였다. '농사꾼으로'만' 살아가는 배우자는 싫다. 농사도 지으면서 동네일을 돌보는 이장이라'도' 해 보라' 한 것을 시작으로 농촌 지도소에서 근무하고, 나아가 지역 농협에서 영농부장 업무까지 관할하였다. 그리하여 분소장도 맡았고, 나아가 지역의 한 농협의 조합장까지 출마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차이,, 3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이 시기, 할머니 일생일대의 상심이 말로 형언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위로와 격려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즐거운 인생을 위해 더 나아가기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인생을 영위해 나아갔다.

이것이 '만' 과 '도'의 큰 차이라고 여겨진다. 할머니의 그 시절 쉽지 않았던 배우자로서의 당찬 내조는 오늘날의 행복한 인생으로 귀결되었다.

팔십이 넘은 할머니 곁엔 아직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세 아들들은 모두 이 나라의 성공한 구성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눈에 넣어 아프지 않은 사랑스런 여섯의 손주들까지..

이의순 할머니의 당찬 근성은 오늘도 할머니를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매일 복지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1942년생의 할머니. 사실 이 한 줄의 표현이 할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할머니는 오늘도 힘차게 페달을 굴러 본다.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이 이 주 (1942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막내딸 할머니



목천 부자 이씨네

1942년 일제 강점기 시절, 목천 응원리 이씨네 집안에 막내딸이 태어났다.

이씨 집안은 목천에 첫째가는 부자였다. 밭과 논이 천 평이 넘었고, 몇몇 가축도 길러 인근에 있는 오일장에 내다 팔았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머슴이라고 불리는 집안일을 해 주는 일꾼이 있었는데 그 일꾼의 수만큼 당시 부자의 척도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존재한다. 회사의 규모를 봐서도 큰 기업일수록 직원들이 많지 않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이이주 할머니가 어릴 적 기억하는 부모와 오빠들의 기억은 이렇다.

'아버지는 학자였고, 똑똑하였지만, 고집이 강한 외골수 성향이었어요.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 사실 일은 어머니가 하셔서,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고, 생활력도 강한 분이셨어요. 사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아 있는 듯해요.'

그 어려웠던 시절, 아버지가 소를 우시장에 팔려고 시장을 다녀와야만 했는데, 소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산골(지역의 취암산 내지 작성산으로 유추)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소 판돈을 수중에 돈에 쥐고 집에 돌아오는 자락에서 어느 괴인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여 도망갔다고 한다. 그 괴인은 아버지가 집을 나서서 소를 끌고 시장으로 향할 때부터 미행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구타를 심하게 당한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 발견되어 다행히 집으로 돌아와 무사히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씨 집안 머슴 이야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머슴이라는 캐릭터가 나온다. 사실 머슴은 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내를 의미한다. 여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이이주 할머니 어릴 때 집안에 기거하던 머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단어. 머슴이라는 표현보다는 일꾼이라고 하겠다.

전라도에서 온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부유한 이씨 집안에 들어가 일정한 급여(주로 쌀로 제공)와 숙식을 제공 받았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딸이 둘이나 더 있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비슷한 또래의 일꾼부부의 딸 들 이름도 기억이 생생하였다. 일꾼 부부는 겨울 절기인 동지가 되면 일 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받는데 이를 새경이라고 불리운다.

이 일꾼 가족들은 새경을 당겨 받고, 하룻밤 사이에 어디론가 일가족이 도주를 해 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데, 아마 창고 안 쌀을 더 가져가서 그렇게 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술을 유독 좋아하는 중년의 일꾼도 한명 더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술상을 간 혹 술상을 차려 줄 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무너졌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부자집에서 일을 하고 새경(당시의 급여)을 받고, 삶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의 일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나 천민과는 다른 것으로, 양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국민학교 시절 이이주 할머니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고 국어나 사회 같은 인문계열 과목 성적이 좋았다. 그렇지만 수학은 별로였다. 그런 할머니에게 아버지는 중학교 진학을 권유했지만, 어린 할머니는 학교까지 가는 길목에 꼭 지나야 하는 서낭당 나무가 너무 무서워 중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였다.

결국에 부모가 딸을 이기지 못하였고, 학교를 가지 않은 할머니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다.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뭇 후회가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조카들을 돌보고 어머니와 올케언니와 소소한 일들을 하는 것이 행복했다고 한다. 사실 그 밑바탕에는 착하고 말 수 없는 어머니와 시집와서 고생하는 올케언니의 연민과 사랑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9살이 되던 여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집안은 둘로 나뉘어 피난을 떠났다. 부모님과 첫째 오빠는 어딘지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큰올케언니와 둘째 오빠와 이이주 할머니는 광덕에 계신 고모네로 피난길을 떠났다. 광덕산은 천안지역에서도 첩첩

산중이라 안심이 되어 갔지만, 그곳까지 북한군이 들이닥쳤다. 북한군은 그 당시 처녀들은 납치하고, 건장한 청년들은 무참히 총살하였다고 한다. 올케언니와 고모는 건장한 청년의 둘째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오빠(당시 고등학생 연령으로 추정)를 광덕산의 산골 중의 산골로 도망을 보내었다. 몇날 며칠을 고생한 그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훗날, 어렵게 도망친 둘째 오빠는 직업군인으로 군 시절을 보내고 전역 뒤, 경찰로서 퇴직을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이자, 사회적으로 훌륭한 공헌을 걸어온 오빠 같은 분이 계시다면, 어릴 적 한국 전쟁에서의 생존은 그의 가족과 우리 사회를 더욱더 빛나게 해 왔을 것이다.

늦은 결혼

'저 처자는 늦게 시집을 보내야 해. 그래야 잘 살어. 절대 일찍 시집을 보내서는 안 돼.'

어느 날, 젊은 처녀의 이이주 할머니는 집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절에서 오셨는지, 미상의 할머니께서 승복 차림으로 이이주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그렇게 느지막이 스물다섯이 지나 결혼을 하였다. 중매쟁이가 소개해 준 남편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키가 작고 눈썹은 진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허리도 구부정하니 자신 없는 모양새이다. '어휴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진짜 맘에 안 드네..' 할머니는 속으로 애간장을 태웠다. 중매쟁이는 남자 쪽은 형제가 3남매라고 했고, 논도 여섯 마지기를 소유한다고 했지만, 막상 집안에 가 보니 형제는 6남매였고, 땅도 나라 땅이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뿐이었다.

결국엔 친정 식구들이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여 1달 만에 약혼하고, 첫날밤에 첫째가 생겼다. 첫째를 낳고 한 달 만에,, 그리고 재산도 딱히 없었기에, 강원도 정선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린 자식들을 돌보았다. 남편은 7년 동안 탄광에서 일하였고, 고기잡이배 일도 하면서 삶을 어렵사리 이어 나갔다. 이런 삶의 급격한 변화에 이이주 할머니는 인내를 갖고, 이내 받아들였을 것이다.

10년에 가까운 강원의 삶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천안 병천에서 남편은 연장 가방을 필

두로 봄에 나가면 겨울에 돌아왔다. 건축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돈은 벌어왔지만, 술을 좋아했다. 그래서 생활비는 이이주 할머니가 벌어야 했다. 할머니는 속상하였지만 2남2녀의 어린 자식들을 마주하자니, 이대로 손놓고 남편의 벌이만 기다리면 안 됐다. 이렇게 안 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직산 고추장 제조 공자, 풍세 남관리의 제약공장, 세종의 소정리 맛살 공장, 동면의 빵 공장, 연수원의 식당 일.. 배운 건 없지만, 강한 생활력을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걸까,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냈다.

게다가 팔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할머니는 근처 복지관에서 아직도 공공근로를 하신다. 할머니를 빼놓으면 할머니는 복지관에 호통을 친다.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목천의 부잣집 귀여운 막내딸이 어느덧 팔순이 넘었다. 딸에서 어머니가 된 수십 년 전의 그 순간, 할머니의 악착같은 삶은 그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 순간 아직도 자녀들의 걱정만 앞선다.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박 봉 연 (1938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산골소녀, 봉연



산골 소녀, 봉연

충청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박봉연 할머니의 말투에는 경상도 억양이 묻어난다.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 영천군. 산골 마을 속 할머니는 어쩌다 이렇게 먼 충청남도 천안까지 오게 된 걸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었던 극빈의 시기였고, 그 옛 시절의 대다수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은 인근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중매를 통한 혼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박 할머니의 영천 산골인 경상북도에서 충청남도까지는 멀어도 너무 멀다. 이 이야기는 후에 다시 해 보고자 한다.

1938년, 할머니는 외동딸로 산골에서 출생하였다. (아마 1934년~1935년 정도에 출생한 걸로 추정.)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 걸로 보니, 아마 박봉연 할머니를 낳으시고 얼마되지 않아 모친께서는 하늘로 가셨을 것으로 추측된다. 친할머니의 손에 자라온 산골 소녀는 할머니께 엄마에 대한 물음에도 친조모께서는 박 할머니에게 굳이 답변을 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박봉연 할머니는 외동딸로서 아버지, 할머니, 삼촌 2명, 고모 1명 이렇게 6명의 구성하여 가족을 이루고 영천의 한 산골에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당시 기준으로 다른 집보다는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편이었고, 산골에서의 거주하는 것치고는 삼시세끼는 잘 챙겨 먹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침에는 보리쌀을 삶아 짓이겨서 죽을 만들어 먹고, 배추와 상추를 겉절이로 해서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크게 배고픈 기억이 없이 먹는 건 잘 먹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가족들의 삶

박봉연 할머니 가족들의 삶에는 시대상을 담고 있다. 특히 친할머니의 삶은 조금은 독특하고 생소하다. 그 이유는 친조모의 일생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온전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친할머니는 슬하에 10남매를 두었다고 한다. 4명의 아들, 6명의 자매로 기억을 하는데, 친할머니의 딸들은 일본사람 혹은 중국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중 일본사람이

자 사위가 된 한 명은 해방이 된 후에 일본으로 가기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산, 밭, 논등의 재산을 처가에 대부분 주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박봉연 할머니는 한마디로 착한 일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러한 재산을 기반 삼아 산골 소녀는 나름 배고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친할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봉연 할머니의 친부는 7살 때부터 지게를 메었다. 친부는 약주도 하지 않는 얌전한 사람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거친 산골을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운이 나쁘게도 가시에 발이 찔려 발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 대목에서도 착한 일본 사위가 등장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박 할머니 친부의 썩어가는 발을 치료해 주고 돌봐준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는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사람들은 온전히 본국으로 복귀하지 않았거나, 다시 우리나라로 배를 타고 들어왔었던 사례도 있었던 모양이다.

흔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일본 사람에 대한 시선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산골에서 대구로

산골 소녀의 10대 시절은 영천이 아닌 대구였다. 집안 당숙이 대구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영천 산골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구로 이사를 하였다. 박봉연 할머니의 소녀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자신의 나이가 15-16살 때라고 한다.

지금의 중고등학교생의 나이인 그 시절 여자들이 대부분 취직할 수 있는 곳은 공장과 같은 직장이었다. 그리하여, 박 할머니는 대구의 베 짜는 공장에 입사하였다. 베 짜는 작업은.. 실을 빼서, 물레에 걸어서, 풀을 먹이고, 감아서 작업을 한다고 한다. 사실 머릿속 에 잘 그려지지는 않는다.

사실 이곳 대구에서의 직장생활이 중요하다. 박 할머니의 반쪽을 만났기 때문이다. 반려자인 할아버지는 친어머니가 계셨는데 한국전쟁 통에 이북으로 올라가셨다고 한다. 사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아버지는 부모가 없는 혼자나 다름이 없었다. 할아버지에겐 박봉연 할머니만 있는 것이다.

마땅히 대구에서 터를 못 잡았고, 다른 곳을 가기로 하였다. 그곳은 외가댁. 할아버지의

외갓집이 지금의 충북 진천 어디쯤이었다.

할아버지는 어찌어찌하여 천안 병천이라는 곳에 드디어 터를 잡고 할머니와 자손들을 키워냈다.

사실 할아버지는 10대의 나이에 이미 군대를 가고 싶어 했다. 물론 그 이유는 먹고 살려는 생존본능 때문이다. 제일 어린 나이로 군대를 갔고 한국 전쟁터에 나가 전장에도 참가하였다. 할아버지는 총알에 맞은 죽은 시신 곁에 날이 샐 때까지 자는 척을 했다고 한다. 전쟁은 참혹했고, 수많은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다시 정신을 차려 도망가려 하니, 다리에 파편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피가 흥건하고 까무러칠 지경이었지만, 다행히 구조되어 제주도로 넘어가 일단 전쟁 통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 전쟁 시에 부산과 제주도만 북한군의 공격에 닿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전이 된 후에는 할아버지는 전역증을 잃어버렸다. 사실 국가유공자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분실한 것이다. 전역증을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닌, 사실 집안 가족들이 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족들 누구도 나서지를 않아서 할머니는 조금 안타까운 내색을 보이셨다.

악으로, 깡으로,

박봉연 할머니는 슬하에 2남 2녀 사남매를 두었다. 현재는 막내아들과 동거 중이다. 그 위로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늘로 보낸 지는 꽤 오래되었다. 사실 그 아들이 할머니를 제일 닮아 있다고 말씀하신다.

할아버지는 일터에 나가 돈을 버는 족족 술만 사드시니 할머니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말이다.

당시 알로에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근처에 알로에 키우는 농가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양육하였다. 생활비도 안 주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악으로 깡으로 그저 버텼다. 수십 년 동안의 이런 생활은 할머니에게 요즘 사회의 풍토와 닮아 있는 견해를 낸다. 결혼을 왜 하느냐,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은 안 할 것이라고 한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자손과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너무 기뻤지만, 그래도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첫째라고 자부한다.

90세가 가까워지는 할머니의 고된 삶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 가슴 한편이 조금은 먹먹해졌다.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주 영 자 (1936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 2로

한약방 집 막내 손녀



한약방 집 막내 손녀

일제강점기 시절의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석촌리는 주씨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주영자 할머니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석촌리 지역에서 집성촌이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할아버지 때문에 한약방집 막내손녀 언년이(아마도 주영자 할머니를 부르던 유아시절 이름으로 추정)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장터에 나가면 빨간구두를 신고 옷을 예쁘게 입었던 여자아이는 언년이였던 주영자 할머니 하나였기 때문이다.

막내 손녀를 너무나 예뻐해주던 할아버지는 독학으로 공부하시어 한약방을 운영하였고, 집안의 가세를 키워 나가신 분으로 보였다. 조부외의 가족구성원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셋에 남동생은 둘이었다.

독학으로 약방을 차린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도 머리가 좋았고 공부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 시절 대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시절이었지만, 한약방집 주씨집안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연희전문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연희전문학교는 현재의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를 말한다.

주영자 할머니는 원래 1933년도에 출생하였다. 그렇지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생신고를 미루고 미루다가, 바로 밑 남동생이 1937년도에 태어났다. 남동생을 갖은 그해 1년 전, 1936년도에 언년이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할머니 위에 언니가 세 명이나 있는 사실은 언년이의 출생신고를 더디게 만든 이유로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싶다.

석촌리의 집은 컸다. 방도 많았고, 마당도 넓었으며, 일꾼들이 숙식을 마련한 공간까지 충분하였다.

이런 집에서 언년이는 부모님손길 보다는 조부모의 손길을 받아 자라왔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만주지역에 있는 학교로 일자리를 찾아 가셨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만주까지 가신 이유는 사실 멀리 찾을 것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고, 제국주의 통치의 일부였던 황국신민이라는 민족말살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인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언년이는 국민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선생이 가르쳐주는 일본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어린 시절 언년이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저 엄마아빠가 보고 싶은 어린아이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여 보자면, 언년이의 부모님은 만주까지 가셔서 더욱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셨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빼앗긴 국가의 주권을 찾으려 노력하는 광복과 독립을 위한 일. 그런 일 말이다.

쌀밥만 먹어온 며느리

23년을 살아오면서 삼시세끼를 쌀밥, 고기, 생선 등 자주 먹었다. 보리밥은 구경도 못하였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다.

지금의 이야기는 현재의 2024년도 이야기가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0년~1940년대 생활상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언년이의 이야기이다. 어린 언년이는 쌀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줄 만 알았다. 곳간을 보면 쌀은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가 생선을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만주에서 다시 돌아와 동네 면서기 일을 맡았다. 물론 아버지의 학력으로는 더 큰일을 하실 분이었지만, 이런 아버지가 동네 면서기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흡족하지는 않았다. 사실 할아버님 심경도 이해는 된다.

아버지는 일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근처 도축장에서 꼭 갖가지 고기를 들고 오셨다. 어린 언년이는 할아버지의 생선, 아버지의 고기, 가득 찬 곳간 안의 쌀가마니..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듯 보였고, 그렇게 자라왔다.

그렇게 학생시절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주영자 할머니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의 모친께서는 딸들에게 농사일 한번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언니들이 모두 혼사를 마친 후에, 주영자 할머니도 중매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여, 24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댁을 가니,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누이만 세 명 이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계셨다. 시댁도 일꾼을 둘 정도의 넉넉한 집안이긴 하였다. 그렇지만 한약방 집 친정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일꾼들도 일을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밭일을 하는 것이었다. 남편만 일을 하지 않았다. 물론 친정식구의 남동생처럼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라고 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영자 할머니는 이때 처음 보리밥을 먹어봤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밭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였다고 토로한다. 스물네 평생 한번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게다가 밥을 할 때면 시어머니가 보리쌀을 제대로 못 씻어서 밥맛이 없다고 구박을 하고, 시누이들과의 솜씨를 차별하면서 면박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아흔이 훌쩍 넘은 꽃 같은 주씨 집안 막내딸 언년이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시집살이 추억이다.

포도밭과 복지관

천안 입장과 성거지역은 예전부터 포도가 유명한 지역이다. 흔히들 말하는 입장 거봉포도가 특산품이다.

주영자 할머니의 남편은 노동(일)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연구와 탐구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듯 보였다. 성거지역에서 처음으로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60년~1970년대로 추정된다. 포도농사를 5천평 정도 시작을 하였다. 남편은 애주가였기 때문에, 술만 마시면 농사일에는 조금 소홀하였다. 물론 평상시에는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포도밭을 일구면서 돈은 넉넉하게 벌었다고 한다. 포도밭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주영자 할머니는 성거의 포도밭을 업성동 지역으로 옮겼고, 더 나아가 북면으로 까지 이사하게 되었다. 내막을 얘기하자면 속상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려 한다. 북면지역에서 다시 지금의 집터로 오게 되었다. 사실 입장과 병천지역은 천안지도에서 보자면 끝과 끝이다. 그렇게 주영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현재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

주영자 할머니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깨어있는 사고를 지녔다.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다니시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신다.(예: 복지관 사업 중 공공근로 활동)

현재 최고령 어르신이라고 하신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니, 귀도 밝으시고, 시력도 좋으시다. 주영자 할머니의 건강을 기대하며 나아가 백수잔치도 기대해 본다.

여대생 그리고

92세의 주영자 할머니께 여쭈었다.

'지금 시대에 다시 태어나시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신다.

학교(캠퍼스)를 누비는 '여대생이 되어보고 싶다'고 말이다.

여섯 번째 인터뷰를 마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우리 할머니들의 꿈과 소망은 왜 이리도 작고 소박한 것일까,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김 태 인 (1940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항아리 속 담긴 사연



항아리 속 담긴 사연

김태인 할머니는 4층 꼭대기 층인 상가 건물에 혼자 살고 계신다.

물론 4층은 할머니께서 거주하는 집이고, 나머지 층들은 상가로 활용, 월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지역 내, 면 단위 위치한 상가 건물이라 건물 임대료가 엄청난 수준은 아닐 것이다.

할머니의 배우자였던 할아버지께서는 약 6-7년 전에 작고하셨다. 그래서 이 집 건물은 마치 혼자 남겨질 할머니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할아버지의 선물과 같아 보인다.

할머니는 짝꿍이 떠난 뒤로 외로움이 부쩍 늘어만 갔다.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 손주들이 주기적으로 할머니 댁을 찾는다. 할머니의 건강한 정서 유지를 위하여 가족들이 온 힘을 합친다. 보기 좋다.

사소하지만, 큰아들의 빠짐없는 하루 한 통의 전화 목소리는 할머니의 작지만 큰 활력소가 된다.

김태인 할머니는 용돈을 받기보다는 자식,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할머니이다. 주는 것이 좋다는 할머니.

게다가 현재 건강 상태도 그 어떤 노인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른바, 짱짱한 김태인 할머니는 지금의 건강함을 유지하지 위해서 인근 복지관을 다니면서 신체적, 정서적 활력 증진에도 스스로 노력할 줄 아는 분이다.

작은 체구에도 왜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이 오늘날의 할머니로 만들었던 것일까,

어느 날, 할머니 댁을 찾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말한다.

자녀들의 시선은 수많은 항아리에 가 있다.

‘어머니, 이거 다 치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치우니~ 그냥 두어라~’

‘.....’

더 말을 이어가고 싶지만, 이내 그냥 마음으로만 머금어 본다.

할머니와의 인생을 함께한 항아리들은 색상만 조금 바래져 있을 뿐, 형태는 큰 변함이 없다.

항아리 안에 김치를 담갔었던 할머니는 많이 늙고, 그 김치를 먹으면서 자라나던 어린 4

남매의 자식들도 같이 늙어가고 있다.

세월이 지난 그 항아리 표면에는 큰 변함은 없지만, 어두운 항아리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며 옛 기억을 회상한다. 저 수많은 항아리 속에 담긴 사연과 세월들을..

오창 한고개

1940년, 오창읍 한고개라는 지역에서 김태인 할머니는 김씨 집안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에, 오빠-언니-나-남동생-그 밑으로 여동생 셋까지 총 7남매. 아버지는 집안의 종답 토지로 농사를 지으시고, 외양간의 소 사육에도 열심히였다.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께서는 잘 도와주셨다. 할머니의 어머님은 마흔한 살쯤, 아마 막둥이를 가졌다가 애기가 잘못되면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바람에 할머니와 바로 위 언니는 국민학교도 가지 못한 채 동생들 뒷바라지와 아버지 일을 도와야만 했다.

집안에서는 오빠는 장손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 애를 썼다. 큰오빠는 18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하였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오빠는 청주대학교까지 진학하였기 때문에 집안에는 오빠보다는 올케언니가 살림살이와 육아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김태인 할머니의 기억에는 큰올케 언니의 고생이 기억이 아직도 아련하다.

그리고 남동생 이하 여동생 셋도 모두 초등교육을 이상을 받게 하였다. 어린 김태인 할머니는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싶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다. 사실, 속으로는 주변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었다. 10대 이른바 청소년 사춘기 시절이 그렇게 엄마 노릇을 하면서 흘러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

이 시절 또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시기였기에 어렸던 할머니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았다.

노란 군복 바탕에 빨간색 무늬의 일본 군인의 공포스러움, 어두운 피난길을 멋모르고 따라가고, 어둡고 포악했었던 한국 전쟁 통에 엿보았던 북한군의 잔인함 등이 어린 기억이 노년이 되어 버린 할머니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시댁의 열다섯 식구

결혼은 조금 늦은 나이인 24살 때 하게 되었다. 물론 만남의 형태는 중매이다.

남편은 한 살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동면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충북 오창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마당에서 가마를 타고 나와 결혼을 하여 시댁을 가 보았다. 시부모님부터 가족 인원들 살펴보니.. 하나, 둘...열..열다섯..? 이나 된다.

할머니 머릿속이 순간 캄캄해진다...

아침밥을 하려고, 보리쌀을 짓이겨서 씻어내고, 가마솥에 밥을 한다. 엄청난 양을 한 거 같은데, 벌써 솥 바닥이 보인다. 허기를 달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 조금 하니 점심때가 왔다. 또 열다섯이 먹을 밥을 한다. 또 먹고, 치우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저녁 준비를... 그리고 다시,, 치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면,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진다. 자, 다시 아침이 시작이다.

김태인 할머니는 도망가고 싶지만, 핏덩이 같은 자식들이 할머니를 말똥말똥 쳐다보고만 있다.

할머니는 그렇게 힘든 나날을 익숙함으로 견디었다. 담배 농사부터 해서 자전거포, 하숙집 일까지 할머니는 그렇게 자식들을 보면서 살아오셨다.

할머니에겐 사남매가 있지만 유독 큰 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조금 먹먹해진다. 사실 할머니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오신 보릿고개 시절처럼 아들을 먼저 챙기지는 않았지만, 첫째로서, 딸로서, 희생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맙고 대견하다고 한다. 하숙집 할 때도 중학생이었던 첫째가 항상 도와줬던 점, 남동생들을 먼저 챙겼던 점, 고생하는 엄마 덜 고생하라고 매번 도와주었던 기억들.. 아직도 엄마를 부둥켜 울고 돈도 필요 없다는 그런 딸이다. 할머니는 그런 기억에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분이었다.

그저 학교를, 그저 돈을,

4층 집에서 아들이 항아리를 응시하며 할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한다.

'어머니는 예전에 그 김치 통을 다 짊어 메고 어떻게 서울 집까지 오셨던 거예요? 하하;;'

태인 할머니, 같이 항아리를 응시하고, 또한 회상하며 대답하신다.

'글쎄다~그때는 어떻게 간 건지.. 지금은 가라고 해도 복잡해서 못 간다~'

87세의 김태인 할머니께 여쭈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에 대해서 말이다.

'할머니, 지금 시대에 다시 태어나시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학교 다녀서 이것저것 배워 보고 싶어~ 그리고 취직해서 돈 벌어 보고 싶고~'

다시 재차 세부적으로 여쭈었더니,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무엇을 콕 찍어서 배우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해 보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서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작은 바람일 뿐인 것이다.

편의주의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회 구성원들이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나약한 생각이 얼마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구십이 다 되어가는 태인 할머니를 보면서 말이다.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동남구

1930~40년대에 출생한 여자로서의
'우리 할머니들의 생애 이야기'

박 준 애 (1938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2길

방앗간과 모시 길쌈



방앗간과 모시 길쌈

박준애 할머니는 현재 홀로 정원이 잘 꾸며진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신다.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에서 할머니는 방앗간집 첫째 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신을 포함한 8남매까지, 12식구가 모여 살았다.

일제 강점기 시절, 박씨 집안의 형편은 꽤나 유복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방앗간을 운영하셨다. 당신께서는 방앗간 주변 밖에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하는 방앗간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물론 그만큼 가게의 수입은 늘어났다. 물론 당시에는 화폐라는 가치의 개념이 중요시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된 거래의 비용은 쌀을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집안의 넓은 농지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일꾼을 둘이나 두고 경작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직접 농사일에는 관여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린 박준애 할머니 기억에는 당시의 방아를 찧는 발동기라는 기계의 움직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래서 팔과 몸동작으로 표현해 보기도 한다. 인자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넉넉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모시길쌈을 하시면서 집안의 살림살이를 더욱 더 넓혀 가시는 분이었다. 한마디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주어진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그런 집안에서 큰딸로 자란 박준애 할머니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집안 마루에서 일본 군인(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아버지는 저항없이 끌려갔고, 어머니께서는 흐느끼면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아버지는 9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고,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을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일본으로 끌려가 탄광 노동을 강제적으로 하고 오신 것이다. 얼마나 고생을 하였으면 미남이었던 그 얼굴은 살이 빠지고 시커멓게 혈색도 어두웠다. 물론 강제 노역을 하고 온 것이라, 9개월간의 노동의 댓가를 받았을 리 만무하였다. 어린 시절이라 집으로 돌아오신 사연은 상세하기 기억나지 않았으나, 하나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였다. 아버지께서 들고 오신 나무상자는 또렷하다. 그 안에는 밀감이 들어 있었다.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우리 팔남매들이 하나씩 잡고 먹어봤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해 빠진 과일이지만, 넉넉한 형편의

박씨 집안에서도 밀감은 정말이지 구십이 다 되어 가는 박준애 할머니의 기억과 미각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고무신은 없었고, 나무신발과 짚신을 신고 10리나 떨어진 국민학교를 다녔다. 학교는 재미있었다. 운동회, 학예회, 연극 같은 것들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박준애 할머니는 노래를 곧잘 부른다는 주변의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한국전쟁이 터졌다. 동네 확성기에서는 30리 밖으로 피난을 가라고 떠들어 댔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난리가 났다. 그래서 산골 저수지 쪽에 사는 먼 친척집에 가족들을 의지하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남침을 자행한 북한군의 참혹한 행위들을 회상하면, 전쟁의 아픔은 미간을 주름지게 한다. 젊은 남자들에게 방공호를 파게하고, 그들을 전부를 구덩이 안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죽였다고 한다. 또한 지역의 유지(부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재산을 뺏기 위함일 것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아픔을 겪은 할머니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참혹한 동존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박준애 할머니는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채로, 첫째로서 동생들을 챙겼다. 어머니를 도와 모시 길쌈도 배우다 보니, 어느덧 어머니보다도 잘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동생들 밥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무거운 물 지게질도 하였다. 여자치고는 힘도 조금 센 편이고 억척스러운 면이 있었다.

지금시대였으면 귀여운 중학생~고등학생 시절이 그렇게 할머니의 힘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종갓집

꽃다운 스무살이라고 하지 않던가,

박준애 할머니에게도 스무살이 있었다. 꽃다운 나이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지금의 성균관 대학(법학전공)을 다니고 있었고, 대학을 다닐 정도였었기에 시댁 형편도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남편을 소개하자면 고생을 전혀 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대종가집의 누나만 다섯을 둔 외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의 연세는 육십, 시아버지는 오십팔.. 시댁에서는 딸만

낳다가 귀하게 얻은 아들.. 그가 바로 남편. 게다가 대종가집. 꽃다운 박준애 할머니의 고생길이 열리는 순간이다.

시댁은 대대로 다수의 학자출신이 내력인 집안이었다.

집안의 특색은 고스란히,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제사만 열한번이다. 물론 명절의 차례는 별도이다. 제사는 생활이고, 생활은 제사의 준비와 마무리이다. 어떠한 달에는 한 달에 두 번이나 제사 준비를 해야 한다. 집안 여자는 시어머니와 박준애 할머니뿐이다. 일손이 부족하기에 그때 마다 제사 준비를 하는 일꾼을 둘 정도이다.

꽃답고 멋모르는 나이에 시집을 와서, 힘들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지금의 세상과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건강하게, 순탄하게, 의롭게, 부끄럼 없이,

박준애 할머니께 구십 평생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었냐고 여쭈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있을까.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금이라고 대답하면서 가벼운 웃음을 머금고 있는 표정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항상 자손들 걱정이 앞서는 할머니는 건강하게, 순탄하게, 싸우지 않고 의좋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바라는 게 없다고 한다.

할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느껴져 온다.

<인터뷰어 김재열, 스토리텔러 김재열>



천안시 서북구

|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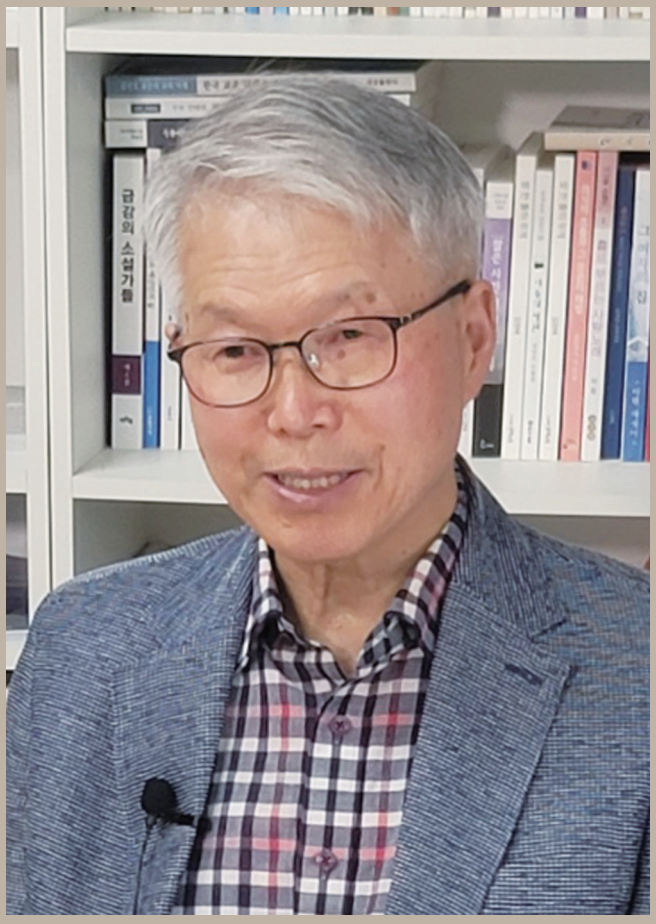
우리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설화연구가 52
천안에 음악을 더하다, 팔색조 음악인 59
천안의 소리를 찾아 온 열정 불사르는 국악인 66
동심을 사로잡는 할머니 작가 73
평론을 통한 문학 생명력, 그 매개자로 한평생 79
수묵화에 평생을 기울인 한국화 작가 87
감성을 렌즈에 담는 작가 93
문화재청 퇴임 후 귀향한 고궁연구가 102
향토문화와 문화원 발전에 헌신해 온 산증인 108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김 기 창 (1948년생)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41

우리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설화연구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구비문학을 전공한 학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백석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구비문학의 권위자인 김기창 교수를 모신 것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으로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학자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몸소 구술, 채록한 천안의 전설 70여 편을 모은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는 명저, 『천안의 전설 여행』을 펴낸 바 있기에 이런 생각이 든다. 또한, 유관순연구소의 책임연구원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이룬 업적도 대단하다. 유관순이야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천안의 대표 인물인데, 유 열사 애국 정신의 현창 사업에 기여한 공적도 의미가 크다. 그런 김 교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시간 반 동안은, 실로 흥미를 동반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시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서울교대로 진학

김 교수의 고향은 충남의 알프스로 일컬어지는 청정 자연의 고장이자, 고추와 구기자의 명산지인 청양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고향 마을 인근에는 집성촌이 있었다. 최근에는 청양의 인구가 3만 명 선이 무너진 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애향심을 표현하였다.

조부의 함자는 金東勳 님, 부친은 金午煥 님. 부친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첫 민선 청양군축산협동조합장으로 일하셨다. 모친 趙玉星 님과의 사이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께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영향으로 김 교수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 예전의 시골 생활은 샘(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시험 기간이면 공부 시간을 더 갖게 하시려고 대야에 물을 담아 마루 위에 놓아주었다.

당시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린 김기창에게 "너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진로와 직업을 결정해 준 셈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공주사범병설중학교로 진학했다. 그런데 그해 학제 개편으로 서울에 2년제 교육대학이 생겨 비싼 하숙비를 내며 공주에서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2학년 때 청양중학교로 전학하고 청양농고로 학업을 이어갔다. 가정 형편상 취직이 보장되고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국립이라 학비가 들지 않는 서울교육대학에 입학했다.

초등(당시 국민학교) 교사로 출발, 청양의 자랑이 된 김기창 교수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가 가장 즐거운 교직 황금기였다고 회상하는 김 교수는 사모님과의 재미있는 인연도 들려주었다. 어느 수업 시간에 급사가 교실로 찾아와, 교장 선생님께서 찾는다고 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부르실까 하며 바쁜 걸음으로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시지 않고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더 긴장이 되어, 왜 부르셨느냐고 묻지도 못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고 하시는 말씀은 "4학년 2반, 오 선생 어떠세요?" 얼른 이해를 못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결혼 상대자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이었다. 물론 즉석에서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러자 "어른들이 사람 볼 줄은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잘 해보세요."라고 했던 일이 결혼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전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다.

결혼 후 향학열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에 야간대학에 국문과가 설치된 곳은 두 대학뿐이었다. 그중 국제대학은 야간 서울대학교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모집인원이 매우 적고 지원자는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당당히 합격했지만,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3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을 거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사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업을 이어갔지만, 박사과정 공부는 도무지 불가능했다. 당시 초등학교는 담임이 전 교과를 담당해서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수업을 한 요일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중등학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꿈을 펼치라는 주위의 많은 권유를 물리치고 중등학교로 옮겼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학위과정에서 오직 직장 일과 책밖에 몰랐던 것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점이다. 어린 두 아들과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것은 김 교수가 여러 면에서 훌륭하고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변곡점이 되었다. 이것은 김 교수를 존경한다는 고향 후배, 고종원 교수의 <자랑스러운 청양인 김기창 박사>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구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백석대 교수로 부임

김 교수는 1991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4년 백석대학교 개교와 함께 교수로 부임하며 천안에 정착하였다. 대학 진학과 함께 매우 오

랜 기간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을 따라 내려온 천안이지만, 이제 31년째 천안에서 살고 있으니 완전한 천안 사람이 된 셈이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지도하며 역점을 두었던 점은 '타고난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뿐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 이를 잘 계발하자'는 것이다. 예술중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어떤 학생이 자기의 전공 악기 외엔 다른 수업에 소홀해서 장래를 걱정한 적이 있는데, 나중엔 그가 S대 교수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예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열정을 다한 만큼 잊을 수 없는 제자도 많다. 예술중고등학교에 오래 근무했기에 예술인들도 많은데, 특히 작곡가 성용원, 피아니스트 박종화, 이주혜, 저술가 황성혜, 화가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어느 해 졸업생 중에서 의학박사 김유진, 김인수, 김원우 등 6명의 의사가 나왔는데, 한 반에서 그런 기록이 또 있을까 싶다. 지금도 그 제자들 모임에 초대를 받곤 하는데, "은사님의 건강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 하여 고맙고 교직에 몸을 담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퇴직 후 초빙교수로 일한 튀르키예의 제자 몇 명은 박사학위를 받아 그 나라 몇 군데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하였다.

튀르키예에서 생활한 4년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부인께서도 대학원을 졸업했기에 김 교수를 초빙한 대학의 전임 교수로 근무를 하며 대학 1, 2학년생의 한국어 기초를 가르쳤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 나라는 우리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나라여서 다니는 곳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한일월드컵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피를 나눈 형제로 인식한다.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한국인인 것을 알고 매우 반가워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과를 대접하는 정도이다.

김 교수의 교직 경력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하다. 초등 교사로 시작하여 중등학교까지의 경력이 25년, 백석대학교 20년, 튀르키예 에르지예스대학교 4년 등 도합 49년의 경력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정년퇴임 후에 명예교수로 강의하는 기간을 정식 경력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계산이지 않겠는가.

퇴임하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날을 회고하며 느끼는 소회를 여쭈었다. 49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들이 사회 요소요소에서 크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해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다.

주로 설화를 연구하며 현장 구술 채록을 병행

국문학을 전공하며 특별히 구비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전래동화와 큰어머니의 청양 전설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무학인 종조부께서 시장에서 구입한 고전소설을 읽어달라고 했던 일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구비문학의 매력을 양파로 설명한다. 거칠어 보이는 겉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보이는데, 향긋한 맛은 '흥미'로, 가득한 영양소는 '교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로마의 서사시인 Lucretius의 당의정설(糖衣錠說)로 설명한다.

전공과 관련해서 특별히 공부한 내용은 전설이다. 연구 활동과 함께 현장에 나가 열심히 전설을 채록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고향인 청양은 물론, 30년 동안 살아온 천안, 기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한 점은 어려운 절차를 거쳐,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인 안성의 하나원에 가서 북한 지역의 많은 전설에 대한 구술, 채록을 하여 책으로 펴냈고, 튀르키예에서 거주했던 4년 동안에 그곳 민담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터키 민담 켈올란 이야기』를 펴냈다. 지금까지 출간된 책과 연구서가 무려 30여 권이다.

천안 시민로서 특별히 고마운 것은 『천안의 전설 여행』을 발간한 일이다. 이 책은 천안시 승격 50주년을 축하하고 교수 정년 퇴임 기념으로 펴낸 것으로, 3년여 동안 천안의 전설 현장 90여 곳을 답사하여 현지인의 구술을 정리하고 사진을 넣어 출판했다. 사진은 그의 부인께서 직접 촬영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서 활용도를 높였다. 지금은 많은 시민이 이 책을 읽고 가족 단위로 천안의 전설 답사를 하고 있다.

한편, 천안의 전설을 소재로 많은 강의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 각급 학교, 아카데미, 연구 단체 등의 요청으로 수차 천안의 전설에 대한 강의를 했다. 오전에는 강의를, 오후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백석대가 설립한 〈유관순 연구소〉에서의 연구 활동

유관순 열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시절, 고향에서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그 때의 큰 슬픔이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 점이다. 백석대가 2000년에 유관순 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유 열사가 천안 출신 인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애국운동을 펼쳤고, 백석대가 미션 스쿨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 교수가 책임연구원, 소장을 맡으면

서 13년 동안 펼쳐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1)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 수립 : 2002년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기본 계획> 을 수립하여 유관순 열사 애국애족 정신, 현창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음.

(2) <유관순 학교>를 운영 : 2003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천안 시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유관순 학교>를 운영했음. 유관순 열사 특강, 천안 역사 탐방 특강, 역할극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킴.

(3) 유관순 전기집 발간 : 유관순 생애를 각종 문헌과 생존자의 증언 등을 통해 사실에 맞게 정리하여 새로운 유관순 전기집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4) 국어 교과서에 수록 : 유 열사의 삶을 복원하고 생애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사실에 맞게 만들어진 전기문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데 큰 역할을 했음.

(5) 유관순 전기집 번역 발간 : 유관순 전기『유관순 이야기』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하여 세계 100여 곳의 대학 도서관, 한국 공관, 문화원에 기증하였음.

그 외에도 정부가 유 열사에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최고 등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새로 추서하는데 일익을 담당함.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드렸다. 요즈음은 여행, 에세이 쓰기, 글쓰기 지도, 명심보감 강의, Park Golf, 하모니카 연주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앞으로의 소망은 천안 지역 전설의 현장을 잘 보전하고 전설을 널리 알려 애향심과 충효 사상을 높이는 일이다. 천안 지역의 전설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티투어와 함께 정규 코스로 넣어 운영하거나, 별도로 초 · 중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안 전설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전설이 관광 자원과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손들에게는 조상에 대한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겸손한 마무리 말씀을 남기셨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를 과대평가해 주시고 이런 자

리에 앉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훌륭한 점이 너무 많은 김기창 교수의 말씀을 듣고, 지면 사정으로 그런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음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인터뷰어 김세관, 스토리텔러 김세관>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안 수 영 (1952년생)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41

천안에 음악을 더하다, 팔색조 음악인



늘 새로움을 쫓는 우리 시대, 장르와 장르 간의 통합과 새로운 양식의 예술세계를 통해 예술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때, 우리 지역에 새로운 예술세계를 개척하는 음악인이 있다.

안수영, 서양음악과 국악을 넘나들며 장르와 분야를 섭렵해 가는 우리 시대 음악인이다. 관객들에게는 파격이었으며 우리 음악과 국악, 서양음악의 크로스오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일거수일투족, 창작활동에서 그룹 활동, 나아가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활동은 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그가 속한 음악단체, 연주회, 음악 활동이 새로운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인 것은 지역예술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변화의 시대 음악도 예외 아니다

"음악의 생존 가치는 즐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변신 없는 음악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음악은 설 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음악에서 새로움은 중요합니다."

그의 새로운 예술관이다. 전통음악은 전통음악대로, 우리 음악은 우리 음악대로 고수하고 추구하되 소비자들, 즉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실용음악을 만들고 그것을 가까운 무대에 자주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안수영은 경북 상주시 복룡동이 고향이다. 조부 때 세거지였던 김천에서 상주로 이주해 왔다. 씨름장사였던 할아버님의 영향인지 우람한 체격을 지닌 그는 부친 안종수와 모친 이인열의 3남 3녀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상주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을 두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유도부에 들어가 운동을 했다. 하지만 잠재적 끼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 악기를 다루며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최재목 음악 선생님이 집 가까이 사시던 관계로 도시락 심부름을 하며 인연이 맺어지더니, 결국 그의 영향을 받아 브라스밴드 단원으로 픽업되었다.

당시 그는 트럼펫 주자로 배치되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밤하늘의 트럼펫' 연주곡은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쉴 새 없이 트럼펫을 불어댔다. 그런가 하면 작곡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의 탐구적 관심은 어머니의 이해를 구했고, 넉넉지 못한 형편임에도 교육열

이 강했던 어머니의 뒷바라지 속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 이 같은 여건은 결국 그를 음악대학 진학으로 이끌었다. 서라벌예대 작곡과에 입학하면서 본격 음악 공부에 몰입했고, 중앙대와 합병이 되면서 졸업은 중앙대에서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학부 시절,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연주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 음악에 대한 감성의 깊이와 열정을 키워갔다.

음악은 자신 삶의 한 부분

그에게 음악은 삶의 한 부분이었다. 결국 작곡을 공부하면서 음악인의 길을 선택했던 그는 졸업 후 방향을 바꿔, 건국대 대학원 음악교육학과를 통해 교사의 길을 걸었다.

교직 생활 첫 발자국은 1974년 홍성 양성중학교 음악 교사였다. 그 후 광흥중과 광천고를 거쳐, 1980년 3월 천안북일고 음악 교사로 스카웃되어 천안으로 이주했다. 그 세월이 어언 43년, 제2의 고향이 되었다.

1976년 이재분과 결혼, 남매를 둔 그는 46살, 42살이라는 장성한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족애를 드러내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남은 단국대 국악과를 졸업한 후 대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회사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딸은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다.

사립이었던 북일고등학교 교직생활은 그가 음악적 열정을 드러내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음악 과목은 그리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기에 다른 과목 선생들과는 다소 다른 움직임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미술교과 어윤섭 선생을 만나고 그와 인연이 되어 천안 예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천안과 충남, 음악협회장으로 저변을 넓혀

1983년 6월 충남음악교사 협의회를 마친 뒤 천안음악협회 창단 배경을 설명하고, 천안사립중고 음악 교사를 중심으로 모였다. 계광중 박문호, 복자여중 이학자, 천안여상 이영용, 복자여고 이봉조, 천안상고 이택기, 북일고 안수영이 참여하였고, 공립학교 쪽에서는 천안여중 최청산, 중앙고 류봉환, 천안여고 김진차, 천안농고 박영일, 천안여중 최보금 등은 당시 천안 음악계 원로로 자리하던 강명구 선생님을 초대 회장으로, 부회장에는 박문호

(3대 지부장) 선생님을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9월 1일 천안문인협회와 천안미술협회에 이어 세 번째로 음악협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다음 해인 1984년 6월 한국음악협회 천안지부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창립멤버로 활동하던 그는 1993년 천안음악협회 지부장을 맡아 지역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지방이라는 한계와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의 음악협회를 바라보며 교류와 소통의 강화 없이 협회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분야별 동인활동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천안시의 외적 성장에 발맞추는 문화예술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게 되었고, 그러면서 타 장르, 타 협회들과의 협업과 융합형 프로그램 조직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교직활동 사이사이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드러내며 천안음악협회 회장과 충남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한 것이다. 특히 특별한 지원체계가 서 있지 않은 현실임에도 선배, 원로 음악인들의 행적을 찾아내 기록으로 정리한 일은 지역 예술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1996년에는 천안지역 최초 국악관현악단인 능수국악회(후에 능수국악관현악단으로 개칭)의 창단 단장과 지휘자 맡아 20여 회 정기연주회 여는 등 천안 예술사와 충남 음악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사업을 펼쳐냈다.

1999년 2월, 음악협회 충남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천안 예술계 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수영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활동은 헌신적이었다. 음악협회 천안지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데 집중했고, 회장으로 2대에 걸쳐 6년 동안 봉사하면서 음악예술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였기에 충남음악협회 회장 선출은 천안을 벗어나 충남음악계에 차원 있는 발전을 기대해 볼 호기라는 것이 당시 예술계 여론이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천안음악협회 지부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음악협회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 행사에 급급해 스스로 연주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지양하겠다. 창작 활성화를 위해 연찬활동과 연수의 기회를 늘려가고, 기획력을 향상시켜 충남도민 정서

에 부합하는 한편,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음악회와 각 시·군 특성에 맞는 음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이브 작업에 주력하면서 충남음악계 맥을 이어가고자, 충남 음악계의 내일을 밝히는 일을 위해『충남음악협회 30년사』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렇듯 음악인으로 자신 창작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화운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면서 충남음악협회를 이끌고 다채로운 변화를 불어넣고자 한 그는 협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음악인으로서 늘 충남음악계에 대해 고민해왔다. 자신이 가르친 젊은 음악인들이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그는 일찍이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연주회를 기획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음악의 본질을 지키되, 대중이 편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연출을 시도한 것이다.

창작활성화와 예술교육 플랫폼의 기능

2007년 충남예총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제20대 지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3월 13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취임을 한 그는 선거과정에서 수렴된 충남예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새로운 충남예총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면서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충남예술』을 계간지로 펴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의 행보와 발을 맞춘 듯 11월에는 계룡예총과 태안예총이 설립 인준을 받아 충남예총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2008년 들어 또 한 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충남예총 신부동 시대를 정리하고 성정동에 보다 넓고 조건이 좋은 사무공간을 확보해 이전했다. 특히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충남예술제'가 현실화되면서 첫 번째로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제1회 충남예술제를 개최했다. 이후 청양과 논산을 순회하면서 충남예술제가 지역예술발전의 매개역할을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2009년은 충남예총 조직 면에서 커다란 전기를 이루는 해였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 것이다. 5월 25일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6월에는

금산예총이 설립 인준되어 충남예총에 가입을 했다.

충남예술계의 다변화를 모색해 가던 그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그와 걸 맞는 생태계 조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충남사랑티켓사업의 확장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과,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콘텐츠 구축에 진력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직무연수, 예술교육강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펼쳤다.

예술행정에 대한 관심이 열정으로 이어지고

충남예술계 수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는 실로 대단했다. 누구도 따라 하기 힘들 정도의 넓은 시야로 사업 범주를 넓혔고, 창작과 향유, 공감과 확산이라는 예술생태계를 확고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창작에 몰두하던 젊은 날, 불현듯 예술 행정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어요. 순전히 열악한 지방문화계 현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요. 예술 활동하는 창작 분야든, 접촉점을 늘려가길 원하는 향유 분야든, 아무튼 그 시작점은 천안음악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그런 후 시야를 좀 더 넓혀 충남음악계로 향했고, 급기야 충남예총을 이끄는 수장에 이르렀어요. 용기와 의지의 결과였지만 조금은 두려웠고, 책임을 수반하는 사명 의식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이제는 가벼워졌어요."

사실 안 회장 자체의 변신도 큰 작용을 했다. 교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그동안 천안음악협회, 충남음악협회, 충남예총을 이끌어 오면서도 신디사이저를 비롯, 동서양 악기와의 조화를 이룬 우리 음악을 편곡, 연주회를 갖는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새로움을 늘 보여 왔다.

크고 작은 연주회에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서정적이고 그윽한 음악을 자주 들려주고 있는 그는 해금과 피리 연주의 일인자다. 그는 늘 배우는 자세로 학교에서나 속

한 관현악 연주단원을 대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성악가가 우리 음악을 노래했을 때 한국적인 표현기법을 체득하지 못해 전달력이 약했던 때가 있었다면서 서양음계를 완벽히 연주할 수 없었던 일부 국악기의 한계 등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공부하는 자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음악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적인 악기 외에도 개량악기의 사용까지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2년 교직 퇴임과 충남예총 회장직을 끝마치고 예술행정 일선에서 물러날 즈음 나사렛대학교 국악강사 10여 년 활동마저 모두 내려놓은 채, 후배들의 열정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음악과 국악 분야에 귀를 세우고 있단다. 한 지역에서 공존을 생각하며 신진들과 후배들까지 살피는 그의 넉넉한 마음과 음악다움을 향하는 진지함, 그리고 스스로 현존하는 미래이기를 원하는 그의 소박함이 천안, 나아가 충남예술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듯하다.

<인터뷰어 이정우, 스토리텔러 이정우>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성 제 선 (1967년생)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천안의 소리를 찾아 온 열정을 불사르는 국악인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에 위치한 「아리랑전수관」에서는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민요와 농요가 가락을 탄다. 삼거리 지나 충절로를 달려온 소리들이 이곳에 모여들 즈음이면 허리를 곧게 펴고 양반다리를 한 열서너 명이 단전에 힘을 모아 내는 서도 가락과 농요소리에 흑성산 자락이 화답한다.

명창 성제선 천안국악협회 회장의 모습은 단아하다. 어디서 그런 노랫가락이 나오는지 신기하다. 한편으로는 강하게, 듣는 이의 가슴에 신명을 불러일으키기도 애잔함을 끌어내기도 하는 그의 서도창을 잠시 듣고 있으니 은근 듣는 이의 몸도 가락을 탄다.

그래서일까, 사설과 창을 함께 잡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그의 어깨가 참 단단해 보인다. 창에 바친 30여 년 넘는 세월, 듣는 내내 참으로 숙연해진다.

"소리를 할 때면 으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툭하고 던지는 그의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모습만큼이나 정갈하고 단아한 20여 평의 공간은 온돌이라 더욱 아늑해 보이는 게, 예스러움의 운치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지녔다.

늦깎이 국악인의 길

1967년생,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직 60대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천안 국악계의 대표이며, 잊혀진 천안의 소리를 찾아 눈만 뜨면 지역 곳곳을 누비는 그를, 그의 행적을 어찌 살피지 않으랴.

국악인 성제선, 요즘 들어 명창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만큼 소리에 전 인생을 걸고 자신 삶의 대부분을 이 분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천안과 연접해 있는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서 태어났다. 창녕 성씨 일가가 누대로 살아오던 갈산리 토박이였다. 이곳에서 아버지 성백진과 서울 토박이로 아버지에 속아(?) 농촌으로 시집왔다는 어머니 정영자 사이에서 1남 3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넉넉지 못했던 가정이었기에 가사 일을 돕는 일이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남아 있음에 특별할 게 없었던 그때를 애써 지우고 싶다 한다.

빈곤했던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결국 이른 결혼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게 했다. 19

살 아주 이른 나이에 3살 연상이었던 이웃 마을 매곡리의 청년 김정봉을 만나 결혼하고 천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그리고는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을 떨구지 못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인 기계 부품상회를 다가동 공구상가에 차리게 되고, 함께 경영하면서 힘을 쓰는 일에서부터 회계를 처리하는 일까지, 억척스러움을 보였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사업을 돕는 일이 고단했지만 청년의 나이였기에 거뜬거뜬 이겨냈다. 그렇게 십여 년 세월이 흘러 20대 후반에 이르고, 조금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때 불현듯 자신을 돌아다보기 시작했다.

그때 새로운 일상, 또 다른 세상으로 그를 이끌어 준 것이 국악이었다. 당시 천안 국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창단되어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을 펼치던 <민족굿패 얼>의 활동을 지역신문과 정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되고, 그쪽으로 관심이 가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무작정 전화를 돌렸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던 곽상용 선생님의 지도에 의존해 하나씩 배워나갔다. 먼저 사물놀이를 익히기 시작했고, 가락을 만들어 내는 아쟁과 해금, 피리와 퉁소도 익혔다. 어디 그뿐이랴. 내심 마음이 쏠려가던 창에도 관심을 두었고, 가락을 이끌어 가는 국악기에도 눈길을 주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지도해 주시거나 분야 분야 전문 선생님들을 연결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침을 따라 하나씩 배워나가는 일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민족굿패 얼에서는 상쇠 역할을 맡아 4년여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 그렇게 30대의 세월이 흐르고 40대에 이르자 불현듯 자신 몸 안에서 꿈틀대는 작은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세상 물정 모른 채 일찍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끝마치지 못했던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통해 자격을 획득했다. 그리고는 내처 청주의 서원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공부가 쉽지 않았다. 아이들 양육과 남편 사업 도움이 역할을 병행하면서 대학에 다닌다는 게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자신 적성에 맞는 국악계열 공부가 아니었기에 2년 만에 휴학을 하고 이어 원광디지털대로 편입했다. 그곳에서 본격 국악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비록 만학이었지만 즐거운 나날이었다. 그동안 재야에서 익히고 펼쳐내던 우리의 소리가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이론으로 학문으로 살피는 일이 너무 기뻤다.

열정과 의지로 이어온 세월

이때 그의 국악 세계를 제대로 이끌어 준 선생을 만났다.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권재은 선생이시다. 천안국악협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던 이종택 선생이 그를 소개했고, 한달음에 달려가 만나 뵌 선생님의 강한 끌림은 오늘의 국악인 성제선을 만들어 준 장본인을 만나게 된 인연이 되었다.

그렇게 본격 국악 수업이 시작되고, 권 선생님의 주 종목인 경서도 소리를 익히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익히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온라인상의 디지털 학문이다 보니 실기를 펼쳐내는 현장 연주회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그는 학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진학을 시도했다. 용인대 예술대학원 서도소리 전공을 택한 것이다.

이곳에서 유지숙 선생을 만나고, 본격 서도소리에 매진하게 되었다. 특히 '향두계놀이 천안지부장'을 맡아 보존과 전승에 주력해 가는 한편, 소속한 한국국악협회 천안지부 활동도 열심을 내었다. 조한숙 지부장을 도와 사무국장도 맡아 시간을 할애했고, 크고 작은 협회 활동, 특히 천안예술제와 흥타령춤축제에서의 국악협회 사업 등 협회 일선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2019년 1월, 문화도시를 표방하던 천안시의 국악계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국국악협회 천안지부장에 피선된 그는 새로운 영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협회를 이끌었던 전임 지부장과는 다소 다른 영역의 사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단편적인 사업, 행사보다는 계층과 장르를 수렴하고, 창작과 향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악협회 이기를 천명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전국흥타령국악경연대회'였다. 민요 발상지 천안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런가 하면 국악 꿈나무를 향한 저변 확대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국악꿈잔치'를 열기 시작했다.

그해 7월 13일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전국흥타령국악경연대회'를 매머드급으로 열었다. 400석 규모의 중강당에 촘촘히 앉은 관객들, 이날의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지역과 장르, 계층이 각기 달랐어도 그들은 우리 음악의 멋을 아는지, 공연 내내 숨죽이며 무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 것에 심취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들을 공감의 영역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였다. 이것이 그가 생각한 대회의 취지였고, 기획 의도였다. 그 자리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고산준령을 넘어 높은 산에 오른 느낌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국악의 저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모두가 국악을 즐겨 부르는 날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그해 10월 13일 천안예술제에서는 '국악꿈잔치'를 태조산 수련관에서 열었다. 차세대 국악예술인으로서의 역량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해 전통음악의 전수와 계승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장소 이전과 처음 행사라는 점에서 일부 우려와는 달리 참가자 접수도 넘쳐났고, 관심의 폭도 상당했다. 이날 성제선 회장은 대회를 진행하며, 청소년은 우리 음악의 맥을 이어갈 유일한 존재라면서 "백번 연습한 사람보다 백 한 번 연습한 사람의 소리가 좋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명인이 돼 국악의 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콘텐츠로 소통하는 협회 만들 터

1982년 '천안삼거리 흥타령' 민요의 발상지인 천안의 예술적 맥을 잇고자 유홍란, 김효숙 씨를 주축으로 창립된 천안국악협회는 우리 것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홀함 속에서도 국악 예술의 보급에 진력해 왔다. 특히 매년 전국 민요경창대회, 우리소리 한마당, 국악 강좌 등을 개최해 오면서 사무국장 직책도 감내해 갔다.

그는 지역에서 국악 활동을 펼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2019년, 회장을 맡은 후에 깨달았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일이 협회 본연의 일보다 더 어려움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회원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시민을 위해서는 참여와 관람의 기회를 늘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천안흥타령춤축제 기간에는 '우리 소리 우리 춤'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천안은 국악의 불모지로 불린다. 특히 판소리는 그렇다. 그러다 보니 소리를 잘하는 사

람들은 서울로 전라도로 향하고 천안에는 사람이 없다. 부디 소리를 향한 그의 노력과 열정이 천안 소리의 부흥에, 국악협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결국 이러함은 그로 하여금 '상천국악연구회'를 만들게 했고, 이어 '아리랑전수관'을 만들어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찾고 이어가는 지난한 사업에 그를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이 끝나던 2022년부터 '잊혀진 소리 천안의 요'를 기획, 천안지역에서 불려지던 농요 가락과 희아요, 의식요 등을 채록하고, 연구하고, 또 창극으로 만들어 연희를 펼치는 기획 사업에 온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해는 창극 '시집가는 날'을 만들어 서북구문화원 60주년 기념행사 무대에 올렸고, 매년 가을이면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아리랑과 천안의 소리를 주제로 정기연주회도 개최하고 있다.

천안 국악계를 이끄는 심정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대뜸,

"회장을 맡고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적 욕심보다도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천안국악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뛰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협회에 나와 해야 할 일을 찾고, 회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서 세대를 아우르고, 젊은 국악인들이 협회의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렵니다."

그래서 연이어 다시 물었다. 국악협회 운영에 대한 나름의 철학 같은 것 말이다.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도 보다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창작과 향유, 공감과 확산을 모토로 국악의 저변, 천안의 특성을 살리는 국악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요."

변화와 새로움은 현재 진행형

그렇다면, 보통의 지역 예술, 특히 열악한 지역 국악계 현실과 국악이 갖는 전통성, 혹은 폐쇄성을 극복해 갈 방안 같은 것은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악은 단순히 전통의 계승이라는 시대적 관점을 둔

예술장르로서 한계가 분명하지요. 협회 위상을 높이고, 창작과 발표의 공간, 전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회원들의 생각을 반영해 가려고 합니다.”

참 당찬 이야기를 쏟아 놓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안 국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악은 보존과 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어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악,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안의 전통과 문화를 창작에 담는, 천안만의 특화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거침없이 쏟아 놓는 성제선 회장의 국악에 대한 소회랄까? 아니면 자신만의 철학이랄까.. 그의 대답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흑성산 자락에 울려 나는 풍류 가락을 벗 삼으며 아리랑전수관을 나선다.

<인터뷰어 이정우, 스토리텔러 이정우>

김 월 순 (1951년생)
천안시 동남구 월봉로17

동심을 사로잡는 할머니 작가



유년 시절에 발아한 문학의 씨앗

아동문학가 김월순 작가는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9월 13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 벌재(현재 세종시)에서 아버지 강릉 김씨 남덕, 어머니 고흥 류씨 순덕의 6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작가의 기억 속에는 술 담배도 멀리하며 오로지 업무에 충실하여 청렴결백상, 국가유공자증서, 참전용사증서, 호국영웅기장증 등을 남긴 훌륭한 아버지로 남아있다.

5남 2녀의 맏이인 아버지는 대농의 장손으로 열다섯 명이나 되는 대가족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웃 마을의 열여덟 살 어머니와 중매로 결혼했다. 농사치가 많아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배움에 목말라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식구들 몰래 월담을 해가며 서당으로 글공부하러 다녔다. 이를 눈치챈 할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냈지만, 아버지의 향학열은 높아만 갔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던 아버지는 결국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낯선 첩첩산중으로 시집와 대식구의 안살림과 농사일로 바삐 지냈다. 더구나 신혼의 단꿈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되어 발령지로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견뎌야 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효부상을 받을 정도로 살림 잘하고 효성 지극한 며느리이자, 언제나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자상한 엄마였다. 전쟁 중에 아버지가 잠시 건강을 잃어 맏딸인 김 작가조차 몰라볼 지경에 이르자 산 넘고 물을 건너 멀리 전의의 한약방을 찾아다니며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회복을 도왔다.

집을 떠나 근무지에서 지내며 가끔 집에 들르는 아버지는 어린 김월순 작가에게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문학적 정서를 싹틔워준 사람이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이면 모아두었던 월급봉투와 고기와 과일 등을 한 보따리씩 들고 나타나던 아버지, 그런 날은 김 작가네 집은 물론 옹기종기 모여 살던 벌재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다.

벌재마을 중에서 김 작가의 집이 유독 컸다. 안채와 사랑채에 방이 여섯이나 되었고 소여물 쑤는 부엌이 따로 있었으며 마루도 길도 창고도 넓었다. 뒷산의 푸른 숲에는 산새들이 지저귀고 앞개울에는 고동과 송사리와 가재가 잡아도 잡아도 줄어들지 않고 고물거렸다.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원두막에 올라가면 노란 참외와 파란 수박이 뒹굴었다.

아버지의 학업을 반대하던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만은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김월순 작가는 학령기가 되자 책보를 허리에 차고 산을 넘어 삼기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체력이 약한 탓에 그때부터 고통이란 것을 알게 된다. 산을 넘어 학교에 도착하면 지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런 어려움을 멀리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하소연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글 쓰는 실력이 늘어서 국군장병에게 단체로 위문편지를 쓰면 작가에게만은 언제나 답장이 날아왔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로 썼을 때 담임선생님이 여러 학생 앞에서 읽으며 칭찬을 해주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다. 학교에서 문예부장을 도맡아 했고 졸업식 때는 송사와 답사를 하기도 했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동화책은 눈에 띄는 대로 읽었다. 체력이 약해서 운동회 때만은 늘 꼴찌를 면할 수 없어 주눅이 들었지만, 글쓰기 시간만은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하며 즐겼다.

벌재에서 지낸 날들은 지금까지 기억 속에 그림처럼 선명히 남아있다. 한여름이면 저녁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찐 감자와 옥수수를 먹었다. 별을 보며 어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면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곤 했다. 겨울이면 눈 쌓인 언덕에 나가 비료포대 깔고 썰매를 탔다. 삼촌들은 줄을 맨 삼태기를 마당에 엎어놓고 벼 이삭으로 참새를 유인했다. 숨죽여 기다리다가 터지는 함성에 나가보면 참새 몇 마리가 삼촌들 손에서 푸덕거렸다. 소죽 쑤는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한점씩 얻어먹던 참새고기 맛도 잊을 수 없다.

바쁘고 바쁜 안동 김씨 종부

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김 작가는 연기군청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여자였지만 밤이면 극장으로 임검을 나가는 등 근무에 충실했다. 연기군에서 발행하는 군지는 김월순 작가가 기획, 편집, 발간을 책임지기도 했다. 그런 그를 직원들이 부러워했고, 그중에 김태근이라는 남자 직원은 특별히 관심을 보여서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남편감이 성실하고 잘 생겼지만, 농사짓는 집안의 6남 1녀 중 장남에다가 부모님과 할아버지까지 모시는 종가의 장손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부모님은, 체력도 약한 딸이 근무해 가며 그 많은 안살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염려하여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김태근 주사와 결혼을 하고 시가에 들어가 2년 동안 살았다. 그러다가 남

편이 천안시청으로 전근이 되고 김 작가도 임신을 하여 사표를 내고 천안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자궁암으로 고생하자 다시 시골로 들어가 대가족의 종부가 된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냇가에 나가 기저귀를 삶아 빨고 말려 채우는 일은 물론 대식구의 삼시세끼 챙기는 일 등으로 밤이면 끙끙 앓을 정도로 힘에 겨운 나날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일 년에 열한 번의 제사와 차례를 물려받았다. 그뿐 아니라 여섯 명의 시동생과 시누이를 먹이고 입히고 도시락 싸서 학교에 보내야 했다. 시아버지도 나이가 들어 수발해야 했고 자신이 낳은 아들딸의 뒷바라지까지 하자니 일이 끝도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다. 그래도 짜증 한번 안 내고 '내 몫이지' 하며 견디었다.

1975년부터 천안 원성동에 단독집을 세 얻어 살았다. 앞집 펌프에서 물을 길어 양동이로 날라다 먹고, 빨래는 원성천에 나가서 해왔다. 연탄을 아껴가며 땠고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늘 냄새가 났었다. 그래도 그 집에서 큰딸 낳고 동네 사람 불러서 백일잔치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을 분양받게 되었다. 어렵게 당첨이 되어 번듯한 남향집에 남편 이름의 대리석 문패를 달던 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쏟기도 했다.

고진감래인가, 사필귀정인가, 시동생들도 모두 자립하여 잘 살고 남편도 사무관으로서 시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명예롭게 물러났다. 아들딸도 공부 열심히 하여 의사로, 유치원 교사로 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는 손녀 손자가 넷이나 된다. 그 어렵다는 의과대학을 어떻게 보냈냐는 질문에, 해준 거 없다며, 그저 책 사주고 도시락 싸주고 들고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고만 한다. 공부하라는 말은 한 적 없어도, 밤늦은 시각까지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서 불 끄라는 말을 가끔 했었다고 한다.

살아온 날들이 동화의 소재가 되어

시부모님 간병하며 힘겹게 지내던 어느 날, 도원백일장에 참가하여 그간의 속내를 풀어놓았더니 장원이라는 영광이 돌아왔다. 그 인연으로 백수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천안으로 이사를 오니 마침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며 주부독서회 회원을 모집했다. 문학에 관심이 많던 김월순 작가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7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임까지 하며 독서토론회를 열고 선진지 견학을 주관하고 정초에는

윷놀이도 하며 모임을 이끌었다. 당시 이근영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었고 동방서적 김성열 사장도 행사 때 상장과 푸짐한 상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후 천안삼거리시민백일장에 나가 입선을 하고 1994년 천안문학 신인상을 받아 천안문협 아동분과 회원으로 입회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한다. 1999년에는 아동문예문학상을 받아 중앙문단에 등단하고 그해에 천안문협 사무국장직을 맡아 이정우 회장과 호흡을 맞추며 4년 동안 천안문협의 살림을 맡았다. 협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뒷바라지하자면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닐 텐데 작가는 이때가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부회장직까지 수행한 다음에는 주위의 권유에도 회장직을 사양하고 현재는 이사로서 천안문학 편집하는 일만 돕고 있다.

문학이 밥벌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김월순 작가에게 삶을 아름답게 가꿔주며 어려운 고비마다 새 삶을 찾게 해주었기에 무엇보다 소중하다. 동화를 쓰는 일은 세상 모든 시름 잊고 그저 행복과 평화를 찾아다니는 여행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자연과 더불어 대가족이 어울려 살던 체험과 네 명의 손자 손녀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보고이다. 그래도 가끔 글발이 안 풀릴 때면 신방도서관 아동실 구석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고 근처 북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잔을 놓고 영감을 얻기도 한다.

그는 천안문인협회 외에도 중앙도서관 주부독서회, 백수문학회, 충남아동문학회, 충남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동화 동시를 발표했다. 백제문화제 공모전, 천안박물관 체험수기 공모전, 충청남도 가정평등공모전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글솜씨를 평가받기도 했으며 천안 중앙도서관 30주년 기념 책자에 주부독서회 초대 회장으로서 중앙도서관의 초창기 역사를 쓰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지에도 글을 발표했다. 이렇듯 장소와 지면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동화, 동시, 수필을 발표하던 김월순 작가는 2019년에 『할머니의 이야기타래』라는 동화집을 시아북에서 펴내 큰 호응을 얻었다. 누구보다 네 명의 손자 손녀가 애독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김월순 작가의 동시 중에 「봄비 오는 날」,「청포도」 등은 현재 동요로 작곡되어 불리고 있다. 책의 날 다독상, 청풍책 발간 공로상, 한국예총상, 아동문학상, 천안문학우정상 등 문학관련 수상도 여러 번 했다.

자투리 시간도 유용하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독립하자 여가가 많아졌다. 그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대신한다. 천안박물관이 개관할 때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3년째 자원봉사자로 일한다. 이제는 박물관을 안내하는 자신의 역할은 물론 해설사의 빈 자리도 채울 수 있고 관람객 중 급한 환자가 생기면 손수 운전하여 병원으로, 집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또한 박물관 프로그램인 역사대학에 등록하여 10년 동안이나 전문지식을 쌓기도 했다.

독립기념관에서도 3년간 해설사로 봉사했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봉사한다. 하루에 2, 300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며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고, 어르신들의 문서작성을 안내하고 대신해 써주기도 하며 팩스, 문서 발급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렇듯 이타적으로 여가를 선용하지만, 때로는 자신에 대한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꽃꽂이를 5년 동안 배워 1급 사범증은 물론 한국꽃꽂이협회의 지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 서울로 다도를 배우러 다닌 세월도 수년이다. 화선지 펴놓고 먹을 간 세월도 3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뿐 아니라 수채화도 20여 년째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좋은 글을 발표하는 게 우선이고, 읽어야 할 책도 많다고 한다. 전의 장날이면 거나하게 취해서 새끼줄에 묶인 생선 몇 마리 흔들며 구성지게 노래 부르시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못지않게 목청이 좋으시던 아버지에게 음악적 재능도 물려받았을 테지만, 여태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바삐 지내니 늙을 새가 있겠는가, 고희를 넘긴 지 3년이 지났지만, 홍조 띤 얼굴에 웃음 가득하여 새댁이라 한들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의 김 작가이다.

<인터뷰어 김용순, 스토리텔러 김용순>

윤 성 희 (1955년생)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평론을 통한 문학 생명력, 그 매개자로 한평생



1990년『문학과 비평』으로 등단해 평론가의 삶을 살고 있는 윤성희, 그는 천안문인협회와 충남문인협회, 천안예총과 충남예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문학인으로, 문화예술행정가로, 그리고 출판기획자로 한결같은 의지 속에서 4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평론집『문학의 발견』을 비롯,『시, 세상에 말 걸다』,『노년의 발견』등 다양한 저서를 펴내면서 문학은 이제 70을 넘긴 초로의 자신, 그 고독함을 위무해 주는 유일한 벗이라고 한다. 덕분에 노년으로 향하는 그는 눈부시고 여유 있어 보인다.

모든 존재가 그렇듯 단일한 수식으로 한 사람을 묶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평탄하지 않은 삶이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마다 부딪치는 일들과 마주하고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문제는 다분히 그만의 선택의 몫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극복의 힘으로 살아내기도 하지만 가슴에 남기도 하는 게 인간사일지도 모르겠다.

그의 생애사적 이야기는 2022년에 펴낸 에세이집『노년의 발견』을 통해 엿볼 수 있겠다. 일찍이 서천을 배경으로 자리했던 유년의 삶은 조금은 독특했다. 파평윤씨 세거지였던 한산을 뒤로하고 조부께서 당시만 하더라도 대처였던 장항으로 이주했다. 빈한한 선비, 기억 속 할아버지는 마을 훈장으로 자리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도와주는 일상에 기대어 그럭저럭 사셨던 분이었다. 부친(윤주현)께서는 당시 장항 제1의 기업이었던 제련소의 감독직을 맡아 근면과 성실을 달고 사시면서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함을 지녔던 분이었지만 그가 5살 되던 해, 40대 초반 약관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때부터 어머님(김창희)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인근 마을인 종촌면이 친정이셨는데, 얼마 안 되는 농토로는 4남매 교육과 위로 시부모님을 봉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농사일 틈틈으로 옷가지를 떼다가 파는 행상도 서슴지 않으셨다.

아스라한 유년에 대한 기억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은 아버지 손을 잡고 외갓집에 다니러 갔던 기억뿐이다. 뚜벅뚜벅 구두 소리에 맞춰 시골길을 걷던 기억을 떠올려 보던 일도 이젠 먼 추억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여린 가슴을 부여잡고 장항중앙초를 졸업한 이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드러내신 어머님의 강권으로 강 건너 군산으로 중학교 진학을 했다. 군산중과 군산고등학교 6년의 통학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걸어서 도선장에 닿으면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넌 후 다시 30여 분 걸어서 학교를 가야했기에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교를 서둘러야 했고, 하교길 집에 들어서면 밤이 제법 깊은 저녁나절이었다.

장항과 군산을 오가던 뱃머리의 기억, 불안했던 그의 유년의 세월은 바다의 깊이를 헤아리고 결핍의 시간을 건너 파도의 일렁임에 멀미를 앓으면서도 내일을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앳된 청소년기 무엇보다 군산 항구로 접어드는 그 안락함 내지는 타지에서의 적막을 일순간 껴안아 주는 위로가 달가웠다고 한다. 그는 상처인 동시에 사랑이기도 했던 유년의 기억, 그 힘이 자신을 지탱했다고 말했다. 그는 꽤 공들여 뱃전과 항구에 대한 회상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예민하고 복잡했던 유년의 감수성이 더해져 마냥 아름답거나 적막하지 않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굳이 단일한 감정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덕분에 우리는 자연에 기대 자신을 읽어내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에 대한 고만이 시작되었다. 넉넉지 못한 집안 살림에 학비가 면제되는, 혹은 저렴한 국립대학으로 진학을 해야했고, 학력 수준과 학과를 맞추어 대학을 고르다 보니, 멀리 제주대학교 사범대 국문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문학으로 맺어지던 대학 생활

4년 내내 힘든 대학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학비를 벌어야 했던 일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 고독감 같은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이때 그는 문학을 만났다. 대학 생활 내내 자신 주변과 세상과 현상들에 대해 깊게 사유하는 버릇이 생겨났고, 책에 매달리면서 문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문학성으로 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김소월에 대한 평론으로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를 기회로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다. 더욱이 이러함을 이끌어 준 김시태 지도교수와의 인연은 훗날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학 4년을 마치고 획득한 중등교사 자격증은 지난했던 지난 시간들을 잊게 만드는데

충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 시킬 수 없는 아픔을 詩作을 통해 승화시켜 나갔다고 한다. 그 시간의 결실로 평론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평론 활동을 통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그의 평론에서는 서정을 기저로 한 따듯함이 배어난다. 서사가 있는 시적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힘듦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고, 매 순간 고독 역시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그것이 결국 문학을 낳았노라고 말하는 듯했다.

1978년 첫 발령지는 당진여고였다. 이때 그는 초등학교 동창인 김인순과 결혼을 한다. 학창시절 교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진 둘은 제주에서의 대학 생활 내내 편지로 사랑을 키워나갔고, 그렇게 교직 생활 시작과 함께 신접살림을 차린 것이다. 그러면서 1남 1녀 자녀를 두게 되고,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며 손주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다.

당진여고와 논산고를 거쳐 1989년 천안으로 학교를 옮겼다. 충남 남부지역 터전에서 벗어나 제법 거리가 있는 천안으로 내신을 냈던 것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쪽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던 그만의 모험심 같은 것이 작용했던 것 같다.

그렇게 천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천안농고와 천안여고, 충남예고, 신당고 등을 거쳐 둔포고에서 명예 퇴임을 했다. 교직 생활 30년 6개월을 마친 것이다.

예술문화의 텃밭을 다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다. 그러함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의 훌륭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파동을 일으킨다.

지난 30여 년 간 천안 나아가 충남예술문화계에서 그는 몸소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천의 운동가였다. 그래서였을까? 지역 예술문화의 텃밭을 갈아 고루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 예술문화의 불모지라 불렸던 천안과 충남이 지금은 21세기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천안도 그렇고 충남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술제 규모가 커졌어요. 최근 충남예총 60년사도 펴냈고요. 천안을 비롯한 15개 충남지역 예총은 물론, 9개 소속협회의 다채로운 사업들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어 퍽 고무적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30여 년 동안 생긴 지역의 예술 행사, 단체들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총회장으로서 예술인들의 권익 옹호에 절대적 헌신을 했다. 창작과 향유, 공감과 확산이라는 예술문화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때론 실리를 찾았고, 때론 명분을 살리면서.

1990년 천안지역 문인들의 권유로 천안문협에 입회한 이래 크고 작은 문학운동에 적극이더니, 1996년 문학의 해에 천안문인협회 회장을 맡아 새로운 문학콘텐츠 마련에 불을 지폈다. 한 여름밤의 문학축제를 열고 박동규 시인과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불러 문학과 콜라보를 이루어 냈다. 그런가 하면 문협 기금 마련을 위한 시화전을 열어 1천여 만 원에 이르는 기금을 확보해 오늘날 천안문학관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형성했다.

그러던 그가 2004년 들어 천안예총 회장에 나섰다. 천안지역 9개 협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취임 2011년까지 8년 동안 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새로운 예술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 일에 진력했다. 그러면서 충남문인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1천여 충남문단 발전에도 사명감을 드러내며 적극 헌신했다. 민촌 이기연과 한영숙, 이동천 등 '근현대 예술인 선양사업'이 그 대표적인 활동이 되었고, 천안예술제의 규모를 키우는 한편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모 있는 예술제로, 특화브랜드로 이어지는 변화를 모색해 갔다.

2012년, 예순이 다 되어갈 무렵, 그는 자신이 가진 열정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충남예총 회장을 할 기회가 그에게 다가섰다. 전임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충남예술계를 안정화시키는데 적임자라는 각계의 요구 속에서 숙명과도 같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그동안의 경험과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휘, 열정으로 뛰어다녔다. 충남예총의 역동성과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예총 사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예술 강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직에 나섰다.

취임과 함께 첫 사업으로 10월 12일부터 제8회 충남 출향 및 향토작가초대전을 서천 장항읍 화물 역사 광장에서 개최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5회 충남예술제 역시 동일한 기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해 진행되면서 각계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2014년도 들어 몇 가지 사업 패턴에 변화가 일었다. 서울 중심의 '문화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 간의 문화적 연대감 조성을 통한 예술교류 및 협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비록 전임 회장 잔여 임기인 3년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닦아놓은 반석 같은 길은 아름다운 문화의 꽃, 예술의 꽃으로 피어나 지금 여기저기 만발하고 있다.

'문학의 힘'으로 살다

그는 자신의 평론집 책머리에서 "비평의 일차적인 행위는 선택이다. 그 선택의 행위는 평론가 자신의 비평적 감수성과 구상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평론집 서문에서는 "가능하다면 누구나 읽기 쉽게 쓰자고 했다. 시보다 어려운 평문들이 횡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썼다. 매개자의 언어가 시인이나 독자의 언어보다 무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느 평론가들과는 달랐다. 더불어 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허탈감 내지는 단절감까지 끌어안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천안여고, 충남예고 교사 시절,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 속에 있는 나태주, 안수환, 구재기, 권선옥, 이정록 선생 등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한때의 열정이 불같은 신념으로 이어졌고, 그러함이 문학운동으로 번져 적어도 충남의 문단을 단단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이 기쁘다고 한다.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으로 문학운동을, 예술 행정을 펼쳤는가 하면, 그동안 자신 문학세계와 사유의 깊이를 담아 펴낸 2권의 평론집『문학의 발견』과『시, 세상에 말 걸다』는 오늘을 사는 윤성희 평론가의 문학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평론으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연구 논문과 각종 문학지에 계간 평을 게재하는 등 문학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촌 이기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그의 '밀착성'이다. 더 달리 말하면 지역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논저인『천안문화의 선각자들』,『3.1만세운동 100년』을 제외하고도『천안의 길 풍경』 등 모두 특수성이나 지역성에 초점을 둔 저술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지역과 특정부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질까?

"문학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지요. 창작하는 본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서울'만이 모든 문학의 중심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바로 보고 싶었어요."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할 터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얘기다. 도서출판업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독서 인구가 줄면서 이름있는 작가 위주의 도서가 시장을 장악해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성장 가능성을 열겠다며 도전장을 냈다.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가치를 확산함으로 더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 속에서 창립한 '협동조합 더좋은'을 주도해 이사장을 맡은 것이다.

"지역의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 그분들의 마당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독자와 저자가 건강하게 선순환하는 출판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만이 가진 장점을 살려 다양한 문화의 성장을 이끌고자 합니다."

지역이 가진 가치를 고민하고 연대한 교수·출판·언론인·교육자·변호사·지역업체 대표 등도 이사진으로 뜻을 함께했다. 창립과 함께 발간 된『노년의 발견』역시 호응이 뜨거웠다. 올해 69세로 이미 노년을 경험 중인 그가 깊은 성찰을 통해 길어 올린 노년의 지혜가 담겼다.

보이지 않는 예술의 힘

교직에서 벗어나, 크리에이터 활동에 매진해 오던 그는 최근 들어 글을 쓰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 일은 늘 어렵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에게 문학평론은 삶에의 철학을 풀어내는 작업이자 노년의 완성 및 완숙이며 자신 존재의 확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평론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고향 서천에서 얻은 자양을 토대로 창작했다고 한다. 바다의 감수성은 그가 태생적으로 얻은 문학의 모태라 할 수 있다. 근자에는 삶의 오늘, 살아 있는 오늘에 대한 감사함이 글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예술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남과 다름'이 개성이 되고, 평가는 새로운 누군가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 자체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특성은 현대 사회에서 지친 대중의 마음에, 잠시나마 숨 돌릴 수 있는 틈새를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 이정우, 스토리텔러 이정우>

박 순 래 (1947년생)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수묵화에 평생을 기울인 한국화 작가



지원 박순래 한국화작가는 인간 승리의 모델이자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터뷰의 주제가 <수묵화에 평생을 기울인 한국화작가>인 것처럼, 그의 한국화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더구나 정규 교육과정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 가운데, 주경야독과 먼 곳에 계신 스승을 열심히 찾아다닌 결과물의 금자탑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알찬 실력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언이 있다면.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말이 아닐까. 그가 살아온 과정과 훌륭한 한국화작가로서 인정받는 면면을 들으며, 질문자는 이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은 박 작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심산유곡의 산골 소녀에겐 힘들었던 기억들

박 작가의 고향은 천안의 광덕이다. 조부께서는 아산시 송악면에 거주했는데, 부친 박승학 님이 모친 김우근 님과 결혼하고 분가하며 광덕의 해수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지금은 길이 좋아졌지만 그가 어릴 때만 해도 심산유곡이었다. 광덕사 입구에서도 2km가 넘는 거리이다. 당시는 마치 화전민의 생활을 연상케 하는 곳이었다.

본관은 반남, 가까운 아산시 송악면에는 집성촌이 여러 곳 있다. 부친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아들에게만 한문을 가르쳐서 남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밑거름이 된 듯하다.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걷기엔 너무 먼 거리의 보산원초등학교(당시 보상원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추운 날 하굣길엔 멀리까지 담요를 들고 마중을 나오셔서 어깨를 덮어주었던 일이다. 형제는 2남 3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고 오빠가 하나 있어서 장녀이다. 워낙 깊은 산골이기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없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남자 아이들과 놀았던 일과 고생스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그 고생은 나중에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공부를 잘하는 남동생을 가르칠 걱정이 앞선 부모님이어서,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동생 때문에 오늘날의 박 작가가 있게 된 셈이기도 해서 세상을 사는 일이 재미있는가 보다. 남동생이 서울로 유학을 떠날 때, 방을 얻어주며 밥을 해 주도록 누나를 딸려 보냈던 것이다. 그 계기로 넓은 세상,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다.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비록 주경야독이어서 고생했지만, 5년 만에 고졸 검정고시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그 후에 만학으로 방송대학을 거쳐, 호서대 문화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문학석사)하였다.

한국화의 대가 남농의 문하생 입문, 대학원 진학

무려 14회의 개인전, 500회가 훌쩍 넘는 단체전에 참여한 그의 활동 및 수상 경력은 화려하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평가는 매우 겸손하였다. "타고난 재능도 없고 노력도 부족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것밖에 없어요."

흔히 크게 성공한 예술인이나 체육인을 두고, 천재형과 노력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것은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의 이야기일 것이다. 천재도 전혀 노력이 없으면, 또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적 재능이 없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 작가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꾸준함까지 삼박자가 갖추어지면 더 좋겠다는 의미이리라. 질문자가 재능이 없으면 어떻게 크게 성공했겠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린 그림이 교실 게시판에 걸리긴 했다고 해서 웃을 수 있었다. 결국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당시 천안에는 그림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남농 선생을 만난 것은 행운이지만, 그것보다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무명의 작가 지망생이 그런 대가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사사를 위해 천안에서 멀리 목포를 여러 해 다녀온 것은 더 대단하다. 그 시절은 KTX는 고사하고 새마을호도 천안에는 정차하지 않았다. 낮에는 일도 해야 해서 밤 11시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대전 발 0시 50분 기차이다. 목포에는 새벽 6시에 도착하였다. 유달산에 오르기도 하며 기다렸다가 8시에 화실로 찾아뵙고, 종일 기본기 위주로 지도를 받은 후에 밤 11시 넘어서 도착하면 북일고 앞의 집까지 걸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박 작가가 현재는 수묵풍경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문인화의 대가인 화정 김무호 선생과의 교분도 깊고 가르침도 받았다. 4년 남짓 남농 선생의 지도를 받다가 그 분이 돌아가시고 잠시 방황 후,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한 오용길 교수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겸한 지도를 30년간 받았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이 훌륭해서 박 작가에겐 큰 산과 같은 분이라 한다. 애당초엔 대학원 진학을 생각지 않았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던 중에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면 더 좋겠다는 박진규 교수(호서대 교육대학원장)의 권유를 수용하여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2002년 3월, 가까운 호서대학교 문화복지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박진규 교수를 지도교수로 만나 좋은 지도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스승님들은 예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인품마저 더없이 훌륭해서 이런 만남들이 행운으로 여겨진다. 논문 제목은 <전통회화교육과 청소년 정서 순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그 덕분에 호서대에서 '동양문화론' 강의를 맡게 되며 교수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마운 일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을 소개한다. 식사 대접을 위해 남농 선생을 한정식 집에 모셨는데, 식대를 지불하려고 하니 이미 계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남농 선생의 동상 밑의 제자 명단엔 '지원 박순래'가 명기되어 있는 것도 자부심이다.

한국화작가로 왕성한 활동, 전시회와 수상

점묘화 기법의 화가는 많지 않고 천안에서는 박 작가가 유일하다. 말 그대로 사물을 점으로 표현하는데, 서양화와는 달리 도중에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특히 어려운 점이다. 예전에는 중국이나 전라도 지역 등, 주로 먼 데서 작품의 소재를 찾았다. 근래에는 성환 배꽃, 북면 벚꽃, 원성천 벚꽃, 조팝나무, 아산 외암마을, 맹씨행단 등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좋은 소재가 많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14회의 개인전, 500회가 훌쩍 넘는 단체전을 모두 소개하기는 지면 사정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개인전으로는 2021년 천안신부문화회관(구 천안문화회관)을 꼽는다. 1층과 2층 전시장을 모두 사용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았다. 지역 방송에서 긴 시간을 할애했고, 대전일보도 고경호 기자(단국대 교수)의 배려로 자세한 소개가 있었다. 이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작품은 단연 410*140의 초대형 작품이다. 제작기간이 무려 5개월이나 걸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반부나 마무리 단계에

이를수록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조금 작업을 하고 한참 뒤로 물러나서 살펴보고 작업을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지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연이어 2022년에는 신불당아트센터에서, 2003년에는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개인 전시회를 가졌으니 3년 연속의 개인전은 실로 엄청난 노익장의 과시이다.

가장 아끼는 작품을 하나만 꼽을 수 있는가 물었다. 이는 마치 여러 자녀 중에 누가 가장 예쁘냐고 묻는 것과 같은 우문인 셈이다.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지, 410*140의 초대형 작품 <왕지배꽃>, <도화원길2>, <구례산수유1> 등의 셋을 꼽으셨다. 왕지배꽃은 전시회 기간 동안 크게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하다. 배석한 이정우 시인의 추가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전시회를 열었을 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섭섭하다는 말을 들었다. 정말 그러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그렇다는 답변이었다. 어느 전시회에서는 간혹 <비매품>으로 명기되기도 한다.

화려한 수상, 강의와 화실 운영으로 후학 양성

작품 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수상내역도 화려하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입선 6회, 특선 1회 등으로 초대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1986년 동양미술대전 사군자 특선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았고, 2006 천안시장 공로패, 2007년 천안예총회장 공로상 등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는 상도 많이 받았다. 더 큰 상도 많지만, 이러한 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의 애향심 때문일 것이다.

그가 수상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 강의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강사로 불러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두루 실력을 인정받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1회성이 아닌 정기 강좌로 대표적인 곳을 꼽아보면 천안시민문화회관, 천안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아산문화원 천안박물관 등이다. 한국미술협회 여성위원,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및 이사, 아산시청 건축디자인 심사 등 여러 미술단체나 미술대전의 임원이나 심사를 맡은 것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백석동 현대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작업실도 넓게 쓰며, 지원화실을 운영하는 것도 보람이다. 적극 도와준 덕분이라고 하는데, 행복해 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흐뭇하기만 하다. 입시생보다 취미 생활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도 큰 보

람으로 여기고 있다.

오직 한국화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고, 열심히 후학들도 육성하고 있다. 이 구술채록사업은 박 작가 개인적으로도 영예로운 일이지만,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우리 천안을 위해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다. 인터뷰 장소인 지원화실을 찾으면서 화려한 꽃그림의 명화가 가득하여 눈이 호강하였다. 당연히 '지원'이 아호인 줄 알고, 어느 스승이 주셨는지 물었다. 한학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지어 주셨다고 한다.

바쁜 가운데서도 취미 활동도 하고 있다. 한시를 배우러 다니는데,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힘든 과거를 잊고 살게 된 것이 행복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손자, 재주가 많은 손녀의 자라나는 모습은 노년을 살아가는 큰 즐거움이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좋아서 한 일이기에,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말을 보태었다. 앞으로의 소망은 "작품에 만족은 없다. 더 완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하였다. 이제 재능기부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인 한빛회에 손수 그린 그림의 부채 500개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면담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다."면서 은혜를 갚으려 노력한 예화를 들려주었다. 사람 노릇을 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여유까지 즐기시는 박순래 작가의 모습은 보기에도 흐뭇하였다. 인터뷰가 유쾌하게 진행되어 지원화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인터뷰어 김세관, 스토리텔러 김세관>

김 광 근 (1956년생)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감성을 렌즈에 담는 작가



전후 혼란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김광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천안지부장은 1954년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동리에서 아버지 김진영과 어머니 염호진의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후 혼란기여서 출생 신고를 제때 못하여 서류상 나이와는 차이가 난다.

본관은 경주 김씨이다. 증조부 때 경주에서 충북 옥천으로 이주, 조부 때 다시 천안시(당시 천원군) 목천으로 이사했다가 김광근 작가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천안시 유량동에 정착하였다. 옥천에서는, 여름에는 배를 타고, 겨울에는 언 강을 걸어서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동이면의 오지에서 살았다. 지금은 대청호가 생기면서 마을이 수몰되고 인근에 증조부모의 산소만 남아있지만, 그때의 이미지는 그리움이자 창작의 모티브로 작가에게 각인되어 있다.

아버지는 3대 독자였다. 큰아버지가 계셨지만,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병당해 소식이 끊긴 상태이니 독자나 마찬가지이다. 아버지께서도 징병으로 천안에서부터 기차 타고 신의주로 가서 다시 만주까지 끌려갔으나 마침 해방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 격동의 세월이었지만 84세까지 살다가 21년 전 생을 마감하셨다. 어머니는 현재 생존해 계신다. 어머니도 어린 시절 징용당해 부산까지 끌려갔으나 (당시 이름 염선예)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아 천만다행으로 전쟁터로 안 가고 부산 방직공장에 남아 강제 노동을 했었다.

목천에서 살 때까지는 가정 형편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나 태조산 아래 분투골(현 천안시 유량동)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어렵게 살았다. 그곳 인근에는 도토리가 많이 나는 태조산과 흑성산이 있고 마을을 흐르는 청정한 원성천이 있어 도토리묵을 쑤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도토리를 주워다가 묵을 쑤어 묵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솜씨가 좋아 서울 사람들도 묵을 먹으러 오기도 했다. 당시 분투골에는 김 작가의 집뿐 아니라 묵을 쑤어 파는 이웃이 많았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던 원성천은 분투골을 지나면서부터는 도토리를 우린 물로 시커멓게 오염되어 흘렀다. 마을 앞을 흐르던 검은색 개울을 김 작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우등생으로서의 학창 시절

그런 와중에도 남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6학년 때 고마운 은사님을 만난다. 당시 우수

반(8반)에서 공부했는데, 담임이던 이제상 선생님은 김 작가뿐 아니라 모든 제자를 열정적으로 지도했다. 그분의 교육철학은 '무조건 외워라'였다. 그래서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 미솔도미솔 파라라 솔시레파미레도…. 지금까지도 음악책 한 페이지의 노래 계명이 술술 외워질 정도이다. "기억하건대, 일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던 때가 그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어린 김 작가는 이제상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그때부터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는 가까운 천안중학교를 놔두고 멀리 계광중학교에 입학원서를 낸다. 김 작가의 가정 형편을 잘 아는 담임선생님이 장학제도가 있는 그곳을 권했기 때문이다. 입학시험에서 한 문제는 답을 잘못 쓰고, 또 한 문제는 단위를 안 썼으며, 체력장에서 달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모두 5점을 감점당했지만, 400점 만점에 395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덕분에 중학교 3년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했다.

등록금 걱정은 안 했지만, 통학 거리가 너무 멀었다. 유량동에서 계광중까지 가려면 지름길로 가도 5킬로미터는 족히 되는 거리였다.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고등학교도 같은 재단, 같은 장소의 천안고등학교에 다녔다. 결국 6년을 그렇게 먼 길을 통학한 덕에 지금까지도 출사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를 가질 수 있었다.

고교 시절에도 장학생으로 이과 영수 우수반에서 공부했다. 그때 두 번째 길라잡이, 한병옥 화학 선생님을 만난다. 어느 날, 옆을 지나가시면서

"야, 광그이! 니가 우리 학교에서 화학 점수 최고더라!"

무심한 듯 툭 던진 그 말은 엄청난 긍정에너지로 김 작가의 가슴에 꽂혔다. 그 한마디에 초등학교 때 다짐한 교사의 꿈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대학 갈 때도 가정 형편을 고려했다. 서울사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조금 부족하여 누님이 사시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선택했다. 화학이라는 말에 면담자는 혼란스럽던 주기율표가 떠올라 머리를 가로젓자, 양성자의 에너지만 알면 쉽게 외워진다며 원자구조를 그려대기 시작했다. 김 작가는 그만의 암기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 시절, 첫 입학등록금 56,500원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팔아서 대주었지만, 이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를 알아주었기에 입학과 동시에 쉽게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첫 달 과외비로 47,000원을 받았다. 은근과 끈기로 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지도했기에 정기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학비 해결은

물론 동생들까지 돌볼 수 있었다.

꿈꾸던 대로 교직 생활을

졸업하여 좋은 조건으로, 인근 화학단지에 스카우트 되어 가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김 작가는 성적이 우수했기에 바로 임용이 되는 바람에 갈등 없이 교직을 택하게 되었다. 첫 발령은 탄광촌인 보령 미산중학교로 받았다. 새 옷을 차려입고 발령지로 찾아갔으나 가는 도중에 셔츠가 새까맣게 오염될 정도로 탄가루가 날리는 오지였다. 당시, 이미 입영 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20일 후 그곳을 다시 떠나 바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지도했기에 학생들은 눈물바다를 이루며 그를 전송했다. 군대 생활 2년 3개월을 마치고 전역하자마자 열흘 만에 다시 서천여중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천안, 아산 등지의 중학교에서 평교사 생활을 거쳐 예산여고 교감이 되었다. 몇 년 후 당진중 교장을 시작으로 5년 6개월 동안 교장직을 수행했다. 퇴임은 천안여고에서 했다.

그의 교육철학은 확고했다. 은사님께 배운 대로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언제나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 스스로 언행일치하며 학생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쳤다. 그런 까닭에 관리자로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항의를 받기도 했었다. 더러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위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혜를 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학교 구조이기에 김 작가는 사적인 부탁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갈 길은 하나, 교직이다'라는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왔기에 39년 10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영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있기까지에는 부인의 내조도 한몫했다. 언제나 김 작가를 믿고 응원하며 규모 있는 살림으로 외벌이임에도 윤택하게 살게 해주었다.

유일한 샛길, 사진으로 힐링하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건 교직 외에 또 한 가지, 사진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1970년 당시 처음 대한 사진기 올림푸스카메라는 김 작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운명처럼 다가온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은 등하굣길에서 만나는 디피점을 자주 기웃거리게 했다. 당시 디

피점에서는 카메라를 빌려주기도 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면 그걸 빌려 친구들을 찍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뒷집 형이 촬영한 사진 한 장과 마주하게 된다. 까만 고무신이나 할머니의 털신을 신은 아이들이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었는데, 나도 저런 걸 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 결국 그 감동이 그를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동기가 된 셈이다.



〈김 작가에게 큰 감동을 준 사진〉

교사로서의 은근과 끈기의 기질은 사진을 할 때도 발현되었다. 서천여중에 근무할 때부터 암실을 직접 만들고 사진반을 개설하고 교내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그 일은 교장으로 근무할 때까지도 학교를 옮기면서도 계속했다. 학생들뿐 아니라 동료 교원들과도 중등교원 사진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사진은 그에게 있어 경직된 일상의 탈출구였다고 회고한다. 아이큐 150 정도의 영재들을 가르칠 때는 숨돌릴 틈도 없었다. 그러다가 퇴근하여 한숨 돌리는 시간이 사진 작업하는 시간인 셈이었다. 그러나 좋아만 했을 뿐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해 늘 갈증을 느꼈다.

그러던 중 마침, 1988년 당시 사진으로 일가를 이룬 조임환 사진작가를 만나게 된다. 그는 일본 태생의 한국인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흑백사진의 대가였다. 김 작가는 대전에 사는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영재반 수업을 마친 후 밤 11시경 차를 몰아 조 작가가 작업하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여 새벽 한 시나 두 시까지 암실작업을 하면서 필름현상과 인화과정을 배우고 돌아와서 잠시 쉬고 다시 학교에 출근하는 생활을 한동안 이어갔다.

그분의 지도 방법은 독특했다. 철저히 실기 위주이다. 촬영을 나가면 우선, 당신은 포인트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문하생들이 사진을 찍게 한다. 그런 후 결과물을 놓고 비교해 가며 장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결국 피사체를 찍는 포인트는 오로지 한 곳이다!"라며 반복 지도했다.

김 작가도 이제는 한눈에 포인트를 찾는 그만의 루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인만의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를 정립해 가며 사진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다. 색상, 명암, 대비 등에서 본인만의 톤을 찾고, 일출 일몰을 기준으로 한 시간 전후가 색온도가 낮고 그림자가 길어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미 경험으로 터득하여 그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배운 대로, 사진은 발품을 팔아야 얻는다는 지론을 편다. 그러나 현장을 찾는다고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원하는 장면은 시간과 공간 여건상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 포인트도 있는데,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 찾아가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언젠가 인주의 어느 포인트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생정보'라는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명장면 사진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진행자 '미스터 리'가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바로 그 포인트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들려있었다. 똑같은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미스터 리는 포인트를 양보해 달라는 눈치였다. 김 작가도 6개월을 기다린 터라 그때 참 난감하기만 했었다.

그렇듯 김광근 작가는 교직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 있게 포인트를 찾아다닐 수 있는 요즘이 더없이 행복하다. 그가 요즘 심혈을 기울이는 곳은 천안의 남쪽 들판 '눈들벌'이란 곳이다. 아예 그 근처로 이사를 하여 2011년부터 13년째 눈들벌의 포인트를 찾는 중이다. 앞으로 3년 정도 더 촬영한 뒤 그동안 촬영한 작품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창문을 열면'이라는 전시회 제목도 이미 정해 놓았다.

톤 앤 매너를 위해서는 사진기도 중요한 몫을 한다. 1982년 대우 IQ1000XP라는 교육용 퍼스널컴퓨터로 컴퓨터를 배웠을 정도로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그는 사진기에도 전문가적 안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진기도 남다른 걸 사용한다. 과거 아날로그 사진기들을 거쳐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를 쓴다. 시그마에서 만든, 처리속도가 느리지만 색감이 잘 나오는 포비온센서를 탑재한 카메라이다.

인화 과정에서도 그는 남들과 달리 제 사진은 제가 뽑는다는 신념으로 무엇이든 손수



〈제37회 충남사진대전 대상 수상작〉

작업한다. 흑백 인화는 개인 암실에서 하고 컬러사진은 개인이 구입한 프린터를 쓴다. 프린터는 고품질의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 구입했었다. 현재 사용하는 프린터는 엡손 SC-P9540으로, 44인치 크기까지 인화할 수 있는 대형이다.

그토록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영감으로 얻은 작품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게 되는지 궁금했다. 사진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하며 웃었다. 창작의 과정을 즐기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이미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그는 고가의 프린터로 회원들의 작품까지 뽑아준다. 올부터 그 프린터로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토샵 편집 보정 강의도 하고 있다.

동인 활동도 중요시한다. 1982년 천안사우회가 창립할 때 관심은 있었으나 서천에서 근무 중이라 창립 멤버로 합류하지 못하고 천안북중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1988년도에 가입했다. 그는 늦게라도 가입했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함께 활동하면서도 사우회 회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우들도 있었다. 그들이 창립한 단체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천안도솔사진창작회이다. 김 작가는 천안사우회에서 활동하며 6년간 회장으로 봉사하고 현재 고문으로 있다. 1990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천안지부가 설립되었지만 가입 점수의 부족으로 2년 늦게 가입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가입 자격을 점수로 결정하는데, 협회에서 인준한 전국사진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 세미나 참여, 촬영대회에 참가하고 사진을 출품하여 수상한 횟수 등을 통해 점수를 축적할 수 있다. 이제는 협회에서 인준한 사진 분야 강좌에 등록하여 수료한 경력에도 점수를 부여해 주고 있고 차차 점수를 낮춰 입회 문턱을 낮추려는 추세이다. 그는 현재 사협천안지부 지부장으로 45명의 회원을 이끌며 카메라를 중고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이 망가지도록 찍고 또 찍는다.



〈백두산에서 촬영한 작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이자 교육 전문위원으로서 사진예술에 관해 강의도 하는데 그때마다 '목숨 걸어라!'라고 주문한다. 그만큼 그는 치열하게 찍는다. 언젠가 백두산 출사 시, 보험 혜택도 못 받는 위험한 조수석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놓고 작품을 건지기도 했었다. 더러 그러다가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리핀의 팍상한 폭포 촬영 시에는 길조차 없어서 강줄기를 따라 작은 배에 의지해 찾

아갔었다. 강폭이 좁은 데다 노를 젓지도 못할 정도로 바위가 많아서 두 명의 사공이 배의 앞, 뒤에서 이쪽저쪽 바위를 번갈아 발로 차며 그 반작용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사공의 모습이 감성을 자극하여 카메라를 들이대다가 장비를 강물에 빠트릴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실제로 배가 뒤집혀서 강물에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운 좋게 원하는 감성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었다.

그에게 사진의 의미를 묻자 "힐링이다. 두 다리가 버텨주는 한 사진을 할 것이고, 사진을 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라고 단언한다. 오로지 사진에 전념하는 그를, 이제는 아내도 말리지 못한다고 한다. 그토록 사진예술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사진작가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애쓰는 그에게 요즘 숙제가 하나 새로 생겼다. 바로 AI 작가의 등장이다.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며 이미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쥔 AI 작품이 나온 상황이다.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자못 걱정이지만 그 또한 은근과 끈기로 대처할 것이라 다짐한다.

<인터뷰어 김용순, 스토리텔러 김용순>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주 복 식 (1960년생)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길

문화재청 퇴임 후 귀향한 고궁연구가



주복식 선생은 다소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궁 · 능의 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연구에 매진한 결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두 권의 명저를 저술했기 때문이다. 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창경궁에 대한 원고가 마무리 단계이고, 백제 온조왕을 소재로 한 소설도 집필하고 있는 등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사람이 문무(文武)를 겸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구술자는 장교로 11년을 근무했으니 무인(武人)인 셈인데, 문사(文士)로서의 역량도 발휘하고 있으니 실로 대단하게 여겨진다. 그의 저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다. 고궁에 오랜 기간 근무하며 그 경험을 살렸기에 이해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 직접 찍은 사진이 많이 실려 있어서 마치 고궁 속에 있는 듯하다. 독자들이 고궁을 찾고 싶게 할 뿐만 아니라, 고궁 관람을 통해 역사공부를 할 수 있게 한 책이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위례산 밑에서 태어나 위례성을 연구하는 향토연구가

본관은 신안, 선대가 300년 전에 안성에 정착했는데, 농경시대에 그곳은 적합하지 않아 들이 넓고 살기 좋은 곳인 입장으로 오게 되었다. 고향 자랑을 요청하자, 예전에는 고향이 입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입장 곤란'이란 말이 따라오곤 했다고 한다. 웃자고 한 말이어도 좀 그랬는데, 이제 거봉포도의 명산지로 유명해졌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름도 거봉포도를 병기하여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다.

조부의 함자는 승택 님, 부친은 낙근 님이다. 부친은 일도 열심히 하고 멋지게 놀 줄도 아신 분이다. 모친은 김종란 님으로,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3남 1녀 중 그는 장남이다. 당시는 양잠이 큰 농사여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뽕잎을 따고 학교를 가야 했고, 그 외에도 싸리나무 베어오기 등 여러 일을 한 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학교는 입장중학교을 거쳐 야구 명문이자 당시는 신설 사학 명문(한화그룹)으로 유명한 북일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며 임관하여 양평, 서울, 속초, 인제를 거쳐 다시 서울로 와서 복무를 이어가다 전역하였다. 복무 중에 결혼하여 3자매를 두었는데,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주제에 따른 질문에 앞서 고궁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몇 가지를 드렸다. 여기서도 재미있고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고궁에 대한 공부는 역사 공부와 맥을 같이 한다.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나, 국가가 발전해 갈 길을 찾기 위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흔히 하는 말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고궁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란 말도 덧붙였다. 역시 역사와 함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얼마 전부터 고궁의 관람객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점이 흐뭇한 일이다. 이것은 한류 열풍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근무한 구술자의 의견은 한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면서부터라고 한다. 고궁과 한복의 매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경복궁 돌담길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걷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중국의 궁궐 크기에 놀라지만, 중국은 자금성 하나뿐이고, 우리나라의 5개 고궁을 합친 면적은 그보다 훨씬 넓다고 한다.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등의 3대 고궁에서 정년까지 근무

처음 근무한 곳은 창경궁이다. 일정 때, 우리의 소중한 고궁에 동물원을 만들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곳이기도 하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해서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잘못 이용했지만, 창경궁의 핵심적 건물은 모두 남아 있다는 점이다. 관리팀에 근무하며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느라, 지붕에도 올라가고 땅 속을 뒤지고 다니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특별한 경험도 간직하고 있다. 휴관하는 날을 이용하여 춘천으로 직원 야유회를 가서 급한 연락을 받았다. 퇴직한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울대병원에 들렀다가 사적(私的)으로 창경궁에 오시는데, 함께 한 소장이 주복식 선생을 안내자로 지명한 것이다.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술도 마신 것을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했다.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며 경내를 순회했는데, 대통령은 주복식 선생이 장교로 근무한 이력을 알고 군대에서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편하게 대해 주었다.

고궁은 국유지이지만 특별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루는

어느 여인이 순종 임금의 딸이라며 낙선재에 살게 해 달라고 떼를 썼다. 말도 횡설수설이어서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보내려는데, 사무관이 농담처럼 "그럼 살아라."라고 하며 돌려보냈다. 말싸움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이었는데, 얼마 후에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나타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경복궁을 거쳐 덕수궁으로 이동, 고궁 연구에 박차를 가하다

다음에 근무한 곳은 경복궁이다. 조선의 개국과 함께 한 곳이지만, 지형적으로도 바람이 센 곳이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창덕궁을 선호한 임금이 많았다. 왕자의 난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조선총독부(속칭 중앙청) 건물의 철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일도 기억한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그 시대의 건축물로는 대단한 면이 많기에 보존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철거한 느낌도 있다.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한동안 이용되었지만, 계속 이용될 수 있었던 건물이다. 쉬운 예로 인도와 대만에 있는 일본 총독부의 건물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책을 내고 3주 후에 근무지를 덕수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경복궁에 대한 공부를 위해 그곳에 더 있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공부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었다. 구술자의 사견이겠지만, 덕수궁이 만들어진 것은 잘못이었다. 고종황제와 세자가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해 간 아관파천의 예를 보아도 조선 왕조가 망해가는 과정의 마지막 발버둥으로 여겨진다.

석조전 앞에서 22개국 참전용사(의료진 6개국 포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물론 기자도 불가능한 일인데, 직원이기에 옥상으로 올라가 행사장 전면을 촬영할 수 있는 행운도 있었다. 그 외의 덕수궁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정리하는 구술자의 저서 『덕수궁 이야기』로 대체한다.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두 권의 명저

글을 쓰는 문인이나 학자들이 책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생생한 현장감을 살린 주

선생의 저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진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과 더불어 문화강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면에 일조한 그가 은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천안을 위해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9년 전인 2015년에 처음 책을 펴냈다. 그 전에 책을 낼 생각을 한 계기는 공원관리과에 근무할 때, 답사를 다니며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반공일이었던 토요일에 격주로 직무연수 성격으로 다닌 답사였다.

『경복궁 천자문』 이 책은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배우는 경복궁 천자문으로 소개되고 있다. 방대한 원고가 불과 1년 만에 완성되었다니, 더구나 근무 기간이었기에 놀라운 일이다. 역사 공부에 한자 공부까지 겸할 수 있게 기획한 점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다. 출판사의 리뷰에 의하면, “역사는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라는 말을 앞세워서, 국력과 국격에 맞게 문화유산이 대우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문화의 힘을 강조했던 말로 대신하였다.

다시 3년 후인 2018년에 『덕수궁 이야기』를 다시 펴냈다. 책 제목 위에는 부제로 <한자로 읽는 대한제국 현장>이 있고, 밑에는 <경운궁 천자문>이 붙어 있다. 지면 관계로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눈에 띄는 것은 “덕수궁 경내는 매우 훌륭한 힐링의 공간이다.”라고 표현한 점이다. 또 하나, 덕수궁 돌담길을 비롯한 ‘덕수궁 12경’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주복식 선생이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

덕수궁의 대한문(大漢門)이 앞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동한 내용도 재미있다. 지붕 위의 기와만 걷어내고 통째로 옮기는 대역사였는데, 안쪽에서 보는 모습은 서서히 걸어들어오는 모습이어서 화제가 되었다. 책을 저술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이기도 하고, 공을 들인 것은 연표를 비롯한 표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위례성을 보며 자란 소년, 위례성을 연구하게 되다

은퇴 후, 고향에 내려와서 본 문화원의 부설기관인 천안향토문화연구소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고향에 살고 있는 오병상 친구의 소개 덕분이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재작년부터 2년 연속 위례성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 먼저 문화마당

3호에 실린 「왜, 13년 만에 위례성을 한산위례성으로 이동했나?」라는 논문을 쓰게 된 계기와 핵심을 물었다.

태어난 마을에서 잘 보이는 산이 위례산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라보게 되고, 산을 바라보며 등하교를 하고, 일할 때도 바라보던 산이어서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백제가 도읍을 직산, 하남, 공주, 부여로 옮겨간 것은 결국 더 좋은 곳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했다. 개인도 형편에 따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직산의 위례성 기록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여섯 살이 많은 외숙이지만, 돌아가시고 49재를 모시는 과정에서 온조대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관련 깊은 안성천 답사도 하였다. 구체화되진 않았어도 <백제건국사>를 대신할 『소설 온조대왕』을 구상하고 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취미는 모든 걸 다 좋아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그의 폭 넓은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셈인데, 전문가에게는 져도 일반인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럽다. 무엇보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고 한다는 평범한 말도 그에게는 특별하게 들렸다.

앞으로의 연구 활동은 백제 초창기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싶다. 끝으로 백제가 대접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온조박물관'의 건립을 소망하였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살려서, 질문하는 내용마다 핵심을 짚어 알기 쉽게 들려주신 간단명료한 말씀은 유홍준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소환해 주었다.

<인터뷰어 김세관, 스토리텔러 김세관>

천안시서북구

문화와 예술로 한 평생

이 종 석 (1954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향토문화와 문화원 발전에 헌신해 온 산 증인



아버지의 통 큰 봉사정신을 배우다

이종석 직전 서북구문화원장(충남문화원연합회장과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겸임)은 대를 이어 향토문화와 문화원 발전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를 이야기하자면 그의 부친부터 알아야 한다. 부친 이승재는 경기도 광주 이씨로 340여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성환에서 살아온 성환 토박이였다. 집성촌인 성환읍 봉모리에서 출생하여 이웃 동네 신가리(당시 섭리였다가 이후 신흥리를 거쳐 이웃 가동리와 합쳐지며 신가리로 불린다.)에서 살아오며 어머니 김순례와의 사이에서 10남매를 두었다. 그중 6·25전쟁 통에 둘은 잃고 3남 5녀를 키우셨다.

체격이 크고 힘이 좋아서 투포환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아버지는 정신력도 강하여 일제강점기에 '금배'라 불리던 사금 채취선 선장으로 일하셨다. 일본인 금광업자 오시이 사장과 함께 어머니를 대동하고 북만주까지 진출하셨었다. 당시 성환 사람들 여러 명도 함께 일하며 세력화하여 남의 나라일지언정 설움 받지 않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만주에 거주하실 당시 낳은 셋째 딸은 돌림자 '종' 자를 쓰지 않고 유일하게 만주의 '만' 자를 따서 '만자'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만주에서의 생활에 의미를 두었다.

그렇게 재산을 불린 아버지는 신가리의 대농으로서 집안에 머슴을 2~4명씩 두고 과수원과 정미소까지 운영하며 '거물 이장'이라 불리는 호칭에 걸맞게 통 큰 봉사를 하였다. 마을에 학교가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어 학교 부지확보뿐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인근 053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서 동력을 차용해 오고, 주민노력봉사단을 조직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학교신축에 큰 도움을 준다. 그렇게 1937년 11월 29일 설립된 신가 간이학교는 성환초등학교 제1 분교로 개칭되고 이후 신가초등학교가 된다. 설립 후, 점차 늘어나는 학생 수를 좁은 건물이 수용하지 못하자 자비를 들여 교실 증축에 기여하였으며, 모자라는 화장실을 한 채 더 지어주기도 했다. 사친회장, 기성회장직을 오래 맡아 봉사하며, 본인의 사랑채를 교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외지에 와서 고생한다며 손수 키운 닭을 잡아 수시로 교직원들의 회식 자리도 마련해 주며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1962년 문화원 창립 당시 회원으로서 성환문화원사 건립할 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등 각 분야의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통 큰 봉사를 생활화하신 아버지를 보며 자란 이종석 원장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헌신을 하게 된다. 그는 위로 형님들이 있었으나 모두 단명하여, 안으로는 장남 역할로 집안을 이끌며 밖으로는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다했다. 형제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유학했고, 고모를 비롯해 형제, 조카들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딸 역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자 집안이지만, 이종석만은 지역의 신가초, 성환중, 성환축산고를 다니며 농토를 지켰다. 대학만은 외지로 가야 하는데 하필 그 무렵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농토와 사업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포기하고 아버지 대신 가업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눌러앉게 된다.

그는 아버지처럼 체격이 좋아서 학창 시절에 인근 평택으로 운동을 하러 다녔다. 여러 시합에 이런저런 종목으로 출전하며 입상하자 안성농전(한경대학교 전신)으로부터 입학을 권유받았다. 그렇게 축산과에 입학하여 2년간 공부하고 이후 단국대학교 최고경영인 과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연암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만학도로 조경학을 전공하며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다. 더 공부하여 박사 소리도 들어보고 싶었으나 당시 지역사회에서 맡은 여러 역할을 소화해야 했고 술을 즐기다 보니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대신 여러 상훈을 수상했는데, 1979년부터 새마을 사업에 봉사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마을장을 받았고 이해찬 총리상 외에 여러 장관상, 천안시민의상 등 시장상, 대학 총장상 등을 수상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그의 헌신은 한둘이 아니다. JC 부회장, 성환체육회 이사, 성환농협 이사 등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러 직책을 맡아 봉사했다. 민정당 최연소 투표구관리장, 민자당 천안군지구당 최연소 조직부장 등으로 일찍부터 정치계에서 일하기도 했다.

부창부수이다. 부인은, 이장을 시작으로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회장, 농촌지도자회장, 학교 동창회장 등 지역의 이런저런 단체를 이끌며 집안 살림을 맡기는 그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찍부터 사모님 소리 듣게 해 줘서 좋다고 추어주고 응원하며 내조한다.

와중에 있던 성환문화원을 바로 세우다

성환문화원에는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늦게 발을 들인 셈이다. 7대 원장으로부터 문화원 일을 권유받았으나 여러 일로 너무 바빠 10대 송용삼 원장 시절부터 회원으로 참여하기

에 이른다. 그런데 당시 문화원 사정이 좋지 않았다. 11대 원장 선거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어 한 후보자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후보도 과반수의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서 갈등은 고소 고발로 이어졌다. 어렵사리 이 모 원장이 선출됐으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다. 설상가상으로 원장 일행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성환읍체육회 회원 납치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시 지원금이 중단되고 업무가 마비되기에 이른다. 이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고 자원한 모 원장이 무진 애썼으나 4개월여 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포기한다.

그러한 와중에 부원장들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한목소리로 이종석을 원장으로 추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던 이종석 원장은 망설였으나 이번에도 부인의 응원에 힘입어 2012년 12월 26일 만장일치의 추대로 서북구문화원장(당시 성환문화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니 듣고 알던 것보다 사태는 훨씬 심각했다. 고소 고발 건이 한둘이 아니고 직원 봉급 체불은 물론 공과금 등이 밀려 전기, 가스공급이 끊기는 사태에 이르고 그 외 빚도 엄청났다. 우선 급한 대로 직원의 체불 임금을 사비로 일부 해결하고, 고소 고발 건의 당사자들을 만나가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당시 고발 건이 해결되어야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성무용 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밀린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 등 당시 돈으로 1500만 원 남짓한 공과금은 사비를 들여 해결했다.

그렇게 말썽 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고도 재선을 거쳐 원장으로 더 헌신한다. 그쯤에서 사직하려 했으니, 공약 사항 중 노후화된 문화원사 신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3선까지 12년 동안의 임기를 채운다. 어떻게든 원사 완공을 보고 떠나려고 4년이나 더 했으나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원사신축 계획이 여러 난제로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전 원장은 현재 원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지만, 서북구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밀린 숙제를 하는 중이다. 언젠가, 현재 사용하는 문화원사를 건립하던 설립 초창기의 비화를 회고하는 자리에서, 당시 변윤서 초대사무국장은, 한일성 초대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의 이종석 원장이 꼭 그분을 닮았다"라고 술회한 적이 있다. 원사 신축에는 많은 기금이 소요되어 기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다. 그렇게 단계별로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성환문예회관 내에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설계도까지 나

온 상황이다. 당초 4층으로 계획했으나 3층으로 축소되어 현재도 관계기관과 교섭 중이다.

그가 서북구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부터 모든 분야의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한다. 직원도 한 명 더 증원하고 문예 강좌를 야간반까지 개설하여 28개 강좌로 늘렸다. 신청사로 가면 생활체육 부문까지 접목하여 50여 개 강좌로 확장될 거라고 한다. 또 서북구문화원 내에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설했는데 황서규 향토문화연구소장을 중심으로 문화 자료를 꾸준히 발굴하여 각 분야의 향토지를 발간해 오고 있는 것도 성과 중의 성과이다. 기존의 선진문화탐방 프로그램도 횟수를 늘려 회원과 문화가족 대상으로 연 4회 또는 6회까지 시행했다. 배꽃 축제하면서 없어진 민속예술제도 복원했다. 배꽃 축제만은 도중에 중단했다. 배꽃의 개화기간이 짧은 데다가 이상기온으로 불규칙한 배꽃 개화 시기마저 맞출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신 숙원사업이던 '천안장사 민속씨름대회'를 개최했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건강한 천안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예와 도의 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이종석 전 원장 역시 씨름선수였기에 더욱 알찬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다. 기존 관람 위주의 공연 행사에서 탈피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당일 참석한 한경수 전국씨름협회 회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이 대회를 점차 확장해 가기로 약속도 했다.

천안 아산 상생교류전이라는 연합문화축제도 열었다. 서북구, 동남구, 아산, 세 군데 문화원이 연합하여 가진 행사였는데 반향이 컸다. 그 외 서북구문화원(구 성환문화원) 60주년 행사, 문화교실 발표회 등을 수행했으며, 충청남도와 연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60여 년 동안 문화원에서 발간한 200여 권의 각종 자료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천안문화아카이브 작업도 임기 중에 마쳤다.

충남문화원연합회장으로서의 짧지만 굵은 업적

그뿐 아니라 제15대 충남문화원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도 활약이 컸다.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내 16개 문화원의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내포혁신플렛폼에 사무실을 두고 상근직원이 근무한다. 이종석 원장은 일주일에 2, 3회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했다. 1년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시행한 굵직한 사업 몇 가지를 들자면, 우선 도내 문화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을 목적으로 1박 2일간 진행한 충남문화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워크숍이

있다. 문화예술의 산실인 통영 일대를 견학하며 원장들의 문화리더 워크숍, 사무국장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충남도민 문화의 날 기념행사와 실버문화 페스티벌 in 충남 행사를 도청 문예회관에서 실시했으며, 16개 시군 문화원이 참여하는 충남생활문화축제를 금산인삼축제장에서 펼치기도 했다. 전국생활문화축제를 여의도 공원에서 열었는데 이때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좋았다. 그 외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문화』 책자 발간과 충남문화예술 전문웹진 『쉼』 발행,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등을 성공리에 시행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서의 업적과 남은 숙제

또한 전국 232개 문화원을 대표하여 한국문화원연엽합회 부회장으로도 4년간 헌신했다. 부회장은 6명 정원인데 그는 충청, 세종, 대전 지역을 담당하여 일했다. 2024년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서의 임기는 끝났지만, 정책연구소장으로 앞으로 3년간 더 봉사하게 된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그 부분도 힘써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아직 자체 회관이 없어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먼 후일, 긴 세월을 성환문화원장, 충남문화원연합회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등의 자리에서 문화원을 위해 헌신하며 신나고 보람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면 아마도 문화원사 개축하던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될 거 같다고 한다. 그만큼 원사 신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버지가 신가초등학교 신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종석 전 원장도 농업인 회장으로 있을 때 농업인회관을 3층으로 세웠었다. 이제 또 서북구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장으로 원사 걸립에 심혈을 기울이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책연구소장으로서도 회관 건립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서북구문화원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서북구문화원이라는 명칭에서 '구'자를 빼고 서북문화원으로, 충남에서 돋보이는 1등 문화원, 전국에서 넘버 3안에 드는 상징적인 문화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들도 진취적으로 호응하여 한몫하고 있으니 옛 천안문화원의 명성을 서북문화원에서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각급 문화원장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근간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해석하여 주민에게 심

어주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오랫동안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그다운 바람이다.

<인터뷰어 김용순, 스토리텔러 김용순>

공주시

| 6.25 그 앞과 뒤

목숨 열 둘 116
아버지! 나의 아버지 123
교육계 - 6.25 전후 이야기 131
50년 6월 25일부터 휴전까지 138
천하 명당 동해동 146
훈장 없어도 참전 용사다 152
학교 교실이 인민재판정이 되다 159
7일을 굶고 165

공주시

6.25 그 앞과 뒤

강 태 의 (1931년생)
공주시 의당면 본동길

목숨 열 둘



고요하고 평화롭던 마을

강태의가 3살 이후 살아온 율정리는 참으로 평온한 마을이었다. 1931년 율정리의 아랫마을인 의당면 수촌2리에서 아버지 강기선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 3대 독자로 태어나 3세에 율정리로 이사했다. 『수촌 사람들은 억센 사람덜이 산다구 점잔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찾어서 온 기지.』

율정리는 공주에서도 양반 동네로 소문났던 마을이다. 본동에는 청송심씨가, 양촌에는 안동권씨가, 흥덕에는 파평 윤씨가 부를 이루고 살았고, 이 3 가문은 마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았기 에 조용하고 점잖은 마을로 소문이 높았다.

그러나 강태의의 율정리 생활은 평화롭지 못했다. 그의 나이 8세에 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3대 독자인 아들을 걱정하여 재혼하지 않고 강태의와 여동생 남매를 키웠다. 중농 농사를 지었지만 어머니가 없는 집안의 살림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그의 나이 19세에 시작된 6.25 동란의 소용돌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온한 삶이었다.

의당면의 일본 유학파 독립운동의 흐름

일제강점기 의당면 내에 몇몇 가문에서 자식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다. 율정리의 심씨, 월곡리의 윤씨. 중흥리의 구씨, 용암리의 이씨 등인데 이들 모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훗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었다.

심모씨는 몽양 여운형 계열이었고 율정리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심모씨는 율정에서 독립운동이나 해방 후 이데올로기에 당하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심씨 가문은 조선 중기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심택현이 낙향하여 율정리에 뿌리를 내린 후 대를 이어 양반 가문을 이어나갔고 조선 말 이 마을에 사는 심씨 8가문이 3천석의 부를 꾸려 나가는 등 번성한 집안이었으므로 멸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율정리의 한모씨가 박헌영 계열의 공산당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좋고 능력이 있던 한모씨에 의하여 해방 후 공산당으로 열정으로 활동하였다. 한 마을에 2개 계파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양촌의 박씨와 김씨 중 일부도 한씨에게 동조하여 심씨 집안이 아닌 한씨 집안의 공산당 활동으로 공주의 모스코바라는 오명이 퍼진 상태였다.

문제는 6.25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대전으로 피난을 하면서 후퇴를 하면서 향토 공산당을 죽이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아직 공주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공산당이라 하여 율정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4명이 끌려갔다.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6명

이 사건이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이다. 그러나 정작 보도연맹이란 1949년 정부에서 공산당을 회유하기 위하여 시행한 시책이었다. 미 군정 치하에서 공산당 활동을 용인하였기에 공산당으로 활동했고, 신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그런데 1948년 남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산당을 금지했지만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았다. 그러기에 49년 공산당 활동을 하지 않고 전향하면 쌀과 보리쌀을 준다고 회유했으며, 이때 공산당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쌀이나 보리쌀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가 작성된 것이다.

율정리의 박씨들이 이곳에 이름을 올렸다. 안타까운 것은 가난 속에서 보리쌀을 준다는 말에 공산당 활동을 하지 않은 2명도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물론 열성 공산당이었던 한모씨와 다른 1인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향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6.25가 터졌다. 세상이 전쟁이 났다고 뒤숭숭했지만 마을은 조용했다. 그런데 6월 초 마을에서 공산당을 색출한다고 보도연맹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6명이 한꺼번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먼저 끌려간 4명은 왕촌에서 죽었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고 시신도 못 찾았고 나중 끌려간 2인은 현대 도축장이 있는 여차니[1]에서 죽어 시신을 찾아왔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은 시기에 마을 사람들 여섯의 생목숨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몸을 숨긴 한모씨와 김씨 집안 사람들은 화를 모면했지만 끌려가 죽은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아! 인민 재판

『순경 집안이나 군인 집안은 죄다 죽인디야.』

1) 의당면 수촌1리 산 계곡의 이름

금강 다리가 끊어졌다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만 해도 두려움에 휩싸일 때인데 이런 소문이 돌자 마을에서는 여러 사람이 피난 길에 올랐다. 어떤 사람은 동혈산이나 무성산 등 가까운 곳으로 피했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로 내려갔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마을에는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남쪽이면 어떻고 북쪽이면 어떠냐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와 점령하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뼈저리게 느낄수 밖에 없었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람을 잡아갈 때 몸을 숨겼던 한 모씨가 나타났고 당연히 의당면의 공산당 위원장 완장을 찼다.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완장을 채웠다.

『월봉 참나무쟁이[2]에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 어티기 알었는지 미군덜은 폭격을 해댔구. 하루두 조용한 날이 웁썼지. 그라는디 인민재판이 열린거여』

금강 – 인민군들은 저지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한강 저지선에 어려움을 겪은 인민군들은 금강에도 저지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준비했다. 금강 전투에서 사용할 포탄을 하필 율정리에 쌓아 두었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군 비행기가 연일 폭격을 해 댄 것이다. 그뿐 아니었다. 금강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면 민간을 동원해야 했던 인민군들이 금강 이북 지역의 주민들을 휘어잡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 그러기에 의당면에서는 일찍 인민재판이 열렸다. 그 인민재판에서 하필 율정 사람 2인이 당했다.

『구00이 지금 00의 할아버지여. 당시 이장을 보고 있었는디 율정에서 나온 면 인민위원장 한00이 고발을 해서 끌려나간 겨.』

다른 한 사람은 당시로는 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한 00으로 두 사람이 끌려나가 총살을 당했다. 중흥리에서 2명. 용암리에서 2명이 끌려 나갔는데 용암 2명은 목숨을 보존했고

2) 율정리 마을 앞 동산의 이름.

중흥리 2명도 총살을 당했다. 첫 번째 인민재판에서 4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금강은 전투 없이 인민군들이 도강을 했다. 덕분에 마을 사람 중 무기 수송의 부역을 나간 사람들은 대평리까지 옮겨 주고 돌아올 수 있었고 금강교 응급 복구 외에는 부역에 동원되지 않았다.

청년 동맹 위원장

『처음이 그 사람덜이 내려 왔을 때 나보고 청년동맹을 맡으랴. 안한다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러서 한다구 했는디, 지서에서 회의가 있다구 해서 갔지. 그런디 가서 보니께 내가 감당할 사람덜이 아니더라구. 그래서 못한다구 쪽 뻗었어, 한00한티. 그래서 벗어났지.』

강태의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북한의 실정을 몰랐던 그는 한00이 해보라고, 도와준다하여 별 걱정하지 않고 맡겠다고 하였지만, 인민재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분위기를 엮어내는 모습에 질려 버렸다 한다. 인민재판을 보고 난 후가 아니라 인민재판을 준비하는 모임에서 빠져 나왔다. 그도 한00이 강태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도와 주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 날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시키는 일을 하되 가급적 조용하게 지냈고 빨리 포기한 덕분에 조용히 넘어 갈 수 있었다.

수복 후 – 또 다른 목숨이

『국군이 올러오고 나서도 시끄러웠지요?』

『빨갱이 앞잽이 노릇한 사람덜 잡어 는 거지 뭐. 그 한00은 또 도망을 쳤어. 찾지 못한다구 요란스러웠는디 한 서너 달 후 무성산이서 잽혀 왔디야. 죽었어 그 사람두,』

한00과 또 한 사람은 불운했던 것 같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국군이 공주를 수복했을 때는 북한 조력한 사람이나 속칭 완장을 찾던 사람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 같은 절차로 복수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피해 숨어지내던 한00과 또 한 사람은 하필 1.4 후퇴 시기에 잡혔고, 서울이 다시 떨어졌다는 소문에 뒤숭숭하던 민심은 2차 인민재판에서 처형된 사람의 가족들이 주동하여 흡사 인민재판처럼 수촌리에서 죽였다 한다.

『한00은 율정 사람이라구 해두 죽는 건 못 봤어. 수촌서 죽었다구 얘기만 들었어.』

『그람 몇이나 죽은규? 전부는?』

『모르지. 정확히는.』

『열 두 명인 걔뷰.』

보도연맹 사건으로 남한의 경찰에게 죽은 6명과 1차 인민재판에서 4명, 그리고 수복 후 2명, 이 외에도 희생자야 있었겠지만, 세상에 알려진 수만 12명인 셈이다.

후손들의 삶

『그 후손덜은 어티기 되었대유?』

『인민재판에서 죽은 사람덜 후손은 동네 살구, 다른 사람덜은 다 떴지 뭐』.

그러나 사실 해방 후부터 한국 전쟁 직전까지 공산당 활동을 한 집안사람들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보도연맹 명부에는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이름이 빠졌고,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는 한00에게 밀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때문에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간 것이다.

『그래두 오래 갔어. 구00 집안은 언제나 조용했는데 의상씨네 터에 살던 사람 자손덜은 자주 싸웠구, 싸울 때는 꼭 빨갱이 자식이라구 하면서 멱살잽이를 했지.』

전쟁 때문에 강태의는 일본놈들보다 북한 인민군이 무서웠다 말한다. 일본놈들은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한글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학교 밖에 공부하지 못했다. 한글은 배우지도 못했다. 그렇게 자신의 어지러운 인생을 회상했지만 정작 6.25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민간인의 목숨을 거두고 걸핏하면 총으로 위협하던 모습 때문에 지금도 몸서리가 처진다 말했다.

한국전쟁 이후

『군대 생활은 미군 부대서 했어.』

그는 휴전 후 결혼을 했고 결혼 후 군대에 입대했다. 전쟁 후이며 3대 독자라서 어떻게든

군대에 가지 않으려 노력하다가 첫 영장이 나온 2년 후에 입대했다. 그리고 당시는 무학자가 많던 군대라서 일제 강점기 소학교를 졸업한 것이 좋게 작용하여 미군 부대의 육군본부 직할 중앙 보충대 일원으로 선발되어 비교적 편안히 군 생활을 했다. 그리고 제대 말년에는 논산 훈련소 조교로 근무하였다. 결혼 후 그는 율정리에서 하나 뿐인 외딴집으로 이사했다.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에서 1Km 떨어진 산속에 한 채 밖에 없는 집에서 살았지만, 그 시절이 가장 편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아들을 여럿 두고 싶었지만 1남 7녀의 자식을 두었고 1980년대에 다시 마을로 이사하여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율정리 남자 최고령 노인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조용조용 말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촌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누구도 그가 한국 전쟁에 그런 회오리에 휩싸였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평온한 노인이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노 연 (1932년생)
공주시 우성면 목천2길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 질문은 본 사업의 책록 시작 초반에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이다. 생애사를 조사하면서 가정 형편은 어떠했는지, 유년 시절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연 씨의 채록에서는 이 질문에서 한꺼번에 6.25 동란의 이야기로 거침없이 빨려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서른아홉 살. 노연의 아니 15세에 갑자기 인민군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만경 노씨의 집성촌이나 다름없던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에서 논 15마지기, 밭 500여 평의 농사는 짓는 농사꾼이면서 성격이 호탕하고 누구에게나 서글서글하면서도 자상했던 아버지였다. 마흔이 되지 않은 청년이었기에 이장을 본 적은 없었지만, 마을 청년들의 중심이었고 해방공간에서 남북이 신탁이니 반탁이니 갈등이 있을 때 목천리 대한 청년 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온 그 날 밤에 끌려가서 인민재판도 아닌 몇 명의 결정으로 산속으로 끌려 들어가 총살을 당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시신을 찾아가라.』 그야말로 실감조차 되지 않는 청천병력이었다.

피난 가라는 권유에 아들만 피난을 보내고.

6.25가 발발했다는 소문이 돌고 금강교가 폭파되었다. 강변 마을이던 목천에서는 미군들이 폭파한 강 다리 끊는 폭음이 아주 생생히 들렸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피난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피난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 못 할 짓을 한 게 없는데 무슨 피난을 가느냐?』며 피난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장남만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에 사는 자신의 여동생, 즉 노연의 고모네 집으로 피난을 보냈다.

노연은 화월리에서 3일을 묵었다. 그 마을에도 인민군들이 들어 왔고 많은 인민군은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와서도 평온했다. 사람들을 모아 놓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노연은 다음 날 집

으로 돌아왔다. 아침 일찍 고모네 집을 출발해서 40여 리 길을 걸어 목천리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노연이 집으로 돌아와서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후 인민군 한 명과 마을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던 박00이 찾아와 아버지를 끌고 갔다.

노연은 사실 아버지가 곧 돌아올 줄 알았다. 그것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목천리에는 노연이 집으로 돌아온 날 인민군들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북한 체재에서 인민재판을 통해 현장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밤에 뒷산에서 총성이 울렸고 사람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시신을 찾아가라는 거였어.』

한 밤에 치룬 장례.

아랫집에 사는 집안 어른과 함께 산길을 올라간다. 마을 뒷산에는 많지는 않아도 숲이 있었고 숲길을 지나면 상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 위쪽에 산밭이 몇 다랭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밭둑에 쓰러져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아버지 시신이 얼마나 참혹한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밀짚 방석에 말아지고 내려오는 아버지의 시신을 뒤따라 집으로 왔다. 집안 어른은 아직 얼굴 보면 안 된다며 밖에 세워 두었고, 한참 후에야 방으로 들어가 모든 피를 흘린 때문인지 하얀 얼굴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다.

『장례는 잘 치루셨어요?』

『장례도 밤에 치뤘어. 미군덜 비행기가 뜨는디 사람덜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구 해서...』

마을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반동으로 죽은 사람의 집에 장례 일을 도와주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분위기였다. 어둠 속에서 가마니로 만든 들것을 이용해 시신으로 임시로 잡은 산소 터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설픈 산소를 짓고 돌아와야 했다.

만경 노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목천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례였다. 그도 그럴 것이 노연의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던 날 노연의 아버지 하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을 보던 노연의 집안 어른도 함께 총살되었기 때문이다. 노연의 그 어른의 장남이 일찍 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근무했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보도연맹의 복수.

목천이는 자연마을 4개로 이뤄진 마을이다. 목천리 1구는 본동에 해당하는데 노연의 집안 어른이 사는 집 맞은편에 0씨 형제가 타 마을에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다. 노씨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고 0씨 집안 역시 가난하지는 않았던 집안인데 두 집안은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방 후 공주가 신탁 반탁하며 남북의 갈등이 극대화되었던 시절 0씨 집안 형제가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열심히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박헌영 계열의 공산당이라 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 하여 0씨 집안의 형제 중 한 명이 끌려가서 죽었다. 남쪽 경찰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민군들이 들어왔고 0씨 형제는 이른바 인민군이 채워주는 완장을 찬 것이다.

사실 공주에 들어온 인민군들은 인민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형장 사살은 거의 없었다.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을 호주들과 부녀자들을 모여 놓고 인민재판을 하였으며 면 단위 일 때는 면 소재지 몇 개 마을의 지역 공산주의 운동을 해 온 인물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놓고 인민재판을 열고 사형을 언도한 후 총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목천리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0씨 집안 형제와 소수의 인민군만 참여하여 두 사람을 즉결 처분한 것이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국군이 진주한 후 0씨는 어떻게 되었어요?』

『몰러, 들리는 소리로는 전부 금강 변으로 끌려갔다는데 그 후로 본 사람은 없어.』

대답하는 노연의 목소리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채워 갔다. 어려워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어간 것이다.

종합한 이야기는 그랬다. 노연의 아버지와 함께 총살을 당한 사람의 아들이 군대에 있었고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여 치열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워 중대장 이상의 직위로 승진하였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을 했다.

불행하게 그 군인은 대전을 지나 북진하는데 공주 가까운 길로 진군하였다. 군에서도 인

민군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군인이 아닌 주민을 죽이는데 군인 가족과 경찰 가족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외출을 허락받고 집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0씨 형제에 의해 인민재판도 없이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군인은 0씨 집안의 모든 가족을 묶어 끌고 금강변으로 나갔다 한다.

군인은 0씨 집안 사람을 처리한 후 마을에 들어오지도 않고 군부대로 복귀했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이 일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덜[3]이 너무 난리를 쳤어. 인민군들이 차출하여 포탄이니 군인덜 식량이니 나르는 노역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젊은이덜을 의용군으로 보내는 것도 억척을 떨었는디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어.』

어느날 갑자기 소년 가장이되고

아버지가 사망했다. 불과 4 개월 밖에 않되는 짧은 기간에 마을은 기묘한 침묵에 휩쌓였지만 겉으로는 평온했다.

문제는 당시 15세로 중학교 3학년이던 노연은 집안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것이다. 『학교? 아버지 돌아가시구는 못 갔지 뭐. 바로 농사짓기 시작했어.』

가족도 적지 않았다. 할머니가 생존해 있었고 젊은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 사이에 5남매의 자식이 있었으니 모두 7식구나 되었다. 막내 동생의 나이는 겨우 3세였다. 자상한 아버지 덕분에 중학생이 되도록 농사일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시절 대부분의 학생은 국민학생 시절부터 학교에 다녀오면 소의 꼴을 베고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도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장남에게 공부하라고 농사일도 거의 시키지 않던 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농사꾼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 여윈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어. 밥도 할머니가 지어야 하셨어.』

동생들은 어리고 그 역시 열다섯 살에 불과했지만, 공산 치하 3개월 동안 농사일을 혼자

3) 공산당 활동을 한 0씨 형제들을 말함

해야 했다. 물론 6.25 이전 목천리는 두레 결집력이 아주 센 마을이었다. 전통사회에서라면 장정 호주가 없는 집안의 농사는 두레 좌상이 마을 장정들을 배분하여 농사를 지어주고, 가을에 품삯으로 정리해 주었지만 6.25가 터진 1950년에는 두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장정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연은 3천 평의 논과 5백 평의 밭농사를 혼자 지어야 했다.

『집안 어른들이 밤에 몰래 오셔서 내일은 뭐를 해야 한다고 알려 주셨어. 일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고. 그 얘기 듣고 억척으로 일했지. 내가 못하면 식구덜이 모두 굶어 죽는 거 같어서.』

담대했던 할머니.

할머니에게 노연의 아버지 노원복은 외아들이었다. 할머니였던 함안조씨 노연의 할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이다. 그것도 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멀쩡했던 아들이 다른 인간에 의하여 갑자기 살인을 당한 것이다. 38세에 남편을 잃은 노연의 어머니 강릉김씨는 남편을 여읜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었지만 할머니는 담대했다.

『할머니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일이잔어요?』

『그렇지. 그런데 할머니는 담대하셨어.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셨고 남자처럼 당당하셨어. 슬픈 내색 한번 안 하셨지.』

그런 힘으로 집안은 표면적으로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어머니 역시 할머니의 영향으로 점점 평온해졌고 건강을 되찾아 가정을 꾸리려 애쓰는 아들과 함께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할머니 봉양을 잘하셨어. 할머니가 85세에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번도 남에게 병간호를 맞기지 않으시고 직접 모셨어.』

가정 형편으로 21세에 결혼을 하고.

남편 없는 할머니와 어머니만 있는 집안. 이런 영향으로 만경 노씨 문중의 어른들과 어머니 할머니는 노연의 결혼을 서둘렀다. 그리고 스물한 살에 당시의 연기군 서면[4] 강릉김씨 문중의 규수와 혼인하였다.

『걸어서 가고 걸어서 왔어. 새 각시는 가마에 태우고 오는데 산길은 새댁이 걸어가다가 평지가 나오면 가마에 태우더라고.』

결혼 후 2년 만에 큰 딸을 낳았고 그 후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다. 6.25의 영향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아쉬움 외에는 어려움도 없었다. 농사를 지어 집안을 일궈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물려 준 3천여 평의 논과 5백여 평의 밭 외에 다른 사람이 짓지 못하는 논밭을 소작으로 얻어 농사를 지었다. 1970년대 이후 농사에 기계화가 진행될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경운기를 구입하였고, 트렉터도 일찍 구입하여 선진 농업을 시작했다.

『땅을 많이 사지는 못했어. 논 여섯 마지기 더 사고 밭 조금 더 샀지.』

아들딸의 공부에도 열심이었다. 당시로는 아들은 대학을 가르쳐도 딸은 고등학교만 보내도 많이 가르쳤다고 하던 시절이었지만, 큰딸을 충남대학교에 보내 학교 선생으로 재직하게 하였고 두 아들도 대학에 보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모두 보내지 못한 자녀들을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로 살았다.

짧은 군대 생활

군대는 28세 늦은 나이에 입대했다. 아버지 없이 8식구의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늦은 나이에 입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미 3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걱정을 안고 입대해야 했다.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했던 영향인지 입대 반년 만에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논산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도 받지 못하고 63 육군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입대한 지 10개월여 만에 의가사 제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무얼 먹고 낳았는지 몰러. 집에 와서는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해 주시는 사약(私藥)만 얻어먹었는데 스사로 낳더라구.』

뚜렷한 병명 없이 속앓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좋아졌다. 다만 그 후로 술을 마시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술을 못 마신다.

---

4) 현제 세종시 연서면

90대 농부

아내가 몇 년 전에 사망했다. 다행히 병환으로 오래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앓고 저 세상으로 갔다. 남들은 죽는 복을 타고났다고 말하는데 노연의 생각은 다르단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가사 도우미가 일주일에 2회 찾아와 음식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며, 아들 며느리며 딸들이 자주 찾아와 살아가는 것을 보살펴 주어 사는 것은 불편하지 않단다. 더구나 몸이 건강하여 아직도 적은 양이지만 농사를 짓고 경운기 운전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는다. 그러나 다른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꼭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먼저 사망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란다.

『그 사람(아내)이 딱 한 번만 왔으면 좋겠어. 1주일만 왔다 가더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다른 소원은 없어.』

6.25는 미친 짓이었다고 말하는 93세의 노인 농부는 김정은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서 재 홍 (1931년생)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교육계 - 6.25 전후 이야기



명문의 장남

서재홍은 의당면 요룡리에서 10대 이상 긴 세월을 5백 석지기 농사를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서광선은 1909년생으로 요룡리에 당시로는 신식 발동기를 돌리는 큰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했고 문중에서도 5백석 재산을 3백 년 이상 지켜 온 것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도 명문 출신이었다. 반포면 성강리 전주이씨 가문 중 이병주가 3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재홍의 어머니는 국회의원의 셋째 누나였다.

요룡리에 터를 잡고 벼슬아치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 문중이 느끼는 아쉬움이었지만 마을에서는 후덕함으로 인심을 크게 얻고 살아왔다. 그리고 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손들의 교육에 힘써 당내 집안 중 공주 교육대학 총장도 배출했고 여러 명의 선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집안의 4촌 형제 중 한 사람은 겉으로는 친일을 하는 것처럼 활동하여 일제 치하에서 의당 면장을 지냈으나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마을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운영하면서 한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신식학교에 들어가고.

일제 치하에 의당면 월곡리에 의당 국민학교가 세워졌다. 당시 의당면의 양반 가문에서는 왜놈 학교에 자식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서재홍의 아버지는 서재홍의 나이 9세에 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국민학교 때는 조선어를 가르쳤어. 그런디 중학교에 가니께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 끼리도 한국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

당시 공주 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중학과정과 고등 과정을 합한 학교로 6년제였다. 한 학년에 2학급이며 한 학급에 50여 명의 학생이 공부했는데 매일 아침 신사참배를 해야 했다. 보통 날에는 학교에서 참배를 하고 반장들이 대표로 봉황산 신사에 갔지만 1주일에 하루는 공주를 대표하는 신사를 봉황산 중턱에 지어 놓고 신사에 가서 참배 강요했다. 참으로 하기 싫은 일이었다. 집안에서도 양반이라 하여 마을 고사가 미신이라고 듣고 컸는데 엉뚱하게도 일본사람들의 신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니 대한민국이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 못했지. 마을에서 듣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신사에 가는 것은 싫었어. 오가는 길이 힘들기도 했고.』

중학생들에게는 군사 훈련도 시켰다. 반별로 분열과 사열 연습을 시키고 1, 2학년들에게는 목총을 주어 총검술을 익혔으며 3학년 이상은 실 총을 주고 훈련을 시켰다. 일제 말기인 1942년년 이후에는 학도병을 차출한다고 하였다. 공주보고는 인문학교라 하여 학도병을 차출하지 하지 않았으나 다른 학교에서는 차출하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학도병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이 연일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학교생활은 싫지 않았다. 집에서 학교까지 10km에 달하는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지만 하루도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날은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국 사람은 몇 분 않되었어. 모두 일본 사람덜이었지.』

그러다가 그의 나이 15세 중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있던 일본인 선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선생이 없는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건 공주만의 일이 아녔어.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주밖에 없었지만, 농업 실업이 공주, 예산, 천안에 있었구 상고가 강경에 있었는디 한국 선생이 몇 명이나 되어. 아주 난리였지.』

결국, 한국인 선생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빠른 학교는 1년 늦은 학교는 2년 정도가 교육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한다. 해방 당시 공주 고등보통학교의 교장은 민씨 성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터진 6.25

겨우 학교가 안정되어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할 때 6.25가 터졌다. 집에 나이로 20세였다. 6.25는 또 학교 공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아버님과 피난을 나갔지. 집을 떠나서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산을 가니께 북한군이 이미 앞섰다는 거여. 그리니 멈추었고 어떤 집에선가 하룻밤을 자고는 다시 집으로 올러 왔어.』

『오셔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인민군 점령하에서 의당면은 매우 심한 고난을 겪은 고장이다. 금강에 강력한 저지선이 쳐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인민군들이 금강 전투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장악하려하였기 때문에 의당 국민학교에서 인민재판을 열어 4명을 총살한 것이 점령 1주일도 안 된 시기였다. 더구나 보도연맹 사건으로 남한 정부가 의당면에서 많은 인원을 공산당으로 몰아 총살한 후였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앞장서 인민재판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인민군 점령 직후 의당면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때 색출하여 인민재판에 회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공간에서 대한 청년단 등의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지만 인민재판으로 군인 가족과 경찰 가족, 그리고 재산이 많은 지주를 부르조아로 낙인 찍어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했었다. 그러기한 한 질문인에 대답의 의외였다.

『별 다른 어려움은 웁썼어. 낮에는 두만 동혈산 산속에 있다가 밤에 내려오기는 했어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 동네도 조용했고.』

토지 개혁으로 농토를 잃고 교육계로

해방 후 농촌의 가장 큰 변화는 토지개혁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유지했던 전답을 모두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그나마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종가 마을인 요룡리의 땅들은 토지 분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타지, 지금의 요룡리 1구인 요룡동의 전답까지 모두 토지개혁에 포함되어 남의 땅이 되었다. 300년을 지켜 온 농토를 단번에 잃고 논 20여 마지기의 중농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일은 집안의 어른들이 자식 교육에 전념하게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훗날 공주교육대학 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으며 의당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인물이 4촌이기도 했다. 사위가 교수로 재직하는 등 집안이 교육자의 집안이 된 것이다.

인심 덕분에 점령치하를 조용히 넘기고

『요룡리 청년들이 의당 치안대를 습격했던 일도 있었잔어요』

『그런 일은 모르는데...』

이 이야기는 종전 후 10여 년 동안 회자되던 이야기다. 지금의 요룡1리 장정들이 장정들을 인민군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에 반발하여 몽둥이를 들고 월곡리 치안대를 습격하여 공

산당 앞잡이 노릇을 하던 면 청년동맹위원장들을 구타하고 무성산으로 피난해있다가 국군 진격 후 마을로 돌아온 사건이데, 서재홍은 모르고 지나갔다.

현재의 요룡 2구에 살고 있어서 1km 정도 떨어졌지만 당시는 한 마을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다. 이는 부자로 살면서 소작농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후덕하게 하여 마을 사람들이 서씨 집안을 보호하려 한 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과 결혼 그리고 짧은 군생활

『스물 다섯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해에 경상도 문경중학교에 교사로 발령 받었지.』

『결혼은요?』

『스물 네 살에 했어. 수복 후에 잠시 대전에 피난했고, 대전에서 선생을 할 때 처제가 제자였어.』

95세의 고령인 서재홍 선생은 옛날의 증언에서 나이에 대하여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20세에 고3이었고 대학 졸업 후 선생이 되었으며 첫 발령지가 경상도 문경 중학교였다가 군 제대 후 대전으로 옮겼는데 결혼이 24세였다 한다.

확실한 것은 문경중학교에 발령을 받은 1년 후 군에 입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학교에는 교사 부족 사태가 심각했다.

1955년 입대를 하였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육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년만에 제대하여 대전의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결국 교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 제대를 한 것이다.

42년 평교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대전에서 공주로 오는 과정에서 승진 기회를 놓쳐서 평생 평교사로 근무했지.』

제대 후 유성 중학교에서 8년 근무했고 대전 중학교에 1년, 그리고 충남 논산의 논산 중학교와 연산 중학교에서 12년 근무를 했는데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정안 중학교로 옮겨야 했다.

아버님의 병환 때문이었다. 정안 중학교에서 5년을 보내고는 탄천 중학교와 우성 중학

교 각각 5년을 근무한 후 유구 중학교와 공주여중을 끝으로 정년하였다.

정년 퇴임을 한 지도 30년이 흐른 셈이다.

『선생할 때보다 공부할 때가 어려웠지.』

국민학교에서 국어를 공부하지 못했고 중학교에서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일본어로 공부해 온 학생들이 해방 후에는 한국어와 한글만으로 공부해야 했다. 더구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소학교 교사였던 사람들이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학교로 발령받아 가르쳤다. 역사 선생이 국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화학 선생이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는 쉬지도 못하고 발령을 받아 아이들 앞에 서야 했다. 지금처럼 미리 행하는 교생 실습조차 없었다. 전쟁의 폭격으로 건물이 없어 운동장에서 가르치면서 학교 건물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래도 선생이 천직이라 생각했기에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다.

5 남매의 아버지

『3남 2녀를 두었지. 큰아들은 대학 나와서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구 손자는 남매를 뒀어.』

둘째 아들은 대학을 나와 공무원 생활을 했고 역시 남매를 두었으며 셋째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의성의 요양병원과 온양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지금은 WHO 아시아 지국 일을 보는데 부부 의사란다. 장녀는 전업 주부인데 차녀는 대학교의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단다.

.

지금 세상에 바라는 바가 있으신가요?하는 마지막 질문에 서재홍은 없다한다.

『조선어라고 했는데 국어지. 그걸 어릴 때 공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서운했어. 국민학교 때 의당면의 신사는 월곡리, 그전의 파출소 자리에 있었고, 동네 유지들이 앞에서 참배를 하면 국민학생들이 뒤에 서서 참배했는데, 그 시간만 조선어 교육을 시켰어도 해방 후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95세. 한 세기 가까이 살아 온 노 교육자의 가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어릴 때 한국어와 한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회한이 더 크게 남아 있었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공주시

6.25 그 앞과 뒤

이 은 찬 (1931년생)
세종시 장군면 용현리

50년 6월 25일부터 휴전까지



6월 25일부터

이은찬은 한국 전쟁이 터지던 날 군인이었다. 그리고 휴전할 때까지 살아남아 육군 보병이였고 휴전 후 제대 명령을 받고 제대하였다.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에서 아버지 이철하와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나 좀 늦은 나이에 무려 12km를 걸어가야 하는 의당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뒤 우리나라 국군을 창설할 당시 육군으로 지원해서 군인이 되었다. 당시에는 의무 입대가 아니어서 지원하는 사람만 군에 갈 수 있던 시기인데 자원해서 군대에 간 것이다.

『왜 군대 갈 생각을 하셨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갈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만 지어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어서 지원을 했지.』

그렇게 시작하여 훈련을 받고 50년 6월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의 계급은 지금의 상병에 해당하는 하사였다. 그런데 25일 전쟁이 났다고 하면서 강원도 춘천으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부대 상황은 긴박했지만 당일 출발하지 못했다. 원주에서 춘천을 가려면 청량리로 가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야 했다. 결국 26일 기차를 타고 청량리로 가서 다시 춘천가는 기차를 타고 출동하여 춘천역에 도착하였다.

춘천 도착 즉시 철수 명령

『그런데 춘천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했어. 훈련하듯이 군장을 풀었는디 이미 춘천 시내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여.』

그래도 26일에는 희망적인 명령 속에 있었다.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전쟁터로 출동한다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었다. 북한군은 생전 한 번도 본적 없는 탱크를 앞세우고 밀려들었고 총도 쏴 보지 못하고 철수 명령을 받았다. 철수 명령도 기막힌 것이었다. 싸우면서 퇴각하여 홍천으로 집결하라는 막연한 명령이었다.

『싸우면서 퇴각하라는 말이 죽지 말고 살아오라는 말이라는 걸 알었지.』

이미 인민군들은 이은찬의 부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있었다. 보급은 끊어졌다. 결국 인민군 치하가 된 상황에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가 밤이면 민가에 들어가 무엇이든 얻어먹고 어둠을 헤치고 남하하는 것을 반복해야 했다.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강원도 산속에서

밤에만 퇴각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쯤 왔는지조차 상황 파악이 어려운 퇴각이었다.

『그때 중대장을 잃었어. 그 사람이 북한 출신으로 박00이었는데 홍천에 도착하기 전에 전사한 거여.』

함께 퇴각하는 동료 군인들이 죽는 충격을 말할 수 없이 컸다. 홍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인민군들이 홍천을 지나 남하한 후였기에 계속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문경에서야 미군 비행기 폭격을 만나고

인민군들의 진격은 도로를 타고 진격하였고 퇴각하는 국군들은 산길로만 내려간다. 더구나 인민군들은 밤낮없이 전진하는데 퇴각군들은 밤에만 이동했다. 도저히 인민군들을 앞질러 내려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주, 죽산 충주를 거쳤다. 문경 세재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을 싸웠는지, 인원 점검을 몇 번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히 인민군을 앞질러 육군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문경에 가니께 미군 비행기가 날러 당기구 폭격을 하더라구. 그때서야 전쟁다운 전쟁을 할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지. 사실 비행기 폭겨도 그때 처음보았어.』

홍천에서 부상을 입고 헤어져 생사를 모르던 유00을 만난 것은 낙동강 전투에서 였다.

낙동강 전투의 부상

『원주에서 출발은 1천여명이 넘었는데 낙동강을 건너 인원을 점검했을 때 50명이 조금 넘었지.』 6월 26일 출발해서 8월 10일경 부대에 합류했을 때 대부분은 죽은 후였다. 그리고 곧이어 시작된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 50년 8월 18일의 일이었다.

『다른 생각은 없구 집이 다 갔구나 싶었지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발바닥에 파편을 맞았고 몸에도 부상이 있었는데 3일 후 부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이라야 시멘트 바닥에 자리 깔아 놀고 눕혀 놓은 채 페니실린 주사만 맞는 생활이었고 먹는 것을 넘기지 못해 호스로 물을 마시며 버텼다. 그리고 4개월 후 1.4 후퇴 즈음에 복귀하여 부대에 들어가 강원도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른바 38선 가까

운 지역에서 밀고 밀리는 전쟁터에 투입된 것이다.

중공군의 포로가 되다.

『강원도 인제 관대리라는 데서 대치하고 있었는디 3만에 이르는 중공군 3군단이 우리를 포위한 것이여. 51년 5월 17일에 중공군 포로가 되었지.』

원산 남쪽의 초로 수용소는 산속에 굴을 파고 15명 정도의 포로에 감시하는 인민군과 중공군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포로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른바 교육이었다. 3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그중 탈출하는 사고가 있으면 모두 없어지는데 오전에는 『시사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오후와 밤에는 『정치 상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였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세뇌 교육을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끼에 옥수수 한 자루, 콩 삶은 것 한 주걱, 소금을 조금 부식으로 주는 정도였다.

이곳에서 이은찬은 기막힌 경험을 했다.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했던 인민군들은 『공산주의가 좋아서 인민군에 자원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포로가 있는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게 시켰다. 이은찬은 전향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한동네 살던 의당 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갔다 3일 만에 붙잡혀 왔어. 그런데 조장에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조장이 일러 바친거여.』

그는 포로들이 모인 자리에 끌려나가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질책을 받았다. 그야말로 반동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은찬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다. 그동안 교육을 받으며 공산당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서 그 의사 표시를 하려고 조장에게 말한 것이라는 거짓말이었다.

탈출 후 미군의 포로가 되다.

이 사건은 이은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5월에 포로가 되어 5개월동안 중공군의 포로였는데 인민군의 물자 수송병으로 파견된 것이다. 원산을 벗어나 강원도로 내려왔다. 그러나 도망병이 많았던 포로 출신 부대원들이 감시는 상상 이상이었기에 도망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은찬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 신임을 얻어야 탈출의 기회가 올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은 쉽게 찾아왔다. 총도 주지 않는 노무병이라서 물건을 나르는 일만 했는데 부대 보급병으로 온 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낮 동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오고 가면서 주위를 유심히 보았어. 앞에 계곡 건너에 짚차가 오가는 것으로 국군이 있다는 것, 지뢰를 피하려면 냇물로 들어가 물을 따라 내려가면 되겠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전우애가 쌓인 1인에게 쪽지글로 『없으면 간 줄 알어라.』라는 말만 남겨 두고 기회를 엿보았다. 요행히 그 동료와 같이 출발했다. 몸에는 들키면 죽을 요량으로 챙긴 수류탄 2개가 전부였다. 부대에서는 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또 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낮에 보아 둔 길을 따라 냇물로 들어가 어렵지 않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필 그 부대는 미군이었다. 통역병을 데리고 와서 심문하는데, 북한이 보낸 첩자라 하여 도무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어이없게도 중공군의 포로를 탈주하여 내려와 남쪽에서는 미군의 포로가 된 것이다.

당신의 총을 내 앞에 대라!

억울했다. 무엇보다 낙동강 천투, 부상 후 복귀, 중공군 포로 생활 등의 일들을 열에 들떠 떠들었지만, 통역병이 무엇이라고 전하는지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고 인민군이 보낸 첩자 대우를 했다. 억울했던 이은찬은 이 상태에서 끌려갈 수 없다는 심정으로 미군 대대장이 있는 앞에서 그의 총을 자신에게 겨누라 하였다. 그리고 총구만 바라보며 소리 질렀다.

『나는 대한민국이 내 집이라 왔다. 왜 내 말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냐.?』

당신이 나를 쏘아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각오로 말했는데 엉뚱하게도 미군 대대장은 『전투 현장에 가서 미군의 시체를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래서 말했단다. 내가 속해 있는 부대에 복귀하고 내 상관이 명령하면 하겠다고.

이은찬의 결연한 의지를 본 그 대대장은 어떻게 통역 되었는지 모르는 그 순간이 지나고 이은찬은 첩자가 아니니 후방으로 보내 원대 복귀시키라고 명령하였다 한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논산까지 차로 실어다 주었다. 그의 부대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양성하는 부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군대 생활은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 고생 끝에 다시 군부대에 복귀했다는 것이 가련해서 한 질문이었다.

『군인이니께. 다른 생각은 없었어.』

『남하 과정이든 강원도 전투 현장이든 어떻게든 도망쳐 숨어버리려면 할 기회는 있었잔 어유?』

『있었을까? 몰러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2개의 훈장

『논산에서 지금 중사에 해당하는 2등 상사로 진급해서 조교가 되어 군 생활 말년은 위험하지 않었어. 훈장도 두 번 탓구.』

이은찬은 논산 훈련소에 와서야 군생활을 보상받았다. 후방이다 보니 여러 기회가 있었고 몇 명 남지 않았지만 낙동강 전투와 강원도 평창 전투에서 함께 싸운 전우를 만나 자신의 공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리고 1953년 1월 2개 전투의 공을 인정받아 2개의 훈장을 탓다. 훈장을 받고 장교로 승진하여 군인으로 일생을 살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은찬은 군인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보낸 세월은 자랑스러웠지만, 장교로 임관하여 군인의 길을 가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1954년 7월 드디어 휴전이 되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이 휴전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무성했고 군인으로서 통일이 될 때까지 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휴전 결사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총질이라도 하고 싶었어.』

문경에서의 위기

『6.25 동안에 가장 끔찍했던 위기는 언제였어요?』

이 질문은 그에게 한국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돌려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증언하지 않았던 경상도 문경에서의 경험을 털어 놓았다.

문경세제를 1차 방어 관문으로 생각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려 출동하였다. 그런데 1대

대장의 인솔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앞에서 『암호』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대대에서는 그날 밤의 암호였던 『금강』을 외쳤다. 그런데 앞에 있던 군인들은 이미 국군이 아니고 인민군이었다. 어둠 속에서지만 몇 걸음 앞에 있던 인민군이 총을 겨누며 『3757』을 외쳤고 총을 쐈다. 분명히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인민군의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순간 대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외쳐 총을 쏘며 도망하였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7명 뿐이었다. 하늘이 도와 살았다. 인민군의 총이 발사됐다면 맨 앞에 서 있던 이은찬이 가장 먼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은찬은 이어서 던진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 보람된 선택이었다.』라며 웃었다.

의당면의 유지로 살다.

제대 후 이은찬은 이웃 마을인 용암리에 살던 허이행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두었고 모두 대학공부를 시켜 세상에서 제 몫을 하고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인 의당면 용현리의 이장을 7년 동안 보았고 새마을 지도자로 3년 일했다. 그뿐 아니다. 의당 농협의 조합장 직선제가 되었을 때 출마하여 1990년부터 4년 동안 의당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그때 사람덜이 한 번 더 나가라고 나가면 된다고 권하는데 나는 단호히 단임을 고집하고 나왔어. 그 후에 의당 조합장은 모두 한 번으로 그쳤지.』

인생에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온 이은찬은 이장이나 조합장보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난 후 용현리가 세종시에 편입되었을 때 3년 동안 『세종시 무공 수훈자 회장』으로 재직한 것이 더 자랑스럽다 한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세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라 위해 헌신했고 정직하게 살았다.』

내 일을 기약하다.

사실 이은찬의 채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6.25 하나로 끝이 났다. 그나마 이

스토리텔링 원고는 증언 중 중요 내용을 너무 적게 담았다. 이은찬에 대해서는 본 채록과 관계없이 2024년 중에 별도의 채록을 1회 더 진행하여 그의 생애사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남기고 싶어 2차 채록을 약속하고 종료하였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공주시

6.25 그 앞과 뒤

서 병 대 (1936년생)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종길

천하 명당 동해동



전통에서 살다.

서병대는 1936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자연마을 명 동해동에서 태어나 조선조와 같은 전통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아버지 서상준이 경기도 의왕시에 살다가 갑신정변에 멸문지화를 당하여 정감록 십승지지의 명당이라는 동해동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말은 이주였으나 피난을 한 셈이었다. 당시 동해동은 유구나 사곡을 나가려면 동해 냇물을 12회나 건너다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그래도 왜정 말기인데 어려움은 있었잔어유?』

일제 강점기, 그것도 태평양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 어린아이로 자랐으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 한 질문인데, 그 마을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마을 노인들의 단합이 좋았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거의 외길이라서 마을 어귀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오가는 사람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늘 한 명이 그 산에 올라 있으면서 일본인 순사라도 들어오면 마을로 연락을 하여 공동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마을에는 정감록 명당을 찾아와 한학을 공부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서당도 여럿 있었다. 서병대 역시 어려서 서당에 들어가 동몽선습, 천자문, 소학을 읽었고 통감 3권까지 공부를 했다. 그야말로 조선조 시골 마을의 서당 학동과 다를 바 없었다.

6.25? 그런 거 몰렀어.

『6.25? 여기는 그런 거 별루 몰렀어. 우리 동네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으니께.』

『인민재판은 있었을 거 아녀유?』

『이 동네는 인민재판 엂썼어.』

우리나라 나이로 15세였던 서병대는 이 마을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을 모르고 지나갔다.

사실 동해동은 인민군들이 호남으로 내려가는 진격로였다. 수 천 명의 인민군들이 천안에서 정안면 산성리를 지나 동해동, 세동이, 부곡리 등으로 진격했다. 이때 정감록 십승지지로 유명했던 동해동에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인민군들 중 부상병 70여 명을 이 마을에 두고 진격한 것이다. 이 마을에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 하여 부상병들에게 부상을 치료

하고 복귀하라면서 두고 갔다.

문제는 동해동의 뒷산에는 역시 십승지지의 정감록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산속에는 피난민 수백여 명이 숨어있는데 마을 안에는 인민군 부상병들이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들 몇몇이 비밀리 회의를 하고 인민군과 피난민을 모두 살리자는 경정을 했다.

부상 당한 인민군들은 집안의 살림 정도를 생각해서 여러집에 나누어 기거하게 하고, 유구 읍내에 나가 한의사를 왕진오게 하며 고약 등의 약을 사서 치료를 도왔고 피난민들에게는 인민군 부상병들 몰래 주먹밥을 해서 산속 일정한 곳에 나누어 놓는 일을 거듭했다. 그런데 인민군들 모르게 하는 일이라서 마을의 청소년이었던 서병대는 모르는 일이 된 것이다.

인민재판 없던 마을

『인공 치하에서? 그때 이장이 이00이었는디 곡식 수확고 조사한다구 벼 낫 알을 세고 스슥[5] 낫알 세구 했던 거 정도지 뭐. 그거 공출도 못 받구 도망갔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인민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은 부상당한 인민군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 마을에서는 인민군으로 끌려간 사람도 없었다. 부상당한 인민군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당시 면 인민위원회나 면 치안대에 잘 알려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던 100여 일이 지나갔다. 치료를 받던 인민군 부상병들은 대부분 두 달이 되지 못해 치료하고 떠났고, 피난민들을 남모르게 돕던 마을 사람들의 노력은 200여명에 달했던 피난민들이 국군 진격 시가지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갔다.

『피난두 그렇지 뭐. 우리 아버님이 문다라니 고개 넘어 친척 집이 피난해 있었는디 낮이는 산속에 있구 밤이는 집이 다녀가구 그랬어. 날마다 숨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었어.』

5) 조의 공주말

인민군 퇴각로였던 동해동

『인민군덜이 퇴각할 때는 줄을 지어 지나갔어.』

하필 동해동은 인민군 퇴각 당시 또 이 마을을 지나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상병들을 다시 이 마을에 떼어 놓고 올라갔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마을을 통해 퇴각하는 인민군들은 낮에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 떠났는데, 그중 한 부대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를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마을에서는 다시 회의하여 소를 잡아 주었고 소고기를 먹은 인민군들은 부상병들을 마음 놓고 맡긴다면서 모두 떠났다.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친 인민군들이 천안의 직산에서 전멸을 당했다. 쓰지 않는 철도의 지하 철길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미군들이 이 정보를 알고 터널 양편에서 공격하여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

마을에 남아 있는 인민군 부상병들이 북한에서는 모두 죽은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있던 부상병들 중 대부분이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살았다.

『그 사람들이 이 동네 때문에 살었다고 오래도록 이 동네를 도와 주었어.』

500여명의 피난 고지.

『이 동네에 피난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어티기 알어.』

『대강이라도 추정하면요?』

『한 5백 명은 족히 될겨.』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는 군인 가족, 경찰 가족, 지주 등 인민재판에 서면 죽는다고 소문났기에 그에 포함된 사람들이 산속에 숨었고, 인천상륙작전 후 인민군들이 퇴각하고 나서는 공산 치하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이나 완장을 찾던 사람들이 숨어들었던 마을이 동해동이다. 그런데 동해동에서는 양쪽 어느 쪽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마을의 자랑이었다.

인민군이나 군인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도 없단다. 전쟁 후 장정들이 군대에 입대하였지만 죽어서 시체로 온 사람이 없었던 마을이고 그래서 명당이란다.

인조견 직조 공장

동해동에는 전쟁 후 직조 공장이 들어왔다. 면 소재지로부터 3-4 십 리 먼 길이고 신작로조차 좋지 않아 버스는 고사하고 트럭조차 오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마을에 직조 공장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5개의 직조 공장이 들어섰다. 이들은 북한에서 유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십승지지 명당을 찾아내려온 사람들이 유구에 정착하여 인조견을 중심으로 직조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6.25를 겪고 휴전이 되었지만 언제 다시 난리가 날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했던 일부가 산골 오지 중 오지였던 동해동에 직조 공장을 차린 것이다.

『직원이 열 대여섯 명씩 있는 공장이었지.』

마을에서 인조를 생산하면 유구에 있는 인조 위탁소에서 마을로 찾아와 사가 곤했다.

그 후 동해동은 새마을 사업과 함께 소득작목 개로 고랭지(高冷地) 채소 수박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다른 마을보다 일찍 가난에서 탈피하였다. 지금은 씨감자 생산으로 돈을 번단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전쟁은 하구 있어두 인민군덜 물러나고 나서는 옛날로 돌아 간기지.』

휴전 후가 아니라 인민군들이 물러난 후에는 바로 옛날 풍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한다. 1951년 여름에는 옛날처럼 두레를 세워 농기를 들고 다니며 논을 매고 마을 산신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냈다 한다. 그리고 서병대는 1958년 23세의 나이에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이 어려워 경기도 동탄으로 이사를 하여 얻은 자식이다. 군대는 가지 않았다.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보충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식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고 아들딸은 모두 동탄에서 자립하여 살게 해 주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 사당을 짓고 옛날처럼 살아가고 싶었단다.

마을 역사도 새롭게 정리하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마을의 역대 이장들, 역대 노인회장들 동해동 마을의 인구에 변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며 임금들을

모두 기록하고 싶단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런 중에 동해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해서 손자들이며 후손들에게 남겨 주고 싶은 것이 지금의 남은 희망이란다.

중국은 공맹의 나라였으나 지금은 오랑캐 나라다.

『우리 나라에 3강5륜이 깨진 거, 그게 가슴 아퍼. 그런디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중국여. 옛날 중국은 공맹의 나라였는디 지금은 오랑캐 나라가 되었어.』

서병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에 참으로 할 말이 많다. 서당 공부만 하고 신식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을 많이 서운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통의 것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 귀한 줄 모르고 강아지나 끌어안고 살아가니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우리나라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가정의례준칙이 생기고 나서여. 조상 제사는 짐승도 지낸다는디 그걸 무슨 죄짓는 것처럼 말해서 전통 정신문화가 깨진 것이여.』

『자식덜이 부모한티 효도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인디 그걸 몰러.』

『먹고 살만해 졌으면 맹자의 도를 살펴봐야 하는디 인의 예지가 깨졌어.』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건 세상 사람덜이 다 돈에 미치게 하는 것이니께 지금이래도 공맹의 도를 살려야 한다구.』

『천국은 웂써. 사람 사는 여기가 하늘이니께, 사람 사는 사회가 천국이어야 하는 것인디 그걸 몰러. 교회만 성하구.』

수천 명의 인민군과 5백 명의 피난민이 오갔는데도 사람 목숨은 온전히 보존했다는 천하 명당 동해동을 지키며 살고 있는 서정대는 옛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어쩌면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다시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6.25 그 앞과 뒤

강 태 윤 (1933년생)
공주시 우성면 목천2길

훈장이 없어도 참전 용사다



선비 아버지. 글을 아는 인자한 어머니.

강태윤은 조선조 청백리로 유명했던 강백년 선생의 10대손이다. 퇴직 상소를 올렸을 때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때 거리가 없었다 하여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의 땅을 하사하여 낙향하였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 살아가는 명문가였다.

아버지는 논 20여 마지기의 중농이었고 어머니는 당시로는 드물게 한글과 한문의 공부를 하신 분이면서도 인자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다.

그러기에 그의 어린 시절은 평온하였다. 어려서 고생한 기억은 20여 리 넘는 먼 길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했던 학교 생활 뿐이라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20리를 걸어서 등교하면 학교로 가지 못하고 학교 뒤에 있는 일본 천황의 신사에 참배를 해야했고, 2-3 교시 공부 후에는 논에 나가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40년 이상 일제 치하에서 성장하여 일본말로 공부하는 것 조차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다.

일제 강점기 말 어지러움 속에서도 비교적 편하게 성장한 강태윤의 인생은 6.25 동란으로 한순간에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인민군들이 들어 왔다. 연이어 인민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 왔고 그날부터 마을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마을이 되었다.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처음 강태윤에게 닥친 어려움은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군인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만 지목된 것이 아니라 중흥리의 박모씨 도신리의 구모 씨 등 5명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집에 나이로 18세였다. 일반적으로 군대에 갈 나이도 아니라서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월곡리에 있던 면 치안대에 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서 아무말 못하고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수원까지 갔어. 거기서 어떤 학교 운동장에 모였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구. 설핏 드는 생각에 여기서 몇 명 빠져도 모르겠다는 생각인데 같이 간 박00이 눈짓을 보내더라구. 학교에서 일반인들이 의용군 가는 걸 환송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봐 두었다가 슬그머니 빠져서 사람 속으로 들어갔지.』

사람을 헤집고 도망 나온 다섯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해 있다가 인민군

들이 물러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1951년 전쟁 중에 군대 입대.

사실 강태윤은 17세,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기 한 해 전에 호국군이라 불린 방위군에 들어 활동했었다. 당시로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았던 시절이라서 광복 후 지역의 질서를 잡기 위해 모집한 방위군에 17세의 젊은이들이 다수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의용군 사건이 있은 후라서 그런지 1951년 그의 나이 19세에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온 것이다.

재산이 좀 있던 아버지는 전쟁통에 장남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신체검사 장에 들어가는 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아들이 오면 불합격을 때려 달라는 뇌물이었다.

그런데 신체검사 장소에 입장하는 2개의 줄 중에 뇌물을 받은 의사가 보는 줄이 아닌 줄에 서게 되었고 아버지의 신호를 받아 줄을 바꾸려 하자 경찰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핀잔하는데 분개하여 다투고 반대편 줄에 서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한 것이다. 나이 18세, 그것도 결혼하여 신혼 1년이 안 된 시기였다. 강태윤은 호국군에 이름이 있었던 것하고 의용군에 끌려갔다 도망 온 것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 일찍 영장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까지 먼 길을 가서 훈련을 받았다. 막사는 미군 텐트라고 알려진 큰 천막이었고 군인을 나온 사람들의 몸에 이가 많아 ddt를 옷에 뿌리고 시작한 훈련이었다. 겨우 총 쏘는 법을 배우고 부산을 거쳐 배속받은 부대에 배속되기 전, 하루 동안 차에 태워 주변을 돌게 했다. 그때 병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 『죽을 놈이니 하루나 세상을 돌아봐라.』하는 것이었다 한다.

보병이었던 강태윤은 경기도 북부 전선에 배치되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들린 포성, 그리고 흔하게 보이는 부상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나도 죽겠구나 싶었단다.

이태리 전투 – 19세의 어린 보병

첫 전투는 이른바 이태리 전투였다. 들을 가운데 두고 남쪽 산줄기에는 남한군이, 북쪽

산줄기에는 북한군이 있었고 분지 안 마을을 이태리라 불렀는데 서로 상대가 점령한 고지를 빼앗으려 번갈아 공격하고 수비하는 전투였다.

『한번은 분대장이 나이를 물어서 열아홉이라고 대답했더니 어째 그렇게 어린 나이에 군대에 왔느냐면서 전투가 시작되면 자기만 따라오래.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런데 전투 현장에서 그게 되나. 떨어졌지. 그런데 귀대해 보니 나는 살았는데 분대장은 보이지 않더라구.』

이태리 전투에서 상대의 고지를 몇 번 빼앗았는지 아군의 고지를 몇 번 빼앗겼는지 모른다. 낮에는 우리가 밤에는 인민군이 차지하는 날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강태윤은 용케 살아남았다. 그리고 배속된 것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임진강 다리 건너 50리 쯤 북쪽으로 들어간 곳이었다.

노리고지 전투

전곡리에서 마주한 고지 이름은 노리고지였다. 그 고지에 파견된 것은 1951년도 한겨울이었다. 거기서도 어린 보병 강태윤을 걱정하는 분대장의 말을 들었다. 전투에 진격하기 앞서 분대장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한다.

『죽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면 오래 산다.』

살면 오래 산다. 이상하게 앞에 말은 버리고 나중 말 즉 살면 오래 산다는 말이 마음 깊이 박혔다. 적이 점령한 노리고지 탈환을 위한 진격이었다. 멀리서 쏘는 포병의 지원이 끝나면 고지를 향해 돌격하고 따발총 세례를 피해 적의 진지 앞에 다다르면 수류탄을 던지고 돌격하여 고지를 점령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공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명령이 없어도 행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막상 적 진지 앞에 서면 나서서 돌격하는 게 두려워. 누구도 얼른 먼저 나서지 못하지. 그러면 언제나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고 소리 지르면서 먼저 돌격을 하지. 그러면 모두 용기를 내서 또 덤벼드는 거여.』

늘 싸워도 늘 두려운 전투. 그리고 목숨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쳐야 했던 전투의 나날이었다.

포로잡이 작전 – 참혹한 실패

중부 전선의 전장이 지루하게 계속될 때 병사들에게 적군을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면 일계급 특진에 휴가에 포상이 많았다. 같이 근무한 부대에서는 포로를 잡은 공을 세운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부대에서는 몇 명을 잡아 휴가를 다녀왔고 훈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고무된 분대장이 포로잡이를 나가자는 작전을 세웠다. 마주 대치한 북한군의 보급로가 남쪽 군인들과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노려 소수의 인민군 보급군을 대상으로 하자며 누구는 망을 보고 누구는 자갈을 물리고 하는 훈련을 한 후 출발하였다.

원하는 지점에 당도해서 땅에 귀를 대고 걸어오는 인민군 보급대의 발소리를 들어 인원을 확인했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살려서 사로잡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서두르던 군인들이 입에 자갈을 물리지 못했고,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반항하는 인민군으로 인하여 가까이 있던 인민군 전투 군들이 몰려와 허겁지겁 돌아와야 했다.

강태윤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부대에 당도해 점검한 결과 작전을 세웠던 부대장과 한 병사가 돌아오지 못했다.

『시신은 찾었어요?』

『무슨. 죽은 시신을 찾을 정도라면 그게 전쟁터여?』

전우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아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곳이 전쟁터였다.

소총수에서 화기 소대로

1952년 하반기. 부대 내에서는 나이 든 전우들이 어린 강태윤을 걱정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문득 이대로 있다가는 필경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건의했다. 51년부터 52년까지 1년 넘도록 고지 전투의 소총수로 있었으니 화기 중대로 보내 달라는 청원을 낸 것이다. 사실 받아들일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한 말이었는데 60mm 박격포를 쏘는 화기 중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소대에서 중대로 명령이나 문서를 나르는 연락병이 되면서 전투 현장에서는 조금 더 멀어졌다.

『거기서 휴전될 때 까지 있었지. 그대 청원을 낸 것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낸 청원이 그의 목숨을 이어나간 것 같단다.

휴전 현장의 막거리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그 요란하던 포성이 먼저 사라졌고 연이어 소총의 총소리도 점점 사그러 들었다. 그리고 일순간에 모든 총소리도 사라졌다.

『자기 위치를 사수하라. 그리고 소총 자물통 잠근다.』

소총의 자물통을 잠근다. 휴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간절히 휴전을 바랬는데, 그 고함을 듣는 순간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날이 밝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의 인민군과 중공군 20여 명이 새납을 불고 북을 치며 중립 지대로 내려왔다. 그리고 국군이 있는 고지를 향해 어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안주는 있으니 술을 가지고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남쪽의 군인 30여 명이 부내 내에 있던 술을 가지고 내려갔다. 그리고 휴전을 축하하고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며 술을 마셨다.

『그런 짓을 한 서너 번 했어. 그런데 그게 위로 보고되었는지 불러도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못했어.』

휴가 – 『저 또 가요.』

살아서 휴가를 나왔다. 휴가를 다녀오면 죽는다는 부대 내의 소문 때문에 오지 않으려 하였는데 한 부대에 상급자로 있던 공주 사람이 자기 집에 보낼 물건을 전달하라면서 반은 억지로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아왔다.

왼 종일 걸려 마을에 도착했다. 동구박의 시내를 건너, 마을로 들어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그리고 되는대로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쏟아 냈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는 집에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쌓이니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앞만 보고 걸었다.

집 앞 마당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있었다. 길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저 왔습니다.』 다음 말은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죽을 줄 알았더니 살어 왔구나.』

예 아버지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다.

『저 또 가요.』

그 말에 아버지는 답이 없으셨다.

강태윤은 1956년 제대를 하였고 3남 2녀의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90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아간다.

『처음에 2백 명이 부산에서 출발했는디 제대할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11명이었어』

1년 반 넘게 최전방 고지에서 전투했고 생존율이 5%였던 전장에서 살아 남았으면서도 훈장 하나 못 탄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신은 6.25 참전용사라며 웃는 90 노인의 얼굴에는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가득 차 보였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김 종 균 (1934년생)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학교 교실이 인민재판정이 되다



일제치하의 유년 생활

김종균은 당시로는 흔치 않았던 약방을 운영하던 아버지 김일배의 영향으로 농촌에서는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가 운영하던『광덕 약방』은 한의사뿐이던 당시에 드물게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양방의 약품까지 판매하는 약방이어서 의당에서는 아주 유명한 약방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서당의 훈장이기도 했다. 마을의 입구 쪽에 ㄷ자 한옥에 살았는데 사랑채에 서당을 열고 글을 가르쳐 월곡의 양태산, 고정택 등과 두만리와 요룡리에서 네 명의 학동들이 20리 길을 걸어와 글을 배우기도 했다.

김종균 역시 글을 배우다가 11세에 의당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1944년이었다. 당시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여 위기에 몰린 상황이어서 국민학교 1학년에게『이노우에 고쪼 센세이.』하며 신상에 참배하고 동쪽을 향해 경례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비행기 공습에 대비하여 비상훈련을 자주 시행했다. 공급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학교 뒤 솔밭으로 들어가 책보를 쓰고 몸을 숨기는 훈련이었다. 해방 후에는 교장이 바뀌었다. 학교를 열지 못하여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이 수시로 바뀌는 혼란도 있었다.

16세에 시작된 6.25

열 살에서야 국민학교를 들어갔던 김종균은 16세에 의당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6.25가 터졌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말로 술렁였지만, 며칠 지나면서 잠잠해졌다. 그러나 머지않아 멀리서 포성이 들리고 피난민들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전쟁 속으로 빨려들었다. 그리고 몇 일 후 거짓말처럼 인민군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멀리 피난은 안 갔어. 독징이라는디가 있잔어, 거기서 있다가 이면 집으로 들어오는 게 피난이었지.』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마을을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번 들어온 인민군들은 집이 좋은 집을 중심으로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낮이면 잠을 자고 밤이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금강 다리를 건너지 못해 진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밤이면 인민군들이 임명한 위원장이며 청년 동맹 위원장이 마을 사람들을 정자나무 밑에 모여 앉히고 북한 군가를 가르치며 공산주의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김일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가르치는 학습이 이어졌다.

『월곡에도 인민군 트럭이 많이 은신해 있었어. 냇물에도 있었고, 교회 옆 고랑에도 있었고, 낮에 은신해 있다가 새벽이면 출동해 나가는 거여. 나갔다가 금강 다리가 끊어졌으니께 되로 오고, 그랬어.』

김종균의 집에 인민군 다섯 명이 머물렀는데 그들의 물품이라 하여 설탕이며 쌀을 가져와 단맛을 보고 쌀밥을 먹기도 했다. 당연히 어린 종균에게 이런 일들은 그리 어렵지도 않았고 거부감도 크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 걸리는 것이니 말조심 행동조심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정도라면 못 참을 것도 없겠다는 정도였다.

우연히 목격한 인민재판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6.25는 아주 짧은 순간에 소름이 끼치는 살벌한 세월을 토해냈다. 7월 어느 날. 인민군들이 마을을 떠난 지 며칠 후, 같은 마을에 있는 의당국민학교에서 재판을 한다는 말이 돌았다. 사실 김종균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나이가 어렸고, 아버지가 있어서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연한 호기심에 끌려 학교에 갔다. 그리고 의당 국민학교 오른쪽 끝에 있는 교실에서 열리는 인민재판을 목격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교실 문을 열어 놓아 안에서 나는 소리는 모두 들렸는데 평상시 보던 마을 사람들과 의당면의 다른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은 교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죽여라』하는 살벌한 외침이었다.

『처음에는 뭐하는지 몰렀지. 거기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안에 묶여 있던 네 사람은 북한의 경찰이라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리고 학교와 비계실이라는 작은 마을 사이의 산골짜기로 끌려갔다.

사람이 죽는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교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총소리를 듣고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이 죽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율정리 사는 두 사람과 중흥리 사는 두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 죽어야 했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순간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을을 지배했다.

율정에서 이장을 보다가 그간 죽은 사람은 피난 가라는 사람들의 권고에 『내가 죄지은 게 웁는디 왜 숨느냐.』고 가지 않았다는 말이 마치 사형당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처럼 되었다.

붉은 뿌리

인민재판 이전의 마을과 이후의 마을은 온전히 다른 마을이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 변화는 의용군 모집이었다. 이장과 같은 자리라는 인민위원장이 마을에 20세 장정들을 뽑아 인민군으로 보낸다는 말이 돌았고 다섯 명의 장정들이 인민군에 나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섯 명은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도망쳐 숨었다는 말이 돌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동안은 모르고 지낸 일인데 마을에서 군정 치하에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들어났고, 그 사람들은 마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민군으로 보내려 했다. 그 중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독려한 사람도 있었다.

『전쟁 전에도 그분이 말을 키웠나요?』

『아녀. 그런데 어느날 부턴가 말을 타고 다니더라고.』

열아홉 스무 살의 청년들은 이때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으려 종적을 감추었다. 이른바 『늦은 피난』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무자로 차출되었다. 금강교를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된다는 말이 돌았으나 그보다는 장기면에서 대평리 쪽으로 군수 물자를 나르는 노동에 투입되었다 한다. 말을 타고 다니며 의용군 나가기를 독려했던 000의 아버지는 수복 후 마을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들리는 말로는 이북으로 월북하였다는 말이 돌았다.

훗날 알려진 보도연맹의 아픔

사실 이 마을 월곡리에서는 인민군들이 내려오기 전에 남한의 경찰에 의해 공산당으로 몰려 사망한 사건이 미리 발생했었다. 당시 김종균이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넘어간 사건으로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다.

000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대학을 공부했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던

인물인데 군정 치하에서 공산당에 가입하였었다. 그럼에도 000은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도 그가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 마을에 있어도 얼굴 보기가 어렵던 사람이었는데 6.25 발발 후 조용히 마을에서 사라졌다. 집 안 사람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그가 보도연맹으로 사망했으리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의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야 보도연맹으로 죽었음이 마을에 알려졌다.

『그분 아들 000이 이 동네에서 대학을 나녔잔어요?』

『그랬지. 아버지가 덕이있는 분이라서 마을 사람 누구도 빨갱이니 하는 소리를 안 했어. 그 부인도 점잔으셨고.』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아버지가 남쪽 경찰의 총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북한군이 점령했을 당시 어떤 이데올로기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일이었다.

금번 채록에서 다른 마을의 보도연맹 희생자 유가족이 인민군 치하에서 완장을 차고 복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설쳐 희생이 더 커졌던 것을 생각하면 000의 가족이 보인 행동은 기막힌 일인지도 모른다.

인심을 얻으려 했던 인민군

『북한군덜이나 인민위원회 사람덜이 처음에는 인심을 얻으려고 무척 잘했어.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요? 그건 처음 듣는 말인데요.』

『남한 정부가 매상을 받아서 쌓왔던 정부 창고의 벼가 있었잔어?』

『예.』

『그걸 방아 찧어서 노놔 줬어. 가을에 탈곡하면 쌀을 배급을 준다고도 했고.』

『동네 사람들 전부 줬어요?』

『월곡은 다 줬어. 다른 동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래야 뭐햐.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도망오지 못한 세 사람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는 걸.』

마을 사람이 월곡리 마을 안에서는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 6.26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었다.

군대 제대 후 가정을 꾸리고

김종균은 22세에 군대에 갔다. 6.25의 휴전이 이뤄진 1953년 7월을 한참 지난 후였지만 군대는 살벌했다. 다행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부산에서 재배치 된 곳이 원주의 1101 야전 공병단의 공병이어서 훈련으로 고생은 하지 않았다. 양수리 한강 다리 공사, 포천의 영로교 가설 공사 등 전쟁 복구공사에 동원되어 제대 3일 전까지 목수 아닌 목수로 근무했다.

군대 입대 몇 개월 전에 혼인을 하였던 김종균은 제대 후 집으로 돌아와 2남 3녀의 자식을 두어 가정을 가꿔 나갔다.

『6.25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도 6.25 때 인민군들이 가르쳐 준 노래를 기억햐.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빛도 찬란한 삼천리 강산. 위대한 김일성 장군은... 이게, 그 노래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녀. 사람을 죽이는 사람덜이 가르쳐 준 노래니께 못 부르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운 노래라 기억난 것일 거여. 민간인이 민간인을 죽이는 전쟁은 지옥이지 전쟁이 아녀.』

민간인이 민간인을 죽이는 전쟁.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한 적 없는 시골 청년이 살아남기 위해 느꼈던 공포는 단 한마디 말로 6.25의 아픔을 말했다.

『민간인이 민간인을 죽이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지옥이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홍 종 운 (1930년생)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7일을 굶고



어머니의 이른 죽음

홍종운은 1930년 지금의 세종시인 연기군 서면 길용리[6]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홍재범은 호탕한 성격에 유머가 풍부하고 일제 강점기 당시의 연기군 남면에 있던 연남 국민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글씨가 명필이어서 마을의 유지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당시로는 신학문과 구학문을 모두 한 사람으로 통했고 아버지가 직접 사랑방에서 서당을 열어 많은 학동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다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의 나이 13세에 사망하면서 홍종운의 인생은 어려움으로 접어들었다.

『지금 같으면 당연히 고쳤겠지. 그러나 그 시절 병원이 있나 약이 있나? 원인 모를 속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지.』

성격은 호방하였으나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하였던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홍종운은 집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작은아버지의 집은 당시 연기군 면 리에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종운에게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농사를 많이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고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야 했다.

20세에 만난 6.25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힘겨웠지만 별다른 탈이 없이 살았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일찍 결혼해야 했던 홍종운은 만으로 20세가 되던 해에 6.25를 만났다. 그리고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혹독한 어려움으로 전쟁을 이겨내야 했다.

남들은 피난을 간다하며 요란했지만 그는 피난을 가지 않았다. 낮에는 마을 뒷산에서 숨어있다가 밤이면 내려오는 이른바 『동네 피난』을 하였지만 그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단하고 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용군에 나가야 한다며 끌려갔다.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6) 현재 세종시 연서면 길용리

이 전혀 없었는데 인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인민군과 함께 찾아와 마을의 몇몇 장정들과 함께 끌고 간 것이다.

7일을 굶고 빠져나온 인민군

그는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석 달 남짓 마을에서 겪었던 공산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인민군대의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 또 하나 그가 인민군대에 가기 싫었던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 신자였다. 마을에 교회가 없이 부잣집의 사랑채에 전도사가 들어와 포교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신자였는데 북한 공산당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종운은 인민군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인민군으로 차출된 순간부터 밥을 먹지 않았다. 당시 세종시 남면 감송라는 곳에 인민군 훈련소가 있었고, 차출된 그 날 감송 훈련소로 이송되었지만 밥을 먹지 않고 몸이 아프다며 훈련도 받지 않았다.

『나는 폐병 환자라고 쭉 뻗었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니까 몸이 바짝 마르고 진짜 환자가 되어 버린거지.』

그렇게 7일이 지난 날 환자는 다 모이게 했다. 그리고 인민군 장교가 오더니 전장에 나가지 못하는 놈은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홍종운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다. 끝내 폐병 환자라고 주장했더니 남면에 있는 전 공주갑부 김갑순의 별장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의사가 있었다. 그것도 인민군 의사가 아니라 공주에서 병원을 하는 남한 의사였다. 의사에게 폐병을 앓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을 것 같다고 주장했더니 폐병 환자라는 소견서를 써 주었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인민군에서 돌아온 날 인민군이 퇴각하고

서면에서 함께 끌려간 사람은 여섯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홍종운처럼 꾀병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 인민군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던 중에, 정확히 말해서 종운이 인민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군의 폭격이 아주 심하게 계속되었고, 그다음 날 인민군들이 철수하기 시작

한 것이다. 그리고 인민군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충청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포로 석방 때 석방되어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형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산당 활동을 비밀리 했던 모양여. 사실 인민군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사람이 여러 번 나를 찾아와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니 함께하자고 회유를 했지. 그런데 내가 호응하지 않자 인민군으로 보낸 거였어.』

그때는 그를 원망했는데 훗날 생각해 보니 그 사람과 그런 시간을 보내서 인민군에 늦게 끌려간 것이고 덕분에 마을로 돌아와서 인민군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고마웠다.

3회 신체검사와 국군 입대

국군이 북진을 시작한 후에 이번에는 남쪽 군인이 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인민군 훈련소 때와 달리 변화 없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정종 불합격 판정이었다. 갑을병정의 등급을 나누던 시절이기에 당연히 그걸로 끝이어야 했는데 6.25 전쟁 중이라서 군인이 필요했던 정부는 2차 신체검사 통지를 내보냈고 두 번째도 정종 불합격이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휴전되던 53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에서 병종을 받아 군대에 입대한 것이다. 53년 10월의 일이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28사단의 수색 중대에 배속되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군부대로 휴전선의 비무장 지대를 수색하는 수색 중대였다.

이 시절 수색 중대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누구나 가고 싶지 않았던 부대였다. 북한으로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신원 조회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는 부대였다. 서류 신원 조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중대에서 면접으로 보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거기 가니까 6.25 때 인민군 치하에서 무얼 했느냐고 묻는 거야.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밥 굶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작은아버지하고 인민군들 보급품을 나르는 부역을 했다고 했지. 그랬더니 28사단에서 빼서 33사단이라고 예비

사단에 편성시키더라구.』

연대본부 인사과 근무

사실상 그의 군 생활은 이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훈련에서 제외된 것이다. 휴전 직후 군대는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에 훈련이 매우 강했다. 그런데 인사과에 배치된 후에는 훈련에서 제외되었다.

그뿐 아니다.

『인사과는 연대장 도장을 찍는데야. 그러니 휴가증이나 외출증을 관리하니 물자가 풍부했지.』 일상 시에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어서 군인이면서도 종교 생활에 충실한 것도 큰 행운이었다.

처음 인사과에서는 사병계를 맡았는데 이는 사병들의 상과 벌을 관리하는 부서였다. 사병계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1년 후에는 장교계 업무를 맡았다. 물론 연대장이 가진 인사권을 실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역할이었지만 연대 내의 소소한 장교들의 인사에 영향력이 있어서 장교 업무를 맡은 후에는 장교들과의 친분이 매우 좋아졌다.

『탕수육이 뭔지 알어. 1950년대에. 나는 그때 장교들이 사 줘서 탕수육을 먹어 볼 수 있었어.』

사실 일반 업무 중 인사 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좋은 자리에 가야하는 인원은 소수이며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기보다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 부서다.

그런데 그는 인사 부서에 있으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계급이 1등 중사, 지금의 병장에 오르고 휴전 후 4년을 넘어가면서 군이 안정되어 가던 시기에 그는 여러 차례 직업군인으로 종사하라는 권고를 들었다.

직업군인으로 속칭 『말뚝을 박으면』 상사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권고도 들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5년 동안 군대에 있는 것도 지겨운데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정이 떨어지더라고.』

고향에 있는 아내와 딸이 보고 싶기도 했고, 혼자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

각이 들어 한사코 직업군인의 길을 사양하고 제대를 했다.

매형과의 인연으로 공주시 의당면으로 이주하고

재대 후 홍종운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로 이주하였다. 그 마을에 사는 매형이 지역의 유지이면서 재산이 넉넉하였는데 소작농이나 다름없던 그가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살고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집을 구해 이사할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이사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했다.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동생과 함께 세종시(당시 연기)에 있던 재산을 정리하여 논 1천여 평을 매입하고 집을 구하여 이사한 것이다.

『유계 사람들은 편하게 살더라고. 연기에서는 돈이 되는 농사를 짓기 위해 너나없이 애를 쓰는데 유계 사람들은 한가하게 살어. 특수 작물도 안 하고 논농사 밭농사나 지으며 사는 거야. 이상할 정도였어.』

살림은 궁핍하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했다며 논을 사서 그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어 마련해준 토지가 있었는데 도지도 거의 내지 않고 지어 먹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 땅을 팔아가게 되었다. 등기가 그의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못 팔아갈 사정이었는데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마웠던 작은 아버지는 때마침 마을에서 팔려고 내 논 값싼 밭 7백여 평을 사 준 것이다.

『내가 이 동네 와서 산 밭하고 작은 아버지가 사준 밭이 1천 5백 여평 정도였는데 유계 저수지가 막히고 경지정리가 되면서 그 땅이 전부 논이 된겨. 그래서 지금도 논 일곱 마지기 농사지으면서 살어.』

독실한 신앙생활

93세의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일생에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한다. 일곱 살에 밭매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물을 먹다가 허우적거리는 손에 풀이 잡혀 기어 나왔고, 국민학생 때 20여 m의 감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아래에 있던 나뭇가지들에 걸려 떨어지면서 목숨을 보존했고, 전쟁 때는 비행기의 기총소사가 그가 뛰어가는 곁으로 쏟아졌는데 용케 맞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원 속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늙었다고 주일날이면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고 나를 데릴러 와 주셔. 얼마나 고마운 일여. 나야말로 복 많은 사람이지.』

꿈인 듯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그는 성경의 내용을 들어 말세가 시작되는 것은 인간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주의로부터 나타난다며 합의해서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된다면 다른 소원이 없다는 말로 채록을 마쳤다.

<인터뷰어 이걸재, 스토리텔러 이걸재>



보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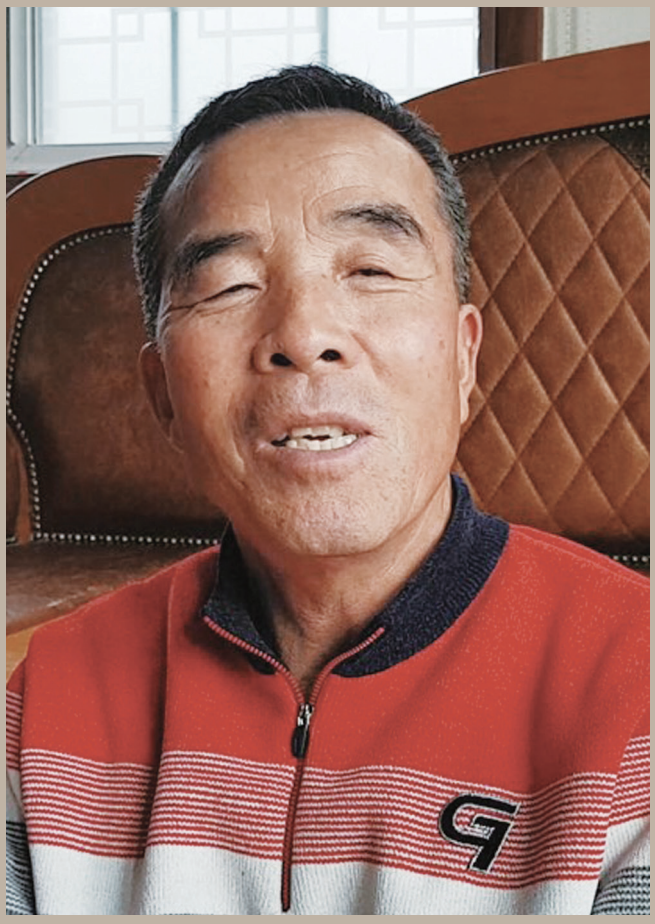
| 보령의 바다 IV

원산별장 후손의 생활 174
청라면 황룡리 용머리마을의 주민생활 188
신흑동 고잠마을의 주민생활 218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마을 주민생활과 보령경찰의 역사 230
오천면 소성리 주민의 생활 246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의 주민생활 256
오천면 소성리 주민의 생활 274
오천면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 293
오천 양조장의 운영과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 310
남포면 옥서리 사현마을 주민들의 생활 322
청라면 신산리 주민 생활과 오서산 산중 생활 334

보령의 바다 Ⅳ

문 영 용 (1959년생), **문 영 복** (1950년생)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

원산별장 후손의 생활



출생과 성장

문영용(1959) 님은 남평문씨로 문상락 님의 6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문영용 님의 집안이 남포면 양항리로 들어온 것은 할아버지부터이다. 문영용 님의 고조할아버지인 문응준(文應俊)은 충청수영이 있는 오천면 소성리에 살면서, 충청수영에서 근무하였고, 원산별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증조할아버지는 문진현(文鎭賢)으로 오천에 거주하면서 무과에 급제하고 충청수영에 근무하였다.

문영용 님의 할아버지인 문기홍(文其紅) 님은 7살 때 충청수영과 관련하여 집안에 큰 화를 입어, 외갓집이 있는 남포면 양항리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 3남 4녀를 두었다. 문영용 님의 아버지는 큰아들로 양항리 방목 전주이씨 부인과 결혼하여, 6남 3녀를 두어 집안이 번창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문기홍 님은 어린 나이에 이주하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왔기 때문에 집안에 내려오던, 호적단자 같은 문서, 관복 등을 가지고 왔고 특히 문서는 집안의 내력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문영용 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월전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해서 집안일, 농사일 등을 하며 생활하였고, 오랫동안 미꾸라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문영복 님(1950)은 문영용 님의 누나로, 본가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개목마을에는 문영용 님 할아버지의 외당숙들이 살았다.

문영용 님의 할아버지인 문기홍이 양항리로 들어온 것은, 증조할머니 때문이었다. 증조할머니의 친정이 개목마을이었고, 당시 개목마을에는 할아버지 문기홍의 외당숙들이 많이 살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영용 님의 아버지 세대만 해도 가까운 집안으로 소통이 많았었다.

문영용 님의 할머니는 가난하고 외로운 집안이었다.

문영용 님의 할머니는 삼현리의 전주이씨이지만 외롭게 자랐다. 아버지를 여읜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친정집에 맡겨져, 외갓집이 있는 양항리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다.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7살 먹어 이주해 역시 외롭게 자란 문기홍 할아버지와 결혼하였다.

문영용 님의 할아버지는 생전에, 오천에서 큰 사건으로 역적으로 몰려 피신해 왔으니, 오천을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천에서 일어난 큰 사건은 조대비 집안에서 명당에 묘를 썼는데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궁금하여 문영용 님의 아버지와 큰형님이 오천에 가서 집안을 수소문하였으나 알 길이 없었다.

양항리 양아다리 마을에 서 씨가 살았고, 서씨 집안의 할머니가 오천에서 시집온 분이었다. 그분은 문영용 님의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꼭 도련님이라고 말하면서 잘 해 주었다.

오천에서 7살의 나이로 피신 온 문영용 님의 할아버지는 성장하여, 신흥리에 사는 갑부 김윤환 집의 집사로 일했고,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마을에서 두레가 나면 대표가 되어 직접 일을 하지는 않고, 주민들에게 어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휘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군수라고 불렀다.

족보는 문영용 님 아버지 대에 만들었다.

문영용 님은 남평문씨로, 족보를 처음 만든 것은 아버지 때이다. 당시 대천 녹문에 사는 남평문씨들과 함께 족보를 만들었다. 아버지 형제들까지 함께 입보하였다.

오천에서 가져온 것들은 대부분 할머니가 손자 때문에 불태웠다.

문영용 님의 증조할머니가 7살 먹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천에서 이주할 때, 고문서, 관복, 어사화 등을 고리짝에 넣어 가지고 왔는데, 장손자인 문영용 님의 큰형 건강이 좋지 않았다. 큰형은 어릴 때 개울에서 놀다가 무릎을 다쳐, 한쪽 다리가 잘 자라지 않았고, 한 번은 넘어져 부러지기까지 하였다. 집안의 중심이었던 장손자가 늘 병치레하는 것은 오천에서 가져온 물건들 때문에 동티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할머니가 고리짝에 들은 옛 물건들을 불태웠다. 관복과 어사화가 그때 불태워졌다. 다행히 고문서는 불타지 않고 남아 옛 선조들의 생활을 전해주고 있다.

문영용 님은 월전 초등학교(구 월전 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동생들은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문영용 님 형제들 중 위에 있는 형제들은 국민학교만 졸업했고, 밑에 있는 2명의 형제들은 대학교까지 졸업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문영용 님도 월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집안일을 하였다.

밑에 있는 형제들은 서울에서 일했던 누나들이 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고, 문영용 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여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초등학교(구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무하러 다녔다.

문영용 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무하러 다녔다. 마을 주변에는 나무가 없어 멀리 잔미산까지 나무하러 다녔다. 너무 어려서 혼자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다녔다. 말재를 넘어 다니지는 않고, 말재 안쪽에서 나무하였다. 솔방울, 묘지의 잔디를 뜯고 긁어오는 북데기 등 닥치는 대로 하였다.

문영용 님은 친구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남의 일을 하러 다녔다.

친구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문영용 님은 남의 일을 하러 다녔다. 마을 주민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렸고, 불러주면 가서 농사일을 해 주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라 품삯도 어른처럼 주지 않았고, 밥도 찬밥을 주었으며, 그것도 제 때에 주지 않았다. 그래도 남의 일을 하면 잘 먹을 수 있고 품삯도 받을 수 있어 '우리 일 좀하자'고 불러주기만 기다렸다.

월전리 골짜기에 취로사업으로 만드는 저수지를 만들러 다녔다.

문영용 님은 친구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월전리에서 웅천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를 만들러 다녔다.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일 시키고 품삯을 주는 취로사업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하러 다녔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지게로 흙을 나르는 일인데, 일도 힘들었고, 꽁꽁 언 도시락을 먹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은 일당으로 1000원을 받는데, 700원을 받으면서 일했다.

문영용 님의 아버지는 소금을 구워 좋은 논 20여 마지기를 구입하였으나, 집안 경제가 어려

워져 모두 팔았다.

문영용 님의 외갓집은 방목에 사는 부잣집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살을 매어 고기도 잡았고, 소금도 만들어 팔았다. 아버지는 외갓집에서 소금 만드는 솥 2개를 빌려 작은아버지와 함께 소금을 만들어 팔았다. 1950년대 중엽이었는데, 당시 소금값이 비싸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돈으로 현재 RPC 앞에 있는 좋은 논, 11마지기짜리를 포함하여 20여 마지기를 샀으나, 형제들에게 분배해 주고, 형이 사업하느라고 경제가 어려워져 모두 팔았다.

이후 마을에서 가장 논값이 싼, 쇠뜰마을에 논을 마련하여 농사를 지어 보았으나 가뭄 때 물대기가 어렵고, 살림도 어려워져 남에게 팔고 임대로 농사를 지었다. 당시 쇠뜰에 있는 논들은 일반 논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이었다.

문영용 님은 밭을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문영용 님이 성장해서는 논이 없어, 식량 때문에 고생하였다. 이에 RPC 근처에 있는 밭의 절반을 논으로 만들어 농사지었다. 물은 양수기로 품어 올렸고, 못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논에 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지을 수 있었다.

문영용 님은 미꾸라지를 잡아 팔아 돈을 벌었다.

문영용 님은 미꾸라지를 잡아 돈을 벌었다. 양아다리 마을에는 10여 가구가 미꾸라지를 잡아 팔았고, 문영용 님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미꾸라지를 잡아 팔았다. 미꾸라지는 겨울에는 논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뻥 뚫어진 미꾸라지 구멍을 보고 삽으로 파 잡았고, 봄에, 논에 물을 가두고 두엄을 부어 놓으면, 두엄 주변에 모인 미꾸라지를 쪽대를 대고 몰아 잡았다. 여름에는 논에 있는 둠벙이나 수로를 뒤져 쪽대로 잡았다. 잡은 미꾸라지는 대바구니에 담아 운반하였고, 보통 하루에 10여kg 정도를 잡아, 집에 있는 두멍(부엌에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에 담아 모았다가 대천 구시에 있는 수집상에 팔았다. 수집상에서는 추어탕용으로 서울에 팔았다.

비가 많이 오면 미꾸라지가 더 많이 잡혔는데, 이때는 수집상에서 가격을 내려 많은 돈을 벌 수 없었다.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 남포면 내는 물론이고, 멀리 웅천지역까지 다녔고, 점심을 굶을 때

가 많았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 미꾸라지를 잡기가 매우 불편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좋아 값이 비싼 때에는 최고 기술자의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미꾸라지를 잡다가 뱀장어, 붕어, 가물치, 메기 등 민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으나 뱀장어를 제외하고는 신경쓰지 않았다. 값이 쌌기 때문이다. 큰 뱀장어를 잡아 비싼 값에 판 적도 있었다. 문영용 님은 미꾸라지를 팔아 번 돈을 모두 부모님에게 드리고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한다.

문영용 님은 마을에서 가장 늦게까지 미꾸라지를 잡았고, 20여 세인 1970년대 초에 그만두었다.

미꾸라지도 통발로 잡았다.

논에 통발을 놓아 미꾸라지를 잡기도 하였다. 통발 안에 미꾸라지가 좋아하는 된장, 갯물 같은 것을 넣어 유인해서 잡는 방식이다. 미꾸라지 잡이를 그만 둘 때쯤 했는데, 통발로 잡은 뒤에 미꾸라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90년 논 4500평을 샀다.

문영용 님은 미꾸라지잡이 등으로 돈을 모으고, 정부의 도움으로 1990년 논 4500평을 한 번에 샀다. 당시 농업진흥공사에서 대출을 해줘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는데, 문영용 님은 각종 교육 등을 이수하여 자격이 충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900평짜리 5다랭이, 4500평을 한 번에 샀다. 이제 전업농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가족들이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하였다.

이후 농기계를 구입하고, 남의 논도 많이 지었다.

문영용 님은 논을 구입한 이후 농기계(경운기, 이앙기, 트랙서, 콤바인 등)를 마련하였고, 남의 논도 빌려 많은 농사를 지었다. 각종 농기계를 구입하여 능률적으로 일 해, 많은 논을 쉽게 농사지을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 현재는 본인 논과 남의 논을 합쳐 250마지기 정도의 논을 혼자서 짓고 있다.

문영용 님의 아버지는 백합양식장에 다녔다.

문영용 님의 아버지는 소금을 만든 뒤에 백합양식장에 다녔다. 대섬 근처 바다에 외지의 사업자들이 백합양식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1달에 쌀 1가마씩 받고 일하러 다닌 것이다. 백합양식장에 다닐 때에는 양식장 그물에 걸린 고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할머니의 제사 때는 양식장 그물에 많은 숭어가 걸려 요긴하게 이용하기도 하였다.

마을 샘은 1년에 몇 번 품었다. 특히 칠월칠석 때 품었다.

양아다리 마을회관 남쪽에 있는 샘은 물이 많이 나오는 좋은 물이었다. 지하수위도 낮아 바가지로 떠서 사용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샘을 품었으나 마을에서 제를 올리지는 않았다. 샘을 품을 때 보면 물줄기가 솟구치는 게 보였는데, 근래에는 샘물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물줄기도 볼 수가 없다.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기 때문이다.

솟대배기에서 개인적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었다.

양아다리 마을에는 산신당이나 당집이 없었고, 당제도 없었다. RPC가 있는 마을 입구에 솟대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곳에 개인적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황당처럼 위했는데, 옛날 솟대가 있던 곳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개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성황당에는 위하는 주민이 별로 없었다. 이곳 성황당은 개목 주민들이 주로 위했다.

양아다리 마을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는 김도환 씨였다.

새마을운동 시절, 양아다리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도자는 김도환 씨였다. 김도환 씨는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등 마을 일에 앞장섰다.

양아다리 마을에서 처음 방앗간을 운영한 사람은 최상진 씨였고, 다음으로 옥서리에서 이사 온 분이 하였다.

그는 원동기를 마당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방아를 찧어 주었다. 나중에는 보리탈곡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후 옥서리에 저수지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아 이주한 분이 전기를 끌어

들여, 마을 입구에 방앗간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문영용 님은 경운기와 보리탈곡기를 마련하여 보리탈곡으로 돈을 벌었다.

문영용 님은 경운기와 보리탈곡기를 사서 마을 주민들의 보리탈곡을 해 주었다. 문영용 님 탈곡기는 품질이 좋아 많은 일거리들이 있었다. 보리 한 가마를 탈곡하는데 대략 1말 정도의 보리를 삯으로 받아 매상하여 돈을 벌었다. 대략 1년에 20가마 정도의 삯을 받을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도 별도로 사지 않고, 아버지와 형님이 거들어 주어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정용봉 씨가 마을에 밭 1004평을 기증하였고, 그 땅을 팔아 현재의 회관을 마련하였다.

옛날 마을에 정용봉 씨가 살았다. 정용봉 씨가 둥구산 마을(봉촌) 사는 한봉수 씨에게 쌀 20가마를 관리하도록 맡겨 놓았고, 1921년생인 문영용 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져 왔다는 이야기로 보아, 1921년생인 문영봉 님 아버지가 젊었을 때, 나이가 들었던 동시대인이었던 것 같다. 문영용 님은 정용봉 씨가 밭을 마을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문영복 님은 정영봉 씨가 부인과 함께 사위 집에 살면서 부인이 보따리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정영봉 씨가 사망하자 사위가 농사는 짓되, 밭은 마을의 믿을만한 사람들 명의로 하고, 벌초와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한 뒤, 몇 년 후 부인만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후에 마을 주민들에게 들린 소문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정영봉 씨의 부인이 다른 곳으로 시집갔다는 것이었다. 함께 살던 남편이 죽자 제사와 묘지의 금초를 주민들에게 부탁하고 떠나버린 것이다.

이분의 묘는 공동묘지의 양기리 지역에 있고, 1973년도에는 비석을 세웠으며, 마을에서 해마다 제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묘지에서 제를 올렸다.

이 땅은 홍 씨가 농사짓고 제사를 차렸으나, 마을 주민대표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문영용 님 이장 시절에 팔아 현재의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였다.

동래정씨는 논 2마지기를 마을에 기증하였고, 그 땅을 팔아 현재의 회관을 마련하였다.

문영복 님에 의하면 동래정씨는 마을에 살던 정익조 씨의 당숙되는 사람으로 후손이 없

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정익조 씨에게 2마지기의 논을 사 주고 제사를 부탁했지만, 토지의 명의는 마을 대표로 해 두었다. 정익조 씨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대표 명의로 된 토지를 정익조 씨가 농사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동래정씨는 정용봉 씨보다 늦에 마을에 온 사람이었다. 정용봉 씨는 문영복님 아버지가 젊었을 때 노인이었던 분이지만, 동래정씨는 문영복님 어렸을 때 직접 본 분이므로 1950년대에 거주한 분이다.

이분의 묘는 공동묘지의 양기리 지역에 있고, 1973년도에는 비석을 세웠으며, 마을에서 해마다 제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묘지에서 제를 올렸다.

문영용 님 이장 때, 마을에서는 논을 팔아 현재의 마을회관을 짓는데 사용하였다. 문영용 이장은 이분들의 행적을 찾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제적부 등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마을에 내려오는 구전밖에는 아무 기록이 없었다.

양아다리 마을 상여는 개목마을과 같이 사용하다가, 공동묘지로 옮겼다.

양아다리 마을 상여는 개목마을과 함께 사용하였다. 상엿집은 월전로 도로변의 국유지에 있었는데, 사유지가 된 후, 양항리와 양기리의 접경에 있는 공동묘지로 옮겼다. 상여는 양아다리에 살던 김씨 성을 가진 목수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목수는 어느 부잣집의 개인 상여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상여를 관리하던 사람을 상여장모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은 오봉근 씨였고, 문영용 님의 아버지(1921)와 동갑이었다. 상여장모에게는 상줏집에서 얼마간의 쌀을 주었다.

양아다리 주민들은 날이 가물면 둥구산의 봉화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양아다리 주민들은 날이 가물면, 키를 쓰고 둥구산의 봉화터에 올라가 불을 피우면서 기우제를 지냈다. 주로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흰 수건을 쓰고 키를 쓰고 올라갔고, 불을 피워 마을에서도 연기가 보였다. 문영용 님이 아주 어렸을 때 보았다.

그러나 문영복 님은 남자들이 마을 뒷산에서도 지내고, 둥구산에서도 지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남자가 지낼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아다리 마을에서는 두레와 품앗이를 하였다.

양아다리 마을에서는 1950년대 중반까지 두레를 하였다. 두레를 하면, 풍물패와 함께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모였으며, 문영용 님의 할아버지가 대표가 되어 일을 시켰다. 당시 신발을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양아다리 마을의 농사일을 품앗이로 하였다. 모내기를 하거나, 벼를 베고, 지붕을 헤이는 등 큰 일을 할 때에는 동네사람들이 순서를 정해 서로 품앗이로 일했다. 마을에서는 일을 잘못하는 사람도 함께 품앗이를 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았다.

정월에는 놀이를 많이 하였다.

양아다리 마을에서는 정월이 되면 놀이를 많이 하였다.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모여 윷놀이를 하였다. 윷놀이는 며칠 동안 이어졌다. 정월보름이 되면, 아이들은 쥐불을 놓았다. 며칠 전부터 관솔을 모아 두었다가 불깡통에 넣어 태우면서 논둑도 함께 태웠다. 쥐불싸움은 이웃 마을인 봉촌, 평촌 동네와 했는데, 작은 동네라 맨날 쫓겨다니기만 했다고 한다. 당시 나일론 잠바를 입었다가 쥐불놀이하면서 많이 태워먹었다고 한다.

양아다리 남자 아이들은 1970년대 말까지 공치기를 하였다. 공은 새끼줄로 만들었고, 채는 하키스틱처럼 만들었다.

양아다리 남자아이들은 나무하러 다닐 때, 공치기를 하였다. 공은 야구공보다 컸고, 공을 치는 채는 밑이 꼬부라진 나무를 사용하였다. 산의 공터나, 마당, 논에서 쳤는데 한 편은 3~4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

양아다리 어린이들은 자치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등을 하면서 놀았다.

양아다리 어린이들은 겨울이면 자치기를 많이 하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팽이를 깎아 잘라 치곤하였다. 팽이를 하나 만드는데 소나무 하나를 벤 것이다. 또 날이 추우면 썰매타기를 하였다. 어른들이 썰매를 타라고 논에 물을 잡아 주었는데, 날이 추우면 아침부터 썰매타는 것이 일이었고, 물에 빠지면 불을 쬐느라고 양말을 태워먹곤 하였다.

양아다리 주민들은 바다에 나가 굴을 따고 조개를 잡으면서 생활하였다.

양아다리 주민들은 바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생활하였다. 겨울이 되면 죽도 근처에서 굴을 따다가 팔아, 집집마다 큰 무더기의 굴껍질이 생겨나곤 하였고, 밤섬과 대섬 사이에서 꼬막 등 각종 조개를 잡기도 하였고, 그랭이로 꽃게 새끼나 백합을 잡아 팔았다. 1차 간척사업 이후에도 죽도 부근에서 많은 해산물을 잡았다. 꼬막은 밤섬 뒤에서, 작은 3발 쇠스랑으로 갯벌을 파 잡았고 바지락은 삼현리 쪽에서 갓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갯골 주변에서 잡았다.

요즘도 죽도근처나 무창포로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다.

남포에 우시장이 섰었다.

대천시장이 복잡해서 우시장을 남포로 이전한 때가 있었다. 현재 남포장례식장 있는 곳인데, 소를 매어 두는 시설이 있었다. 우시장이 없어지고 장례식장을 만들었다.

남포농협 근처에 시장이 섰었다.

문영복(1950)님이 어렸을 때인 1950년대 중반, 남포에도 시장이 섰었다. 장소는 현재의 농협 앞쪽 도로면이 중심이었고, 도로 동쪽에도 섰었다. 여러 장삿꾼들이 물건을 팔았고, 주민들이 모여 물건을 사갔다. 당시에도 큰 시장은 아니어서 오전에만 섰고 오후에는 파했다. 남포저수지가 만들어진 후 시장이 없어졌다. 문영복 님은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양아다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잿간변소가 있었다.

양아다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잿간변소가 있었다. 잿간변소는 잿간에 돌 두 개를 놓고, 거기에 올라가 똥을 눈 후, 똥을 재에 버리는 것이다. 자연히 재와 똥이 쌓이게 되고 이것을 거름으로 내는 것이다. 겨울에 많은 나무를 때기 때문에 많은 재가 나오고, 잿간이 포화되면 재를 마당에 쌓게 되는데, 이 재 속에는 많은 똥이 섞이게 된다. 이때 마당의 잿누리는 나래로 덮어 놓았다가 봄에 밭이나 논으로 낸다.

잿간변소는 대개 밖에 있었고,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안에 있는 변소는 항아리를

묻어 똥과 오줌을 받았다. 이렇게 모아진 오줌과 똥은 밖에 있는 큰 통에 담아 썩혀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시멘트가 나온 뒤에는 시멘트로 만든 통에 모아 썩혔다.

1960년대 중반, 문영용 님의 큰형 문영표(1944)님은 마을의 4H활동을 이끌어 충청남도에서 2등상을 타고, 마을회관을 지었다.

문영용 님의 큰형인 문영표님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 교육하고, 가마니를 만들어 팔아 소득사업을 하면서 4H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마을의 20여 명 청년들도 열심히 호응하여 군대표로 출전하였다.

이에 문영용 님의 아버지가 텃밭에 마을회관을 짓도록 허락하였고, 청년들이 모여 초가집을 짓고, 그 곳에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였으며, 가마니를 치기도 하였다. 당시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표를 팔고, 윷놀이를 하여 상품을 나누어주기도 하였으며, 남은 돈은 4H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아다리에는 가발공장이 있었다.

양아다리에는 1960년대 중반 가발공장이 5~6년간 운영되었다. 옛날 방앗간을 했던 최상진 씨의 동생들이 서울에서, 가발을 만드는 서울통상에서 일하다가 내려와 공장을 차렸다. 하청을 받아 가발을 만들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최상진 씨 집안 사람들이 일했다.

문영용 님은 현대식으로 많은 벼농사를 짓는다.

문영용 님은 벼농사를 기계화하여 현대식으로 짓는다. 농사의 첫 단계는 논을 가는 일인데 트랙터로 가을에 갈거나 봄에 간다. 봄에 갈 때는 논이 마른 다음에 간다. 논이 축축한 상태에서 갈면 흙덩이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주면 논에 대고 써레질을 하는데, 써레질을 한 후, 2~3일 두었다가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 곧바로 모내기를 해도 상관은 없다. 써레질을 할 때 제초제를 투여하면서 써레질을 하면, 나중에 잡초가 나지 않는다.

모내기는 승용식으로, 사람이 기계를 타고 다니면서 모내기를 한다. 모래기를 할 때 비

료도 함께 넣는데, 모의 사이에 골을 파고 비료를 넣으면, 유실 없이 벼가 빨아들이게 된다. 이를 측조시비라고 한다.

이후에는 농약하는 일인데 보령시에서는 유인항공기로 농약을 1회 해 주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1~2번 해 주면 된다. 개인적인 농약은 드론으로 한다. 요즈음은 못자리부터 입제를 넣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적다.

벼를 베는 것은 10월 중순 이후이다. 너무 일찍 베면 수확량이 떨어지고, 늦게 베면 싸래기가 많고 질이 떨어진다. 10월 중순 이후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물벼 그대로 RPC로 운반하면 수확이 끝나게 된다. 기계화되고 대량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250여 마지기를 혼자서 할 수 있다.

할머니의 친정동생이 돌아가셨을 때 작은 아버지가 상주를 했다.

할머니의 친정은 삼현리의 경주이씨인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재가한 후, 양아다리 외가에서 남매가 가난하게 살았다. 할머니의 남동생은 여러 부인을 얻었으나 자손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때, 문영용 님의 아버지는 문씨 집안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상주가 되지 못하고, 문씨 집안의 둘째 아들인 문영용 님의 작은아버지가 상주 역할을 하였다.

6.25 때 서 씨 할아버지가 방공호를 팠고, 자결하였다.

6.25 때 정세를 잘 아는 지식인이었고, 부잣집이었던 서 씨 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마을에 방공포를 팠다. 현재 마을안 비탈에 팠는데, 개인적으로 품을 사서 남자방공호, 여자방공호를 각각 팠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들이 들어오자, 서 씨 할아버지는 자결하였다. 서 씨 할아버지가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인민군들이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민군 손에 더럽게 죽느니 깨끗하게 죽는다고 그만 목매달아 죽었다. 시신은 선산에다 밤에 묻었다.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분이었다.

옛 어른들은 양아다리라는 이름이 다리 때문에 붙여졌다고 말했다.

양아다리라는 이름은 양아다리 마을에 있는 다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했다. 우선 마을 안에 넓적한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고, 현재 RPC자리에 큰 돌다리, 현재의 버스정류장 근처에 돌다리가 또 있었다. 마을의 옛 어른들은 마을 안에 있는 다리와 RPC 부근에 있는 다리 때문에 양아다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하였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윤 창 석 (1937년생)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청라면 황룡리 용머리마을의 주민생활



출생과 성장

윤창석 님은 파평윤씨로 1937년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용머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파평윤씨가 청라면 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5대조 할아버지부터이다. 5대조 할아버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다가 6대조 할머니를 모시고, 청라면 옥계리 질굴로 내려와 생활하였다. 이후 할아버지가 황룡리 느르실로 이주하여 황룡리에 거주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3형제를 두어 모두 황룡리에 거주하였고, 윤창석 님의 아버지는 막내로 용머리에 거주하였다. 윤창석 님은 6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나 용머리에 거주하였고, 장현리 장밭에 살던 유근재(1946)님과 결혼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1945년 집 앞에 있는 옥계초등학교(이하 국민학교)를 형과 함께 입학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바로 퇴학하고 집안일을 하였다. 어려서 옥계학교에 가서 놀았고, 늘 나무하는 것이 일이었다.

16살에 처음으로 머슴살이를 하였다.

윤창석 님은 국민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오서산에 다니면서 나무를 하며 집안일을 하다가 16살에 처음으로 머슴살이를 하였다. 머슴살이 간 곳은 예산군 고덕면 사리 말머리라고 하는 마을이었고 새경은 1년에 쌀 1가마를 받았다. 하는 일은 농사짓고 가야산에서 나무하는 일이었다.

당시 주인집에서는 1년에 5벌의 옷을 해주고, 고무신을 사 주었는데, 고무신이 여의치 않아 짚신을 만들어 신었다. 나무하러 다니기 때문에 짚신은 3일밖에 신을 수 없었다. 많은 짚신을 만들어 걸어놓고 신었다. 짚신은 하룻밤에 1~2켤레를 만들 수 있었다.

옷은 계절 따라 해 주었다.

머슴살이 할 때 옷은 5벌 해 주었는데, 겨울에는 무명으로 겉과 속을 만들고 안에 솜을 둔 옷으로 '핫것'이라고 하였고, 여름에는 삼베로 만든 '등거리 잠뱅이'를 해 주었으며, 봄에는 '중의적삼'을 해 주었다. 중의적삼은 무명으로 만드는데 홑으로 만든 옷이었다. 가을에는 무명으로 만든 중의적삼을 해 주었는데 겹으로 만들고 속에 솜은 넣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을 '덧것'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19살부터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계속하였다.

윤창석 님은 16살에 예산 고덕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고, 집에 와 2년 동안 있다가 19살부터 다시 머슴살이를 하였다. 이때는 멀리 가지 않고, 질마재 이해성 씨 댁, 용머리 이종섭 씨 댁, 서촌 이지복 씨 댁 등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한 후에도 머슴살이를 하였다. 새경은 처음에 5가마 받다가 점차 올라 마지막에는 15가마를 받았다. 새경 중 일부는 선새경으로 받았는데, 7가마 새경의 경우 1~2가마를 선새경으로 미리 주었다. 어떤 머슴들은 선새경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

머슴살이는 대략 10개월 살이다.

머슴살이는 정월보름이 지나면 들어간다. 들어가서 일하다가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지붕까지 헤일으면 임무가 끝난다. 머슴을 계속해서 살면 그냥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붕을 헤이는 것으로 임무가 끝난다. 그 기간이 대략 10개월이다.

야학을 2달 다녀 한글을 깨우쳤다.

황룡리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을 모아 야학으로 한글을 가르쳤다. 용머리 마을 위쪽 성광교회 있는 데서 강대구 씨가 야학을 운영했는데, 윤창석 님은 야학을 2달 다녀 한글을 깨우쳤다. 구구단 등 수의 계산은 배우지 않고 그냥 터득해서 했다.

쟁기질은 20살에 배웠다.

농사일에서 중요한 것은 쟁기질이었고, 쟁기질을 20살에 배웠다. 누구한테 특별하게 배운 것은 아니었고 그냥 익혀 배웠다. 논은 초경과 재경이 있는데 초경은 흙을 갈아 엎어 쌓아놓는 것이고, 재경은 쌓아놓은 흙을 갈라놓는 것이다. 밭은 네 번 갈아엎어 두둑을 만드는데 이것을 '네거웃지기'라고 하였다.

황룡리 밭에서는 극쟁이를 많이 사용하였다.

황룡리의 밭은 자갈이 많아 쟁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극쟁이를 사용하였다. 극쟁이는 쟁기처럼 흙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흙이 양쪽으로 갈라지

는 것이다. 극쟁이를 사용해서 밭을 갈면 고구마를 심을 수 있는 두둑이 생긴다. 황룡리에서도 논이나 돌이 없는 밭은 쟁기를 사용하였다.

머슴들은 명절에 3일 놀고, 백중 때 놀았다.

머슴들의 휴일은 명절과 백중이었다. 설과 추석 때는 3일씩 놀았고, 백중 때에는 1일을 놀았다. 백중 장날이면 주인집에서 쌀 1말 값을 용돈으로 주어, 장에 나가 술을 먹었다. 이날은 용돈을 받았으므로 주인을 위해 개장국을 한 그릇 사다 주었다. 개장국을 파는 집은 마을에도 있었기 때문에 투가리에 담아주면 나중에 반납하였다.

정월보름에는 '주대'드리고, '굴레' 만드는 일을 하였다.

정월 보름에는 쉬지 않고, 주인집에서 '주대'드리는 일을 하였다. 주대는 소와 쟁기나 써레를 연결하는 동아줄이다.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새끼줄 3가닥으로 만든 줄을 비틀어, 3개를 합쳐 만든다. 새끼줄 3개가 하나의 줄이 되는 것이다. 만들어진 줄은 감나무 같은 높은 나무에 돌을 달아 매달았다가 사용하였다. 대개 3개를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1년에 3개쯤 필요하였다.

소의 머리를 꼬뚜레와 함께 묶는 줄을 '굴레'라고 하는데, 굴레는 새끼줄 3개를 디려 만들었고(드리다: 짚이나 새끼줄을 돌려 꼬아지는 탄력을 만드는 작업을 말함), 일할 때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입에 씌우는 것을 '망'이라고 했는데 새끼줄을 가늘게 꼬아 엮어 만들었다.

소 코뚜레와 연결된 줄인 바도 새끼줄 3개를 디려 만들었는데, 튼튼하게 하기 위해 삼을 넣어서 꼬기도 하였다.

우마차를 끄는 소는 신을 만들어 신겼다.

우마차를 끄는 소는 늘 도로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발바닥이 닳아 문제 되었다. 그래서 짚으로 신(쇠신)을 만들어 신겼다. 용머리에서 대천장에 다녀오려면 갈 때 쇠신 4짝을 신기고, 올 때 새로 4짝을 신겨 왔다. 대전장에 다녀오는데 쇠신 8짝이 필요하였다.

머슴들은 겨울밤에 새끼를 꼬았다.

머슴들은 겨우내 밤에 새끼를 꼬았다. 새끼는 집을 추려, 볏짚 아래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메겡이루 찧어 부드럽게 한 후, 물에 축여 꼬았다. 밤늦도록 꼬아 다리를 이용해서 사려놓았다. 약 70발을 사려 놓으면 한 사리라고 하였고, 처마 밑에 걸어 놓았다가 사용하였다. 옛날 시골 초가집에서는 지붕을 헤일 때 많은 새끼줄이 필요하였다.

새끼는 마을 사랑방에서 꼬았다.

새끼를 꼬는 장소는 마을의 부잣집 사랑방이었다. 마을에는 소수의 개방된 사랑방이 있었고, 이곳에 일꾼들이 모여 새끼를 꼬았다. 밤이 늦어지면 주인집에서 고구마를 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일꾼들이 모여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새끼를 꼬았다. 윤창석 님이 아주 어릴 때에는 얘기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용머리에서는 이정복 씨가 잘 읽었는데 머리가 좋아 책을 외우다시피 하였다.

사랑방 앞에는 오줌동이가 놓여 있어서 오줌을 누었고, 주인집에서는 오줌을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머슴살이 이후에는 남의 논을 농사지었다.

윤창석 님은 머슴살이 이후 남의 논을 빌려 농사지었다. 남의 논을 빌리는 방식은 맞타작과 삼분작이 있었다. 맞타작은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었고, 삼분작은 수확량의 1/3은 농사짓는 사람이 갖고, 2/3는 지주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농사를 잘 못 지으면 땅을 얻을 수 없었다. 지주가 농사 잘 짓는 사람을 골라 땅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황룡리에서는 소가 하루 일해주면 사람이 이틀 갚아야 했다.

윤창석 님은 일소를 길러 농사지었다. 남의 논을 갈아주기도 했는데, 품앗이로 남의 논을 하루 갈아주면 사흘 품을 받았다. 소가 일한 품이 둘, 사람이 일한 품이 하나였다. 사람이 가지 않고 소만 빌려주면 품 둘을 받았다.

용머리 마을에 상여가 따로 있었다.

황룡리에는 작은 마을마다 상여가 따로 있었다. 용머리에도 있었고, 돌모루, 느르실, 송중마을 모두 상여가 있었다. 용머리 마을에서 상여를 처음 만든 것은 용기 만들던 때였다. 당시 마을 돈으로 상여를 만들고, 색칠을 하다가 물감이 남아 용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만든 상여는 큰냇갈 옆, 물방앗간 근처의 냇둑에 상엿집을 만들어 보관했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홍수에 떠나가 버렸다.

이후 상여를 다시 만들어 용못 근처에 상엿집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윤창석 님의 기억으로 2개의 생여를 만들었는데, 마을에 사는 목수인 강희창 씨가 만들었고, 각종 천으로 된 부분은 마을에서 재봉틀로 만들었다. 마지막에 사용하던 상여는 윤창석 님이 천안에 가서 사왔는데 2층으로 된 멋있는 상여였고 장강틀도 접는 것이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상여를 처음 만들거나 사오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을 태우고 마을을 한바퀴 돌았다. 이것을 '상여 흐른다'고 하였다. 마을에서 복이 많은 극노인이 돌아가셔도 출상 전날 빈 상여를 가지고 마을을 돌았다. 이것도 '상여 흐른다'고 하였다. 이때 상여를 멘 상여꾼들은 팥죽을 먹었다.

용머리의 마지막 상여는 꽃상여가 등장하여 필요 없게 된 뒤 주민들이 불태웠다.

용머리 마을의 상여 부품 이름.

용머리 마을에서는 상여를 멜 때 줄 위에 놓여지는 것을 연춧대라고 불렀고, 연춧대 위에 장강틀이 있었다. 장강틀의 앞뒤에는 마구리로 고정시켰다. 장강틀 위에 시신을 놓고, 그 위에 앙장을 놓았으며, 앙장의 앞뒤에는 앙장마구리를 달았다. 그리고 앙장의 앞에는 용으로 만든 정자용(丁字龍)을 꽂았다. 맨 위에는 천을 씌웠는데 구름자일이라고 불렀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가집에서 밤을 새웠다.

황룡리 용머리 마을에 초상이 나면 주민들은 모두 상가집에 가서 일했고, 남자 어른들은 상가집에서 밤을 새웠다. 밤새우는 일을 '밤정가'한다고 했는데,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밤을 샜다. 이때 상가집에서는 팥죽을 주었다. 상가집의 팥죽은 친분있는 마을 사람들이 쑤어다 준 것이다. 부조로 쑤어다 주는 것으로 상제들도 먹었고, 마을 사람들도 먹었다. 옛날에는 부조라야 팥죽을 쑤어다 주거나, 계란 1줄을 주는 정도였다. 상가집에서는 마을 주민

들을 대접하느라고 많은 식량과 술이 소용되었다.

상여장모는 상여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윤창석 님은 황룡리에서 상여관리를 책임지는 상여장모를 하였다. 상여장모는 초상 날 때 상여를 내어주고, 상가집에서 상여를 조립하였으며, 사용한 후에는 상자에 부품을 정리하여 가져오도록 하였다. 장사날 비가 오거나 눈이 와 상여가 젖을 경우에는 말려 보관하였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천안에서 사온 2층 상여는 아름다웠지만 복잡하여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윤창석 님이 이런 궂은 일을 도맡아 하였다. 마을에서는 상여장모에서 1년에 쌀 5말을 주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을에서 돈을 거두어 장사지내 주었다.

황룡리 용머리 마을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상을 당하면 돈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 주었다. 6.25 때 가난한 사람이 죽어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

용머리 마을에서 요량잡이로 유명한 사람은 박승진 씨, 김주하 씨였다.

용머리 마을에서 상여가 나갈 때, 요량을 흔들면서 구슬픈 이야기로 상여를 이끌던 요량잡이로 유명했던 사람은 박승진 씨와 김주하 씨였다. 특별하게 수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마을 일에 앞장서 요량잡이를 하였다. 상여가 나갈 때 사위 등 유족측에서 내놓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근래에는 장례를 마친 다음에 상가에서 50~100만 원을 마을에 내놓기도 한다.

황룡리에서는 시신을 매장할 때 관을 빼고 석회를 사용하였다.

황룡리 용머리 마을에서는 시신을 매장할 때 관을 빼고 시신만 묻었다. 그리고 횡대 위에 흙과 석회를 섞어서 얹고 밟았다. 그러면 나중에 굳어 단단하게 되었다. 이때 광중안 7~8명이 들어가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면서 밟아 다졌다. 이때 선창은 요량잡이가 하였다.

황룡리에서는 봉분을 만들 때 용미를 잘 만들었다.

황룡리 용머리 마을에서는 봉분을 만들 때, 잔디를 둥글게 쌓아 만들었다. 대략 간량해서 쌓아 올렸다. 봉분과 함께 뒤쪽에 용미를 잘 만들었는데, 근래 용미를 생략하게나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만들기 위함이다.

황룡리에서 사혼(死婚)하는 것을 보았다.

1960년대, 황룡리 돌모루의 죽은 처녀와 장산리 장굴의 죽은 총각이 사혼을 하였다. 총각과 처녀의 시신을 발굴하여 각각 상여에 태우고, 황룡리 잿들보 근처의 평평한 땅에 가져온 후, 두 상여가 맞절하는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있는 마을로 두 상여가 이동하여 함께 매장하였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원을 풀어주기 위해 사혼을 하였다. 1937년생인 윤창석 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었다. 대략 1950년생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처녀가 죽으면 길 가에 묻었다.

옛날에 처녀가 죽으면 길가에 묻었다. 윤창석 님 청년 시절, 내현리 당안마을에서 죽은 처녀를 느르실에서 당안으로 넘어가는 느르실고개의 길가에 묻었는데, 저녁에 그곳을 지나려면 모두 무서워 하였다. 처녀가 죽으면 길에 묻는 풍습이 있었다. 처녀는 윤창석(1937) 님과 비슷한 나이였다.

황룡리에서는 아이가 죽으면 넙티 올라가는 솔밭에 묻었다.

황룡리에서도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손님(천연두)이나 홍역 때문에 많이 죽었다. 심지어는 반타작을 한다고 하여, 낳은 아이들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한다. 죽은 아이들은 대부분 넙티(청소로 넘어가는 고개) 쪽 솔밭에 묻었다. 얕게 묻기 때문에 여우가 파는 경우가 많아 돌을 가져다 덮어 놓았다.

1950년 경, 황룡리 마을에 천연두가 유행하였다.

1950년 경 황룡리 마을에 천연두가 유행하였다. 현재 76세인(1949년 생) 윤창석 님의 동생이 2살 때, 황룡리 마을에 천연두가 유행하였다. 이때 죽은 어린이들도 있고,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모두 얼굴이 얽었다. 당시 어른도 걸려 고생한 사람이 있었다.

용머리의 용기는 상여를 만들면서 남은 물감으로 그렸다.

용머리 마을의 용기는 윤창석 님 아버지 세대에서 상여를 만들면서 함께 만든 용기이다. 당시 황룡리에는 용머리, 느르실, 돌모루 등 작은 마을마다 상여를 따로 장만해서 사용하였고, 용머리마을도 처음으로 상여를 장만하였다. 이때 목수는 상여를 만들고, 그림 그리는 기술자가 물감을 가져와 상여에 그림을 그렸는데, 물감이 남아 용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 만든 상여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홍수에 떠내려가 버리고 용기만 남았다.

용머리 마을의 용기는 마을의 농악과 함께 유명해졌다. 용머리 마을에는 박영근 씨이라는 유명한 상쇠잽이가 있어 보령시 농악대회에서 늘 1~2등을 하였고, 도대회에도 출전하였다. 이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출전하여 용기도 유명해졌다. 서산의 어느 마을에서 용머리의 용기를 그대로 모방하여 용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용기는 풍물 칠 때 용기마당에 꽂아놓았다.

용머리 마을의 용기는 마을에서 풍물을 칠 때 용기마당에 꽂아놓았다. 용기마당은 현재 마을 회관이 있는 곳으로 옛날에도 마을의 마당이었다. 두레 날 때 이곳에 용기를 꽂아놓고 들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술을 올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절했고, 명절이나 정월 보름, 풍물을 칠 때에도 용기마당에 용기를 꽂아 놓았다. 용기를 꽂아놓기 때문에 용기마당이라고 불렀다.

용기를 다는 대나무를 깃주라고 하였다. 아주 사거리 대밭에서 큰 대나무를 베어 사용하였고, 회관 뒤에 매달아 두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1960년경까지 두레를 하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1960년경까지 두레를 하였다. 마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레를 했는데, 논 두벌 맬 때 했다. 논을 가진 사람은 논 면적에 비례하여 돈을 내고, 매 가구당 1명씩 나와 마을의 모든 논을 맸다.

이때 용기를 꺼내 용기마당에 세워놓고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풍물패를 앞세워 논을 맸다. 용머리 주민이 소유한 논을 모두 맸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가기도 했는데, 이때 그 마을에도 두레를 하면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은 서로 어울려 농악을 치는 것인데, 잘 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용머리는 유명한 상쇠잡이가 있어 늘 이겼다. 유명한 상쇠잡이는 박영준(1909년생 정도) 씨였다.

두레 때 용머리의 농악은 상쇠잽이와 부쇠가 꽹과리를 치고, 나머지 징과 북, 장구를 쳤다. 징으로 유명한 사람은 윤창석 님의 아버지였다. 새납을 부는 사람은 다른 마을에서 품삯을 주고 사 왔다. 농악치는 사람들은 홍등거리라고 부르는 붉은 등거리를 입었다.

논을 맬 때는 풍물꾼도 논에 들어가 앞에서 쳤으며, 뒤따라 두레꾼들이 논을 맸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논을 매기 때문에 벼를 밟는 경우도 있어, 뒤따라 다니면서 벼포기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을 '따비일센다'라고 하였다.

두레의 가장 우두머리를 공원님이라고 하였다. 마을에서 완력이 있는 사람이 맡았으며 직접 논에 들어가서 일하지는 않고, 일을 시키기만 했다. 이 외에도 담뱃불을 가지고 다니거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두레는 50여 명이 나와 약 1주일 계속했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나 개인적으로 품삯을 나누어주지는 않았다. 모두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두레기간 동안 밥은 집에서 먹고 다녔고, 술을 마을 기금에서 사 주기도 하였고, 논 임자가 내기도 하였다. 술이라야 아침 저녁으로 2차례 정도 먹었다.

용머리 마을의 두레는 마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용기는 풍물대회에 가지고 나갔고, 용기를 빼앗으려는 마을도 있었다.

황룡리는 보령에서 풍물을 잘 치는 마을이었다. 1960~1970년대에는 풍물대회가 있었고, 청라면 대회를 거쳐 보령군 대회에 출전하였다. 청라면 대회에 출전하면 황룡리가 우승하였고, 이것이 다른 마을에서는 실력보다 용기가 멋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빼앗으려고도 하였다. 한 번은 청라면 나원리 사람들이 황룡리의 용기 꿩장목을 빼앗아가려고 황룡리 근처까지 쫓아왔으나, 어른들이 감춰 빼앗기지 않았다. 나원리 사람들이 아주 드셌었다.

황룡리에서 가장 큰 보(洑)는 잿들보였다.

황룡리에서 가장 큰 보는 잿들보로 80여 마지기의 논에 물을 댔다. 보 운영을 위해 대표를 뽑지는 않았고,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인(作人)들이 모여 보를 관리하였다.

6.25 무렵 흉년 때 독사풀 씨도 먹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도 6.25 무렵 흉년이 들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버텼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이 많았다. 배고픈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독사풀 씨를 훑어 볶아 먹었다. 독사풀 씨를 훑어 볶아 갈아 물에 섞어 먹으면 고소롬하니 먹을 수 있었다. 윤창석 님도 먹어 보았다.

황룡리 용머리 마을 용둠벙은 기우제 지내는 곳이었다.

황룡리 용머리 마을 용둠벙은 기우제 지내는 곳으로 유명했다. 멀리 떨어진 마을인 신산리, 의평리 등에서도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

용머리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용기를 용둠벙 옆에 꽂아놓고, 통돼지와 떡시루를 가져다 놓고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 주민 중에서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축문을 써 읽고 지냈다. 기우제를 마친 뒤에는 돼지머리를 잘라 용둠벙에 넣었다.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여자들이 키를 가지고 와서 물을 까불렀고, 제를 마치면 병에 물을 담고 솔잎으로 막고서 조금씩 흘려가면서 마을까지 갔다.

다른 동네에서는 떡시루와 돼지머리 등 간단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여자들이 물을 까부르고, 물을 담아 이고 가거나 병에 담아갔다.

기우제는 날이 가물면 지내기 때문에 자주 지냈다. 윤창석 님이 본 용머리마을의 기우제만 대여섯 번이었다.

용둠벙은 매우 깊고 물이 차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용머리 마을의 용둠벙은 물이 바위에 부딪치는 곳이라 아주 깊다. 어른 2길 이상이고, 속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물이 아주 차다. 그래서 물고기는 살지 않는다. 물이 깊고 넓어 마을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했고, 옥계초등학교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

다가 빠져 죽기도 하였다.

옥계리에서는 6.25 때, 금구데기에 사람을 죽여 넣는 사건이 있었다.

옥계리에서는 6.25 때 좌우의 갈등으로 사람을 죽어 금구데기에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황모 씨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죽여, 옥계 은굴에 있는 직구데기(수직구데기)에 빠뜨렸었다. 황 씨의 아들도 함께 죽었다.

6.25 당시 인민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화를 입었다.

6.25 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수복 후에 잡혀 죽었다. 마을에서 죽은 것은 아니었고, 대전으로 이송되어 죽었다. 그는 인민군 치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였고, 수복 후에는 뒷산의 고린장(백제 돌방무덤)에 숨어있다가 붙잡혀 청년들에게 매를 맞았고, 대전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용머리 마을은 돌모루와 쥐불싸움을 하였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용머리 아이들도 여느 마을처럼 쥐불놀이를 하였고, 이웃 마을인 돌모루와 쥐불싸움을 하였다. 그때마다 돌모루 아이들이 이겼다. 용머리는 각성받이라 단합심이 적었고, 돌모루는 김씨 집성촌이라 단합심이 세어 강하다고 생각하였다.

황룡리 마을에서는 1950년대 중반까지 공치기를 하였다.

황룡리 마을에서는 1950년대 중반까지 마을마다 공치기를 하였다. 용머리 마을 아이들은 용둠벙 남쪽, 산말랭이 넘어 평평한 곳(200평 정도)에서 공을 쳤는데, 공바탕이라고 불렀다. 성황당의 남쪽이었다. 나무하러 가면 우선 그곳에 모여 공치기를 하는데, 한 편이 7~8명 되었다. 공바탕은 비스듬하게 산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곳이었다. 위쪽은 짧은 거리에 골문이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배도 더 되는 거리에 골문이 있었다.

공은 잡나무의 뿌리를 깎아 만들었고, 채는 하키의 스틱처럼 만들어 쳤다. 편이 정해지고 진영이 정해지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편이 먼저 공을 쳐서 시작한다. 이후 상대편

골문에 넣는데, 반대 방향에서 치면 방슨다고 하여 반칙이었다. 이럴 경우 골인이 되어도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반칙이 되면 '딴장'이라고 하여 상대편에서 공을 공중에 던지고 쳤는데, 생각대로 잘 맞지 않았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내기를 걸지는 않았고, 그냥 재미로 하였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골문을 넘어간 수를 계산하여 승부를 결정하였다. 내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재미있는 놀이였다.

용머리 마을 성황당은 장굴 가는 고개에 있었다.

황룡리에는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었는데 용머리 마을 성황당은 장굴 가는 아래고개에 있었다. 이 길은 장굴로 통하는 길이었고, 고개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신목은 벚나무였다. 성황당 주변에는 돌이 없어 먼 곳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가서 성황당에 모아 놓았다. 성황당의 북쪽은 침식되어 꼴짜기 속으로 길이 나 있다.

성황당이 있는 고개와 그 위에 있는 고개는 옛날 상여가 넘어다니지 못했다. 넘어가면 용머리 마을에 악상이 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다녔다.

성황제는 마을에서 지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지냈다. 성황당 옆이 바로 공바탕이어서 마을 아이들이 공치기를 하였다.

사거리 마을 앞들에 있는 돛대바위를 훼손하여 송중 부잣집이 망하고, 느르실의 맥을 잘라 회머리 김 씨네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황룡리에는 일제강점기 바위를 훼손하고, 혈맥을 잘라 부잣집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거리 마을 앞들에는 배 바위와 돛대바위가 있는데 돛대바위를 쪼개는 바람에 송중에 있는 부잣집에 술이 나오지 않아 망했고, 느르실의 혈맥을 잘라 독쟁이 회머리 마을에 살던 김 씨네 기와집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오서산 아래 오삼밭에는 3개의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오서산 아래 오삼밭에는 3개의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옥계에 하나, 송중에 하나, 용머리에 하나가 있었다. 용머리 물레방앗간은 느르실 가는 근처 방아보 아래에 있었다(용머

리쪽). 봇물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렸다. 방앗간은 여러 사람이 운영했는데, 마지막에는 박성국이라는 사람이 운영하였다. 물레방앗간은 옛날에는 절구로 방아를 찧었으나 정미기가 들어온 뒤에는 물레방아로 정미기를 돌려 방아를 찧었다. 절구로 찧을 때는 풍구를 돌려 왕겨를 빼낸 뒤 다시 찧기를 반복해서 방아를 찧었다. 속벌 조합있는 곳에 있던 물레방앗간이 늦게까지 절구질로 방아를 찧었다.

물레방아를 만드는 기술자는 황룡리 사람 김능호(1933년생) 씨였다. 김능호 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물레방아를 만드는 기술자였다. 목수로 집도 짓고 물레방아도 만들었다. 보통 기술로는 물레방아를 만들 수 없었다. 물이 흘러들어와 돌리는 바퀴를 용채라고 하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용머리 마을은 냇가에 있어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물고기는 쪽대로도 잡았지만, 약을 풀어서도 잡았다. 옛날에는 여뀌를 찧어 물에 풀어 잡기도 하고, 산에 있는 계피나무 껍질을 볶아 가루내어 베 주머니에 넣고 물속에서 흔들면 물고기들이 기절하여 잡기도 하였다. 청산가리를 풀어 잡기도 하였는데, 먹어도 상관이 없었다. 겨울에는 메로 돌을 쳐 돌 밑에 있는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기도 하였다.

용머리 주민들은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즐겨 먹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을 '해오락지'라고 하였다.

물고기는 밤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때 솜방맹이로 불을 비추고 작살로 잡는데, '해오락지'라고 하였다.

다슬기로는 생떡국을 해 먹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다슬기도 많이 잡았다. 다슬기를 삶으면 파란 물이 나오고 그 물에 밀가루나 쌀가루를 개어 썰어 넣어 생떡국을 만들어 먹으면 맛이 있었다. 특히 겨울철에 맛이 좋았다.

황룡리에서는 이봉주 씨와 신인철 씨가 새마을운동을 하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이장이었던 이봉주 씨와 지도자였던 신인철 씨였다. 이분들이 마을 길을 넓히는 등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대전에 사는 이학구 씨에게 부탁하여 전기도 일찍 끌어왔다.

용머리에서는 감을 독에 넣어 우려먹었고, 논둑에다 우리기도 하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감을 우릴 때,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고 독에 넣어 우렸다. 이때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 위에 옥수수껍질을 넣고, 이불로 덮어 놓았다. 윤창석 님 댁 감은 배감이어서 하룻밤이면 우러났다.

어린이들이 감서리를 한 경우에는 들키지 않도록 논두렁을 파고, 감을 넣은 후 풀을 덮어놓아 우렸다. 며칠 놓아두면 우러나 먹을 수 있었다.

느르실에는 민며느리로 시집온 분이 있었다.

느르실에 살던 원유선 씨는 생존해 있다면 현재 102세인 분이다. 이분은 부모님이 민며느리로 맞이하여 성장한 후 결혼하였다. 부인이 남편보다 3살이 위였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현재 아들이 느르실에 거주하고 있다.

볼 안에 난 돌기를 '시리'라고 하였다.

윤창석 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무엇을 씹다가 볼 안에 생긴 돌기를 '시리'라고 하였고, 보통 '시리 붙었다'라고 하였다. 어른들이 따주면 사그라들곤 하였다. 시리라는 말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흔히 사용하였다. '시리 붙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명절 때 풍물을 많이 쳤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명절, 특히 정월보름 때 풍물을 많이 쳤다. 풍물패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쳤는데 장광에서도 치고 부엌에 들어가서도 쳤다. 이때 풍물패가 들어온 집에서는 술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풍물패는 술을 마시면서 춤도 추고 흥겹게 놀았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정월에 윷놀이와 널뛰기를 많이 하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정월이면 윷놀이를 많이 하였고, 여자들은 널뛰기를 하였다. 널뛰기는 널판이 있는 집 마당에서 놀았다. 대개 부잣집이었고, 짚토매를 묶어 밑에 깔고 널을 뛰었다. 남자들은 윷놀이를 많이 하였고, 사랑방에서 밤새 놀기도 하였다.

이외에 어린이들은 사방치기, 자치기 같은 놀이를 하였다.

용머리마을에서는 목화, 삼, 모시를 심어 길쌈을 하였다.

용머리 마을 주민들은 길쌈을 많이 하였다. 목화를 심어 무명을 짜서 입었고, 삼을 심어 삼베를 만들어 입었으며, 모시도 심어 모시옷을 만들어 입었다. 많이 심은 것은 목화와 삼이었다. 특히 삼은 7~8집에서 심었는데, 한 가구당 약 100평 정도 심었다. 삼을 베면 냇가에 만들어진 삼구데기에 쌓고 풀로 덮은 후, 옆에 불을 때서 익혔다. 불 때는 공간과 삼을 넣은 공간을 달리해서 익혔는데, 한쪽에서 불을 피워 돌을 달군후, 물을 끼얹어 발생하는 김이 삼 쌓아놓은 밑으로 들어가 삼을 익히는 방식이었다. 마을에 삼구데기가 1개 있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용하였다. 모시는 3~4집이 심었다.

무엇이든지 옷감을 만들려면 베틀에 얹어 짜야 되었고, 짜려면 올 실을 날어 베틀에 올려야 했다. 올 실을 날어 베틀에 올리는 기술자가 있었고, 이런 작업을 '맨다'라고 하였다. 베를 매는 일은 여자들이 하였다. 짜는 것은 마포(삼)가 가장 수월하였고, 다음이 무명(목화), 가장 힘든 것이 모시였다.

용머리 마을에서 그네는 동산에 맸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단오 때 동산의 소나무에 그네를 맸다. 어른들이 동아줄을 디려 매주었고 여자 아이들이 많이 탔고, 잘도 탔다. 총각들하고 배 그네를 타는 경우도 있었고,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면 아랫도리가 보인다고 흉보기도 하였다.

용머리 마을의 처녀 총각들은 어른들 몰래 모여 놀기도 하였다.

윤창석(1937) 님 세대에서는 마을의 처녀총각들이 몰래 모여 방에서 놀기도 하였다. 특별한 놀이는 없었고 그저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 윤창석 님 아래 세대에서는 마을에서

서로 연애하여 결혼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 전에는 없었다.

윤창석 님은 1960년에 입대하여 1963년에 제대하였다.

윤창석 님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1960년에 입대하여 1963년 10월 26살의 나이로 제대하였다. 군대생활은 소총병으로 경기도 일동, 이동에서 근무하다가 강원도 금화에서 근무하였다. 만 36개월을 근무하였다. 군대를 제대한 뒤에도 머슴살이를 하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썰매를 타라고 논에 물을 잡아주었다.

용머리 마을의 논들은 석우천에 보를 막아 물을 댔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였다. 그래서 겨울에 물을 가두어 놓지 않지만, 마을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라고 일부러 논에 봇물을 가두어 주었다. 날이 추워 얼음이 얼면 이 논에서 마을 어린이들이 모두 나와 썰매를 탔다.

논에 거름은 수시로 내었다.

옛날 논에는 쇠두엄을 많이 내었다. 소 외양간을 치울 때, 직접 논에 내면 썩어 농사지을 수 있었다. 벼를 벤 뒤에는 수시로 논에 두엄을 내었다. 썩히지 않고 생두엄으로 내었다.

논을 가는 것은 물갈이와 마른갈이가 있었다.

논을 쟁기로 가는 것은 물갈이와 마른갈이가 있었다. 물갈이는 물이 흔한 곳에서 하는 쟁기질로, 물을 넣어 놓고 가는 것이다. 쉽게 갈아지고 늦게 갈아도 되었다. 반면, 마른갈이는 마른 논을 가는 것으로 일찍 갈아야 바싹 마른 상태에서 물을 넣을 수 있다. 바싹 마른 상태에서 물을 넣어야 쉽게 풀어져 모를 심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흙덩어리를 부수기 어려웠다.

옛날에는 하지 때 모내기를 하였다.

옛날에는 하지중모라고 하였다. 하지(6월 22일경) 때가 모내기의 중간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지금보다 못자리도 늦게 하였다. 비닐 등 보온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못자리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곡우 낙종이라고 하여, 곡우인 4월 20일경에 볍씨를 뿌렸다.

날이 가물면 초복 때(7월 15일경)도 심었고, 초복에 심어도 양석(2섬)은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산에 가서 갈잎을 베어다가 논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비료가 없어 산에 나는 어린 나뭇잎 등을 베어다가 논에 넣어 거름하였다. 이것을 갈풀이라고 했는데, 모심기 전 1달 동안은 질마재나 오서산에 다니면서 갈풀을 베어다 논에 넣었다. 매일 오전, 오후 2짐씩 해 날랐는데, 1마지기에 대략 10짐 정도를 넣었다. 황룡리의 느르실 고랑은 찬물 나오는 데가 많아 갈풀을 넣지 못하고 산기슭에 나는 풀인 진풀을 베어다 넣었다. 옛날에는 생풀을 베어다 넣어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논에 병충해는 석유를 뿌리거나 논둑에 불을 놓아 막았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논에 병충해가 생기면, 아주 옛날에는 논에 가서 전을 부쳐 냄새를 피웠다고 하는데, 윤창석(1937) 님은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다. 윤창석 님이 본 것은 논에 뜨물(멸구)이 생겼을 경우 석유병을 솔잎으로 막고 논에 다니면서 뿌리고, 빗자루로 벼를 쓸어, 뜨물을 물에 떨어뜨려 죽였다. 멸공채(끝동매미충)가 생겼을 경우에는 나비가 와서 타 죽으라고 논둑에서 불을 놓았다. 농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약이 나온 뒤에는 분무기를 사용하였다.

농약이 나온 뒤에는 분무기를 사용하였다. 처음 사용한 분무기는 농약을 섞어 넣고 압축한 후 논에 들어가 뿌리는 것이었다. 짊어지는 용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압력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와 다시 압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후 짊어지고 왼손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나왔고, 이어 논둑에서 한 사람이 압축하고 한 사람이 논에서 뿌리는 고압식 분무기가 나왔다. 고압식 분무기는 효율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었으나, 줄이 길고 압축과 분무가 분리되어 있어 최소한 2명이 작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약은 처음에 나온 것이 살충제 '호리돌'이었다. 아주 독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으나 황룡리에서 죽은 사람은 없다.

용머리 마을 벼베기는 약 20일 걸렸다.

용머리 마을에서 벼베기를 마치려면 약 20일 걸렸다. 먼저 심고, 먼저 익은 논부터 시작하여 날을 잡아 베었다. 온 마을 주민들이 베어야 20일 정도 걸렸다. 벤 벼는 논둑에 줄가리를 쳐 말렸다가 집으로 들여와 바슴하였다. 옛날에는 바슴하는 날 논에서 져다가 했고, 호롱기나 탈곡기가 생긴 뒤에는 미리 져다 쌓아 놓았다가 바슴하였다.

바슴한 뒤에는 지붕을 헤일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바슴을 마치면 바로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운 짚으로 덮었다. 이것을 헤인다고 하는데, 많은 짚이 필요하였다. 바슴 때 묶은 짚토매 7개를 엮으면 나래 1촉이 되고, 4칸 전후좌우퇴[1]를 가진 보통 가옥의 경우에 나래 45~50촉이 필요하였다. 지붕을 헤이는데 많은 짚이 필요하여 가난한 집은 집을 얻어다 사용하였다. 윤창석 님은 지붕 헤이는 기술자라 늘 지붕에 올라가 일했다. 지붕에서 기어다니느라 한 해 가을에 바지 2개가 떨어질 정도였다.

용머리 마을에는 마을 기물(器物)들이 있었다.

용머리 마을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물인 원삼 쪽두리, 차일, 병풍, 풍물, 그릇 등이 있었다. 원삼 쪽두리는 마을 주민이 빌려갈 때는 무료였지만, 다른 동네 주민이 빌려갈 때는 세를 냈다. 원삼 쪽두리 같은 것은 지금도 마을 창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일은 원래 삼베로 주민들이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낡은 뒤에는 광목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상가에서는 차일을 2개 사용하였다. 안마당에 치고, 밖에 있는 마당에도 쳤다.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에는 초상을 집에서 치러야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많은 그릇과 상을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마을 살림을 기록한 장부도 두껍게 있었는데 모두 없앴다.

용머리 마을 주민들은 대천장보다 광천장에 많이 다녔다.

1) 부엌, 안방, 웃방, 사랑방이 있으면 4간이고, 전후좌우의 공간이 있으면 전후좌우퇴이다. 용머리 마을의 일반적인 가옥이 4간전후좌우퇴 가옥이었다.

옛날 용머리 주민들은 대천장보다 광천장에 많이 다녔다. 가마니를 쳐서 팔거나 나무를 해서 팔 때도 광천장에 다녔는데, 넙티를 넘고, 청소 성연리 용못을 지나 새재고개를 넘어 다녔다. 홍도원과 독배를 지나 광천장에 갔다. 나무는 독배에서 섬사람에게 팔기도 했지만, 대개 광천장으로 갔다. 광천장이 대천장보다도 물건 값이 쌌었다. 나무는 주로 장작이었다.

벼포기에 모종을 길렀다.

옛날, 비닐이 없던 시절에는 일찍 모종을 키우기 위해 방에서 모종을 키웠다. 대개 벼포기를 캐다 방 안에 놓고, 호박씨나 참외씨, 오이씨 등을 꽂아 싹틔웠다. 싹이 자라면 내다 심었다.

용머리 마을에는 연자방아가 없었다.

용머리 마을에는 연자방아가 없었다. 연자방아는 옥계리 서촌마을에 2개 있었는데, 큰 돌 하나를 아래에 놓고, 위에 둥근 바퀴같은 돌을 소가 돌려 방아를 찧는 방식이다. 연자방아는 남의 방아를 찧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 방아만 찧은 자가용이었으므로, 용머리 마을 주민들은 절구로 방아를 찧거나 물레방아에 방아를 찧었다.

황룡리의 최초 방아찧는 기계는 숯불로 돌렸다.

황룡리에서 현대식 방아를 처음으로 도입해 방아를 찧은 사람은 사거리 신순철 씨였다. 현대식 기계였지만 최초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숯불로 돌리는 기계였다. 소나무나 참나무 숯을 태워, 그 가스를 발동기에 연결하여 시동하는 기계였다. 이후에는 기름을 사용하는 발동기였고, 각 마을을 돌며 마당에 기계를 설치하고 방아를 찧었다. 기계가 무거워 힘 쎈 사람들이 지고 다녔다.

윤창석 님 아버지는 숯을 구워 팔았다.

윤창석 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마을 사람과 동업하여 숯을 구워 팔았다. 숯을 굽기 위해서는 참나무를 사서 벌채하였다. 벌채한 산기슭에 구덩이를 파 숯가마를 만들고, 생나

무를 넣어 숯을 만들었다.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2~3일 땐 후 모든 구멍을 막으면 숯이 되었다. 겨울철에는 숯가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았다고 한다.

만든 숯은 광천장에 팔거나 마을의 방앗간에 팔았다. 당시에는 숯으로 발동기를 돌렸다. 당시 숯을 굽던 사람을 '숯굿쟁이'라고 불렀다.

두더지를 잡아 아이들에게 먹였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쥐는 먹지 않았지만, 두더지는 잡아 먹었다. 특히 두더지는 홍역을 앓은 어린이에게 먹였는데, 폭 삶아 뽀얀 국물을 먹였다. 병을 앓은 뒤에 몸을 보양하는 것을 '후주추리'한다고 하였다.

고양이, 쪽제비, 너구리 등은 고기를 먹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고양이를 즐겨 먹었는데 볶아 먹었다. 맛이 있었다고 한다. 쪽제비 고기도 먹었는데, 쪽제비 고기는 태워 종기의 근을 빼는데 사용하여 한약방에서 사기도 하였다. 너구리 고기도 먹었는데 기름이 많아, 몇 번 삶아 기름을 버리고 요리해서 먹었다. 너구리는 논에 숨었다가 벼를 베면 잡히기도 하였다.

개를 많이 잡아 먹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수시로 개를 잡아 먹었다. 모 심고나면 잡아 먹었고, 백중 때도 잡아 먹었다. 나무에 매달아 잡았다.

윤창석 님 집에서는 성주를 모시지 않았다.

윤창석 님 집에서는 성주를 모시거나 안택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떡을 하면, 장독대, 방, 부엌 같은 곳에 놓아 평안을 빌었다. 방에 놓는 것은 삼신을 위한다고 했는데 많은 아이들을 위해 놓은 것이었다.

황룡리에는 남자와 여자 무속인이 있었다.

황룡리에는 정쟁이라고 불리는 남자 무속인과 선거리라고 불리는 여자 무속인이 있었

다. 모두 집 안에 신당을 꾸며놓고 있었는데, 남자 무속인은 성광교회 근처에 살았고, 근동에 유명하여 다른 마을로 많이 불려다니면서 소위 '큰정'을 읽었다. 여자 무속인도 아랫용머리에 살았는데 다른 마을로 뽑혀 다녔고, 많은 시엉아들과 딸을 두고 관리해 주었다.

황룡리 냇물은 홍수에 취약하였다.

황룡리에 있는 석우천은 오서산에서 발원하여 급하게 흐르는 물이라 홍수에 취약하였다. 더구나 농경지를 만드느라고 하천이 좁아져 홍수가 나면 넘치고, 둑이 터지는 일이 빈번하였다. 특히 석우천의 하류, 신작로 있는 마을에서는 하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기도 하였다. 현재는 하천을 넓히고 둑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여 안전하다.

어혈들은 사람들은 똥물을 먹었다.

황룡리 마을에서는 나무나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람을 '어혈 들었다'라고 하였고, 어혈들은 데는 똥물이 약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윤창석 님도 30여 세 때인 1967년경, 똥물을 먹어 보았다. 밤중에 넘어져 다쳤는데 똥물이 약이라고 하여, 잿간에 있는 변소를 뒤적여 속에 있는 똥물을 먹었다. 부작용 없이 그냥 생활할 수 있었다.

용머리 마을에서는 가마를 메고 온 사람들을 천대하였다.

윤창석(1937)님이 어렸을 때 본 이야기이다. 결혼식 할 때 신부를 가마에 태워 온 것을 보았는데, 속에 짚을 넣은 요강을 넣어 소변을 보게 하였고, 가마를 메고 온 사람들은 방에 들이지 않고 마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돌아갈 때 먹으라고 볏짚의 아래 위를 묶고 그 속에 국수같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짚끄랭이'라고 하였다. 가마 멘 사람들이 천대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집장 만드는 것을 보았다.

윤창석 님은 집장 만드는 것을 보았다. 집장은 메줏가루에 무, 호박 같은 것을 썰어 넣고, 퇴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 삭히는 것이다. 여름철 뜨거운 퇴비장을 파고, 집장 독을 파묻은 후 1주일 후에 꺼내 먹었다. 아주 맛이 있었는데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해 먹었다. 아

무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윤창석 님 댁 장 담그기.

윤창석 님 댁에서는 매년 메주를 쑤어 장을 담가 먹었다. 메주를 가마솥에 쑤어, 네모지게 만들고 물기가 마르면 짚으로 묶어 꿰달아 두었다가, 적당히 말랐을 때 가마니에 짚을 깔면서 쌓아, 방 따뜻한 곳에 넣고 띄운다. 이때 식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 놓는다.

메주가 뜬 뒤에는 다시 짚으로 꿰달아 말렸다가 2월에 장을 담는다. 깨끗이 씻은 메주를 독에 넣고, 천일염을 물에 녹여 가라앉혔다가 붓는다. 이후 4월쯤, 메주를 꺼내고, 장물을 끓여 간장을 만들고, 메주는 고추씨 가루와 섞고, 소금을 넣은 후 다른 독에 넣어 둔다. 이것이 된장이 된다.

윤창석 님은 마을에서 염을 많이 하였다.

황룡리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윤창석 님에게 연락이 왔다. 주민들을 위해 염을 많이 했고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수세를 걷는다고 해서 시신을 반듯하게 묶어 놓았다. 양 엄지손가락과 양 엄지발가락을 묶고, 팔과 다리를 묶어 시신을 바르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후에 망인이 입던 옷을 가지고 밖에 나가, '000씨 복' 세 번 외친 후 옷을 지붕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을 '초혼 부른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사자밥을 해서 사립문 밖에 놓는데, 밥 3그릇을 찬물과 함께 놓고, 망인이 신던 신발을 함께 놓는다. 이때 노잣돈이라고 상위에 돈을 놓기도 한다.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염을 하는데, 먼저 시신의 옷을 벗긴 후, 향나무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힌다. 옷은 맨 안쪽에 중의적삼,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순으로 입힌다. 도포가 있으면 두루마기 위에 도포를 입힌다. 두루마기나 도포는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마포, 겉은 인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이불로 싼다.

양손은 면막으로 가리고, 얼굴은 두건으로 가린다. 얼굴을 가리기 전에 반원한다고 입에 쌀을 넣어 준다. '반원이오' 하면서 쌀을 3번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7매로 묶어 관에 넣는다. 황룡리에서는 관이 방에서 나갈 때, 뜰에 바가지 2개를 엎어놓고, 관을 운반하는 사람이 그걸 밟아 깨고 나갔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시신이 험하면 방고래를 팠다.

옛날 험한 시신이 있었다. 어떤 시신은 하루 만에도 험하게 부패하여 물이 흘러 나오고, 염할 때 살점이 묻어나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번지지 않도록 시신 근처에 흙을 쌓아 놓기도 하였고, 시신이 나간 뒤에는 방을 뜯고 방고래를 파낸 후, 다시 만들었다.

황룡리 용머리 관련 지명.

용둠벙, 공바탕, 은골, 서낭댕이, 시앙굴, 어귀목, 방아보, 생엿집, 중보, 상보, 물방앗간, 중들, 마을회관, 돌모루 냇갈.

윤창석 님 댁 고추장 담기.

윤창석 님 댁에서는 고추장 메주를 따로 쑤어 찹쌀로 고추장을 담았다. 일반 메주처럼 콩을 삶아 찧어 납작하고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에는 구멍을 뚫어 따뜻한 방에 놓아 한 3일 띄운다. 그러면 퉁퉁장 띈 것처럼 느른한 진이 나오고, 이런 상태의 메주를 밖에다 말려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고추장을 만드는 메줏가루가 된다.

이후 찹쌀로 밥을 해서 절반은 고추장 메줏가루와 섞어 놓고, 절반은 감주를 만든다. 감주가 다 될 때에는 고추장 메줏가루를 섞어놓은 밥도 삭게 된다. 그러면 감주를 식혀 붓고, 소금물을 식혀 붓고, 인삼과 대추를 달인 물을 붓고, 인삼을 믹서에 갈아 넣고, 설탕 조금 넣고, 매실즙 조금 넣고, 고춧가루를 섞어 담는다. 이렇게 서너달 지나면 밥풀은 모두 삭고 맛있는 고추장이 된다. 고추장은 가을철에 담는다.

윤창석 님 댁 마늘고추장 담기.

마늘을 까서 삶아 바구니에 받쳐 그 국물에 메줏가루, 고춧가루, 매실즙 등을 넣고 버무려 담는다.

윤창석 님 댁 술 담기.

윤창석 님이 술을 좋아해서 예부터 술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술을 만들기 위해 우선 누

룩을 만들었다. 누룩은 밀기울을 물에 개어 동그랗게 만들어 따뜻한 방에 약 5일간 띄운다. 이것을 말려 빻워 술을 담았다.

술은 쌀을 불려 시루에 쪄 만드는데, 누룩과 쌀의 양이 같도록 하였다. 쌀 1말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 1말이 들어갔다. 여기에 술약(이스트)과 사카린을 조금 넣었고, 칡술을 넣었는데, 칡술은 소주에 칡을 담근 것이었다.

윤창석 님 댁 퉁퉁장 만들기.

퉁퉁장은 청국장을 일컫는 말이다. 황룡리에서는 주로 퉁퉁장이라고 불렀다. 퉁퉁장을 만들려면 메주처럼 콩을 삶아 바구니에 퍼 담아 따뜻한 방에서 띄운다. 이때 바구니 밑에 짚을 깔거나 콩 속에 짚을 넣어 둔다. 한 3일이면 콩이 느른하게 뜨게 되고 이것을 꺼내어 절구통에 찧는다.

찧은 퉁퉁장을 가마솥에 풀어넣고, 거기에 김치, 무 등을 썰어넣고 돼지의 뼈도 넣는다. 퉁퉁장이 미끈미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미지근하게 삭히면 저녁때쯤 미끈미끈한 것이 없어진다. 이때 끓이면 퉁퉁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단지에 퍼 놓고 먹는데, 겨울이라 얼어붙어 변하지 않는다. 가운데 얼지 않은 데부터 퍼서 데워 먹으면 된다.

'시리 붙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윤창석(1937)님의 부인인 유근재(1946)님은 청라면 장현리 장밭이 친정이다. 어렸을 때는 장현리 장밭에서 생활하였다. 어렸을 때 음식을 씹다가 볼 안에 생긴 돌기를 '시리 붙었다'라고 하였다. 어른들이 따주어 치료하였다.

용머리에서는 불이 나면 징을 쳐서 알렸다.

옛날 초가집이었을 때는 봄에 불이 많이 났다.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 징을 쳐 알렸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 불을 껐다.

서촌과 용머리 사이에는 서촌 동산이라고 불리는 좋은 솔밭이 있어 놀이터로 이용되었다.

용머리 마을의 서쪽에는 11000평에 이르는 왕솔나무로 이루어진 넓은 솔밭이 있었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바닥에는 잔디 같은 풀들이 자라 놀기좋은 곳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마니를 치기도 하고, 놀이터로 이용되었다.

서촌사람 이규복 씨가 소유하고 있어 서촌 동산이라고 불렸는데, 온양의 제재업자가 나무를 사 갔고, 땅의 주인도 바뀌어 밭으로 개간하였다가 현재는 논으로 개간하였다.

용머리마을에는 집집마다 잿간변소가 있었다.

용머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잿간변소가 있었다. 옛날에는 온돌방에 나무를 땠고, 겨울에는 많은 재가 모였다. 특히 썩은 새를(이엉이 몇 년 묵어 썩으면 보통 '썩은새'라고 합니다. 집을 처음 만들어서는 걷어내지 않지만, 오래되어 너무 두꺼워지면 걷어 냅니다) 때면 재가 많이 나왔다. 집집마다 재를 저장하는 잿간이 있었다. 잿간의 한쪽에는 돌을 2개 놓아 올라앉아 똥을 누었고, 똥에 재를 묻혀 재와 함께 섞어 두었다. 이때 똥을 옮기는 것을 똥가래라고 하였다.

대개 밖에 있는 변소가 잿간변소였고, 안에 있는 변소는 항아리를 묻어 똥과 오줌을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똥도 재에 뿌려 거름으로 만들었다. 잿간에 재가 많아지면 마당에 쌓고, 나래를 엮어 둘러쳐 비 맞는 것을 막았다. 이것을 잿누리라고 하였다. 봄이 되면 잿누리를 헐어 보리밭에 거름으로 냈고, 못자리 거름으로도 이용하였다.

시멘트가 나온 뒤에는 큰 액비통을 만들어 똥과 오줌을 저장하고 썩혀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담배가 떨어진 노인들은 대마를 피웠고, 아편을 재배하는 사람도 있었다.

삼을 심어 삼베를 짤 때는 대마초가 마약성분이 있는지 몰랐다. 다만, 담배가 떨어진 노인들은 대마잎을 말려 썰어 담배처럼 피웠다. 냄새는 구스름하였으나, 피우는 사람도 환각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피웠다.

용머리 마을에서 아편을 재배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편을 채취하려고 밭에 심었다가 발각되어 처벌까지 받았다.

용머리에는 조마름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땅이 많았다.

용머리에 있는 토지는 윗장밭에 사는 조마름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땅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고, 조마름에게 벼를 가져다 주었다. 조마름이 어떤 지주의 토지를 관리했는지는 모른다.

매상벼는 97근을 담아, 4줄로 묶어 포장하였다.

나라에 벼를 파는 것을 매상한다고 하였고, 가마니를 규격대로 포장하였다. 우선 가마니를 포함해서 97근이 나가야 했다. 벼의 실 중량이 90근이고, 가마니와 새끼줄 무게를 7근으로 따져 97근이었다.

가마니에 90근을 넣고, 주둥이를 말아 새끼줄로 포장하는데, 새끼줄 2가닥으로 세로 3줄, 가로 1줄로 묶었다. 가로로 묶는 것을 얼기라고 하였다.

윤창석 님 20여 세에 오서산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1956년 경 윤창석 님이 20살쯤 되었을 때, 오서산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른 봄이었고, 안개가 낀 날이었다. 그날 밤 9시경, 물 건너에 있는 집 사랑방에 놀러갔었는데, 비행기 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꽝하는 소리가 났다. 내다 보았더니 오서산에 불이 붙어 있었다.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다음, 다음날 친구와 함께 나무하러 갈 겸 오서산 비행기 떨어진 곳에 올라가 보았다. 가서 보니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고, 비행기는 장현리 구막굴에 충돌하여 바닥굴에 기체가 나뒹굴어져 있었다. 시체도 수습하여 놓았는데, 군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에 올라가 낙하산을 주워다가 옷을 해 입기도 하고, 쇳조각을 주워다가 팔거나 엿을 사 먹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군인들이 통제하여 접근할 수도 없었다.

군인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여 모두 실어갔는데, 트럭으로 여러 번 실어 날랐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 생일에 오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다.

용머리에서도 상여가 나가면, 망인이 쓰던 물건을 불태웠다.

용머리마을에서도 초상 때 상여가 나가면 망인이 쓰던 물건을 불태웠다. 옷이나 이부자리 등을 불태웠는데, 상여가 나간 방향의 개울가 등에 태웠다.

바슴하려면 호롱기와 개상을 이용하였고, 나비질을 하였다.

전통시대에 용머리에서는 바슴하는데 호롱기와 개상을 이용하였다. 바슴할 때는 먼저 나무절구통을 뒤집어놓고, 볏단을 새끼줄로 묶어 개상질을 하였다. 작은 집은 절구통 하나, 부잣집은 절구통 2개를 놓았다. 절구통 하나에 2명이 붙어 개상질을 했는데, 개상질만으로 대부분의 볏낱이 떨어졌다. 이어서 호롱기에 털었다. 호롱기는 2사람이 밟아 운영하는 것이나 힘이 들어 한 사람이 힘을 보태 밟았다. 이때 한 사람은 밟기만 하고 볏짚을 잡지는 않았다.

저녁 때가 되면 탈곡한 벼를 날려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죽가래로 2~3사람이 벼를 높이 던지고(죽가래질), 한 사람이 키로 바람을 일으켜(나비질) 선별하였다. 먼지가 많이 나는 일이었고, 풍구가 나온 뒤에는 풍구로 대체되었다. 풍구는 손으로 직접 돌리지 않고 새끼줄로 자루를 묶어 먼 곳에서 돌렸다.

소에는 진드기, 등애, 등퍼리, 쇠퍼리, 모기 등이 붙었다.

과거 소는 풀을 베어다 주고, 풀밭에 매어 길렀다. 자연히 소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 달라붙었는데, 문제 되는 것이 진드기, 등애, 등퍼리 등이었다. 진드기는 풀에서 옮겨붙는 것으로 보통 '진디'라고 불렀다.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큰 것은 아주까리 만씩 했다. 주로 소가 핥을 수 없는 사타구니 등에 많이 붙어 사람이 일일이 떼어 주었다.

등애는 파리보다는 훨씬 크고 매미보다 작은 것으로 소의 피를 빨아 먹었다. 등퍼리는 파리보다 크고 등애보다는 작은 것으로 소에 붙어 빨아 먹었고, 쇠퍼리는 아주 작은, 날파리보다 조금 큰 것으로 소에 붙었는데 작아서 잡지도 못했다. 등애와 등퍼리는 파리채로 잡아 주었다.

여름에는 모기도 많았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소의 등이 모기에 뜯겨 피가 벌건하게 될 때도 있었다. 모기를 쫓기 위해 외양간 앞에 모닥불을 놓고 키로 부쳐 주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보리를 베어내고 다른 작물들을 많이 심었다. 이것을 '글간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보리를 기본으로 심었다. 식량작물로 보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리를 베어내고 여러 작물을 심었다. 이렇게 이어 심는 것을 글간다고 하였다. 참깨를 심으면 글깨라고 하였고, 콩을 심는 것은 그냥 '글간다'고 하였다.

들깨는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었다.

들깨는 망종이 없다고 하였다.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었단 말이다. 말복 때 말 엎어놓은 만큼만 자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들깨라고 했는데, 말복(8월 중순)에 말 높이만큼만 커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늦게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들깨였다.

황룡리 마을에서는 수수, 조, 기장은 조금만 심어 먹었다.

황룡리 마을에서는 수수, 조, 기장은 조금만 심어 먹었다. 농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심기는 심었는데, 수확량이 적어 많이 심지 못했다. 수수는 콩 심을 때 콩과 함께 드물게 뿌려 농사지었다. 콩과 함께 자란 것이다. 조나 기장은 불과 몇 고랑씩 심어 먹었는데 수확량이 적어 많이 심지 않았다.

나뭇짐은 혼자 묶어서 져왔다.

나무하러는 혼자 가는데 지게에 짊어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다. 솔가루는 세매동이로 묶어 짊어졌는데, 먼저 경사진 곳에 지게를 받쳐놓고, 지게에 의지하여 새끼줄 3개를 늘어뜨린 다음, 밑에 전대라고 해서 솔가지를 놓고, 위에 솔가루를 한 전씩 쌓는다. 한 전씩 쌓을 때마다 새끼줄을 묶어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10전이 되면 한 짐이 되는 것이고, 나뭇짐은 새끼줄 3개로 묶이는 것이다.

이후 지게를 나무 묶음에 박고, 뒤에서 일으켜 막대기로 받쳐 놓는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지게의 꼬작을 잡아다니면 지게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세매동이로 묶어지면, 그냥 바작 위에 쌓는 것보다 2배나 많은 나무를 질 수 있었다.

나뭇짐을 쉽게 일으켜 세울 수 있으려면 경사지에서 묶어야 유리하였다.

용머리 마을 주민들은 나무를 해서 소금 만드는 곳에 팔았다.

용머리 마을 주민들은 나무를 해서 대천까지 져다가 소금 만드는 집에 팔았다. 6.25무렵까지 소금은 불을 때서 만들었는데, 대천 구역전 앞, 갈머리 앞, 해수욕장 가는 길 옆 등이 모두 소금을 만들던 곳이었다. 갯벌을 소로 썰어 말려,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얻고, 큰 솥에 끓여 만들었는데, 소금물을 끓이는 연료로 황룡리 용머리 주민들이 나무를 공급한 것이다. 주로 장작을 공급했는데 대천 구역전 앞은 지게로 지고 다니고, 해수욕장 근처는 구루마로 싣고 갔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유 수 근 (1947년생)
보령시 신혹동

신혹동 고잠마을의 주민생활



출생과 성장

유수근 님은 기계유씨로 1947년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신흑동 고잠마을에서 태어났다. 기계유씨들은 경북 포항시 기계면 기계리를 본으로 하고, 비인, 마량 등에 많이 거주하며,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고잠마을에 50가구 정도가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전체 가구의 70~80%가 기계유씨였다. 기계유씨가 고잠마을에 입향한 것은 유수근 님의 9대조이고, 비인 남당리에서 이주하였다. 묘는 어항 넘어가는 데 있는 종중산에 있다.

유수근 님 집안은 매우 번족(繁族)하여 할아버지가 5남 6녀를 두었고, 아버지는 2남2녀를 두었으며, 유수근 님도 2남1녀를 두었다.

유수근 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청룡초등학교(구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아버지를 따라 어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농사는 조금 지었고, 생계는 바다에서 어업으로 해결하였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어업으로 생계를 이었다.

배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정박하였다.

유수근 님이 청년 때까지 고잠마을의 배들은 해수욕장 백사장에 정박하였다. 이곳은 방파제도 없이 바다에 열려있는 곳이라 모든 배들을 뭍으로 올려 놓았다. 배가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면 배 자체를 뭍으로 들어 올려 놓았는데, 네 사람이 목도해서 올렸다. 목도는 돛대와 키를 이용하였다. 목도로 올려 놓을 수 있는 배만 이용할 수 있기에, 고잠마을의 배들은 모두 0.5톤도 안되는 작은 배들이었다. 배는 반드시 네 사람이 있어야 목도할 수 있어, 먼저 들어온 배들은 다른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올렸다. 고잠마을의 배 50여 척이 이렇게 정박하였다.

기계가 들어온 뒤에는 바퀴가 달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 속에서 바퀴 위에 배를 올려놓고 기계로 끌어 올렸다. 이때 경운기 엔진이 많이 이용되었다.

북서풍이 불 때는 현재 공군부대가 있는 아래갓배로 피하였다.

잠마을 앞은 뻘밭이었고, 점차 간척이 이루어졌다.

고잠마을 앞에는 뻘밭이었고, 점차 간척이 이루어졌다. 뒷박산에도 양쪽으로 제방을 만들어 간척하였다. 뒷박산 밖에는 완전히 뻘밭이었고, 갯벌에서 가막조개, 낙지, 맛 등을 잡

았다. 이곳은 해수욕장으로 둘러싸여 파도는 없었으나, 물이 얕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시간이 적어 배를 정박할 수 없었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돛단배로 해수욕장 앞에서 주로 쭈꾸미와 꽃게를 잡았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과거 작은 돛단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았다. 배가 작아 멀리 나가지 못하고 주로 다보도 안쪽에서 고기를 잡았다. 유수근 님이 돛단배를 몰고, 용섬까지 갔다가 부모님에게 혼날 정도였다. 고잠마을 주민들이 잡은 고기는 주로 주꾸미와 꽃게였다.

쭈꾸미는 고둥껍질로 잡았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봄과 가을에 쭈꾸미를 잡았는데, 소라껍질에 구멍 뚫고, 애리줄을 꿰어 굵은 새끼줄에 매달아 바다에 넣었다. 겨울이 되면 애리줄을 만들고 새끼줄을 꼬는 게 일이었다. 애리줄은 볏짚 1가닥 길이로 가느다란 새끼를 꼬아 만들었고, 애리줄을 다는 새끼줄은 기계로 굵게 꼬아 만들었다. 소라껍질 2~3000개를 넣어도 많은 쭈꾸미를 잡을 수 있었다.

꽃게는 자망으로 잡았다.

고잠마을에서는 쭈꾸미를 잡은 이후에 자망으로 꽃게를 잡았다. 옛날에는 그물이 없어 목실을 사다가 집에서 떠서 사용하였다. 이때 실을 물들여 사용했는데, 이것을 '갈들인다'고 하였다. 갈을 너무 진하게 들이면 실이 뻣뻣해서 그물을 뜨기 어려웠고, 너무 약하게 들이면 그물이 약했다. 갈은 사다가 들였다.

자망의 길이는 대략 100m정도 되었고, 이런 그물 20~30개를 가지고 나가 조업하였다. 자망에는 복어나 아구 같은 고기도 함께 잡혔는데, 옛날에는 이런 고기는 모두 버렸다. 그때는 먹는 것인지도 몰랐고, 팔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꽃게는 가을에도 잡았다.

여름에는 소라를 잡았다.

꽃게를 잡은 후, 소라를 잡았다. 여름이 되면, 철근에 그물을 씌워 직사각형으로 만든 소위 소라빵이라고 불리는 기구를 바다에 넣고 끌어 소라를 잡았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잡았는데 많은 소라를 잡을 수 있었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조기를 잡지 않았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조기를 잡지 않았다. 조기를 잡으려면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를 해수욕장 모래톱 위에 올려 놓아야 하니까, 작을 수밖에 없었고, 작은 배는 멀리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기를 잡는 중선어업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외연도, 어청도 등에 나가 조업한 것은 배가 커지고, 동력을 얹은 이후의 일이었다.

동력이 들어오면서 배가 커졌고,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고잠마을의 배들은 0.5톤 미만의 무동선이었다가 점차 동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동엔진 5마력, 7마력짜리를 쓰다가 나중에는 경운기 엔진인 10마력, 12마력짜리도 달았다. 선외기도 달았는데, 선외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모두 선외기를 리어카에 실어 집에다 보관하였다. 출항할 때마다 엔진을 리어카로 운반해야 되었으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고잠마을의 배들도 동력을 이용하면서부터, 외연도 어청도, 12동파 등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

고군산군도까지 나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

고잠마을의 배들이 동력선이 된 후, 먼 바다까지 나갔는데, 특히 남쪽으로 내려가 고군산군도 근해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새벽에 나가 당일로 잡아 오거나, 1박2일로 나가 잡았는데,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자망에 잡히는 민어, 우럭, 강재미 같은 고기는 활어로 가져와 비싼 값에 팔았다. 활어로 가져오려면 중간에 물을 갈아주어야 했다.

웅천천 하구에 있는 황지기에서도 조업했는데, 많은 도다리를 잡았다. 삼중망으로 도다리를 잡았는데 하도 많이 걸려 그물을 올릴 수도 없을 만큼 잡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근해는 전라북도 구역이라 조업이 규제되었다.

당시 활어는 장사꾼들이 서울로 가져갔다.

대천해수욕장에 횟집이 많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활어도 해수욕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모두 장사꾼들이 서울로 올려 유통시켰다. 옛날에는 경매하지 않고, 단골 장사꾼들이 트럭으로 실어 서울로 운반하였다.

유석근 님이 1967년 해수욕장 앞에서 바지락 서식지를 발견하였다.

고잠마을에 살던 유석근님(대략 1926~1927년 생)은 무척 창의적인 분이었다. 손재주도 좋았고, 목수로 배도 지었다. 그는 1967년경, 벼를 훑는 홀태에 그물을 달아 해수욕장 앞 바닷속을 훑어 보았는데, 많은 바지락이 잡혔다. 이들 바지락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원시적인 형태의 바지락이라 크고 엄청난 양이었다. 대천해수욕장을 이룬 백사장이 모두 이 바지락의 껍질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바지락을 파내는 도구를 개량하였고, 이웃 주민들도 덩달아 바지락 조업에 나서 10여 년 동안 잡았다. 해수욕장 앞에서 많은 바지락을 잡는 것을 보고, 웅천 무창포의 석대도 안쪽, 천북면 학성리 앞바다에서도 바지락을 잡았다.

대천해수욕장 앞의 바지락은 이제 없어졌다.

1968년경부터 10여 년 동안 잡아내던 바지락은 이제 없어졌다. 바지락을 잡아 냈어도 바지락의 서식환경이 적당하면 계속 서식할 텐데, 천수만의 AB지구 간척사업, 남포간척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류환경이 변화되어 이제 바지락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해수욕장 앞 여 근처에서 하루 30~40킬로는 잡았는데 이제는 잡을 수 없다.

바지락은 닻으로 배를 고정하고, 망을 넣어 끌어 잡았다. 하루에 수백㎏을 잡았다.

대천해수욕장 앞에서 바지락을 잡은 것은, 유석근 님의 창안으로 배를 고정하고, 망을 끌어 잡았다. 조업할 장소가 정해지면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고, 망을 바다 밑에 내린다. 이후 망의 줄을 풀고, 배를 닻 쪽으로 적당히 이동시킨 후, 마끼를 돌려 감으면 바닷속에 있는 망이 바다 밑을 훑으면서 따라오게 된다. 이때 망에 붙은 철로 된 발이 바다 밑을 파고,

위로 올라온 바지락을 그물에 담는 것이다. 마끼는 망에 연결된 줄을 감는 틀이다. 어떤 곳에서는 바지락만 그물 가득히 나왔다고 한다.

보통 두 사람이 작업하였는데, 하루에 수백kg을 잡았다.

주민들은 조개젓을 담아 팔았고, 군납을 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초, 고잠마을에서는 최고품질의 바지락을 대량으로 잡았다. 배 1척이 수백kg을 매일 잡았으니, 그 양 또한 엄청났다. 이 바지락은 그대로 팔기도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까서 젓을 담아 팔기도 하였고, 어떤 주민은 군납을 하기도 하였다. 젓을 담는 주민들도 당시 돈을 많이 벌었다.

남포간척지를 만들기 전에 한풀장벌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남포간척지 안, 현재 모래를 파내는 곳이 한풀장벌이라고 하는 풀이었다. 풀은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이다. 한풀장벌에서는 꽃게도 많이 잡았고, 썰물 때 후릿그물을 해서도 많은 고기를 잡았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굴을 따기 위해 멀리 여파루를 다녔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겨울에 굴을 따기 위해 멀리 여파루를 다녔다. 가장 가까운 곳은 갓바위였다. 해수욕장 남쪽, 갓바위 근처는 바위로 이루어지고 파도가 세서 굴이 많이 돋았다. 여기 굴이 없어지면, 갓바위와 다보도 사이에 나오는 나분여에서 따고, 이후에는 다보도에서 땄다. 더 멀리는 삽시도와 원산도 사이에 있는 서들기까지, 녹도 쪽에 있는 추녀까지 갔는데, 서들기나 추녀는 해당지역 주민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을 싣고 여파루를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사리 때는 들물이 되면 늘 파도가 일어났고, 사람 무게와 잡은 해산물의 무게가 있어, 돌아올 때가 더 위험하였다.

갓바위에 있는 외국인 별장은 1957년도에 생겼고, 주민들과 소통이 없다.

대천해수욕장의 남쪽, 갓바위에는 외국인들 별장이 들어서 있다. 이들 별장은 1957년도에 들어섰는데, 한국에 있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별장이다. 옛날처럼 목재로 지어졌고, 건물

들이 띄엄띄엄 있다. 정확히 몇 채가 있는지도 모른다. 영어를 잘하는 관리인을 두어 운영하는데,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아, 주민들은 별장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

어렸을 때 흉년이 들어 말밥을 해 먹었다.

유수근 님이 어렸을 때 흉년이 들어 고생하였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보았고, 고구마를 먹으면서 지냈다. 쌀은 특별한 날이나 구경할 수 있었다. 겨울에는 바다에서 말을 뜯어다 밥을 해 먹었는데, 말밥을 먹으면 똥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말은 해수욕장 앞에 있는 여에서 뜯을 수 있었다. 해수욕장 모래밭에서는 삐비를 뽑아 먹기도 하였고, 해당화 열매를 따 먹었다.

성주산으로 먼산나무를 다녔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나무가 없어 멀리 성주산까지 가서 나무를 하였다. 삼현리로 해서 바다를 건너 다녔는데, 너무 먼 거리라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하루에 나무 1짐을 하였다. 나무라야 솔잎이 아니고, 활엽수의 낙엽인 가랑잎이었다.

고잠마을에는 당집도 없었고, 성황당도 없었으나 뱃고사는 지냈다.

고잠마을에는 당집도 없고, 성황당도 없다. 그러나 뱃고사는 지냈다. 유수근 님이 어렸을 때도 당제나 성황제 지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다만 배에서 뱃고사 지내는 것은 보았다. 부모님이 시루에 떡을 쪄다가 배에서 고사를 지내는 정도였다. 돼지머리를 제물로 쓰지도 않았다.

낫치기와 갈퀴치기를 하였고, 공치기는 하지 않았다.

유수근 님이 어렸을 때 나무하러 가면 낫치기와 갈퀴치기를 하였다. 낫치기는 나무를 한 전[2] 해 놓고, 서로 낫을 던져, 날이 땅에 꽂히면 이겨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다. 갈퀴치기도

2) 나무를 갈퀴로 긁어 모아놓은 단위. 10전을 올리면 1짐이 된다.

갈퀴를 돌려 바로 서면 이기는 것이다.

유수근 님에 의하면 고잠마을에서는 낫치기나 갈퀴치기는 했어도, 공치기(방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에 공판이라고 불리는 지명도 없다.

신흑동에는 고잠, 어항, 흑포 상여가 따로 있었다.

신흑동에는 고잠마을, 어항마을, 흑포마을의 상여가 따로 있어 이용되었다. 서로 대동계를 달리했기 때문에 상여가 따로 있는 것으로 각각 다른 마을이었다. 고잠마을의 상여는 산 밑에 있는 개발지에 있었는데,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없어졌다.

신흥교회에서는 상여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묘지도 2곳에 마련하였다.

유수근 님이 다니는 신흥교회에서는 마을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장강틀은 교회에서 장만해 두었고, 초상날 때마다 꽃을 500~600개 만들어 상여를 꾸몄다. 나무로 틀을 짠 후, 헝겁으로 감고, 철사줄을 둘러 꽃을 매달았는데, 붉은 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장식하였다.

교회에서 공동묘지도 마련하였는데, 애육원 앞과 남포에 있다. 교인들이 묻히는 장소이다.

유수근 님은 교회에서 염을 많이 하였다. 교인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수세를 걷고 예배를 드린 후 나중에 염을 하였다. 염은 마을에서와 똑같이 하였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여름에 방을 빌려주고, 밖에서 생활하였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여름에 방을 빌려주어 돈을 벌었다. 평소에 생활하던 방을 모두 외지에서 온 해수욕객들에게 민박으로 빌려주고, 식구들은 부엌이나 밖에서 잤다. 그리고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주면 좋아하였고, 이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수십 년 동안 단골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큰닥금에서 수류탄이 터져 어린이 8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73년 5월 27일(일) 큰닥금 바위너덜에서 어린이들이 수류탄을 발견하여 가지고 놀다

가 폭발하여 8명이 죽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아이는 현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일요일 날 아침 어린이들이 낚시질을 갔다가 변을 당한 일이다.

보령경찰서에서 당시 사건을 맡아 수사한 이길창 님에 의하면, 수류탄은 우리 군부대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군 초소에서 기관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였는데, 바다까지 줄을 매고 수류탄을 매달아 사격하여, 맞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였다. 이때 매달은 수류탄이 부대 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류탄이 폭발한 곳에서 연필심 같이 생긴 것을 수거하여 해망산 미군부대의 폭발물 처리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국군이 사용하는 수류탄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군부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였다고 한다. (이길창 님과 전화한 내용을 면담자가 정리)

볼때기 안에 나오는 것을 '시리 붙는다'고 하였다.

고잠마을에 살던 어른들은, 볼때기 안에 음식을 씹다가 씹어 생긴, 혹같이 나온 것을 시리붙는다고 하였다.

마을을 고잠이라고 불렀다.

보령지방에는 고잠과 비슷한 지명이 청소면 신송리에 고잔, 남포면 삼현리에 조잠이 있다. 고잠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고잠이라고 불렀다.

다보도에는 해산물이 많지 않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다보도에 여파루는 다녔다. 그러나 다보도에는 대천해수욕장 근처의 바위너덜보다도 해산물이 많지 않았다. 갯뻘이 없고, 뒤쪽으로는 큰 바위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동쪽과 북쪽에서 해산물을 잡았는데, 굴과 세모를 채취하고 해삼 등을 잡았다.

갓배 남쪽에 있는 독살은 삼현리 사람들이 운영하였고, 갯고랑은 매우 위험하였다.

갓배 남쪽, 삼현리로 들어가는 갯고랑 근처에는 몇 개의 독살이 있었는데 모두 삼현리 사람들이 운영하였다. 부근에서는 굴도 따고 조개도 잡았으나 매우 위험하였다. 갯고랑을 건너가서 해산물을 잡다가 물이 들어오면 바로 건너와야지 조금만 늦으면 바닷물에 휩쓸

려 죽게된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대천해수욕장에 횟집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신광장을 개발하면서부터이다.

대천해수욕장에 횟집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신광장을 개발하면서부터이다. 신광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가까웠고, 바다도 더 깨끗했으며, 새로 구획정리가 이루어져 대형 신축건물이 들어섰는데, 대부분 횟집을 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고잠마을 주민들이 활어를 잡아오더라도 장사꾼을 통해 서울로 반출되었다.

바다에서는 풀이 위험하기도 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하였다.

바다에서 파도가 세서 위험한 곳은 풀이었다. 어청도와 외연도 사이에도 위험한 풀이 2곳 있었고, 관쟁이와 질맘 근처에도 풀이 있어 위험하였다. 반면 풀에는 각종 어류, 특히 도다리가 서식하여 어장이 되었다. 다보도 안쪽에도 도랑풀이라고 있었다.

대천해수욕장은 미군들이 주둔하여, PX에서 나온 물품들이 거래되었다.

대천해수욕장 근처에는 미군들이 주둔하였었다. 아랫갓바위, 현재 공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곳에도 미군부대가 있었고, 해망산 군마루에도 미군부대가 있었다. 해망산에 있던 부대가 더 큰 부대였다. 미군부대에서는 PX를 통하여 술과 담배 등 외국 물건들이 들어왔고, 그 거래의 중심지가 대천해수욕장이었다. 해수욕장과 해망산에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소위 양공주들도 많았다.

유수근 님은 월남에 파병되어 백구부대에서 근무하였다.

유수근 님은 해군에 자원 입대하였고, 월남에 파병되었다. 월남에서는 백구부대에 배속되어 전투물자, 전쟁포로, 식량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이공을 모항으로 하여 푸켓, 다낭, 캄란만 등지에 다녔다. 캄란만에는 무기를 싣고 헬기의 호위를 받아 가며 다녔고, 저녁에는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나와 정박하였다.

아래갓바위 부대에서 쏘는 미사일 껍질을 주워 파는 사람도 있었다.

아래갓바위에는 미군이 주둔했었으나 현재는 미사일을 쏘는 부대가 있다. 부대에서는 가끔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하는데, 이때 미사일의 껍질과 낙하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미사일의 껍질은 양은이라 비싸게 팔 수 있어, 껍질을 주워 파는 사람도 있었다. 낙하산으로는 돛을 만들기도 하였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주벅도, 김발도, 살도 매지 못했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주벅도 설치하지 않았고, 김살도 매지 않았으며, 고기잡는 살도 매지 않았다. 대천해수욕장이 바다로 돌출한 지형이라 파도가 세기 때문이다. 특히 마파람(남풍)이 불면 파도가 셌다.

유홍근 씨가 서부수협을 만들었다.

고잠마을의 어민들은 예부터 어촌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어촌계가 발전하여 서부수협이 되었는데, 유홍근 씨가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고잠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만든 서부수협은 보령수협에 흡수되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고잠마을 어민들은 멀리 항해할 때는 나침반을 이용하였고, 그물을 넣을 때는 산가늠으로 하였다.

고잠마을 주민들은 외연도나 고군산군도처럼 먼 거리를 갈 때는 나침반을 이용하였고, 현장에 가서 그물을 넣을 때는 산가늠으로 하였다. 산가늠은 어떤 섬과 섬, 어떤 산과 산이 겹쳐지는 모양을 외워 두었다가 꼭 그 모양이 되는 지점에 그물을 넣는 것이다. 같은 모양이면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 오랜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신흥교회, 해망산교회, 삼현교회를 삼각교회라고 하였다.

신흑동 고잠마을의 신흥교회는 해수욕장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분리된 장로교회이다. 같은 장로교회이고 이웃한 해망산교회와 삼현교회와는 친분이 있어 삼각교회라고 하였다. 각 교회에서 초상이 나면, 교회당 쌀 1말을 가지고 가서 서로 일을 치러주었다.

대천해수욕장 근처의 지명

- 큰닭금 : 대천해수욕장과 대천어항 사이에 있는 바위너덜. 위에 군 초소가 있다. 1973년 5월 27일 8명의 청파초등학교 어린이가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 폭사한 곳이다.
- 마당여 : 큰닭금 아래에 물이 많이 나가면 나오는 여. 검은여의 북쪽이다.
- 갓검은여 : 마당여 남쪽, 해안에 있는 여. 썰물에 건너갈 수 있다.
- 속검은여 : 검은여와 갓검은여 사이에 있는 여.
- 검은여 : 속검은여 밖에 있는 여.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물이 많이 빠지는 왜사리 때 물장화를 신고 잠깐 건너갈 수 있다.
- 나분여 : 해수욕장 중앙의 서쪽에 있는 여. 거문여의 남쪽이다. 인공섬을 만든다는 곳이다.
- 조근여 : 갓바위 서쪽에 있는 많은 바위가 나오는 여. 나분여의 남서쪽이다.
- 유두머니 : 갓배 앞에 있는 바위. 돌너덜 끝에 있다.
- 너른골 : 조근여 북쪽에 있는 바위너덜. 조근여과 붙어 있다.
- 소녀 : 큰닭금 서쪽에 있는 여. 위험하여 등대를 세웠다.
- 달푸미시 : 분수광장 있는 곳.
- 석서골 :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 뒤 마을.
- 군드리 : 고잠 주민들은 어항 고개 너머를 군드리라고 하였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전 윤 수 (1939년생)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 마을 주민생활과 보령경찰의 역사



출생과 성장

전윤수 님은 담양전씨로 1939년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에서 태어났다. 담양전씨가 보령에 자리잡게 된 것은 전윤수 님의 19대조 할아버지가 보령현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보령 신흑동 흑포를 중심으로 담양전씨가 번창하였고, 이후 홍성 구항에서도 번창하였다.

제석리 지석굴에는 할아버지 형제들부터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3형제, 아버지는

가정은 비교적 윤택하였으나, 대천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된 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다. 제대한 후, 25세에 삽시도에 살던 김부영(1941)님과 결혼하여 2남 2녀를 낳았다.

1964년에는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여 정년 때까지 34년간 경찰관으로 주로 보령에서 근무하였다.

큰할아버지는 동학농민혁명 때 접주였다.

전윤수 님의 할아버지 형제는 세 분인데, 제일 큰 할아버지인 전치관 님은 동학농민혁명 때 접주였다고 한다.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는 없고, 전윤수 님의 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라고 한다. 후손이 없었고 호적에 올라있지도 않으며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다.

접주였던 전치관 님은 부인이 셋이었는데, 제일 큰 부인의 묘는 오얏굴재빼기 장승있던 곳에 있고, 한 분은 전치관 님과 쌍분으로 함께 있고, 또 한 분은 요깟너머라는 곳에 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는 서낭댕이를 넘어 걸어다녔다.

전윤수 님은 청룡초등학교(구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천중학교와 대천고등학교를 다녔다. 대천으로 통하는 길은, 제석리 지석굴에서 서낭댕이를 넘어, 소암으로 해서, 현재 해수욕장으로 통하는 도로로 다녔다. 먼 거리였고, 포장되지 않은 길이라 늘 운동화를 빨아 신는 것이 일이었다.

서낭댕이에 돌을 던져놓고 다녔다.

지석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대천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낭댕이를 지나야 했다. 낮은 고개인데, 길이 만들어지고 점차 낮아져 골이 파여 있었고, 돌무더기 옆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다. 서낭댕이를 지나는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 던져놓고 다녔고, 전윤수님도 돌을 던져놓고 다녔다. 서낭댕이에 있는 소나무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신성한 나무였다.

서낭댕이는 당제처럼 마을에서 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위했다.

전윤수 님은 고등학교 졸업 때 찍은 사진 때문에 결혼하였다.

전윤수 님이 고등학교를 다닌 1950년대 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돌리는 유행이 있었다. 전윤수 님도 사진을 찍어 돌리고, 사촌형수를 주었는데, 형수는 사진을 삽시도 집의 사진 액자에 끼워 넣었다. 이 사진을 본 옆집 처녀가 마음에 들어했고, 사촌형수의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군대에서는 포경수술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1960년대 초, 군대에서는 포경수술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당시 의무대에서 의무병들이 시술하였고, 약간의 군 보급품으로 사례하였다.

1950년대 말, 학생들도 상장(喪章)을 달고 다녔다.

전윤수 님은 대천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44세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왼쪽 가슴에 삼베로 된 작은 리본을 달고 다녔다. 이 모습을 학교에서 본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었다.

전윤수 님의 아버지는 갈통을 파 소금을 만들었다.

전윤수 님(1939)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이다. 전윤수님의 아버지는 제석리 앞바다에 갈통을 2개 만들고, 염수를 만들어 소금을 구웠다. 갈통은 1.5m 깊이로 대접처럼 땅을 판 후 만들었다. 갈통을 중심으로 약 15m 파냈고, 면적은 60~70평 쯤 되었다.

파낸 흙을 조금때 써래로 썰어가면서 널어 말려 갈통에 쌓고, 사리때 바닷물이 들어오면, 마른 흙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들어가 염도가 높아진 염수가 갈통 안에 고이게 하는 것

이다. 좀 두두룩하게 쌓아야 바닷물이 스며든 후, 평평하게 된다.

이때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갈통으로 모이도록 바닥에 뻘흙을 발랐고, 갈통 주변으로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래로 둘러쳤으며, 위에는 바닷물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전윤수 님은 아버지와 함께 가래로 갈통 주변의 흙을 퍼내는 일을 하였고, 아버지는 소를 이용하여, 나래로 흙을 펴고, 써래로 써는 일, 보송보송하게 마른 흙을 나래로 운반해서 갈통에 쌓는 일을 하였다. 흙덩이를 깨치는 써래는 논에서 사용하는 써래보다 발이 짧은 것이었다.

사리가 지나면 갈통을 개봉하고, 염도를 재어 보았다. 염도가 높아야 나무를 적게 때고도 많은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송진 뭉친 것을 담가 보았는데, 위로 뜰수록 염도가 높았다. 이것을 그냥 뽀메라고 하였다.

전윤수님 집에는 염수를 끓이는 벗은 없었다. 그래서 남의 벗을 빌려 사용하였다. 남들이 소금을 구울 때, 벗 옆에 있는 통에, 오줌통에 담아 염수를 운반해 두었다가 차례가 되면 소금을 만들어 팔았다. 벗 주인에게는 세를 주었다. 당시 소금값이 좋아 소금 판 돈으로 논을 살 수가 있었다.

제석리 지석굴 앞에는 수많은 갈통과 벗이 있었다. 막걸리집도 있었다.

제석리 지석굴 앞에는 수많은 갈통과 벗이 있어, 제석리, 삼현리, 소송리 주민들이 소금을 구웠는데, 제석리 사람들이 많이 구웠다. 부잣집에서는 벗을 설치하여 소금을 구웠고, 세를 받고 빌려주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했기 때문에 술집도 몇 집 있었고, 접대부도 있었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약 3일 동안 불을 때야 했다. 불은 밤낮없이 때야 되었기에 벗 주변에서 잠을 자가면서 일했다. 이때 술집 접대부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방 후, 소금이 전매품이었다.

해방 후, 소금값이 비싸기도 하였고, 전매품이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 때 단속이 나오면 여자들이 치마로 가리기도 하였다. 제석리의 경우에는 크게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자

유롭지는 않았다.

뒷굴마을 도로변에는 나무시장이 섰었고, 김용환 의원 아버지도 우마차로 나무를 실어다 팔았다.

제석리 마을 앞에서 대량으로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 만들던 벗과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 가는 도로변에 나무시장이 섰었다. 성주산 등에서 벌채한 나무를 우마차로 실어다 팔았는데, 나무장사하던 사람 중에는 재무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환 씨의 아버지인 김동규 씨도 있었다. 김동규 씨는 남포면 양기리 양지편에 살면서, 우마차에 성주산에서 벌채한 나무를 실어다 팔았다.

나무시장이 섰던 뒷굴은 요암동 뒷굴이다. 뒷굴마을은 남포면 제석리와 요암동에 걸쳐 있는데, 요암동에 속한 부분은 보통 보령뒷굴, 제석리에 속한 부분은 보통 남포뒷굴이라고 부른다.

전염병이 돌아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아이들 시신을 묻은 곳을 개장굴이라고 불렀다.

제석리에는 전염병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특히 전윤수 님이 어렸을 때인 해방 직후 천연두가 들어와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아이들이 죽으면 단지에 넣어 묻거나, 묻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기도 하였고, 얕게 파고 묻은 후, 여우가 파지 못하도록 바작을 덮어 놓고 돌로 눌러 놓기도 하였다. 이때 바작 위에는 아이가 사용하던 밥그릇 같은 것을 올려 놓았다.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묻은 곳을 개장굴이라고 불렀다. 애장굴이라고 부르기 뭣하여 개장굴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한다.

전윤수 님 댁에서는 개장굴 밭에 참외를 심어 팔았다.

전윤수 님 댁에는 개장굴에 380평짜리 밭이 있었다. 이 밭에 참외를 심었는데, 보리밭 사이에 참외를 심고, 참외 잎이 몇 개 나오면 보리를 베었다. 이후 참외 넝쿨이 벋어 참외밭이 되는 것이다. 당시 참외 품종은 개구리참외, 밀참외, 김막가라고 불리는 참외였다. 개구리참외는 연하고 속이 붉은 참외였고, 밀참외는 겉과 속이 모두 녹색인 참외였으며, 김막가는 노랗고 작으면서 많이 열리는 참외였다. 당시는 넝쿨이 너무 많이 벋으면 나뭇가지

로 쳐 주는 정도였다.

당시 참외 서리를 많이들 했기 때문에, 막을 짓고 동생과 함께 지켰다. 수확한 참외는 대천장이나 해수욕장 등에 팔았는데 잘 팔리지는 않았다.

전윤수 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논에 물을 댔다.

전윤수 님 댁의 논은 공동묘지 끝에 있었다. 가뭄이 심하여 물을 대는데, 멀리 1km쯤 떨어진 대실 수렁논에 물이 좀 있었다.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 논과 논을 가로질러 물고를 열어 물을 댔다. 낮에는 각 논에서 물고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자가면서 물을 댔다. 4마지기에 물을 대는데 이렇게 1주일간을 댔다. 무서운 공동묘지에서 잠을 잤다고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지석굴에서는 당제를 아주 재미있게 지냈다.

지석굴 마을에서는 예부터 당제를 재미있게 지냈다. 마을 뒷산에 돌로 쌓고 지붕을 이은 당집이 있었고, 안에 마을 당기를 보관하였다. 당기는 독살에 떠내려 온 것을 마을 사람인 김학진 씨 아버지가 주워왔다는 것인데, 정월 초이튿날 내렸다. 당기를 내리기 전에 마을 회의에서 당주를 정한다. 당기는 당줏집 앞에 꿩털을 꽂아 세워놓고, 당주는 열나흗날 당에 올라갈 때까지 아침마다 당집 아래에 있는 당샘에 가서 목욕하였다.

당제 날인, 정월 열나흗날이면 마을 주민들이 제물을 이고 지고 올라가 당제를 지내는데, 주관하는 사람은 용신엄마라고, 제석리에 살다 용머리로 이사간 무당이었다. 무당의 주관하에 밤새워 뚜드리고 제를 올렸다. 옛날에는 돼지를 잡아 제를 지냈다.

지석굴에는 장승이 있었다.

지석굴에는 장승이 두 곳에 있었다. 하나는 오얏굴재라고, 동쪽에서 지석굴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다. 현재 경순왕 경모전 입구라고 씌여진 비석 있는 곳이다. 또 하나는 뒷굴 마을로 넘어가는 곳에 세웠다. 말하자면 동쪽과 서쪽에서 지석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세운 것이다. 북쪽으로 통하는 서낭댕이에는 장승이 없었다.

보령뒷굴에는 문둥병 환자가 2명 있었다.

보령뒷굴 즉, 요암동 뒷굴에는 옛날 문둥병 환자가 2명 있었다. 발병이 된 뒤에 모두 마을을 떠났다. 한 분은 결혼도 했는데 이혼하고 떠났다.

지석굴 마을에는 6.25전까지 두레가 있었다.

전윤수 님 어렸을 때 기억으로 6.25전에 두레가 있었다. 당기가 내려오지는 않았고 주민 20여명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논을 맸다.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풍물은 누가 잘 쳤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4학년 때 6.25가 일어났고, 인민군 본부는 남포터널에 있었다.

전윤수 님 국민학교 4학년 때 6.25가 일어났다. 잠깐 동안 인민군 치하를 경험하였는데, 청년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연극을 하여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세금을 메기기 위해 곡식의 낱알을 세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인민군의 본부는 남포터널에 있었다. 폭격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곳이 터널이었기 때문에 인민군 본부가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후, 대천해수욕장으로 탱크부대가 상륙하였다.

9.28수복 후, 미군의 탱크부대가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상륙하였다. 어느날 백사장 앞바다에 미군 LSD를 대 놓고 탱크를 백사장에 상륙시켰다. 탱크가 내려올 때마다 아나방을 깔고 내려왔는데, 탱크가 굴러가면서 아나방이 휘어져 못 쓰게 되었다. 탱크 10여대가 내리는데 그때마다 아나방을 새로 깔고, 나중에 버려 주민들이 주워다 사용하였다.

상륙한 탱크부대는 잠시 해수욕장에 머물렀고, 일본인들의 별장을 부수어 불을 놓기도 하였고, 아이들에게 껌을 나누어주기도 하였으며, 부녀자들을 쫓아다니기도 하였다. 이때 부녀자들은 도망하고 숨었다.

상륙한 탱크부대는 대천시내로 들어와 어디로 이동하였다. 인민군과의 충돌은 없었다. 당시 인민군은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다.

6.25 때 대천 철교를 폭파하려다가 시장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6.25 때 비행기가 대천 철교를 폭파하려고 폭탄을 투하하다가 옆에 있는 상설시장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대천역에 쌓여있던 시멘트로 경찰서 망루를 만들었다.

6.25 당시 보령경찰서 직원들은 군산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해병대의 명령으로 보령으로 다시 올라오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종천에서 지체하였고, 철도경찰대가 앞서 오다가 주산에서 인민군의 매복에 걸려 상당한 피해를 당하였다.

주산 전투를 피한 보령경찰은 황등전투에 투입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9.28수복 후에 보령으로 귀환하였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최건석 순경(후에 보령경찰서장이 됨) 등 경찰들은 철다리가 끊겨 내려가지 못하고 대천역에 쌓여있는 많은 시멘트를 보고, 경찰서에 총을 쏠 수 있는 망루를 쌓기로 하고, 성주산에서 부역으로 돌을 가져다가 쌓았다. 시멘트는 대천역에서 가져다 사용하였다. 당시 경찰들은 황등에서 총 한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나이 어린 인민군에게 참패한 설움에, 인민군이 다시 들어오면 제대로 총을 쏘아 방어해 보자고 층층이 총안이 있는 망루를 만든 것이다. 망루의 두께는 1.5m로 튼튼하게 만들었다. 지붕은 처음에는 나래를 엮어 만들었고, 후에 함석으로 고쳤다가 장석조 서장 당시 기와로 바꾸었다.

6.25 이후 흉년이 들어 고생하였다.

6.25 이후 흉년이 들어 고생하였다. 봄에 먹을 것이 없어 독사풀 씨를 훑어다가 볶아 먹을 정도였다. 당시 6학년 때인데, 담임이었던 신동헌 선생님이 남포면 삼현리에 흉년이 들었다는 기사를 읽어주기도 하였다. 그해 여름에는 고구마를 심었고, 가을에 수확하여 고구마로 배고픔을 달랬다. 고구마를 심은 뒤에는 견딜 수 있었다. 고구마는 방에 수숫대를 엮어 통가리를 만들어 저장했고 겨우내 먹었다. 제석리 지석굴에서 흉년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

지석굴 주민들은 집집마다 그랭이를 가지고 조개를 잡았다.

제석리 지석굴 마을은 해안에 있어 늘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집집마다 그랭이

를 가지고 모래밭을 끌어 백합(참조개)이나 작은 꽃게를 잡았고, 갈대밭에서는 딱딱한 깔데기라는 게, 갯벌에서는 능쟁이 등을 잡아 젓 담아 먹었다. 바지락도 잡고 굴도 땄는데 굴은 밤섬 밑에 많았다. 배를 타고 여파루[3]를 다니기도 하였다.

기우제는 마을의 샘에서 지냈다.

지석굴 마을에서도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는 가운데샘에서 지냈다. 지석굴 마을에는 위샘과 가운데샘이 있는데 가운데샘에서 지낸 것이다. 부인들이 키를 가지고 모여 물을 까불렀다. 전윤수 님이 몇 번 보았다.

아이들은 말뚝치기, 낫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놀이를 하였다.

말뚝치기는 나무로 만든 말뚝을 꽂아놓고, 옆을 쳐서 친 사람 것은 박히고, 상대편 것을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상대편 것이 넘어지면 먹는 것이다. 낫치기는 나무를 한 전 해 놓거나, 풀을 한 전 베어 놓고 낫을 던져, 바로 땅에 꽂히면 이기고, 상대편 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전윤수 님 세대에서 공치기(방치기)는 하지 않았다.

1933년생 누나들이 꼬댁각시놀이 하는 것을 보았다.

전윤수 님의 누나(1933) 친구들이 모여 꼬댁각시놀이 하는 것을 보았다. 꼬댁각시놀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18살에 어쩌구 노래를 하면, 한 사람이 최면에 걸리고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어렸을 때 본 놀이이다.

개구리 뒷다리를 삶아 먹이는 것을 보았다.

전윤수 님보다 2살이 적은 어린이가 마을에 있었는데, 어린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아이가 음식을 얻어먹지 못해 쇠약해져 있을 때, 아이의 누나가 개구리를 잡아

3) 배를 타고 무인도나 암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뒷다리를 삶아 먹이는 것을 보았다. 지석굴에서는 쥐나 두더지는 먹지 않았지만 개구리는 아이들에게 먹였다.

1939년 겨울 지석굴 마을에 장티부스가 들어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939년, 전윤수 님이 태어난 직후, 전윤수 님의 큰아버지가 장티부스에 걸려 11월 18일(음) 돌아가시고, 이어 큰어머니가 병에 걸려 다음해 1월 17일(음)에 돌아가셨다. 부부가 2달 사이로 사망한 것이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전윤수 님의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지도 못하고 병간호를 하다가 해소병에 걸려 고생하였다. 당시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알지는 못한다.

해방 무렵 지석굴에 천연두가 들어와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다.

전윤수 님이 5~6세 때 해방 무렵이었다. 지석굴 마을에 천연두가 들어와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다. 이웃에 살던 2살 아래 어린이도 천연두에 걸렸는데, 얼굴이 곰보된 채 간신히 살아 남았다. 이때 죽은 어린이들을 묻어 개장굴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지석굴 마을의 동쪽과 서쪽 입구에 장승을 세웠었는데, 그때 장승을 세운 것으로 믿고 있다.

여늬재 경찰묘지는 웅천자위대원이 포로로 잡힌 철도경찰을 살해해서 만들어졌다.

6.25 당시 후퇴하던 철도경찰대와 보령경찰이, 해군의 명령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앞서가던 철도경찰대가 주산에서 인민군의 매복에 걸려 6명이 죽고 10명이 포로로 잡혔다. 포로로 잡힌 철도경찰들은 웅천의 자위대원들이 감금하였고, 상부로 이송한다고 여늬재로 데려와 살해하였다. 이때 살해에 가담하고, 웅천에 산 사람이 백○○, 김○○였다.

구자동 서장 당시 이축호 경무과장이 경찰묘역을 성역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의 묘를 파보았더니, 시신이 모두 삐삐선으로 묶여 있었고, 군화나 운동화를 신은 채 묻혀 있었다.

6.25 당시 보령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황등전투에 참여한 최건석 경찰서장이 부임하여 동료들의 묘역을 정성으로 관리하였다.

여늬재에서 철도경찰을 살해한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관리 대상자가 되었다.

여늬재에서 철도경찰을 살해한 사람들은, 수복후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관리되었다. 현재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여늬재에서 철도경찰을 살해한 것은 보도연맹 학살에 대한 보복이었다.

보도연맹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우익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나자 경찰이 후퇴하면서 학살하였다. 이들이 인민군에게 협조할 것을 염려하여 학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민군 치하가 되자 자위대가 경찰에게 보복하기 위해 포로로 잡힌 철도경찰을 여늬재에서 살해한 것이었다.

전윤수 님은 1964년도에 경찰관 시험에 합격한 뒤, 빠르게 승진하였다.

전윤수 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보통고시 시험준비를 하였고, 군대를 제대한 후인 1964년, 군대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의 권유로 경찰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부평에 있는 경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당진군 고대지서, 당진경찰서 정보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후에는 충남도경 감식계로 옮겨 지문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1968년도에 시험을 보아 경사로 진급하였다. 1971년에는 경위로 진급하였다. 경사는 3년 8개월, 경위는 3년 6개월 만에 진급한 것이다.

전윤수 님은 보령 관내의 지서장을 역임하였고,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경위로 승진한 전윤수 님은 웅천, 청소, 오천 등지의 지서장을 역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경감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에는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고생한 부인을 배려하며 생활하여 승진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정년을 맞이하였다.

지석굴에서는 상여가 나간 뒤 망인이 쓰던 물건을 상여가 나간 길목에 태웠다.

제석리 지석굴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어 상여가 나간 뒤에는 망인이 쓰던 물건을 가져다가 상여 나간 길거리에 태웠다. 이부자리, 옷, 밥그릇 등 사용하던 물건은 개울가나 길가에서 태웠다.

보령지방에는 150여 개의 탄광이 있었고, 사장들은 지청장이나 경찰서장을 상대로 활동하였다.

탄광이 활발하던 시절, 보령에는 150여 개의 탄광이 있었다. 이중 30여 개는 굴진하는 탄광이었고, 120여 개는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이었다. 이들 탄광의 업주들은 지청장이나 경찰서장을 상대로 활동하였는데, 생산량이 월 3000톤 이상인 사람은 지청장, 3000톤 미만을 생산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을 상대로 활동하였다.

보령의 광산 사장들은 각종 성금을 책임지고 모았다.

보령에서 광산 사장으로 유명한 신홍식 씨나 이낙규 씨 등은 각종 성금을 책임지고 모았다. 보령시에서 도민체전을 나가려고 해도 많은 성금이 필요했는데, 일반인들은 많이 내지 않았다. 이런 때 필요한 액수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광산 사장들이 전담하는 방식이었다. 체육성금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모든 성금을 광산업자들이 앞장서 냈다.

한 번은 체육성금을 걷는데, 박종무 씨가 앞장서서 업자들에게 할당하여 3600만원을 걷은 적도 있었다.

광산 근로자들이 데모를 크게 한 것은 사북사태 때이다.

보령 관내의 광산근로자들이 데모를 크게 한 것은 강원도에서 사북사태가 일어났을 때였다. 이때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데모를 했는데, 7일 동안 진행되었다. 당시 부여로 통하던 도로를 도풍탄광의 근로자들이 점거해서 막았고, 경찰서도 점거하려고 하였다. 당시 성주에서 화약을 가지고 와서 터트린다는 정보가 있어,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하기도 하였다.

보령화력에서는 오포리 침수사건, 먼지 피해 등으로 데모가 있었다.

보령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데모 사건은 오포리 앞들의 침수와 먼지 피해 때문에 일어났다. 오포리 침수사건은 비가 많이 와서 오포리 들이 침수된 사건이었다. 주민들은 보령화력의 북부회처리장 북쪽에 있는 배수로가 좁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보령화력에서 데모하였다. 그러나 전윤수 님이 출동해서 보니, 배수로가 좁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졌던 간척지의 수문이 좁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김학현 군수님을

통해 수문을 넓혀 해결하였다.

먼지 피해 사건은 발전소 굴뚝에서 나온 미세한 먼지가 멀리 날아가 농작물의 잎에 내려앉아 탄소동화작용을 못하게 해서 농민들이 항의한 사건이었다. 많은 농민들이 보령화력 정문 앞에서 데모를 했고, 보령화력의 청경들에 의해 주민이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후에 보령군수의 중재로 보령화력 사장과 주민대표들이 대화로 해결하였다.

송도 주민의 어업권 보상에 따른 분쟁이 있었다.

보령화력의 북부 회처리장이 포화되는 것을 예상하여, 송도 앞바다를 매립하기로 하고, 보령화력에서 보상을 하였다. 이때 송도의 주민들은 북부 회처리장이 포화될 때까지 송도의 포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고, 보령화력에서는 배가 출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다. 그런데 외지에서 폐선을 가져다가 송도 포구에 정박해 놓고,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이 사건으로 몇 명은 구속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보령댐 수몰민들은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데모를 하였다.

보령댐 수몰민들은 감정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데모를 하였다. 보령댐 주민들은 조상들의 묘지를 옮기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매우 격앙되어 있었다. 그래서 감정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데모를 하였다.

전윤수 님은 주민들을 설득하여, 국가사업이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평가를 잘 받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였고, 주민들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데모하도록 일러주고, 데모할 때도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하였다. 또 전교조 등 외부세력이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결국 당시 보령댐 사업소장이었던 공병선 씨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데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다.

부역자명부와 요시찰인 카드를 모두 없앴다.

보령경찰서와 각 지서에는 6.25 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한 사람 명부인, 부역자명부

와 요시찰인 카드가 있었다. 부역자명부는 지서당 약 100명 정도, 요시칼인 카드는 10명 정도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신원조회가 오면 회신하였다. 이것을 안 당사자들은 지서장을 회유하여 명단에서 없애주도록 요청하고, 돈을 주거나 술을 사 주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먹물로 지워진 것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부역자명부와 요시찰인 카드를 없애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서와 지서에 있는 명부를 없앴다. 국가기록원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아주 파쇄해서 없앴다.

1968년, 북한에 납북되었던 어선이 정어리젓을 가지고 돌아와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다.

옛날에는 연평도로 조기잡이 나갔다가 납북되는 어선이 많았다. 1968년 경사로 진급되어 보령경찰서에 부임했는데, 어떤 어선이 납북되었다가 북한에서 정어리 젓갈 10여 통을 가지고 온 것이 적발되었다. 술통같은 나무로 된 통에 담겨있었다. 이에 경찰서 대공과에서는 북한에 포섭된 줄 알고, 고문을 하였고, 어부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전윤수 님은 전경대로 편입되어 전남 영광에서 근무하였다.

경찰관은 전투경찰대에서 1년씩 근무하였다. 전윤수 님은 207전경대로 보령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북위 36도선 이남은 경찰이 경비하고, 이북은 군인이 근무하게 되어 전라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전남 영광 근처의 백수면 해안에 근무했는데, 당시 공수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그때 초소 주변에 있는 초분을 보았다.

1977년 칠갑산 김완동 간첩사건 때 오천면 오포리에서 간첩의 비트(비밀아지트)를 발견하였다.

1977년 여름, 칠갑산 아래 미당면에 살다 월북한 김완동이 간첩으로 남파되어 내려와 비상이 걸렸다. 이때 일부 부대는 칠갑산을 수색하였고, 해안의 경비도 강화하였다. 지서에서도 예비군을 동원하여 수색하고 있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오천 지서장이 오포리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 당시 전윤수 님은 보령경찰서의 경비과장으로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었다.

97연대 연대장에게 연락하여 가 보았더니, 발견한 것은 비트였고, 근처 나뭇가지에 북한제 F1 수류탄이 매달려 있었다. 연대장이 북한 수류탄을 즉시 알아보고,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간첩들이 먹다 남긴 콩이 자라 벌써 10여cm 자라 있었다. 오래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숭구지에서는 조잡한 천으로 만든, 상사 계급장이 달린 모자가 발견되어, 가숭구지에서 월북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때 진구지에 있는 초소는 경찰관이 관리하는 초소였고, 방위병만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경찰에게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감찰이 나왔고, 방위병을 보충해달라는 공문서가 있어 징계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당시 관할 대대장은 직위해제 되었다가 나중에 복직되었다.

1978년 광천 간첩사건 때도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을 보았다.

1978년 경비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서장은 최건석 서장이었다. 어느날 경찰서장이 광천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가보자고 해서 함께 광천 소암산에 갔다. 당시 서장은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라, 예리한 흉기로 급소만 찔려 죽은 시신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운전기사한테 주변에 이상한 것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이상춘 운전기사가 나무 뭉텅이를 발로 차니까, 거기서 가방이 나왔다. 이것이 보고되어 비상경계령이 떨어졌고, 헬기를 타고 장성들이 찾아왔다. 전윤수 님은 모든 것을 목격하였다.

보령경찰이 주교면 신대리에서 간첩을 잡았다.

보령경찰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대간첩작전 훈련을 하였고, 각 지서에서도 경찰관을 차출하여 훈련하였다. 이날도 훈련을 하였는데, 장소가 주교면 신대리였다. 그런데 요행히도 신대리에 실제 간첩이 나타났고,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훈련 중이라 실탄이 없어 경찰서에서 실탄을 가져다가 간첩을 사살하였다. 당시 미산 지서에 근무하던 이태우 순경이 그 공로로 승진하였고,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총을 쏜 박경남 님은 용감한 시민으로 경찰에 특채되었다. 이후 이태우 경찰관을 동료들이 농담으로 '지붕경사'라고 불렀다.

광천 독배에는 청소지서의 초소가 있었다.

전윤수 님은 청소지서의 지서장을 하였다. 당시만 해도 광천장 안날이면 독배에 장배가 20~30척 들어왔다. 배를 대기가 무섭게 장사꾼들이 배에 올라 손을 대면, 다른 장사꾼이 사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래서 배를 댈 때 매우 혼잡스러웠다. 이때 지서장인 전윤수 님은 질서를 잡아, 차례차례 배를 대도록 했고, 발판을 내린 뒤에,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뒤에 장사꾼이 오르도록 하였다. 사납기로 유명한 광천의 노조원들이 질서가 잡혔다고 칭찬하였다. 당시 배를 댄 곳은 죽림리의 큰 제방에 이어 만든 작은 제방이었다. 경찰초소 앞이었다.

옛날 광천 지서장과 합덕 지서장은 경찰국장 빽이 있어야 온다고 하였다.

과거 경찰관서에서 손꼽히는 요직은 광천 지서장과 합덕 지서장이었다. 이곳은 경찰서가 있는 군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시장이 발달하여 돈이 많은 곳이었다. 광천은 독배 때문에 시장이 번창하였고, 합덕은 군청이 있는 당진보다도 더 시장이 컸다. 광천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지서장을 위해 계를 하고, 그 계 한 몫을 태워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김 진 권 (1939년생)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면 소성리 주민의 생활



출생과 성장

김진권 님은 금녕김씨로 1939년 서천군 한산면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당시 청년이었던 형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해 오천으로 이주하였다. 오천은 큰아버지와 고모가 살고 있고, 선조들의 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오천에서 농사체 없이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오천초등학교(구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나 놀다가 보령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후 서울에서 껌팔이 등으로 어렵게 살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 오천으로 돌아와 상업과 식당업을 하였다.

김진권 님 선조들은 오천에서 살았다.

김진권 님은 서천 한산에서 출생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모두 오천에 살았고, 선조들의 묘가 오천면이나 천북면에 있었다. 천북에는 12대조의 묘까지 있었다. 대대로 오천에 살았기 때문에 한산에서 오천으로 이주하였다.

도장을 판 돈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김진권 님은 중학교를 3년이나 놀다가 들어갔다. 그것도 둘째 형이 보내준 것이다. 보령중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낼 수 없어 1년이 넘게 밀려 있었는데,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유문수 선생님이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선물로 주는 도장을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라고 제안하였다. 김진권 님은 손재주가 있었고, 전에도 선생님한테 수우미양가 도장을 만들어 준 경험이 있어, 산에서 도장나무를 베어다가 졸업생 100여 명의 도장을 만들었다. 칼은 쇠톱 부러진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돈으로 수업료를 내고 졸업할 수 있었다. 당시 천북에 가서 아카시아 씨앗을 채취하여 학교에 팔아 돈을 벌기도 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올라가 가난하게 생활하였다.

김진권 님은 보령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균명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수업료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곧바로 퇴학하고 가난하게 생활하였다. 당시 남대문시장에서 껌을 사다가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지갑 같은 것을 사다가 여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구두닦이는 하지 않았다. 고생은 무척하였지만 돈은 벌 수 없었다.

군대가 천국이었다.

김진권 님은 1961년 입대했는데, 군대가 천국이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이 없이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먹고, 잠자고, 의식주의 걱정이 없으니 천국이었다. 더구나 부관부에 있어 보직도 좋았다. 휴가나 외박을 나와야 갈 곳이 없어 반납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작은형 김창권 님과 부산에서 올라온 이철주 님이 홍합사업을 시작하였다.

김진권 님이 군대를 제대할 때, 작은 형님인 김창권 님은 오천면 효자도리 멍덱이라는 섬 근처에서 홍합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침 김창권 님의 사위인 이철주님(1937)이 부산에서 잠수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에게 연락하여 한 번 와서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사위가 부산에서 잠수기어선(머구리배) 2척을 가지고 올라와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멍덱이 부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홍합서식지였다. 당시는 서산AB지구 사업이 없을 때라, 멍덱이 부근은 물살이 셌고, 홍합은 센 물살 속에서 잘 자라기에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홍합이 겹겹이 싸여 있었다.

그래서 이철주 님은 홍합을 채취하였고, 김창권 님은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하였으며, 김진권 님은 부인들을 동원하여 홍합을 까고, 짚으로 꿰어 사과상자에 포장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홍합은 지천이었으나, 서울에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웠고, 더구나 물에 들어간 머구리들한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홍합을 채취하기 위해 한 배에 5명이 일했다.

당시 홍합을 채취하기 위해서 한 배에 5명이 일했다. 우선 물 속에 들어가 작업하는 머구리(잠수부)가 1명 있었고, 이 잠수부에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사람이 2명 있었다. 이들은 과거 소방서에서 공기를 압축하던 것처럼 양쪽에서 손잡이를 눌러 수동으로 공기를 압축해서 바닷속에 있는 잠수부에 공기를 공급하였다. 그 외에 머구리를 보조해 주는 사람

이 1명, 선장이 1명 있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머구리(잠수부)였다. 당시 얕은 바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밖에서 보일 정도였다.

외연도에서도 홍합을 채취하고, 고기를 가져다 팔았다.

김진권 님은 오천에서 홍합 사업에 실패하고, 외연도로 들어가 사업하였다. 외연도에도 홍합이 많았는데, 머구리가 따지 않고, 그냥 썰물 때 바위에서 땄다. 그것을 수집해서 판 것이었다. 그리고 나일론 그물이 처음 나올 때, 오천에서 꽃게가 많이 나왔는데, 꽃게뿐만 아니라 민어 등 고급 고기도 함께 잡혔다. 이들 해산물을 오천으로 실어다, 청소역을 통하여 기차로 올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운반하여 서울에서 경매로 팔았다.

1970년대 초 어청도에서 낚시로 잡은 우럭을 가져다 팔았다.

외연도에서 일하다가, 어청도로 들어가 낚시로 잡은 우럭을 사다가 팔았다. 당시 어청도에서 낚시하는 배들은 모두 무동력선이었고, 김진권 님의 동력선이 무동력선들을 끌어다가 낚시질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후, 같이 낚시로 우럭을 잡았다. 당시 어족자원이 풍부할 때이고, 특히 어청도는 통발을 마을에서 규제했기 때문에 우럭이 아주 많았다. 현지인들은 1줄에 12개의 낚시를 달았고, 김진권님은 7개만 달아 낚시하였다. 어떤 때는 한 번에 10kg의 우럭을 잡기도 하였다. 당시 미끼는 놀래미를 썰어 사용하거나, 놀래미 껍질을 꿰어 사용하였다. 심지어는 걸레쭉지를 매달아도 물었다.

이렇게 잡은 고기를 수집하면 하루에 100~120상자가 되었고, 이것을 대천에 가져다가 팔았다.

어청도에서는 전횡 장군을 충청도 장군이라고 불렀다.

어청도에서도 외연도처럼 전횡 장군 사당을 모시고 제를 올린다. 외연도에서는 당산의 꼭대기에 전횡 장군 사당이 있지만, 어청도는 마을 가운데에 사당이 있다. 그리고 어청도 사람들은 전횡 장군을 충청도 장군이라고 불렀다.

오천 시내의 동쪽은 호남정유가 있던 곳을 파다가 메웠다.

김진권 님이 거주하는 곳은 옛날에 낮아 늘 바닷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호남정유가 있던 곳을 파다가 메웠다. 서쪽 지역은 외지에서 배로 모래를 파다가 메웠다.

오천은 물이 귀해서 물장사도 하였다.

오천은 물이 아주 귀했다. 일반인들은 대개 남문 근처에 있는 샘에서 물지게로 길어다 먹었다. 그곳 샘은 옛날 수군들이 먹던 샘으로, 물이 잘 났고, 안에 다듬은 돌로 모두 석축 해 놓았다. 물맛도 좋았고, 특히 두부를 하면 맛이 좋아 오천 두부가 유명하였다.

김진권 님은 친구와 같이 물장사를 하였다. 중선배가 나가려면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길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드럼통에 물을 담아 리어카로 끌어다 팔았다.

오천 양조장에서는 호스로 끌어다 먹었다.

오천 양조장에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였는데, 남문 밖 자기의 땅이 있어 샘을 파서 물을 끌어다 먹었다. 남문 근처는 양조장보다 높았고,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다.

새마을사업으로 선림사와 원전에서 물을 끌어왔다.

김진권 님은 새마을사업의 지도자였다. 오천 소성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고, 이 물을 끌어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선림사와 원전에서부터 바닷가로 2개의 호스를 묻어, 파출소 뒤의 언덕에 물탱크를 만들고 저장했다가, 옛 농협구판장 자리로 물을 끌어왔다. 소성리의 중심에 수도꼭지가 생긴 것이다.

이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물탱크까지 양수기 없이 물을 끌어오는 일이었다. 선림사에서 오는 물은 수압이 좋아 잘 들어오지만, 원전에서 오는 물은 수압이 낮아 잘 올라오지 않아 항상 문제였다. 수도시설이 고장나면 김진권 님이 늘 수리하였다.

객사 건물은 원래 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면사무소로 옮기고 이승상 면장 시절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현재 충청수영 객사라고 불리는 건물은 원래 오천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안에 있었다.

이것이 면사무소 자리로 옮겨져, 면사무소로 사용되었고, 이응상 면장 시절에 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옛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이 있었다.

이때 김진권 님은 그 건물이 오천의 뿌리라고, 옮겨서 보존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보존하기로 하였고, 김진권 님의 4촌 형인 김우권 님의 밭을 구입하여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사건물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소성리의 당집은 김진권 님의 친구가 불태웠다.

소성리의 당집은 솟재 근처에 있었다. 이곳에 당제를 지낼 때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1970년대 초,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그만 불 질러 없어졌다. 당제를 지내려면 마을 안에 있는 동네집에서 마을 기를 가져다가 꽂고 지냈다. 이 깃발에는 용이 그려져 있었다. 동네집은 오천초등학교 동남쪽 모서리 밖에 있었다.

키조개는 홍합을 딸 때 발견했으나 돈이 되지 않아 잡지 않았는데 요즈음은 높은 값으로 팔린다.

오천의 키조개는 홍합을 따기 시작할 때인 1960년대 중엽에 발견하였다. 홍합은 물발이 쎈 곳의 바위에 붙어 살았고, 키조개는 뻘밭에 박혀 살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홍합도 지천이라 키조개는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홍합이 바닥난 후 키조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현재 키조개를 잡는 잠수기어선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1척당 무려 45억에 이른다.

도미항에서는 소금을 솥에 끓여 만들었다.

김진권 님이 어렸을 때인 1950년 무렵, 도미항에서 바닷물을 끓여 소금 만드는 것을 보았다. 납작한 솥에 가시나무 같은 잡나무를 때 소금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솥이 하나였고, 염수를 만드는 갈통 같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도미항에서 소금을 만든 것은 확실하다.

오천항으로 소금이 모여들었다.

1950년대 오천항으로 소금이 모여들었다. 안면도 같은 데서 소금을 만들어 오천항으로

들여와 야적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소금을 내렸고, 덕분에 오천 양조장이 호황을 누렸다. 이 소금을 관리한 사람이 안기수 씨였다. 그분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곤하였다.

계금장군청덕비는 흙담으로 만든 건물 안에 있었고, 양조장집 할머니가 제를 지냈다.

계금장군청덕비는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초가건물 안에 있었고, 양조장집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꼭 제를 올렸다. 마을과는 상관없이 두 할머니가 제를 올렸는데, 마지막에는 물에 제물을 섞어 사방에 뿌린 기억이 있다. 이때 어린이들이 제물을 얻어먹으려고 모여들었다. 김진권 님도 제물을 얻어먹으러 갔다.

소성리 주민들은 산낙굴이나 섶바탱이 부근으로 나무하러 다녔다.

소성리 주민들은 선림사 근처의 큰산낙굴, 작은산낙굴이나 영보리 섶바탱이 마을 근처로 나무하러 다녔다. 큰 산들이 주변에 있기 새벽에 가서 점심 때 돌아오는 식으로 나무하러 다녔다.

소성리 주민들은 하고개를 넘어 대천으로 소통하였다.

오천 소성리 주민들은 옛날 대천장에 가려면 반드시 하고개를 넘어 다녔다. 남문-솟재-고성초등학교-하고개-주교리로 대천장을 다닌 것이다. 반드시 하고개를 넘어야 했고, 하고개는 오천 주민들이 넘는 큰 고개였다. 그래서 하고개 동쪽 연지리가 예전에 오천면에 속했었다.

소성리의 양관호 씨는 섬으로 방아를 찧으러 다녔다.

소성리에 사는 양관호 씨는 착착이 발동기를 이용하여 섬으로 다니면서 방아를 찧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방아를 찧었는데, 돌아오다가 배가 침몰하였으나 살아남았다.

소성리에는 작은 배를 짓는 배목수가 있었다.

오천 소성리에는 작은 배를 짓는 배목수가 있었다. 작은 뎀마나 작은 기곗배도 만들었

는데,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 공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벌판 같은 곳에서 만들었다. 김진권 님도 손재주가 있어 잠시 일했다.

오천에는 과거 장이 섰었고 현재도 1, 6일에 5일장이 선다.

오천에는 과거부터 장이 섰다. 광천장보다는 작았지만 천북 주민들과 오천면 주민들이 모여 5일장이 섰다. 섬 사람들은 광천만큼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5일장처럼 오천장도 쇠퇴했지만,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오천장으로 물건을 팔러오는 사람들은 영보리, 도미항, 돌고개 등에서 사는 주민 10여 명이 새벽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고, 오천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이 나와 농산물을 사간다. 없는 농산물은 주문해서 사기도 한다. 현재도 1일과 6일에 서는데, 새벽에 선다.

오천 앞바다에서도 각종 고기를 잡았다.

과거에는 오천 앞바다에서 조기 낚시질도 하고, 낚시로 상어나 가오리, 갯장어, 민물장어 등을 잡았다. 민물장어는 주낙도 놓았는데, 미끼는 개구리를 사용하였다. 밤에는 영보정 아래에서 낚시질을 했고, 우럭이나 갯장어 등을 잡았다. 오천 앞바다에서 잡히지 않는 고기는 별로 없었다.

천북은 나루께로 건너다녔다.

천북 주민들은 오천으로 많이 출입하였다. 나룻께라고 하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앞에 나룻배를 언제나 대어놓고 사람들을 건너 주었다. 배를 정박하는 곳은 천북쪽이었고, 오천에서 소리 지르거나 손짓하면 건너와서 데려갔다. 이 나룻배를 자주 이용하는 천북 주민들은 보리를 수확하면 일정량을 내놓았고, 외부 손님들은 돈을 냈다. 나루께는 천북면 하만리 식당이 있는 곳이다.

6.25전에는 몽선환이라는 배가 오천에서 원산도까지 다녔다.

6.25사변 이전, 오천에서 원산도까지 가는 배는 몽선환이었다. 이 배가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를 거쳐 원산도까지 운항하였다. 6.25 때에는 경찰관들이 이 배를 타고 나

갔다.

과거 소송리 건달들이 섬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진권 님도 들은 이야기인데, 과거 소송리 건달들이 섬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섬 사람들이 소성리에 배를 대고 들어오면 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한다든지, 수염이 길다고 시비하는 등 트집을 잡아 시비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소성리에 배를 대지 못하고 밤까시에 배를 대고, 소성리를 돌아 광천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김진권 님은 각종 놀이기구를 손수 만들어 놀았다.

김진권 님은 어려서부터 솜씨가 좋아 작종 놀이기구를 만들어 놀았다. 새총을 예쁘게 만들어, 선배들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팽이를 매끈하게 깎아 돌렸고, 심지어는 나무바퀴를 단 구루마를 만들어 타기도 하였다. 썰매도 손수 만들어 탔다. 썰매에 붙이는 철사는 전기공사하는 사람들한테서 얻어서 썼다. 썰매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었는데, 운동신경이 좋은 어린이들은 아주 좁은 썰매를 만들어 탔다. 작은 썰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논 가운데에 말뚝을 박고 줄을 매 빙빙 돌면서 탔다. 제기는 집에 있는 엽전과 면사무소 쓰레기장에서 주운 미농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친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집에 많던 엽전이 모두 없어졌다.

오천에는 호남정유의 기름탱크가 있었다.

과거 오천에는 호남정유의 기름탱크가 있었다. 해방 후, 충청수영성의 서북쪽 끝부분을 파 오천항의 동쪽을 매립했고, 이때 충청수영의 서북쪽 끝에 넓은 평지가 생겼다. 이곳에 호남정유에서 기름탱크를 만들어 기름을 저장하였다. 기름은 큰 배가 오천항 앞에 정박해서 호스를 통해 탱크에 저장하였다. 이 기름은 자동차로 실어 주변에 공급하였다. 기름 관리를 위해 호남정유에서 소장과 2~3명의 직원이 나와 있었다.

오천 주민들은 과거 오천장, 청소장, 광천장을 주로 보았다.

과거 오천 주민들은 오천장을 보았고, 가까운 청소장도 보았다. 오천 근처에서 가장 큰

장은 광천장이었는데 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 6.25 직후에는 군대에서 후생사업으로 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광천장에 다니기도 하였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이 동 규 (1939년생)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의 주민생활



출생과 성장

이동규 님은 공주이씨로 14대조 할아버지가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를 했기 때문에 보령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 주변에 선산을 마련하고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이동규님은 1939년 태어났다. 아버지는 권중욱 씨가 막은 간척지를 소작하여 생활하였으나 가난하여 청소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줄곧 농사일을 하였고, 성장하여서는 방앗간을 운영하였다. 22세 때 천북 학성리에 사는 서씨 처녀와 결혼하여 2남3녀를 두었다.

도미항 주민들은 주로 권중욱 씨네 간척지를 소작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 토지개혁 전까지 교성리 도미항 주민들은 권중욱 씨가 막은 간척지를 대략 7~8마지기 소작하면서 생활하였다. 권중욱 씨를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다. 도미항 근처에는 하천이 없어 간척지의 염분이 잘 빠지지 않아 소출이 적었다. 그래서 소작료는 수확량의 1/3씩만 냈다.

오천국민학교에는 짚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틀을 신을 수 있었다.

오천국민학교는 짚신을 신고 다녔다. 당시 고무신과 운동화도 있었으나 값이 비싸 신을 수 없었고 짚신을 삼아 신고 다녔는데, 한 켤레를 신으면 이틀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짚신은 아버지가 삼아 주었다. 아버지는 밤새 식구들의 짚신을 삼아 주었다.

흉년에는 보리삭갈이를 얻어다 먹었다.

흉년이 들면 보리를 수확하기 전이 가장 어려웠다. 보리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식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릿고개라고 하였다. 이때는 할 수 없어 소성리에 가서 겉보리를 얻어다 먹었다. 이때 겉보리를 한 가마 얻어다 먹으면, 가을에 쌀로 1가마 갚아야 되었는데 이것을 보리삭갈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쌀로 갚는 것이 큰 부담이었지만, 당장 식량이 없어 할 수 없이 보리삭갈이를 얻어다 먹었다. 그러니 식량은 해마다 부족하였다.

이동규 님이 기억하는 가장 어려웠던 흉년은 6.25 직후의 흉년이었다.

고구마는 간식거리로 부잣집에서 심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고구마는 아주 좋은 식량거리였다. 그러나 당시는 어쩐 일인지 부잣집에서만 간식거리로 고구마를 심었다. 도미항 마을에서는 대략 다섯 집에서만 심었다. 고구마가 퍼진 것은 흉년이 지난 뒤였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보리의 2모작으로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지 않았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송덕 덩금말에 있는 서당에 다녔는데 이동규님은 가난해서 다닐 수 없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서당에 다녔다. 당시 송덕 덩금말에 서당이 있었는데, 도미항에서는 이동규님의 재종 동생이 다녔다. 수업료는 1년에 쌀 1가마였다. 이동규님은 돈이 없어 재종 동생과 함께 서당에 가다가 송덕고개에서 동생이 공부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따라오곤 하였다.

나무는 주로 북배산에서 했고, 멀리는 주포면 보령리 질재를 넘어가 청라에서 해 왔다.

이동규 님이 어렸을 때는 나무하는 것이 일이었다. 나무를 주로 한 곳은 북배산이었다. 북배산 부근에는 인가가 없어 나무가 좀 있었다. 그래도 진달래뿌리까지 캐오는 지경이었다. 주포면 보령리 질재를 넘어 청라 질굴고랑까지 가서 나무를 하기도 했다. 거기는 주민들이 장작을 해다 팔기 위해서 소나무를 베고, 가지를 버려두어 말라 있었다. 마른 솔가지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너무 먼 거리였다. 이동규 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마른 솔가지를 아껴가며 땠다.

24살에 방아 찧기를 시작하였다.

이동규 님이 24살 때, 당숙이 작은 발동기를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아를 찧고 있었다. 당시 당숙은 부자였고, 이동규 님 집은 식량이 곤란할 정도였다. 그래서 당숙한테 방아 찧는 일을 물려달라고 사정하여 허락받았고, 방아 찧는 일을 시작하였다. 1962년이었다. 5마력짜리 발동기와 정미기는 천안에서 사왔고, 방아를 찧어 식량 걱정을 면하였다.

당시 방아는 집집마다 이동하면서 마당에 설치하였다.

당시 방아 찧는데 필요한 것은 5마력짜리 발동기, 정미기, 사름틀이었다. 발동기를 분해하여 지게로 져다 조립하였고, 정미기와 발동기는 피대줄로 연결하였으며, 겨는 사름틀로 뺐다. 승강기가 없어 정미기에서 쌀이 나오면 학구로 퍼서 정미기에 다시 넣어야 했다. 4번을 넣어야 먹을 수 있는 쌀이 되었다. 당시 현미를 만드는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쌀과 겨, 왕겨가 섞여 나와 사름틀에서 쌀과 분리되었다. 사름틀 밑에 겨와 왕겨가 섞인 것이 쌓이는 구조였다. 이것은 소와 돼지의 좋은 사료가 되었다.

발동기를 옮기는 것이 문제였다. 발동기를 질 수 있은 사람이 없어, 몸체와 바퀴를 분해하여 따로 지고 다니면서 조립하였다. 발동기와 정미기를 옮겨 말뚝을 박고 설치하는 것은 큰일이었다. 방아를 설치하면 주변 집에서는 모두 방아를 찧었고, 그해 수확한 벼를 모두 찧었다. 수확한 벼가 많지도 않았지만, 방아가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2~3년 후 방앗간을 만들어 보리방아와 밀방아도 찧었다.

이동식 방아를 2~3년 운영한 후, 이동하기가 어려워 집에 방앗간을 지어 고정식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보리방아와 밀방아를 놓아 보리와 밀도 찧어 주었다. 1년간 찧은 쌀은 약 200여 가마, 보리도 약 200여 가마였다. 밀은 많지 않았다.

방아삯은 쌀은 4%, 보리는 10%, 밀은 12% 정도였다. 현물로 받아 팔았고, 보리는 매상하였다.

방앗감은 리어카로 끌어다가 찧었다.

방앗간은 경쟁관계였다. 그래서 개인이 벼를 가지고 방아를 찧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방앗간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서 방앗감을 가져다 찧어 배달해 주었다. 리어카에 벼를 5~6가마 싣고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 버티느라고 고무신이 쉽게 떨어졌다. 고무신 한 켤레가 1주일이면 떨어졌다.

소를 길러 구루마로 운반하다가, 1970년대 초 경운기를 구입하였다.

방앗감을 리아카로 2~3년 운반하다가 송아지를 길러 키운 뒤, 소 구루마로 운반하였다.

구루마는 천안에서 사왔는데, 힘들이지 않고 15~20가마를 실어 운반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에는 경운기가 나와 주변에서 최초로 구입하였다. 경운기가 나온 뒤에는 수월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

방앗간 운영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동규 님은 방앗간을 운영하여 부자가 되었다. 삯을 받아 모았다가 논을 샀고, 논에서 수확한 쌀과 보리를 팔아 또 논을 사는 식이었다. 이래서 논을 28마지기까지 늘렸고, 아들 딸 5남매를 모두 대학, 대학원까지 보낼 수 있었다. 이동규 님은 지금도 자식들을 가르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충역으로 늦게 입대하여 29살에 제대하였다.

옛날에는 보충역 제도가 있었다. 신체검사를 한 후 다음 해에 입대하는 것이 순리인데,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입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후 계속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대기하다가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동규 님은 보충역으로 판정 받았다가 26세가 되어 입대하였고 29세에 제대하였다.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입대한 것이다.

간척지 수로에 물을 저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도미항 마을에 있는 간척지는 원래 신촌저수지와 참새골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들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물을 내리면 다른 논에서 대기도 하였고, 내 논에 뜻대로 물을 대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수로를 막아 물을 저장하였다가 양수기로 품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훨씬 편리하였다.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수로의 끝에 수문을 만들어 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인다. 날이 가물어도 저수지의 물이 남아돌 정도이다.

물을 가두어 둔 수로에는 물고기가 많았으나 현재는 없다.

물을 가두어 둔 수로에는 과거 물고기가 많았다. 특히 우렁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없

다.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특히 상류에 레미콘공장이 있어 시멘트물을 내려 보내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현재는 작은 용수로에만 우렁이 있다.

권중욱 씨 간척지는 농지분배 이후에도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도미항 마을의 대부분의 논은 일제강점기 권중욱 씨가 막은 간척지이다. 간척지는 해방 후 토지개혁에 의해 소작인들에게 분배되었으나, 분배된 이후에도 소금끼가 빠지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간척지 주변의 소위 육답에서는 정상적인 소출이 나왔으나 간척지에서는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다.

참새굴은 찬샘에서 나온 이름이다.

참새굴에는 아주 좋은 샘이 있어 찬샘, 참샘이라고 불렀다.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물이 차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찬샘, 참샘이라고 부른 것이다. 특히 겨울에는 물이 따뜻했기 때문에 멀리 소성리에서도 빨래하러 왔다. 참새굴은 찬샘, 참샘이 변해서 된 이름이다.

현재는 샘 위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 공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쓸 때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물줄기를 레미콘공장에서 뚫어 사용한다.

이동규 님 기억으로, 마을에 두레는 없었다.

1939년생인 이동규 님은 도미항 마을에서 두레로 논을 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만 품앗이로 논을 매는데, 부잣집의 경우에 풍물 치는 사람들을 얻어 풍물을 쳐가면서 논을 맨 정도였다. 마을 깃발도 없었다.

도미항 마을에는 당제를 지내지 않았다.

도미항 마을에는 당집도 없고 당제를 지내지도 않았다.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도 없었다.

도미항은 원래 됨망이라고 불렀다.

도미항을 옛 어른들은 그냥 '됨망'이라고 불렀다. 도미가 많이 잡혀 그렇게 부른다고 하

였다. 그것이 되미망이 되었고, 도미항이 되었다. 도미항이라고 불린 것은 중선배가 들어오는 등 포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도미항에는 중선배를 댔다.

도미항에는 중선배가 서너 척 있었다. 도미항 주민도 중선배를 하나 부렸지만 나머지는 청소에 사는 분들이 운영하였다. 이들 중선배는 연평도 등 먼바다에 나가 조기를 잡아왔고, 도미항에 시멘트로 큰 통 10개를 만들어 놓고, 절여 팔았다. 통 하나에 쌀 70~80가마가 들어갈 큰 통이었다. 중선배 하나가 들어오면 통 2~3개에 조기를 절였다. 중선배는 새우도 잡아 왔는데, 새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잡아 소금에 절인채로 가져와 조재미라고 불리는 작은 독에 담아 팔았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조재미에 담은 새우젓을 사다 먹었다.

섬 주민들은 도미항에 빈댕이를 가져와 보리와 바꾸었다.

인근 섬 주민들은 주벅으로 빈댕이를 잡아 도미항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도미항으로 모여들어 빈댕이를 가져다가 젓갈을 담거나 말려 먹었다. 이때 현금보다는 주로 외상이었다. 보리가 나오면 주기로 하고 가져가는 것이다. 대개 빈댕이 1말이 보리 1말이었다.

현재 빙도로 통하는 길 안쪽에서 자염을 생산하였다.

현재 빙도로 통하는 길 남쪽에서는 해방 무렵 자염을 생산하였다. 갈통을 묻고, 주변의 갯벌을 소를 이용하여 써레질하고, 마르면 갈통 주변에 모았다. 높이는 바닷물의 최고수위와 비슷하였고, 바닷물을 퍼서 위에 붓기도 하였다. 이렇게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얻어 솥에 끓였다. 솥이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이 운영하였다. 잠시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동규 님이 어렸을 때이다. 갈통은 3~4개 되었다.

살은 간척지 수문 앞 갯골에 맸다.

도미항 마을에서는 살도 맸는데, 간척지 수문 앞 갯골에 소규모로 맸다. 그물로 갯골을 막아 고기를 잡은 것이다. 다양한 고기가 잡혔으나 넓지 않아 많은 고기를 잡지는 못했다.

개맥이라고 했다.

도미항에 중선배가 들어오면 북적였고 술집도 5~6집 있었다.

도미항에 중선배를 정박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중선배들은 조기, 새우, 갈치 등을 잡아 절여 팔았고, 조업 나갈 때는 화장이 주민들에게 김치 등 반찬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때 반찬값은 주지 않았고, 그릇에 고기를 채워 주었다. 도미항에는 이들을 상대하는 술집이 5~6곳이나 되었다.

도미항 앞에는 여러 바닷고기가 다 있었다.

도미항 앞에는 여러 바닷고기가 다 있었다. 바지락도 많았고, 소라도 많았으며 바카지도 많았다. 낚시질도 하여 망둥이는 물론 아나고도 많이 잡았다. 여느 바다나 다름없었다.

도미항에서는 실뱀장어도 잡았다.

도미항에서는 실뱀장어도 많이 잡았다. 그물을 쳐서 잡은 것은 아니었고, 수문 앞 갯고랑으로 들어오는 실뱀장어를 밤에 불을 켜고 앉아 잡았다. 모기장으로 만든 작은 뜰채로 떠서 잡았다. 하룻밤이면 40~50마리를 잡아 소득을 올렸다.

도미항에서는 바지락 종패를 잡아 높은 소득을 올렸다.

도미항 앞에서는 바지락 종패를 잡아 높은 소득을 올렸다. 한여름에 잡았는데 물속에 들어가 글캥이에 쫌쫌한 그물을 달아 끌어 잡았다. 땅을 파면서 속에 있는 종패를 그물에 담는 방식이었다. 더운 여름이고 물속에서 하는 작업이라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득은 높아 하루에 20~3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여파루 갔다가 2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다.

도미항 주민들은 먼 바다로 여파루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어쩌다 가는 정도였다. 그런데 풍선배를 가지고 있던 주민이 여러 사람을 싣고 여파루 갔다가 쌍오도 주변에서 사고가 나 선주를 포함하여 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산물을 잡아 돌아오던 길이

었는데 닻이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순간적으로 멎고 돌아가 통굴에서 온 부인이 바다로 떨어졌고, 이를 구하려고 선주가 뛰어들어 함께 사망하였다.

도미항 마을에서는 초상이 나면 막걸리 1병을 가져가거나 팥죽을 쑤어 가지고 갔다.

도미항 마을에서는 초상이 나면,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져간다는 뜻에서 막걸리 1병을 가져가거나 팥죽을 쑤어 가지고 갔다. 팥죽은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먹었다. 상가집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이동규 님은 염을 많이 하였다.

도미항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늘 이동규 님이 염을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족들이 수세를 걷어 시신을 반듯하게 묶어 놓았고, 정식 염은 이동규 님이 하였다. 사자밥을 지어 놓는 것도 가족들이 먼저 하는 일이었다.

천북 젓 떼기 마을에는 잿간변소가 있었다.

이동규 님의 처갓집이 있는 천북면 학성리 젓떼기 마을에는 잿간변소가 있었다. 식구들이 사용하는 안변소가 잿간변소였는데, 잿간에 돌을 놓고 앉아 변을 본 후, 변을 재에 섞어 놓는 것이었다. 사랑변소에는 항아리를 묻었고 안변소가 잿간변소였다.

도미항 마을에서도 밭 귀퉁이에 액비통을 만들어 똥과 오줌을 썩혀 거름으로 썼다.

세멘트가 들어온 후, 도미항 마을에서도 밭 귀퉁이에 액비통을 크게 만들어 똥과 오줌을 넣고, 바닷물을 길어다 함께 넣고 썩혔다. 완전히 썩고 묽어진 분뇨를 보리밭에 거름으로 주었다.

공치기는 멀리 나가는 것을 겨루었다.

이동규(1939)님이 어렸을 때, 마을에 공치기 놀이는 없었다. 다만 나무하러 간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공을 구부러진 작대기로 쳐서 멀리 나가는 것을 겨루었다. 나무를 얼마간 해 놓고, 멀리 간 사람이 따먹는 놀이였다. 그 외에 낫치기도 하고 갈퀴치기도 하였다.

도미항 마을에서 천연두를 앓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

도미항 마을에서도 천연두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었다. 1939년생인 이동규 님보다 3~4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어려서 천연두를 앓다가 죽었다. 이동규 님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으나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새마을운동 당시 옛 수로뚝으로 마을길을 냈다.

도미항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 당시 길을 냈다. 당시 마을 앞길은 옛 수로뚝을 이용해서 만들어 개인 땅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당시 이장은 웅개의 허명근 씨였고, 도미항의 복순규 씨가 구서기였다.

마을 앞에 똥섬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집이 들어서 있다.

도미항 마을, 참새골저수지 아래에는 옛날 똥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하나 있었다. 간척지 가운데에 있는 섬이었다. 면적은 1000여 평 되었는데 평평하게 만들고 집을 지었다. 간척지의 가운데에 있었으나 권중욱 씨 땅이 아니었고 개인 땅이었다. 원래 섬이었기 때문이다.

도미항간척지는 영보리 수해간척지와 함께 권중욱 씨가 막았다.

도미항간척지는 일제강점기 권중욱 씨가 막았는데, 영보리의 수해간척지와 함께 막았다. 마을 사람들은 권중욱 씨가 서울에서 산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영보리 수해간척지와 함께 막았고, 마름을 두어 소작료를 받아갔다는 것만 안다. 도미항 마을 앞의 간척지는 523마지기이고 영보리 수해간척지도 비슷하다.

도미항 주민들은 나비배를 타고 마을 앞에서 고기를 잡았다.

도미항 주민들은 나비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다. 나비배는 판자로 만드는데,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배이다. 각목과 판자로 네모나게 만들고, 판자의 틈새는 스기나무[4] 껍질

4) 삼나무

이나 편백나무 껍질로 박을 쳐서 사용하였다. 크기는 폭 1.5m 길이 2.5m 정도였다. 노는 양쪽에 판자로 만들어 저었다. 노질하는 모습이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 나비배라고 불렀다. 작은 배지만, 4명까지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놓아 숭어를 잡고, 낚시질도 하였다. 닻은 가지고 다니면서 그물을 놓고 기다릴 때 배를 고정시켰다. 돛이 없기 때문에 오천항 서쪽으로는 나갈 수 없었고, 빙도 근처에서만 고기를 잡았다. 거의 집집마다 나비배가 있었다. 빙도 주민들도 사람이 적으면 나비배로 소통하였다.

FRP배가 들어온 뒤에는 나비배의 바닥도 FRP로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었다. 나비배는 송덕저수지 주변 주민들도 저수지에서 사용했는데, 더 작았고 바닥에 함석 1장을 대서 만들었다. 송덕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나비배로 붕어와 가물치를 잡았다.

나비배는 작기 때문에 배 위에서 넘어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다.

숭어는 진달래꽃 피기 전에 잡았다.

도미항 주민들은 나비배를 타고 삼마이그물을 이용하여 숭어를 잡았다. 숭어는 진달래꽃이 피면 뻘을 먹기 때문에 진달래꽃이 피기 전에 잡아야 뻘 냄새가 안 나는 숭어를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도미항간척지의 제방과 뚝은 현재 권중욱 씨 손자 소유이다.

권중욱 씨가 막은 도미항의 간척지는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고, 간척지 제방과 비 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간척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쌓은 제방만 분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손자에게로 상속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땅이 약 3000평 쯤 된다.

도미항 간척지를 관리하던 마름은 1명이었고, 소작료는 수확량의 1/3이었다.

권중욱씨 간척지를 관리하던 마름은 유지오 씨 한사람이었다. 당시 소작료는 1/3이었는데, 염기가 있어 수확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곡을 하면 벼를 마름네 집으로 운반하였고, 마름네 집에서는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서울로 올렸다. 이곳에서 방아를 찧지 않고 벼로 가져갔다. 어디서 방아를 찧어 팔았는지는 모른다.

이동규 님은 22세 때 처형 고모의 시아버지가 중매하여 천북 학성리 젓떼기 처녀와 결혼하였다.

이동규 님은 22세 때 처형 고모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중매를 서서 결혼하였다. 이동규 님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할머니 생전에 결혼하기 위해 일찍 결혼하였다. 결혼식은 신랑집에서 했다. 신부는 천북 학성리에서 배를 타고 마을 근처 간척지 수문에서 내려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왔다. 가마는 신부 마을에서 가져왔고, 신부네 마을 주민들이 멨다.

오천과 천북 사이에는 나룻배가 다녔다.

오천과 천북 사이에는 나룻배가 있었다. 나룻터에는 집이 한 채 있었고, 나룻께라고 불렀다. 천북으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은 충청수영 아래쪽에서 소리를 질러 배를 오게 하였다. 나루를 건너면 배 삯을 내었다. 1970년대 초에 없어졌다.

결혼식 후 3일 만에 처갓집에 재향 갔고, 처가 마을 주민들이 사위를 달았다.

이동규 님은 결혼식 후 3일 만에 처갓집으로 재향을 갔다. 떡과 찜닭, 술 1병을 들고 나루를 건너, 한산사지를 지나 걸어서 갔다. 이날 처갓집 마을 사람들은 신랑을 단다고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끝났다.

흉년에는 보리를 미리 베어다 먹었다.

흉년이 들면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미리 베어다 먹었다. 보리가 누렇게 되면, 미리 베어다가 멍석에 놓고 문지르면 보리의 껍질이 벗겨지게 된다. 껍질을 키로 까불러 제거하고 퉁퉁한 알갱이로 밥을 해 먹거나 죽을 쑤어 먹었는데 맛이 좋았다.

마름은 벼이삭으로 수확량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권중욱 씨 간척지의 마름은 소작인이 벼를 베는 날 입회하였다. 이때 벼 이삭을 잘라주면, 볏단을 세는 것에 맞추어 하나씩 집었다. 논뚝에서 큰 소리로 볏단을 세는데, 2단을 하나로 하기 때문에 열이면 20단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마름은 벼 이삭 1개를 헤아려 쥔다. 벼

이삭 10개를 쥐면 200뭇이 되는 것이다.

마름이 가지는 벼이삭을 '산'이라고 하였다. 볏단을 세는 대로 벼이삭을 집으면 '산 집는다'고 하였고, 집었던 벼이삭을 놓으면 '산 놓는다'라고 하였다.

마름은 이렇게 센 벼 이삭을 집에 가져가 이름을 쓰고 매달아 놓았다가 바슴날 가지고 와서 바슴하는 볏단과 비교해 본다. 볏단을 쌓아놓은 누리에서 볏단을 내리면서 큰 소리로 세어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가 농사지은 볏단을 몰래 갖다 먹었으면, 바슴하는 마당에서 적당히 속여야만 되었다.

탈곡이 끝나면 말로 되어서 1/3을 즉시 마름네 집으로 가져간다.

탈곡은 나무 도구통과 탈곡기를 가져다 놓고 하였다. 먼저 나무 도구통에 자리개질을 하였고, 자리개질 한 벼를 탈곡기에 대고 돌렸다. 탈곡한 벼는 큰 소리로 되어 수확량을 확인한 다음 1/3은 즉시 마름네 집으로 운반하였다. 운반할 때는 섬에 담아 지고 가는 사람이 1번 갈 때 가마니에 담아 지고 가는 사람은 2번 다녀야 했다. 1섬이 2가마였기 때문이다.

바슴하는 날 마름은 특별대접을 받았다.

바슴하는 날이면 마름은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당시 홍시감이 귀했는데, 홍시감을 따서 마름에게 준다든지, 고구마를 쪄서 마름에게 주었다. 당시 홍시나 고구마는 아무나 먹을 수 없었다. 마름 눈에 거스르면 소작논을 얻을 수 없었다.

도미항 간척지의 마름은 좋은 분이었다.

도미항 간척지의 마름은 유지오 씨였다. 유지오 씨는 마음씨가 좋아 소작을 바꾸거나, 농민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자기가 차지할 수도 있는 산을 차지하지도 않았다.

바슴은 들마당에서 하였다.

권중욱 님 간척지 주변에는 3개의 들마당이 있어 바슴하였다. 도미항마을에 2개, 신촌마을에 1개가 있었는데 권중욱 님 간척지에 딸린 땅이었고, 큰 마당은 30평 정도, 작은 마당은 25평 정도 되었다. 바슴하기 전에는 논에서 좋은 흙을 져다가 물에 개어 마당을 맥질하

고 마르는대로 밟아 곱게 만들었다. 그래야 바슴한 벼에 돌이 섞이지 않았다.

바슴날이 되면 아침에 볏단을 져다가 벤 숫자와 맞추고 바슴하였다. 그래서 11시쯤 되어야 바슴이 시작되었다.

바슴한 후에는 마당 주변에 볏짚을 쌓았다. 마당은 또 다른 집에서 바슴을 해야 하니까 비워놓고 주변에다 볏짚을 쌓았다. 짚을 누린다고 하였다.

도미항 간척지 중앙수로에는 뱀장어와 참게가 많았다.

옛날 간척지 중앙수로에는 뱀장어가 아주 많았다. 구멍에 손을 넣기만 하면 큰 뱀장어가 있었다. 양동이로 하나씩 잡았으나 잘 먹지도 않았다. 참게도 아주 많았다.

빙도 주민들은 논이 없어 어렵게 살다가 천수만에서 대하를 잡으면서 부자가 되었다.

빙도 주민들은 도미항 주민들보다 어렵게 살았다. 옛날에는 간척지가 없었고, 불과 수십 마지기의 논만 있어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수만 안, 소롱구지 근처에서 대하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업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는 간척사업으로 논도 많아졌다.

도미 설화는 중년에 들은 이야기이고,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

도미 설화는 이동규 님이 중년에 들은 이야기이다. 전에는 빙도를 빈섬이라고 했다. 빈섬에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고 놀려주곤 하였다. 그런 섬이 미인도가 되었고, 도미항도 그냥 됨망이라고 불렸었다. 상사봉도 상상봉이었다. 중년에 도미설화 이야기가 들리더니 사당까지 지었다.

가난한 집에서는 겨울에 이불을 씌워놓고 빨래를 하였다.

이동규 님 댁 옆에 사는 분은 식구가 10명이나 되었다. 식량을 조달하기도 어려웠고, 옷을 사기도 어려웠다. 여름에는 그런대로 빨래를 해 입었는데, 겨울에는 갈아입을 옷이 없어 빨래하는 동안 식구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빨래한 옷이 마르면 입었다. 가난한 집에서는 갈아입을 옷이 없었다.

이동규님은 머구리배 사업을 하였다.

이동규 님은 49세에 방앗간을 팔고, 51세에 머구리배를 2400만원에 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머리구리배는 3톤으로 3명이 타고 다녔다. 선장과 머구리, 화장이었다. 잡은 것은 키조개가 대부분이었고, 홍합도 있었으나 많지 않았다. 홍합은 끝물이었다. 당시 수익금의 배분은 머구리가 수입의 20%, 나머지 선장과 화장이 10% 씩 갖고, 나머지는 선주 몫이었다. 그러나 선주는 선장한테 조금 떼 주어야 했고, 출어준비를 하려면 별도의 돈이 들어가 50% 정도 배당되었다. 배당금은 150만원 ~ 200만원쯤 되었다.

이후 4톤짜리 새 배를 지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쯤 지나 배를 팔았다. 배를 판 뒤에는 배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오천에는 머구리배가 32척이 있었다.

이동규 님이 머구리배를 할 때, 오천에는 32척의 머구리배가 있었다. 당시에는 배마다 1명의 머구리가 타고 나가 조업하였다. 당시 머구리들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배에서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일했다. 후에는 산소를 공급해 주면 입으로 받아 호흡하며 작업했는데, 다이버라고 불렀다. 지금도 다이버라고 부르며 입으로 호흡한다.

다이버들은 자격증은 없고, 군대에서 배운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때는 머구리배 1척에 2명의 다이버를 고용해서 작업하기도 하였다.

오천의 머구리배는 현재도 32척 정도가 되는데, 대천 어항이나 섬에 나가 있기도 하며, 선주는 외지 분들과 오천분들이 대략 반반이다.

나뭇짐은 뒤에서 들어 세웠다.

나뭇짐은 혼자 묶어 짊어지고 와야 했다. 우선 지게를 받쳐놓고, 새끼줄을 2가닥 깐 다음, 솔가지를 몇 개 얹은 후, 그 위에 차곡차곡 나무를 긁어 쌓는다. 10전이 쌓이면 위에다 솔가지를 올려놓고 묶어 놓는다. 길쭉하게 묶어지면 지게를 빼내 나무에 박는다. 이때 균형이 맞게 아래쪽에 박아야 한다. 그리고 지게 뒤로 가서 밀어올려 지게를 세운다. 이때 지게가 넘어가지 않도록 옆을 잡으면서 돌아 앞으로 나와 작대기를 받쳐놓는다.

도미항마을 최초의 방아는 목탄(숯)으로 돌아가는 방아였다.

이동규 님이 10여 살 먹었을 때인 1940년대 말, 도미항마을에 처음 기계로 돌아가는 방아가 생겼다. 이동규 님의 당숙이 하던 방아였는데, 목탄을 지펴 가스를 모으고 이걸 발동기에 공급하여 기계를 돌리는 방식이었다. 발동기의 연료인 숯은 겨울에 마을에서 구워 사용하였다. 목탄방아는 7~8년 후 없어졌다.

청소면 장곡리 터굴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도미항에 방앗간이 생기기 전에는 장곡리 터굴 가는 데에 물레방앗간이 있어 이용하였다. 오서산에서 내려오는 청소천의 봇물을 이용해서 방아를 찧었는데, 일제강점기 말에 있다가 근대적인 방앗간이 생기면서 없어졌다.

도미항 주변의 방앗간은 웅개, 소성리, 청소 진죽리 등에 있었고 웅개 방앗간과 경쟁하였다.

도미항 주변에는 웅개, 소성리, 청소 진죽리 등에 있었다. 이중 도미항 방앗간과 경쟁하던 곳은 웅개에 있던 방앗간이었다. 소성리에 있던 방앗간에서는 천북면 학성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방아를 찧으러 왔다.

방앗간마다 단골 쌀장사가 있었다.

방앗간마다 단골로 다니는 쌀장사가 있어, 선돈을 주고 쌀을 가져갔다. 쌀장사는 서울로 쌀을 냈는데, 서울에서 형성되는 쌀값을 잘 알고 쌀을 사갔다. 농민들은 광천장에서 형성되는 쌀값과 비교하여 쌀을 팔았다. 어떤 쌀장사가 방앗간과 거래하면 다른 쌀장사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도미항 방앗간에는 광천 사는 박삼영 씨가 다녔다.

방앗간의 발동기는 처음에는 5마력, 나중에는 30마력, 45마력짜리를 사용하다가 버스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방앗간의 발동기는 처음 이동할 때는 5마력짜리를 이용하였다. 5마력짜리도 마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해해야만 했다. 이후 고정식 방앗간에서는 30마력, 45마력짜리 발동기를 사용하였다. 45마력짜리는 배에서 사용하는 발동기였다. 1980년대 말에는 중고

버스 엔진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동규 님은 버스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고 방앗간을 그만두었다.

신촌저수지는 물 잠기는 부분이 있어 양수기로 퍼 올리다가 굴삭기로 물길을 냈다.

신천저수지는 가운데가 높고 양쪽에 제방을 막았다. 그래서 남쪽 부분에 물이 잠겨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양수기로 물을 품어 올리다가 현재는 굴삭기로 물길을 내 이용한다.

방앗간에서는 정월보름에 고사를 지냈다.

이동규 님이 방앗간을 할 때는 정월보름에 고사를 지냈다. 방앗간에 떡을 해놓고 제를 올렸다.

연말에는 돈으로 품앗이의 결산을 하였다.

도미항 주민들은 품앗이로 함께 일했다. 그러나 논의 면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해 준 날 수와 일하러 온 날 수가 같지 않았다. 이런 때는 가을에 계산하여 품삯을 주었다. 품앗이가 다음 해까지 연장되지는 않았다. 1년 단위로 품을 계산하였다.

품삯은 부잣집에서 결정하였다. 부잣집이 품삯을 지불하면 마을 전체가 따랐다.

쌍오도는 옛날부터 쌍오도라고만 불렀다.

쌍오도는 북배산 밖에 하나가 있고, 천북 쪽에 하나가 있다. 2개의 섬이 똑같이 바다에 떠 있다. 옛날에는 좀 넓고 큰 소나무도 있었는데 자꾸 침식되어 줄어들었다. 이들 섬은 이동규 님 어렸을 때도 쌍오도라고만 불렀다. 북배산 밖에 있는 쌍오도에는 돌너덜이 있었고, 바카지 같은 게와 소라 등을 잡았다.

현재 도미항이라고 부르는 마을은 안소루구지이다.

현재 도미항이라고 부르는 마을은 옛날에는 안소루구지라고 불렸다. 권중욱간척지 북쪽에 남향으로 길게 늘어선 마을이 모두 안소루구지였고, 참새골과 웅개마을 사이에 있는 갯골 주변에 있는 마을이 밧소루구지였다.

도미항은 안소루구지 마을 북쪽, 빙도 건너편에 있던 항구였다. 보통 됨망이라고 불렸고, 도미항으로 표기하였는데, 요즈음은 옆에 있던 안소루구지마을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김 종 구 (1947년생)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면 소성리 주민의 생활



출생과 성장

김종구(1947)님은 김해김씨로 6남 1녀의 넷 째로 태어났다. 7대조 할아버지가 안면도 고남으로 들어와 살았고, 증조부가 오천으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일가들은 안면도 등 섬 지역에 많이 살고 특히 육도에 많이 거주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오천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을 도와 생활하였고, 30세에 청소면 재정리에 사는 8세 연하의 무주김씨 처녀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오천에서 집성을 이루고 오래 사신 성씨는 고씨와 양씨이다.

오천에서 대대로 거주하여 집성을 이루고 오래 산 성씨는 고씨와 양씨이다. 고씨네 집안은 일제강점기에 이장을 역임했다고 하며, 양조장을 경영하는 등 부자로 살았다. 지금도 곳곳에 고씨네 집안 땅들이 많다. 양씨네 집안도 대대로 거주하였고, 오천면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종구 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대련으로 다니는 무역선의 선장이었다.

김종구 님 아버지는 당시 엘리트로 큰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했다. 월급으로 쌀 9가마를 받았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산에서 대련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였고, 해방 후에는 정국이 혼란하여 밀수도 하였다. 대련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중국에서 비단을 가져다가 조카 혼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밀수를 하다가 해군에게 잡혔는데, 마침 고종사촌인 오천 출신 양한표 님이 선장이어서 풀려난 적도 있다고 한다.

밀수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고향인 오천에 들어와 당시 여객선인 몽선환 선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6.25 이전에 오천에는 몽선환과 대천환이라는 객선이 있었다.

6.25 이전에 오천에서 주변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몽선환과 대천환이었다. 개인이 운영하던 배로 선주는 당시 오천에 있던 경비정 정장 박영철의 삼촌이었다. 6.25가 발발하자 이들 배는 징발당하고 선주는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950년대 오천에는 염수납장이 있었다.

1961년까지 소금은 전매품[5]이었고, 주변에서 생산된 소금을 처리하는 염수납장이 오천에 있었다. 주냄비라고 부르는 둥그런 배로 소금을 실어 왔고, 20여 명의 하역노동자들이 있어 소금가마를 어깨에 메어 부둣가에 쌓아 놓았다가 자동차로 청소역으로 가져가고 기차를 통해 수송하였다. 소금은 주변 섬이나 해안지역에서 가져왔고 하역노동자들은 노조라고 불렀다. 당시 소성리의 젊은이들은 노조원으로 생활하였다. 소금은 모두 천일염이었다.

부두에 소금창고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맨땅에 그대로 쌓아 놓았다가 비가오면 띠로 엮은 이엉으로 덮었다.

소금을 운반한 주냄비는 돛을 단 것도 있었고, 동력선도 있었다. 무동력의 주냄비들은 미리 닻을 놓고 닷줄을 이용하여 부두에 접안하였다.

과거에는 영보정 밑에 장배들을 많이 댔다.

옛날 섬에는 시장에 다니는 장배들이 있었다. 섬마다 있었는데, 들물을 따라 들어와 독배에 대고 광천장을 보았다. 광천장이 4일, 9일이었고, 그 전날인 3일과 8일 날에는 각 섬에서 장배들이 밀물을 타고 올라갔는데, 가다가 썰물이 되면 할 수 없이 영보정 밑에 배를 대고 기다렸다가 다음 밀물을 타고 들어갔다. 그래서 영보정 밑에는 3, 6일에 많은 배가 정박해 있었다. 영보정 밑은 뻘이 없고 경사가 급해 배 대기가 좋았다.

중선배는 오천항에만 대지 않았다.

과거 중선배들은 오천항에만 대지 않고, 밤까시, 도미항 등에도 댔다. 배를 대는데 특별한 항구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선주가 사는 곳 근처에 댔다. 오천항에도 탱크를 만들어 중선배가 잡아온 조기를 절였으며, 이웃한 도미항이나 밤까시에도 중선배를 댔다.

5) 1961년 전매제도가 폐지되었다.

김종구 님 어렸을 때는 남문의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김종구 님은 어렸을 때 남문 근처에 살았다. 당시 남문의 긴 기둥이 4개 남아있었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 턱진 돌, 바닥에 깔린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건물은 보지 못했다.

남문 근처에는 샘이 2개 있다.

남문 근처에는 성 안에 샘이 하나 있었고, 현재 빌라 있는 곳에 가는샘이라는 샘이 있었다. 성 안에 있는 샘은 소성리에서 가장 큰 샘으로 물이 많이 나와 소성리 주민들이 모두 먹고 살았다. 옛날 충청수영이 있을 때도 이 샘물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 밖, 현재 빌라가 들어서 있는 곳에는 가는샘이라는 작은 샘이 있었는데 당제 지낼 때 사용하였다. 소성리의 당샘인 셈이다.

주벅이 업이 한창일 때는 오천항에 고기가 주체할 수 없게 들어왔다.

오천항에는 어선들이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보다 주변 섬에서 주벅으로 잡아오는 고기들이 많았다. 봄이면 각종 고기들을 잡아 오천으로 가져왔는데, 영보정 밑에서부터 부두가 고기로 꽉찰 지경이었다.

외연도, 녹도, 호도 같은 먼 섬에서 잡은 고기는 대천으로 들어오고, 안섬인 월도, 육도, 추도, 소도 등에서 잡은 고기가 오천으로 들어왔는데, 처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기가 들어왔다. 전어나 까나리 같은 고기를 사료공장으로 들여갈 정도였다.

오천에서는 하역노동자들을 노조원이라고 부른다.

오천에 소금수납장이 설치되어 노조원들이 일하게 된 후, 오천에는 노조원들이 하역작업을 하였다. 섬에서 들어온 고기도, 잡아 온 홍합도 모두 노조원들이 하역한 것이다. 현재도 키조개를 하역하는 일을 10여 명의 노조원들이 한다.

1968년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김종구 님은 김신조가 내려오고, 울진삼척에 공비가 내려온 1968년도에 입대하여 운전

병으로 일했다. 건공대의 운전병이라, 벌교의 미사일기지 건설, 지리산 관광도로 건설, 수원 비행장 건설 등에 투입되어 3년을 복무하였다.

오천에서는 1970년대 김 양식을 하였다.

오천면 소성리에서도 1970년대에 김 양식을 많이 하였다. 전에는 홍축골[6]까지만 양식하였고, 내륙 쪽으로 김 양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참새굴에 사는 조석연 씨였다. 동문 밖에 김발을 맸는데, 아주 질이 좋았고 성공적이었다. 민물이 공급되는 곳이라 품질이 좋았던 것이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김 양식에 참여하였고, 청소면 신송리까지 빈틈없이 김 양식을 하였다. 소성리 포구만 못 하고, 밤까시 영보리까지 바닷가는 모두 김발을 맸다. 김발을 매는 지역에 대한 권리는 먼저 한 사람이 소유하였다. 그래서 김발을 빽빽하게 맬 수밖에 없었다.

김종구 님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0떼를 맸는데, 포자는 추분 무렵에 안면도 근처의 풀등에서 붙여왔다. 김발을 풀등에 5~6겹으로 펼쳐 놓았다가 1사리가 지난 뒤에 가져다 설치하면 되었다. 나중에는 인공포자를 붙여 양식하였다.

동문밖에는 김 양식을 너무 밀식해서 하는 바람에 도다(규조)가 많이 돋아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김종구 님은 오천항 맞은쪽에서 미역양식을 하였다.

김종구 님은 1980년대부터 오천항 맞은쪽, 천북 쪽에서 미역양식을 하였다. 군대에 같이 있던 친구의 말을 들어서 시작하였는데, 미역이 잘 되어 돈을 벌었다. 미역 종묘는 남해안 강진 마량에서 키운 것을 사다가 사용하였다. 포자가 자라 날개만큼 자란 것을 사다가 양식하였다. 면사에 붙은 어린 묘를 사다가 직경 1.6cm짜리 로프에 감아 양식하였고, 로프는 매년 사용하였다. 김종구 님의 양식장에는 400m짜리 로프가 25개, 즉 10000m 길이의 로프를 늘어뜨려 양식하였다. 종묘는 처음에는 깊은 물에 넣었다가 차츰 올려주어 키웠다.

6) 오천항 서쪽 골짜기 마을

미역도 식물이라 햇볕을 많이 받아야 잘 자랐다.

생산된 미역은 홍성, 대천 등 가까운 시장과 멀리는 평택 시장까지 공급하였는데, 남해안에서 생산된 미역보다 월등히 품질이 좋았다. 물미역으로 소비하고 남은 미역은 바닷가 자갈밭에 말려 꼭지미역으로 팔았다. 꼭지미역은 말린 미역을 한 줌씩 미역 줄기로 돌려 묶은 것이다.

미역양식장은 허가 내기기 까다로웠다. 김종구 님은 남포면 월전리에 있던 양식장을 사서 운영하였으나 파도가 심해 면허를 반납하였고, 학성리 앞에 있는 허가권을 사서 오천항 맞은쪽으로 옮겼다. 당시 신규허가가 까다로워 이전만 가능했다. 그래서 오천항 맞은쪽에서는 김종구 님 혼자 미역양식을 하였다. 1995년 홍보지구사업 때문에 보상을 받고 폐업하였다.

김종구 님은 1995년 이후 낚싯배를 운영하였다.

미역양식장을 그만둔 김종구 님은 1995년부터 낚싯배를 운영하였다. 당시 오천에는 10여 척의 낚싯배가 있었는데, 그냥 어선을 가지고 낚시 손님을 받았다. 처음에는 어촌계장에게 신고하였고, 나중에는 보령시청에 신고하고 낚시 영업을 하였다.

당시에는 직장이나 가족 등 단체 손님이 많았고, 오천여인숙, 등대식당 같은 곳에 숙박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곳 주인들이 손님을 소개시켜 주었다.

당시 낚싯배들이 출조한 지역은 천수만 안쪽, 가까운 바다였고 주로 우럭이나 놀래미, 여름에는 보골치를 잡았다.

김종구 님이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였다.

1990년대만 해도 쭈꾸미 낚시를 할 줄 몰랐다. 가까운 바다에서 봄·가을로 우럭과 놀래미를 잡고, 여름에는 보골치를 잡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오천의 이재은 씨가 오징어낚시를 가지고 쭈꾸미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보고 김종구 님도 오징어낚시를 가지고 이스라지 근처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쭈꾸미 낚시는 낚시로 쳐주지 않았다. 입질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래도 낚시질이 안 될 때 쭈꾸미를 잡아 안주를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였다. 당시 쭈꾸미를 좋아하

는 손님들은 김종구 님 배만 찾아 출조하였다. 김종구님 은 쭈꾸미와 함께 갑오징어도 잡았다.

이후 쭈꾸미 낚시를 하는 배가 늘어나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면서 쭈꾸미 낚시가 보편화되었다.

오천의 머구리배는 이철주 씨가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오천에 머구리배가 처음으로 생겼다. 부산 사람인 이철주 씨의 처갓집이 오천이었는데, 이철주 씨가 머구리배를 가져와 조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천수만 입구인 보령화력발전소 앞이 홍합 천지였다. 큰 홍합이 바닥에 깔려있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다. 당시 홍합은 오래된 것이라 산호가 붙어있기도 하였다. 머구리배 초기에는 사고가 잦아 매년 몇 명씩 머구리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당시 머구리들은 자력으로 올라올 수 없어 매우 위험하였다.

잠수병에 걸린 머구리들은 다른 머구리들이 바다로 데리고 들어가 치료하였다.

머구리배 초창기에는 챔버 같은 잠수병을 치료하는 기구가 없어, 잠수병에 걸리면 잠수복을 입혀 바다로 들어가 치료하였다. 동료 머구리들이 들어가 치료한 것이다.

현재 오천에는 여러 명이 들어가는 챔버가 있다.

현재 오천보건지소에는 여러 명이 들어가는 챔버가 있다. 잠수기배 회장이 관리하며, 잠수병에 걸린 잠수요원들이 들어가 치료한다.

현재는 오천 앞바다에 홍합이 없다.

현재는 오천 앞바다에 홍합이 없다. 과거에는 바다의 바닥이 모두 홍합으로 덮여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서산AB지구 간척사업으로 유속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배관에 붙은 패류를 제거하기 위해 독극물을 쓰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오천 앞바다에서는 주벅을 많이 맸고, 고기는 오천으로 들어왔다.

서산AB지구 간척지를 막기 전에는 유속이 빨라 오천 앞바다에 주벅을 많이 맸다. 그중 월도 근처에 많이 맸고 고기도 많이 잡았다. 잡은 고기들은 모두 오천으로 들여와 판매되었다. 오천에서는 광천이나 대천으로 공급되었다.

오천항에는 금광석도 들어왔다.

옛날 오천항에는 소금과 함께 금광석도 들어왔다. 주로 천북에서 가져와 쌓아 놓았다가 제련소로 이송하였다. 김종구 님이 어렸을 때 본 기억으로는 차돌을 가져왔는데, 금돌이라고도 하였다.

오천 시가지의 매립은 해방 후에 이루어졌다.

오천 소성리 시가지의 동쪽 부분은 해방 후에 매립되었다. 성벽이 있는 산을 발파하여 기시랑차를 이용해서 운반하였다. 이때 흙을 파낸 자리에는 호남정유의 기름탱크가 들어섰다. 성벽이 있는 산을 파낼 때, 성벽 밖에서 철 꼬챙이 같은 장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오천에는 호남정유의 기름탱크가 있었다.

오천 매립지에 사용된 흙을 파낸 곳에 호남정유 기름탱크가 4~5개 들어섰다. 1960년대 말에 들어섰는데, 여수에서 3000톤급의 유조선이 기름을 싣고 와 저장하였다. 기름 종류마다 탱크가 따로 있었고, 오천에서는 자동차에 실려 장항선 일대에 공급되었다. 파이프라인이 발달되어 기름탱크는 1990년대 후반에 없어졌다.

6.25 당시 오천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왔다.

6.25 당시 오천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왔다.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황해도 옹진에서 온 경찰가족이었다. 이들은 집집마다 그냥 밀고 들어와 살았다. 김종구님 댁 사랑방에서도 살았는데 아버지는 전쟁에 참여하였고,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수복이 되자 바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수년 동안 살다가 떠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떠나기도 하였다.

김종구 님과 국민학교를 같이다닌 친구의 문자 회신에 의하면 황해도 옹진에서 경찰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고모 2분, 이모 3분 외삼촌 1분이 배를 타고 오천으로 들어와 피난하였다고 한다.[7]

서문 밖 주민들은 사리때 여파루를 많이 다녔다.

소성리의 서문 밖 주민들은 사리때 여파루를 많이 다녔다. 여파루는 사리때 무인도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서문 밖 사람들이 여파루를 많이 다녔고 다니는 배가 있었다. 먼 바다에는 나가지 못 하고 주로 안섬(가까운 섬)으로 다녔다.

서문 밖과 밤까시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였다.

오천항 주민들이 모두 어업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오천항에서도 서문 밖 주민들과 밤까시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였다. 특히 밤까시 주민들은 젖 떨어지면 배를 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주민들, 특히 동문 안쪽 산비탈에 살던 주민들은 주로 노조에 속해 부두에서 일해 생활하였다.

농사짓는 주민들은 솟재나 김신마을의 토지를 장만하여 농사지었다. 동문 밖 간척지는 소금기가 많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소성리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나무했다.

소성리 오천항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많았고, 모두 국유지여서 주민들이 나무하기는 좋았다. 다른 마을처럼 먼산나무를 다니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마을 주민들이 나무하러 왔다.

오천장은 비교적 크게 섰고 최근까지 명맥이 유지되었는데 현재는 서지 않는다.

오천장은 광천장이나 대천장만은 못하지만 크게 섰다. 천북 사람들도 나룻배를 타고 건

7) 구술채록 이후에 김종구 님이 피난왔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문자로 받은 내용임

너왔고, 교성리, 영보리, 오포리 주민들이 다 와서 크게 섰다. 최근까지도 새벽장으로 명맥을 이어가 솟재나 돌캐 주민들이 농산물을 가져오고, 읍내 상인들이 물건을 사갔었는데, 수년 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생겨 팔러오는 사람이 없어져 장이 서지 않는다.

오천항에는 큰 사고가 없었다. 주민들은 당제를 잘 지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예부터 오천항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다. 6.25 때도 큰 일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제를 잘 지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오천항에는 방앗간이 2개나 있었다.

오천항에는 방앗간이 2개나 있었다. 오천항 주민들은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지만, 천북면 학성리, 주교면 고정리 한여, 오천면 오포리 여수해 등지에서 배로 실어다 찧었기 때문이다. 이들 마을은 배로 다녀야 편리했기 때문에 방앗간에서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앗감을 가져다 찧어 주었다. 1950년대 말, 천북면 학성리 젓떼기 마을 주민의 방아를 찧어 가져다주다가 전복되어 방앗간 주인과 젓떼기 마을 주민이 모두 죽기도 하였다.

천북으로 건너다니는 나룻배 때문에 나루모조를 걷었다.

홍보지구 간척사업으로 제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오천항과 천북 사이에 나룻배가 왕래하였다. 천북에는 국유지에 만들어진 가옥이 있었고 나룻배를 두었다. 천북 나루터 주변과 오천 소성리 마을에는 나루모조라는 것이 있었다. 이장과 반장에게 주는 수당으로 이장모조, 반장모조를 걷을 때 나루모조도 걷었다. 이걸로 나룻배를 운영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배 삯을 받고, 주민들은 배 삯을 받지 않았다.

배는 천북 쪽에 대기하고 있었고, 오천에서 건너가려면 영보정 밑에서 “나룻배” “나룻배”하고 불렀다. 오천 장날이면 사람을 가득 싣고 다녔고, 소를 싣고 다니기도 하였다.

형은 재당숙 집으로 양자를 갔다.

김종구 님의 형제는 6형제여서 아들이 많았다. 반면 청소 죽림리 원죽에 사는 재당숙 집안은 6형제분인데, 대부분 자식이 없었고, 두 분이 딸 하나씩만 두었다. 6형제 모두 아들

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종구 님 댁에 많은 아들 중 하나를 달라고 하였고, 자주 왕래하여 친하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중,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었고 셋째 형이 자기가 간다고 나셨다. 국민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인데 간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죽림리 재당숙 집으로 양자를 가고 옮겨 살게 되었다. 그 후 집에 다니러 왔다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집에서 막아 그대로 살았다. 지금은 양가집 부모들이 모두 돌아가셔 친형제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 양자 간 집도 부잣집은 아니었고 그저 밥을 먹는 정도였다. 호적은 원래 생가집에 되어 있었는데, 양자 간 이후 양가집으로 옮겼다.

오천 읍내는 모두 매립한 땅이다.

오천 읍내 평지는 모두 매립한 땅이다. 읍내의 동쪽 부분은 해방 후에 매립되어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호남정유가 들어섰으며 서쪽 부분은 1970년대 말에 개인이 장비로 매립하였다. 당시 밤까시로 넘어가는 고개가 기어서 갈 정도로 가파르고 높았는데 그곳을 낮춘 흙으로 개인이 매립하였다. 읍내를 매립하기 전에는 서문 밖 동네는 안골에서부터 산 밑으로 길게 형성된 동네였다.

옛날에는 동문 안 비탈지에 많은 주민이 살았다.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마을은 남문 밖, 서문 밖, 동문 밖, 그리고 동문 안 경사지에 있었다. 이중 주민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은 동문 안 경사지였다. 남문 밖 마을에서 밤에 쳐다보면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이 별빛 같았다.

가장 컸던 동문 안 경사지 마을은 집도 작았고, 통행하기 어려워 점차 이주하여 현재는 대부분 없어지고 대나무만 남아 옛 마을임을 말해주고 있다.

서문 밖 안골에서 홍축골로 넘어가는 곳을 홍살너머라고 불렀다,

과거 서문 밖 안골에서 홍축골로 넘어가는 소로길이 있었다. 이 길을 따라 고개를 넘으면 홍살너머라고 불렀고 홍축골이었다. 옛날에도 소로였고 지금은 통행하지 않는다.

오천항 근처에는 겨울에 성애가 떠내려와 배가 다니기 곤란할 정도였다.

옛날 오천항 근처에는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와 배가 다니기 곤란할 정도였고, 김발에 걸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성애는 조금 때 상류에서 얼어붙은 바닷물이 사리 때 물이 불어나 뜨게 되고, 썰물 때 흘러내리는 것이다. 김발에 특히 피해를 주었다.

오천면과 청소면 주민들은 소영 어촌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오천면과 청소면 주민들은 어촌계를 함께 하였다. 이름을 소영 어촌계라고 하고, 청소면의 죽림리, 신송리, 진죽리, 오천면의 교성리, 소성리, 영보리 주민들이 가입하였다. 양식업을 하던 어민, 맨손어업 하는 어민,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 낚시업을 하는 어민들이 가입되어 있다. 어촌계에 가입해야 수협에서 면세유를 쓸 수 있다.

초대 어촌계장은 영보리에 살던 최영혁 씨, 2대 어촌계장은 이종구 씨, 3대 김○○씨, 4대 양석우 씨, 5대 이학 씨, 6대 김태원 씨, 7대 김종구 씨, 8대 황견성 씨였다. 현재는 오대성 씨가 맡고 있다.

현재 오천항에는 200여 척의 낚싯배가 있고 어선은 소수이다.

현재 오천항에 있는 대부분의 배들은 낚싯배이다. 낚싯배들은 대형화되고 엔진도 고출력으로 바뀌고 있다. 어떤 배는 1000마력짜리 엔진을 놓기도 하였다. 어선은 잠수기어선과 쭈꾸미 등을 잡는 소형어선인데, 아주 소수이다. 잡은 고기들은 키조개를 경매하는 곳에서 경매해서 판다.

현재 낚싯배들은 손님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다.

현재 오천의 낚싯배들은 손님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옛날에는 손님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모두 준비하기 때문에 선장은 나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선장이 밥과 음료수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오천항에는 도시락 가게가 성업 중이다. 지금도 낚싯대나 미끼는 손님들이 준비한다.

현재의 낚싯배들은 먼 바다로 나가고, 침선낚시도 한다.

낚싯배들이 과거에는 주로 천수만 안에서 활동하였다. 가까운 바다에서도 우럭이나 놀래미, 보골치 등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현재는 먼 바다까지 나간다. 격렬비열도까지 나가는 배들도 있고, 침선낚시라고 해서 4시간 정도 나가 침몰된 배에서 낚시하기도 한다. 침몰된 배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하는 낚시이다.

소성리의 부인들은 갯지렁이를 잡아 돈을 벌었다.

소성리의 부인들은 마을 앞에서 갯지렁이를 잡아 돈을 벌었다. 미끼용으로 사용했고 수출까지 되었었다. 소성리의 갯지렁이가 줄어들자 멀리 경기도의 시화호, 전라도 등지까지 다니면서 갯지렁이를 잡아 팔았다. 1980~1990년대에 1일 10여 만 원을 벌었다. 갯지렁이의 구멍은 하나로 뽕뽕 뚫려 있어 구멍이 2개인 조개구멍과 대비되었다. 갯지렁이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땅을 판 후 바로 잡아당겨야 제대로 나오지, 좀 들어간 뒤에 잡아당기면 끊어져 상품성이 없었다.

갯지렁이는 작고 발이 긴 쇠스랑으로 팠는데, 힘든 작업이어서 약을 먹으면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힘이 들어도 소득은 좋았다.

인공어초에 확실히 고기가 많다.

요즘 바다에는 인공어초를 많이 넣었다. 그래서 인공어초에 가면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다. 인공어초에서는 우럭이나 놀래미가 많이 잡힌다. 고기의 은신처와 산란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물로 끌 수 없기 때문에 고기가 많은 것이다.

옛날에는 오천항 앞에 많은 고기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옛날에는 오천항 앞에도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포구 앞에서 낙지를 잡아 팔아 자식들을 대학까지 가르친 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홍보지구 간척사업으로 제방이 들어선 뒤로, 오천항 앞에는 아무 고기도 없다. 뻘이 딱딱해져서 뻘에 사는 낙지나 게도 없어지고, 고기도 없어졌다. 어쩌다가 망둥이가 잡히는데 큰 것은 없다.

오천장에는 말강구가 있었다.

오천장에서는 이북에서 피난 온 최씨가 말강구를 하였다. 말강구는 곡식을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곡식을 사고 팔 때 되어주고 약간의 돈을 받았다. 말강구가 장날마다 곡식값을 정하기도 하였다. 말강구가 되는 데는 면장의 영향력이 있었다.

쌍오도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황새가 앉았다.

현재 쌍오도라고 부르는 두 섬을 보통 "쌍화도"라고 불렀다. 오천 쪽에 있는 섬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황새가 하얗게 앉아 있었다. 천북 쪽에 있는 쌍오도는 밀가루로 간척사업을 할 때 간척지 제방에 포함되었다.

양조장집 할머니가 유격장군비에 제를 올렸다.

오천 양조장은 고경식 씨가 운영했지만, 그 사촌형 고준식 씨 소유였다. 고준식 씨의 아버지는 일정 때 이장을 역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고경식 씨가 양조장을 운영했고, 그 큰어머니인 고준식씨 어머니가 지금 진휼청 자리에 살았다. 그분은 믿음이 있어 매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주문을 외우면서 진휼청을 돌았고, 정월 보름날에는 유격장군 비에 제를 올렸다. 제를 지낼 때는 마을 어린이들이 떡을 얻어 먹으러 몰려왔다.

당시 유격장군 비는 돌과 흙을 섞어 벽을 쌓고 지붕에 기와를 얹어 놓았었다. 양쪽 벽에는 바람이 통하는 창이 있었고, 앞쪽에는 터져있는 구조였다. 문이 없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1970년대, 고경식 씨의 큰어머니는 70대의 노인이었다.

오천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천 시내의 서쪽, 현재 기름집 있는 데서는 배를 지었다. 바닷가 노지에서 그냥 배를 만들었다. 목수는 황금천 씨가 유명했고, 젊은 사람으로는 이성로(1945)씨와 김익환 씨가 있었다. 만든 배는 목선이었고, FRP배가 나오면서 문을 닫았다.

밤까시에는 1970년대 초부터 배 공장이 있었다.

밤까시에는 1970년대 초에 배 공장이 생겼다. 완도에서 온 분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목선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FRP 배를 만들었다. 현재도 배를 수리하거나 만들면

서 번창하고 있다.

갈매못 금강조선소에서는 예인선만 만든다.

오천면 영보리 갈매못에는 금강조선소라는 큰 배 공장이 있다. 이 배 공장은 원래 오천에서 대장간을 하던 한용상 씨가 만들어 번창하다가 부도가 났고, 현재의 주인이 사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의 주인이 인수한 후, 예인선을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이 되었고 공장은 크게 발전하였다. 주인은 현재 서천군수이다.

GPS가 나오기 전에는 산가늠으로 위치를 잡았다.

과거 GPS가 나오기 전에는 바다에서 위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물을 놓거나 낚시질이 잘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방향에 따라 산과 산이 겹쳐지는 모습을 보고 위치를 잡았다. 이를 산가늠이라고 하였다. 김종구 님도 낚시 지점을 찾는데 산가늠을 이용하였다. 산가늠은 자기만 아는 것이다.

소성리에서는 지금도 바디(쪽대)로 실뱀장어를 잡는다.

오천 앞바다에서는 과거 실뱀장어를 많이 잡았다. 민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잡고, 신송리 쪽에서는 바다에서 모기장으로 주벅 같은 그물을 설치해서 잡았다. 밤에 불을 비춰 바디(쪽대)로 떠서 잡기도 하였다.

홍보지구 간척사업 이후에는 소성리 동문 밖 간척지 수문이나 홍보지구간척지 수문 앞에서 밤에 불을 켜고 잡는다. 현재도 잡는다.

오천항 안쪽에는 나비배가 많아 김 양식과 삼중망 그물 작업에 사용하였다.

오천항 안쪽,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던 분들은 집집마다 나비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비배는 판자로 네모지게 만든 작은 배로, 양손으로 노를 저어 움직이기 때문에 나비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배를 만들 때 판자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스기나무(삼나무) 껍질로 박을 쳤다. 나비배를 타고 다니면서 삼중망 그물을 설치해서 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나비배는 오천항 안쪽, 얕은 바다에서만 이용되었다.

현재 소영어촌계의 어장은 동문 밖, 홍축골, 갈매못에 있다.

현재 소영어촌계의 어장은 동문밖이 6헥타, 홍축굴이 0.6헥타, 갈매못이 3헥타이다. 이 중 동문밖에서는 바지락과 까무락을 생산한다. 바지락은 좀 깊은 물에, 까무락은 얕은 물에 서식한다. 갈매못의 어장은 썰물에 드러나는 풀등인데, 옛날에는 모래로 된 풀등이라 김발도 매고, 바지락도 있었으며, 각종 해산물이 있었으나, 홍보지구 간척사업 이후에는 완전히 무른 뻘이 쌓여 해산물이 없다.

이들 어장은 보상을 받은 지역이라 허가받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김종구 님이 홍보지구, 보령화력, 대산청에 다니면서 앞으로 민원을 내지 않고,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어장을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소성리 마을 당집은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불태웠다.

소성리 마을 당집은 김종구 님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불태웠다. 당시 우체국장의 딸과 함께 불태웠는데, 당집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불탔고, 마을에서는 다시 지어 제를 지냈었다. 지금 남아있는 벽체는 다시 지은 벽체이다.

양도래에서는 근래까지 제를 많이 지냈다.

오천항 주민들이 근래까지 제를 지낸 곳은 오천항의 서쪽 끝 양도래라고 하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기묘하게 생긴 큰 소나무가 바다쪽으로 뻗어 있었고, 이곳에 오색 천을 매달고, 촛불을 켜고 제를 지냈다. 무당들이 뚱땅거리고, 돼지머리를 버리기도 하였다. 근래까지,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까지 지냈다. 소나무는 죽어 없어졌다.

남문 안쪽에 있는 큰 샘은 1년에 1번 청소하였다.

남문 안쪽에 있는 큰 샘은 오천항에서 가장 큰 샘이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먹던 샘이다. 1년에 1번 징을 치면 주민들이 나와 샘을 청소했는데, 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양동이로 물을 퍼냈다. 그래야 바닥까지 물을 퍼내고 청소할 수 있었다.

샘에 지내는 고사는 개인적으로 지냈다. 위하고 싶은 사람은 떡을 해다 놓고 제를 올렸다.

1960년대 초, 동문밖 은골에 초분이 있었다.

김종구 님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무하러 다닐 때인 1960년대 초, 동문 밖 은골, 현재 도로가 나는 곳에 초분이 있었다. 섬에 살다 이사온 분이 만들었는데, 이엉으로 덮은 초분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가끔 둘러보곤 하였다. 뒤에 정식으로 매장하였다. 소성리에서 본 마지막 초분이었다.

오천항 마을에는 민며느리로 시집온 분이 두 분 있었다.

오천항에는 민며느리로 시집온 분이 두 분 있었다. 몇 살에 시집왔는지는 모르고, 그분들의 아들들이 현재 생존해 있다. 그 중 한 분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당했다고 전한다.

소성리에 대동계가 있었고, 대동계에는 동네집이 있었다.

소성리가 1구, 2구로 분구되지 않고 있을 때, 대동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동계는 소성리 단위로 한다. 대동계에서는 동네집을 마련하여 사람이 거주하면서 마을의 깃발 등 마을 기물을 관리하고 상여도 관리하였다. 두 집이 거주했는데 한 사람은 상여장모라고 하여 상여를 관리하였다. 상여장모는 후손도 없고 어렵게 사는 주민이 맡아서 했다. 상여장모에게는 이장 모조를 걷을 때, 반장모조, 나룻배모조와 함께 모조를 걷어 약간의 급여를 주었다. 아주 적은 액수였다.

동네집은 오천초등학교 남동쪽 끝 부분에 있었다. 동네집에서 관리하던 마을 기물은 초상 때 사용하는 삽, 가래, 상여의 윗부분인 구름자일, 가마, 마을 기 등이었다.

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걸립도 했는데 마을이 커서 하루 종일 하였다.

동네집에는 용기(龍旗)가 보관되어 있었다.

동네집에는 큰 용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용은 청색 물감으로 그렸었다. 당제 때 사용하는 깃발이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졌다.

과거에는 마을로 이사 오면 대동계에 곗돈을 냈다.

과거에는 동네집도 있는 등 동네에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로 이사 오는 집은 곗돈을

냈다. 그래야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곗돈이 별로 없어 돈을 받지 않는다. 걸립도 하지 않고 곗날 내는 희사금 등으로 운영한다.

소성리 상여를 새로 장만할 때 노인을 태우고 마을을 돌았다.

소성리 상엿집은 현재 홍축골에 있다. 전에는 동문밖 길 옆에 있었는데 혐오스럽다고 옮겼다. 상엿집에는 상여가 2틀 있다. 지금 90여 세 된 분들이 젊었을 때 바꾼 것이다. 상여를 새로 장만할 때는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을 태우고 마을을 한바퀴 돌았다. 그것이 옛날 풍습이었다.

김종구 님 집안에서는 초상 때 만든 궤연을 산소에서 태웠다.

옛날 김종구 님 집안에서는 초상을 치르고 방 안에 궤연을 만들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 3년이 지나면 궤연을 없애는데, 뜯어다가 산소에서 불태웠다.

김종구 님 집에서는 기제사 때 마루에 손님상을 놓았다.

김종구님 집에서는 기제사를 지낼 때 마루에 손님상을 꼭 놓았다. 숟가락도 놓고 제물도 차려 놓았다. 그리고 방에는 조상을 모시는 상을 차려 놓았다. 마루에 있는 상을 손님상이라고 하였다.

소성리 마을에는 왕신단지를 모시는 집이 있었다.

김종구 님이 젊었을 때 소성리 마을에는 왕신단지를 모시는 집이 있었다. 심씨네 집에서 모셨는데, 왕신단지를 모시면 끝이 안 좋다는 말들이 있었다.

소성리 마을에서는 정월보름에 풍물을 쳤고, 배에서는 중선배가 만선할 때 쳤다.

소성리 마을에는 논이 많지 않아 두레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월보름 때는 풍물을 쳤다. 걸립할 때도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쳤다.

그리고 중선배들도 풍물을 싣고 다니다가 만선을 하면 치면서 들어왔다. 깃발(붕기)을 걸고 풍물을 치면서 들어왔다. 당시 풍물을 치던 이성로 씨와 장인수 씨가 현재도 생존해

있다. 장인수 씨는 당시 화장으로 따라다녔고 이성로 씨는 배목수로 꽹과리를 잘 쳤다.

밤까시 마을에는 병원선 기지가 있었다.

밤까시 마을에는 병원선 기지가 있었다. 그곳에 있던 병원선은 공기부양선으로 엔진이 2개 있어 물 위에 뜨는 상태로 고속으로 이동하였다. 섬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실어오는 배였다. 김용환 의원이 힘써 만들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밤까시 뒤를 봉우재라고 불렀고 6.25 때 교통호를 팠다.

밤까시 마을 뒤에는 웅덩이가 파져 있었고, 그 근처를 봉우재라고 불렀다. 그리고 봉우재 부근에는 6.25 때 판 교통호가 많았다. 김종구 님 어렸을 때는 확실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 위에 웅덩이는 선림사 뒤에 있는 봉우리에도 있었다. 선림사 뒤 웅덩이 자리에는 정절각을 지었다.

소성1리 주민들은 소성1리 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수익금을 매년 배분하고 있다.

소성1리 주민들은 보령화력에서 매년 나오는 주변마을 협력기금과 발전소를 증설할 때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비를 모아 소성1리 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주는 당시 거주민으로 하였고 8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천북에 280.8킬로짜리 태양광발전소를 구입하여 매년 1억여 원의 수익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2023년에는 가구당 약 195만원이 배분되었다.

외지로 이주하는 주주는 이주 후 1년이 지나면 자격을 상실하고, 외지에서 새로 들어오는 주민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매년 주주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최 성 한 (1932년생)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면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



출생과 성장

최성한(崔城漢, 1932) 님은 경주최씨로 오천면 소성리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27세에 결혼하여 남매를 두었다. 첫 부인은 29세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고, 둘째 부인도 근래 사망하였다.

오천에서는 대대로 살아와 14대조 할아버지의 묘가 이웃한 천북면 학성리 젓떼기에 있고, 과거에는 10여 가구가 오천에 거주하였다. 조상들이 충청수영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증조할아버지가 오천군의 좌수를 했다고 전해진다.

어려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오천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을 했으며 군생활을 마친 후, 우체국에 집배원으로 들어가 정년퇴직하였다. 퇴직 후에는 노인회장, 마을 동계장 등을 맡아 마을일을 하였다.

최성한 님은 충청수영 성벽에 지은 집에서 살았다.

최성한 님은 어렸을 때 가난하여 충청수영 성벽에 지은 집에서 살았다. 동문과 성벽에 의지하여 북쪽에 지었는데, 방 2칸 부엌 1칸의 작은 집이었다. 방도 7자방으로 아주 작았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성문 출입구 옆에 있는 돌에까지 떼우적을 쳤는데, 지나는 사람들이 담뱃불을 던져 화재를 몇 번 당하기도 하였다. 물은 동문밖 마을에서 길어다 먹었다.

최성한 님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동문 안쪽에 집들이 밀집되어 처마밑으로 다니면 비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동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교성리 김신마을 학생들도 이곳으로 오천국민학교를 다녔다. 저녁이 되면 동문 위에 밀짚방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았다. 바람이 시원하게 닿았기 때문이다. 최성한 님 집은 워낙 좁아, 형님을 결혼시키기 위해 동문밖에 좀 큰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오천초등학교 신사는 학교 운동장 동쪽에 있었고, 오천면 신사는 학교 뒤, 현재 영보정 부근에 있었다.

최성한 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되었다. 해방 전, 일제강점기에는 운동장 동쪽, 현재 은행나무 있는 자리에 신사가 있었고, 오천면의 신사는 현재 영보정 서쪽에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 안의 신사에 참배하고, 특별한 날에만 오천면 신사에 참배하였다. 두 신

사의 크기는 비슷했으나 면 신사가 약간 컸다.

양주조씨네 묘는 4개가 동서남북으로 있었다.

오천에 양주조씨네 묘는 모두 4개가 있었다. 하나는 영보정 밑에 있었고(서), 하나는 동문 안쪽, 현재의 교회 서쪽에 있는 집자리에 있었다(북). 이 묘지 부근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같은 나무가 있어 그네를 매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의 동남쪽 모서리 안쪽에도 있었는데(동) 묘지가 상당히 컸다. 이곳에서 최성한 님이 말라리아를 낫게하기 위해 재주를 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의 남쪽에도 있었는데(남) 이곳만 성 밖에 묘지가 있었다.

이들 묘지는 최성한 님이 학교 다닐 때 모두 옮겨갔는데 지금 진휼정 건물에 관을 쌓아두었다가 가져갔다. 진휼청도 양주조씨네 건물로 알고 있었다. 양주조씨네 묘지 관리는 고씨네 집에서 했다.

오천국민학교에 있던 수산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산관계 고위직으로 일했다.

최성한 님 어렸을 때, 오천국민학교에 수산학교가 있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수산학교를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수산업계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다. 최성한 님의 당숙인 최인환씨도 수산학교를 졸업하고 어업조합 이사, 도청 수산과 등에 근무하였다.

동문 밖 간척지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합자로 만들었는데, 공사 중 인부 한 사람이 죽었다.

동문 밖 간척지는 1932년생인 최성한 님 대여섯 살에 막았다. 심씨라는 한국인과 서군장(리시군조)이라는 일본인이 합자해서 막았는데, 제방을 만드는 공사 중에 인부 1명이 매몰돼 숨졌다.

당시 흙은 간척지 제방 동쪽에서 팠는데, 산 사면의 아래를 파 들어가 무너뜨려 밀차로 실어 날랐다. 이때 무너지는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간척지를 막은 일본인은 간척지 저수지 제방 동쪽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해방 후 이 집은 마름의 소유가 되었고, 후에 시내로 옮겼다. 간척지에는 염기가 많아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최성한 님은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천북에서 농사를 지었다.

최성한 님 집은 천북 나룻터 옆 원굴에 논이 있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룻배 모조로 1년에 보리 1말씩을 내고 다녔다. 나룻배는 10여 명이 탈 수 있는 배로, 풍선배였다. 하루에 10여 번 다녔다. 논을 갈기 위해서 소도 나룻배를 탔는데, 묶어 매지 않고 잘 달래서 싣고 다녔다. 소도 숙달이 돼서 잘 다녔다.

최성한 님은 1932년 12월 생으로 휴전직후에 입대하였다. 친구들은 전쟁 중에 입대하여 많이 죽었고,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산 사람도 있다.

최성한 님은 1932년생으로 6.25전쟁 막바지에 입대 대상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전쟁 중에 입대하여 죽은 사람도 많다. 허환이라는 친구는 북한에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다가 가족상봉 때 오천에 사는 이종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최성한 님은 생일이 늦어 휴전 직후에 입대하였다.

군대생활은 5년 동안 하였다.

최성한 님은 휴전 직후에 입대하여, 소양강 주변에 있는 공병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다. 당시는 모두 5년 후에 제대했는데 계급은 1등 중사였다. 22살에 입대하여 27살에 제대하였다.

군대 가기 전에 강의록으로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6.25로 좌절되었다.

최성한 님은 국민학교 때 공부를 잘 했다. 그래서 혼자서도 독학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강의록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강의록은 1번 받아보고 6.25가 터져 돈만 날리고 말았다. 그래서 공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농사일이 어려워 책을 읽기도 어려웠다.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오자 대한청년단 단원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6.25 직전 오천에도 대한청년단이 조직되었다. 단원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최성한 님은 가장 어린 나이로 36명이 받는 간부훈련까지 받았다. 간부훈련은 주로 제식훈련이었다.

인민군의 오천 점령이 가까워 오자, 대한청년단이 소집되었고 장항으로 피난을 갔다. 최

성한님은 장항 제일국민학교에서 아침점호를 할 때, 햇볕을 받고 쓰러져 낙오하였고, 동료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게 되었다.

국도를 피해 내륙으로 북상하다가 도화담에서 외산 쪽으로 이동하는 인민군 행렬을 만나 계곡에 숨었다가 빠져나왔고, 청라 옥계를 통해 집으로 돌아왔다. 대천으로 들어가면 인민군에게 잡힐 것 같아 돌아서 온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벌써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좌익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최성한 님은 인민군 치하에서 밤에 보초를 섰다.

오천에 들어온 인민군들과 지역 공산주의자들은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여 궐기대회를 하고, 밤에 보초를 서게 하였다. 밤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최성한 님은 북문재에서 보초를 섰다. 무기는 없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죽은 사람은 없고, 수복 후에 부역한 사람들이 잡혀가 돌아오지 않았다.

인민군 치하에서 죽은 사람은 없었으나, 인민군이 퇴각한 후에, 인민군에게 협조한 부역자들이 잡혀갔는데, 2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대천 농협창고에 가두었다가 배에 싣고 가 수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해방 후 오천에는 염수납장이 있었다.

해방 후 오천에는 염수납장이 있어 많은 소금이 유통되었다. 당시 소금은 전매품이었고, 멀리 서산에서까지 생산된 소금을 오천으로 가져왔다. 염수납장을 운영한 사람은 안기수 씨였고 20여 명의 노조원들이 일했다. 오천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염수납장에서 소금 가마를 날랐다.

소금은 배에 싣고 와 쌓아 두었다가 자동차로 운반하였다. 당시 오천에는 몇만 가마의 소금이 쌓였었다.

오천 시내 동쪽은 여러차례 매립하였다.

오천면 소성리 동쪽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매립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얕게 매

립하였다. 어떤 때는 염수납장에 바닷물이 들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염수납장이 없어지면서 다시 매립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강경환이 운행되었고, 해방 후에는 몽선환이 운행되었다.

최성한님이 기억하는 객선은 강경환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섬 지역과 오천 사이를 운항하였다. 강경환 이후에는 몽선환이라는 배가 각 지역을 운항하였다.

섬의 우편물은 청부집배원이 배달하였다.

오천우체국에서 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와 안쪽에 있는 작은 섬들을 모두 관할하였다. 이들 섬의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배달할 수가 없어, 각 섬에 청부집배원을 두고 배달시켰다. 청부집배원이 우체국에 와서 우편물을 가져다가 배달하였는데, 매일 오지는 않고 며칠마다 들러 가져갔다.

최성한 님은 27세에 결혼하여 34세 때 부인이 사망하였다.

최성한 님은 제대한 후, 27살에 22살 처녀와 결혼하였다. 구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가마는 없었고, 트럭을 빌려 신부를 태워왔다. 결혼 후 3남 1녀를 낳았는데, 막내딸을 낳다가 산고로 사망하였다. 부인이 29세 최성한 님이 34세 때였다. 막내딸은 형님과 형수님이 밥물을 받아 키웠으나 두어 달 후 사망하였다.

이향우 씨는 6.25 때 인민군에게 묶여가다가 인민군을 제압하고 살아 나왔다.

이향우 씨는 오천양조장의 조카사위였다. 오천에서 살았고 중선배 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벌지는 못했다. 6.25 때 이향우 씨와 다른 경찰들이 삽시도에서 인민군에게 잡혀 손이 묶인 채 끌려오다가 배에서 손을 풀고, 인민군을 제압한 후 살아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6.25당시에도 널리 알려졌다.

오천에는 석면과 금이 들어와 배로 실어 나갔다.

오천에는 광천에서 석면이 들어오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금광석도 들어와 배로

실어나갔다. 이런 광석들은 자동차로 실어와 쌓아 두었다가 큰 배가 들어와 실어갔다. 최성한님 은 일본으로 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천에는 최성한 님 아버지 세대에 해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천보다 오천의 항구조건이 좋아 큰 배가 들어온 것이다.

오천항에서 시멘트를 실은 배가 가라앉았다.

시멘트를 가득 싣고 온 배가 오천항에서 가라앉은 일이 있었다. 최성한 님 어렸을 때 이야기이다. 이때 잠수부를 동원하여 시멘트를 꺼내기도 하고 바다에 흩어놓기도 하여 배를 건졌다. 시멘트는 물에 들어가 사용할 수 없었고, 이후 주민들이 굳은 시멘트를 주워다 담장을 쌓기도 하였다.

소성리 마을의 당제는 어른들이 지냈고, 최성한 님이 대동회장을 할 때는 당집 자리에서 주과포를 차려놓고 간단하게 지냈다.

소성리 마을 당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냈다. 최성한 님 아버지 세대에서 지냈는데, 당젯날 당집에서 티밥 하나만 주워먹어도 새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 축문에는 충청수영에 근무했던 장군들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집이 불타면서 없어졌다. 당집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홍준우)에 의해 불탔고, 불탄 후에는 당제를 간단하게 지냈다. 최성한 님이 대동회장을 할 때도 당집 자리에서 주과포를 놓고 간단하게 제를 올렸다.

최성한 님은 소성리 노인회장, 대동계장을 맡았다.

최성한 님은 우체국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 노인회의 총무를 맡았고, 이어서 노인회장을 8년간 맡았다. 그리고 보령시 노인회의 부회장, 고문도 맡았다. 노인회 일을 16년이나 하였다.

노인회 일을 마친 뒤에는 마을 대동계장으로 4년간 일했다. 대동계장을 맡고 보니 마을에서 관리하던 용대기와 가마는 없었다. 용대기는 전에 이장을 맡았던 분이 팔았다고 알고 있다.

소성리 마을의 용대기는 용을 앞뒤로 그린 큰 깃발이었다.

소성리 마을의 용대기는 물감으로 용을 제대로 그린 큰 깃발이었다. 양쪽면에 각각 1마리의 용을 그렸는데, 동네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없어졌다.

오천양조장집 할아버지가 오천 초대 면장을 하였다.

오천의 부자 성씨는 고씨이다. 고씨네는 양조장을 하였고, 양조장집 할아버지가 오천 초대 면장을 했다. 초대 면장은 아들이 4형제인데, 모두 부자로 살았다. 양조장은 초대 면장의 큰아들 고인제 씨가 만들었다.

옛날 오천사람과 주포사람은 갈등이 많았고, 양주조씨가 묘를 쓰러 오는 바람에 주포사람과 오천사람이 남문에서 충돌하였다. 이런 일로 주포와 오천은 혼인도 하지 않았다.

옛날 오천의 충청수영과 주포의 보령현은 갈등이 많았다. 충청수영의 세력이 커, 중간에서 죄인을 잡아도 오천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주포사람과 오천 사람이 크게 싸운 것은 양주조씨가 묘를 이장했기 때문이다. 양주조씨들이 충청수영 자리에 묘를 이장하는데 동서남북에다 이장하였다. 소성리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싫어했고, 양주조씨들은 보령현감과 주포의 청년들을 앞세워 들어왔다. 이때 오천의 청년들은 모든 대문을 걸어 잠갔고, 남문에서 충돌하였다. 오천의 청년들은 성벽에서 돌팔매질을 하였고, 주포의 청년들과 보령현감은 남문 앞에 있어 현감이 다칠 지경이었다. 이에 성문을 열어주자 들어온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준 사람을 때려죽였다. 이때 오천 청년들은 배를 타고 섬으로 피하였고, 오천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

마을을 점령한 주포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부수고, 여자들을 주포 보령현으로 끌어다가 유치장에 넣었다. 남편들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자들이 주포에서 10여일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런 일 때문에 소성리 동문안에 있은 옛집들의 문살이 모두 부서졌다. 최성한 님이 어렸을 때도 모든 집의 문살이 부서졌고, 주포 사람들이 부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최성한 님 할머니가 들려주었다. 최성한 님 할아버지도 섬으로 도망갔고 할머니도 보령현에 10여 일간 잡혀갔었다.

서기 박계영이 오천군 만드는데 수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오천에 있는 비석 중, 서기 박계영 비가 있다. 최성한 님은 어렸을 때, 박계영이 오천군을 만드는데 운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성한 님 아버지는 데릴사위로 장가들었다.

최성한님 아버지는 최성한 님(1932)님보다 40살이 위인데 데릴사위로 장가들었다. 아버지한테는 형님이 한 분 있어서 형님이 할아버지·할머니를 모시거나 집안 제사를 지낼 수 있어 데릴사위로 장가들 수 있었다.

처갓집은 면천복씨 댁으로, 장인이 오천면의 면서기였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와 15세쯤 되는 처녀, 그보다 나이가 더 적은(8살 정도) 여자 어린이만 남았다. 그래서 15살 짜리 처녀를 시집보내면서 최성한 님 아버지를 데릴사위로 맞이하였다. 당시 최성한 님 아버지의 나이는 신부보다 7살 많은 22세였다. 집안에 남자가 없어 청년을 데릴사위로 데려온 것이었다.

데릴사위로 들어온 최성한 님의 아버지는 처갓집에서 일하면서 살림을 하였으나 곧장 결혼생활은 할 수 없었고, 신부가 19세가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린 후 결혼생활을 하였다. 이후 최성한님의 누나(1921), 형님(1927), 최성한 님이 태어났다.

양주조씨네가 사패지로 받은 땅은 묘지와 산이 있었다. 성안에 있던 마을은 아니었다

양주조씨네가 사패지로 받은 땅은 성 안에 있던 묘지 3곳과 성 밖에 있는 넓은 산이었다. 성 안에 있는 묘지 자리는 대부분 좁았고, 성 밖에 있는 산은 아주 넓었다. 사패지로 받은 산은 성의 남쪽부분에서 선림사에 이르는 땅이었다. 산에도 묘지 하나가 있었다.

동문 안쪽, 산비탈에는 많은 가옥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옥은 모두 개인소유였다. 양주조씨의 소유가 아니었다.

충청수영성 서남쪽 언덕에서 화살촉을 주워 놀았다.

최성한 님 어렸을 때, 충청수영성 서남쪽 언덕에서 한 뼘이나 되는 화살촉을 주워 놀았다. 그곳에 군기창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화살촉이 출토되어 어린이들

이 가지고 놀았다.

현재 오천농협이 있는 자리는 방죽이었다.

옛날 최성한 님이 어렸을 때 농협과 우체국 자리는 방죽이었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으나 점점 매립하여 방죽이 되었던 것이다. 아주 옛날에는 남문 안에까지 사리때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오천에는 샘물이 귀했다.

오천에는 샘물이 귀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문 옆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학교에서나 양조장에서 샘을 팠으나 물에 염기가 있고 맛이 없었다. 양조장에서는 마차와 마부를 두고 원전에서 나오는 물을(원전약수) 술통에 담아왔다.

남문 옆에 있는 샘이 가장 큰 샘인데, 칠월칠석 때 풍물을 쳐 물이 잘 나오도록 빌었고, 개인적으로 위하는 집도 있었다.

동문 쪽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동문 밖 현재의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샘물을 길어다 먹었다.

오천에는 5개의 문이 있었는데, 동문은 불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최성한 님은 어렸을 때 오천에 5개의 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전해지는 문 4개와 서문 밖 마을로 통하는 서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소문 자리는 매립 매립으로 없어졌다. 특히 동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성한 님도 남문과 서문의 문루를 보지는 못했다.

현재 객사 앞에 있는 삼문은 동네집 앞에 있었고, 2층으로 만들어 위층은 다락이었고, 아래층에 동네 기물을 보관하였다.

현재 객사 건물 앞에 있는 삼문은 최성한 님 어렸을 때도 동네집 앞에 있었다. 당시 삼문은 2층으로 만들어 위층은 다락으로 사용하였고, 아래층은 가마 등 동네 기물을 넣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삼문이 어디에 있다가 동네집 앞으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옛날 오천우체국에는 집배원이 3명 있었고, 격일제로 천북면까지 배달하였다.

옛날 오천우체국에서는 오천면의 육지와 천북면까지 관할하였는데, 3명의 집배원이 격일제로 배달하였다. 오천면의 육지에서는 동문밖-신촌-도미항-소루꾸지-웅포-호접동-간사지-돌고개-산수굴-연정동-칙머리-가줄 코스와 솟재-김신-향교굴-지장굴-가그말-매미굴-수청구지-짚은굴-여수해-수청구지-섶바탱이-가숭구지-수해-갈망시 코스로 2사람이 배달하였고 시내는 또 한 사람이 배달하였다.

천북면은 나룻배 타고 건너가서 한 사람이 젓떼기-회변-젓떼기 아래-맨아박굴-밤섬-중낭굴-사호리 사기점-통개-직께-여르무니-아래늘무니-위늘무니-장은리 숨은개-진고지 코스를 담당하고, 한 사람은 궁포리-신덕리-신죽이-낙동리-하만리를 돌아왔다.

학성리 쪽은 너무 멀어 배달을 하고 나면 나룻배가 끊겨 오천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래서 중간에서 자고 다음 날 돌아오는 소위 숙박구역이라고 하였다. 숙박하는 비용은 우체국에서 부담하였다.

집배원들은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녔다. 보령화력발전소 공사 때에는 공사장 식당에서 얻어 먹을 수 있었다.

집배원들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우편물과 점심 도시락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거워 도시락을 늘 일찍 먹었다. 보령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때에는 여수해에 인부들의 식당이 있었는데, 집배원에게 무료로 점심을 주었다. 공사기간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좋았다.

오천에서는 해방 당시 풍물을 치면서 기뻐했고, 일본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오천에서는 해방 사실을 곧바로 알았다. 당시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우체국에 전화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자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기뻐했고,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풍물꾼들의 뒤를 따랐다. 풍물꾼들은 산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풍물을 쳐 먼 마을까지 들리게 하였다.

당시 오천에 살던 일본사람들을 학대하지는 않았다. 교장이나 면장은 한국사람이 하였고, 인본인 선생들에게도 학대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국인 선생들은 바로 한글을 가르쳤다.

해방 후 동문 밖 간척지를 만든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집은 마름이 차지하였다.

해방 후, 동문 밖 간척지를 만든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간척지 안, 저수지 제방 동쪽에 살았는데 집을 마름에게 주고 돌아갔다. 집을 인수한 분은 이후 뜯어 오천 장터로 옮겨 살았다. 일본 사람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서운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6.25 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호파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최성한님은 6.25 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호 파는 일에 동원되었다. 상사봉 근처에서도 팠고, 솟재 서쪽 능선에서도 팠다. 가까운 곳은 집에서 다니면서 팠는데, 주포면 고정리 한여에서 팔 때는 식량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먹으면서 팠다. 한여에는 인민군이 직접 와서 호 파는 것을 지시했는데, 가까운 마을 민가에 쌀을 가져다 주어 먹고자고 하면서 일을 하였다. 약 1주일간 일했다. 한여에서 만난 인민군들은 괴롭히지 않고 점잖았다.

상사봉과 봉우재의 꼭대기에 있는 웅덩이는 6.25 직전 대한민국 정부에서 팠다.[8)]

선림사 위 상사봉과 밤까시 마을 뒤 봉우재 꼭대기에는 큰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이 웅덩이는 6.25 직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토치카로 만든 것이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토치카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상사봉 꼭대기에는 돌이 많아 발파하였고 오천 윤면장의 아들이 감독하였다. 최성한 님이 직접 보았다고 한다.

오천에서는 청년단장이 인민군에 협조하고 실종되었다.

6.25전 오천면의 청년단장은 영보리 섶바탱이에 사는 사람이 했다. 500석 정도 하는 부

8)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사봉과 봉우재의 꼭대기에 있는 웅덩이는 대원군 시절, 외양선의 침입을 막기 위한 포대를 만들기 위해 판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웅덩이는 웅천면 소황리 종달산 꼭대기에도 있다.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만든 것은 확실하나 6.25직전에 윤면장의 아들이 감독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였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인민군 치하가 되었을 때 인민군들에 협조하여 위원장이 되었다. 수복 후에는 자취를 감추었고, 금융조합에 다니던 그의 형이 붙잡혀가 고생을 많이 하였다.

영보리 가숭구지에 콜레라가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최성한 님의 기억으로 어렸을 때, 영보리 가숭구지 마을에 호열자(콜레라)가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마을도 작은데 마을 사람들을 쓸어내다시피 하였다. 가숭구지에는 나중에 천연두도 들어왔다.

1941년 최성한 님 큰집에는 장티부스가 들어와 4명의 가족이 죽었다.[9)]

1941년 최성한 님 큰집에 장질부사(장티부스)가 들어왔다. 당시 4촌 형이 촉망받는 분이어서 정부에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나가서 합숙하다가 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돌아온 것이었다.

이후 장질부사로 밝혀졌고 가족들이 감염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최성한 님의 할머니가 죽고,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죽고, 부모를 잃은 어린 4촌, 가족 10명 중 4명이 죽었다. 면에서는 병에 걸린 가족들을 동문 밖 병막(현재 농협창고 위)으로 옮겼고, 환자들은 최성한 님의 부모가 다니면서 보살폈다.

당시 죽은 사람들은 마을 주민 2명이 들것에 담아 교성리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장례절차도 없이 매장하였다. 가족들에게 원이 되어 해방 후에 새롭게 마련한 묘지로 이장하면서 상여를 사용하였다.

오천장은 조선시대에는 수영성 남문 안쪽의 저잣거리에 섰고, 일제강점기에는 매립지인 장터에 섰다.

오천장은 옛날 충청수영이 있던 시절에는 남문 안쪽의 저잣거리에 섰고, 일제강점기 이

9) 필자가 제적부를 확인하여 연도 확인

후에는 매립지인 장터에 섰다. 상권은 오천면의 육지지역, 천북면의 학성리, 사호리, 하만리, 안면도, 효자도, 원산도 등이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천북 주민들 때문에 나루터가 붐볐다.

최성한 님이 사는 집은 일제강점기 구세군교회 자리이다.

최성한 님이 사는 집은 일제강점기에 구세군의 영문이 있었다. 누나가 업고 늘 교회에 나갔다. 이후 교회는 개인에게 땅을 팔고 서문 밖으로 이사하였다.

소성리의 기우제는 최성한 님 아버지 세대에 삼봉재에서 지냈다.

소성리 마을의 기우제는 최성한 님 아버지 세대에서 지내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다. 여름에 날이 가물면 보릿짚을 한 다발씩 지고 올라가 불을 놓고 지냈다. 주로 남자들이 올라가 지냈고, 여자들이 키로 물을 까부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 최성한 님 세대에서는 지내지 않았다.

최성한 님 댁에서는 기제사 때 손님상을 차렸다.

최성한 님 댁에서는 기제사를 지낼 때, 방에 조상님을 위한 상을 차리고 마루에 손님상을 차렸다. 마루의 손님상은 간단한 제물로 차렸다.

최성한 님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제사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최성한 님의 아버지는 데릴사위로 장가들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외가의 제사를 모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셨다.

천북에 있는 외가 산소도 관리했는데, 어느 해 천북에 있는 외가 친척이 외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다니지 않았다.

최성한 님 어렸을 때 마을에서 공치기를 많이 했는데, 최성한 님은 참여하지 않았다.

소성리 마을의 청년들은 옛날 나무하러 다닐 때, 중간에서 공치기를 하였다. 공을 깎아

만들고 작대기로 치는 놀이인데 최성한 님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때는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소성리 성안마을 어린이들은 밭둑을 태우면서 쥐불놀이를 하였고 동문 밖 어린이들과 싸움을 하였다.

소성리 성안, 동문 안 비탈에 사는 어린이들은 논이 없어 밭둑을 태우면서 쥐불놀이를 하였다. 쥐불싸움은 동문 밖 어린이들과 했는데, 불보다도 돌을 던져 위험하였다. 동문 안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아 싸움이 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쌍오도는 어렸을 때도 쌍오도라고 불렀다.

오천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섬, 쌍오도는 옛날에도 쌍오도라고 불렀다. 다른 이름은 없었다. 최성한 님은 오자가 가재오자이고, 오천의 지명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

옛날에는 '시리붙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옛날, 최성한 님이 어렸을 때는 입 안에 볼록하게 물이 잡히는 일이 많았다. 이것을 '시리붙었다'라고 하였다. 많이 사용한 말인데 요즘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 소성리의 변소에는 주로 항아리를 묻었고, 잿간변소를 사용하는 집도 있었다.

최성한 님이 동문 안에 살 때, 산비탈에 있는 집들의 변소는 대개 항아리를 묻었고, 어떤 집에서는 잿간에 돌을 놓고 용변을 보아 재에 넣는 잿간변소도 있었다. 항아리를 묻는 집이 많았다.

간첩선을 신고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은 대개 돈을 모으지 못했다.

오천 소성리에는 과거 간첩선을 신고해서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여러 사람들이 받았는데 대개 돈을 모아두지 못했다. 쉽게 생긴 돈이기 때문에 헤프게 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돈을 모아두어 부자가 되었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양주조씨 집안에서 사패지로 받은 산은 광천에 사는 일본인 석면업자에게 팔아 국유지가 되었다.

양주조씨 집안에서는 충청수영 안의 묘지 자리와 밖에 있는 산을 사패지로 받았다. 성안에 있는 땅은 좁았지만, 사패지로 받은 산은 넓었다. 성의 남벽 너머에서 동쪽으로 상봉, 상사봉, 선림사 부근까지가 모두 사패지로 받은 산이었다. 이 산은 일제강점기 광천에 살던 일본인인 석면광산 업자에게 팔았고, 해방 후 적산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국유지이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 군함이 침몰하여 영보리 앞에 군인들의 시신이 떠다녔다. 오천 경방단에서 14구를 건져다가 갈매못에서 화장하여 묻었다.

일제강점기 말, 어디서 침몰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군함이 침몰하여 시신이 떠다니는 일이 일어났다. 오천의 소방대원인 경방단이 출동하여 시신 14구를 수습하였고, 영보리 갈매못 해안에서 밤에 화장하였다. 화장하는 불빛이 최성한 님 사는 동문근처에서도 환하게 보였다. 화장한 유골은 현재 갈매못 교회 북쪽 5부 능선 아래에 묻었는데, 갈매못에 모심기 봉사를 나가던 오천국민학교 학생들이 길에서 그쪽 방향으로 묵념하였다. 그때 시신 1구는 꼭 조선사람 같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침몰한 배 이름도, 수습된 군인 이름도 알지 못했고, 유골을 묻은 곳에 비석도 없었다.

해방 직후, 소성리에 문둥병 환자가 들어와 살았다.

오천초등학교 뒤에 옛날에는 민가들이 있었고 거기에 문둥병 환자가 이사와 살았다. 아버지와 부부, 자식(남매)들이 있었는데, 남자 혼자만 문둥병에 걸렸고 나머지 가족들은 건강했다. 관에서 환자를 수용소로 데려갔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곳에서 살았다. 자식들도 성장하여 외지로 나갔다.

현재 오천군 객사 아래에 있는 비석군은 원래 오천초등학교 동북쪽 길 밑에 있었다.

현재 오천군 객사 아래에 많은 비석들이 한 줄로 서 있다. 이들 비석은 최성한 님이 어렸을 때는 오천국민학교 동북쪽 길 밑에 있었다. 현재 자동차가 통하는 길 밑에도 집들이 있

었고, 길 밑에 한 줄로 서 있던 것이다. 학교를 확장할 때 비석을 옛 면사무소 옆에 옮겼고, 면사무소를 다시 지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면사무소 자리는 현재 주차장이 되었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고 경 식 (1933년생)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 양조장의 운영과 소성리 주민들의 생활



출생과 성장

고경식(高璟植, 1933)님은 제주고씨로 5대조 할아버지가 해미쪽에서 이주해 왔다고 전한다. 이후 계속해서 오천에 거주하였다. 할아버지는 고봉진(高鳳鎭)인데 일제강점기 초대 오천면장을 역임하였고, 동문 안 비탈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4형제 중 막내로 오천공립보통학교와 예산농업을 졸업하고 금융조합에 근무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래서 고경식 님은 광천에서 출생하여 천안에서 성장하였다.

고경식님은 4남 중 장남으로 출생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인 오천으로 들어와 오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하였다. 28세부터는 큰집에서 운영하던 양조장을 맡아 60세에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다.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는 2남2녀를 두었다.

고경식 님의 셋째 아버지는 오천우체국장을 역임하였다.

고경식 님의 셋째 아버지는 오천공립보통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천북면사무소, 보령군청,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오천에서 우체국을 사서 운영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사설우체국이었는데, 5.16 혁명 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우체국으로 변하였다. 우체국 자리는 현재 농협 앞, 대밭 있는 곳이다.

고경식 님 큰아버지(고인제)는 오천양조장(소양양조장)을 운영하였다.

고경식님의 큰아버지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양조장사업을 하였다. 오천에 양조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돌아가신 후, 1960년부터 양조장을 조카인 고경식님이 운영하였다. 큰아버지의 아들은 공군 대령을 거쳐 포항제철 부사장, 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양조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고경식님은 1992년까지 양조장을 운영하고 폐업하였다.

고경식님의 4촌 형(고준식)님은 포항제철 사장을 역임하였다.

고경식 님의 4촌 형인 고준식 님은 오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경기고보, 경성법전을 졸업하였다. 6.25 때 피난을 하면서 공군에 입대하여 대령까지 진급하였고, 국방부에 근무하였다. 예편 후에는 대한중석에 근무하였다. 그리고 박태준 포철사장

과 함께 포항제철 건립에 참여하였다. 이후 박태준 사장 뒤를 이어 포철 사장이 되었다. 영보정 근처의 땅을 양주조씨한테서 산 분이 고준식 님이다.

영보정 부근에는 신사와 송탄유를 내는 곳이 있었다.

현재의 영보정 아래에는 양주조씨네 묘와 오천면의 신사가 있었다. 신사는 북쪽 편에 있었고, 송탄유를 만드는 곳도 있었는데, 송탄유는 학생들이 솔괭이를 가져다 모아 송탄유를 만들었다, 군대에서 사용하였다. 해방 후에 신사를 파괴하는 사람은 없었다. 조용하였다.

고경식 님은 국민학교 6학년 때 해방되었고, 18세 때 6.25가 일어났다.

고경식 님은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오천으로 전학하였고, 6학년 때 해방되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세뇌되어 일본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패전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6.25는 18세(집 나이)에 일어났는데, 친구들 중에는 입대해서 죽은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이 탄 배가 침몰하여 많은 일본군의 시체가 갈매못에 떠밀려 매장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원산도 근해에서 일본군이 탄 배가 침몰하였고, 갈매못에 떠밀린 시신을 소방대에서 수습하여 갈매못 산에 묻었다. 당시는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고경식 님은 휴전 후 공군에 입대하여 김해 비행장에서 사진병으로 근무하였다.

고경식 님은 휴전후 공군에 입대하여 김해 비행장에서 사진병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사진병 교육에서 1등하여 조교 겸 실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주로 영사기를 돌리는 일이었는데, 부대에서 인정을 받아 4촌 형이 공군본부에서 데려가려고 했어도 부대에서 보내주지 않았다.

양조장의 술은 쌀, 옥수수, 밀가루 등으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양조장의 술도 쌀로만 만들었다. 쌀이 아니면 술을 만들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쌀이 부족하자 옥수수, 밀가루 등으로 만들었다. 이때마다 양조시험소에서 교육을 시켜, 제조법을 알려주었다. 밀가루로 만들기가 쉬웠고 술찌게미도 적게 나왔다.

양조장의 술은 효모를 사다가 밑술을 만들어 제조하였다.

양조장의 술은 처음에 효모를 사다 만들었다. 효모는 양조장들이 같은 곳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전국의 양조장 술이 같은 효모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효모를 이용해서 1/10 미만의 밑술을 담아 술을 제조하였다. 밑술도 1차, 2차 밑술이 있었다. 쌀을 가져다 술을 만들기까지 약 1주일이 걸렸다. 효모를 정곡이라고 불렀다.

오천양조장은 오천면의 육지를 상권으로 하였다.

오천면에는 육지에 양조장이 하나 있었고, 섬에는 삽시도와 원산도, 외연도에 있었다. 오천양조장은 오천면의 육지지역을 상권으로 하였다. 부근에 있는 주포양조장과 경쟁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 경쟁하지 않았다.

오천양조장에서는 소주도 취급하였다.

오천양조장에서는 소주도 잠깐 취급하였다. 당시 소주는 양조장에서 증류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을 가져다가 희석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소주공장에서 각종 향신료 등을 넣지만 당시는 일체 넣지 못하고 물로만 희석해서 도수를 맞추었다.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넣지 못하게 했다. 소주는 다라라고 하는 원통형 도기에 담아 팔았다. 타산이 맞지 않아 잠시만 취급하였다.

오천양조장에서는 물이 문제였다.

오천양조장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문제였다. 처음에는 성 밑 동네 샘 근처에 샘을 파서 길어다 사용했고, 전기가 들어온 뒤에는 샘에 모터를 놓아 끌어다 사용하였다. 날이 가물면 원전약수에서 길어오기도 하였다.

술 배달은 지게, 자전거, 경운기, 자동차로 하였다.

오천양조장에서는 술을 배달해서 팔았다. 처음에는 지게로 져다 팔았고, 다음에는 자전거로 실어날랐다. 1970년대 경운기가 나온 뒤에는 경운기에 싣고 다녔고, 마지막에는 자동차로 운반하였다. 배달하는 직원이 있었다.

고경식 님 큰어머니가 진흘청에 기거하면서 계금장군청덕비에 1년에 몇 차례씩 범벅으로 제를 올렸다.

고경식 님의 큰어머니, 즉 양조장을 만든 고인제 님의 부인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양조장에 살았다. 지금 진흘청에서 기거하면서 1년에 몇 번씩 계금장군청덕비에 제를 올렸다. 이때 제물은 반드시 범벅을 올렸다. 범벅은 밥보다는 묽고, 죽보다는 된 것이었다. 진흘청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많이 왔었고, 큰어머니는 90 이상 살았다.

해방 당시 오천국민학교에 걸려있던 일본 국기를 오천 지서장이었던 일본 사람이 가져갔다.

해방 당시, 오천국민학교 국기계양대에 걸려있던 일본국기를 오천 지서장이었던 일본 사람이 가져갔다. 한국 사람들이 훼손할까봐 가져간 것이다. 당시 학교에서도 순순히 내 주었다. 당시 오천 지서장은 일본사람이지만 젊잖은 사람으로 신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고경식 님은 6학년 해방 때까지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하였고, 한글은 몰랐다.

고경식 님과 또래들은 해방 때까지(6학년)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하였다.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하다가 한국말을 쓰면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 그리고 한글은 몰랐다. 습자책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도 몰랐었다. 철저하게 일본인 교육을 받은 결과였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책을 읽는다.

고대도에 집이 있었던 재등(齋藤)이라는 일본 사람이 오천에 재등환(齋藤丸)이라는 배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재등이라는 일본 사람은 서울에서 조선 일일신문의 사장이었고, 섬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고대도에 집이 있었다. 서울에서 온 재등이 고대도를 출입하

기 위해 오천에 재등환이라는 배를 마련해 두고 이용하였다.

양조장에서는 여름에 술이 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샘물을 이용하였다.

양조장에서는 여름에 술이 쉬는 것이 문제였다. 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옛날에는 큰 통에 찬 샘물을 담고, 술독을 넣어 식혔고, 전기가 들어온 뒤에는 샘물을 모터로 품어 구리 파이프를 통과시켜 식혔다.

고경식 님은 6.25 때 인민군 치하에서 주교면 한여 마을에 호를 파러 갔다.

고경식 님은 6.25 때 인민군 치하에서 보국대에 들어갔다. 보국대는 젊은이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교면 고정리 한여 마을에 호를 파러 갔다. 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팠는데, 호파는 작업은 어둡기 직전과 새벽에 밝은 직후 팠다. 한밤중에는 보이지 않아 못 파고, 한낮에는 폭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낮에는 밖에 나오지 않고 놀았다.

오천에 염수납장이 있었다.

해방 후 소금이 전매품이었다. 생활필수품인 소금값을 전국에 동일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매품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서해안에서 생산된 소금은 오천의 염수납장으로 가져왔고, 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유통되었다. 자동차로 실어가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소금을 내리고 싣는 사람들을 노조라고 불렀다. 노조원들이 파업하거나 쟁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되었다.

유신시대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되었다. 선거에 나갈 생각은 안 했는데, 야당쪽에서 누가 나오니 당신이 나오라고, 기관에서 종용하여 출마하였다. 월급은 없었고 선거 때 서울에 가는 출장비는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대우를 잘해주라고 하여, 군수나 직원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다. 봉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정도였다. 오천면에서도 유지 역할을 하였다.

주포 사람과 오천 사람이 서로 갈등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어렸을 때 주포 주민들과 오천 주민들이 서로 갈등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단지 수영이 폐지되어 수군절도사가 없을 때 보령현감이 주포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 성과 건물을 부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10] 주포 사람과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고경식 님의 어머니도 주포 보령리의 최씨였다.

갈현리 돌고개 사는 사람이 보도연맹원으로 여늬재에서 죽었고, 시신을 가지러 가다 형제들까지 죽었다.

오천면 갈현리 돌고개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6.25가 발발하자 보도연맹원을 구금하여 남포 여늬재에서 학살하였고, 학살당한 형제들이 시신을 찾으러 가다가 사고로 죽은 일이 있었다. 학살당한 곳이 여늬재 철길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철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동식 차량을 이용해 가다가 전복되어 죽었다.

수복 후에 부역자들을 오천에서 경비정으로 실어다 수장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9.28수복 이후 1.4 후퇴 이전이었다. 고경식 님은 오천파출소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보초를 서다 보았는데 경찰 트럭에 무언가를 싣고 부두로 갔고, 이후 경비정이 출항했다 몇 시간 후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당시 부역자들을 수장시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석면을 오천항에서 일본으로 가져갔다.

일제강점기 오천항에서는 석면을 실어 반출하였다. 석면이 주로 산출되는 곳은 광천이었고, 이웃한 웅개(웅포)에서도 나왔다. 이들 석면은 오천항의 석면창고에 저장하였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한 번은 석면을 적재하던 배가 가라앉아 물에 젖은 석면을 다시 말려 가져가기도 하였다. 이때 오천학교 학생들이 석면을 가마니에 펴 말렸다.

10) 필자가 강의할 때 들은 것으로 생각됨.

소성리 당제는 1950년대에 당집 불타고 다시 지어 지내다가 1960년대에 지내지 말자고 하였다.

소성리의 당집은 고경식 님이 양조장을 운영한 1960년 이전에 불타고 다시 지었다. 옛날에는 당집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있었다고 하였다. 고경식 님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대동계장을 했는데, 당제를 지내는 돈이 없었다. 제 전날 추렴을 해서 간단하게 주과포를 마련하여 제를 올렸다. 제가 너무 초라하여 이후에는 지내지 말자고 하였다. 당시 고경식 님의 부인이 임신 중이라 고경식 님은 대동계장이면서도 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성리 마을 상여는 동네집에 보관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아 동문밖에 상엿집을 짓고 옮겼다.

고경식 님이 대동계장을 할 때, 동네집 앞에 삼문이 있었고, 삼문 안에 상여와 가마 등 동네 기물을 보관하였다. 상여는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동문밖에 집을 지어 옮겨 놓았다. 현재 상엿집은 홍축골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섬에 다니던 정기여객선은 강경환과 몽선환이었다.

일제강점기, 고경식 님이 처음으로 본 정기여객선은 강경환이었다. 강경환이 오천항에서 주변 섬을 왕래하였고, 이어 몽선환이 왕래하였다.

194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화장으로 장례를 모셨다.

고경식 님의 아버지는 천안에서 1943년에 돌아가셨다. 그때 벌써 천안에는 화장장이 있어 화장으로 장례를 모셨다. 화장하여 기차로 청소역으로 왔고,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소성리 살던 허 백이라는 친구는 6.25 때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북한에 거주하다가 이산가족 상봉 때 가족을 초청하여 만났다.

소성리에 살던 허 백이라는 친구는 6.25 때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북한에 거주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때 북에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했으나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었는데 모두 죽어 없었고, 소성리에 사는 이종 여동생이 북한에 가서 만났다. 잘 살지도 못

하고 다리를 쩔룩거리며 나왔다고 한다. 친구인 고경식 님의 안부를 묻더라고 한다.

고경식 님의 할아버지는 동문 안 비탈에서 살았고, 큰아버지가 서문 앞에 양조장을 지었다.

고경식 님의 할아버지도 소성리의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동문 안 비탈에 살았다. 이 집은 나중에 둘째 삼촌이 살게 되었다. 서문 앞 시내에 있던 양조장은 고경식 님의 큰아버지가 마련하였다. 부근에는 석면창고가 있어 오래전에 매립되었고 찻길도 있었다.

양조장의 종업원들은 양조장에서 숙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양조장의 종업원들은 많을 때 4명 정도였는데, 양조장에서 숙식하는 사람도 있었다. 양조장에서 자야만 밤에도 온도를 맞추는 등 일을 하였다. 종업원 중에는 배달하는 사람이 많았다. 양조장 일은 아침이 제일 바빴다. 새벽에 일어나 술밥을 찌고, 술을 해 넣고, 막걸리를 걸러 판매를 준비해야 했다. 모두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양조장에서는 밥하는 사람도 고용했다.

양조하는 술의 원액을 모래미라고 하였다.

막걸리는 술의 원액에 물을 섞어 막 거르는 술이고, 원액을 모래미라고 하였다. 술독에서 발효된 상태의 술이다. 원액이라고 해서 소주처럼 독한 술은 아니다. 양조하는 술은 아무리 독해도 16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모래미는 술독에 용수를 박거나 체를 넣고 뜬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술은 아니고 꼭 필요한 때 사용한다.

세무서 직원들이 술 조사를 나와 자고 갔고, 적발된 술은 양조장으로 가져왔다.

과거에는 가정집에서 술을 만들지 못했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술 단지는 근처의 양조장에 가져다 주었다. 오천양조장에도 술 조사에 걸린 술 단지를 가져온 경우가 두어 건 있었다. 당시 세무서에서 술 조사를 나오면 직원들이 양조장에서 자고 먹었다.

마을에서는 초상계가 유행하였다.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와서 먹었기 때문이다. 부잣집에서는 술을 30말(대두) 먹을 정도였다. 그래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초상계를 하여 초상날 때 얼마씩 태워 주었다.

섬 사람들이 막걸리를 많이 먹었다.

섬 주민들은 장배를 타고 광천장에 많이 다녔다. 그런데 물때가 맞지 않으면 오천에 정박하여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막걸리를 많이 사 먹었다. 섬 사람들이 술을 잘 먹었고 씀씀이도 컸다.

오천양조장에서는 2층에서 술밥을 쪄 식혀가지고 1층 창고로 내려 술독에 담았다.

오천양조장에서는 1층에 창고를 두고, 2층에서 술밥을 쪄 1층으로 내려 술독에 담았다. 술독을 땅에 묻어 놓았다. 양조장 시설의 배치가 합리적이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술독은 초산균을 없애기 위해 옛날에는 짚불로 그을렸고, 세제[11]가 나온 뒤에는 세제로 깨끗하게 닦았다.

여름에 술이 쉬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여름에 술이 쉬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가정집에서는 소주를 내리지만 양조장에서는 소주 제조허가가 없어 내릴 수도 없었다. 버려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도미설화는 근래에 들었다.

도미설화에 관해서는 옛날에는 알지 못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근래 들어보니 미인이 태어나서 미인도이고, 미인도로 건너가는 항구이므로 도미항으로 불렀다.

11) 고경식님은 표백제라고 표현함

6.25 때 오천에는 황해도 옹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다.

6.25 때 오천에는 황해도 옹진에서 배를 타고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도 있었고, 옹진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쌍오도를 큰 자라의 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쌍오도의 오자가 큰자라오자이고, 쌍오도가 큰자라의 눈이라고 생각했다. 광천 쪽으로 뻗은 바다가 자라의 꼬리이고, 쌍오도가 자라의 눈이라는 것이다. 큰 자라가 서해바다를 쳐다보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고경식 님 집안에서는 옛날에 조상상과 함께 손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고경식 님 큰집에서 옛날에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 방에 조상님의 제상을 차리고 좀 떨어진 곳에 '손상'이라고 간단한 제상을 차렸다. 간단한 제물과 수저, 젓가락을 놓았다.

옛날 오천 소성리에는 항아리를 묻은 변소와 잿간변소가 있었다.

옛날 소성리에는 항아리를 묻어 대소변을 모았다가, 밖에 있는 큰 시멘트 통에 옮기고, 바닷물을 섞어 썩혀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집에서는 잿간 바닥에 변을 보아, 똥가래로 재에 섞어 모았다가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항아리를 묻은 집이 많았다.

진휼청 건물은 양주조씨 소유였다가 고경식 님 집안에서 샀다.

진휼청 건물은 주변 토지와 함께 양주조씨들이 사패지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양주조씨들 소유였다. 양주조씨들이 진휼청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고, 일제강점기 고경식 님 집안에서 땅을 살 때 함께 샀다.

고경식 님 집안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큰어머니가 기거하였고, 전기가 들어온 뒤에는 물도 끌어왔다.

오천에는 영보정 대들보가 컸고, 배로 끌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오천에는 과거 영보정의 대들보가 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엿가락이 크면 영

보정 대들보만 하다고 하였다. 영보정 대들보가 큰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영보정이 헐린 후, 대들보를 중국에서 가져갔는데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김 영 준 (1937년생)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남포면 옥서리 사현마을 주민들의 생활



출생과 성장

김영준(金永俊, 1937) 님은 통천김씨로 1937년에 태어났다. 남포지역의 통천김씨는 김영준 님의 16대조 할아버지부터 세거하여 옥동리에 묘소와 재실이 있다. 옥서리 새아니에서는 증조할아버지 이후에 거주하였다.

김영준 님은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1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 뒷바라지에 힘들게 생활하였다. 학교는 남포국민학교 4학년 때 중퇴하였고, 이후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해다 팔아가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군대에 다녀온 뒤, 25세에 마을에 사는 청해이씨 처녀(19살)와 결혼하여 4남을 낳았으며, 마을 이장을 14년간 역임하면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다.

마을에 서당이 있었으나 공부방 같았다.

새아니 마을에는 1950년대, 지금 김영준 님이 사는 집에 서당이 있었다. 외지에서 이사 온 이효직이라는 분이 한문을 좀 알았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서당에 모였다. 배우는 것은 별로 없었고, 학생들이 자습하는 정도였다. 어떤 때는 김영준 님이 일러주는 경우도 있었다. 수업료도 없었다.

해방 당시는 남포 주민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만세를 불렀다.

해방 당시 김영준 님은 9살이었다. 기억나는 것은 남포 주민들이 철길 밖 도로에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만세 부르는 것을 본 것이다.

6.25 당시, 여늬재에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묻어 주었다.

6.25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대천 농협창고에 가두어 두었다가, 어느 날 여늬재에 트럭으로 싣고와 사살하였다. 이때 마을 주민들은 인민군과 교전하는 줄 알고 놀라 산골짜기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총소리는 하루 한 번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민군과 교전한 것이 아니었고, 보도연맹원들을 트럭에 싣고와 경찰들이 죽인 것이었다. 장소는 경찰묘지가 있는 골짜기 바로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도로 옆이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꽃밭재골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은 도로 서쪽에 있었고, 2구만

도로 동쪽에 있었다. 도로 동쪽에 묻힌 사람들은 도망치다 죽었다고 하였다. 숫자는 약 20~30명쯤 되었다. 김영준 님 아버지 또래의 마을 어른들이 모두 나와 시신을 끌어다가 한 구씩 묻었다. 시신이 있던 곳에 바로 묻었다. 시신이 부패되어 만지기 어렵자, 쇠스랑의 가운데 발을 잘라 턱에 걸어 끌어다가 묻었다고 한다. 시신을 한 곳에 묻지는 않았고 각각 묻었으며, 이후 유족들이 찾아와 대부분의 시신을 수습해 가져갔다. 도로 동쪽에 있는 2구의 시신을 가장 늦게 찾아갔다고 한다.

김영준 님은 어린 나이라, 죽어있는 시신을 보지는 못했고 묻은 묘지는 보았다.

6.25 당시 여늬재에서 경찰들을 학살한 것은 직접 보고, 묻는 것도 보았다.

김영준 님은 6.25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여늬재에서 경찰들을 학살한 현장을 목격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는 것도 보았다. 당시 경찰들은 모두 경찰복을 입었고, 손은 결박한 상태였다. 무덤은 나란히 눕히고 봉분을 하나만 만들었다.

당시는 인민군들이 지배하던 때라 시신을 몰래 수습했는데, 김영준 님의 아버지인 김인창, 마을 주민인 박병묵, 박낙현 님 등이 매장하였다.

당시 경찰들을 장항까지 가서 잡어다가 학살했다는 소문이 있었다.[12)]

김영준님이 제대후 경찰묘지를 관리하였다.

6.25 당시 학살된 경찰묘지를 마을 주민들이 만들었는데, 수복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비석도 없었고 금초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영준 님이 1961년 이장을 맡고부터 금초를 하고 명절 때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올렸다. 이런 소문이 면사무소, 군청, 경찰서에 들어갔고,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경찰묘지를 소문낸 사람이 김영준 님이었다.

6.25 당시 인민군 본부는 남포 읍내리 남쪽 야산에 있었다.

12) 실제는 장항까지 피난을 갔다가 주산까지 다시 올라와 전투를 했음. 주산에서 전투중 전사한 경찰은 주산에 매장하고, 포로로 잡힌 9명을 여늬재에서 학살한 것임.

6.25 당시 보령지역의 인민군 본부는 남포면 읍내리 남쪽에 있는 산에 있었다.

6.25 당시 인민군에 의해 죽은 경찰 무덤이 읍내리 굴다리 옆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6.25 당시 인민군에 의해 죽은 경찰관의 시신을 주민들이 읍내리 굴다리 옆 골짜기(호산나피아노학원 뒤)에 묻고 읍내리 주민들이 금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13)]

새아니 마을에 있는 고개는 여늬재와 새니재라고 불렀다.

김영준 님이 사는 새아니마을에는 큰 고개가 2개 있다. 웅천읍 두룡리로 넘는 고개는 예부터 '여늬재'라고 불렀고, 웅천읍 수부리로 넘는 고개는 '새니재'라고 불렀다.

남포저수지는 1950년대 말 막았다.

남포저수지는 1950년대 말 막았다. 당시 바람밖이라는 마을이 저수지에 수몰되었고, 제방자리에 있던 삼거리가 수몰되었다. 여러 집이 없어졌다. 옥서리 안에 큰 저수지가 만들어져 옥서1리와 옥서 2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김영준 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무장사를 했다.

김영준 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나무장사를 했다. 낮에 옥마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다음날 새벽에 양항리 개목, 달산리 평촌, 소성리 소뱅이 등 소금 만드는 집에 팔았는데, 개목에 제일 많이 다녔다. 나무는 푸장나무, 주저리, 장작이었다. 푸장나무는 봄에 새로 나온 갈잎 등 어리고 가는 줄기를 베어 말리는 것으로 가장 싼 값이었다. 다음은 주저리라고 하는데 솔가지나 잔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말려서 져다 팔았다. 가장 좋은 것이 장작이었는데, 산림감수의 눈을 피해 소나무를 베고 쪼개 말렸다가 팔았다. 장작의 길이는 대략 1m 정도로 길어야 잘 사갔다.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13) 읍내리 주민들에 의하면 민간인이 후퇴하는 인민군을 싣고 가다가 굴다리 옆 개울에 트럭을 고의로 전복시켜 인민군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고, 이에 인민군 소대장이 현장에서 죽였다고 한다. 이 시신을 읍내리 주민들이 산 골짜기에 묻었다고 한다.

등컬이라고 하는 나무 뿌리인데 캐기가 힘들었다.

나무를 5짐 정도 가져다주면 쌀 1말 값을 받았다. 나무는 개목마을 입구 서낭댕이에서 팔았지만, 염벗까지 져다 주어야 했다. 염벗은 갯벌에 있었다. 나무장사를 하는 계절은 주로 봄이었다. 소금을 많이 굽기 때문이다.

나무장사는 새벽 4시에 출발했다.

새아니마을 주민 대부분은 나무장사를 했는데, 낮에는 종일 나무를 해서 말리고, 다음날 새벽 마른 푸장나무를 한 짐 지고 개목마을로 갔다. 나무 한 짐은 푸장나무를 차곡차곡 가동친 것을 한 전이라고 하여, 10전~12전 모여야 되었다. 새아니마을에서 개목까지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4번을 쉬어 갔는데, 처음에는 삼밭머리에서 쉬고, 다음에는 허구재, 다음에는 달산리 마을 끝(비선거리 근처), 마지막에 개목마을 입구 서낭댕이에 받쳐놓고 팔았다. 나무가 팔리면 소금만드는 솥까지 져다 주어야 했다. 김영준님이 단골로 대준 집은 팽나무 안집이었다.

새아니 마을에는 중보라는 보가 있었다.

새아니 마을에는 중보라는 보가 하나 있었다. 약 30마지기 논에 물을 댔고, 보를 대표하는 사람은 물을 대주는 노인이었고, 보를 운영하는 조직도 없었다. 그냥 봄에 '보 막자' 하면 모여 막걸리를 받아 놓고 보를 막았고, 장마에 터지면 수리하였다. 술은 부잣집에서 냈다. 물은 대표자인 노인이 대 주어야 했다.

새아니 마을의 토지는 토박하여 녹두밭웃머리라고 불렸다.

새아니 마을에는 농지가 많지 않았고 토박하여 녹두밭 웃머리라고 불렸다. 녹두밭 웃머리는 아주 토박한 땅을 일컫는 말이다.

남포에는 1950년대 말 5일장이 섰었다.

남포에는 1950년대 말 잠깐 5일장이 섰었다. 장마당은 현재 면사무소와 농협 앞이었다. 새아니 마을 주민들은 남포장이 없어진 뒤, 여늬재를 넘어 웅천장을 주로 보았다. 걸

어서 다니기는 웅천이 대천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웅천장을 남포한내장이라고 하였다.

새아니재는 웅천읍 수부리, 평리, 성동리 주민들이 다녔다.

새아니재는 웅천읍 수부리, 평리, 성동리, 주민들이 대천으로 다닐 때나, 남포 양항리 갯벌에 갈 때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넘던 고개였고 밤에는 무서웠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늬재를 많이 넘어다녔다.

옛날에는 여늬재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다녔다. 웅천에서 대천으로 다니는 사람들, 남포에서 웅천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다녔다. 외지고 무서운 고개여서 소도둑골이라는 골짜기도 있다. 김영준 님의 기억으로 웅천장을 본 멜빵 맨 장사꾼들이 다음날 대천장을 보기 위해서 많이 넘어다녔고, 새아니 마을 굴다리 앞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쉬어 가곤 하였다.

새아니 마을에는 흉년에 고구마가 없었다.

어쩐 일인지, 1952년도 흉년에 새아니 마을에는 고구마가 없어 고생하였다. 그러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독사풀 씨를 받아다 볶아 먹지는 않았다. 밭둑에 있는 쑥은 많이 뜯어다 먹었다.

김영준님은 보리탈곡을 하러 다녔다.

김영준님은 옛날에 2~3명이 모여 보리탈곡을 하러 다녔다. 경운기가 나오기 전에, 발동기를 분해하여 지고 다니면서 탈곡했다. 새아니마을뿐만 아니라 달산리까지 다니면서 탈곡을 했다. 삯으로 받은 보리는 먹거나 매상[14]했다.

새아니 마을 주민들은 봉오산(옥미봉 봉수대)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14) 정부에 파는 것.

새아니 마을 주민들은 비가 안 오면, 봉오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김영준 님이 이장할 때도(1961~75) 몇 차례 지냈는데, 마을의 남자, 여자들이 모두 땔감과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불을 피우고 제를 올렸다. 제물은 삼색실과와 떡 등이었다. 축문은 김영준 님이 마련하였다. 물을 까부르는 것은 하지 않았다. 기우제를 올릴 때 마을의 풍물패도 올라갔다. 비용은 마을에서 걷었다.

새아니 마을 서낭댕이는 새아니재 너머에 있었다.

새아니 마을에 산제당은 없었고, 서낭댕이가 새아니재 너머 수부리 쪽에 있었다. 고개의 정상에서 수부리 쪽으로 조금 가면 큰 나무가 선 서낭댕이가 있었는데, 김영준 님 어려서부터 김영준님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월 열나흗날이면 지성으로 위했다. 이때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새아니 마을에서 서낭댕이는 개인적으로 위했다.

김영준 님은 동네혼인을 했다.

김영준 님은 제대 후에 이웃집 처녀와 연애해서 결혼했다. 6살이나 연하인데 결혼하였다. 부인은 신랑이 똑똑해서 결혼했다고 한다.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하고 걸어서 왔고, 이후 재향 같은 것은 없었다. 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웃으로 그냥 살았다.

김영준 님의 아버지도 처녀와 동네혼인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갓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김영준 님 어렸을 때 놀이는 자치기, 빠찌치기 등이었고, 읍내 아이들과 쥐불싸움도 하였다.

김영준 님 어렸을 때 놀이는 주로 자치기, 빠찌치기 등이었고, 나무하러 가서 하는 공치기는 하지 않았다. 쥐불도 놓고, 쥐불싸움도 했는데 읍내리와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했다.

새아니 마을 주민들은 웅천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하였다.

새아니 마을 주민들은 새아니 고개를 넘는 웅천읍 주민들과 결혼을 많이 하였다. 김영준님의 이모님이 웅천읍 평리로 출가하였고, 김영준 님 장모님은 웅천읍 성동리에서 시집왔다.

새아니 마을 상여는 김영준 님 이장 때 마련하였다.

당시 상엿집은 말골에 있었는데 마을 가운데라고 하여 공동묘지 옆으로 옮겼다. 상여를 어디서 사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상여를 처음 사 왔을 때 노인을 태우고 마을을 돌지도 않았다. 상여 나갈 때는 방울로 장단을 맞췄다.

옛날에는 마을 개울에 중태기, 퉁거니, 기름챙이, 뱀장어, 참게 같은 민물고기가 있었다.

옛날 남포저수지를 막기 전에는 새아니 마을을 통과하는 개울에 중태기, 퉁거니, 기름챙이 같은 것들이 많았고, 가끔 뱀장어도 올라왔다. 이런 고기는 필요할 때 돌을 떠들거나 메로 쳐서 잡았다. 메로 돌을 치는 것인데 '벼락친다'고 하였다. 참게는 옛날에도 귀했다. 산골짜기까지는 잘 올라오지 않았고, 아래 들판에 있었다.

새아니 마을 개울에서 가재를 잡아 볶아 먹었다.

새아니 마을 개울에는 가재가 특히 많았다. 봄에 알이 밴 가재를 잡았는데 한 번 잡으면 한 됫박 정도 잡았다. 이것을 씻어 산채로 고추장 물에 끓여 먹었다. 끓이면 가재가 빨갛게 되었고 맛이 좋았다.

새아니 마을의 포도농사는 1980년대 초에 굴다리 포도원 박재윤 씨가 시작하였다.

박재윤 씨는 웅천읍 두룡리 잔미산에 있던 파라다이스 농장에 다녔는데, 당시 파라다이스 농장에서는 포도를 심어 포도주를 생산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새아니 마을에 포도를 심었는데 소득이 좋아 모두 따라 한 것이다. 현재 새아니 마을에서는 벼농사는 짓지 않고 포도농사만 짓는다. 포도가 전업이다.

새아니 마을에는 집집마다 밭 가는데 끅쟁이를 사용하였고, 소 길들일 때도 사용하였다.

새아니 마을에는 집집마다 끅쟁이가 있어 밭 갈 때 사용하였다. 끅쟁이는 우리나라 쟁기로 보습이 평평하고 둥그스름해, 돌에 닿아도 잘 부러지지 않았으며, 흙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밭 갈 때는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소를 길들일 때도 한 사람이 끅쟁이를 잡고, 한 사람은 소 고삐를 잡아 밭에서 길을 들였다.

새아니 마을에는 집집마다 소를 길렀는데 죽을 쑤어 먹였다.

새아니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소를 길렀다. 소의 먹이는 볏짚, 건초 등이었고, 반드시 죽을 쑤어 먹였다. 볏짚을 생으로 먹이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사람과 같이 하루에 3번 죽을 쑤어 먹였다. 그래서 쇠죽을 쑤는 솥이 따로 있었고 가장 많은 땔감이 들어갔다.

볏짚을 작두로 썰어 준비하였는데(여물), 썰 때는 건초나 고구마 순, 콩깍지 등을 넣었고, 죽을 쑬 때는 쌀겨나 보릿겨 등을 넣었다.

소에는 진디, 등애, 등퍼리가 붙었다.

여름에는 소를 밖에다 내다 매어 두었다. 시원하기도 하였고 풀도 뜯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소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것들은 진디, 등애, 등퍼리 등이었다. 진디는 현재 진드기라구 불리는 것으로 크면 아주까리같이 되었고, 등애는 큰 파리 같은 것이었다. 등퍼리는 작은 파리로 여러 마리가 함께 붙었다.

김영준 님의 아버지는 1952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상여를 이용하지 못했다.

김영준 님의 아버지는 1952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늘 위가 좋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상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뭇가지로 들것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다. 당시 마을에는 상여가 없어 세를 주고 다른 마을에서 빌려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망인에게 수의를 입히지도 못하고 평상복을 입은 채로 그냥 매장하였다. 다만 아들들이 입은 상복은 마을에서 마련해 주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집안에 궤연을 마련하였고, 초하루 보름으로 삭망차례도 올렸다.

포도농사는 무척 까다롭다.

김영준 님은 공사판에 다니느라고 포도농사를 늦게 시작하였다. 동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시작했는데, 무척 까다로운 농사가 포도농사였다. 거름은 너무 줘도 안되고, 맞추기가 어려웠다. 포도 나무가 어릴 때는 가끔 뿌리를 잘라주어야 했다. 잘라주지 않으면 너무 왕성해서 포도가 열리지 않았다.

현재 새아니 마을의 포도는 모두 비가림을 해 주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다. 비를 맞

으면 맛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영준 님은 4H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김영준 님은 마을의 청년 15~20명을 데리고 4H 운동을 열심히 하였다. 군대가기 전에도 했고 제대하고서도 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청소도 하고, 여늬재의 경찰묘지를 돌보기도 하였다.

김영준 님은 푸장나무 12전을 짊어졌다.

푸장나무는 봄에 줄기와 나뭇잎을 함께 잘라 말리는 것이다. 양지에 뜯어 말렸다가 줄기까지 바싹 마르면 묶어 지게에 올린다. 푸장나무를 가지런히 한, 한아름을 한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8~12개 올려야 한 짐이 된다. 파는 나무는 보기 좋아야 하기 때문에 김영준 님은 12전으로 만들었다.

두 줄을 바닥에 깔고, 한전씩 쌓는데 쌓을 때마다 줄로 묶었다. 그래야 단단한 나뭇짐이 되었다. 12전을 다 묶으면 지게를 나뭇짐의 아래쪽에 박고, 작대기를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일으켜 세워 작대기를 지게 뒤, 나뭇짐에 받친다. 이후 앞으로 돌아와 지게를 당기면 작대기는 땅에 떨어지고 지게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과정 때문에 지게를 경사지에 놓고 나무를 짊어져야 했다.

새아니 마을에는 외지인들이 나무하러 많이 왔다.

새아니 마을에는 겨울에 외지인들이 나무하러 많이 왔다. 건쟁이에는 삼현리 사람들이 많이 왔고, 큰골에는 양항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주민 간에 갈등 같은 것은 없었다.

허구재에는 '허구나 죽지'라는 전설이 있었다.

새아니 마을 주민들이 양항리 바다에 가려면 넘는 고개가 허구재였다. 허구재를 넘어 달산리를 통과해서 다녔다. 옛 어른들은 허구재에 관련된 전설을 말하면서 웃고 즐겼다. 허구재라는 이름은 남녀가 넘어가다 같이 죽었는데, '허구나 죽지'하여 생겼다고 하였다.

새아니 마을에서는 덫이나 올모, 함정 등으로 산짐승을 잡아먹었다.

덫으로는 주로 토끼를 잡았다. 나무를 엮어 돌을 올려놓고, 건드리면 눌러 잡는 방식이었다. 올가미로는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았다. 노루를 잘 잡는 할아버지가 있어 '노루 할아배'라고 불렸다. 옛날에는 노루나 고라니를 모두 노루라고 불렀다. 고라니는 요즘 생긴 이름이다. 함정으로는 멧돼지를 잡았는데,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깊은 함정을 파고, 위를 위장하여 빠지도록 하였다. 함정에 갇힌 멧돼지는 때려서 잡았다.

김영준 님 이장 때(1961~1975) 새아니 마을 저수지를 만들었다.

김영준 님이 이장 할 때, 새아니 마을 안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당시 보령군청에서 만들었는데, 3000평을 맞추느라고 힘들었다. 현재 논농사는 짓지 않지만, 날이 가물면 수문을 열어 포도밭에 물을 댔다. 저수지에는 민물새우가 많고 붕어도 주민들이 넣어서 서식하고 있다. 주민들이 새우도 잡아먹고 붕어 낚시질도 한다.

김영준 님은 가축으로 소, 돼지, 닭, 토끼 등을 키웠다.

김영준 님은 가축으로 소를 1마리 기르고 돼지를 1~5마리, 닭을 댓 마리, 토끼를 두어 마리 길렀다. 돼지는 집 앞에다 기르면서 늘 보았는데, 주인만 보면 드러누워 긁어달라고까지 하였다. 닭은 계란을 먹으려고 몇 마리 길렀다. 닭을 많이 키우는 것을 굿닭이라고 했는데, 김영준님은 굿닭을 키우지는 않았다. 토끼도 심심풀이로 두어 마리 길렀다.

새마을운동 때, 새아니 마을 이장이었던 김영준 님은 많은 돈을 썼다.

김영준 님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새아니 마을의 이장을 역임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고, 김영준 님도 열심히 일했다. 개울가에 빨래터도 만들고, 지붕도 개량하였으며, 마을길도 넓히고 회관도 지었다. 모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특히 마을길을 넓히는데는 많은 돈이 들었다. 길의 입구가 남포향교 땅이었는데, 당시 향교의 책임을 맡고 있던 분이 허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현금으로는 지원해 주지 않았고, 시멘트나 철근 등 자재만 지원해 주는 정도였다.

이에 이장인 김영준 님은 주민들의 이름으로 영농자금을 얻어 사용하였다. 당시 주민들

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르게 영농자금이 대출되었고, 마을의 새마을 운동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장 등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푸장은 논에도 넣었다.

옛날에는 푸장나무를 해서 소금 만드는 데 팔았지만, 논에 거름으로 넣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부드러운 나뭇잎(주로 갈잎)을 베어다가 논에다 넣었다. 초벌갈이 한 논에 넣었는데 1마지기에 6~7짐을 넣어야 벼가 잘 되었다. 푸장은 잘 썩어 두 번 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

새아니 마을에서는 옛날에 가축을 잡아 고기를 팔았다.

새아니 마을에서는 옛날에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잡아 팔았다. 아무나 잡는 것은 아니었고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잡았다. 닭이나 토끼는 집집마다 잡아 먹었는데, 닭을 잡을 때는 울안에서 잡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잡았다. 목을 비틀어 잡았다. 토끼는 머리를 때려 잡았고, 개는 목을 매달아 잡았다.

<인터뷰어 황의호, 스토리텔러 황의호>

보령의 바다 Ⅳ

손 영 희 (1936년생)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청라면 신산리 주민 생활과 오서산 산중 생활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고 평생 집안 및 절집 살림으로 분주하였다.

손영희 님은 신산리 구레골 글방 선생의 손녀이며 가난한 농사꾼의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다. 2024년 현재 월정사 살림을 총괄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는 손영희 보살은 밀양손씨 57대손으로 1936년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구레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손봉희(1886~1943)님과 할머니 보성오씨(寶城吳氏)는 글방을 열고 농사를 지었는데 4형제를 낳아 길렀고, 글방 선생의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주순덕(1913.12.4.~1988.6.13.) 님으로 대식구의 의식주 해결과 살림을 꾸려내느라 잠시도 쉼 없이 일하였다. 모두 6남매(4남 2녀)를 두었는데 손영희 님이 맏이였다. 그 뒤로 7살 아래 남동생, 10살 아래 남동생, 12살 아래 남동생, 15살 아래 남동생, 17살 아래 여동생으로 줄줄이 이어졌다. 가난한 집 맏딸로 8살 때부터 부엌에 들어가 어머니를 도와 밥과 반찬을 하는 등 집안 살림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가족이 함께 살았다.

손봉희 님은 4형제 아들들을 낳아 길렀는데, 그들이 결혼하여도 한동안 모두 한 집에서 농사지으며 함께 살았다. 손영희 님의 4촌까지 태어나고 대가족의 식구는 자꾸 늘어났다. 적은 농토는 늘어나지 않고 여전하여 살림이 몹시 어려웠다. 손영희 님의 아버지 손수동 님도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도 결혼하고 20여 년간 대가족의 일원으로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신산리에는 글방이 여럿 있었다.

신산리와 이웃에 여러 곳에 글방 내지 서당이 열려 동네를 지나면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고 한다. 구레골에는 손영희 님의 할아버지 손봉희(1886~1943) 님은 한문과 유학 관련 학식이 있어 신산리 구레골 마을에 글방을 열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살림은 늘 어려웠다. 내내 신산리 내의 덕너머 마을에도 이씨 성을 가진 이가 글방을 열고 있었고, 이웃 장현리에는 김복한, 김노동, 김철현 삼대에 걸쳐 상화서숙 글방이 있었다.

옥계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1944년, 집 나이 9살 되던 해 옥계국민학교 제4회에 입학하였다. 신산 구레골에서 옥계리 서촌 학교까지 4km를 매일 걸어서 다녔다. 일본인 '가나모도' 선생이 생각나고 함께 학교 다녔던 동무들이 떠오른다. 이제 그 동창들도 거의 모두 세상을 하직하였다. 학교에서 셈하고 글을 읽는 것을 배웠다.

'게다' 신고 통학하였다.

신산리에서 옥계리 학교까지 4km를 걸어 다녔다. 통학길이 험하여 매일 학교 가는 일이 어려웠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일 중 하나는 눈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게다'를 신고 학교 다닌 일이었다. '게다'는 발 모양 나무토막 위에 발가락을 끼우는 끈을 달아 신었는데, 발을 뗄 때마다 신발 끌리는 소리가 시끄럽고, 또 쉽게 끈이 떨어지기도 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보통 때는 짚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다.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를 그만두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 계속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었다. 급기야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집안 살림을 돕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때 당시에는 대부분 학교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 살림을 도왔고 애가 애를 키웠다.

집안일은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였다. 부엌에서 밥하는 일은 8살부터 하였다. 사촌 동생까지 아이 돌보기, 농사일 거들기, 가마니치기, 누에치기 등 부업하기, 옷감 만들기 등이었다. 그중 동생 돌보기가 어려웠다. 우리 집 동생뿐 아니라 아버지 형제 4형제에서 출생한 4촌 동생들도 함께 돌보았다. 늘 퍼대기 둘러서 애를 업고 다녔다. 애가 애를 보는 시대였다. 대가족의 살림을 돕는 일은 손영희 보살이 18살 되던 해, 아버지가 내내 신산리 '박살뫼'로 새집을 지어 분가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옷은 스스로 만들어 입었다.

각 가정에서 필요한 옷은 옷감을 자체 제작하여 거의 다 해 입었다. 해방 전후 '신산리'에서는 삼베, 모시베, 명주베의 생산이 있었다. 삼베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감이었다. 모시는 선비 등 지체 높은 사람들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옷감인 경우가 많았다. 명주는 비단으로 아주 귀한 옷감으로 여겼다. 일반적인 삼베는 다음 여러 단계의 일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옷감이 되기에 일이 아주 많았다. 마을의 여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모시는 직접 재배하기보다는 태모시(모시 옷감의 원재료)를 판교장에서 주로 구입하여 모시베를 만들었다. 명주는 뽕나무 재배와 누에를 직접 쳐서 만든 옷감이다.

삼베 일이 분주하였다.

- 봄이 깊어지면 정자밑과 건천 사이의 산 언덕의 삼밭에 삼씨를 파종해서 키운다.
- 초여름이 되면 어른 키보다 더 큰 1m 50cm ~ 2m 정도까지 자라면 삼대를 벤다.
- 나무칼로 줄기에서 가지와 잎을 전부 제거하여 줄기를 다발로 묶는다.
- 삼다발을 산비탈에 조성한 1.5~2m 정도의 돌 아궁이 즉 '삼구덩이에 넣는다.
- 그 위에 풀을 덮고 다시 흙과 돌을 덮은 다음 밑에서 불을 땐다.
- 물을 부어 떡시루와 같은 원리로 위로부터 아래로 증기가 내려가 익게 찐다.
- 찐 삼이 마르기 전에 벗겨 적당한 몫으로 나눠 물에 담가 불순물을 뺀다.
- 꺼내어 물기를 눌러 짠다.
-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삼 줄기를 찢는다.
- 눌러 짠 섬유를 왼손으로 감아쥐고 오른손 손톱으로 짼다.
- 다음 머리를 톱진 날에 놓고 톱으로 날카롭게 만든다.
- 톱은 쩐지(베삼기 묶어놓은 버팀목)에 걸고 빼어 삼는다.
- 삼은 삼을 물레에 올려 톳으로 만들고 다시 돌 것에 올려 실타래를 둥글게 만든다.
- 삼줄기를 왼손에 휘감아 잡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삼줄기의 끝부분을 집는다.
- 끝부분부터 머리를 빗듯이 오른손 손가락을 삼 줄기 사이에 넣고 아래로 훑어 내린다.
- 삼 줄기의 길이가 길면 한 번에 훑기 어렵기에 줄기 중간을 무릎에 대고 훑는다.
- 어느 정도 굵기가 되면 가늘게 쪼개야 한다.

- 이때 왼손으로 줄기를 잡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톱으로 여러 번 찢는다.
- 한 묶음의 삼 줄기가 일정한 두께로 찢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 다 찢었으면 삼 줄기를 나무로 만든 도마 위에 올린다.
- 줄기의 끝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삼톱을 잡고 껍질을 긁어낸다.
- 삼 삼기는 삼실을 길게 만드는 작업이다.
- 하나의 삼실과 또 다른 삼실을 연결하는 것이다.
- 두 개의 삼실의 끝을 나란하게 만들어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침을 발라 비빈다.
-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면 길이가 긴 실을 만들어 날실과 씨실로 사용한다.
- 길이가 길어진 삼실을 물에 적셔 물레에 걸어 주고, 물레를 돌려 실 타래를 만든다.
- 이 타래는 볕에 말려준 후 다시 물에 적신 다음, 볏짚을 태워 만든 재로 타래를 덮는다.
- 이것을 35℃ 정도의 온돌방에 차곡차곡 포개 놓는다.
- 그 위에 넓은 천을 덮어 1주일 동안 둔다.
- 일주일 후 타래를 꺼낸다.
- 타래에 묻어 있는 재를 털어준 후, 솥에 넣고 타래를 삶는다.
- 이렇게 빨아준 타래를 2~3일 동안 물에 적셨다가 햇볕에 말리는 것을 반복한다.
- 실타래는 잿물에 담가 익혀 불순물을 제거 후 하루 2~3차례씩 적시며 햇볕에 바랜다.
- 쌀뜨물에 넣어 5~6시간 담갔다가 꺼내 물기가 있을 때 말려 돌 겻에 올려 풀어낸다.
- 풀어낸 삼실은 일정량씩 묶어 날줄과 씨줄로 나눈다.

판교장에서 태모시를 사와서 모시베를 만들었다.

삼베처럼 모시베도 만들었는데, 모시는 삼처럼 마을에서 재배하지 않았다. 임수대 지나 판교장까지 걸어가서 원재료 태모시를 구입하여 지게를 지고 날라와서, 삼베처럼 모시베를 만들었다.

집집마다 가마니치기, 가축 기르기, 죽 제품 만드는 부업을 하였다.

신산리는 물이 고이거나 흐르질 않아 농사짓기가 힘들었다. 빗물이나 하천의 물은 금 새 땅속으로 스미는 건천으로 농사 환경이 열악하였다. 또 농사터가 넓지 않아 적은 소출량으

로 살림이 빈궁하여 집집마다 부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신산리 각 가정에서 많이 한 부업으로는 새끼('산내끼'라고 부름)꼬기, 가마니치기를 많이 하였다. 집집마다 소, 돼지, 닭, 염소, 토끼 등 가축을 길렀다. 죽 제품을 만들었다. 또 어떤 집은 땔 나무를 하여 광천 혹은 화성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신산리는 죽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

신산리는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어 죽 제품 즉 바구니, 옹텡이, 소쿠리, 채반, 용수, 조랭이 등 다양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았다. 동네에 대나무가 잘 자라고 만들기 쉽기에 여러 가지 죽 제품을 만들어 직접 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대나무가 부족하여 이웃 신대리 등에서 지게로 져 날라오기도 하였다. 다 만들어 놓으면 중간 도매상이 와서 수거해 가기도 하였다.

신산리는 사방으로 5일장을 다녔다.

신산리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5일장은 광천장(4.9)이다. 30리 밖이다. 높티고개, 넓티고개, 새재고개를 넘는다. 땔나무, 가마니, 곡식 등을 내다팔고 생필품과 소금, 생선 등을 구입하였다. 화성장(5.10)은 모듬내장이라고 불렀다. 10리 밖이라 쉽게 드나들었다. 청라장(1.6)은 잘 가지 않았지만 급하게 볼 일이 있으면 찾았다. 대천장(3.8)은 길이 반듯하여 구르마를 많이 운행하였다. 주로 곡식을 내다팔고 개화산물이나 잔치 음식재료를 준비하였다. 청양장(2.7)은 소를 거래하느라 많이 다녔다. 판교장(5.10)은 외산을 거쳐 가는 길로 태모시와 모시베를 거래하느라 드나들었다.

내가 겪은 6.25는 무서웠다.

15살 되던 해 6.25가 터졌다. 우리 동네에서 6.25로 크게 다치거나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이 있지는 않았다. 화성에 인민군 부대 지휘소가 있어서 가까운 신산리에서도 종종 인민군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후 인민군 한 부대가 마을을 지나면서 구레골 우리 집에도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하여 한차례 해 준 적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고 몹시 불안하게 보였다. 그때 밥을 먹더니 그대로 조용히 마을을 떠

나고 말았다.

4촌까지 20명이 대가족으로 살다가 딸이 18살 때 분가하였다.

손영희 보살이 18살 되던 해 1954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하게 되었다. 4촌 형제까지 함께 산 대식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대가족의 '구레골' 집에서 박살뫼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만의 새집을 지어 이사하게 되었다.

적은 농사터로 부업과 집안일에 매달렸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작은 농사터를 받았지만 6남매 키우는 살림살이가 여전히 힘들었다. 농사 외에 목수 일도 병행하였다. 다행히 소문난 기술자여서 살림을 어느 정도 꾸려나갈 수 있었다. 분가하기 전 대가족 집에서는 길쌈과 부엌일로 눈코 뜰 새 없었다. 박살뫼로 이사 오고 난 이후 더 이상 사촌 동생들 돌보기와 대가족의 농사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살림으로 여러 가지 부업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일복을 크게 타고났다고 여겼다.

신산리 내는 작은 두 마을 공동체가 있었다.

신산리는 새말과 건천의 윗건천과 구레골, 정자밑, 박살뫼, 덕너머, 알매골, 구렁목의 아랫건천의 두 마을로 나뉘었다. 각 마을마다 상여와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생활 단위와 공동체 의식이 서로 달랐다.

신산리 사람들은 최고의 풍물을 즐겼다.

두 마을은 모두 풍물을 잘 쳤다. 우리 아버지는 상쇠로 위 아래 마을의 풍물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신산리 풍물패가 청라면을 대표하여 군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두 마을이 연합하여 신산리 대표로 나갔다. 마을에 풍물이 열리면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울려 절로 어깨춤을 추고 신이 났었다. 풍물은 명절 때뿐만 아니라 환갑이나 혼사같은 잔칫날에도 쳤다.

할머니 보성오씨는 인화단결로 대가족을 이끌었다.

할머니는 보성오씨(寶城吳氏)로 매우 따뜻하고 활달하시며 지혜로운 분이셨다. 비록 없는 살림이었지만 대가족이 화목하고 큰 불화 없이 한 집에서 어울려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할머니의 그러한 성품 덕분이었다. 할머니께서는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인화를 강조하고 몸소 실천하셨다. 거기다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잘 보살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동네에서도 할머니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다.

피난민 김연환은 명리학과 불교에 뛰어나 주민과 화합하였다.

할머니는 장현리 명대계곡 금자동 절집에서 불교 공부에 전념하는 김연택 청년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는 6.25 때 이북에서 가족들을 미처 데려오지 못하고 단신 월남하여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휴전이 되고 길이 막히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불심이 깊고 명리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늘 북에 두고 온 처자식을 포함한 가족으로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로운 안내를 많이 해주었다. 그도 할머니를 최고의 후원자이자 보호자로 여겨 잘 따르기도 하였다.

피난 월남하여 홀로 된 남자 김연환은 결혼하여 남한에 정착하였다.

할머니는 손녀 딸 손영희를 김연택 청년?과 혼인의 짝으로 이어주려 하였다. 부모님의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는 홀로 된 김연택이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인재이고, 성품이 착하고 남달리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현실적으로 이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여서, 이만한 신랑감이 없다는 말로 혼인을 밀어붙였다.

월남한 김연환 님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손영희는 1958년 23살 되던 해 김연택 님과 결혼하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신체뿐인 김연택 청년과의 혼인은 꿈 많은 23살 처녀에게 여러 가지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는 본래 강원도 화천사람인데 15살 연상으로 결혼 당시는 38살이었다. 월남하기 이전에 이미 이북에서 결혼하여 처자식을 두었지만 6.25 때 단신 월남하여 사고무친의 외로운 사람이었다. 남한의 손영희와 재혼하여 남한에 정착하였다.

어려운 살림살이의 결혼식은 단초로웠다.

그와의 혼인에는 이웃이나 친지의 초대도 없었다. 그의 처지를 고려하여 풍물치는 특별한 잔치나 구체적인 혼인식도 없었다. 큰 기대는 아니했지만 소박하게나마 정성스런 예식을 기대했지만 그러하지도 못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기도 하였고 또 신랑의 처지가 몹시 어려운 환경인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살림살이 몇 가지를 준비해서, 그의 집으로 혼수와 몸이 들어가는 것이 결혼식의 전부였다.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청라면 신산리 박살뫼에서 이불 보따리와 신접 살림살이 몇 가지를 보따리에 싸고, 그 짐을 친정 당숙과 육촌 동생이 지게에 져서 옮겨갔다. 또 아버지와 친정 식구들이 함께 광천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홍성까지 가서는 다시 걸어서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신혼집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날 함께 간 일행들과 동네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간단한 예식을 치르고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아버지의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축하의 말인 동시에 당부였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친정 식구들이 모두 다시 신산리로 돌아왔다. 둘만 남아 그렇게 신혼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주와 소작인은 생산량을 반반으로 배분하였다.

결혼 다음 날부터 송암리 들판에 나가 농사일을 하였다. 농사라야 동네에서 얻은 반반 나누는 소작논과 남의 밭이 전부였다. 내가 가진 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신랑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였다. 신부 손영희도 조금도 쉼 없이 일하였다. 일복을 타고난 손영희는 불만을 드러내거나 잠시도 우울하여 앉아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행인 것은 아픈 곳 없이 몸이 건강하였다는 점이다.

남의 집 잔치 일에 품을 팔았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재주 많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요리와 집안 일솜씨가 좋아 많은 사람이 찾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익히고 몸에 밴 일솜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곧바로 동네의 큰 애경사 음식 준비 등에 초대되었고 더욱 바쁘게 일하였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도 여기저기 불려나가 남의 집 일을 거들어 주었다. 재산을 모으고 살림이 늘어났다

쌀 10가마에 논 3마지기를 구매하였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는 성실하게 농사짓고 알뜰하게 살림하였다. 남의 집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7년을 그렇게 하니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논을 장만하였다. 그때 당시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논 한 마지기 쌀 3~4가마니였다. 논을 쌀 10가마에 3마지기를 샀다. 드디어 내 논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식구도 늘었다. 결혼하고 3년 뒤 첫째 딸, 그리고 2년 뒤 둘째 딸을 얻었다. 이북에서 월남하여 사고무친에 빈털털이 김연택과 가난하고 배움 없는 손영희가 혼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더니 단란하고 희망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운파의 불경 공부 일취월장!

그러면서도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한 남편 김연택은 운파(雲坡)라는 법명을 갖게 되었다. 본격적인 승려로서 수도 생활을 희망하여 절집을 찾아나서기도 하고, 불교에 귀의할 준비를 하였다. 운파는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6효를 갖춘 명리학에도 두각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만나 인생상담도 시작하였다.

개인 사찰의 매매가 있어 유서 깊은 월정사를 인수하였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운파의 불경 공부도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명리학과 6효에도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절집 운영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갖추었을 때 절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마침 친정 동네 장현리 오서산 440m 중턱 에 있는 암자 월정사가 매물로 나왔다. 1964년 드디어 월정사를 인수하였다. 김연택님은 운파 스님으로 불사를 행하는 주지로 들어서고, 손영희는 절집 공양주로 맡아보았다. 본격적으로 월정사 절집 운영과 산중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정의 도움이 컸다.

절집 인수에 친정아버지 손수동의 도움이 컸다. 홍성군 금마면에서 착실히 모은 재산을 털어 월정사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였다. 그때 당시 거금인 쌀 15가마를 내어주시고 월정사 절집을 인수할 수 있게 하였다. 드디어 이삿날이 결정되었다. 1964

년 12월 25일 이사하였다.

1964년 한겨울 오서산 중턱 절집으로 이사하였다.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집을 처분하고 살림살이와 식구들이 모두 옮겨오는 이사는 쉽지 않았다. 더구나 날은 한겨울이고 아이들도 2살, 5살로 아직 갓난아이라서 걸을 수도 없었다. 갓난아이들은 홍성 금마에 사는 15살, 16살 수양딸 둘이 각각 두 아이를 등에 업어왔다. 살림살이를 묶은 이삿짐은 6촌 동생과 당숙 그리고 친정 동생들이 지게로 져서 옮겨왔다. 이사 오는 길은 5시간 이상 걸렸다. 총 80리 길이었다. 길은 멀었고, 한나절 걸었다.

금마에서 월정사까지 80리 길을 걸어서 이사하였다.

금마에서 홍성역까지는 걸어왔다. 거기 홍성역에서 광천역까지 와서는 기차를 타고 왔다. 다시 기차에서 내려 월정사까지 걸어왔다. 광천역에서 일행은 광천 쪽다리를 거쳐 동남쪽 광신초등학교와 관음사를 지나 아차산 던목고개에서 다시 보령군으로 향하여 아차산 뒤 새재고개를 넘어 청소면 성현리에 도착하였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오서산을 왼쪽에 두고 높이 오르는 넙티고개를 넘어와서는 청라면 황룡리 돌머루 마을 입구에서 잠시 쉬었다가, 석우천 건너 다시 왼쪽으로 높티고개를 타고 와서는 면산을 지나 비행기 떨어진 구막굴과 바닥굴 지나 등잔거리에 올라섰다가 원밭재 위 월정사에 들었다. 그렇게 이삿짐 지고 또 갓난아이를 업고, 험난한 산 고개 몇 개씩 넘는 고난의 이삿길은 5시간 넘어 걸어왔다. 그 힘든 길을 묵묵히 넘어온 수양딸들은 반찬 없는 점심을 먹고서는 해 저물기 전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오던 길 뒤돌아가는 길에 나섰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고마움을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

당숙과 친정 동생들은 이삿짐을 날라와서는 여기저기 내려놓고 제대로 위치를 잡아주기도 하였다. 당숙과 육촌 동생 그리고 친정 동생들은 이삿짐 정리마저 하고서는 저녁 먹고 집으로 내려갔다.

월정사는 유서 깊은 내력을 가지고 있다.

오서산에는 여러 암자가 있다. 정암사, 내원사, 강선암, 금자암 등이다. 그중에서 월정사

도 매우 유서 깊은 암자이다. 1916년 무량사 주지를 지낸 김동초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김동초 창건주가 1948년까지 주지로 절 살림을 맡아오다가, 이후 사촌 간인 김홍식 스님과 김덕환 스님에게 운영권이 넘어갔고, 10년 남짓 서로 주고받으며 운영해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1958년부터 1965년 김연환에게 넘기기 전까지 김동진 스님이 맡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1965년 들어 운파 김연환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다.

월정사 중심으로 본 오성산 팔경의 노래가 전해진다.

창건 당시 보령군수 김영진이 짓고 창건주 김동초가 쓴 월정사 8경 제액이 현재 전해오고 있다. 오성산은 오서산을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

萬丈烏棲海盖東 月精庵在白雲中 如胡八景寺寺栓 掄店長安似不同
/大正 五年(1916) 十月 二十八日 保寧郡守 金英鎭 詩 奉題住持 金東招 書

<烏聖山月精庵 八景>

一景	金紫飛瀑	금자폭포 하늘 아래 떨어지고,	(월정사 바로 아래 금자폭포)
二景	蠶頭返照	잠두봉에 석양빛이 가득하네.	(오서산 정상에 비친 석양)
三景	歸鶴宿雲	돌아온 학은 구름 위에 잠자고,	(우수고개 정자에 날아든 학)
四景	雲臺樵笛	울띠엔 나무꾼 피리소리 들리네.	(울띠 대정산 나무꾼 피리 소리)
五景	靑蘿朝露	청라동에 아침 이슬 내리고,	(청라 용연에 내리는 아침 이슬)
六景	聖住暮雨	성주산엔 저녁 비 오시네.	(성주산에 내리는 저녁 비)
七景	九峯宵月	구봉산에 하늘 높이 달뜨고,	(청양 구봉산 하늘에 우뚝한 달)
八景	磻溪派秋	반계에는 가을 물결 흘러가네.	(장곡 반계로 흐르는 가을 물결)

절집 주지 운파의 육효점 명성이 높았다.

이때 운파 스님은 명리학과 육효에 상당한 권위자로 알려져 월정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운파의 육효점으로 크게 신망을 불러온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① 소 잃은 사람에게 도둑과 그 소가 광천장에 있음을 알려줘 찾아준 경우가 있었고, ②

석탄 채굴권자에게 오서산에는 석탄 채굴의 실익이 없음을 미리 알려줘 섣부른 개간으로 큰 재산 손실을 막아주었으며 ③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거 당선 점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게 인도한 일 등이 있다.

더 장엄한 불전, 더 넓어진 요사채를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을 늘렸다.

유서 깊은 절이지만 불당이 작고 초라하였다. 요사채도 여러 식구가 살림하기엔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우선 불전을 더욱 장엄하게 꾸미고 넓혔다. 요사채를 여러 식구가 살 수 있도록 방도 더 들이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설치하였다. 이사한 뒤로 딸 둘과 막내 아들이 또 태어났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도 종종 들르시게 되어 살림집을 더 넓히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운파 스님의 육효점 명성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공양주로서 더욱 분주하였다. 정주간(부엌)을 우선 더욱 넓혔다. 남편 운파 스님과 친정아버지가 모두 목수여서 불전과 요사채 증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두 분이 서로 의논하여 설계하고 공사계획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재료를 준비하고 건축 일을 일사천리로 하실 수 있었다. 건축에 있어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다.

절집에도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었다.

1965년 운파가 주지로 오면서 월정사 생활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여러 식구가 살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시켰다. 매일 매일 넉넉하고 깨끗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샘을 파고 관로를 묻었다. 주변 산의 물은 풍부하였다. 그리고 빨래터와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과 위생적인 실내 화장실과 야외 해우소도 다시 마련하였다.

절 주변의 산을 밭으로 개간하였다.

처음엔 채소를 재배하여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밭도 일궈놓았다. 그러다가 점점 더 넓혀 나갔다. 산 언덕을 평탄하고 자갈을 골라내었다. 양곡을 심을 정도가 되었다. 친정에서 쟁기와 소를 가져야 새로 일군 밭을 갈기도 하였다. 콩과 보리도 심었다.

절집은 무엇이든 자급자족의 생활이 기본이었다.

1965년 들어왔을 때부터 절집의 생활 도구는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거의 모두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지게, 소쿠리, 극쟁이, 바구리 등부터, 땔감, 음식 재료, 의복 등도 직접 만들어 냈다.

월정사 주변에는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절 위에는 토정 이지함이 수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바위가 있다. 또 절 아래에는 월정사 이전 사자암이 있었다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널찍한 자리도 있다. 이지함 수도 전설과 사자암 절집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절집으로 들어서는 길목엔 조그만 둠벙을 조성하였고 절집 출입문 대신 큰 바위에 오서산 월정사라 글씨를 새기기도 하였다. 절집 주변의 바위에 붙여진 바위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한다. 신랑바위, 각시바위, 사자바위, 굴바위, 장군바위, 금자폭포, 금자천 등이 그것이다.

월정사는 산을 찾는 이에게 쉼을 선물한다.

1980년대 이후 오서산을 등반하면서 월정사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 청소면 성연리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임도도 뚫렸다. 종종 차량과 함께 오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불심과는 상관없이 월정사에 들러 잠시 땀을 식히거나 목을 축이는 사람 또 간단한 식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산사로서의 역할과 함께 쉼터로서의 역할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요사채 아래 사람들이 주변 경관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조망대를 설치하였다. 음료와 간단히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찰 음식을 준비한다.

월정사에서 소요되는 음식 재료는 신산리 친정집 논 · 밭에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 그리고 산중 텃밭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소금, 양념 등을 섞어 만든 김치 등 발효 식품, 오서산에서 채취한 나물 혹은 산채, 또 그것을 쪄 말린 것, 산속 열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류, 또 불전에 정성으로 제물로 쓰는 다양한 떡 등이 있다.

사시사철 먹을 수 있도록 절집 주변 채소밭과 신산리 친정집에서 얻어올 수 있는 밭작물이 가장 많았다. 무, 배추, 시금치, 아욱, 근대, 상추, 부추, 쑥갓, 미나리 등 거의 모든 채소를 망라하였다. 고추, 마늘, 참깨, 들깨 등 양념류와 무나물, 시래기나물 등도 있다. 산채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채취한 것들로 아주 다양하다. 이른 봄에는 들나물을 많이 채취하였다. 이른 봄 들나물로는 냉이, 달래, 쑥, 씀바귀, 질경이, 명이주 등이다. 간혹 송화가루, 개복숭아, 매실, 머루 다래를 채취하여 발효시키기도 하였다. 월정사의 산채는 입하(立夏) 이후 즉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채취하는 산나물이 많았다. 취, 고사리, 명티, 개암취, 다래순, 빕새덩굴, 훔치, 고추나물 등이다. 그것을 채취하여 그대로 말리거나 혹은 쪄서 말려 두기도 하였다.

조성된 밭에서는 콩과 보리를 주로 심었다. 콩은 몇 가마씩 수확하여 전량 메주를 만들고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만드는데 소용하였다. 보리도 재배하여 절집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가을은 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얻은 것을 음식 재료로 쓰는 것이 많다. 도토리, 상수리, 산감, 산밤 등이다. 특히 도토리는 묵을 쒀서 많이 내놓는다. 겨울엔 칡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였다. 특히 그 즙을 짜서 약으로 먹기도 하였다.

불전에 정성으로 올리는 떡을 많이 준비한다. 떡방아 찧는 일은 매일 같이 절집에서 손으로 직접 행하였다. 힘든 일이었다. 쌀을 떡방아에 곱게 찌어 떡살을 만든 다음 그것을 적절히 시루에 올려 떡을 쪄낸다. 이렇게 만든 떡은 주로 불전에 올린다. 월정사에서는 백무리와 팥고물의 시루떡을 주로 많이 하였다.

월정사는 솔잎 막걸리의 특산품을 만든다.

월정사에는 막걸리를 많이 빚었다. 산사를 오가는 손님들이 찾으면 간단한 김치와 산채 혹은 나물 무침 등과 함께 내놓는다. 직접 빚은 술은 솔잎 막걸리다. 순서는 여늬 막걸리와 비슷하다. 월정사 술맛이 좋은 것은 물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멥쌀로 술밥을 찐다. 이때 술밥은 밥물보다는 적게 잡는 것이 요령이다.

② 다 찐 술밥은 식혀 두었다가 끄들끄들 굳으면 누룩하고 한데 섞는다.

③그리고 술바탱이에 오서산에서 깨끗이 채취한 물과 솔잎을 적절히 섞는다.

④ 술바탱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두고 공기가 들지 않도록 천으로 묶어 둔다.

⑤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용수를 박고 맑은 술을 뜬다.

월정사는 산의 밭에 콩을 심어 전량 된장을 만든다.

월정사 아래에 텃밭을 일궈 콩을 재배한다. 재배된 콩은 전량 장을 담근다. 그 장류로는 된장, 청국장, 간장과 고추장이 있다. 월정사는 매년 어느 정도 만들어 이웃과 나누기도 하지만, 지금은 산채, 라면, 묵무침 그리고 솔잎 막걸리와 함께 일정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월정사에는 특별 후원자가 있었다.

월정사 인수 이후 초창기 절 살림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준 분이 있다. 반듯한 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 준분은 서울 사는 황○○님이신데, 조상 묘를 월정사 가까운 곳에 조성하고 묘지의 관리와 조상 원혼 달래는 제를 올려주기를 부탁하였다. 월정사는 그의 부탁대로 매년 벌초, 성묘, 제사, 굿 등을 올려주었다. 그는 조상 묘를 찾아올 때마다 넉넉한 금전적 기부와 보시를 하여 절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30년 가까운 기간 그렇게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발길이 끊어졌다. 1년 뒤에는 그의 후손들이 찾아와 그 조상 묘를 모두 파묘하여 갔고 더 이상 조상 위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하여 주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뒤로 더 이상 묘를 관리하고 묘지의 원혼을 달래주는 제를 올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월정사는 개를 키우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옛날부터 절집에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 하지만 월정사에는 개를 기른다. 월정사 개는 절을 찾은 사람에게 대들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놓았다. 사람에게는 절대 사납게 짓거나 대들지 않도록 특별히 훈련을 시켜놓은 것이다. 그리고 덩치가 작고 집을 잘 지키는 것으로 골라 놓았다. 월정사에서 개를 키우는 까닭은 텃밭의 작물을 보호하기 위함이 크다. 절 주변에 밭을 조성하면서부터 개를 키워온 것이다. 고라니 등 산짐승과, 비둘기 등 산새 등이 찾아와 텃밭의 작물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개를 키운다. 최근 산짐승들은 갑자기 그 개체

수가 불어났다. 하지만 개가 있으면 그러한 산짐승들이 밭 주변으로는 얼씬하지 않는다.

절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웠다.

운파스님과 손영희 보살은 모두 5남매를 두었다. 절집에 살면서 아이들 교육이 힘들었다. 초등학교는 모두 이웃 장현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부터는 통학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일찍 어둠이 내려 산길을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모두 자취 혹은 하숙을 하였다. 그래서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또한 어려움은 동급생 등 친구들이 '절집의 아이들이라고 놀리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다. 자녀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5남매 누구도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내지는 않았다. 모두 별 탈 없이 고등학교까지 잘 마쳤다. 그 이상 배움을 원하는 사람에겐 더 학비를 대주기도 하였다.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 주었다.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 월정사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제짝을 찾아 결혼하였고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나름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견하다. 종종 부모에게 안부를 묻고 찾아오는 것이 큰 보람이다. 또 둘째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기분 좋고 늘 외롭지도 않다.

주지 스님은 명리학과 6효에도 밝았다.

손영희 보살보다 15살이 연상인 운파 스님은 명리학과 6효에 아주 밝았다. 명리학은 태어난 날과 시간에 해당하는 사주로 한 사람의 운명 즉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인데, 운파는 일찍부터 실력 있는 옛 선생으로부터 명리학을 배우고 오랫동안 스스로 익혀왔다. 그가 풀이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 있고 또한 예측이 잘 맞아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크게 신망을 받았다. 절로 월정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명리학은 음양과 오행에서 비롯되었다. 음양은 세상만물이 하늘과 땅, 남과 여처럼 상대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상이며, 오행은 <화 · 수 · 목 · 금 · 토> 다섯가지의 물질의 상생과 상극으로 세상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상이기에 우무 만물이 돌아가는 특히 자연의 이치와 변화에 늘 주목하기도 하였다.

6효는 '주역'의 64괘를 구성하는 6개의 획을 가리키는 역학 용어인데, 육효(六爻)에는

변화 · 변동 · 삼재(三才: 天·地·人)의 뜻이 있음을 간파하여 주었다. 운파는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원리와 풀이를 잘 하였다. 그는 크고 넓은 천 · 지 · 인의 삼재와 삼재의 음양 변화의 뜻을 각 사람마다 관련 효를 잘 풀이해 주었다. 월정사의 운파 스님은 명리학과 6효를 바탕으로 절망과 고민의 세월을 사는 상담자에게 밝은 희망과 밝은 길을 안내하여 주었다. 운파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절의 살림살이도 늘어났다.

운파 스님은 사교적이고 예술혼이 뛰어났다.

운파는 예술혼도 뛰어나 음악, 미술 못하는 것이 없었다. 또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건축 일을 아주 잘하는 목수이기도 하였다. 뭇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불사(佛事)가 아닌 그냥 정으로 절집을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다. 그는 참으로 재주가 많고 인간 친화적인 사람이었다. 한번 그를 만나면 곧바로 친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절 밖으로 정든 사람 만나려고 절집을 비울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친한 사람들이 '한적한 산속에 예쁘고 젊은 색시를 혼자 놔두고 그렇게 마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불안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성직자 운파 스님은 이웃과도 잘 어울렸다.

월정사는 황룡리, 장현리, 신산리 주민들과도 잘 어울렸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과는 아주 절친하게 지내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모두 산중 절집의 자녀들이니 선생님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저절로 가까워진 것 같다. 또한 동네 주민들도 스스럼없이 월정사를 찾았고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운파 스님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운파의 광천장 다녀오기

1965~1979 월정사 주지 운파 스님은 광천장을 많이 드나들었다. 절에 소용되는 불구 혹은 가족들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 장날마다 사시사철 거의 드나들었다. 그때 운파가 월정사에서 광천장에 가고 온 길의 정경을 재구성해 본다.

-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나, 도량석을 돌고 새벽 예불을 올린다.
- 6시에 아침 공양을 한다.
- 이른 아침 어둠이 가시기 전에 월정사를 나선다.
- 원밭재에 올라서면 해 뜨는 동쪽이 밝아오고 구막골을 거쳐 높티 고갯길에 들어선다.
- 장에 가는 길에 신산리, 장현리 사람들을 만나 인사한다.
- 나무짐 지게 진 장정, 곡식이나 가마니 머리에 인 아주머니, 두루마기 선비와 동행한다.
- 돌머루 모퉁이에서 황룡리 사람들과 합류하여 넙티고개를 넘어간다.
- 청소면 성현리 용연에서 오른쪽 새재 고개에 들어선다.
- 8시쯤 던목고개를 지나 아차산으로 난 수리고개에 들어선다.
- 9시쯤 관음사를 지나 광천 쪽다리에 들어서면 바로 광천장이다.
- 4, 9 광천 오일장이고, 다양한 전이 펼쳐지며 흥정하는 소리가 쉼이 없다.
- 국수집, 국밥집, 대포집에 김이 오르고, 장옥마다 사람이 들고 난다.
- 홍성 금마에서 이웃한 사람도 만나고 신발과 옷가지 그리고 갯것도 산다.
- 반가운 해후, 국밥집에서 얼큰한 점심! 해가 중천을 지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 가는 길은 아침에 들어온 길을 도로 나가는 길이다.
- 아차산, 오서산 그리고 섭밭산, 광천천, 용연 그리고 석우천, 높티, 넙티, 그리고 새재
- 산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꿩과 토끼가 혼비백산!
- 기다리는 이의 안도와 반가운 미소를 본다.
-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월정사에 오는 길은 두 갈래다.

산 아래에서 월정사까지 오려면 걸어와야만 했다. 그 길 하나는 명대계곡 금자동에서 명대 소류지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신랑바위 각시바위를 지나 금자폭포 옆길로 걸어들어와야만 한다. 또 하나는 높티고개 길에서 오서산을 바라보고 구막골과 바닥골을 지나 원밭재로 올라서면 바로 월정사에 이른다. 차 없던 시절 높티고개 길에서 구막골과 바닥골을 지나는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

운파의 낙상과 갑작스런 세상 이별

운파 스님도 구막골과 바닥골을 지나는 길을 이용하다 그만 산바위가 많은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되었다. 간신히 기어서 집에 당도하였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다쳐 회복 불능 상태였다. 그때 몇 달 앓아 누었다. 큰 병인 줄 미처 몰랐고 곧 회복되리라 믿고 있었다. 여러 현대 의학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1979년 1월 6일 새벽, 사랑하는 아내와 5남매를 남겨둔 채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너무나 애통하고 속상한 일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9이었다. 그가 월정사를 배경으로 법력을 펼친 지 꼭 15년 만이었다. 명쾌한 명리와 따뜻한 6효로 세상 고민 많은 이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어왔건만 너무나 허망한 일이었다.

월정사의 명성과 신뢰가 이어가고 있다.

운파가 그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손영희 보살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가졌다. 하지만 한없이 슬픔에만 빠져 끝내 좌절할 수는 없었다. 얼마 안 가 손영희 보살은 슬픔을 이겨내며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한참 자라고 있는 5남매를 어찌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기왕에 갖은 노력 끝에 얻은 명성과 신뢰가 아니던가! 사랑받고 있던 절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눈썰미 좋고 무엇이든 배움에 열성이었던 손영희 보살은 이미 웬만한 절집의 불사를 충분히 진행할 정도는 익혀두고 있었다. 15년 넘게 옆에서 지켜보고 또 참여하지 않았던가? 헤쳐 나갈 자신 있었다. 그때부터 절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모시는 일을 안내하였다.

공양주 고덕화의 법회를 직접 주재하였다.

1979년 운파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손영희 보살은 고덕화(高德花)라는 법명을 주로 쓰기 시작하였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큰 법회가 열리면 이웃의 큰 절의 학식 높은 스님이나 덕망 있는 스님을 초대하여 대행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웬만한 작은 불사에는 직접 나서기도 하였다. 어깨 넘어 보아두었던 염불과 진행 순서를 그대로 따라 진행하였다. 목탁도 틀리지 않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반야심경도 암송하였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였다. 나중에는 천수경과 금강경도

치고 장례식 때 영가의 극락왕생 기도도 주문하였다.

1979년 전기 가설로 산사 생활이 크게 변화하였다.

월정사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79년이다. 산 아래 장현리 마을에는 1975년에 들어왔지만 금방 월정사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4년 뒤 1979년에서야 전봇대가 세워지고 월정사에도 전기가 가설되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초를 사용하여 밤의 어둠을 밝혔다. 등잔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편리 가전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의식주(衣食住)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산 자급해야 하는 처지라 몸이 견뎌내기 힘들었다. 전기와 가전제품이 들어오면서 절집의 일상이 확 바뀌었다.

절집 정주간(부엌)도 안전하다.

전기가 들어오던 1979년에는 부엌에 LPG 가스와 가스레인지가 들어와 언제든지 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고 종종 불을 지피지만 더 이상 불을 때지 않아도 되었다. 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나무에 불을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를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산중이라 땔 나무를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화재로부터도 크게 안전하게 되었다.

길어다 먹던 샘물 대신 이제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

음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샘을 파고 관을 묻어 수도꼭지를 설치하였다. 지금은 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기 전에는 서편 물 흘러가는 곳에 우물을 파고 그 물을 길어다 먹었다.

친정 부모 모셔다가 편안한 황혼 마무리하게 하였다.

운파가 1979년 돌아가시고 한 10년 지나자 친정 부모도 병들기 시작하였다. 친정 동생들이 부모 모시기를 버거워하였다. 어머니는 1988년 친정 동생 집에서 병으로 일찍 돌아가

셨다. 그리고 홀로 되신 아버지께 일러 절집으로 들어오시라 하였다. 하지만 들어오시는 것을 자꾸 거절하시다가 1997년이 되어서야 들어오셨다. 병이 회복 불능으로 더욱 깊어지자 여기 절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나중에는 조금도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야만 하였다. 그렇게 여기서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지내셨다. 그때 병석에 있으면서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이 매일 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언제나 상비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간단한 상비약을 늘 준비해 두었다. 절집에서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비약을 늘 준비해 둔다. 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간단한 상처 치료제 등이 그것이다.

월정사 새 운영자 들어와 미래 희망을 찾았다.

10년 전 2014년에 둘째 딸 김남실이 월정사에 들어와 정착하였고, 절집 살림을 모두 맡았다. 김남실 보살은 월정사의 새로운 변화와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젊은 절집 운영자으로 적임자다. 나 손영희는 이미 몸이 많이 늙고, 분주하고 고된 절 살림을 꾸려나갈만한 기력이 많이 부족하다. 절집 살림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감당해나갈 수도 없다. 거기다 또 나는 새 시대에도 잘 맞지 않는다. 이제 딸이 모두 운영하게 되어 무척 다행이다.

명리와 6효에 밝고, 불심 깊은 사랑 쉼터 운영의 김남실 보살!

김남실 보살은 새 시대 월정사의 운영 적임자다. 그녀는 불교 공부를 조계사에서 유명스승님 밑에서 정식으로 많이 하고 명리와 6효에도 밝은 사람이라 절을 찾는 이에게 많은 희망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김보살을 찾아와 상담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잘 부응하고 있다. 운파 스님이 살아계실 때의 월정사의 영화가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다. 또한 김보살의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부지런하여 휴게실 운영도 야무지게 잘한다.

월정사에도 자동차가 왕래한다.

무엇보다 김남실 보살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가 절집 마당까지 드나들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제 승용차를 가지고 수시로 바깥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절 밖의 사람과 수시로 소통하고 절에 필요한 물건 특히 무거운 짐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니다. 월정사 위 임도에서 아래 절까지 이어지는 길과 명대계곡에서 임도까지 이어지는 포장도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다. 하지만 임도에서 절까지의 급경사 길은 비만 오면 패이고 돌무더기가 떠내려와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폭우로 길이 끊어지면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길 닦기 공사를 호소하여서 간신히 길이 열리곤 하였다. 2023년에 대대적으로 자동차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평탄 작업도 하였다. 길이 하도 험하고 경사가 급해서 앞바퀴에 '대후'라고 하는 자동기어를 장착한 차량만이 다닐 수 있다.

산중 절집에는 겨울나기가 어려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산중에는 겨울나기가 어렵다. 눈이 쌓이고 길이 험하여 몇 날이고 산 아래 출입이 막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많이 한다. 충분한 땔감과 넉넉한 김장이 그것이다. 겨울나기 준비는 이른 가을부터 시작한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사나운 산짐승이 찾아온 적은 없다.

최고 기도처는 월정사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월정사를 찾는 사람은 다양하다. 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그들을 일일이 적정하게 응대하기 위해 늘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둔다. 가정의 상사, 사고 등을 당하여 부처님께 심신의 안녕과 상사 혹은 사고로 세상 유명을 달리한 망자의 극락왕생을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한 불사를 베풀어 준다. 또 부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법당에서 적절히 기도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도 한다. 여기 월정사가 기도가 잘 듣는 곳으로 알려져 먼 곳에서 특별히 찾는 사람도 많다.

희망과 구원을 안내하는 월정사

때로는 세상사 고민이 있어 상담하는 사람 즉 명리나 6효를 통해 희망과 구원의 길도 안내한다. 사주팔자에 따른 운명개척을 알려준다. 월정사를 찾는 가장 많은 경우는 등산하러 왔다가 잠시 쉼을 얻으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잠시 땀을 식히고 마른 목을 축이거나 허기를 달래는 경우이다. 그들에게 적절한 음료와 음식을 준비하여 두기도 한다. 또 간혹 1~2일 묵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초파일은 분주하다.

1965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월정사는 매년 초파일 때가 가장 바쁘다. 연등을 켜는 사람과 부처님께 복을 빌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식사와 쉼을 주기 위한 준비는 물론이요. 법회 준비, 연등 준비 등이 주로 그것이다. 일손이 딸려 여러 일가 친척이 도와주곤 한다. 대략 등은 100여 개 정도를 켠다.

<인터뷰어 신재완, 스토리텔러 신재완>



아산시

| 온양의 오일장

온양온천시장의 변화를 위해 꿈과 비젼을 만드는 사람 360
성악가의 꿈과 맞바꾼 고추 기름집 여사장 366
광천상회 김은 사람들의 밥상에 언제나 입맛을 돋구었다 371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며 봉사하는 온양 온천의 참 일꾼 377
타고난 근면 성실함이 사업으로 성공했다 382
아산의 전기와 재료는 국제사의 역사다 388
한복 한 벌 하벌에 정성과 미소도 함께 담아 팔았다 393
아가와 엄마들이 선택한 아기 옷 이제는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옷 398

아산시

온양의 오일장

황 의 덕 (1945년생)
아산시 어의정로

온양온천시장의 변화를 위해 꿈과 비전을 만드는 사람



황의덕은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에서 아버지 황용주와 어머니 김종례 사이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논농사와 약간의 밭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벌이로는 먹고살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밭에다 열무를 심어 김치를 담아 보리쌀하고 바꾸어와서 가족들을 먹였는데 정작 어머니는 독사풀을 볶아 먹기도 하였다.

유년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황의덕은 큰 누님이 살고 있는 온양으로 무작정 올라왔다. 먹고 살기 위해 택한 일은 기성복과 넥타이 등을 보따리에 담아 파는 일이었다. 그 시절 온양관광호텔 옆 골목과 농약사 골목은 온양에서 가장 큰 장터였고 새벽부터 황소 울음소리와 소를 사고팔기 위해 흥정하는 사람들의 실랑이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시장이었다. 황의덕은 아침 일찍 보따리를 메고 와서 노상에 풀어놓고 옷 사라고 목청껏 외치고 나서야 개시를 할 수 있었다. 4일, 9일에 열리는 온양 장날은 인근 면 소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곡물과 채소 또는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데 장터에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다행히도 황의덕은 타고난 말솜씨와 성실함으로 단골이 늘어나면서 기성복 매출은 고향에서 농사짓는 것 보다 수익은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마냥 보따리 장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황의덕은 의상실 재단 학원에 등록하였다. 의상실 재단 학원은 대다수가 여자였고 남자는 서너 명에 불과 하였는데 보통의 자존심과 인내심으로는 남자가 감당하기 힘들었다. 몇 번이나 그만 두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때마다 친절하게 다가와 설명해 주고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숙녀가 있었기에 무사히 의상실 재단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자격증을 받은 황의덕은 당시에 온양에서 제법 큰 백조의상실에 재단사로 취업을 하였는데 이때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의상실 재단학원에서 위로와 용기를 심어준 숙녀(아내 이복순)와 결혼을 한 황의덕은 전세 25만원짜리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면서 함께 맞벌이를 하고 나서부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실력이 남달랐던 황의덕은 언제부터인가 이웃 의상실에서 세달 치 월급을 선불로 가지고 와서 모셔가려고 안달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이로인해 자연히 월급이 올라가고 몸값은 나날이 치솟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 연구를 꾸준히했다.

노력 끝에 황의덕은 도고면 신언리 3구에 '윤 의상실'을 개업하였다.

황의덕의 윤 의상실은 젊은 여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상실이었는데 제법 많은 여성들이 양장을 맞추어 입었고 명절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남자들도 양복을 입기 위해 의상실을 자주 찾았다. 당시 도고면 신언리에는 도고온천 기차역(장항선)이 있었으며 인근 도고면, 선장면 사람들이 날마다 이용하였다. 특히 궁밭 5일 장날에는 광천, 대천, 홍성 등 지역에서 오고가는 장사꾼들이 열차를 이용(하여) 하여 북적거렸지만, 실제 가장 큰 이용객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었다.

도고면과 선장면에는 중학교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학생들의 교복도 전부 다 윤 의상실에서 독점하였다. 학생들이 교복을 맞추려면 지금처럼 의상실에 와서 각 학생들의 치수를 재어서 바느질 하는게 아니고 두꺼운 종이에 70, 80, 90 십 단위 치수로 그린 다음, 이 종이를 오려서 학생들의 몸에 대어 본 후에 맞는 사이즈별로 교복을 만들어 주었다. 70년대 도고중학교 전교생은 약 600명이었고 선도중학교 학생수는 약 750여명 정도였다. 이 두 학교 교복을 다 만들려면 부부는 물론이고 이웃 마을 재봉사까지 데려와 겨울 내내 재단과 바느질로 손가락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논 10마지기와 쇠고기 댓근 사다 드리는 재미로 어려운 줄 몰랐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방학이 시작되면 학생들 여름 교복을 만드느라 황의덕의 의상실은 다시 한번 정신이 없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찼고, 부부는 밤낮을 잊고 일했다. 의상실을 개업하고 강산이 한번 변하고 3년이 지나갈 즈음 정부에서 학생들 교복 자율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의상실 주 수입원이었던 학생 교복이 없어지자 직원들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운영하던 의상실을 직원에게 넘기고 황의덕 부부는 온양전통 시장안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여 의상실을 다시 차렸다.

당시 온양전통시장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자발적인 시장으로 구성되어서 오랜 세월동안 이어오다가 1971년경 온양시로부터 온양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상설시장으로 구성된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황의덕은 이곳에 제2의 터를 잡으며 기성복은 물론 여성 정장과 남성 정장 그리고 신혼부부들 예복전문점으로 명성을 쌓아갔다. 80년대에는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로 늘 거리가 북적거렸고 한복에서 서서

히 양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는 당연히 한복과 두루마기를 맞춰 입었고 양복은 안 입는 추세였다. 하지만 온양에도 서구 변화의 바람이 불어 한복 대신 양복을 입는 신세대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변화의 바람은 황의덕 의상실에도 강하게 불어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온천으로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하고 파크랜드 외 대기업에서는 기계로 양복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면서 전국 각 지역에 양복점 대리점을 신설하였다.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맞춤형 양장점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당연히 황의덕이 운영하던 양장점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임대료가 비싼 상설시장 점포에서 옛 시장 깡통골목으로 이전한 황의덕은 맞춤 양장점에서 옷을 수선하는 수선집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다행히 수년간 재단과 바느질을 해 온 아내의 솜씨 덕분에 손님은 꾸준히 찾아오고 편안하게 시장상인회 일을 볼 수 있었다.

2004년 상설시장 번영회가 구성되었는데 염동완 씨가 초대 회장을 하였고 황의덕은 사무국장 일을 보게 되었는데 상인들의 모임이나 하나의 구심점도 없이 상설시장외 온양온천시장, 온천시장, 온궁로시장 등 4개의 시장상인들이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2008년 12월 15일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경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시장으로 몰려 들었는데 평일에는 약 5천여명 주말에는 약 1만여명이 찾아 왔다. 하지만 낙후된 시장은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빗물에 바닥이 질퍽거려 장화 신고도 못 다닐 지경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황의덕은 4개 상인회 대표들을 만나 하나의 시장으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소견을 발표하면서 '온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상인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등록법인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이 상인회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시장 통로에 아케이드(비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건물주들과 수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를 모셔다 설명을 하여 어렵게 설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아산시와 관계기관을 매일 매일 찾아다닌 결과 아케이드 설치비를 받을 수 있었다. 사업비만 받아오면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막상 공사비가 확보되자 시장 상인들은 공사로 인해 영업을 못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 이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

로 하는 방안으로 구간별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시장을 견학하고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왜 시장이 변해야 하는가를 상인들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이후 계획되었던 아케이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는 시장 거리가 되었다. 준공식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어 온궁행렬, 온궁수랏간, 온궁미니방송, 온궁휴양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되었고 활력있는 온양온천시장으로 변화함으로써 평균 40%이상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황의덕은 2010년 11월에 사회적 기업인 ㈜온천시장을 설립하여 모든 물건은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으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 하였다. 더불어 홈 쇼핑물 유통 사업을 구축하여 시장홍보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시장 확대 및 판매를 통하여 매출 증대에 심혈을 기울였다.

황의덕은 온양온천 시장의 특색을 살려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게 명칭을 공모하여 샘솟는거리, 맛 내는 거리, 멋 내는 거리라는 안내판을 거리마다 설치하였다. 우선 샘솟는 거리는 온양온천시장의 명칭이 샘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온궁로 상징 간판은 세종대왕의 온궁행차 콘셉트로 간판 글씨체는 훈민정음체로 그리고 간판 위 상단에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익선관을 위치시켰고 각 기둥에는 온양온천의 역사와 조선시대 온궁행차 한 임금을 소개함으로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맛 내는 거리는 시장 중앙에 위치 해 있으며 음식을 소재로 한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을 한번에 보고 먹을 수 있게 만든 거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입맛에 맞는 메뉴가 늘 준비되있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은 물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멋 내는 거리는 기성복과 한복 유명 메이커 등 다양한 옷을 파는 거리이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의상 패션쇼, 한복 패션쇼, 젊은이들이 직접 제작한 옷 전시회 및 그외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온양온천시장은 우수시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중소기업

청장 표장을 받았고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많은 상은 받은 황의덕은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국가산업발전공로훈장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황의덕은 지금도 부인(이복순)과 함께 제일의상실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옷을 맞추려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 이제는 전문 수선집으로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이제는 수선이 주 수입원이 되었다.

황의덕은 고령의 나이에도 성공적인 시장의 발전과 상인들의 친목도모 및 결집력을 강화하여 행복한 시장 장사할 맛 나는 시장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아산시

온양의 오일장

이 순 희 (1948년생)
아산시 시민로

성악가의 꿈과 맞바꾼 고추 기름집 여사장



온양 온천리 된장골목과 깡통골목 북쪽에는 장터가 있다. 이곳에는 쇠-전과 싸-전, 생선전 등이 있었으며 우측으로는 온양관광호텔에서 사용한 물이 온천천으로 흘러드는 배관이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빨래를 하러 많이 왔고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장터 골목 중앙에는 온양 고추상회가 있는데 이곳의 안 주인은 이순희 씨이다.

이순희 씨는 이북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다. 효령대군 12대 손이신 아버지 이경천과 어머니 장금선 사이에서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이순희 씨가 3살 되던 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온양이었는데 불행하게도 큰언니는 피난길에 잃어버렸다.

온양장터에 자리를 잡은 아버지는 피난 오면서 가져온 패물을 팔아 월세방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이발소를 차려서 운영하였다. 이발 기술이 없던 아버지는 깍새(이발기술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제법 손님이 많았다. 하지만 갑자기 중풍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자 깍새들이 일을 안 하고 심지어는 조금 떨어진 골목에 새로운 이발소를 차려 나가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보자기에 뻥튀기를 담아 장사를 하였는데 창피해서 팔아 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 울기만 하였다. 이후에는 깡통 골목에서 만들어 나오는 생활용품을 받아 다 팔았는데 뻥튀기 장사보다는 이윤이 좋았지만 무거운 함석 재료를 이고 지고 다닌다는 것은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이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이순희 씨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음악을 제일 좋아하였다. 특히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보다 실력도 월등히 좋았으며 성악가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큰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인 듯한데 언니가 미스코리아 진이었다는 이야기? 문장이 완성이 안되어 있음.

큰언니는 피난길에 부모님과 헤어지고 길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프차에 타고 가던 군인이 데려다 양녀로 키우며 이화 여자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고 당시에 군인의 신분은 별을 단 장성이었다. 다시 만난 큰언니와 형부의 도움으로 자매들은 서울로 올라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순희 씨는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온양으로 다시 내려왔다.

집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기도 중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찬송가는 불안하였고 풍금 치시는 분이 없어 먼지만 쌓여 있었다.

이순희 씨는 교회에서 풍금을 쳐주고 불안한 찬송가의 기틀을 잡아 주면서 틈틈이 노래 연습도 하면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 나갔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중 지금의 남편(김한조)을 만났다. 황해도가 고향이었던 남편은 부모님과 피난을 내려와 온양장터에서 점포를 구입해 고추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교회에서 풍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순희 씨를 눈여겨 보던 김한조 씨는 날마다 구애를 하며 따라다녔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집안에 반대는 대단하였다. 특히 큰언니와 형부의 반대는 더 심하였지만 눈에 콩 깍지가 씌여진 두 사람의 결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신혼여행은 인근 마을에 있는 현충사로 다녀왔고 신혼집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둘이 있었는데 함께 살았다. 첫 딸을 낳고 얼마 후 남편이 군 입대를 하였다. 사실 김한조 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면 서기의 착각으로 동생과 이름이 바뀌면서 동생 대신 가게 된 것이다.

제대 후 본격적으로 고추 장사를 시작한 남편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대량으로 고추를 사 왔다. 물 고추를 사다가 장터 마당에 널어 햇볕에 말리고 집에서 손질하여 시장에 팔았는데 이일은 전적으로 이순희 씨 몫이었다. 가을에는 마른 고추를 사서 되팔기도 하지만 마진이 좋은 것은 물 고추를 사다 말려 파는 것이 훨씬 좋았다. 아녀자의 몸으로 물 고추를 들고 나르는 것은 여간 힘에 부치는 것이 아니었지만 딱히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남편은 새벽밥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고추를 사러 나갔기에 딱히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4일과 9일이 온양장날 이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8월 하순이 지나고 고추 수확이 시작되면 고추 팔러 나온 농부들과 장사꾼들의 실랑이는 해가 져도 이어졌다. 김장철을 앞두고 이순희 씨의 집안은 창고는 물론이고 마루와 안방까지 고추로 가득하였다.

이때의 고추는 마른 고추가 주를 이루었고 눈이 매워 아이들이 연일 울고불고 난리였다.

온양장에는 쌀전이나 된장 골목, 깡통 골목 쇠-전(우시장)등 구분되어 있었고 쇠-전에는 새벽부터 소를 사고파는 상인들이 붐볐다. 아침을 굶고 나온 사람들은 거래가 끝나면 아침 해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생겨난 것이 막걸리집과 해장국과 국에 밥을 말아 파는 식당이었다. 소를 잡고 난 후에 생기는 부산물과 선지는 훌륭한 아침 해장국의 재료였다. 얼큰한 식당들이 생기면서 고춧가루의 소비가 늘어났다. 이순희 씨는 식당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 고춧가루를 저렴한 배달까지 해 주면서 거래처를 만들어 갔다. 입소문을 타고 고춧가루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매출은 증가 하였지만 몸은 조금씩 고장 나고 있었다.

남편의 고추 장사가 소매에서 도매상으로 발전되면서 경기도 서울에서 도매상들이 많이 내려왔다. 가을 고추 팔아서 일년 먹고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추 장사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고추 방아 찧는 비용이 너무 아까웠던 이순희 씨 부부는 고추방앗간을 직접 차려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유자금이 넉넉했던 부부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온양 고추기름 방앗간을 차렸다.

시골 아낙네들이 고추와 깨를 가지고 와서 고추 방아도 찧고 기름도 짜가는 것이 여간 즐겁고 행복하였다. 하지만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고추 방아 찧고 들깨나 참깨를 볶아 기름을 짜는 일은 골병드는 일이었다.

기름 짜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손님이 가져온 깨를 잘 볶아야 한다. 잘 볶은 깨는 나무로 만든 틀로 눌러야 하는데 이 틀을 사람이 힘으로 눌러야 한다. 이 때에는 온 식구가 다 달라붙어서 누르면 밑으로 기름이 나온다. 기름이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는 깨알이 잘 영글고 통통해야 하는데 깨알이 덜 영글고 안 좋아 기름이 적게 나오면 손님들은 그 집은 기름이 적게 나온다며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기름 떼어 먹었다고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기름은 짜고 나면 깨 찌거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깻묵이라고 한다. 깻묵은 기름집에서 처리하는데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져가 학교 교실 바닥을 닦기도 하였다. 간혹 손님이 가져가 먹기도 하였는데 이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기름집은 바빴다. 마치 전쟁터에서 물품을 보급하는 일과 흡사하

다. 온 나라주부들이 비슷한 시기에 김장을 하다 보니 덩달아 고추기름 방앗간도 엄청 바쁘게 돌아갔다. 이 시기에는 남편과 시동생도 와서 일을 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밥때가 되면 시댁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대접하였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남편은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도 이순희 씨는 남편과 시동생을 위해 늦은 저녁밥을 지어야 했다. 똑같이 일을 하여도 뒤치닥거리와 밥 짓는 일은 언제나 여자인 이순희 씨가 하였다.

고추기름 방앗간의 소음은 상당히 심하였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는 이순희 씨의씨의 청력은 매우 안 좋아져 갔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귀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처럼 환청이 들려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다. 이순희 씨는 귀만 안 좋은 게 아니었다. 깨를 볶을 때 피어나는 연기는 코와 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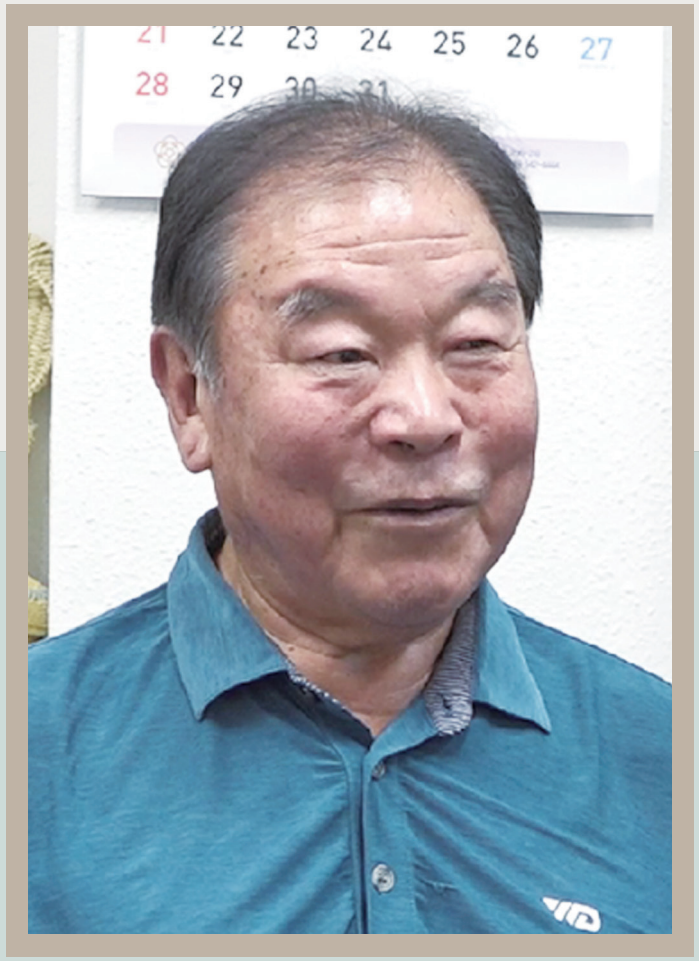
온양 고추기름 방앗간은 이제 막내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고 이순희 씨도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평생 매운 고추와 씨름을 하였고 깨 타는(볶는) 냄새는 기관지에 매우 안 좋았다. 하지만 더 안 좋았던 것은 손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과 악담은 심장을 도려내듯이 아팠다.

힘들고 아플 때 마다 위안이 되었던 노래가 있었기에 지금껏 살아 올 수 있었다.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이순희 씨는 동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회장을 맡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어릴 적 꿈인 성악가는 못 되었지만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날마다 노래교실을 나가고 있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주 웅 노 (1949년생)
아산시 신민로

광천상회 김은 사람들의 밥상에 언제나 입맛을 돋구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34번지를 찾아가면 6평 남짓한 점포에 멸치와 김 그리고 건어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한쪽 구석에서는 오래돼 보이는 선풍기가 소리높여 돌아가고. 작은 평상 위에서는 주웅노, 김정화 노부부가 한가로이 가게를 지키고 계신다.

주웅노 씨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자오리에서 아버지 주병돈과 어머니 조대영 사이에서 7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천북면에서 태어나 봄에는 작은 농사일을 하시고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바다에 나가 김을 채취하기도 하고 다른 어류를 잡아 대천 읍내장에 나가 팔기도 하였는데 가장 큰돈이 되는 것은 김 채취였다. 김 수확이 모자란 해에는 읍내 상인들이 찾아와서 온 동네 김을 사 갔는데 수입이 제법 짭짤하였기에 온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유년 시절을 고향 천북에서 보낸 주웅노 씨는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이 바다에 나가 김을 채취해서 동네 공터에 널어 말리는 것을 날마다 보며 자랐다. 겨울방학이면 우리 집 네 내 집 할 거 없이 다 말린 김을 온 식구가 안방에 모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1톳(100장)씩 묶어 포장을 하고 큰형과 동생들은 보자기에 담아 창고로 날랐다.

주웅노 씨는 어릴 적부터 장사하는 상인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다. 아마도 읍내 상인들이 동네에 오면 허리에 찬 돈 가방에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많고 잘사는가 보다 생각하며 장사하는 상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주웅노 씨는 겨울방학이 제일 좋았다. 다른 사람들은 천수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추워서 방안에서 꼼짝도 안 할 때 혼자 바닷가에 나가 김을 거두어 와서 양지에 말리곤 하였다. 겨울방학 내내 말려 1톳씩 작업한 양을 보고 부모님도 깜짝 놀랐다. 중학생 혼자서 작업 할 양이 아니었다. 장정 서너 명이 할 양을 주웅노 씨가 혼자 다 한 것이었다. 겨울방학 동안 번 돈으로 부모님 내복을 사주니 차마 받지를 못하셨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였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나만 부지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김과 어류를 잡아 생활하였다. 읍내 농업기술센터에서 4H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가 회원이 되었고 보령 읍내에서 농우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리더 교육 및 생활 기술을 배웠다. 머리가 비상하였던 주웅노 씨는 4H와 농우회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수

하여 5년 후에는 최연소 농우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이곳 저곳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장사를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부지기수였다.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을 굳힌 주웅노 씨는 그동안 저축한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방 얻을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작은아버지와 누나가 있는 온양으로 무작정 올라와서 온양시장 옆 허름한 한옥집에 전세방을 얻었다. 장사를 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기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양 실옥리에 있는 영당 방앗간에 임부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니 바로 취직이 되었는데 직책은 창고지기였다. 방앗간의 일과는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창고에 있는 벼 가마를 정미소로 옮기는데 인부들 모두가 가대기(갈고리로 가마를 찍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로 해서 옮기는데 몇 번만 하면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고 저녁에 집에 오면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다가 꺼내어 어깨에 올리곤 해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주웅노 씨는 내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장가를 안 가려고 굳게 마음먹었다. 선을 보라는 부모님의 성화를 모르는 척하며 지내기를 어언 5년이 지나던 1979년 초 이른 봄에 지금의 처오촌 형님의 소개로 서울에서 선을 봤는데 그런대로 마음에 들어 일주일 후 부모님 모시고 서울가서 한번 더 보고 그 자리에서 약혼식을 하였다. 약혼식에 약혼녀(김정화)에게 반지 5돈과 목걸이를 주었다. 약혼식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난 그해 4월 1일 온양농협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신혼여행은 돈 많이 벌면 좋은 곳으로 다음에 가자고 약속하고 용화동에 방 3개와 부엌이 달린 집을 전세 일백만 원에 얻어서 살림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주웅노 씨는 창고지기에서 전체 살림을 맡아 하는 경리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월급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당시에 쌀 한 가마니에 7만원 정도 하였다. 영당 방앗간에서는 방아를 찧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개의 벼 가마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였는데 주웅노 씨가 창고지기 일을 하면서부터는 한 가마도 비는 법이 없었다. 이를 눈여겨보신 사장님은 주웅노 의 됨됨이와 셈이 정확하고 정직한 걸 아시고 특별 승진시켜 준 것이다.

1979년 11월 20일경 찬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할 때 주웅노 씨는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장사 준비를 하였다. 우선 전셋집 일백만원을 빼서 월세 집으로 이사하고 아내한테는 미안하였지만 약혼식 날 아내에게 사주었던 패물을 팔고 집에 와 세어보니 35만원 이었다.

다음날 월 8만 원에 시장 한쪽에 점포를 얻어 간판도 없이 장사를 시작하였다. 개업 후

자본금이 많지 않았기에 물건을 확보하기는커녕 진열해 놓을 물건도 변변치 않았다. 새벽 5시 40분 장항선 열차를 타고 천북에 가서 시골 마을 마을을 다니며 자연산 김을 사 가지고 온양 가게로 오는 것이다.

주웅노의 아내는 천북에서 사 온 이 김을 새로 깨끗이 다듬어 한 톳씩 재포장을 해 놓았다. 다음 날 주웅노 씨는 김 50톳을 메고 서울 미아리 동네 골목 식당으로 다니며 소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따리 장사는 의외로 잘 되었다. 식당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김을 인근 도매상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식당까지 가져다주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미아리 시장에서 가장 큰 도매업을 하는 동성상회와 독점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였다. 이제는 팔 일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품질 좋은 김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납품하는게 가장 큰 일이었다.

주웅노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열차를 타고 광천으로 내려가 동네 마을마다 작업한 김을 선불주고 확보하였고 바빠서 못 내려가는 날에는 고향에 살고 있는 형님이 물건을 포장해 온양으로 가지고 오셨다. 간판 없이 김 장사한 지 6년이 지나갈 무렵 아담한 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기에 계약하고 이사를 하였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었다. 집터가 좋아서인지 서울 도매상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대 달라고 뭉칫돈을 들고 온양까지 찾아왔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도매업을 하려고 하니 지금의 가게는 너무 협소하여 많은 물건을 갖다 놓을 수가 없었다. 창고가 있는 큰 점포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은 주웅노 씨는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으나 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 망설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의 도매상인이 선뜻 보증금을 빌려주어 계약하고 보령상회라는 간판을 달았는데 이때가 처음 장사한 지 8년 만에 일이었다.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납품을 하자 서울 경기도에 있는 상인들이 찾아와 자기네한테도 물건을 보내달라고 거래를 부탁해 왔다. 그래서 기존에 소규모의 채취 방법으로는 물건을 대 줄 수가 없었기에 고향에 있는 형님과 동네 분들이 바다에다 직접 김 양식을 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수협의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도움으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정의 양을 생산할 수 있었다.

주웅노 씨는 안정적으로 거래처에 김을 납품할 수 있게 되자 김과 멸치 외에도 각종 건어물도 함께 판매하였는데 특히 멸치는 서민 반찬으로 각광 받으며 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효자 품목이 되었다. 그동안 남해안 일대에서 올라오는 멸치를 대량으로 사 놓았다가 온양 장날이나 인근 지역 장으로 나가는 소매인들이나 노점상 아줌마들이 새벽부터 와서 김, 이나 멸치 등을 사(외상)가지고 팔다가 저녁에 와서 계산(결재)하는데 이분들이 팔아주는 양은 어마어마 하였지만 더러는 외상값을 떼어먹고 안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1980년 이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톳씩 사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 구워 먹었는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먹는 주부들도 꽤 많았다. 이점을 창안한 주웅노 씨는 김 굽는 공장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구운 김을 생산하여 각 도매상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폭발적인 인기로 한국의 주방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이 김을 맛김이라고 하였다.

주웅노 씨는 오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연다. 그러나 옛날처럼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녀간 이후 대한민국은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다. 시골 마을에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가 생기면서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돌아가는 곳에서 장을 보고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장을 보는 풍경이 생겨났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에서는 김 보다 맛있는 반찬이 널려 있고 멸치보다 맛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학생들과 주부들의 입맛을 점령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의 농수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라면 하나를 사러 와도 차를 끌고 오는데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주웅노 씨와 함께 험한 장터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상대하며 장사하던 부인이 54살에 되었을 때 부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았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살았다.

남편이 김 다발을 메고 외지에 나가면 부인은 한 톳이라고 더 팔려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했다.

돈은 이제 벌 만큼 벌었다고 생각한 주웅노 씨는 큰 가게를 정리하고 부인과 편안한 여

생을 보내려고 지금의 자리로 이사 왔다. 하지만 반평생을 함께한 거래처에서 주문 전화가 오는 걸 차마 외면 하지 못하고 지금도 물건을 보내주고 있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김 용 호 (1957년생)
아산시 온화로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며 봉사하는 온양온천의 참 일꾼



김용호 씨는 온양읍 온천리 59번지에서 아버지 김남수와 어머니 권순옥 사이에서 4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김용호 씨가 태어난 온천리에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깡통골목과 된장 골목이었으며 바로 집 옆으로는 쇠-전과 싸-전이 있는 전형적인 장터 마을이었다.

아버지의 고향은 이북 황해도 해주 신막리라는 마을이었다. 6,25 동란때 이곳 온양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특별히 연고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고 정처 없이 떠밀려 오다 정착한 것이다. 김용호 씨의 아버지는 집 근처 난장에서 봄에는 씨앗(1홉씩) 장사를 하고 가을에는 배추 무 생강 등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꾸려 갔다. 그 당시 김용호 씨 아버지는 구하기 어려웠던 후추를 어디에선가 사와서 돌 맷돌로 갈아 장날마다 팔았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 비싸기도 하였고 수입도 좋았지만 여덟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늘 궁핍하였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셨던 아버지는 이곳에 일부러 집도 안 사시고 언제나 고향 가실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 하루 씨앗 장사를 하셨다.

김용호 씨가 국민학교 5학년 무렵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9대 독자이셨던 아버지가 과로로 돌아가셨다. 이후 어머니가 씨앗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마을 운동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덩달아 씨앗 장사가 제법 잘 되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청파상업전수학교를 졸업한 김용호 씨는 우연히 친구네 놀러 갔다. 그 집에는 10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사는 걸 보고 친구 아버지의 직업이 궁금하였다. 친구 아버지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곡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온 식구가 먹고도 남는 수지맞는 장사였다. "그래 장사가 최고다." 라고 생각한 김용호 씨는 무슨 장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찾아가 "마늘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종잣돈 얼마만 해 주세요." 하니 한사코 반대를 하셨다.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경찰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늘 바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험한 시장에서 마늘 장사를 한다고 하니 여간 놀라시고 당황하신 게 아니었다. 아들의 고집을 끝내는 꺾지 못하신 어머니는 종잣돈 3만원을 마련해 주셨다. 종잣돈을 마련한 김용호 씨는 마늘 장사를 하시는 이웃 아저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함께 이 장 저장을 다니면서 마늘 고르는 방법을 익혔다. 종잣돈 3만원으로 합덕장에 가서 마늘 10접을 사 가지고 집에 온 김용호 씨는 짚단으로 새로 새끼를 엮

어 마늘을 보기 좋게 다시 엮어서 다음날 경기도 평택장에 가서 그날 시세대로 팔았다. 10접을 팔고 보니 이익은 30접 값으로 늘어났다. 이래서 장사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다시 생각한 김용호 씨는 이제 장사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절 온양 장날(4, 9)에는 인근 읍면동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물이나 채소를 가지고 나와서 사고팔았는데 특히 마늘과 고추는 단골 품목이었다. 읍면동에서 재배되는 마늘 중에서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인주면 마늘이 유난히 좋았는데 이 마늘을 몽땅 사서 경기도 수원장으로 내다 팔면 그 자리에서 3배의 이윤이 생겼다.

1974년 경기도 평택시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를 연결해 주는 아산만방조제가 개통되면서 온양 장은 엄청난 활기와 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었으며 더욱 다양해진 물건들이 시장을 가득 메웠다. 이 활기는 김용호 씨에게도 많은 변화와 수익을 남겨 주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거두어 들인 마늘을 이제는 경기도까지 가서 팔지 않아도 되었다. 그동안 길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오던 상인들이 아산만으로 와서 차 뙈기로 사 가니 김용호 씨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고 엄청난 양의 마늘을 그 자리에서 팔 수 있었다.

아산만이 개통되고 5년 후인 1979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와 당진시 신평면을 이어주는 삽교천방조제가 개통되었는데 이는 다시 한번 온양장을 서해안에서 가장 활기찬 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당진과 서산에서 들어오는 쌀과 가축으로 인해 온양장은 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산 6쪽마늘이 들어오면서 마늘확보에 한시름 놓게 되었다. 삽교천이 개통되면서 온양장에서 활동하는 마늘장사꾼만 50여 명이 넘었다.

보따리 장사로 시작한 마늘 장사는 이제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밭뙈기로 사서 넘기는 중간 도매상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마늘 대만 봐도 '서산 마늘이다. 단양 마늘이다. 아니다. 이건 의성 마늘이다.' 할 정도로 마늘 박사가 되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온양에서 온 김용호 마늘이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입할 정도였다.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세상 만물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사람들도 북적대던 온양장에도 서서히 수입산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내 목이 좋은 곳에는 대기업 마트와 각 지역마다 있는 농협마트가 생기면서 서서히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장사꾼들도

문을 닫거나 떠나갔다. 또한 대기업 마트에는 일반 마늘부터 깐마늘, 다진 마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젊은 주부들은 전통시장에는 발을 끊을 수밖에 없다.

김용호씨는 21살 되던 해에 이현예 씨와 결혼하였다. 슬하에 두 아들 두었는데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당시 온양에는 온양기동순찰대(현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김용호 씨는 이곳에 입대를 하였다. 마늘 장사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순찰을 도는 야간에는 만사 제쳐놓고 참석하였으며 당직이나 행사 날에는 아내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참석하였다. 온양 역전자율방범대 대원에서 부장, 국장, 부대장에 이어 역전자율방범대장 그리고 아산시 자율연합방범 대장이 되었다.

연합대장에 취임한 김용호 씨가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은 학원 폭력예방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탈선 하는 청소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고용하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아산시 방범대 제복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그동안 17개 읍면동 지역마다 다르게 입었던 제복을 하나로 통일하여 입게 하였는데 이 후에는 충청남도 방범대 제복도 하나로 통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산시 이순신 장군 탄신축제 전날에는 이순신 장군 생가에 있는 우물물과 온양 최초의 목욕탕 신정관 물을 떠서 하나의 항아리에 합수를 한 후 이 물로 이순신 장군 친수식을 최초로 하였다. 이 행사는 지금도 해마다 하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에서도 서울시장과 아산시장 그리고 연합 방범대장이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호 씨가 가장 애착이 갖고 보람으로 여기는 일은 대입 수능 고사 시험 장소를 천안에서 온양(현 아산)으로 바꾼 거다. 온양에서 공부한 고3 학생들이 해마다 대입 수능 고사 날에는 새벽밥을 먹고 천안으로 가는 것이었다. 3년간 공부한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추운 겨울 새벽에 시험 보러 가면 온몸이 얼고 긴장되어서 제대로 시험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 관행은 계속되었다. 불합리한 것을 느낀 김용호는 도 교육청과 중앙의 교육부를 찾아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면담도 하고 탄원서도 제출하면서 결국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지금 학생들은 우리 지역(아산)에서 대입 수능고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김용호 씨는 봇 물처럼 들어오는 중국산 마늘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농산물 유통도매

센터의 힘에 밀려 마늘 장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어린 자식들 홀몸으로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호강시키며 효도하며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스무 살 초반부터 시작한 일을 내 외지와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 가게 문을 닫고 노년을 즐기고 있지만 아산시 자율방범대 사무실에는 날마다 들르곤 한다. 비록 젊은 시절처럼 현장에 나가 삽질을 못 하지만 언제나 마음은 수해현장 봉사를 하고 있다. 김용호 씨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온양2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으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아산시

온양의 오일장

이 희 종 (1945년생)
아산시 아산로9

타고난 근면 성실함이 사업으로 성공하였다



온양관광호텔 뒷 골목은 옛날 오일장이 제법 크게 열리던 곳이었다. 지금도 온양 뻥튀기, 온양유리, 철물점, 함석공작소와 다수의 농약방, 그리고 수협, 신협, 농협 등 금융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골목이다.

아산시 온천동 242-35에는 광평 지업사라는 오래된 가게가 있는데 이곳의 주인은 전주 이씨 강녕군파 19대손 이신 이희종 씨가 부인 강환복 여사와 함께 지켜온 삶의 현장이자 보물창고이다.

이희종 씨는 아산시 초사리 2구에서 아버지 이용인과 어머니 임용순 사이에 6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희종 씨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나이는 51살이었는데 늦둥이로 태어난 것이었다. 큰 형님의 자식이 이희종 씨보다 1살이 많았다. 즉 조카가 삼촌보다 1살 많은 것이었다. 어머니가 들에 나가 늦게 들어오면 큰 형수님이 조카와 함께 젖을 먹였고 똥, 오줌을 받아 키우셨다.

초사동은 주변에 산이 많아 논 농토가 부족하여 온 가족이 풍족하게 먹지는 못하였지만 어머니가 형들 몰래 보리 죽이나 미음을 먹이곤 하였다. 아랫마을에 있는 초사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중학교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입학을 포기하고 중학교를 가지 않았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 집에서 농사지으며 살았다.

24살에 27사단 이기자 부대에 입대하여 적응하고 있을 무렵 월남전쟁에 지원병을 모집하였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에 바로 입대하여 베트남으로 파병되어 갔다. 월남에서는 대대장을 모시고 다니는 보직이었는데 다행히도 큰 전투나 위험한 일은 없었다. 13개월 후 대대장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희종 씨는 5개월을 연장해 총 18개월을 보병으로 근무하였다.

서울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다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고 천안으로 내려와 안보가스 대리점에 취업을 하였다. 처음 입사하여 한 일은 자전거에 가스통을 싣고 배달도 하고 가정집에 고장 난 가스 기기를 수리해 주었는데 가스통의 무게는 20kg과 50kg으로 상당히 무거웠고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기에 배달원이 자주 바뀌었지만 이희종 씨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였다. 가스 대리점에서는 물건을 배달해 주고 가장 어려운 일이 외상값 수금이 이었는데 이희종 씨가 배달한 거래처에는 외상값이 밀리지 않고 제날짜에 수금이 잘 되었다. 이를 눈여겨보시던 사장님은 다른 거래처에도 이희종 씨를 보내 수

금을 시켰더니 웬일인지 잘 되었다. 이후로 이희종 씨는 배달일을 안 하고 대리점 경리일을 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장님 댁 생활비와 아이들의 용돈도 이희종 씨한테 타 쓰고 있었다. 안보 가스에 취업 한지 5년이 지나가던 여름에 충전을 하던 공장에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충전하던 통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커지던 상황에 동료들은 도망갔지만 이희종 씨는 맨손으로 가스통 입구를 막으며 밸브를 하나하나 잠궜기에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밸브를 막은 손은 심각한 동상에 걸렸고 지금도 저리고 여름에도 손이 시린 증상이 있다.

이 일을 겪은 이희종 씨는 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한사코 말리는 사장님은 확고한 결심을 보시고 위로금으로 37만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매우 큰 금액이었다.

고향에 내려온 이희종 씨는 장사를 하기 위해 매일 온양장 점포 골목을 다니면서 업종을 물색하였다. 가스대리점에서 배달하면서 여러 업종을 다니며 봐 왔지만 소규모 자본과 힘이 덜 드는 장사는 지물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일호텔 옆 골목에 점포를 얻어 계약을 하였다. 사장님이 주신 위로금과 월남파병으로 모은 돈으로 점포와 약간의 물건을 구입하여 '광평지업사'라는 상호를 달고 개업을 하여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제일호텔 골목은 오일장터에서 많이 떨어진 장소이다. 온양장이나 상설시장에 있는 지물포들은 장날이 아니더라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랜 세월 터를 잡고 장사한 사람이다 보니 고정 단골손님들이 꽤 많았다.

지업사를 개업하고 1년여 세월이 흐른 어느 날부터 인근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게 되어 이희종 씨의 가게가 철거하게 되었다. 이때 관광호텔 뒤 도로 옆으로 상가가 새로 지어져 임대 및 분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결혼하여 살고 있던 곳의 전세금을 빼고 이 상가를 월 7만원에 계약하였다.

이희종 씨는 큰 누님의 중매로 28살에 강환복과 결혼을 하였다. 지금의 배방읍 신흥리에 신혼집을 차렸다. 부인 강환복은 결혼 전에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저축하였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얻을 때 저금한 돈으로 전세금을 내주었고 살림살이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세돈을 빼어 새로 이사한 상가는 1층 가게가 11평이

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다락방은 9평 남짓이었는데 이곳이 다섯 식구가 먹고 자고 하는 생활공간이었다.

이렇게 시장 한복판으로 이사 오고부터 장사가 제법 잘 되었는데 주로 팔리는 품목은 도배지와 장판이었다. 특히 봄에는 각 집 집마다 산뜻하고 깔끔하게 도배를 하고 늦가을에는 문풍지를 새로 발랐다. 그 시절 도배지는 지금처럼 질 좋고 때가 안 타게 코팅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도배지의 재질도 안 좋고 봄에 도배하고 난 후 가을이 되면 누렇게 변질되어 도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장판지 또한 두께가 얇아 아랫목에 군불을 많이 때면 금방 시커멓게 타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배지는 사시사철 잘 팔렸다. 특히 가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대목장에는 도배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희종 씨 내외로는 감당이 안 되어 처남과 형님들이 오셔서 함께 도와주었는데 처남은 도배 기술을 배워 지금도 광평지업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희종 씨 가게는 워낙 목이 좋았다. 가게 주변에는 6.25 전쟁 이후 군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들어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깡통골목이 있었고 지물포 한 블록 앞에는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이 있어 늘 북적북적 하였다. 4일 9일이 온양 장날이었는데 장날 지물포 앞에는 채소는 물론 기성복 옷 장사들이 새벽부터 나와 포장을 깔고 장사를 하였다. 가게 문 앞까지 자리를 핀 장사꾼들로 인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이희종 씨는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였다. 일부 장사꾼들은 미안한 마음에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쌈지돈을 주었는데 절대 받지 않았다. 다만 가게 입구는 막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하였다. 길옆 양쪽 가장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장사꾼들이 떠난 자리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각종 쓰레기가 문제였다. 특히나 가을 김장철에는 배추, 무와 채소 쓰레기로 인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악취는 무엇보다 참을 수가 없었다. 시장상인회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릿세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불평을 하던 사람들도 깨끗해지는 거리를 보고는 만족하였다.

이렇게 목이 좋은 시장 안으로 이전하고 2년 후 어느 날 전세 살던 상가(를 분양하기에)가 분양에 나오자 이희종 씨는 천안 안보가스 사장님에게 어음을 받고 그동안 모아 둔 돈

으로 상가를 인수하였다.

광평지업사의 모든 물건은 수원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 팔았다. 도매상에서는 물건을 갖다주고 다음 달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전 달 물건값을 받아 갔는데 이희종 씨처럼 자본이 부족한 상인들에는 반가운 조건이었다. 물론 도매상 입장에서도 괜찮은 조건인 것은 외상값이 깔려 있기에 다른 도매상이 와도 거래하지 않는 심리가 있다.

지업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소비되는 물건이 많아지자 앉아서 물건을 기다리기 보다 직접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가서 물건을 구입해 오면 더 많은 이윤이 생기겠다고 판단한 이희종 씨는 오토바이를 사서 천안 도매상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았다. 이 후에는 자동차를 사서 청주나 서울까지 가서 직접 구입해 판매하였다. 이 무렵 새마을 운동 바람이 일어나면서 동네마다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을 스레트나 기와로 바꾸면서 가정집에서도 도배지나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열풍이 불었는데 도배지와 장판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 웃돈을 주고도 예약을 안 하면 만져 볼 수도 없었다.

도배지의 소비가 많아지고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도배사'라는 직업이 생겼다.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 도배하던 풍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도배지를 사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도배지를 골라놓고 가면 도배사가 집으로 가서 도배를 해주는 것이다.

이제는 도배지나 장판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솜씨 좋은 도배사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지가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 다행히 광평지업사는 처남이 초기에 기술을 배워 도배기술자로 근무하였고 같이 배운 동기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 가정주택은 물론 신규 아파트 전체를 맡아 도배를 하기도 하였다. 아산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들어서고 이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인구로 인해 밤낮없이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었고 도배사들의 일거리도 함께 늘어나면서 광평지업사의 매출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희종 씨는 사람이 좋아 외상거래를 많이 주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보다는전원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산에도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 분양하였다. 이희종 씨는 주택업자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주택이 분양되면 외상값을

받았는데 업자가 부도내고 야밤 도주하는 바람에 10원도 못 받는 일도 있었으며 어느 업자는 돈은 없으니 건물(주택)로 받으라고 사람도 있었다.

이희종 씨는 지난 23년간 천안 안보가스 사장님을 자주 찾아가 뵙고 식사도 하였다. 사표를 내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장님 생일날에는 꼭 찾아뵈었다. 위로금으로 주었던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나 급하게 물건을 사야 할 때 또는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사장님은 외면하지 않고 빌려 주셨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처럼 의지하였고 때로는 사업가 대 사업가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 주셨던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매우 슬펐다.

지금도 이희종 씨는 아침마다 광평지업사에 나간다. 가게의 큰일은 처남한테 맡기고 소일거리를 하고 있지만 간간이 찾아오시는 단골손님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또 그들의 안부도 묻기 위해서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아산시

온양의 오일장

오 성 규 (1953년생)
아산시 시장길

아산의 전기와 재료는 국제사의 역사다



온양온천 전통시장 내에 멋 내는 거리길 양옆으로 상가들이 늘어져 있다. 주로 옷 가게들 사이에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국제사'라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안은 제법 깔끔하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있다.

국제사 대표인 오성규 씨는 올해 일흔한 살이지만 마치 오십 대 후반처럼 동안의 얼굴이었다.

오성규 씨는 이곳 온천동에서 아버지 오길종과 어머니 이수분 사이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때는 6.25전쟁이 막 끝나고 도시재건을 위해 전 국민이 부지런히 일할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전 동아전기에서 전기재료를 떠다가 인근 마을 외에 대천이나 청주, 대전, 충주 등 여러 지방으로 다니며 팔았다. 전쟁이 끝나고 산업현장 및 도시재건으로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아 물건을 사러 가면 하루 이틀은 기본이었고 평균 열흘에 한번 꼴로 집에 오셨다.

오성규 씨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가게를 놀이터 삼아 지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온양에도 가정마다 전기가 들어왔다. 관공서나 공립병원 등 공공기관에만 있던 전기가 각 가정마다 들어오자 전기재료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바빴고 아버지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장을 놀이터로 삼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장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푸른 초원에 젖소를 키우며 목장을 경영이 장래 희망이었다. 온양온천 국민학교와 온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천안농업고등학교 축산과에 입학하여 목장경영 공부를 시작하였다.(열심히 하였다.)

1974년 12월 추운 겨울, 집에 딸린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온양시장 안으로 점포를 얻어 가게를 열었는데 상호이름을 국제사라고 하였다. 목장경영이 장래 희망이었던 오성규 씨는 개업한 국제사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업무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주고 목장을 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눌러앉게 되었다.

국제사 일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주문 온 목록을 정리하고 부족한 물건은 공장에 주문서를 보냈다. 일주일 후 물건이 도착하면 일당을 주고 마부(리어커꾼)을 대동하여

가까운 거래처에 배달하였으며 면 소재지는 자전거에 싣고서 다녔고 외지는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져다 주었다.

온양읍이나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 있는 곳에 먼저 전기가 들어오더니 국제사 개업하고 2~3년이 흐르고 온양읍이나 아산군 작은 동네에도 전기가 들어왔다. 작은 마을에도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보산대 (전신주)를 심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을 길옆에다 심는게 아니고 무조건 반듯하게(직선으로) 심었다. 당연히 남의 경작 논이나 밭에다 심었지만 누구 하나 안된다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게 너무 고맙고 좋았던 시절이었다.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국제사의 용품이 불티나게 팔렸지만 집집마다 전기가설을 할 전기공(기술자가)이 매우 부족하여 공사 기간은 기약없이 지체되었다. 오성규 씨의 아버지는 동아전기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들을 온양으로 데려와 여러 팀으로 나누어 공사를 하였다. 이때 필요한 전기자재는 한국전력에서 조달하였는데 실제 설계도와 현장에 지급되는 재료는 늘 부족하였다.

아산군과 온양읍 전기공사를 거의 다 하다시피한 아버지를 따라다닌 오성규 씨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필요한 가전제품을 파악하고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국제사에 방문하여 보시고 결정하라고 홍보를 하였다.

시골 마을까지 전기가 들어오자 동네 상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면 소재지에는 작은 전파사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깊은 산골 마을상점에서도 전구다마(전구알) 나 현광등 외 약간의 가전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오성규 씨는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납품하러 다니셨고 본인은 가게에 앉아 물건 관리와 소매를 하였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전파사가 생기자 그곳에 물건을 조달해야만 하였다. 발 빠른 외지 업체에서 물건을 대 주기 시작하면 국제사 매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숙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오성규 씨는 아버지한테 배달을 하라고 할 수가 없었기에 본인이 배달하기 시작하였다. 아침 일찍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오늘 오전에는 염치면 소재지 전파사를 방문한다. 필요한 물건을 진열하고 외상장부에 기록하고 다음 동네로 이동한다.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고 영인

면 소재지와 외딴 마을상점으로 찾아가 물건을 진열하고 외상장부에 기록하고 다음 동네로 이동한다. 이 당시 상점에서는 외상이 많았다.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현찰이 여유롭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도매상에서 일부러 약간의 외상값을 깔아놓고 다녔는데 이유는 외상값이 있어야 다른 장사들이 와서 물건을 사라고 해도 안 살 수 밖에 없어서였다. 봄이나 가을에는 오토바이로 배달하여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눈길에는 비포장도로에 웅덩이가 패여 있고 길이 얼어 빙판이 되어 미끄러지거나 해서 넘어지면 사람 다치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물건이 물에 젖어 못 쓰게 되면 여간 속상한 게 아니었다.

오성규 씨는 일주일 주기로 17개 읍면동을 돌며 배달을 하면은 앉아서 파는거 보다는 이윤이 상당히 좋아 매출도 많이 증가하였다.

1970년 초반에는 한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집 정도밖에 없었다. 대개 마을 이장님댁에 한 대가 있었는데 저녁마다 온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시청하였다. 비료와 농약의 효능이 좋아지며 벼 수확이 증가하자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면 단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동네 전파사에서 사기도 하기도 하였지만 온양장날에 농산물을 싣고 와서 팔고 국제사를 직접 방문하여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그 당시 텔레비전을 시청하려면 송신전파가 잘 잡히는 곳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철사줄로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야 하는 일을 하루에도 4~5번은 하였다. 그래도

당시에는 흑백 텔레비전도 쌀 10가마를 팔아야 한 대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기에 못 사는 가구도 꽤 있었다. 전기가 보편화되면서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외에도 전축 카세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각 가정에는 필수품으로 정착 되어갈 무렵 아산지역에는 전기승압을 위한 공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현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10볼트였는데 220볼트로 승압한다는 것이다.

승압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오성규 씨는 면 단위 마을을 담당하게 되었다. 2인 1조로 진행된 작업은 가정집에 방문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110볼트로 되어있는 기존제품들을 사용하지 못 하고 새로 사야 하는 것이었다. 승압 공사를 하면서 각 세대마다 제품의 개수나 용량에 따라 도란스(트랜

스&변압기)를 지급하여 기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승압 공사를 하는 기술자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여 시골 아줌마들은 시집 안 간 친인척들의 여식을 기술자에게 중매 서기도 하였고 본인의 집에 공사를 하면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씨 암닭을 삶아 주기도 하였다. 마을의 모든 공사 시작과 끝났을 때에는 마을 이장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했는데 일부 기술자들은 이장님댁에 도란스를 한 대 더 주고 도장을 받기도 하였다.

아산군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승압 공사로 인해 국제사의 매출은 또 한번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잘 나가는 밥솥이나 밥통은 예약을 해야 다음 장날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작은 소도시에도 대기업의 대리점이 입점하고 외국산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마트와 유통센터에 쏟아져 나오자 일반 전파사나 국제사처럼 개인 대리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오성규 씨는 온양온천 재래시장 상인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각자 장사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들끼리 모여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로 상인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재래시장 의용 소방대를 창설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에 남다른 노력을 하였고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면서 약 33년간 의용소방대에 근무하였다.

온양온천 재래시장은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2008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고 경기도와 서울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바뀌면서 물건만 사가는 시장이 아닌 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성규 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제사 간판의 불을 켜놓고 있다. 옛날처럼 바쁘거나 일거리가 들어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산 사람들은 국제사의 역사를 알고 있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유 숙 위 (1960년생)
아산시 시민로

한복 한 벌 한 벌에 정성과 미소도 함께 담아 팔았다



충남 아산시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아산시청 가는 도로 양 옆으로는 아름다운 한복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이곳을 사람들은 한복거리라고 부른다. 예전 이곳은 여러 가지 장류를 만들어 팔았던 곳을 된장골목이라 불렀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의 한복거리로 변하였다.

많은 한복집 중에서도 한 건물에 올케와 시누이가 한복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얼핏 보면 한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는 한복의 종류는 다르다. 올케는 전통한복을 위주로 팔고 유숙위 씨는 생활한복을 판매하여 각기 다른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있다.

유숙위 씨는 공주시 유구군 정안면에서 아버지 유근묵과 어머니 이재옥의 사이에서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8촌 아저씨네 소작논을 짓고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시며 틈틈이 이웃집 농사일을 하시며 약간의 보리쌀을 얻어 끼니를 이어갔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시골에 살아서는 앞으로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님은 유숙위 씨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친정집에 동생과 유숙위 씨를 맞기고 서울 친척 집으로 올라가셨다. 고향인 유구에는 직물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곳에서 인조 광목이나 비단을 떠다 팔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포목 장사를 시작한 어머니는 서울에서 유구까지 새벽 버스를 타고 오가셨다. 천안, 온양을 거쳐 유구에 도착하면 이미 해가 지는 저녁이 다 되었다. 다음날 유구 직물공장에서 각종 포목을 사서 보따리를 이고 지고 서울 미군부대가 있는 평택 송탄 동두천으로 팔러 다니셨는데 농사짓는 수입보다 훨씬 나았다. 유숙위 씨가 국민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비로소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살았는데 방이 3개나 되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숙위 씨는 전매청의 협력회사로 담배 필터를 만들어 납품하는 천광산업이라는 회사에 경리로 취업하였다. 안정적인 매출로 일반회사보다는 월급이 좋았기에 살림에도 도움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대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사표를 내고 온양으로 내려왔다. 시아버지께서는 구두와 신발 가게도 하시고 속옷 가게도 하셨다.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따라 다시 서울로 올라온 유숙위 씨는 맞춤한복 기술을 배우고자 학원에 등록하여 치마저고리 재단과 미싱을 배웠다. 그러나 이불 도

매와 소매상을 하는 남편의 사업이 생각보다는 매출이 저조하였고 외상값이 쌓이다 보니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사업을 정리하고 온양 시댁으로 내려왔다.

시아버님의 권유로 한복집을 개업하였는데 아버님의 건물이다 보니 임대료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한 건물에 올케가 먼저 전통한복과 이불을 팔고 있었기에 유숙위 씨는 생활한복과 아동한복 그리고 혼수 포목과 침구류를 판매하였다.

장사는 꽤 잘 되었다. 그 당시에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는 남녀노소 모두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기에 명절한달 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도 집에 들어가 돈 세는 재미에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장사하였다.

한복집은 아낙네들의 사랑방과 같았는데 특히 중매쟁이들이 자주 와서 수다를 떨었는데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중매쟁이들이 혼사를 성사시키면 혼인하려는 신랑 신부가 한복을 맞추어 입고 양가 부모님들과 친인척들도 입으니 한복집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시 못 하는 중매쟁이들이었다.

한복집에서는 한복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혼인을 앞둔 신랑 어머니가 찾아와 사주단주 작성하는 예법이나 기타 신부집에 보내는 함속에 들어가는 내용을 상담하는데 이는 매출과 바로 연결되는 큰 상담이었다.

혼인을 하려면 예단을 보내는데 이 예단을 드리는 시기는 결혼식 한 두 달 전(달포) 이 일반적이며 시간은 해가 떠 있을 때 드리며 신랑, 신부가 함께 한다. 예단에는 좋은 모습만 봐 달라는 의미로 손거울을 넣고, 잡귀와 애운을 떨치고 잘살겠다는 의미로 팥을 넣고, 부부간 찰떡궁합으로 백년해로 하라는 의미로 찹쌀을 넣고, 신부에 대한 좋은 소리만 들어달라는 의미로 귀이개를 넣는데 당시엔 이 모든 것을 한복집에서 준비해 주는 경우도 많았다.

한복을 한 벌 판매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는 바지저고리, 조끼, 마고자 외 두루마기 등이 있고 여자는 속바지, 버선, 속치마, 치마, 적삼, 저고리, 쪽기 외 두루마기 등이 있으며 사돈 될 어르신 이불이나 따뜻한 내복을 보내기도 하였다.

부흥상회 한복집은 단골들이 많았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며느리가 세월이 지나 아들딸 결혼을 앞 두고 다시 찾아오고 나중에 환갑이나 칠순 잔치에도 온 가족이 찾아와 한복을 맞춰 입었었다. 때로는 동네 사람들 혼사에도 부흥상회로 데리고 와서 예단을 맞추고

가기도 하는 정이 넘치는 시절이었다.

80년에 들어서며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게 되었다. 지역의 이름난 호텔에서 많이 하였는데 이후에는 차츰차츰 전문 예식장이 들어서고 예식장 내부에 사진관과 신부화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생겨났다. 언제부터인가 결혼식을 하여도 한복은 신랑 신부와 양가 어머니만 해 입는 문화로 바뀌었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큰절을 하고 올리고 나면 답례로 밤이나 대추를 던져주는 폐백 때에도 신랑 신부는 한복을 꼭 입었는데 폐백 문화도 생략하는 시대가 되었다.

부흥 생활한복 집에도 경기불황과 시대변화의 바람은 피할 수가 없었다. 추석 명절이나 새해 구정 명절에도 한복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다들 편한 옷으로 입고 차례를 지내고 있다. 결혼식장에도 한복을 안 입었는데 어쩔 수 없이 꼭 입어냐 하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어머니들도 큰돈 들여 맞추어 입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주고 빌려 입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가 몇 년 지나자 한복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과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업종 변경하는 한복집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위기감을 느낀 유숙위 씨는 개량한복에 관심을 돌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판매를 하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아본 젊은이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출근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입고 활동하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우리 것을 찾자는 홍보와 운동으로 전국의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한복 입기 체험도 하였다. 아산시 신창면에는 인구의 20%가 고려인 3세를 비롯하여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한복을 등한시할 때 고려인들은 한복을 더 좋아하였고 결혼식이나 큰 행사가 있으면 한복을 입었으며 일부는 고향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복집은 하향 업종이다. 가끔 국악협회에서 단체로 한복을 사 가기도 하고 무속인들이 더러 사 가지만 전통한복은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옛날에는 봄가을 결혼식을 앞두고 많이 사 갔다. 예전에는 여름이나 겨울을 피해 결혼했지만 이제는 계절을 따지지 않고 양가가 좋은 날 하고 스몰웨딩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한복집은 더욱 어려워졌다.

중매쟁이들이 소개하는 고객들은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니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 외상거래는 거의 하지 않아서 좋았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원생들 졸업식에 입을 옷을 단체로 주문이 들어와서 거래처에 계약금을 주고 맞추었는데 졸업식이 끝나도 계산을 안 하여서 어린이집에 찾아갔더니 부도가 나서 못 받은 적도 있었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다. 다행히 생활한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흥상회는 개량 한복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에는 모시옷이 잘 나가지만 국산 모시옷은 상당히 비싸다. 가끔은 중국산 모시옷을 입고 오신 손님이 “이 집은 왜 이리 비싸냐 내가 입은 모시옷은 똑같은데도 얼마인데”하며 항의를 하시는데 “손님이 입은 모시옷은 중국산입니다. ” 설명하고 국산 모시옷을 보여주면 그제야 바가지 쓴 것을 알고 무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산 한복거리는 왕복 4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가가 있다. 대부분의 상가들이 7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장사하고 있다. 예전에는 큰 도로 옆이라 찾아오기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큰 도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큰 도로 옆에는 주차 금지구역이 되었다. 일부러 찾아오다가도 차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하지만 오랜 단골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오신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단골들을 위해 유숙위 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생활 한복집을 계속할 생각이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아산시

온양의 오일장

임 봉 자 (1951년생)
아산시 용화동

아가와 엄마들이 선택한 아기 옷 이제는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옷



온양온천 전통시장에는 '맛 내는 거리', '멋 내는 거리', '샘 솟는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특화한 시장이 있다. 그중에 멋 내는 거리에는 양말부터 시작하여 유아복, 아동복, 여성 의류, 남성 의류 등 패션의 마무리라고 하는 모자까지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만물 시장이다.

멋 내는 거리에는 수많은 옷 가게가 있는데 그중 해피랜드 유아복은 임봉자 씨가 운영하고 있다. 임봉자 씨는 전북 이리읍(익산시) 웅포면에서 아버지 임낙균과 어머니 김혜선 사이에서 5남 2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임봉자 씨의 가정은 천석꾼 소리를 듣는 대부호의 집안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많은 재산과 세도가 있어 아버지는 머슴들이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하였다. 이후 아버지는 군사재판소에서 일을 하셨고 보수적인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셨다.

익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길 원하였지만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신부 수업을 하라는 아버지의 완강한 뜻에 따라 집안에서 신부 수업만 하고 지냈다. 임봉자 씨의 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왕래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장품, 바느질 기구, 패물 등을 팔러다니는 방물장사가 자주 와서 어머니와 수다를 떨곤 하였다. 이 방물장사의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다. 당시 맞선 본 남자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였으나 인물이 좋았고 특히 직장이 금융회사(국민은행)에 다녔기에 당사자인 임봉자 씨보다 어머니가 더 적극적이셨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약혼식을 하였고 6개월 후에 익산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결혼 후 임봉자 씨는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과 함께 살았고 남편은 익산에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그나마도 숙직하는 날이 많아 혼자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남편이 충남 온양에 있는 무궁화상호신용금고로 직장을 옮기면서 제대로 된 신혼을 보낼 수 있었다.무궁화상호신용금고는 온양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주 고객은 장사하는 상인들이었다. 예금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장사 밑천을 대출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대출업무를 보던 남편이 하루는 집에 와서 말하기를 "그 많은 돈을 대출해 가도 약속한 날에 다 갚는 걸 보니 장사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좋을 거 같다. "라며 은근히 장사를 권하였다. 때마침 남편의 직장 동료 부인이 하던 옷 가게(해피랜드)를 내 놓았기에 얼떨결에 인수하게 되었다.

인수하는데 필요한 권리금과 가게 보증금은 집 전세보증금을 빼 월세로 이사하고 남편

이 대출해 온 돈으로 채울 수 있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장사는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 대우받으려 살아온 임봉자 씨는 비로소 돈의 가치를 느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법도 배웠다.

해피랜드 유아복은 막 출산한 아기들에게 필요한 옷과 용품을 판매하였는데 당연히 고객은 젊은 새댁들이었다. 아기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날을 잡았으면 시부모나 친정엄마가 출산 준비를 해 주는데 부모님 세대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용품들이라면서도 아낌없이 사주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배냇저고리, 배냇슈트, 손 발싸개, 모자, 기저귀 등을 사 주는데 특히나 일회용 기저귀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생아의 기저귀는 천 기저귀를 사용하였고 아기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새 기저귀로 갈아주고 손으로 깨끗하게 빨아 널었다 다시 사용하였는데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면서 천 기저귀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빨랫줄에 기저귀 말리는 풍경도 사라졌다.

온양온천 시장에는 아기 옷을 파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 옷이나 용품들은 일반 의류 상회에서 사 입던 것이 이제는 아기 옷 전문 매장이 생기면서 젊은 새댁들의 발길도 유명 브랜드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젊은 새댁들의 입김은 매우 무서웠다.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았다. 본인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못 오게 입방아를 찧곤 했다.

1995년경부터는 아기 옷 매장이 유명브랜드업체 간의 경쟁 시대로 들어섰다. 가격에 상관없이 옷 한 벌 사면 서비스로 양말 한 켤레를 주었는데 이 양말은 임봉자 씨가 돈을 주고 구입하여 서비스로 주는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이웃 업체에서 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냐며 항의를 받기도 하였지만 얼마 안 지나 타 업체에서도 서비스로 양말을 주기 시작하였다.

온양에는 고려인 3세들과 외국에서 시집와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평균적으로 고향에서 어렵게 살다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식들한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다. 해피랜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옷을 사 가는데 임봉자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서비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점심때가 되면 같이 밥도 챙겨 먹

이곤 하였는데 나중에는 엄마처럼 지내었다.

하지만 세상만사는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유명 브랜드를 하면 장사는 잘 되는데 재고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본사에서 물건을 받을 때 팔고 남는 것은 본사에서 전량 수거해 간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수거는 해 가지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옷으로 다시 가져오는 구조였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팔아야 하였기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몇 년마다 가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쌌다. 지역 목수를 사서 하면 절반 가격에 할 수도 있는데 본사에서 직영으로 하니 가맹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서는 아기 옷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가 인기가 좋았다. 전국적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옷 재질이 워낙 좋았고 디자인이 한국인의 눈높이에 딱 맞았다.

하지만 IMF 이후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온양에도 외국산 브랜드가 밀려 들어왔다. 서민들은 국산 옷을 선호하고 즐겨 입었지만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외국 브랜드 옷을 입히기 시작하자 주부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번져 나가고 과소비로 번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젊은 새댁들은 외국산 브랜드를 선호하고 누구네 아기가 알아주는 브랜드를 입었나를 가지고 그 집의 생활 수준을 가름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골 동네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잘 안 낳으려고 하였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자연히 옷도 안 팔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산 브랜드의 옷이나 용품들은 더 비싸지고 있었고 잘 팔리고 있었다.

국내 브랜드 가맹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임봉자 씨도 아기 옷에서 어르신 시니어 전문 옷 집으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생활의 리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브랜드 매장을 할 때에는 본사에서 모든 옷을 가져다주었는데 개인 매장을 하려니 본인이 직접 사 와야 하였다. 옷을 사려면 서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

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개인이 가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하였다.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버스를 전세 내어 밤 12시에 동대문으로 간다. 동대문에 도착하면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옷을 사러 떠난다. 새벽 3시에 온양으로 출발하여 오는 버스에서 쪽잠을 자고 사 온 옷을 진열하고 나면 장사할 시간이 되었다.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기성복은 시간과 노력은 더 들지만 가격도 싸고 이윤이 적었다. 대부분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르신들이고 보니 비싼 옷보다는 입고 활동하시기 편하고 저렴한 옷을 좋아하였다.

임봉자 씨의 가게는 동네 사랑방이다. 아침 일찍 시골에서 장 보러 나오신 어르신들이 한번씩 들렀다 가시는 곳이다. 임봉자 씨는 오시는 어르신들을 커피도 대접하고 시원한 식혜도 드리시고 밥때가 되면 같이 먹는다.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한 벌도 안 팔리는 날도 있다. 간혹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옷을 사 가기도 하지만 옷 가게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남편과 자식들은 어머니 건강이 염려되어 그만두시라고 하지만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고마워서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인터뷰어 안종은, 스토리텔러 안종은>

서산시

| 6.25 전쟁의 상흔(傷痕)

의용군으로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 학도호국단으로 활동하다 404
전쟁 중에 피난은 부산으로 기차 타고 갔다 409
6.25 전쟁 동안 서울과 서산에서 전쟁을 두 번 겪다 413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숱한 순간을 회고하다 418
조실부모로 의가사 제대하다 423
전쟁 중에 후방에서 위생병으로 활동하다 428
“어려워, 어려운 시기였어”라고 되뇌며 말을 삼키다 434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위생병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440

서산시

6.25 전쟁의 상흔(傷痕)

류 해 영 (1932년생)
서산시 인지면 둔산2길 8-1

의용군으로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 학도호국단으로 활동하다



해방되니 보도연맹이 있더라

해방되니 빨갱이가 중심이 되어 보도연맹을 조직했다. 못살던 농민이 주인이 되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빨갱이가 아니라 보도연맹을 앞세우며 선전했다. 문맹 비율이 높은 이들이었기에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된다는 보도연맹의 이야기를 맹종하였다. 보도연맹은 지방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이들이었다. 무력을 쓰지 않고 봉홧불을 피워 서로 수신만 할 뿐이었다.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당시 파출소에 인민군은 2명뿐이었고, 한 이들이 노동당 당원이 되고, 보도연맹 위원이 되었다. 지역민 중 좌익은 '자위대'를 조직하고, 우익은 '치안대'를 조직해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인민군이 내려오면 자위대가 우익을 색출하였고, 국군이 들어오면 치안대가 좌익을 색출하였다. 서로가 이념으로 나뉘어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중학생 신분으로 의용군에 끌려가다

류해영은 1932년 생으로 6.25가 발발하던 해에 17세였다. 당시 서산시에는 6.25이전부터 보도연맹 회원들이 활동하며 인민공화국에 대해 선전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은 17세 이상의 청년들을 의용군이라 하여 모집했다. 의용군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예외였다. 모집이라기보다 300~400명의 학생을 학교에 모아놓고, 인민공화국을 선전하였다. 포스터도 그리고, 교육도 받으며 생활하며 약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철조망을 치고 감금하였다. 결국 걸어서 인민군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동안 '공습'이라는 소리가 나면 길을 벗어나 풀숲에 숨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으로 북으로 올라갔다.

서울 노량진 흑석동에 도착하였지만, 한강에 도착해서 인민군과 마주하였다. 당시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17세보다 어린 북한의 어린이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북한의 아이들은 참전하러 내려오고, 남한의 아이들은 북한에서 교육받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 북한으로 올라갔다.

의용군에게서 도망치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결국 서산에 도착하다

서울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 없어 수원으로 퇴각하였다. 수원농과대학교에 머물며 올라갈 때를 가늠하고 있었다. 류해영은 배가 고파 학교에서 심어 둔 복숭아를 따 먹다가 인민군에게 혼이 났다 "노동자, 농민이 고생하며 농사를 지은 거를 간나 새끼들이 싹 처먹는다"라고 하며 머리를 때렸다. 혼쭐이 난 후 복숭아도 빼앗기자, 정신이 들었다. 어서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여겨 틈을 보았다. 민가에서 부역으로 주먹밥을 공급받아 나누어 먹고는 물을 뜨러 인근 샘으로 갔다. 샘물을 들고 돌아오던 길에 틈이 보여 줄행랑을 쳤다. 그 길로 산으로 도망갔다. 낮에 길을 걷는 이들을 무조건 비행기의 공격을 받았기에 밤을 이용해 피신하였다. 산속에 도착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그 마을 자위대에 신고하여 고초를 겪었다. 다시 인민군에 붙들려 북한으로 이동하던 중 다시 도망쳤다. 당진의 한진 나루를 향해 무조건 걸었고, 결국 한진 나루에 도착했다. 배를 타자 모자를 벗겨보고 우익을 가려냈다. 머리에 모자를 쓰는 직업군은 경찰과 군인뿐이었으므로 우익을 가리는 방법으로 모자를 벗긴 것이다. 배에서 내리자 다시 좌익에게 붙잡혔다. 온통 좌익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고향 친구 형수의 고향마을이었기에 고향 이야기를 하자 몰래 도망가라고 일러주었다. 그 길로 서산까지 쉼 없이 뛰었다. 마침내 서산에 도착하였다.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해영이 이놈의 새끼 의용군 갔다 언제 오느냐"고 울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후에는 토굴에서 숨어지냈다

17세의 남자는 언제든지 의용군에 징집될 수 있으므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큰집 누나가 쓰던 빈방의 구들을 들어내고 토굴을 만들어 그 속에서 숨어 지냈다. 의용군에 끌려갔다 온 경험이 있기에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엄마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으며 울부짖는 연극을 하였고, 큰댁에게서는 식구들이 식사를 모두 마친 후에나 식사를 가져다주었다. 아침과 저녁 식사를 가져다주면 그것을 점심까지 나누어 먹었다. 토굴 귀퉁이에 변소를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몇 달을 숨어 지낸 후에 수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토굴 밖으로 나왔다.

경찰서 내무소에서 안전을 도모하다

토굴 밖으로 나온 후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내려온다고 하자 인민군이 철수하였다. 파출소 내무소를 우익이 탈환한 후 그곳에서 지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한국 경찰이 도착했다. 그에게 총을 달라고 하니 5알의 총알을 주었다. 전쟁 중에 총은 고급관료나 가질 수 있는 귀한 것이었기에 총알을 주며 이렇게 일렀다. [총알을 총 있는 것처럼 이따금 모닥불에 집어넣으면 '팍!'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면 걔들이 '저 자식들이 총 가지고 있구나 하니께. 한꺼번에 그 다섯 발 다 하지 말고 있다가 해라']했다. 석 달 동안 내무소에서 지내며 안전을 도모했다.

학도호국단으로 위문대를 조직해 우익 연극 활동을 하다

그 후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다. 학도호국단은 위문대를 만들어 인민군의 만행을 시나리오로 써서 연극무대에 올렸다. 인지면 각 마을을 돌며 우익의 연극을 공연하였다. 많은 이들이 좌익에 가담했었지만 이때만큼은 우익의 연극을 즐겼다. 혹여라도 우익에 잘못 보이면 탈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돼지도 잡고, 푸짐하게 마련해 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1.4 후퇴로 다시 고향을 떠나 공주 유구로 피난을 가다

유엔군이 도착한 후 평양을 접수하는가 싶더니 중공군의 개입으로 곧 후퇴하였다. 18세의 남학생이었던 류해영은 다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동네 어른들과 함께 쌀을 가지고 피난 길에 올랐다. 피난 길에는 쌀 한 되박을 주면 아침과 저녁을 지어 주었기에 필수품이었다. 공주에 도착했는데 금강 다리가 피난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교통의 중심지인 유구에서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학생이 아닌 청년과 장년은 '복구대'로 부역하다

자위대가 점령하던 시절에 학생이 아닌 젊은이들을 동원해 땅굴을 팠다. 인천상륙작전을 알았는지 해안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 땅굴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

까지 지속되었다. 땅을 파는 부역을 시킨 또 다른 이유는 농한기에 농민들 여럿이 모이면 이승만 정권이나 한국인 정치할 때와 인민군이 정치할 때를 비교하게 되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정신 통일을 하기 위해 땅굴을 파게 했다.

당시 작업은 자신이 점심 먹을 쌀과 반찬을 가지고 나오면 일렬로 태안 원북까지 걸어가라고 하였다. 마을마다 지점을 정해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도록 하였다. 하루에 왕복 70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곳에 머물며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솥단지와 땔감도 가져가 밥을 지어 먹으며 작업하였다.

서산 농림고등학교 2학년이 되다

전쟁이 끝나자, 학제가 변경되어 제(6년)가 중학교(3), 고등학교(3)으로 분리되었다. 전쟁 중에 3년 이 지났기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되었다. 류해영은 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이하였다.

좌익과 우익도 이념적 대립

서산지역에는 큰 전투가 없었기에 인민군의 활동보다 지역에서 좌익 활동을 하던 일명 '지역 빨갱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전투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좌익과 우익이 서로를 억압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이념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억압했다. 서로가 잡아다가 두들겨 팼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유 희 채 (1934년생)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전쟁 중에 피난은 부산으로 기차 타고 갔다



서산에서 윤리 교사로 활동하다

유희채 씨는 1934년 생으로, 2024년 현재 92세이다. 서산중학교, 서산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윤리 교사로 재직하였다. 초임은 해미국민학교였으며, 퇴임은 당진 상고에서 했다. 서산군과 당진군 등지의 학교에서 윤리 교사로 반공 윤리 교육을 책임 맡았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급당 약 63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받았다. 농고에는 여학생은 없었으며, 24세에 혼인하였으며, 지금은 운산면 안호리에서 안거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교육을 받다

1934년 생이므로 일제강점기에 초등교육을 받았다. 당시 운산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벌점제를 시행하였다. 한국말을 할 때마다 벌점이 쌓였고, 결국 불이익을 받았다. 남이 하기 싫은 청소를 하는 것으로 주로 벌을 주었다. 국민학생들도 검정 교복을 입었다. 중학생부터는 모자를 썼다. 중학교 모자 이외에도 전투모를 쓰고 다니곤 하였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인지 전투모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 아이콘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 피난을 결정하다

전쟁이 났으니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홀로 판단한 후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전쟁이 나면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서둘러 학생들은 피난을 결정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홀로 피난길에 올랐다. 가족들과 동생들은 서산에 남겨둔 채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길을 떠났다. 피난은 징집될 나이의 남자들이 주로 갔다.

부산 가는 암표를 구해 피난갔다

유희채 씨는 당시 학생들은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집안에 형제 · 자매와 부모를 남겨둔 채 홀로 피난 길에 올랐다. 부모가 챙겨주신 돈을 챙겨서 천안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천안에서 경부선을 타고 부산까지 갈 요량이었다. 천안역에 도착

하니 기차는 이미 만석이었다. 피난을 가려는 이들이 워낙 많아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암표 장사들이 돌아다니며 표를 팔았다. 정상적인 자리는 이미 피난민들로 꽉 찼으므로 특별한 자리를 제안했다. 기관사 옆의 빈 곳에 타고 가는 조건이었다. 암표를 구해 부산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다. 어두워 막막했지만, 안전한 공간에 도착했기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산 위의 단칸방을 구해 피난살이 시작하다

부산 수성동에 도착한 후 산 위로 올라가 방을 구했다. 수성동의 산동네에는 칸을 나눈 피난민의 거처가 많았다. 피난민 대부분은 가족끼리 왔다. 그러나 홀로 피난을 갔기에 외롭게 생활하였다. 판잣집은 월세는 저렴했지만 그만큼 생활환경은 낙후되었다. 방과 부엌을 구분하지 않고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다. 끼니도 쌀과 김치만으로 때웠다. 작은 화로를 사다가 불을 피웠고, 냄비를 사서 냄비 밥을 지어 먹었다. 홀로 바깥출입을 삼가며 집안에서 생활하며, 전쟁중이라 따로 일을 할 수 없었다.

피난하며 부산을 구경하다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을 떠나 약 6개월 정도를 부산에서 생활하였다. 전쟁 중이라 집에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서산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어 다행히 큰걱정은 없었다고 한다. 피난처에서는 홀로 조용히 지내며 피난 생활의 어려움을 견뎠다.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틈틈이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 특히 국제시장이 가장 인상깊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가득해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한 신기함을 느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듬해 여름에 서산으로 올라왔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1951년 4~5월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교착상태로 들어갔다. 이 시기는 좌익과 우익간의 극심한 대립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학교에 다니는 자체가 큰 혜택이었다

전쟁 이전이나 이후나 학교에 다니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이었지만 집안 어른을 도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소풍은 주로 가을보다는 봄에 다니며 서산 개심사와 예산 수덕사로 주로 다녔다.

전쟁은 큰 비극이다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유복한 상황에서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은 비극이다”라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끼리 혹은 같은 농부끼리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다. 이념 전쟁이었기에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싸움은 지속된다. 비극적인 전쟁을 알기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한 기 춘 (1931년생)
서산시 동문동

6. 25 전쟁 동안 서울과 서산에서 전쟁을 두 번 겪다



성연면 평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를 다녔다

한기춘 씨는 1931년 생으로 성연면 평리에서 출생하였다. 평리는 청주한씨가 많이 살았고, 한기춘의 아버지는 평리의 지주였다. 평리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한기춘 씨는 당시 국민학교를 시작으로 일본교육을 받았다. 초기에는 일본 역사, 일본어, 산수 등을 가르쳤다. 일본어 교육을 할 때는 일주일 분량의 쪽지를 나누어 주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 주었던 쪽지를 한 장씩 가져갔고, 빼앗긴 분량의 쪽지 만큼 매를 맞았다.

4학년 때는 대동아전쟁의 여파로 수업을 하기보다 작업을 시켰다. 전쟁에 필요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 광솔을 캐오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러나 인근 산에는 소나무가 없었기에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통을 들고 다니며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그 안에 있는 진을 모았다. 광솔의 용도도 모른 채 아이들은 광솔 채취 노동자가 되었다. 대동아전쟁을 겪으며 이것저것 모두 빼앗겨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여자아이들이 모 이면 틈틈이 고무줄을 하며 잠시나마 즐거움을 찾았다.

18세에 서울로 시집가다

당시 여자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기에 중학교 진학은 생각도 못 했다. 서산에는 남자 중학교인 서산중이 유일한 중학교였기에 여자들은 진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학교 졸업 후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기에 담뱃잎도 따서 말리는 집안일을 돕다가 18세에 중매로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던 남편과 혼인하였다. 혼인식을 서산에서 하고 이후 서산을 떠나 서울 용산구의 시댁으로 들어갔다. 서산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한 뒤 인천부터 서울까지는 기차로 이동하였다. 시댁에서는 시동생, 시누,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남편은 육군사관학교에 임관하였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은 하지 못했다.

20세에 6.25전쟁을 서울 용산에서 겪었다

신랑을 군대에 보내고 시부모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서 시집살이를 하였다. 전쟁 며칠 전에 신랑이 휴가를 나왔다. 총소리가 나고, 이곳저곳에 포탄이 꽝꽝 떨어졌다. 당시 군인 신

분이던 신랑은 잡히면 맞아 죽는다며 살기 위해 집을 떠났다. 그날의 만남이 마지막이었다. 유독 용산구에는 인근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 폭격이 있으면 집안에서 집 바깥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먼지가 일어나 집안 전체를 가득 메웠기에 눈앞의 방문도 찾기가 어려웠다.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여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에 당분간 집 중앙 방에 이불을 모두 가져다 두고 세 사는 사람과 시집 식구들 모두 그 이불 아래에 들어가 있었다. 여름에 솜이불을 덮고 모여 있자니, 더위로 더욱 고통스러웠다. 총알이 솜이불은 뚫지 못한다고 하여 우선 당장 피난보다는 이불 아래가 안전하다고 여겨 그리했다.

강남과 용산을 잇는 한강 다리가 폭파되자 더는 서울에 머물 수 없다고 여겨 피난하기로 결심했다. 이남으로는 갈 수 없었기에 일산으로 피난지를 정했다. 북한 쪽으로 올라간 것이 이상한 일이나 전쟁이 없는 한적한 곳을 우선 피난지로 여겼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웃집 식구들을 따라나선 피난길은 당시 8명이 피난을 했는데, 며칠만 피해 있다 돌아올 요량으로 돈만 챙겨서 떠났다. 생각보다 오래도록 피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식량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없어 된장을 풀고 쌀 한 주먹 넣고 끓여 그걸 나누어 먹었다.

피난민을 따라 서산으로 내려오면 전쟁을 경험하다

피난 생활에 지쳐갈 무렵 시어머니가 피난처에서 서산 사람을 만났다. 갓 시집온 며느리를 친정 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포탄 속에 나간 신랑의 생사를 알 수 없었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음력 8월 무더위에 일산에서 만난 서산 사람을 따라 홀로 피난길에 올랐다. 시부모의 권유로 전쟁 중에 다시 한번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기로 했다. 돈은 본인이 지니고, 서산에서 온 분에게 쌀을 맡겼다. 시어머니가 가는 도중 쌀이 있으면 끼니는 거르지 않으므로 쌀을 챙겨주었다. 무거운 쌀을 짊어진 서산 사람은 홀로 터벅터벅 멀어져 갔고, 20살의 젊은 아가씨는 어른의 걸음걸이를 따라잡지 못해 결국 피난길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 막막했지만 물어물어 서산으로 향했다. 쌀을 잃어버렸기에 굶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두 번 겪었다

길거리에는 온통 폭격을 맞아 죽은 시체가 즐비했다. 어떤 여자가 벽에 서 있어 폭격을 피했는가 하고 옆에 가보니 서서 죽어 있었다. 시신들을 뒤로 하고 길을 재촉하였다. 피난

가는 이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으니, 비행기에서 사람만 보이면 폭탄을 쏘았다. 비행기 소리가 나면 머리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서산 시내에서는 6.25 전쟁 중에 전투가 없었다. 비행기 공습 등을 겪지 않았기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시신을 본 이들이 없다. 평리에는 좌익이 때려죽인 2명의 사상자만이 있었다. 그러나 한기춘 씨는 피난 길에 너무나 많은 시신을 보았다. 서산에 거주하던 다른 이들과 달리 전쟁을 두 번 겪은 셈이다. 이제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만 들어도 징그럽게 여긴다.

피난 도중 어느날인가 어딘지도 모르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 피난민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새벽에 서둘러 길을 떠났는데, 방금 떠나온 그 집에 포탄이 떨어졌다. 만약 짐을 챙긴다고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상황이었다. 그 집을 나온 이들은 서로 어안이 벙벙해 말을 잇지를 못했다. 결국 열흘을 걸어서 서산에 도착하였다. 평리 친정집에 도착했는데, 친정아버지가 딸을 못 알아보았다. 새까맣게 타고 말랐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버지가 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었다.

인민군이 평리 주민을 잡아가다

평리 주민들은 9월 19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맥아더 장군이 당진까지 내려왔고 곧 서산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인민군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평리 앞쪽의 성왕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 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어찌나 기뻤는지 주민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들고 산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그 소식을 들은 인민군이 그 이튿날인 19일에 평리로 쫓아 온 것이다. 만세를 부른 남자들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죽창으로 찔렀다. 남자들은 이미 모두 도망간 상황이었다. 마을에 남아 있던 남자들은 산내기로 묶어서 죽 세운 후 데리고 가서 창고에 가두었다. 이들은 훗날 우익이 들어와 풀려났다.

그러나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우익으로 불리던 소방대장과 총알을 만들어 준 대장장이였다. 그들은 결국 때려서 죽였다. 소방대장의 집은 불을 질러 그 주변 하늘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비록 2명의 희생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2명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주민들의 입에 회자하고 있다. 그들은 한티고개로 끌려

가서 맞아 죽었다. 두 사람의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산 넘어 한티고개로 가족을 찾으러 가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아버지가 죽자, 집안의 기둥이 사라졌다

전쟁이 나던 1950년 10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인자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에 군자 양반이 돌아갔다고 하여 사흘 동안 장례를 치렀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솔선수범하여 일을 도왔다. 관도 사 오고, 상여도 꾸몄고 행렬을 지어 나갔다. 선산에 장사를 지냈다. 전쟁 통이지만 이념으로만 갈등이 있었기에 일상생활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에는 무척이나 덥고, 추웠다고 한다.

아버지가 죽고 여자와 어린 남동생을 건사하려고 안 해 본 일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에는 어머니, 본인, 여동생과 어린 남동생이 남게 되었다. 맏딸인 본인이 가정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어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선 장사였다. 당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시장 인근에 거주하며 생선이나 잡화를 판매하는 일을 했기에 본인도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바구니를 들고 장에 나가 생선을 샀다. 매일 매일 이고 다닐 수 있을 정도만 외상으로 산 후 판매를 해서 생선값을 냈다. 병어 2마리, 갈치 3마리, 고등어 5마리 등으로 서민들이 사 먹을 만한 생선을 골랐다. 고향인 성연면에는 가지 않고, 인근 지역을 돌며 생선을 팔았다. 생선을 팔아야 식구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었다. 생선은 잘 팔렸지만 팔지 못하는 날에는 동네를 돌며 동냥을 구걸해야 했다. 동냥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기 때문에 유복하게 자란 본인은 동냥만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함께 간 피난민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빈손으로 피난 온 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인지 동네를 돌며 동냥을 해왔다.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좁쌀 조금을 얻어오면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식구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서산시

6.25 전쟁의 상흔(傷痕)

김 종 옥 (1925년생)
서산시 죽성동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숱한 순간을 회고하다



올해 100세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을 기록하다

김종옥은 1925년 생으로 2024년 현재 100세이다.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6.25 전쟁기를 겪은 경험을 지닌 고로이다. 어린 시절에 한문을 배웠기에 11살에 축문을 읽어 줄 실력을 갖추었다. 18살에는 예산농민도장에서 1년 동안 농사 훈련을 받았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똥통에 손을 넣는 일이었다.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비료로 소중한 것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그리한 것이다. 농군이 지녀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19세부터 교직에 몸담아 잠깐 경찰이 되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65세에 정년을 맞이하였다. 첫 부임지는 해미국민학교이고, 서산의 여러 국민학교를 거쳐, 교감 시절에는 보령군, 공주시, 서천군, 부여군 등지의 국민학교에서 근무했고, 서산 국민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였다.

교편생활을 하면서 교육지론으로 '아이들은 화초이다'를 되뇌었다. 화초는 부모나 선생님이 이쁘게 손질하는 방향으로 크는 존재이다. 아동이 어떤 꽃으로 자라게 하느냐는 교사의 몫이 크다는 생각으로 교육자로서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를 회고하다

일제강점기에는 공부보다는 학생들에게 건초를 베고, 소나무 뿌리를 캐는 작업을 시켰다. 건초와 솔뿌리 모두 공출 대상이었기에 아이들을 동원한 것이다. 식량이 부족해 학교 운동장을 일구어 수수나 고구마를 심었을 정도로 어려웠다.

김종옥은 일제에 징병이 되어 기병대로 만주에 파병되었다.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되자 만주에 있던 소련군에 붙들려 석 달간 포로 생활을 하였다. 결국 함경도를 거쳐 남하하는 동안에는 동냥하며 생존하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함경도에는 식량이 매우 귀했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동냥하였다. 일단 방안까지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해야 했고, 체면치레로 사양하면 밥을 주지 않았기에 준다면 그저 얻어먹었다. 한 달 동안 동냥으로 연명하며 서산에 도착하였다.

6.25를 적다

6.25는 남침이라고 생각한다.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1,129일 동안 싸운 전투였다. 전쟁은

미리 선전 포고를 하고 양측 합의 하에 시작되는 것이므로 불법 남침일 뿐 정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없다. 전쟁 중 가장 고생한 이들은 피난민들이다. 피난민은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산군이 쳐들어오자 남쪽 부산이나 목포로 피난 간 이들도 포함된다. 잠시 서울이 수복되어 돌아왔던 이들도 1·4 후퇴 때 다시 피난길을 떠났다. 피난을 가면 파괴된 집에 기거하여 얻어먹으며 생활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산에는 음암면 수석리(현 서산시 수석동) 피난민집이 많았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선생 신분이었기에 그곳에 가서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학교에 보내라'고 권유하였고, 그 아이들을 성의껏 보살폈다. 그들은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하였다.

이념으로 대립하다 사상자가 나왔다

서산시에서 좌 · 우익 이념 대립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여러 번이다. 그중 하나가 음암면에 있는 소탐산에서 경찰관과 검사 한 명씩을 데려다 죽인 사건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인민위원장이나 치안대장을 맡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인민군의 비호 아래 그들은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았다. 밥술이나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머슴을 살던 이들이나 학대를 받던 이들은 주인에게 벼나 소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질렀다. 무법천지였다. 서산지역의 유식층, 관공서 직원, 지주 등의 피해가 컸다. 본인의 형도 피해를 당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 모범 청년으로 호주에서 양 250마리를 데려다가 먹이던 중 6.25 전쟁통에 경찰 내통자라는 오명을 씌워 학살시켰다. 억울한 일이다.

주민들에게는 수시로 봉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길을 닦거나, 잡초를 매거나 하는 육체노동을 시켰고, 노래나 사상교육을 통해 인민공화국 선전을 하였다. 선전교육은 식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문맹의 농민을 대상으로 했기에 큰 소득은 없었다. 농민들에게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일러주어 공출을 준비시키기도 하였다.

반공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양대리의 수문 입구에서 음력 7월 11일에 대규모의 총살이 있었다. 당시 일부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오기도 하였다.

가장 큰 피해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민군이 서산에서 후퇴할 때 발생하였다. 손을 뒤로 한 채 쇠로 묶고, 철사로 엮은 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총을 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 시신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못 찾아가기도 하였다. 수석리의 무명용사 위령탑이 그

때 죽은 사람들의 위령비이다. 이외에도 옥녀봉의 충혼탑, 무명묘 등도 그때 희생된 분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전쟁 중에 사역으로 교사로 활동하다

전쟁 초기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모아 놓고 좌익의 사역으로 인민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재가 없었기에 좌익의 요청대로 인민 교육을 시행한 셈이다. 인공기 그리기, 노래 등을 가르쳤다. 여름 방학 이후로는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하였다. 교사들을 동원해 의용군 징발도 시행하였다. 교사 중 우익은 사찰을 받기도 하고, 쫓겨 다녔기에 집에서 잠도 못 잔 사람도 있다. 교사로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세상이었다.

우익과 지주는 가족들도 피난을 갔다

경찰 가족이므로 지서에서 피난을 권유하여 가족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당진의 한진나루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 10일 동안 머물다 돌아왔다. 마차에 필요한 짐을 싣고 당진으로 갔다. 방 한 칸을 얻어 11명의 식구가 오글오글 모여 지냈다. 비참한 순간이었다.

6.25 베이비를 아시나요

광복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하였다. 6.25 이후에 급속도로 아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각 면에 초등학교가 하나였는데, 두 개 혹은 세 개로 늘었다. 광복 이전에 일본으로 징용

이나 군대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어느 가정에서는 12명을 낳기도 하였고, 그러한 가정에는 면에서 쌀 한짝이나 광목 한 통, 미역 열 단을 상으로 주었다.

전쟁 이후 교사로 활동하다

전쟁 직후 학교 건물은 남아 있었으나 책상과 의자가 없었다. 초기에는 멍석을 깔고 수업하였다. 일본말로 된 교과서뿐이었기에 교사들은 직접 일본말을 국문으로 번역한 후 필사하여 등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교마다 교재의 내용이 다른 이유이다. 산수책만큼은 어느 학교에서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더하기 빼기만을 적으면 되었기 때문이

다. 가장 다른 것이 국어책이었다.

구호물자가 나오면 아이들에게 나누어줬지만 연필 토막조차 귀하던 시절이다. 종이가 없어 한 번 사용한 종이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 위에 쓰는 방식으로 배움의 종이도 재활용하였다.

아이들은 도시락에 새우젓과 능쟁이를 싸 가지고 다녔다. 가장 잡기 쉬운 것이 능쟁이로, 지역민들의 주된 반찬거리였다. 아이들은 보리밥, 메밀묵, 밀개떡을 주로 먹었다. 간혹 회충이 생기면 무릇을 캐다가 끓여 먹었다.

국민학교에서는 쌀 한 말, 한 되는 월사금으로 받았다. 중학교는 국민학교의 4~5배를 받았다. 국민학교에는 다닐 수 있어도 중학교 이상의 교육은 당시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제자를 길러보기 위해 비싼 월사금을 2년간 지원해 보았지만 졸업 후 연락 한 번 없는 이들을 보며 제자 양육도 쉽지만은 않았다.

전쟁 이후 전체교육으로 전환하다

6.25 전쟁 이후 가장 달라진건 전체교육 혹은 통일교육의 방식이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교육은 러시아로부터 수용한 교육방식이다. 이념적 갈등이 많았기에 전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념의 갈등으로 집성촌이 없어지다

전쟁 이전까지는 서산에 집성촌이 많았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념 갈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집성촌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은 친족집단도 피해 갈 수 없는 주제였던 것이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최 병 성 (1929년생)
서산시 지곡면 산성 2리

조실부모로 의가사 제대하다



조실부모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최병성은 1929년생으로 2014년 현재 95세이다. 조실부모한 후 5남매였는데, 남동생과 여동생은 출가하고 3명이 함께 작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형님의 자손을 거두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형편으로 학교를 보낼 수 없어 대신 농사를 거들었다. 작은아버지는 머슴을 두고 사는 부자였다. 그 그늘에서 살 수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혼인 후 제금 (부모로부터 벗어나면서 혼인 후 자기가족들과 부인을 대리고 대가족에서 분리되어 핵가족으로 나뉜다는말) 나면서 떨어져 나왔다. 작은아버지가 양자를 왔기에 친족이 따로 있었다. 그럼에도 작은아버지는 큰집 아이들을 살뜰히 챙겼다.

일제강점기에 납작 보리쌀을 배급탔다

일제강점기에는 쌀, 콩, 수수 등은 모두 공출로 가져가고 대신 납작 보리쌀을 배급으로 주었다. 쌀을 자리 밑에 넣어 두면 그것까지 찾아서 가져갔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열심히 지어봤자 먹지도 못하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36년 동안 수시로 조사해서 빼앗아 갔다. 놋그릇, 양판 등의 쇠붙이도 모두 빼앗겼다. 다른 작물은 모두 가져갔지만, 고구마는 안 가져갔다.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심었고, 무도 가져가지 않아 무도 많이 심어 동치미를 만들어 고구마와 함께 먹었다.

농사로 잔뼈가 굵다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지었다. 복더위에 수확한 보리는 지게에 지고 마당에 가져다 둔다. 덥기도 하고, 보리의 꺼럭이 붙어 간지럽기도 해 죽을 지경이다. 도리깨로 털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림도 없다. 보리타작은 15명씩 품을 앗아서 공동으로 작업했다.

벼타작도 보리타작과 같다. 늦은 가을에 벼를 수확한 후 품앗이로 타작을 하다보면 순서가 늦은 집은 눈을 쓸고 타작해야 했다. 절구대에 볏단을 내리친 후 다시 와롱기계에 대고 낟알을 털었다.

22살에 군대에 가다

6.25 전쟁이 발발한 해가 최병성이 22세가 되던 해였다. 혼인 후 한 달 후에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갔다. 전쟁 중에 성인으로 군복무를 하였다. 강원도 15사단 39연대에서 전쟁을 경험하였다. 전방이었기에 실제 전투가 잦았다. 1대대가 투입되어 싸우다가 다 죽으면 2대대가 그 뒤를 이어 들어가 맞서 싸웠다. 3대대에 속했기에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총도 내버려두고 그대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산 아래까지 내려온 군인은 13명뿐이었다. 군인이 총도 내버리고 퇴각을 한 것이다.

전쟁 중에 폭격으로 부상을 하기도 하였다.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은 대부분 죽고 산 사람이 별반 없었다.그런 상황에서 살아와서인지 96세까지 장수를 누리며 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본인이 아니면 살림이 안 되면 당시에는 의가사 제대를 시켰다. 그래서 2년 만에 제대하였다.

총 쏘는 방법을 배웠다

전쟁 중에 군대에서 총 쏘는 방법을 배웠다. 당시에는 무거운 M1을 사용하였다. 칼빈총은 작아서 메고 다니기도 좋았지만, 직급이 낮은 졸병은 무거운 총을 수령하였다. 총은 밤새 닦아야 했는데 등잔불 아래였다. 총 쏘는 훈련을 할 때도 맞추지 못하면 대대장, 중대장들에게 무척 혼이 났다.

군대에서도 돈이 필요하다

군대에도 술을 파는 곳이 있었다. 거기서 술을 먹고 돈이 필요하면 마누라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기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담배를 좋아했기에 그들이 가진 담배와 자기 밥과 바꾸어 먹곤 하였다.

군인들 월급이 없었다. 계급이 낮아 밥의 양도 적었다. 너무 고생스러워 부인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했다. 집에서 돈을 은행으로 보내주면 병사에게 지급되었다. 받은 돈은 할머니가 만들어 준 전대에 넣어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군대에서도 돈은 전대에 넣고 다녔다. 그 돈으로는 주로 담배를 사서 피웠다.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3대대는 살았다

전투가 있었다. 돌격 앞으로 하는 날이었다. 1대대, 2대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최병성은 3대대 소속이었다. 모두 죽고 나니 사람이 부족했다. 3대대만으로는 전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살았다. 전투에 나가면 모두 죽었다.

제대 후 살집이 없어 동네 사랑방에서 생활하다

제대하니 작은아버지의 집에 다른 이가 새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갈 곳이 없어 동네 사랑방을 전전하며 살았다. 사랑방에서는 날이 새도록 윷놀이하며 지냈다. 남의 집 제사를 지내면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제삿밥을 얻어먹곤 하였다. 좌익은 좌익 활동 하느라고 윷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홀로 피난을 가다

전쟁 중에 사태를 보아 피난을 갔다.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 둔 채 홀로 피난 길에 올랐다. 빨갱이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살려고 홀로 도망치듯 피난하였다.

고향에는 좌익이 많았다

6.25 전쟁 중에는 마을마다 좌익이 많았다. 그래서 마을마다 피해가 컸다. 좌익과 우익이 수시로 서로에게 위해를 가했기에 마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성연면에 매지골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엮어서 줄을 세워 놓고 총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아버지는 좌익이고, 아들은 우익이었다

한 가족이라도 이념을 달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버지는 좌익이고, 아들은 우익이었다. 서로 싸우기도 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죽었다. 부모와 자식이 이념이 달라 죽고 죽이는 모습은 비극 중에서 비극이다.

지렁이를 잡아서 아이 대학을 보내다

22살에 결혼을 했다. 5살 차이의 17살의 앳된 색시였다. 지곡면 화천리의 색시와 중매로 혼인 후 1년 만에 군대갔다. 제대 후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4남매를 키웠다. 오이 농사를 지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석굴 골짜기에서 지렁이를 잡았다. 석굴 골짜기에서 지렁이를 잡았다. 지렁이는 큰돈이 되었다. 같이 지렁이 잡던 이들은 먼저 갔다. 현재 95세로 농사일도 손을 놓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6.25 전쟁의 상흔(傷痕)

장 경 옥 (1932년생)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전쟁 중에 후방에서 위생병으로 활동하다



예덕리에서 태어나 94년을 살았다

장경옥은 1932년생으로 성연면 예덕리에서 태어나 2024년 현재 94세이다. 6.25 전쟁이 발달하던 당시에 19세였다. 전쟁 중에는 의무병으로 활동하였고, 마산, 울산, 서울, 대전 등지의 후방에서 군 생활을 했기에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쟁이 나던 해에 징병 되어 종전 이후에도 복무하다 7년 만에 만기제대하였다. 제3 공화군 시절에 참전용사로 지정되었으며, 전 서산 참전용사 회장을 역임하였다.

인민군에게 나이와 생일을 속여 위기를 모면하다

전쟁이 나자 제일 먼저 각 면마다 인민위원장이 주도하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인민공화국을 선전하고, 지역민 중 인민군으로 차출하기 위해 수시로 모임도 가졌다. 의용군은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궐기대회에서 19세인 본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기지를 발휘하여 본인은 아직 19세가 안 되었고, 생일도 늦어 입대 나이가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이 도와주어 징집을 면할 수 있었다.

숨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이 수시로 사람을 끌고 가니 남자 아이들은 잡혀가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하고 식사 도구도 쇠가 아닌 대나무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 나무 함지박을 이용해야 했다. 혹여라도 소리가 날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땅을 파는 복구대를 감시하는 인민군

군대 가기 이전에 성왕산 산 위에서 주민들이 방공호를 파는 모습을 감시하였다. 성왕산은 서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산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방공호를 판 것이다. 동북쪽에서 들어올지 모를 유엔군을 막기 위해 방공호를 판 것이다. 노인을 제외하고 인근 마을을 포함해 주민 전체를 동원하였다. 이들을 '복구대'라고 불렀다. 지금도 성왕산에 가면 당시 팠던 방공호를 볼 수 있다.

여러 달 동안 방공호에서 대치했기에 식사는 몰래 내려와서 먹곤 하였다. 밥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에 능쟁이를 반찬 삼아 먹었다. 능쟁이를 간장에 담가 두었다가 먹기도 하고,

게국지로 담아 먹기도 하였다. 호박과 능쟁이를 짓찧어서 무잎과 섞어 담은 게국지는 밥이자 반찬이었다.

징병당해 논산훈련소로 가다

전쟁이 발발하던 시절에는 문맹자가 많았다. 장경옥 씨는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해방되던 해에 6학년을 졸업하였다. 전쟁이 나자 19세에 징병 대상이 되었다. 당시 21세가 되어야 입영통지서가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550명을 태운 5대의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을 태우고 논산훈련소에 입소시켰다. 그곳에서 2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서산군 출신은 사상이 온순하다고 하며 의무대에 소속시켰다. 마산의 군의학교에서 위생병 교육을 받았다. 종전 이후에는 기술 하사관 특과 교육도 받았다. 간단하게 처치하는 기술을 익힌 후 다양한 전투방식을 배우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을 그려 놓고 칼을 꽂아 죽이는 방법 등을 통해 전투병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서울 중앙청 수도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사촌 형이 당시 군대 행정과에서 근무했기에 부대 배치에 조금은 특혜를 보았다. 전방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후방인 울산으로 배치되어 조금은 안전하게 위생병 생활을 하였다.

땅 파고 짚 깔고 모포 덮은 곳이 내무반이었어

군대를 가니 특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땅을 파고 그 안에 짚을 깔고 가마니때기 깔고 지급된 모포 1장을 덮으면 그곳이 내무반이었다. 군인 모자는 당시 민간에서 인기리에 거래되었기에 군인들끼리도 모자를 빼앗았다. 비싸게 거래되었기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모자를 지키기 위해 똥을 싸러 가서도 모자를 한 손으로 잡고 볼일을 보았다. 지급된 군복은 무명천으로 만들었다. 2달 정도 입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옷이었다.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새벽 5시에 기상하고, 7시에 아침을 먹고, 교육장으로 나갔다. 교육장이라고 하지만 공터에 난간을 매어 놓았을 뿐이었다. 일렬로 앉아 종이도 연필도 없이 교육받았다. 그저 앉아서 들을 뿐이었다.

후방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했기에 비교적 편한 군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에 병

원에 실려 온 사병들은 먹지 못해 모두 이질이 걸려 있었고, 훈련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면 수시로 엉덩이로 피를 쏟았다. 전쟁 통에는 식량이 없어서가 굶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포탄이 날아 왔기에 음식을 운반할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전쟁 중에 계엄령 선포했던 시절 군인만 활동할 수 있었다

1952~1953년까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뿐이었다. 당시 직급이 일등중사였는데, 오늘날의 직급으로는 하사이다. 하사에게 소위로 진급시킬 테니 전방으로 가보겠냐고 물었다. 언듯 대답할 수 없어 부모님과 상의해 보고 싶었다. 서울로 가는 전령증을 받아 총 하나 매고 집으로 향하였다.

서산으로 가는 길에 온양을 지나는데, 천안부터 내려오는 군인들이 조명탄을 쏘면서 누구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포와 총을 쏘았다. 헌병이 지나가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홀로 군장을 하고 지나가는 본인도 붙잡혔다. 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증과 완장을 차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니 놓아 주었다. 서울로 가는 도중 잠시 서산에 들렀다.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험한 세상이라 대문을 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윽고 문을 열리고 부모와 눈물의 상봉을 하였다. 이튿날에는 동네 친구 50명이 친구를 만나러 왔다. 부모는 울고불고하며 전방에 가지 말라고 붙들었다.

징병 대상자가 아닌데 징병되었다

당시는 20세 넘어야 징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본인은 19세에 징병되었다. 이에 불편한 마음을 먹고 완전 무장을 한 채 면사무소로 찾아가 면장에게 따졌다. 겁을 먹은 면장이 징집자 중 권력자의 아들, 돈이 있는 가정의 아들은 모두 징병 대상에서 빠지니, 인원을 채우기 위해 나이가 어려도 징병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자초 지종을 알고는 분했지만 이미 군인이 되었기에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음암면의 인민군 궐기대회에서 총을 쏘다

군인 신분으로 군장을 한 채 가을 어느 날 음암면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인민군들이 궐기대회를 하는 인민군을 보았다. 인민군은 17~18세의 아이들로 본인보다 어렸다. 낮이

아닌 밤에 솔밭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인문교육을 하였다. 어린 인민군과 주민 중 좌익 활동을 하던 인민위원장이 함께였다. 인민위원장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었기에 주민들은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 갑자기 무장을 한 군인이 나타나자 그들은 놀랐고, 궐기대회를 계속하면 쏘겠다고 엄포를 주자 순식간에 흩어져 산으로 숨어 들어갔다. 마침 가을 수확하여 세워둔 콩단에 의지해 숨어있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콩단이었지만 그 아래에 웅크린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마을 주민이었다.

해방과 인천상륙작전 때 너무나 기뻐. 용대기에 태극기 달고 만세를 불렀다

해방 즈음에 마을 내에 라디오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었다.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을 용대기에 태극기를 그려 달았다. 태극기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광목에 물감으로 태극기를 그렸고, 장정이 드는 용대기 위에 달았다. 풍장을 울리며 마을을 돌다가 성연면에서 출발하여 대호지면까지 나가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해방을 그렇게 맞이하였다. 6.25 전쟁 때도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극기를 달고 만세를 불렀다. 이 두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순간으로 기억된다.

군인 신분으로 결혼하다

전쟁 중에 군대를 갔지만 제대는 전쟁이 끝난 이후로, 7년 만에 만기제대를 하였다. 당시에는 군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빈손으로 제대하였다. 종전 직전인 24세에 잠시 휴가를 나와 혼인을 하였다. 신부집에서 나이가 드니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하여 서둘렀던 것이다. 휴가일에 맞추어 혼인준비를 한 어머니가 혼인식에 쓸 술을 방안에 몰래 빚어두었다. 밀주는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원이 찾아와 방 안 가득한 술독을 보고 조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머니가 아들 혼례식에 사용할 술로, 만약 혼례식을 못하면 술을 똥통에 집어넣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들도 이해를 했는지 잠자코 돌아갔다. 휴가 나와 24세에 혼례식을 올리고 다시 군대로 돌아갔고, 어머니가 담아 둔 그 술은 하객들에게 대접하였다.

종전 이후 전쟁 포로를 교환하다

종전 이후 경남 진해에 있던 북한군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를 데리고 판문점에서 남한 포로와 교환하였다. 남한군과 북한군 포로 중 숫자에 따라 맞교환하였다. 북한군은 남한에서 지급 받은 물건은 모두 내려 놓고 팬티 한 장만 입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남한 물건은 다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며 뛰어갔다. 참으로 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의 병사 가족들은 판문점 앞에서 남한 병사들이 나오면 혹여라도 자신의 아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찾았다. 불편하고 마음 아픈 순간이었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서산시

6.25 전쟁의 상흔(傷痕)

이 관 엽 (1934년생)
서산시 고북면 홍주마을길

"어려워, 어려운 시기였어" 라고 되뇌며 말을 삼키다



조상 대대로 교육계에 종사해 왔다

이관엽은 호적으로는 1934년에 태어났기에 2024년 현재 91세이다. 증조부가 이곳으로 이주해 서당을 열었다. 할아버지도 서당의 훈장 일을 보셨고, 부친은 교사였다. 6·25전쟁이 나던 해에 해미국민학교 교장선생으로 재직 중이셨다. 전쟁이 나자 교장을 그만두었다. 당시 교사, 면장, 경찰 등은 인민군이 괴롭힌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자진해서 그만둔 것이다. 당시 이관엽 씨는 15살로 중학교 1학년 때이다. 누님 한 분이 있었고, 본인, 그 아래로 딸, 아들, 딸, 아들 순으로 8남매를 두셨다. 가족들이 나이가 어려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6.25 전쟁이 났을 때 누님은 시집 가셨기에 본인이 집안에서 가장 손위였다. 전쟁 이후 서산농림학교를 나와 서산시청에서 서산시를 위해 공무를 보시다 내무과장으로 퇴임하셨다.

전쟁이 났다. 휴교하다

전쟁이 나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하교하였다. 그로부터 종전이 될 때까지 학교는 못 가고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특히 가뭄이 들어 내를 파고 그 속에 고인 물을 퍼다가 논에 부었다.

좌익이 아이들을 모아 인민 교육을 하다

전쟁이 발발한 후 몇 달이 지난 후 따뜻한 여름철에 청년연맹 주도하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 인민 교육을 했다. 청년연맹은 좌익이 만든 단체로, 20세 이상의 좌익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마을을 단위로 교화를 담당하던 단체였다. 용암리 출신 청년연맹원이 인민 교육을 주도하였다. 당시 일부의 주민이 좌익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중학교 정도 교육을 받아 공산주의 이념을 습득할 수 있었던 이들과 인민군이 뿌린 삐라[전단]를 주워 인민공화국에서 선전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이념 동조를 했던 이들이었다. 청년연맹 단원이 선생이 되어 마을 단위로 인민 교육을 한 달 정도 시켰기에 아직 질릴 정도로 지속했다.

교육은 오전에 20세 미만의 남녀 아이들을 대상으로 1~2시간씩 실시하였다. 이장댁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모여 앉도록 하였다.

당시 이관엽 씨는 당시 15세로 해미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전쟁 중에는 휴교했기에 전쟁 동안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낮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인민 교육을 받았다. 이장 집 마당에 약 30명의 아이가 모여 교육을 받았다. 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과 노래를 가르쳤다. 노래의 내용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주로 군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아이들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공산주의 이념을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15세는 이념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다.

의용군에 자진 입대하다

15세는 의용군에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지만 일부 동갑 친구는 의용군에 자진 입대하였다. 전쟁이 터진 후 얼마 지나 인민군이 서산중학교 학생 전체를 서산 국민학교 교정에 모이도록 하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민공화국을 선전하였다. 이때 일부 아이들이 충성심이 발동하여 자진 입대하였다. 15세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지만 자진 입대자는 예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자진 입대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직 이념을 수용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로, 선전에 현혹되어 자진하였다.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인 셈이다.

수수와 조의 수를 세서 수확량을 가늠해 인민공화국을 선전하다

인민군은 주민에게 수수와 서숙의 알곡의 수를 세라고 하였다. 당시 서산에서 밭작물로 주로 재배하던 것은 보리와 콩, 수수와 서숙 등이었다. 수수는 밀식재배하고, 수수 사이에 서숙을 드문드문 심어 두었기에 2개의 작물을 한꺼번에 세도록 한 것이다. 수수나 서숙은 크기가 작아 세기도 어려웠다. 알곡의 수를 세어 주면, 평당 수숫대와 서숙대의 숫자를 센 후 알곡의 숫자와 곱해서 평당 산출량을 계산하였다. 산출된 양을 7:3으로 나누어 7은 공산당에게 내고, 3은 생산자가 갖도록 한다고 선전하였다. 7:3의 공식을 입력시켰다. 생산자로부터 받은 7은 공산당이 가난한 이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토지가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혹할 수 있는 선전이었다.

우익은 잘 살고, 교육받고, 좌익은 머리 좋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다

전쟁의 격변기에서 주민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었다.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산주의였다. 고북면에는 좌익이 많은 편이었다. 인민위원장을 하던 이도 있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자 서북청년단이 들어왔다

8월에 서북청년단원이 들이닥쳤다. 좌익이 연합해서 용암리 뒷산에서 만세를 불렀다. 당시 이관엽 씨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있었다. 부친이 교장을 역임하였고. 작은아버지는 면장을 역임했기에 좌익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좌익이 만세운동을 하자 뒤이어 우익인 서북청년단이 이들을 잡아가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다. 각 가정을 뒤지며 좌익에 동조한 사람을 색출하였다. 서북청년단은 황해도에서 피난 온 청년들을 모아 만든 청년단으로, 주로 좌익을 잡는 우익단체였다. 좌익은 양대리에서 학살하였다. 양대리에서.....

한 마을에 우익도 좌익도 있어

용암리에는 지주가 여럿 있었다. 이관엽 씨의 6촌 형님 2명이 우익으로 돌아가셨다. 한 분은 음암면 소탐산으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였다. 연태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 근무를 하던 분으로, 고학력자였기에 공격 대상이 되었다. 형님이 잡혀가자, 식구들은 모두 피난 갔다. 인민위원회에서 형님의 집을 빼앗아 그 집에서 머슴 살던 좌익에게 내어 주었다. 머슴 살던 분은 주인을 기억해 안채는 그대로 두고, 자신이 거주하던 사랑채에서 거주할 정도로 인심이 좋은 분이셨다. 당시 피난처는 처가나 외갓집, 이종 집 등 친분이나 인척이 있는 집으로 택했다.

우익 결사대를 조직할 것 같으니, 좌익이 잡아서 대전으로 보냈다. 결국 대전형무소에 감금되어 계시다가 대전에서 좌익이 철수하면서 잡아둔 사람들을 우물 속에 생매장했다. 대전시에서 제사는 지내주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

'어려워 어려운 시기였어'라고 말문을 잇지 못해

죽고 죽이는 이념적 갈등으로 지역민들의 희생이 많았다. 누가 세력을 얻었는가에 따라 이념에 따라 행동했던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학살되었다. 이를 특별히 표현하기 어려우니 그저 "어려워 어려운 시대였어"라고 하며 말문을 닫았다. 공산당 만세 부르던 좌익도 있었고, 그 좌익을 색출해 죽인 서북청년단도 있었고, 우익을 선전하던 대한청년단도 있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념을 신봉했을 뿐인데 무참히 양대리, 소탐산 등지에서 죽임을 당했다. 동네 사람들끼리.....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해안 가의 사계리에 어른들은 벙커를 만들었다

바다로 연합군이 상륙할 수 있다고 여겨 인민위원회가 주도하여 주민들을 동원해서 벙커를 팠다. 용암리로부터 사계리까지 걸어가서 부역에 참여하였다. 당시 어려운 시기였기에 고구마를 많이 심었기에 고구마를 먹어가며 일을 했다고 하였다. 사계리 앞쪽 해안가에 뱀처럼 연결된 굴을 팠는데,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도록 높게 팠다. 당시 이관엽 씨는 나이가 어려서 직접 벙커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종전 이후에 우연히 보았다고 한다.

평온하지만 항상 대비해야 했던 상황

좌익이 들어와 협조를 구하자 아버지는 교장을 퇴임하고 집안에서 생활하였다. 전쟁 중에 특별하게 해를 입지 않고 수색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을 두고 "전쟁 중에는 평온하지만, 항상 대비해야 했어!"라고 표현한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건드리지 않아 본인은 무탈했지만, 부친이 늘 위험했다. 헛간 옆의 공지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줄곧 생활하였다.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굴을 파고 앞쪽에 문을 달아 두었다. 가시덤불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고 눈에도 뜨이지 않는 곳이었다. 좌익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굴안에서 생활하고, 우익이 활동하면 집안에서 생활하였다.

서산은 오지라 전투가 없었고, 용암리는 구루마가 다니는 길도 없어 외부의 시달림도 덜했다

6.25 당시 내륙 교통로를 따라 전쟁이 발발했기에 내륙 교통로에서 멀리 떨어진 서산시

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인근 당진과 홍성지역에는 참혹한 전투가 있었지만, 서산에서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었다. 교통의 오지였기에 오히려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고북면 용암리도 오지 중 오지였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지금은 넓지만 6.25 전쟁 당시에는 지게를 지고 들어오는 '지겟길'만이 있었다. 구루마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없어 외부에서 이 마을을 일부러 찾지 않아 피난지로 여겨졌다.

외지에서 서산으로 피난 오다

홍성, 아산, 서울 등지의 친척들이 피난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 서산으로 피난을 왔다. 이들은 안전해질 때까지 서산에 머물며 피난살이를 했다. 피난 온 사람들은 양대리에서 배급 주는 것을 받아먹으며 생활하였다. 용암리 주민들도 쌀은 구경 못하고 보리밥과 고구마로 연명하였다. 고구마가 제일 보탬이 된 작물이다. 고구마는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간식이다. 고구마는 양은 많이 생산되나 보관이 어렵다. 방안에 옥수숫대를 엮어서 칸막이를 만들고 그 안에 고구마를 보관했다.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서산시

6.25 전쟁의 상흔(傷痕)

이 기 창 (1933년생)
서산시 성연면 사현동로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위생병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호적이 2살이나 일찍 올라가 있어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

이기창 씨는 1933년 생으로, 2024년 현재 90세이다. 그러나 호적에 2살이 빠르게 등재되어 있었다. 당시 마을에는 이장과 반장일을 보던 '총대'가 있었다. 총대는 마을 일을 보았기에 호적을 올리는 일을 부친이 맡겼다고 한다. 총대가 면에서 호적을 올렸는데 2살이나 더 올려서 등재하였다. 호적에는 1933년생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35년생이다. 총대에게는 1년에 2번 '모조'를 주었다. 보리 때와 쌀 때에 한 말씩 수고료로 준 것이다. 형제는 6남매 중 아들이 4명, 딸이 2명이었고, 그중 이기창 씨는 장남이었다.

사촌 형에게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피신하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가 17세였다. 당시 다락논에서 종그랭이[종지]에 물을 떠다가 논에 부어가며 손모를 심고 있었다. 사촌 형이 전쟁이 났고 서울까지 거의 내려왔다고 전해주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민들은 살고자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각자 안전하다고 여겨 산 위에 머물다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곧 내려왔다. 그러나 결국 의용군에 끌려갔는데, 중간에 키가 작다고 내려놓아 되돌아올 수 있었다.

양민 학살지 매지골이 있는 일람리

전쟁이 발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당이 내려왔다. 일람 1리에는 좌익은 없었다. 일람 2리에는 인민위원장을 맡은 이가 있어 그를 추종하던 이가 많았다. 일람리 뒤편의 메지골은 좌익으로 몰린 양민 학살지이다. 메지골은 골짜기가 험한 곳 중 한 곳이다.

6.25 전쟁기는 이곳에서는 보수와 좌파로 나뉘어서 갈등하던 시절로 기억한다. 그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표현되면 소나무 말뚝을 깎아다가 말뚝을 박아 놓고 내 땅이라고 하던 시절이었다. 이념은 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나무 장사와 소작을 지며 생활했다

이기창 씨는 남의 논 7마지기를 빌려 소작을 지었다. 소작료는 5:5로 고율이었다. 따라서 수확 후에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가을부터는 겨울까지 나무를 베러 다녔다. 일람리는 시장이 가까웠기에 시장에 나무를 공급하는 일도 맡았다. 인근에는 나무가 없었기에 30리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베어 한 지게씩 가져다가 서부시장에 공급하였다. 나무 한 짐을 주면 보리 1되 정도를 받았다. 나무 한 짐은 하루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틀이 걸리기도 했다.

봄철에는 당진 합덕까지 모를 심으러 다녔다. 살기가 어려웠기에 일람리 주민들은 첫 새벽에 출발해 당진의 넓은 들판에 모심으러 다녔다. 따라서 성연면 주민들은 당진 지역민들과 친분이 두텁다. 모심기는 약 한 달 정도를 지속했다.

학살에서 살아온 분이 있었다

일람리 뒤편에 메지골이 있다. 좌익의 학살지였다. 그곳에서 살아 돌아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학살 대상자였지만 살아 돌아온 분이 있었다. 일람리에 거주하던 분으로, 경비대에 지원했었다. 경비대가 서울에서 후퇴하여 지방으로 가다가 잠시 고향에 들렀다. 경비대는 오늘날의 경찰로 대표적인 우익으로 분류되었다. 그를 좌익이 잡아서 죽였던 모양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서 마을로 들어왔다. 당시 이기창 씨의 집은 마을 뒤편 산 쪽에 있어 그 집에 먼저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등거리 잠방을 입었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를 질질 흘리며 물을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와 아들만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인지 그는 물 한 잔을 받아먹고 다시 가던 길로 떠났다. 길을 가다 불이 켜진 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집이 마침 좌익의 집이었다. 이에 그분은 그곳에서 다시 잡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서산에는 여러 곳에서 양민 학살이 우익 혹은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되었다. 이기창 씨는 대표적인 학살지로 여러 곳을 꼽았다. 그중 소탐산을 제일 먼저 꼽았다. 음암면에 있는 소탐산은 자본가들을 데려다가 죽인 곳이며, 그곳에서 죽은 분들은 모두 그저 선한 양민이었다고 한다. 양대리 역시 우익의 학살지라고 기억한다. 다른 분들의 기억과 다소 차이가 있다. 양대리에서 학살당한 이들은 좌익의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한다. 매지골은 대표적인 좌익 학살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21세가 징집 대상이었지만 나는 19세에 군대를 갔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은 21세부터 징집하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9세에 징집되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부산 동래로 내려가 백선엽 장군을 만나기도 했다. 그 후 신

마산의 군의학교를 옮겼다. 그곳에서 위생병 교육을 받았다. 일반 위생병 교육은 4주 동안 이루어졌다. 그 기간에 위생병은 환자 보살피는 방법, 후송시키는 방법, 약 투약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휴전 이후에는 특과 교육을 받았는데, 12주 교육과정이었다. 특과 교육은 수술하는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특과를 다녀오면 반의사는 되었다고 한다.

학교 옆에는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그곳 담벼락에 태극기와 인민기가 붙어 있었다. 수용소에도 우익과 좌익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군의학교 졸업 후 대구 영천 포로수용소로 발령이 났다. 거기서 38연대로 소속이었는데, 이곳에도 태극기와 인민기가 모두 보였다. 어디를 가나 좌파와 우파의 갈등을 체험할 수 있던 때이다.

최전선 동부전선 불 속에서 활동하던 위생병

거제도에 잠시 있다가 가장 험한 전투가 있었던 동부전선으로 배치되었다. 총알과 포탄이 범람하던 전방이었다. 속초에 도착하니 당시에는 미시령은 길도 닦이지 않은 산지였고, 속초 시내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남자들은 모두 인민군으로 끌어갔기에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속초를 지나 김일성 별장과 강화도를 지나 5사단과 합류했다. 그곳에서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한 후 인민군과 16개국 연합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평양부터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죽음을 무릅쓴 싸움이 이어졌다. 이기창 씨는 최전방에서 인민군이 쏘는 박격포, 직사포, 비행기 폭격 등을 피하며 위생병으로 활동했다.

위생병이라 하면 의료행위를 하는 군인이지만 의무교육 4주를 받고 배치되었고, 전방에서는 후방의 병원과 같이 치료제도 없고 포탄이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상처에 붕대를 감고, 경증 환자를 이송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었다.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걷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보호할 어떠한 방법도 도구도 없었다. 걸어서 이동할 만한 군인만을 대상으로만 의료 활동을 벌였다. 위생병도 총을 메고 싸우던 그런 시절이었다.

종전 후에는 군의학교 특과를 갔다가 제대했다. 징병 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살아 돌아오기까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고향이 무척이나 그리웠다.

충청도 군인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만 있을 뿐 특별히 표현하지는 않았다. 전라도 출신 군인들은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최희준이 부른 “병사의 향수”에 그때 그 시

절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담겨 있다. “내 고향 처녀들은 나를 불러주는데, 하루에 열두 번씩 가고 싶은 내 고향, 가다가 못 가면 쉬어나 가세. 갈 때는 모범공단 치마 한 감이나 사 가지고 가서 주마”

최전방의 전투에는 살아남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았다

최전방의 전투는 한번 전투를 하면 병사가 거의 다 죽었다. 일병을 달았던 군인이 소대장이 되어 참전할 정도로 희생자가 많았다. 전방에 살아 있는 병사가 없었기에 일병이 빠르게 진급할 수 있었다. 진급이 이처럼 불행으로 여겨지다니….

<인터뷰어 김효경, 스토리텔러 김효경>

논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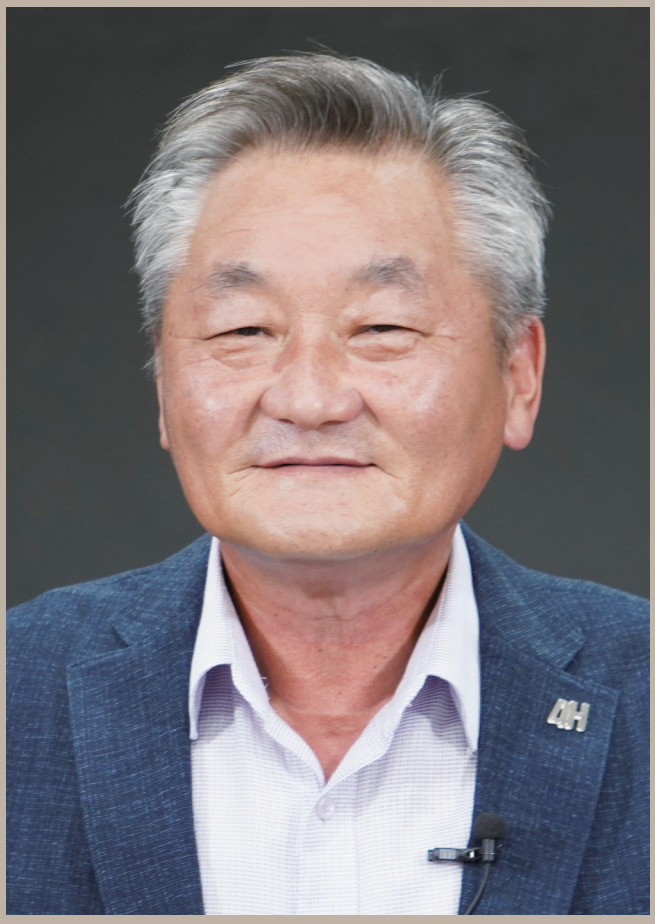
| 4H와 새마을운동

4-H, 시대 정신을 담다	446
농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4-H	452
삶의 뿌리, 농촌을 위하여	456
시대 정신이었던 4-H	461
놀뫼새마을금고의 산 역사	466
4-H 후원으로 풍요로워진 삶	471
농업 실천 운동 4-H	475
살며 사랑하며 베풀며	480
새마을지도자를 하던 참 좋은 시절	484
봉사활동으로 이어진 새마을운동	489

4H와 새마을운동

오 세 복 (1969년생)
논산시 체육로

4-H, 시대정신을 담다



4-H의 배경과 역사

4-H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몸(Health) 등 네 가지 이념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덕노체(智德勞體)라고 한다. 찰스 앤더슨 중령이 1947년 경기도 화성군 군정관으로 있던 시절에 4-H사업을 경기도에 국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에 1952년 4-H구락부 운동 시책이 전국적으로 채택되었다. 처음에 4-H사업은 지덕노체의 네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었다.

4-H는 한미재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미재단은 1952년 아이젠하워의 권유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등이 설립을 주도해 미국 백악관에서 발족한 단체이다. 한미재단이 특히 주력한 사업이 농촌개발사업이다. 재단은 낙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1954년 찰스 앤더슨 중령을 고문직에 앉히면서 4-H사업 활성화로 농촌의 개선과 발전에 집중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다. 한미재단은 세계대공황 이후 미국에서도 행했던 4-H사업을 한국으로 가져와 시행했다.

4-H와의 첫걸음

논산에서 처음 4-H가 시작된 마을은 1953년 은진면 방축리, 상월면 산성리, 취암동 취암리였다. 그 이후로 논산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다. 오세복 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이미 시골에서 마을 단위의 4-H가 자리 잡고 있었다.

노성면 송당리에서 태어난 오 씨는 1970~80년대 새마을운동과 4-H가 연관되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오 씨는 동네 선배들과 마을 안길을 청소하고 꽃을 심는 등 함께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열심히 따라다녔다.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에 여자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다.

오 씨는 1990년대 초에 광석면으로 이사하면서 4-H 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마을 4-H보다는 영농 4-H와 학교 4-H로 조직되어 있었다. 일시적이지만, 동네에서 야학을 운영했을 때 참여하기도 했다. 마을 조직은 조금씩 쇠퇴하였으나 학교나 다른 기관을 통한 4-H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H가 끼친 영향

면마다 4-H연합회가 있고 마을별로도 4-H가 있었다. 네잎클로버 모양에 지덕노체가 쓰인 비가 마을마다 세워졌다. 그 당시에 농촌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농사를 지었고 간단한 경공업이나 가내수공업도 거의 없을 때였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원조에 의존했고 농업 기술도 당시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4-H는 닭 키우기부터 쉬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글을 모르고 무학인 분들도 많아 기초적인 한글과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원래는 단순히 청소년운동이었는데 확대되어 농촌계몽활동이 되었다. 또한 단체를 만들고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익혔다. 많은 사람이 농촌 지도자로 성장하고 타지에 나가서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4-H는 농촌계몽운동, 농업 기술 보급운동, 또 지도자 육성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0여 년 후에 태동한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4-H 출신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4-H의 주요 3대 행사

4-H운동에서는 5월에 청소년 행사, 7~8월에 야영대회, 11월에 경진대회 등 크게 3대 행사를 진행했다. 5월에 열리는 청소년 행사는 학교별 경쟁으로 공연과 사례발표, 웅변대회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여름에 하는 야영대회가 짧게는 1박 2일에서부터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열렸다. 영농 4-H와 학생 4-H가 모이면 몇백 명이 되었다. 논산에서 하면 방학이기 때문에 벌곡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였다. 음식도 해 먹고, 강사에게서 교육도 받고, 레크리에이션이 어우러진 흥겨운 자리였다. 지역 인사와 기관장들이 방문하여 대회에 무게감을 실어주기도 했다. 외부에서 할 때는 바닷가로 갔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도 재미있었다.

11월에 면에서 4-H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노래, 연극, 춤 연습으로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학교 4-H는 주로 오락 쪽이고 영농 4-H는 추수한 농산물로 품평회를 열었다. 또한 농사지은 것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그동안

기록한 것을 모으기도 했다.

4-H 행사는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군 대회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잘하면 도 대회, 마지막에는 중앙 대회까지 가기도 했다. 당시에는 군에서 1등하여 군수상만 받아도 동네에서 공부 1등한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4-H의 역할 변천

1980년대에 4-H는 새마을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가맹단체가 되었다. 80년대에는 10~24세까지 청년들 모두가 새마을 청소년회에 가입하였다. 그 위의 연령대 성인은 새마을지도자로 마을 발전을 중추적으로 이끌었다.

오세복 씨는 90년대 중반부터 면의 임원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때부터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취업하고 학교에 나가던 시기여서 농촌이 점점 축소되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와 신품종 벼, 참깨, 콩 등 여러 가지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품종과 기술이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당시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지도하려고 해도 기성세대는 따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4-H 소속의 젊은 친구들은 주도적으로 받아들였다. 작은 실례로 손으로 모를 심었을 때 벼가 튼튼하고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앙기로 심은 벼는 풀을 심은 것 같다며 어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수확할 때가 오면 결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과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농사 기술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전 세계 150~60개 나라에서 4-H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4-H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논산에 기민중학교, 건양고등학교, 논산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쌘뽈여자고등학교 등 학교 4-H에 약 250명의 학생들이 있고, 청년 농업인들 100여 명이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심은 배추로 김장을 해서 이웃에 나누기도 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논산 4-H의 초석을 회고하다

고 국당 김오중 씨는 자신을 4-H 광신자라고 칭했다. 논산기술센터 입구에 김오중 선생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공공기관에 개인의 공덕비는 이채롭기까지 하다. 김 씨는 서울에서 교직에 있다가 고향인 은진면에 내려오면서 농촌계몽운동에 몸담았다.

초창기에 뜻있는 분들 20명을 모아 4-H후원회를 조직하고 1965년부터 1990년까지 4-H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마을 4-H를 조직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4-H 이념을 전파했다. 김 씨는 태평양화학과 남해화학과 자매결연해서 행사 때 후원을 받고 지역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농촌 청년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4-H 후원에 쓰기도 했다.

80년도 중반에 대만의 대계진농회(우리나라의 농협과 보건소, 어린이집의 기능을 합친 곳)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격년제로 서로 오가고 있다. 오세복 씨는 94년도에 처음 대만을 방문해서 그 당시 우리보다 앞서 있던 대만의 발달된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김오중 씨의 가장 큰 선견지명은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는 회원들이 마을 작은 행사든 도나 중앙 단위의 큰 행사든 거기에서 받은 기념품과 자료를 받아 수집하였다. 유니폼에서부터 작은 수건까지 그가 수집한 4-H 관련 물품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4-H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4-H 관련된 자료가 무수하게 많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경무대를 방문한 원본 사진은 국가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

4-H본부 활동

오세복 씨는 20대 후반에 그린4-H라는 특수 단체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논산의 애육원과 연산의 계룡학사라는 보육시설을 돕는다. 회원들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아이들이 공연하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선물을 전달했다. 지금도 41명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비는 회비와 관에서 받은 지원과 4-H본부(당시 4-H후원회)의 후원으로 충당했다.

4-H본부는 4-H 선배들이 만든 단체로 오 씨는 현재 80여 명 되는 본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H본부는 지금도 야영대회에 필요한 수건, 티셔츠 등을 후원하고 있다. 전 놀뫼새마을금고 김인규 이사장도 회장을 하셨고 해마다 400만 원씩 지원하였고 현 조인성

이사장도 지원하고 있다.

오세복 씨는 그런 4-H의 활동이 가장 보람이 있고 후배 청년 농민들이 활동을 보면 뿌듯하다고 한다. 지덕노체의 이념을 삶에 꾸준히 실천해 온 그의 삶에서 여전히 젊은 청년이 보였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박용신>

논산시

4H와 새마을운동

박 승 덕 (1953년생)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농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4-H



인연의 시작

박승덕 씨가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2리 육한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전라북도 운주에 살던 아버지가 결혼을 계기로 삼전리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은 11살에 왕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공부를 마친 박승덕 씨에게 1975년 2월 동네 4-H 회장이 찾아오면서 4-H와 박승덕 씨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육한리는 매찰, 만목, 정골, 까치울과 함께 삼전2리에 속해 있었으나 위치가 삼전1리와 가까이 있어 박승덕 씨는 삼전1리와의 교류가 더 많던 시기였다.

삼전2리의 4-H는 당시 회원이 8명 정도로 남성만 가입해 있었고 마을 안길의 풀 뽑기, 꽃 심고 가꾸기, 마을 환경 정화 같은 일을 맡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4-H 활동

차기 회장으로 박승덕 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삼전2리 4-H 회장은 가입 다음 달인 3월부터 박승덕 씨를 가야곡면 연합회 회의에 참석시켰다. 연합회 회의장에는 3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가야곡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유태선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박승덕 씨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4-H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삼전2리의 회장과 가야곡면 연합회 회장을 동시에 맡게 된 것이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다.

가야곡면에서는 양촌리, 야촌리 그리고 산노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합회 회의에서는 각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4-H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할 과제를 마을마다 배정했다. 과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정해 주었기에 읍 · 면 별로 특색은 없었으나 회의에 참석한 젊은 층이 상당히 의욕적인 태도를 보여줬었다.

박승덕 씨는 4-H의 리더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방범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 윗동네 한 집에서 도둑을 맞는 일이 발생하면서 밤에 마을 입구에 초소를 세우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경비를 섰다. 초소에서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오고 가는 차의 번호를 기록했다. 차가 드물던 때라 어렵지는 않았다.

4-H는 매년 1년 동안 수행한 과제를 발표하고 점수를 부여해 평가하는 경진대회를 했다.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잘살아보겠다고 젊은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사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았다. 1978년 가야곡면 경진대회에서 농사, 축산, 사료작물 등을 평가하

는 종합분야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니 마을에서 풍물을 연주하며 함께 축하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박승덕 씨는 당시 수행했던 과제 중에서는 콩 순집기를 처음으로 도입해 재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콩 재배가 잊히지 않는다. 회원도 8명에서 20여 명으로 늘었다.

박승덕 씨는 삼전2리 마을 일도 열심히 했지만, 연합회 회장의 역할도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했다. 우선 15개 마을을 월례회 때마다 방문했다. 유태선 전임 회장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15개 마을 월례회의 일정에 맞춰 찾아갈 때 직접 자전거를 태워 데려다주었다. 그러면 박승덕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과제 이수 방법, 회의 방법 등을 지도했다.

논산시 4-H 연합회도 유성에 있는 진흥청에서 가을마다 열리는 경진대회에 나가면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냈다. 4-H는 국가 지원 없이 공동작업으로 생기는 수익을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경진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4-H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농법을 마을에 소개하면서 농촌이 점차 발전해 가는 모습에 박승덕 씨는 보람을 느꼈다.

삼전2리에서 살던 박승덕 씨는 삼전1리로 이사하고서도 4-H 활동을 지속했다. 남성 회원만 활동하던 삼전2리와 달리 삼전1리는 여자 회원도 다수 있었다. 이런 인적 구성을 활용해 경진대회 오락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런 결과의 밑바탕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일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동시에 삼전1리 주민들에게도 콩 재배 시 순을 집어 주면 수확량이 늘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수확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한 동네 사람들은 박승덕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부녀회에서 하는 새마을금고 운동을 맡겼다. 이를 계기로 4-H와의 인연이 새마을금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4-H에서 새마을금고까지

1978년 삼전1리에서 새마을금고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금고에서는 구판장 운영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100원씩 걷어 시작한 마을금고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박승덕 씨는 1980년 12월 24일 마을금고 운영을 맡아달라

는 공식적인 부탁을 받고 서울이나 대전 등 교육하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회계를 배웠다.

1986년 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커졌다. 삼전1리에 국한된 사업을 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야곡면으로 사업 장소를 넓혔다. 주민들을 설득해 출자금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다시 1,000원으로 키워 가야곡 새마을금고로 키웠다. 처음엔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1988년 건물을 짓고부터 월 10만 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가야곡 새마을금고도 착실히 성장시켜 자본금이 70억으로 늘어났다. 박승덕 씨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도와주겠다는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댓가였다.

박승덕 씨에게 4-H가 가지는 의미

성장을 거듭하는 새마을금고와 달리 4-H는 그 빛을 잃어갔다. 농민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초창기 4-H 운동이 추구했던 농촌 근대화, 농촌 잘 살기 운동과 같은 이념이 보편화되고 추진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던 새마을운동이 완성되어 가면서 4-H의 존재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지금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때 농촌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쇠락을 지켜보는 상황이 마음 아프지만 박승덕 씨는 4-H의 '하면 된다'라는 정신을 받아들였기에 인생을 보람차게 살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홍미경>

논산시

4H와 새마을운동

조 효 상 (1958년생)
논산시 관촉로

삶의 뿌리, 농촌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4대 논산시 4-H본부 회장을 맡았던 조효상 씨는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다'라는 표현으로 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열악했던 농촌 상황을 말하면서 4-H운동과 새마을운동 덕분에 농촌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선친의 소개로 알게 된 논산시 4-H 선구자인 고 김오중 씨를 만나면서 그는 4-H와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열악했던 농촌과 발전의 원동력

조효상 씨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농촌의 현실은 무척 열악했다. 부엌 가까이에 잿간뿐만 아니라 돼지막이 있었다. 부엌에서 씻은 쌀뜨물을 돼지에게 부어주었고 도정하고 나온 쌀겨를 주기도 했다. 화장실 앞문이 가마니였고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집도 있었다.

쌀이 귀하던 시절이라 벼를 벤 후에 볏단을 묶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대회가 마을 단위로 열렸다. 논두렁에 줄가리를 쳐 놓으면 쥐들이 잘라다가 쥐구멍에다 쌓아놓았다.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서 막대를 갖고 다니면서 긁어서 볏모가지를 모아서 대회에 내보냈다.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으니 쥐가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 몇 개씩 학교에 가져갔다. 살충제가 없어서 송충이를 잡기 위해 학교에서 나눠준 젓가락과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산에 가서 송충이 잡기도 했다. 겨울이면 솔방울을 주워서 학교에 가져가 조개탄 밑불로 사용했다.

조 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1973년이 돼서야 정부의 시책으로 심은 통일벼 덕분에 농촌이 쌀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 조 씨는 농촌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농촌의 보릿고개를 면하게 한 통일벼 생산, 둘째는 4-H운동과 정부의 시책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를 통한 특수작물의 재배이다. 그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고군분투한 결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4-H운동의 참여와 농업인의 꿈

관촉리에서는 조효상 씨가 4-H운동에 참여하기 전부터 선배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관

촉리의 대바우라는 바위에 소, 돼지, 닭 등을 그리고 관촉리 4-H 구락부라고 새겨서 표지석으로 삼았다. 지금은 자연 훼손이라고 여겨 없어졌지만, 전국 4-H 대회에서 1등한 간판 전시였다고 한다.

조 씨는 축산에 관심이 있어서 논산농고로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관촉리 4-H운동을 시작했다. 조 씨가 관촉리 4-H에 들어갔을 때 회원이 25명 정도 있었다. 그는 4-H운동을 하면서 축산도 하고 목장도 하고 싶었지만, 관촉동이 관광지다 보니 지리적인 여건상 축산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부친은 조 씨가 농고에 들어가자 농토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도록 했다. 논산기술센터를 다니면서 농사 기술을 습득하여, 딸기 농사와 겸해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81년도에 처음 딸기를 재배할 때 대나무비닐하우스였는데 그 뒤로 철제비닐하우스를 거쳐 대형 비닐하우스로 바꾸었다.

조 씨는 군대에 다녀온 후 84년도에 관촉리와 은진면 4-H 회장을 겸임했다. 딸기 농사를 짓느라 바빠서 논산시 4-H 회장은 하지 않았다. 4-H 회원들은 마을 꽃길을 조성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각자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 기록장을 써서 과제를 이수했다.

조 씨는 논산시 4-H에서 활동하면서 합판 과제를 많이 했다. 논산시 대표로 1년 동안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을 합판으로 만들어 도 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 조 씨는 농촌기술센터 읍면지소에서 시행하는 겨울 영농 교육에 가서 딸기와 관련해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인근 공주, 부여에 다니면서 딸기에 관해 설명하였다.

인생의 스승을 만나다

부친께서는 관촉사 근처에서 일심상회라는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며 관촉사 경내에서 사진업을 하셨다. 그때까지 집안에 농토는 없었다. 조효상 씨가 농고에 들어가자 부친께서는 1학년 때 여섯 마지기 1200평, 2학년 때는 닷 마지기 1000평, 졸업할 때까지 총 4천 평을 사주셨다. 땅은 부친의 명의지만, 농사는 조 씨가 맡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4천 평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조 씨는 벼농사도 짓고 자운영도 재배했다고 한다.

그 당시 논산에서 4-H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던 분이 김오중 씨였다. 김 씨가 은진면에 살 때 부친께서 조 씨를 김 씨의 자택으로 데려갔다. 부친은 김 씨에게 아들에게 4-H운

동에 대해 알려 주고 맡아달라며 부탁하셨다. 그 뒤로 친구들과 김 씨의 집에 자주 갔다. 김 씨는 그들에게 농사짓는 복숭아를 따다가 주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불러서 짜장면이라도 사 주시는 등 4-H 회원들의 아버지였다고 한다.

김오중 씨 역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농촌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4-H운동에 엄청난 애정을 쏟았다. 김 씨는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교직에 있다가 잡지사의 기자로 근무했지만, 농촌 운동을 위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왔다.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팔아서 은진면에서 과수원(현 쌘뽈양로원)을 하셨다.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4-H 활동에 사용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만은 없애지 않았다.

지덕노체의 광신자 국당 김오중

김오중 씨가 농촌에 내려왔을 때 봉사단체는 그 당시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의 4-H 단체뿐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 씨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4-H후원회(현 4-H본부) 회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4-H운동을 펼쳤다. 김 씨와 함께 은진면 와야리 김기태 씨, 연산면 임리 임혁준 씨, 은진면 방축리 고 김재곤 씨, 은진면 시묘리의 장영웅 씨 등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4-H운동에 참여했다.

김오중 씨는 협소한 농촌지도소의 이전을 위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김 씨가 솔선수범하여 성금을 내고 모금 운동을 해서 기술센터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오중 씨는 본인이 거동을 못하는 그날까지 4-H 경진대회에 1년에 한 번씩 자비로 대상에게 부상으로 염소 한 마리를 주었다. 김 씨는 4-H운동을 열심히 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조용히 불러서 등록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가끔 운동화도 사 주기도 했다. 조효상 씨는 김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발소와 목욕탕에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화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김오중 씨는 1986년에 대만의 대계진농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 양국의 회원들이 격년으로 오가면서 서로 배우고 있다. 조효상 씨는 우수회원을 발탁되어서 86년에 대만에 다녀왔다.

조효상 씨는 김 씨가 농촌을 위해서 4-H 회원들이 잘살도록 표 나지 않게 많은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정문에 공적비

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내에 개인의 공적비가 세워진 곳은 거의 없지만 조 씨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김오중 씨가 결격 사유가 없어서 건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 씨가 추진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부담하고 4-H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기관의 도움 없이 공적비를 세웠다.

대를 잇는 4-H 활동

조효상 씨의 생활신조는 4-H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항상 마음속에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이라고 여기며 농촌이 튼튼해야 도시에 꽃이 활짝 핀다고 생각했다.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갈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농촌의 삶을 선택했다.

조 씨는 유학을 다녀와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있는 아들에게 2년 전에 농촌으로 내려오라고 권유했다. 아들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1년 동안 실습으로 농사를 지었다. 현재는 청년 창업농업인이 되어 조 씨와 4-H 활동을 하면서 벼 육모, 블루베리 재배, 벼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 아들은 농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조 씨는 본인 땅 천 평이 있으면 도시의 직장생활보다 나으며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열심히 하면 1년에 1억 정도의 소득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과 동료 농업인들에게 4-H 활동을 하면서 농촌기술센터와 더 자주 왕래하며 교육을 받는다면 소득을 창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조효상 씨의 선친은 관촉리 새마을금고를 20여 년 동안 운영하여 낮은 이자로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조 씨는 부친과 김오중 씨처럼 인생의 스승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조 씨의 자녀 또한 부친의 모범을 따르고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동이었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박용신>

권 평 식 (1960년생)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시대 정신이었던 4-H



나를 구해준 4-H

권평식 씨의 고향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세 명밖에 없는 빈촌이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된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족까지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져야 했다. 공부를 더 이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세상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그를 구해준 것은 4-H였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형들을 따라 4H에 다녔다.

권평식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가야곡면 중산리이다. 1983년 중산리는 양촌면으로 편입되어 지금은 양촌면 중산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4-H회원 가입 연령이 10세에서 20세였다. 후에 13세에서 24세로 변경하였다.

1970년대는 4H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당시는 농촌이 너무 낙후되어 농촌의 환경개선, 주곡의 자급 기반 확립 등이 4H의 주요 과제였다. 4H는 지성(head)·덕성(heart)·근로(hand)·건강(health)의 뜻을 지닌 영어의 네 단어의 머리글자를 나타낸다. 후에 4-H는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으로 바뀌기도 했다.

1981년에 4-H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청소년회로 바뀌었다. 1988년 다시 4-H란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권평식 씨가 4-H활동을 하던 당시, 논산시(당시에는 논산군)는 4-H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충청남도 4-H 경진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다. 기억나는 것은 부상으로 염소를 받았던 일이다. 4-H의 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20세 이하 학생 4H와 20세 이상의 성인 4H로 나누기도 했다. 권평식 씨는 박승덕 선배 뒤로 가입해 활동하다가 이순섭 회장이 군대에 입대한 뒤 자연스럽게 마을 4-H 회장이 되었다. 1958년생인데 호적이 1960년생으로 되어있어 군대 입대가 늦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4-H 연찬회가 아주 많았다. 특히 도 단위 4-H 경진대회가 매년 열렸는데 논산시는 당시에 매년 수상할 만큼 4-H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김오중씨의 노력이 컸다. 김오중씨는 초대 논산시 4-H 회장을 하면서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애정 어린 노력을 하였다. 그분은 아랫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하셨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정신적 지주로 참으로 좋은 스승이셨다.

4-H로 세상 변화에 눈 뜨다

권평식 씨는 4-H 덕분에 많은 연찬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에게 신기술을 지원받아 지역특화 과제로 콩, 고추, 참깨 등 작물 재배에 대한 신기술과 영농법을 익힐 수 있었다.

당시에는 고추를 재배할 때 씨를 뿌려 재배했다. 매년 씨를 받아 심다 보니, 재래종이라 고추가 작고 수확이 적어서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4-H를 통해 새로운 영농법을 배운 권평식 씨는 품질 좋은 고추씨를 사다가 육묘해서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추씨를 받아서 쓰면 되지 비싼 돈을 들여서 사다 쓴다면서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몇 년 지나자 마을 사람 모두가 고추씨를 사다가 육묘해서 고추 농사를 지었다.

고추를 심을 때 말가리만 하다가 권평식 씨가 노가리로 바꾸자 마을 사람들도 노가리로 바꿨다. 고추밭에 말뚝을 박아 키웠는데 처음에는 아까시나무를 쪄다가 했다. 당시에는 아까시나무가 흔했다. 하지만 아까시나무는 나뭇진이 나와 병충해가 심했다. 나중에는 대나무를 쪄다가 말뚝을 사용해서 고추를 키웠다. 지금은 모두 고춧대를 세워 키우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신기술이었다.

다 4-H 덕분이었다. 많은 연찬을 통해 새로운 농법과 기술을 익힐 수 있고, 경진대회준비를 통해 직접 새로운 영농법도 익힐 수 있었다. 마을에는 이제 고추 육묘가 정착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

4-H가 권평식 씨의 능력을 키워준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마을 대표로 자주 교육을 다니다 보니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회의 진행법을 배웠고 마을 회의에서도 회의를 주재하는 실무를 통해 회의 진행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회의 진행법은 그가 사회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 매끄러운 회의 진행으로 의견을 통합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지도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4-H를 통해 배은 회의 진행 방법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논산시 4-H가 농업 선진국인 대만과 교류를 시작해 대만을 방문하여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마을에서는 딸기를 심지 않았는데 권평식 씨는 채운 딸기를 가져다 심었다. 딸기는 소득이 높은 작물이었다. 콩이나 고추에 비교가 되질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딸기

심기를 권했다. 처음에는 채운에서 딸기 묘를 가져다가 노지 농사하다가, 후에는 대나무로 하우스를 만들어 재배하였다. 5월에 날이 더워지면 딸기는 물러 값이 없었다. 하우스로 재배하여 일찍 출하하니 돈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초창기에는 딸기 500평을 심으면, 그 소득으로 땅을 500평 살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정말 좋았다. 딸기 농사를 많이 할 때는 23동(약 6,000평)을 짓기도 하였다. 당시에 그의 아내는 직접 인부들 새참과 점심을 해서 먹이느라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만큼 소득을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예전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다. 그 당시에는 사람 열 명 인건비가 60~7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지금 아홉 동(1,200평)을 짓는 데 인건비만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래도 다 쓰고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다. 외국인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해 겨울에도 딸기를 수확하고, 여름에는 상추와 멜론을 수확하고 있다.

4-H 정신은 아직도 남아있다.

논산 4-H 활동은 권평식 씨에게는 변화의 전환점이었다. 논산 4-H 연합회 임원을 2년간 하기도 했으며, 놀뫼 4-H 소식지를 만들기도 했다. 동네에서 수박과 배추를 재배해 대전에 가서 팔기도 했다. 그가 살던 동네가 가야곡면에서 양촌면으로 바뀌면서 4-H 활동의 폭이 좁아졌지만 그래도 4-H 정신은 남아있었다.

4-H 운동은 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촌청소년 지도사업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농촌청소년들을 자생적인 지도자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4-H는 많은 농촌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영농 과학화와 영농 기계화 교육을 통해 농촌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후에 새마을지도자들 대부분은 4-H 출신들이 많았다. 4-H가 주도한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오늘날 우리 농촌을 변화 발전시킨 가장 큰 공헌이라고 본다.

이처럼 4-H는 우리 농촌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농촌에 젊은이들을 보기 어렵다. 젊은 영농후계자가 없어 4-H 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권평식 씨의 집도 같은 처지에 있다. 그는 결혼을 늦게 했다. 35살에 결혼했다. 2세에게는 농사를 짓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군대 갔다 왔길래 딸기 농사를 권했다. 땅도 임대 해주고, 아버지가 기술도 전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데, 아들은 아

직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4-H는 우리 농촌의 빈곤뿐만 아니라, 권평식 씨 집안의 빈곤도 탈출하게 해준 희망이었고,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젊은이들이 기쁘게 농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4-H 정신이 시대의 등불이 되는 그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한인성>

4H와 새마을운동

김 인 규 (1936년생)
논산시 대화로

놀뫼새마을금고의 산 역사



김인규 씨는 제대 후에 광석면 농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능력을 알아본 부군수는 논산에서도 새마을금고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김 씨에게 금고 설립을 제안했다. 김 씨는 놀뫼새마을금고를 설립하여 42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금고가 단단히 자리 잡도록 공헌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놀뫼새마을금고는 장학 사업을 통해 매년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2009년부터 2011까지 22대 4-H 본부 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곳에 재정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본부의 논의를 거쳐 뒷받침하였다.

마을 이동조합과의 인연

김인규 씨는 26세에 제대하고 고향인 광석면 신당1리로 돌아왔다. 그때 마을 이장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익히기 시작했다. 32세에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을 이동조합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이동조합장을 맡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동네별로 이동조합이 있었고, 비료나 대부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리 단위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마을 조합장은 주민들이 비료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날인해야 했다.

그런데 신당1리 이동조합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 부도내고 마을을 떠나버렸다. 동네가 차압되어 마을 사람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김 씨의 부락은 총회를 열어 경제적 여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돈을 내어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김 씨는 조합장을 맡아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빚을 탕감했다.

자연스럽게 다른 조합장들의 인정과 신뢰를 얻어 젊지만 광석면 농업협동조합 이사를 하기도 했다. 김 씨가 성실히 임무를 이행하자 군 농협에서 신당리 협동조합으로 군 농협의 비료창고와 양곡창고를 관리하도록 업무를 이관해 주었다.

단위농협의 사업

1972년에 면 단위의 조합을 결합해서 단위조합이 창립됐지만, 지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겪는 단위조합이 많았다. 김인규 씨는 단위조합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벼나 보리 등을 매상할 사람의 집을 찾아다니며 얼마만큼 출자해달라고 부탁했다. 주민들이 인심

이 좋아서 사정을 말하면 출자를 잘 해줬다고 한다. 또한 신당리 이동조합이 했던 비료창고와 양곡창고를 단위조합이 관리해서 수수료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모든 비료나 사료, 시멘트 등은 기차로 수송되어 논산역에서 받아다 논산 시내에 내려놓았다. 김인규 씨는 운송료가 비싸했기 때문에 비료와 사료, 시멘트 등을 논산 시내가 아니라 광석농협으로 가져왔다. 그 당시에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많아 주된 운송수단이던 우마차가 다니기에 어려웠다. 논산 시내가 아니라 광석농협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4~5km 정도 거리가 줄어 편리해졌다. 이후 광석 사람뿐만 아니라 부여군 초촌면과 공주군 탄천면 일원 사람들도 광석농협으로 와서 물건을 가져갔다.

단위조합은 주로 생활용품을 신청해서 가져오는 구매 사업과 농사지은 상품을 외부에 팔아주는 판매 사업을 했다. 초기에 쌀을 판매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가들이 논산장에서 가장 두꺼운 가마니에 쌀을 담아서 80kg을 내지만, 공판장에 가면 통에 쌀을 담아서 알곡으로만 무게를 쟀다. 가마니 무게 3kg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였다. 나중에 지대미가 나왔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포대에 쌀을 담아 판매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 공판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 사업을 했다. 대전과 분리가 안 되었던 시절인 충남농업협동조합이었을 때 도지부 관련해서 광석면이 1등을 했다. 충남의 목표액 80%를 광석면이 달성했다. 김 씨는 그때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광석면의 쌀이 더 인정받게 된 일화 하나가 있다. 김 씨가 대구 공판장으로 지대미를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지대미를 열어서 확인하고는 구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미질은 좋지만, 농약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쌀을 한 포대 뜯어서 점심을 하자고 했다. 밥에서 냄새가 나면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하고 밥을 지었는데 밥맛이 좋고 냄새는 없었다. 그 뒤로 광석농협 쌀은 믿는다는 인상이 퍼져서 제일 먼저 높은 값으로 팔았다고 한다.

놀뫼새마을금고의 시작

김인규 씨가 충남농업협동조합의 목표액 80%를 달성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논산군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제안 받았다. 뜻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권유에 의해 농협중앙회

장의 임명을 받아 군 농협 조합장이 되었다. 군 조합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단위조합장보다도 보수가 적었다. 보수를 떠나서 명예직이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고 3년 동안 울타리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부군수가 찾아와 논산의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알아줄 만큼 활성화되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탄하면서 새마을금고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김 씨는 논산군 농업협동조합장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 한 달 후에 놀뫼새마을금고(이하 놀뫼금고)를 창립했다.

창립은 쉬웠지만, 놀뫼금고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당시 화지산신협이나 논산신협은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고객들 눈에 재정적으로 탄탄해 보였다. 반면에 직원 4명이 있는 놀뫼금고는 5~6평의 2층 건물에 세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기가 어려웠다. 또한 읍면별로 마을금고가 있는데다가 논산 시내에만 논산 금고가 12개 정도 있었고 우후죽순으로 소규모 금고까지 생겼다. 표면상으로 그때의 논산은 은행, 신용금고, 마을금고, 무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군수가 새마을금고가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새마을금고로 허가를 받아 대부업체 같은 사금융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였다.

놀뫼금고는 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받으라고 사정해서 대출도 하고 얼마큼의 예금도 받았다. 군 조합장이던 시절 인연을 맺은 논산 유지들이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말뿐이었다. 선후배들이 김인규 씨를 찾아와서 금고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여론이 있다며 그쯤에서 접으라고 조언했다. 그렇지만 대출한 돈을 받아야 하고 예금한 사람의 돈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금고를 쉽게 닫을 수는 없었다.

놀뫼새마을금고의 고난과 극복

놀뫼금고가 살아난 것은 학생들 덕분이었다. 정부에서 저축을 권장하던 시절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8시에 문을 열어 학생 저축을 받았다. 저축하는 학생들에게 연필, 공책 등을 주었는데 이것을 받는 재미로 아이들은 돈만 생기면 금고에 가져왔다. 이것을 기반으로 놀뫼금고가 커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반인에게 신용이 없어서 원하는 부지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육청 소유의 비싼 곳에 건물을 사서 짓기로 하였다. 이곳저곳에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모든 일이 무산되어 외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놀뫼금고를 설립하고 2년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3년 만에 이전했다. 외관이 번듯하니까 사람들에게 신용이 생겨서 금고가 안정되었다.

1997년에 IMF가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놀뫼금고는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한 건설회사에 입찰했는데 IMF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일주일 뒤에 놀뫼금고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퍼져 동요로 인출이 있었지만, 타격이 크지는 않았다.

그 당시 놀뫼금고는 이익이 쌓여 있어서 다른 은행들이 금리를 2%를 올렸지만, 놀뫼금고 만은 이자를 올리지 않자 더더욱 신용을 얻어 돈이 들어왔다. 들어오는 많은 돈이 다 대출되지 않아서 보험회사에 700억을 맡겼는데 그곳이 부도가 나서 예치금 7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90%의 자금으로 금고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도 새로 지은 건물의 활용도를 찾다가 예식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예식장을 운영하고 5년 만인 2005년에 놀뫼금고는 안정을 찾았다.

놀뫼금고가 전국에서 위상이 높았을 때는 지역에서 1~2등을 한 적도 있다. 김인규 씨가 이사장을 퇴임했을 때 놀뫼금고 총자산은 6700억 정도였고, 여윳돈으로 300억 정도를 만들어놨다고 한다.

사회 기여와 놀뫼장학회

놀뫼금고는 새마을문고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이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했고 1991년에 놀뫼장학회를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이바지하였다. 향학열이 높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탁월한 학생 및 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립 이후, IMF 시기에도 장학금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설립부터 2023년까지 초중고생과 대학생 총 1,445명에게 20억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는 매년 중학생 17명에게 50만 원, 고등학생 15명에게 100만 원, 대학생 4~5명을 선발에서 대학 4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박용신>

서 평 석 (1945년생)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4-H 후원으로 풍요로워진 삶



서평석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8~19대 4-H본부 회장을 맡았다. 시의원과 충청마을금고 이사를 지낸 서 씨는 4-H가 자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려주었다.

4-H의 시작

서평석 씨가 고등학생 때인 1960년도에 처음으로 4-H를 시작했다. 초기의 4-H운동은 농사에 보탬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마을 가꾸기와 청소 등을 하였다. 마을마다 풀베기와 퇴비 만들기 같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서 씨의 동네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로 사각 틀을 만들었다. 그 틀 안에 풀을 켜켜이 쌓아 퇴비를 만들어 퇴비증산운동에 참여했다. 마땅한 운송 수단이 없어서 리어카나 지게를 이용하여 퇴비를 모았다.

서평석 씨가 자란 연무읍 봉동2리 하봉에서는 야학이 운영되었다. 고등학생들이 왕복 20km가 넘는 거리를 통학하면서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른들께 수업을 진행했다. 그 당시에 100호 정도가 됐는데 열네댓 명의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초적인 자모음을 익히고 단어를 배웠다. 열정이 있는 어른들은 집에서 공부해서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기도 했다. 칠판과 분필 같은 것은 없었고 공책도 여유롭지 않아 신문지에다 공부했고 상당수는 땅에 써서 연습하기도 했다.

서평석 씨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느라 4-H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대학 진학 후에 방학에 고향에 내려와서 후배들에게 조언하였다. 서 씨는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바쁠 때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을 대신 돌보았다고 한다. 서 씨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 주었다. 지금 60대인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90세가 넘은 그 아이들의 부모도 만나면 고마웠다고 말한다.

4-H후원회

서평석 씨는 1991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논산 군의원이 되었다. 고향 선배이자 대학 선배인 김오중 씨를 만나면서 4-H후원회(현 4-H본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서 씨보다 18년 연상인 김 씨는 논산에서 4-H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의 김 씨가 4-H후원회에 관해 말하자 이유 불문하고 따랐다고 한다. 그 당시 4-H후원

회에 삼분의 이 이상이 서 씨보다 연령이 높았고 나머지는 서 씨의 동년배나 그 밑의 연령이 후원회에 들어갔다. 여러 개의 4-H 모임 단체가 있었지만, 군소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고 후원회만 전념했다.

처음에는 일반 회원으로 회의와 대담에 참석했고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후원회에 지원하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8~19대 4-H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회장을 하면서 4-H 중앙회 감사와 이사도 하게 되었다. 4-H후원회 회장은 일 년에 내는 회비도 상당하고 당연히 자신의 돈을 쓰는 자리라 한다.

4-H를 돌아보며

김오중 씨는 서평석 씨에게 4-H를 다시 인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서 씨의 아버지 형제분들하고 호형호제하던 사이여서 당연히 어려웠다고 한다. 김 씨는 매년 장학금으로 염소 한 마리씩을 이십여 년 이상 후원했다. 김 씨는 구십 가까이까지 4-H후원회에 몸담았다. 서 씨는 연로한 김 씨에게 4-H에 그만 신경 쓰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라고 직언했지만, 그는 결코 그만둔다고 답하지 않았다 한다.

다른 시군에 비해 논산에서 4-H운동이 활발한 것은 김오중 씨의 노력 덕분이다. 김 씨는 해외에 나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외국과의 교류로 4-H 회원들이 해외 견학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김 씨는 대만의 대계진농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서평석 씨는 일반 회원으로 두 번, 책임자로 두 번 정도 대만에 다녀왔다고 한다. 대만의 농회와 논산 4-H 회원들이 격년으로 오갔다. 대만 농회는 우리의 숙박시설과 기타 비용을 모두 지출했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비용을 시에서 충당할 수 없어서 일부 회원들이 지원하였다.

대만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농업시설과 하우스 등을 견학하였다. 몇 사람은 대만에 가서 일 년 정도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귀국해서 그 농사일을 시도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서평석 씨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김오중 씨야 말로 4-H에 열렬한 신봉자이자 실천가였다고 말한다. 김오중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후원을 멈추지 않았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세워진 공덕비가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서 씨는 현재 자신이 그때의 김 씨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4-H후원회에 있다면서 겸연쩍은 미소

를 지었다.

서 씨는 충청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이십 년으로 있으면서 4-H에 이런저런 지원을 조금씩 했다고 한다. 규모가 크지 않아 후원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면서 김인규 놀뫼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마다 몇백만 원씩 지원했다며 공을 넘겼다. 김인규 이사장 때부터 지금 이사장까지 변함없이 지원하는 놀뫼새마을금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씨와는 금고 이사장으로는 라이벌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는 함께 화합하는 동지였다.

서평석 씨가 4-H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4-H 중앙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와 대계진 농회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서평석 씨의 얼굴에 감사를 품고 사는 삶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박용신>

김 용 남 (1963년생)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농업 실천 운동 4-H



고등학교에서 인연을 맺게 된 4-H

김용남 씨는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에서 출생했다. 유성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머무르다 주말이면 본가로 오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학교에는 4-H 클럽이 결성되어 15명 정도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었다. 김용남 씨는 축산 쪽에 관심이 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낙농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연스럽게 4-H 클럽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4-H 클럽의 녹색 활동을 주시하다 2학년 2학기에 클럽에 가입했다.

학교에서는 4-H 클럽에서 활동하고 집에 오는 주말에는 마을에서 하는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다.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으로 새벽 6시부터 주민들을 모아 치수 사업, 도로 정비 등을 진행했었는데 모든 가정이 참여해야 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하면 김용남 씨가 대신 나가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다.

계속 인연을 이어가게 된 4-H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뀐 농촌지도소에 가서 4-H 클럽 활동을 계속했다. 동네에도 4-H가 조직되어 매년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자연스럽게 청소년들도 조직에 들어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고향인 연산면 장전리만 해도 4-H 회원이 30~35명 정도로 많았다. 당시 4-H 회장을 맡고 있던 김용남 씨는 학생들을 잘 이끌어 4-H 활동 범위를 넓혔다. 학생들과 함께 4H에 제출하는 과제를 하기도 했고 겨울이면 가을에 심은 보리가 올라오면서 얼어 죽는 일이 많아 함께 논으로 가서 보리밟기 행사도 자주 했다.

그러다 1983년 12월 9일 군대에 갔다. 제대한 후에도 4-H의 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시 연산면 장전리 4-H 회장을 맡아 경진대회 3연패 달성이라는 성취를 이루었다. 가야곡면도 활발하게 활동했었으나 김용남 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산면에서 우승기를 받았다. 능력을 인정받아 논산시 4-H 조직의 총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 1987년부터 공무원으로 발령받기 전인 1989년까지 논산시 4-H의 총무를 했다.

4-H의 다양한 활동

당시 4-H 활동 중에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분야는 퇴비 증산이었다. 화학비료가 부족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퇴비가 필요했다. 마을마다 퇴비 증산 운동을 했고 전국 경진대회를 열었다. 다른 분야보다 상금이 많아 경합은 치열했다.

당시에는 마을 한 가운데 짚단이 높이 쌓여 있는 풍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쌀 수매할 때 품질 검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일이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심의했다. 상을 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신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우회해 성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4-H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겨울에 논두렁을 태워서 벌레를 죽이는 쥐불 놓기도 중요한 일이었다. 농사일지도 작성했다. 그때는 트랙터 보기가 어려웠다. 주로 소나 경운기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풀을 베어다 인분을 뿌려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었다가 사용했다. 어느 정도의 퇴비를 투입했는지 등도 세세하게 농사 일지로 작성하고 수확량을 점검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다른 마을 주민들을 지도했다.

논산이 전국대회에 나가 우승한 적도 있는데 전열 온상 경진대회였다. 겨울에 땅의 온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배관 라인 설치를 빠르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는 것이 관건인 대회였다. 시 · 군별로 경쟁해 메달도 받았다.

탄탄한 조직을 갖춘 4-H

4-H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는 각 마을에 4-H 조직이 있었다. 연산면에 40개의 리가 있었는데 각 리에 4-H가 구성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했다. 월례회 장소는 지도소를 활용했다. 읍이나 면마다 지도소가 따로 있었고 지도소 소장도 있었기에 가능했다.

4-H에서 활동하는 연령대도 폭이 넓었다. 13살부터 40대까지 회원으로 참여했는데 중 · 고등학교 학생들도 능동적으로 활동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 후계자를 선정하는 데 4-H 클럽 활동이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농업 후계자로 선정되면 혜택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았다. 한 해에 읍면동에서 많이 선정된다고 해도

한두 명 정도에 그쳤던 시절이었다.

농촌사회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던 4-H

4-H 회원들은 봉사 활동에도 열성적이었다. 연말이면 보육원을 찾았다.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가 많이 이용되었다. 오토바이마다 뒷자리에다 떡과 과일, 후원 용품을 싣고 가서 나누어주었다.

4-H는 '농도원'이라는 시설을 마련해서 4-H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영농 활동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 간에 농업기술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농촌의 발전으로 역할이 줄어든 4-H

그러다 김용남 씨는 1989년 6월 23일 농업직으로 상월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업무가 농업 계통으로 바뀌다 보니 새마을 운동이나 4-H와는 좀 멀어졌다. 새마을 관련 업무는 주로 시청에서 봤고 면사무소에는 담당자가 한 명 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점점 비중이 작아졌다. 하는 일도 달라졌다. 새마을 지도자 관리, 도로변의 풀을 깎거나 꽃을 심고 가꾸는 것으로 활동 분야가 축소되었다. 농촌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4-H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4-H의 의의

김용남 씨는 4-H가 농촌 발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4-H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장으로 발전했다. 보고 들은 정보를 자신의 농업에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기술이 농촌 곳곳에 전파되었다. 깊이 있는 농업기술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농촌 사람들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농촌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하는 역할도 했다. 경진대회에 오락 부분을 포함하여 주민들을 단합하게 하고 화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덕노체'라는 4-H의 이념

은 지금도 마을 활동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되었다. 네잎클로버에 담겨 있는 명석한 머리(Head), 충성스런 마음(Heart), 부지런한 손(Hand), 건강한 몸(Health)은 우리 농촌을 새롭게 변화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고 김용남 씨는 평가한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홍미경>

논산시

4H와 새마을운동

이 정 숙 (1950년생)
논산시 광석면 갈산1길

살며 사랑하며 베풀며



이정숙 씨는 성동면 정지리 서라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부터 4-H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광석면 갈산리로 출가한 후에도 각종 지역 농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그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대외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 때문이다.

4-H에 첫발을 디디다

이정숙 씨의 네 살 터울 작은오빠는 4-H 활동을 하면서 시골에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살 위 언니 역시 4-H 활동을 하자 이 씨도 따라서 시작했다. 논산에서 삼 남매가 4-H 활동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작은오빠가 마령서(감자)를 잘 지어서 논산군은 물론 충청남도 4-H 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 오빠의 활약에 더욱 자극을 받은 이정숙 씨 역시 시골에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시골로 시집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숙 씨가 4-H운동을 시작할 때는 벼, 감자, 수박, 배추 등 농산물을 잘 짓는 것이 제일 목표였다. 대부분 농사짓기에 전념해서 가을이 되면 논산시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큰 영광이었다. 또한 풀을 많이 베어서 퇴비증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오빠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정숙 씨는 언니와 계속해서 4-H 활동에 참여했다. 군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 빠지고 참가하고 동네에서도 매달 회의를 열었다. 누군가의 지도 없이 회원들끼리 토론과 논의를 하고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 등을 교류했다.

결혼으로 인생 2막이 오르다

이정숙 씨의 오빠가 군대에 늦게 가서 28살에 제대했다. 순차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 이 씨는 당시로써는 늦은 나이인 27살에 광석면 갈산리로 시집갔다. 남편은 서울에서 사촌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인 광석으로 내려왔다.

시댁에는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풍으로 발을 못 쓰는 시어머니가 계셨다. 이정숙 씨는 결혼하고 10여 년 동안 시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부터 꿈이었던 4-H 활동을 이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숙 씨는 4-H와 관련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기술센터에 다니면서 기술센터 생활개선 논산시연합회장을 맡았다. 기술센터 생활개선회는

그 당시에 68명의 회원이 있었다.

생활개선회의 주요 활동은 다양한 식문화의 개선이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10여 가지 종류의 김치로 대회에 나가 일등을 하고 가계부 쓰기 같은 활동으로 대회에서 순위에 들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 씨는 1996년에 여성 최초로 농어촌발전대상 금상을 받았다. 논산시에서 오천만 원의 기금을 수여했는데 각 읍면에 이백만 원씩 지급하였다. 이 씨는 생활개선회 회장을 10여 년 동안 맡으면서 육천오백만 원의 기금을 다음 회장에서 물려주었다.

4-H후원회에 들어가다

초기에 여성이 4-H후원회(현 4-H본부)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정숙 씨는 생활개선회 회장 등을 한 경력으로 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후원회 회장을 여성이 맡은 적은 없지만, 현재 78명의 회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정숙 씨는 4-H후원회에 들어가면서 결혼 전에 자주 뵈었던 논산 4-H의 선구자인 김오중 씨를 다시 만났다. 김 씨는 좁아서 불편했던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큰 역할을 했다. 1995년에 김 씨는 신축 부지 구입과 기술센터를 짓는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 김 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부적으로 이전하였다. 이 씨는 오랜 시간 변함없이 4-H 활동에 열정적인 김 씨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정숙 씨는 4-H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윤석광 씨, 김정수 씨, 이찬주 씨, 김인규 씨 등을 언급했다. 특히 놀뫼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김인규 씨는 4-H후원회 회장도 했지만, 4-H 회원들이 어디에 간다고 하면 단체복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정숙 씨가 가장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것은 각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이다. 이 씨는 결혼하고 동네 부녀회에 가입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녀회 회장을 맡아 20여 년 동안을 활동했다. 새마을부녀회는 가을이 되면 당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이틀이나 삼일 동안 김장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드리곤 했다.

이정숙 씨는 올해 몇십 년 동안 몸담았던 4-H후원회를 그만둘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갈산리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한다. 논산시에서 주는 운영비와 시상금 등이 있어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을회관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방문할 때면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이 씨는 받은 물건을 달력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이정숙 씨의 남편은 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네일을 살피고 있다. 이 씨가 음식을 해서 매번 마을회관에 가져갈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차에 실어서 옮겨준다. 이 씨는 싫어하는 안색이나 군말 없이 한결같은 행동으로 도와주는 남편이 고맙다고 한다.

이정숙 씨는 타인에게는 물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한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주려고 했지만 형님이 부모님을 모신 이정숙 씨 부부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형님의 뜻이 감사해서 매년 형님과 조카에게 수확한 농작물과 김장 김치를 보내고 있다. 이 씨는 봉사할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이정숙 씨는 평생을 헌신해서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일했다. 최근 평생 봉사만 한 이 씨에게 시청에서 먼저 노인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씨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박용신>

논산시

4H와 새마을운동

송 종 은 (1938년생)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새마을지도자를 하던 참 좋은 시절



학생에서 사업가로 변신

송종은 씨는 1937년 강경 홍교리 55번지에 태어나 지금은 20번지에 살고 있다. 평생을 홍교리에서 살아왔다. 강경 중앙초등학교 졸업 후 강경 상업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학교가 분되어 강경 상고를 32기로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다니다가 아버님이 수술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했다.

아버지가 맹장인데 병을 오진해서 오래 앓았다. 당시 테라마이신은 한 대가 쌀 한 가마니를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강경은 아니지만 삼오리, 병천리, 장화리, 개척리 등에 있는 논은 당시에 논 한 마지기가 쌀 여섯 가마면 살 수 있었다. 그러니 테라마이신 6대는 논 한 마지기를 팔아도 구하지 못했다.

당시는 대학 학비가 무지하게 비쌌다. 거기에 아버지의 오랜 치료비까지 더하니 집안 형편에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결국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숙부를 따라다니며 쌀장사 일을 배웠다.

강경에서 쌀을 사서 서울로 보내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기차로 쌀을 실어 보냈는데, 빠르면 3일 늦으면 4일이 걸렸다. 그때는 달구지가 귀해서, 일일이 리어카에 실어 강경역으로 날라야 했다. 강경역에서는 화물기차가 짧은 시간 정차하기에 쌀실을 시간이 늘 부족했다. 미리 강경역에서 대기하다가 화물기차가 들어오면 화물칸에 정신없이 실었다.

화물칸 크기에 따라 유미, 유시, 유가라고 불렀다. 화차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었다. 제일 작은 화물칸을 유가라고 불렀다. 유가는 300가마, 유미는 400가마를 실었다. 화차의 크기에 따라 운송비 차이가 크게 났다. 화차 크기가 크면 운송비를 더 줘야 했다. 유가와 유미의 운송비가 차이가 커서 되도록 작은 화차에 실어야 운송비가 덜 들었다.

지금처럼 기차가 빨리 가질 못했다. 철로가 단선인데다가 서울 가는 중간중간에 짐을 기차에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 빠르면 사흘, 늦으면 나흘 걸렸다. 지금은 대부분 큰 돈은 송금을 하지만, 그때는 호송이 따라가 수금을 해왔다. 당시에는 서울 가는 기차의 화차도 문을 따서 쌀도 훔쳐 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쌀도 지킬 겸 수금도 해올 겸, 호송이 따라다녔다. 이때 쌀장사를 하면서 돈도 제법 모았다.

젊은 시절 마을환경 변화에 앞장서다.

1970년대는 정말 가난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1970년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전국 지방 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로 시작된 농촌 계몽 운동으로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動)을 3대 정신으로 꼽을 수 있다.

송종은 씨도 1973년 새마을운동 기반 조성단계서부터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내무부에 새마을 지도과가 있어서 새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송종은 씨는 마을에 새마을운동을 들여와 홍교도 새마을운동 착수 대회를 열었다. 이때는 군수 읍장 등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환경 개선용 시멘트를 마을마다 몇백 포씩 지원해 줬다. 홍교동도 시멘트를 지원받아 홍교 다리를 놓았다. 지금 보면 몇 걸음 되지 않지만, 당시는 시멘트로 만든 제법 고급스런 다리였다.

당시에 골목길은 지금보다 길 폭이 아주 적었다. 그 옆으로 하수구가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구를 정리했다. 국가에서 시멘트만 지원하고, 노동력은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했다. 지금처럼 뚜껑을 덮지는 못했다. 그때는 토사로 하수구 물이 잘 흐르지 못해 냄새도 역했다. 돌을 주워다 하수구에 석축을 쌓아 물이 잘 흐르게 하니 냄새도 많이 사라졌다.

다음에는 나무로 벽돌 틀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시멘트 벽돌을 찍었다. 모래는 금강변에 가서 손수레로 실어 날랐다. 자갈도 실어와 시멘트 블록을 만들었다. 그때는 '브로크'라 불렀다. 그 블록으로 담도 고치고 집을 짓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 당시 골목길은 비포장길이었다. 비가 오면 다니기가 엄청 불편했다. 돌산에서 바위를 깨서 자갈을 만들어 마을 길 포장하는 데 사용했다. 길을 포장하고, 담도 고치고 나니 우물을 만들자는 말이 나왔다.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금강물을 길어다 먹었다. 물이 귀한 강경에서 우물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송종은 씨는 홍교동에 우물을 팠다. 네 곳이나 파서 마을의 식수를 해결했다.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우물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 흔적이 한 곳 밖에 남아있지 않다. 여자

들도 좋아했지만 매일 물을 길어다 대야 하는 집안의 가장들이 더욱 좋아했다.

마을 길을 포장하고 우물도 팠지만 마을 길을 넓히는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집들이 귀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집을 허물고 길을 넓히기가 쉽지 않았다. 그저 도로를 포장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시멘트나 슬레이트는 보조를 해주었지만, 인건비는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송종은 씨의 사비도 많이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일하면 막걸리라도 대접해야 했다. 미곡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에 대접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기와집은 우리 동네에 우리 집 밖에 없었고, 다 초가집이었다. 방도 귀해서 방 한 칸에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도 많았다. 방이 많은 집은 남는 방을 세를 주곤 했다.

지붕 개량 사업을 하는 데 슬레이트(그때는 스레트 불렀다.)값도 보조를 해줘서 많은 집이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꿨다. 지금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 해서 수거하는 데도 비싼 비용이 든다. 당시에는 기름이 잘 빠져 고기가 맛있다고, 슬레이트위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길도 포장하고, 지붕 개량도 하고 나니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매일 새벽마다 새마을 노래를 틀어대니 자신감도 생기고, 너도나도 의욕에 넘쳤다. 송 씨의 동네도 높은 대나무 끝에 새마을기를 묶어서 홍교동 노인회관에 세워두었다. 지금 홍교리 여성 노인회관 자리다. 마을 길 포장 공사 흔적은 덕유정 앞 도로에 남아있다.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했으나, 지금은 위에 아스콘을 덧씌워 흔적만 남아있다. 집들도 그사이 경제가 좋아져 좋은 집들로 새롭게 지어져 옛 흔적은 찾기 어렵다.

송종은 씨는 10여 년간 새마을지도자를 하다 물러나고 뜻한 바 있어 정치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야당 활동을 했기에 마을지도자 역할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마을 일을 할 수가 없자, 동네 후배인 양창욱씨가 새마을지도자를 맡았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많은 마을지도자가 나왔고, 이분들이 지속해서 마을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활동했다.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및 국민 위생 개선, 마을 도로와 농로가 정리되었다. 마을의 초가집은 거의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의지가 생겨나기도 했다.

곳곳에 새마을기가 걸리고, 마을 입구 표지석이나 표지판에 새마을 마크가 새겨졌고, 기차도 고급 열차인 새마을호가 생겨나기도 했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우리 농촌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운동이다.

지금도 새벽에 동네를 돌아본다

예나 지금이나 송종은 씨는 새벽잠이 없다. 팔자소관인가 보다. 새마을 지도자를 할 때는 새벽에 4시면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마을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과 마을 길을 서로 쓸었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집이라 손가락질하던 때이다. 지금은 가게 앞도 쓸지 않는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두 바퀴씩 돈다. 송종은 씨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여든아홉 살이다.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열정적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50년이 넘었다. 그때는 잘 나가서 송종은 이름만 대면 강경 사람들이 다 알아주던 시절이었다. 아득하지만 참 좋은 시절이었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한인성>

박 노 삼 (1954년생)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봉사활동으로 이어진 새마을운동



박노삼 씨는 연무읍 마전6리에서 40년 가까이 새마을지도자로 일해오고 있다. 그는 6년 동안 연무읍 새마을지도자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7년째 연무읍 새마을지도자 회장을 맡고 있다. 박 씨는 연무읍 새마을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마전6리의 시작

박노삼 씨는 1980년대 중반에 새마을지도자를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박 씨가 새마을지도자가 되면서 지원금을 받아 마을회관과 2층짜리 모정을 지었다. 이로써 마전1리는 이전에 있던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두 개의 회관을 갖게 되었다. 후에 마을을 분동하게 되었는데 새로 지은 마을회관이 있는 쪽이 마전6리가 되었다.

마전6리는 양재라는 자연부락이고 지금은 20가구 정도지만,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무렵에는 40가구가 넘었다. 마전6리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다른 동네보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하였다. 마을에 어떤 작업이 있으면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동참했다. 지금처럼 방송시스템 같은 것이 없어서 징을 쳐서 주민들이 나오게 했다. 성인 남성이 없는 집은 아주머니들이나 아이들이 나왔다.

새마을운동 사업

새마을운동으로 안길 넓히기, 지붕 개량, 아궁이 개량, 퇴비 증산 등을 하였다. 그 당시에 길은 좁고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했다. 마전6리 주민들은 지게와 소달구지로 봉동3리 쪽에 있는 냇가에서 모래와 자갈을 퍼 왔다. 정부에서 지급한 시멘트 200~300포대에 모래나 자갈을 삽으로 비벼서 포장했다. 포장하기 전에 사람이 길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먼저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마을운동 이전에 대부분 집은 초가지붕이었고, 일 년에 한 번씩 지붕을 교체해야 했다. 집이 세 칸이면 나래가 30개 정도 필요했다. 나래를 엮는 것뿐만 아니라 용마루를 트는 것도 시간이 걸렸다. 지붕을 묶을 수백 발의 새끼를 꼬는 것도 어려웠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초가지붕을 교체하기 위해 매년 볏짚을 사고 품삯이 들어야 했다.

슬레이트를 사는 비용은 각 가정이 부담해야 했지만,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면서 매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인건비가 사라졌다.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할 때 목

수인 박노삼 씨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임금을 안 받고 지붕의 틀을 짜주었다. 시에서 새마을지도자 몫으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자재를 사다가 제자들과 함께 무상으로 헌 집을 고쳐주기도 하였다.

매년 초가지붕에 사용되던 짚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궁이 개량으로 연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땔 나무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때 나무도 많이 심었지만, 지붕과 아궁이 개량 덕분에 산에서 벌목하지 않게 되어 산이 푸르러지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당시는 비료가 귀한 시절이라서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마을 주민에게 분배하였다. 비료만으로는 농사짓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퇴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각 마을에서는 퇴비증산을 위해 노력했다. 풀을 베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썩으면 뒤집어서 퇴비를 만들었다. 할당제가 있어서 퇴비를 많이 만들면 비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현재의 새마을운동

초기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요즘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요즘은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이 크다. 연무읍에 63개 마을이 있고 각 마을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63명이 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60여 명이 모여서 연탄 나누기, 무연고 산소 벌초하기, 공동묘지 벌초 등을 한다. 작년과 올해 수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복구하기도 했다. 인터뷰 다음 날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읍장, 조합장, 시의장 등이 참석해서 무연고 무덤을 벌초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여서 작년에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다고 한다.

박노삼 씨가 회장이 된 이후로 3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 돕기를 할 예정이다. 회장으로서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다음 회장에게 넉넉한 자금을 넘겨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박노삼 씨는 기금 마련을 위해 제초 작업, 폐농약병 수거, 농촌 폐기물 수거 등을 하고 있다. 15개 읍면동이 참여했는데 마전6리는 작년에 39톤 5백, 올해는 43톤 5백을 모아서 2등을 했다.

폐기물값 600만 원, 폐농약병값 6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손으로 시멘트를 비벼서 넓혔던 길이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많이 부식되었지만, 아스콘 포장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박노삼 씨는 그 길을 보면서 30년 전의 마음이 되새기고 있다.

박노삼 씨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탄 몇백 장, 쌀 한 포대, 라면 한 상자씩을 나눈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박 씨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헌 집을 새집으로 고쳐주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다. 그는 물질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눔이라고 말한다.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인터뷰어 권선옥, 스토리텔러 박용신>

계룡시

|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애향심이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계룡사람 '이덕재' 494
국사봉 아래 계룡토박이 '정병선' 498
신도안 엿의 명맥을 이어가는 신도안종합식품 대표 '안봉인' 사장 503
통 백중놀이의 본고장에서 뿌리를 지켜가는 토박이 '김용한'왕대리 이장 508
95세의 연세에도 변함없이 지역사랑, 나라사랑을 강조하신 '김원섭' 6.25 상이용사 513
계룡에서 태어나 계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해상' 전 계룡시 새마을지회장 518
6.20 사업소장을 지내며 계룡시 건설의 초석을 놓은 '김정수' 전 대전시 건설교통국장 523
공직자로 은퇴한 뒤 낙향 후 지역을 위해 봉사 하고 헌신하는 '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장 528
꼿꼿한 유학자로서 전통 서당 문화를 지켜가는 '박성기' 훈장 533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이 덕 재 (1951년생)
계룡시 엄사면 사랑재길

애향심이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계룡사람 '이덕재'



태어난 고향으로 온 이덕재

이덕재 씨는 1951년 유동리 128번지(배나무골)에서 이동기 씨와 안병순 씨의 1남 4녀(확인 필요) 중 넷째로 태어났다. 본관은 광주다. 독자였던 까닭에 귀하게 자랐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랑재길 10-7번지 본가는 이덕재 씨가 25세경 직접 사들여 집을 지었다.

젊은 시절 진로 문제와 직장 생활(건설회사 근무)로 잠시 나갔으나 30세 때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실 겸 부부가 함께 귀향하여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도맡으며 고향을 지켜왔다. 귀향하자마자 12년간 유동리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두마면 새마을협의회장도 역임하는 등 지역 발전에 열정을 쏟았다. 두마면 새마을협의회장시절에는 계룡역(구, 도계역)에 기차가 처음 정차하는 날 '정차환영대회 마을잔치'를 성대히 주관하기도 하였다. 열정이 남다르다는 주위의 평가로 2003년(52세)에 유동1리 이장으로 선임되어 오늘까지 이장직을 맡아 하고 있다. 이덕재 씨야말로 유동리에서 태어나 유동리에서만 평생 살아온 유동리 토박이이다.

애향심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이장

1990년에 계룡출장소가 설치되고 계룡시로의 승격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신도시발전협의회(시 승격 후 계룡시 발전협의회로 변경)가 구성되자 이덕재 씨는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부회장까지 맡으면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당시 계룡에 소방서가 없어서 논산소방서 소속으로 계룡시 의용소방대를 발족하여 초대 의용소방대장을 맡아 6년간 봉사하기도 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계룡시 승격 운동이다. 그는 시 승격을 위해 신도시발전협의회 회원 및 계룡출장소 공무원과 동행하여 계룡시 특산물인 물엿통을 들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국회의원들께 읍소하고자 서울 국회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만나주지 않자 인사 한 번 하기 위해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행자위 국회의원들의 호응을 높이고자 의원들의 지역구인 강원도, 경상도, 광주 남원까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였다.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던지, 이덕재 이장은 계룡시가 승격 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이**의원 전**의원 민**의원 등, 당시 국회의원의 이름을 하나 하나 또렷하게 기억하였다. 당시 계룡의 특산품이 물엿뿐이어서 무거운 물엿 통

을 들고 인사를 다녔는데 그때 계룡출장소의 박**과장이 무거운 물엿통을 들고 다니느라 수고가 많았던 생각에 지금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단다. 이덕재 이장은 계룡시 승격을 내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였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그의 활동은 시 승격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계룡시민의 편의도모 및 계룡시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소방서, 건강보험공단출장소. 세무서민원실, 경찰서, 법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계룡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유치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다. 이덕재 이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노력으로 그가 유치위원장을 맡은 2년 동안 계룡소방서와 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세무서민원실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덕재 이장은 유동1리에 없던 동계도 만들었다. 동계를 열어 매년 정월 대보름날 총회를 하고 마을 주민들을 4개 반으로 나누어 상품을 걸고 반 대항 윷놀이며 환궁, 투호 등을 하며 다같이 즐긴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시끌벅적한 하루를 보내면서 마을의 결속을 다진다고 자랑하였다.

이덕재 이장은 구술 과정에서 수차례 애향심을 강조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애향심 없으면 못 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전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계룡시

계룡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도백석'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덕재 이장도 어릴 적에 선친께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신도백석'은 계룡산의 바위가 하얗게 변하면 궁궐이 생긴다는 예언 같은 전설인데, 주민들은 이 전설을 계룡으로 청와대가 이전하여 새로운 도읍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선친뿐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이덕재 이장에게 또렷이 남아있다.

1983년에 국방부에서는 육이공(620) 사업을 진행하였다. 육이공(620) 사업은 육해공군 본부의 이전을 위해서 신도안지역의 주민들과 종교인 등을 집단 이주시킨 사업으로, 당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다. 이 사업 전, 신도안은 명산으로 이름이 알려져 전국에서 몰려온 종교인과 수도자들이 많았다.

보통 지역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구술자들이 주변에서 불만을 들은 게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면 육이공(620)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이공(620) 사업은 이 지역에 계룡시의 탄생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계룡으로 몰려온 전국의 종교인, 수도자들과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신도백석'의 전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계룡시민들은 신도안의 전설이 계룡시의 탄생을 예견한 것 이란 걸 부인하진 않았다.

애향심이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덕재 이장은 "애향심은 누구보다 강하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성과가 나오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이덕재 이장의 지역 봉사활동 발자취를 보면 그의 애향심을 깊게 느낄 수 있다. 계룡시가 지금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는 이덕재 이장의 열정이 커다란 몫을 했으리라 확신한다. 2023년, 계룡시는 시 발전에 이덕재 이장이 기여한 공이 큰 점을 높이 사서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덕재 이장은 계룡시 만드는데 내가 일조했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하다며 공로패를 보여주면서 밝게 웃었다. 수십 년 이덕재 이장의 노고가 자그마한 공로패에 다 담아졌을까 싶지만, 우리에게 자랑하는 걸 봐서는 마냥 좋으신 모양이었다.

언제까지 이장을 하실 건지 여쭈어보니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하는 데까지 마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려 한다고.

이덕재 이장은 구술채록을 끝마친 뒤에도 손수 커피를 타 주면서 채록자에게 계룡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소박한 커피 한 잔에 담긴 값진 당부의 말씀이었다.

<인터뷰어 김민수, 스토리텔러 김민수>

계룡시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정 병 선 (1965년생)
계룡시 엄사면 향적산길

국사봉아래 계룡토박이 '정병선'



이곳은 굿당이 아니고 기도 터(도량)입니다.

정병선 씨는 1965년생으로 본관은 청산이다. 그는 계룡산 줄기에 자리잡은 향적산의 토박이다. 정병선 씨의 부친인 정성식 씨는 전라북도 완주 출신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생활을 하다가 1955년경 이곳에 와서 모친인 하원순 씨를 만나 향적산 국사봉 아래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다.

정병선 씨가 살고 있는 집이 굿당처럼 보여서 종종 무속인이라는 오해도 받지만 그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의 장인 장모 및 부인까지 무속인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그에게 무속인이 아닌데 왜 굿당을 하는지 묻자 그는 '굿당이 아니고 기도 터(기도도량)'라고 답했다.

정병석 씨의 생각에 굿당은 '누구를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곳'이라면 기도 터는 '종교적 기운(氣)을 받아 가는 곳'이다. 그래서 굿당은 무속인들이 주관하고 종교적 의식을 치르지만, 기도 터는 대상도 목적도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기운을 받아 가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 묵어 간 적도 있다고 한다.

기도 터를 연 것은 그의 부친이었다. 부친이 이곳을 운영할 때는 종종 무속인들도 왔지만, 동네 아낙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더 많았었다. 주변의 동네 분들은 추수한 곡식이며 농사지은 곡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로 추수 감사나 가족들의 무사태평을 기도하였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 정병선 씨가 자연스럽게 기도 터를 물려받은지 어언 30년이 되어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 터를 찾는 일반인은 점점 사라져 가고 지금은 주로 무속인들이 기도 터를 찾는다. 정병선 씨는 신흥종교의 성장 탓일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서 전통 민속신앙의 종교적 의례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음을 직접 느낀다고 한다.

정병선 씨의 기도터 앞에는 '물탕'이란 현판 아닌 현판이 달려있다.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이 서로 등산 안내를 할 때 '물탕 집을 지나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도 터가 '물탕 집'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을 물탕이라고 불러 왔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지역을 둘러보던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지금 기도 터의 물(샘물)을 먹고 '물이 참 좋다'고 하였다 한다. 그래서 일까 지금도 많은 무속인이 찾아와 용궁 기도를 한다.

현재는 물탕 지역 인근에 일곱 곳의 굿당과 정병선 씨의 기도 터가 남아 있다. 이중 정병

선 씨만 토박이고 나머지 7곳은 외지에서 온 무속인들이 운영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서로 간에 왕래가 뜸하다.

국사봉 지킴이 향한리 청년회장 정병선

전기도 없었던 오지 산마을에서 태어난 정병선 씨는 10리 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눈 내리는 겨울에는 눈길을 헤집고 다녔다. 정병선 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복무 시절 10여 년 남짓을 제하고는 50여 년을 이 자리 한 곳에서 향적산 지킴이로 살았다.

향한리 청년회는 역사가 꽤 깊은 편으로 그의 부친이 살아계실 적에도 향한리 마을의 청년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으나 언젠가 사라졌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 온 뒤 애향 청년들이 청년회가 없어져 아쉬워하다가 계룡출장소가 설치되고 계룡대가 이전 완료한 뒤쯤인 1994~5년경 향한리 청년회를 부활시켰다. 청년회는 마을 노래자랑(한가위노래자랑)도 하고 새해(양력1월1일) 떡국 나누기 행사며 불우이웃돕기,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향한리 마을뿐 아니라 계룡시 전체의 모범적인 청년회로 자리매김 했다. 정병선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여 년간은 청년회장을 직접 맡아 정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지금도 평회원으로서 계룡 지역을 위하여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논산계룡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2014년 1월 1일 아침 7시 45분경 향적산에서는 계룡시와 향한리 청년회(회장 정병선)의 주관으로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매년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올해엔 천마의 해를 맞이해서 시민의 안녕과 계룡시의 번영을 기원하는 신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메시지 낭독, 만세삼창, 희망풍선 날리기 등 새해 첫 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로 준비되었다. 또한 무상사앞 주차장에서선 향한리청년회가 준비한 떡국이 아침식사로 제공되었다.(논산계룡신문, 2014년 1월 3일자)'

사실 작은 지역에서 2,000명이 넘는 행사를 주관하고 치르려면 열정을 가지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도 이벤트 회사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향한리 청년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러 낸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향한리 청년회를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활동에 제약이 있어

서 코로나 이후 중지된 노래자랑이며 새해맞이 떡국 나누기 행사를 지금까지 다시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사봉 신년제는 꾸준히 지내고 있다.

정병선 씨는 향적봉이나 향적산은 옛날에 지명으로 사용했는지 몰라도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국사봉이라 부르고 지내 왔다고 한다. 산 넘어 논산 상월 쪽 사람들도 국사봉이라고 해야 서로 말이 통했다. 전국에 국사봉이란 곳이 7곳인가 있는데 다들 스승 사(師)자를 쓰고 이곳만 일 사(事)자를 쓰는 곳이라 한다. 국사봉은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신도안 천도에 관한 논의를 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사봉 비석의 복원을 바라며

정병선 씨에 의하면 국사봉 봉우리에는 '천지창운비'와 '오행비'가 있는데 그 두 비석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원래 비석의 이수(머리 부분)에 봉황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봉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가 보여준 3~40여 년 전쯤 된 듯한 사진에는 두 비석에 봉황이 올려져 있었다. 봉황은 왕권을 상징하는 우리네 상상의 동물이다.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봉황을 이수에 올렸다는 것은 두 비석이 왕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국사봉의'천지창운비'와 '오행비'는 '단군성조'를 모시던 곳이라 전해오고 있다. 언제 누가 세웠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단군성조의 얼을 되새기기 위한 비란 유래를 볼 때 민속신앙의 결과물이란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비를 향적산에 세웠고, 기도하는 향이 산에 너무 많이 쌓여서 향적산이라 불리게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민속신앙에 몸담은 많은 사람들이 향적산을 최고의 기도 도량으로 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때 이런저런 연유로 계룡산 일대의 종교 숫자가 몇 백이요, 심지어 수천에 이른다는 말이 전해진다. 향적산의 봉우리를 국사봉이라 칭하고 두 개의 단군성조를 위한 비가 세워져 있으니, 민속신앙의 성지(聖地)란 말이 이해되는 듯하다.

그러나 정병선 씨가 돌아서는 자리에서까지 끝내 이곳이 우리네 민속신앙의 중심지였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미신이요 무속이란 말로 우리네 민속신앙이 폄하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듯하여 못내 아쉬웠다.

우리네 민속신앙은 오천년 역사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였다. 누구도 민속신앙이 신흥종교보다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고 지금도 우리들 삶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치

못할 것이다. 부잣집이든 가난한 이든 이사 갈 때는 손 없는 날을 잡아 이사하고 대부분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묏자리부터 신경을 쓴다. 민속신앙은 단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함께한 전통문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뷰어 김민수, 스토리텔러 김민수>

안 봉 인 (1953년생)
계룡시 엄사면 도곡로

신도안 옛의 명맥을 이어가는 신도안종합식품 대표 '안봉인' 사장



인근 논산시가 논산 딸기, 강경 젓갈, 상월 고구마, 양촌 곶감, 연산 대추. 이렇게 지역특산품이 다섯 개나 되는 것에 비해 현재 계룡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엿 밖에 없다고 할 만큼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계룡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신도안 엿의 명맥을 이어가는 신도안 종합식품 대표이신 안봉인 선생을 만나 그의 인생과 엿 이야기를 듣는 것은 특별히 의미 있고도 중요한 일이었다.

계룡시에서도 조용하고 정갈한 느낌의 도곡리로 가는 길은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여 눈이 호사를 누리는 곳인데 가을이 한창인 요즘은 또 붉어지는 단풍이 가슴 설레게 하여 안봉인 선생을 만나러 가는 일이 더욱 즐거운 여정이었다. 이런 곳에 공장이 있을까 하며 찾아들어간 마을 안쪽에 번듯한 모양새의 신도안 종합식품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석탑산업 훈장을 탄 기업이라는 현판도 자랑스럽게 걸려있었다.

순흥 안씨 집성촌 유동리에서 태어나다

선생은 순흥 안씨 집성촌인 유동리에서 1953년 부친 안일동과 모친 김용남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의 부친은 선생이 13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서른 아홉의 나이에 혼자되신 모친은 홀로 5남매를 키우느라 무척이나 고생하셨다. 어머니는 장남인 선생이 모시고 살다 83세에 돌아가셨다.

유동리는 대대로 유교적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동네였기에 선생이 어릴 때까지도 명절이나 시제 등의 큰 동네 행사가 있었고, 타성받이인 산지기나 서출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 산지기들은 나이든 사람들도 명절 때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세배를 해야 했고, 서출은 어른이 되어서도 앞줄에 서지 못하고 뒷줄에 서서 행사에 참석하였단다. 반면 종손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 조부님과 겸상으로 쌀밥만 먹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집념으로 살아온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근교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더 이상의 정규 교육은 받기가 힘들었다. 이후 어머니가 하시던 농사를 물려받았고 가업인 농사일과 여러 가지 지역봉사 활동 등을 하다 뒤늦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졸업하였다.

선생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새라 모든 일에 남보다 열 배 스무 배 더 노력하였다. 그러다보니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 27세의 나이에 인근에서 가장 젊은 이장이 되었고 4H지도자, 농업후계자 회장을 역임했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그 이후로도 마을 일을 도맡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계룡시 승격은 당시 논산시 두마면 모든 주민들의 염원이었기에 개인의 땅이 시 개발에 들어가는 일에도 모두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선생 또한 계룡시로 승격 될 수 있도록 시 승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계룡시 발족 후에는 선후배 사이였던 초대 시장인 최흥묵 시장과 마음을 맞춰 시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여러 차례 맡아 그 분야에 있어 개념도 없고 불모지였던 지역에 생활 체육의 뿌리를 내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계룡의 대표특산물 엿을 만들다

계룡시 대표 특산물인 엿을 생산하는 신도안종합식품은 계룡출장소 시절 초대 출장소장 이었던 김수진 소장의 권유로 당시 농업 후계자였던 19명이 힘을 합쳐 충남도 보조금 4000만원에 각자 얼마만큼씩의 출자금을 내어 설립했다고 한다.

계룡산자락 신도안 지역은 일찍이 피난민들이 터를 잡은 후에 전국의 무속인들까지 몰려들어 여러 부락을 이루고 살던 곳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을 할 여건도 아니었거니와 토양도 농사를 짓기 힘든 자갈밭이어서인지 그때는 신도안 지역 집집마다 가내수공업으로 가마솥을 걸어놓고 갱엿을 만들어 팔았다.

갱엿은“신도안에 엿장수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두계리 팥죽과 더불어 계룡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식품이었다. 하지만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신도안 부락민들은 모두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신도안의 엿을 만들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계룡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계룡 대표 특산물도 만들고 신도안 엿의 명맥도 이어가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1년 평당 15만원에 구입한 땅이 현재의 도곡리 공장 부지이다. 당시의 가치로 근처 큰 길가 땅도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지하수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이

유 하나로 그 땅을 구입하였다. 큰 길가를 택하지 않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네 행사시에도 도움이 되고자하며 공장 설립 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새해가 되면 동네 주민들에게 엿 선물을 한다고 한다.

신도안 종합식품을 석탑산업훈장 수상 회사로 키우다

공장 설립 후 1992년 충청남도 전통식품으로 지정되었지만 초기에는 모두가 사업의 경험이 없던 지라 유통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993년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 우수 품평회 특별상 수상, 1996년 도지사 추천 농특산품 Q마크 획득, 1997년 신도안종합식품(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1999년에는 농업경영분야 농업 대상 수상, 석탑 산업 훈장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을 발로 뛰면서 불철주야 노력한 일들이 결실을 맺는 보람에 힘든 줄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해태제과의 바밤바 아이스크림 속에 풍미를 더해주는 캬라멜 리본을 납품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한참 잘나갈 때엔 십 톤이 넘는 발주를 받아 공장 시설도 확장하고 직원들도 늘려갔다. 그러나 갑자기 맞은 해태제과의 부도로 사업 성장에 발목을 잡힌 일은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시작한 이들은 다 손을 떼고 선생 혼자 사업을 맡아오다가 몇 년 전부터 1남 3녀 중 막내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회사 일을 배우며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히 손을 떼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아들이 많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보면 여간 믿음직하지 않다고 한다.

계룡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계룡 특산물을 검색하면 엿이 뜨긴 하는데 상품과 회사에 대한 상세한 소개나 이미지가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온엿과 비교하며 전통 식혜 등에 사용되던 전통 엿인 빨간 엿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선생의 눈빛과 모습에서 아직도 변함없는 엿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동생의 소개로 만난 부인 김숙영씨(70세) 또한 계룡시에서 새마을 부녀자회 회장도

하고 여러 여성단체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봉사하였다. 요즘은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현재 법사랑위원 계룡협의회장과 검찰청 형사조정 위원장 일을 맡아 비행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계룡시를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여전히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한 일에 앞에서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다. 선생은 계룡시가 태동하는 데 있어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여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더욱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인터뷰어 김현주, 스토리텔러 김현주>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김 용 한 (1957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전통 백중놀이의 본고장에서 뿌리를 지켜가는 토박이 '김용한' 왕대리 이장



왕대리에서 태어난 왕대리 토박이

왕대리에 집성촌이 있는 광산 김씨는 신라의 왕자였던 흥광(興光)을 시조로 받든다. 전남 광산을 본관으로 하였으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허씨 할머니'에 의해 현재의 지역에 그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허씨 할머니는 남편이 평양에 벼슬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태중의 아기를 가진 채 시아버지가 충청 관찰사로 계시던 이곳까지 한겨울에 걸어서 내려왔다고 한다. 호랑이가 눈을 녹여주며 보호하여 무사히 도착한 후 유복자였던 김철산을 낳은 것을 시작으로 이곳 왕대리 일대가 광산 김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한다. 허씨 할머니의 공덕을 기리는 비가 아직 연산에 남아있으며 문중에서는 중시조로 받들고 있다.

현 이장인 김용한 씨도 광산 김씨 문중의 후손이다. 경찰이었던 부친 김문수 씨와 모친 박병복 씨 사이에 4남 1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김용한 씨가 어렸을 적 왕대리는 광산 김씨를 중심으로 6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타성은 산지기들이 제각을 관리하는 정도였다. 마을 아이들은 고개를 서너 개나 넘어야하는 두마국민학교(현 두마초등학교)를 걸어서 통학하였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엔 흑석리에 있는 기성중학교를 걸어서 다녔다.

현재 두마면사무소 앞에 남아있는 두계장터는 4일, 9일 장이 서는 5일장으로 우시장도 설만큼 규모가 커서 볼거리 먹거리가 많았다고 한다.

군 복무 후 다시 고향으로 와 농사를 짓다

김용한 씨는 호적이 2년이나 일찍 되어있던 탓에 중학교를 마치고 17세 어린 나이에 입대를 했다. 경기도 포천군 일동에서 33개월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객지에서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고향의 아버지가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귀향하여 농사일을 이어받았다.

김용한 씨는 부여로 출가하셔서 살고 계시던 고모의 중매로 고향이 부여인 부인 이삼순 씨를 만나 결혼하였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까닭에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농사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기계를 손보다 보면 고작 2~3시간 눈 붙이고 다시 새벽에 일을 나가는 생활의 반복

이었다. 지금이야 쉽게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 중에서도 30대 중반부터 마을을 위해 이장을 맡아 10여 년간 봉사했고 계룡시가 시로 승격될 때는 다른 농민 후계자들과 함께 스타렉스 한 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수차례 왕복하며 시 승격 활동에 매진하였다. 오죽하면 다른 시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에 몇 명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두마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산비탈만 있는 빈촌이었으며 달구지 하나 다니기 힘든 좁은 길이 태반이었다. 시가 되면 시 차원에서 농업 분야 투자도 많이 되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하는 꿈을 가지고 활동했다.

김국광 좌의정이 처음으로 시작한 마을 큰 잔치 백중놀이

김용한 씨는 시 승격 활동 뿐 아니라 백중놀이 재현에도 힘을 쏟았다. 백중놀이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 고된 농업 활동을 하던 농민들이 하루 쉬는 축제였다. 그 주체는 머슴과 소농이었고 지주 부농들이 이들을 후원하는 행사였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인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루 신명나게 먹고 마시고 놀던 백중놀이의 전통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선후배들을 모아 다시 백중놀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6~7년 행해지다가 다들 생업도 바쁘고 왕대리 동네사람들끼리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하여 맥이 끊기게 되었다.

본래 왕대리 백중놀이는 왕대2리 마을 뒤편 잘 가꾸어져 있는 묘소의 주인공으로 성종 때 좌의정을 지낸 광산부원군 김국광 공이 본인의 재산을 풀어 처음 시작하였다. 김국광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백중날 그 묘소에 참배하고 한바탕 놀았던 것이 계속해서 마을에 전해진 것이었다.

백중날이 되면 먼저 묘소에 제를 지내고, 효자효부에 대한 상과 불효자에 대한 벌을 논하고 그 해 농사를 잘 지은 장원 머슴도 뽑아 상도 주었다. '머슴 생일'이라고도 부르는 이날은 징과 꽹과리로 풍물놀이를 하며 부근의 15개 동네 사람들이 동네 백중기를 들고 다 모여들어 하루 종일 서로 어울려 놀았다.

과거 마을 앞에는 큰 느티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있는 넓은 비포장 길이 있었고 그 삼거리에 확돌이 놓여있었는데 거기에 왕대리 백중기를 꽂아놓으면 각 마을 기수들이 그 기에 예

를 갖춰 인사하고 다시 의정공 김국광 묘소 앞쪽의 넓은 터로 이동해 거기서 왕대리 마을에서 준비한 떡과 통돼지 고기와 술을 나눠먹고 풍물을 치며 놀았다.

아직도 그 당시의 마을 백중기는 마을 회관에 보관되어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기도 많이 낡았고 백중기 위, 깃봉 바로 아래 묶는 삼각형모양의 작은 기인 영기(한자로 令이라 쓰여져 있음)가 분실되어 복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백중놀이가 지금은 본산지인 왕대리가 아닌 논산 대표 무형문화제로 연산백중놀이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계룡의 한 풍물단에서 "왕대리라~~ㄱ"이라는 이름으로 사계 고택 등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하였고, 올해는 향토문화재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다. 누구라도 왕대리 백중놀이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왕대리 주민들을 소외 시킨 채 "왕대리"라는 이름만 사용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서운해 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광산 김씨 시제를 지내고 묘역을 돌보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삶

광산 김씨의 제실은 왕대리 마을 가운데 멋진 기와집으로 지어져 있고 제실 뒷문을 통과하면 김국광 공의 산소를 비롯한 광산 김씨 묘역이 잘 조성되어 있다.

광산 김씨는 예학사상에 빛나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유독 조상의 산소에 신경을 쓰는 가문이다. 가장 위쪽에 김국광 공 부부의 묘소가 있고 그 아래로 장손 가문의 묘소가 연이어 잘 정비되어 있었다. 옛날엔 큰 벼슬을 지낸 후 낙향 시 조정에서 많은 땅을 하사하였다 한다. 높은 지형인 묘소에 서서 눈에 보이는 지역이 다 김국광 공의 땅이었다 하니 광산 김씨 가문의 영화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묘역을 둘러싼 아름드리 소나무 군락지는 충남 도청에서 관리한다. 김용한 씨에 의하면 광산 김씨 묘역은 500년 명당자리인데 500년이 되는 시점에 시로 승격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양 옆으로 길이 뚫리며 청룡의 날이 끊어졌다 한다. 동네에는 이외에도 후손들의 제실까지 더해져 제실이 4집 정도 남아있었다.

김국광 공의 시제인 큰 시제는 3년에 한 번, 나머지 작은 시제들은 매년 음력 10월이 되면 모신다. 묘역은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장인 김용한 씨가 두 번 정도 더 따로 풀도 베고 약도 뿌리는 등 신경을 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어 갈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한다.

계룡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껏 고향을 지키면서 이 땅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시가 출범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본 계룡시 성장과정의 산증인인 김용한 이장은 이태조가 도읍지를 만들려고 했던 명당인 계룡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룡시가 토박이들과 새로 유입된 시민들이 서로 융합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농 도시로써 기능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의 바람대로 계룡시가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고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인터뷰어 김현주, 스토리텔러 김현주>

김 원 섭 (1930년생)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95세의 연세에도 변함없이 지역사랑, 나라사랑을 강조하신 '김원섭' 6.25 상이용사



산 좋고 물 좋은 구천동의 고장 무주에서 태어나

김원섭 씨는 김해김씨 삼현파 72대손이다. 1930년, 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에서 아버지 김서구 씨와 어머니 이승여 씨 사이에서 4남매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로는 누나가 둘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다. 아버지는 72세에, 어머니는 80세에 작고하셨다. 고향은 댐 건설로 수몰되었으나 지금도 매년 고향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1945년, 그의 나이 15세에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일본말을 배우기 싫었고, 일본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7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자와 한글을 배웠다.

광복이 되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나라에는 빨치산이 빈번하게 활동했다. 무주 지역의 산에는 김갑봉 부대가 자리를 잡고 활동했다. 6.25 전쟁 이전에 곳곳에서 빨치산이 준동했는데, 무주지역에 출현한 것은 1949년 부터였다.

여순 사건의 주동자 김지회가 국군의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쫓겨 경남과 전남 산악지대를 떠돌다 1949년 초에 반란군 약 300여 명을 이끌고 덕유산 토옥동 골짜기에 거점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무주 경찰서 유격대는 군부대와 함께 연일 덕유산 토벌 작전에 힘을 쏟았다. 11월 초순 덕유산에 거점을 두고 보급투쟁을 벌이던 반란군은 무주 읍내를 습격했으나, 오히려 피해를 입고 패주하였다. 김원섭 씨는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군 입대 후 6.25전쟁을 치르고 상이용사가 됨

김원섭 씨는 어려서부터 일제 식민지배, 광복, 빨치산 투쟁 등을 겪으며 자란 환경으로 인해 애국심이 남달랐다.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 이듬해에 21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군번은 0691567이다. 군산을 거쳐 제주도의 육군 제1훈련소에 입대했는데 3중대장 강팔만 대위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이후 1사단 15연대로 배치되어 임진강에서 싸웠으나, 노루곶에서 중대원이 모두 전멸한 뒤 밀양 청수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비토벌에 투입되었다.

당시 전투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경상남도 마산 병원에 입원했고, 상이등급 7급을 받았다. 병원으로 후송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시 중대장은 고참 한 명이 신병 열 명보다

낫다고 하면서 후송을 허락하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허락해 입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상이용사가 될 정도로 싸웠으나 훈장은 받지 못했다.

이후 결혼하여 3남 3녀 6남매를 두었고, 배우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고향에는 생존해 있는 친구도 없고, 연산과 계룡 지역에도 지금은 92세된 남찬호 옹만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지낸다.

42세에 고향을 떠나 신도안으로 이주

전쟁 이후에도 고향인 무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4년 동안 마을 이장을 하던 중 42세에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쌀계를 하고 있었는데 계주였던 지서 주임의 부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40마지기나 되는 논을 팔아서 겨우 해결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는 마음이 불편해 더 이상 고향에 거주할 수 없었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계룡 지역을 택한 것은 계룡산에 들어와서 산신이나 모시면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어서였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계룡 인근의 땅을 모두 발로 직접 답사했다.

계룡산은 워낙에 잘 알려진 명산이고,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는 영험한 산이라 여겼기에 당시에는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촛불이 안 켜진 바위가 없을 지경이었다. 동학의 태두 수운 최제우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계룡산에 많이 와 있었다. 김원섭 씨는 해송 스님으로부터 사찰을 인수받아서 2년 여 동안 승려 생활을 했다. 하지만 실제 승려 생활은 2년을 채 못하고 접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신도안 지역이었다. 지금의 계룡인 당시 두마면은 두계리 일대가 그나마 5일장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 신도안과 엄사 지역은 주로 자갈밭이나 논이었다. 신도안은 빈터도 널려 있었다. 1년여 간은 소작을 하다가 개울가 모래로 블록을 찍어서 블록 장사를 3년 했다. 이후 축사를 짓고 닭 1,200여 마리와 소, 돼지 등을 키웠다.

6.20 사업으로 인해 신도안에서 연산으로

198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계룡으로 삼군본부가 이전하는 620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도안 내에 있는 자연부락인 정장리, 석계리, 용동리, 부남리 주민을 이전시켰는데 이는 매우 순조로웠다. 다툼이나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1년도 안된 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특별지원금도 받았다. 이때 계룡산 지역에 산재해 있던 230여 개의 종교집단도 모두 사라졌다.

김원섭 씨는 연산으로 이주했다. 연산에 와서는 연산 특산품인 대추 농사도 조금 하면서 주로 쌀농사를 했다. 농부가 평생의 직업이었다.

6.25참전유공자 회장으로, 농부로

김원섭 씨는 6.25전쟁 상이용사로서 참전 유공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연산면 6.25전쟁 참전유공자 회장을 12년 동안 역임했다. 연산면에는 약 60여 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참전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여전히 부족하다. 김원섭 씨는 나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계룡에 대한 자부와 자랑, 후손에 대한 당부까지

계룡의 자랑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군대의 심장부인 삼군본부가 들어온 것이다. 김원섭 씨는 그 덕에 빈촌이었던 지역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도시로 발전한 것이 자랑스럽다. 자신은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을 거쳐왔기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뭘하든지 이겨야 한다. 계룡에서 매년 열리는 군 문화축제에 올해도 다녀왔는데 자랑스럽다.

지금 계룡역이 옛날 두계역이었는데, 그곳이 당시 두마면의 중심지였다. 김원섭 씨는 양정고개에서 두계역에 이르는 구간에 닭을 키우고 팥을 일구었다. 팥거리는 그래서 생겨난 것이기에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안의 명칭도 계속 남아야 한다. 조선이 도읍지로 정하려고 했던 유서 깊은 땅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날 계룡이 더 발전하려면 양심이 옳고 똑똑한 사람이 계룡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계룡과 연산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기에 농사도 계속 명맥이 이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어른이 강조한다고 듣는 세대가 아니다. 그래도 한 마디 하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등 국가가 될 것이다. 일등 국가가 되려면 인재가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은 주역 24방 중에서 동북방을 나타내는 간방이다. 이는 정감록에도 나와있는데 천지가 시작되는 곳이 간방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김원섭 씨는 일제 시대에도 일본말 배우는 것을 거부했고, 전쟁이 나자 기꺼이 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상이용사가 되어 평생을 사시면서도 나라에 감사했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길 마음으로 빌며 사셨다. 평생을 농부로 사시면서도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김원섭 씨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인터뷰어 김민수, 스토리텔러 김민수>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이 해 상 (1953년생)
계룡시 금암2동

계룡에서 태어나 계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해상' 전 계룡시 새마을지회장



계룡 금암2동 22-2번지에서 태어나

이해상 씨는 용인 이씨로, 올해 73세인 1953년생이다. 금암 2동 22번지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지역은 논산군 두마면이었다. 지금의 계룡 지역은 농토가 많지 않았다. 농사 위주로 살아가던 과거에는 농토가 많아야 부자동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계룡 지역은 한낱 빈촌에 불과했다.

아버지 이원규 씨와 어머니 정윤예 씨 사이에서 3남 3녀 중 넷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각각 88세, 94세에 작고하셨고, 누나 두 명도 세상을 떠났다.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약 10여 명 정도 있고, 지금도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우애를 이어가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마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41회로 졸업하고, 연산중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해 학교 선생님이 집에까지 두 세 번 찾아와 대전에 있는 중학교로 보낼 것을 권했으나, 부모님의 고집으로 나가지 못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도시락에 거의 보리밥과 고추장만 싸갔는데 뛰어가다보면 도시락이 흔들려 섞이는 바람에 비빔밥이 될 정도였다. 학교에 다녀오면 나무를 한 짐 해놓아야 놀 수 있었다.

배우자는 이순덕 씨로 올해 68세이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 배우자의 고향은 두계천 건너 유성구 송정동으로 연애로 만났고, 선생이 바깥일을 많이 해도 불평 불만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 자녀는 4남매를 두었으며 딸 둘은 오송과 창원에 있고, 아들 둘은 대전에서 산다. 명절이 되면 며느리가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서 차례를 지낸다.

잠시 서울로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상추농사를 짓다

태어난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이해상 씨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상경해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성운수에 취직했다. 당시 친척아저씨가 버스 12대를 소유해 그 덕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은 사무실 운영과 배차 업무였으며 9년 8개월간 일했다.

군 복무는 두마면대에서 방위병으로 마쳤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농사를 지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상추농사였다. 유성구 중세동에서 시집 온 사람이 대나무 파이프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상추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도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20년 넘게 상추를 길렀다. 상추농장을 운영하

면서 반장, 이장을 맡았고, 계룡시 상추작목회장을 6년 역임했다.

계룡 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나 농토가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땅도 개발이 되면서 점점 더 농업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활성화는 안 될지라도 명맥은 유지될 거라 생각한다.

계룡을 위한 헌신과 봉사

누구나가 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해상 씨의 계룡 사랑은 남다르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다양한 직책을 맡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계룡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계룡은 충청남도 직할 계룡출장소로 13년간 있었다. 이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이나 시범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전혀 없었다. 두마면 시의원 몫으로 겨우 3천만원이 배정될 뿐이었다. 농민들이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계룡에서 농업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그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농후계자회 회장, 이통장 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했다.

이해상 씨의 활발한 사회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새마을 활동이다. 지금도 계룡시에서 새마을 하면 그를 떠올릴 정도이다.

지난 2003년 9월 19일 계룡시가 출범하면서 새마을지회가 발족되었고, 초대 김성중 회장 시절에는 협의회장을 하다가 그의 뒤를 이어 계룡시 2대 새마을지회장이 되었다.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새마을지회의 대표적인 활동 중의 하나인 '김장 담궈주기'를 최초로 시작했다. 또한 팥거리 축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계룡시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금암동 신성1차아파트 자리 몇천 평에 콩과 팥을 심었다.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계룡에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팥농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계룡시청에 설치되었던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독거노인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오래 활동했다. 금암동의 경우에는 시 예산에다가 일반 가게에서 운영하여 12월에 수거하는 사랑의 저금통과 위원들의 기부금을 더해 매년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이불을 선물하는 등 다양한 복지지원과 봉사활동을 펼

치고 있다.

계룡 군문화축제에 대한 생각

오늘날의 계룡은 계룡대가 이전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3군 본부가 있음으로써 계룡시가 있는 것이다. 논산에서 계룡으로 분리될 때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와 전일순 논산시장이 도장을 찍은 것도 계룡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계룡대는 계룡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계룡 군 문화축제는 대단히 잘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해상 씨는 몇 년 전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군 문화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군문화축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군문화축제가 되어야 함을 전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면동 축제와 연계해야 함을 강조했었다.

지금의 군 문화 축제는 매우 좋은 내용과 볼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이득은 별로 없다. 그러다보니 호응도도 떨어지고 자부심도 별로 없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이다. 매년 행사장의 시설물을 만들고 철거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이나 땅을 매입해 군 문화 축제장을 상설 운영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계룡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국방수도 계룡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군 문화 축제를 할 때는 그곳을 행사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매년 엄청난 수고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계룡의 발전에 대한 생각

계룡은 도시의 특성상 군인과 외지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에 계룡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시민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외지인을 같은 식구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 대실지구가 개발되어 약 4천여 명의 인구가 늘었고, 앞으로 하대실지구가 개발되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토박이만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계룡을 다시 논산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상 씨는 논산통합반대위원회 선임부위원장을 맡아 이를 적극 제지하고 있다. 계룡은 계룡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계룡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명당이다. 계룡산과 더불어 자연환경은 손꼽히는 지역이다. 그는 이런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금암동에 있는 천마산 위치 오류이다. 계룡시지와 두마면지 편찬위원을 하면서 오류를 발견했다. 금암동에 위치한 천마산이 행정착오로 인해 지금의 팔각정 자리로 옮겨간 것이었다. 천마산은 대단히 유서깊은 곳이다. 조선의 무학대사가 천마산에 앉아 땅 전체를 살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한 곳이기에 천마산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상 선생을 면담하면서 내내 느낀 것은 계룡에 대한 애정이 말 한마디에서도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고향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아픈 아내에 대한 연민과 외조가 지금의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서 계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인터뷰어 김민수, 스토리텔러 김민수>

김 정 수 (1947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로

6.20사업소장을 지내며 계룡시 건설의 초석을 놓은 '김정수' 전 대전시 건설교통국장



광산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하다

김정수 씨는 성종 때 좌의정을 지낸 김국광의 16대 후손이다. 1947년 부친 김영채와 모친 정해옥의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94세, 어머니는 92세까지 사신 장수 집안이다.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현재의 집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3형제가 다 같이 살았으며 네 살이었던 6.25 당시 인민군이 남자들을 잡으러 다녀 어른들이 옛날 시골 변소 아래에 서까래를 놓고 거기 숨어있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한다.

광산 김씨 집성촌인 왕대리에 살면서 아버지는 양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다. 동네에서도 '뿌리의식'이 강하여 가을이 되어 시제를 지낼 때엔 아랫마을 윗마을이 총 출동하여 떡도 몇 가마니나 하고 통돼지를 구워 온 동네가 나눠 먹고 끝나고 돌아가는 손마다 남은 음식을 싸서 돌려보냈는데 그 총지휘를 그의 어머니가 맡아서 하셨다고 한다.

워낙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어머니의 교육열이 남달라 당시 또래 중에선 4명 정도 밖에 안 다닌 학교를 다녔다. 지금이야 길이 뚫려 가깝지만 그 당시로서는 고개 몇 개 넘어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간식이라곤 없었으니 봄판 삘기를 뽑아 먹고, 밀과 보리를 불 피워 익혀 먹어 온 얼굴이 시커맸던 기억이 난다고 웃었다. 현재 대전역전 신흥동에 있던 동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이 합쳐져 있었던 5년제 과정인 농업전문대를 다녔다.

그가 농업전문대학 2학년 재학 시절인 1964년 당시 미군 480 원조사업이 있었는데 김정수 씨는 22kg 밀가루 포대 480포대를 원조 받아 종산 만평을 개간하고 그 개간지에 닭과 꿩을 키워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업을 키웠다. 이 사업이 충남도지사가 주는 지역개발 부문상을 받았는데 김정수 씨가 학생으로선 유일한 수상자였다.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다

부모님이 원래 농사를 지으셨기에 김정수 씨의 최초의 꿈은 농부였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신 부모님의 권유로 농업전문대학 졸업 후 1967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68년 당시 대덕군 진잠면으로 발령받아 공무원 생활을 시

작했다. 당시 9급 공무원 봉급이 3천 몇 백원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다 입대하여 전주 35사단에서 사단장을 모시는 보직으로 그 때 세 분의 사단장님을 모셨다. 장군 세 분을 모시며 안목이 길러지고 윗사람을 모시는 법, 대인관계 등을 배운 것이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 되었다고 한다.

전역 후 다시 진잠면으로 돌아와 근무하며 지금의 부인인 이옥재 씨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계룡시 건설의 초석을 다진 6.20사업

김정수 씨는 진잠면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대덕군을 떠나 대전시청, 충남도청의 인사계와 도지사 수행 비서 등을 역임하면서 점차 행정가로서 능력을 키워가던 중 고향인 계룡시(당시 논산군 두마면) 발족에 관한 일을 맡게 되었다.

계룡시 발족은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백지계획에 들어있었던 사업이었다. 1978년 서울 시청 순시 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서울서 1시간 반 거리인 공주군 장기면으로 수도를 옮기고 신도안으로 정부기관을 옮긴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유명한 풍수사가였던 지창용이 신도안이야말로 수도 이전의 적지라고 낙점했다한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6.20 사업(계획)소가 만들어지고 김정수 씨가 그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1981년에 시작된 6.20 사업은 신도안 1210만평, 숯골(자운대) 840만평, 반석동을 포함하여 총 2140만평 600억의 예산으로 집행된 엄청난 사업이었다.

신도안은 조선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1393년부터 1394년까지 1년간 작업을 했었던 곳이고 그 때 놓았던 주초석이 115개가 경내에 남겨져 있는데 아직도 토박이들 사이에는 '신도백반'이라 하여 신도안의 돌이 하얗게 변하면 도읍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러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7박 8일을 계룡산 정상에서 주변 지형을 살펴보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 '不能地'라고 했다한다. 첫 번째 물이 없는 건지이고, 두 번째는 수도로 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고, 세 번째 송도에서 봤을 때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창용 풍수사가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뒤를 돌아보시라 하곤 물이 없으면 댐을 건설하시라(전두환 대통령 때 대청댐이 완공), 좁은 땅은 무너미(지금의 공주)까지 보시라, 교통 수단이 변하니 남쪽으로 치우친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한다. 그래서 1977년,

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다녀갔고 드디어 “신도안을 정비하라.”는 말로 6.20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신도안은 바위마다 촛불이 밝혀졌다고 할 만큼 다양한 종교가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 김정수 씨가 확인한 종파만 237개 였다. 수많은 사찰과 암자 등을 없앴지만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1000년 불사 ‘제석사’와 암용추 산신당은 아직도 남아있다. 당시 신도안 내엔 국가 소유의 땅도 많았지만 소장이었던 김정수 씨는 서운하지 않게 보상하기 위해 “작대기만 꽂혀있어도 보상하라.”고 했다 한다.

공직 퇴직 후 고향에 정착하다

김정수 씨는 대전시 건설교통국장으로 퇴직 후 부모님께서 살던 집을 새로 고쳐 짓고 지금도 살고 있다. 앞에는 호남고속도로가 이어지고 있고, 계룡 IC가 코앞에 있다. 뒤에는 광산김씨 종중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추나무 240여 수가 자라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기르는 것은 아니고 수확하면 동네 주민들과 문중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는다.

지나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있는 일이 바로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 특히, 6.20사업소장처럼 맡은 자리에서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또한, 과거의 전통과 문화,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주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한 예로 살고 있는 지역이 논산군 두마면과 계룡출장소를 거쳐 계룡시로 출범하면서 잘못하면 김국광 할아버지 묘소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에 묘역이 지방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도지사 수행비서 시절에는 홍수로 인해 입암리 저수지가 터졌지만 방법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새마을 사업으로 지원받아 보수한 적도 있다.

계룡 발전을 위한 생각

김정수 씨는 광산 김씨와 연계된 ‘문화마을 조성’, ‘사계 박물관’등 지역 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다. 또한 군과 민이 함께 하는 지역인 만큼 서로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합쳐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군 본부가 있는 점을 활용하

여 지역 인력이 투입되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군수품 관련 산업체 유치 등에도 힘써야한다고 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며 터득한 지식과 반짝이는 그의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에 또 한 번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쪼록 건강 잘 챙기셔서 계룡시에 큰 도움주시는 어른으로 오랫동안 남으시길 바란다.

<인터뷰어 김현주, 스토리텔러 김현주>

계룡의 뿌리를 찾아서

김 정 수 (1939년생)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공직자로 은퇴한 뒤 낙향 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장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수 회장, 그는 광산김씨 양간공파 후손으로 1939년 논산군 두마면에서 부친 김영천과 모친 김정주의 사이에서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1903년에 태어나셨으며, 선비로 지주이셨고 사랑방에 글방을 열어 박에 먹물로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을 가르치신 학자로 사셨다.

기묘년(1939년)에는 가뭄이 들어 큰 흉년이 닥쳤다. 겨우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리이삭을 훑어 먹었던 시절이니 모두가 배를 굶을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이때 김영천 옹은 창고를 열어 동네 주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다. 그냥 나눠주면 혹여 잘못된 근성이 생길 듯하여 집 옆에 돌담을 쌓는 일을 시킴으로써 일을 하고 정당한 댓가를 얻는다는 마음이 들게 하였다.

어머니는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으로 당시에 중학교를 나온 배운 분이셨으며, 택시를 타고 시집을 오셨다. 마을 사람들은 택시를 보고 신기해 했고, 이를 본 아버지는 다섯 명씩 번갈아 택시에 태워주면서 동네 큰길까지 한 바퀴씩 돌아보게 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을 배려하셨다. 이후 어머니는 광석리 원불교당과 유치원을 세우셨다.

배우자는 한혜자로, 충남 부여 태생의 청주 한씨이며, 성균관에서 강사를 하셨던 집안 어른의 중매로 서울 종로1가에 있는 서울예식장에서 혼인했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다.

배움에 열중했던 학창시절과 군 생활

김정수 회장은 마을에 있는 도곡초등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는 아버지가 학교 부지를 기증하여 세운 학교로 간이학교로 시작하여 이후 공립학교로 발전했다. 중학교는 연산중학교를 다녔는데 주로 걸어다녔고, 광석역(지금의 개태사역)까지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고등학교는 강경상고를 나왔는데 자취나 하숙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차 통학을 하면서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했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 그만두고 군에 입대했다. 군에서 전역한 후에 서울로 상경하여 임시직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시험을 치른 후에 정규직이 되어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했다.

부정부패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공직생활

공직생활은 1969년, 30세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원업무를 보았는데 당시에는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 때문에 상사, 동료들과 갈등이 많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근무하던 중 공직에 입문한지 4년째가 되던 해인 1973년 5월부터 당시 국무총리인 김종필씨가 '서정쇄신(庶政刷新)'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혁신하면서 일벌백계를 강조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공무원 사회가 많이 정화되어 근무할 의욕이 생겼다.

공무원 사회가 정화되었다고는 해도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상사들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바른소리'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왔으며, 2024년에 와서야 비로소 충남 계룡에 '바른소리 실천연대'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늘 고향을 꿈꿨다. 낙향하여 전원생활을 하며 농사를 짓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6년에 퇴직하자마자 트랙터 한 대를 사서 고향에 내려왔다. 당시 고향에는 트랙터가 단 두 대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미리 사두었던 땅에 인삼밭을 일구었다.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인삼밭을 준비하고 파종 후 4년 뒤에 수확하니 6년 뒤 1억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생각보다 고수익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지금도 작은 규모지만 여전히 인삼밭을 일구고 있다.

고향으로 내려온 뒤에 농사를 지으며 지낸지 7년 만인 2003년 9월 19일에 살고 있는 지역이 논산시 두마면에서 계룡출장소를 거쳐 계룡시로 승격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내려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그는 지역 발전보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미 삼군본부가 내려온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정착이 되었기에 앞으로

도 그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시설도 더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계룡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하는 예비역들이 제2의 고향으로 계룡을 생각하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룡의 문화에 대한 생각

계룡시는 계룡대 이전으로 많은 부대와 군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상군페스티벌과 군문화축제가 매년 펼쳐진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계룡 하면 군 문화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알다시피 계룡은 우리나라의 명소이다. 조선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새로운 도읍으로 고려한 곳이었고, 실제 1개월간 궁궐을 짓는 공사까지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는 계룡의 문화 발전은 신도안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안은 기도가 잘 먹히는 기도터로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몰려들었고, 경상도에서도 많이 올라왔다. 떡을 산더미같이 해두고 기도한 후 나눠 먹으면 아이를 낳거나 병을 고치는 떡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러한 전통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이제 문화원도 발족했으니 계룡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발굴하고 알려야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 문화축제 역시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향적산 일대에 <세계 군문화 기념관(가칭)> 등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상설 전시하면서 세계적인 군 문화 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인회장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삶

김정수 회장은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장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다. 회원들의 구성상 원주민보다는 예비역들이 많고, 대부분 전국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이 다른 도시보다 부족하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운영,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활성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정수 회장은 올해(2024년) 대한민국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86세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라는 걸 인정받은 것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주변을 정화하자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정을 다하는 김정수 노인회장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

<인터뷰어 김민수, 스토리텔러 김민수>

박 성 기 (1940년생)
계룡시 엄사면 전원로

꼿꼿한 유학자로서 전통 서당 문화를 지켜가는 '박성기' 훈장



구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

꼿꼿한 선비로서의 풍모를 지니고 계신 유학자인 박성기 훈장, 그는 1940년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서 태어난 함양 박씨 사파 28대손이다. 고향은 냉천리라는 지명답게 차가운 물이 솟는 참샘이라는 우물이 있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다.

박성기 훈장은 아버지 박봉호 씨와 어머니 조판례 씨의 사이에서 2남 6녀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열세 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구례는 여순반란사건, 빨치산 준동, 6.25전쟁과 지리산 토벌 등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살기가 어려운 험지 중의 험지였다. 열세 살이 되자 당시 40대이셨던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터를 잡은 곳이 충남 계룡이었다.

계룡산 자락에 터를 잡다

박성기 훈장 일가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계룡 지역에 터를 잡은 이유는 계룡산이 명산이기에 계룡에 와서 살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는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었다.

낯선 고장인 계룡 땅은 당시 논산군 두마면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엄사리 308번지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75년 째 삶을 이어오고 있다. 모습만 달라졌지 터는 그대로이다. 당시의 엄사리는 자갈밭이었다.

부인은 강숙자 씨로 박성기 훈장과는 네 살 차이가 나는 44년생이며,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렸다. 부인의 고향은 전북 남원인데 그의 나이 24세 때 중매로 인연을 맺었다. 남원 땅은 연고가 있어 자주 다녔는데, 부부의 인연까지 맺어준 곳이 되었다. 자녀는 4남 2녀로 대부분 근교인 대전과 계룡 지역에 살고 있다.

정규 학교공부를 하지 않고 한학으로 평생을 일관하다

박성기 훈장의 삶에서 특이하다고 할 점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평생을 한학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계룡은 물론 전국 각지의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웠는데, 그런 까닭인지 한문, 한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문이 없으면 동양의 뿌리를 찾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고유의 문화를 대대손손 이어가려면 앞으로 한문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 이뿐인가? 그는 한자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젠 한글까지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점을 개탄한다. 서울에 가보면 한글이나 한자로 된 간판은 거의 찾을 수도 없고, 거리 곳곳에 영어로 된 간판만이 즐비하다고 하면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요즘은 한류 열풍으로 오히려 외국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교에서 한문 과목이 폐지되다보니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한문에는 문외한이 되어버렸다. 이는 문해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갈수록 학생들, 젊은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다. 이런 세상에서 박성기 훈장의 일침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새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훈장으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며

박성기 훈장은 매 주 수요일 저녁에 3시간 동안 그의 사무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노장사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예술인, 전문직업인 등 동양철학과 한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가 동양철학과 한문, 한글에 천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뿌리를 알아야 갱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선각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보면 그러지 않는 모습이 심히 개탄스럽다.

세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뀐다.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 것을 거의 모르고,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74년 전에 6.25전쟁을 겪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 등에 의해 휴전이 되고,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때부터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요즘은 거의 만연되어 있다. 그 반대급부로 인해 한문, 한글이 점점 더 없어지고 위축되고 있기에 안타깝다.

민족의 자부심과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반만년의 단일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지켜오고 있다. 지금 분단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분단국가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온다. 그때가 되면 영어가 주도하지 않고 한글이 주도할 것이고, 한자를 찾을 것이다.

올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적인 서양 문화와 정적인 동양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문화를 찾아 장차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계룡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어느 누구나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마련이지만 박성기 훈장의 그것은 남달랐다. 계룡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가 오고가자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칠판에 글씨까지 써가며 마치 강의와도 같은 대화를 이어갔다. 계룡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명승지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다.

조선이 건국될 때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하려고 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이 필요하다. 과거의 도읍 후보지보다도 지금의 계룡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니 그걸 살려야 한다. 삼군본부인 계룡대가 이전하면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계룡대가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다 환영했고, 군의 심장부인 삼군본부가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내 핵심이자 결론으로 들어갔다. 그가 생각하는 계룡은 단 한 단어로 말해 '계룡명승(鷄龍名勝)'이다. 계룡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필자도 처음 들어보는 귀한 말씀이었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없으니 아마도 박성기 훈장만의 사상인 듯했다.

"三佛拱北 佛心之慈悲(삼불공북 불심지자비)
삼불봉이 북쪽을 껴안으니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고,
大芚鎭南 兵火不入(대둔진남 병화불입)
대둔산이 남쪽을 누르니 무력으로 인한 화가 들어오지 못하네.
錦江水陳 匈奴不犯(금강수진 흉노불범)
금강이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 오랑캐들이 범하지 못하고,
儒城連東 文千武萬(유성연동 문천무만)
유성땅이 동쪽에 맞닿아 있으니 문사가 천명, 무사가 만명이며,

魯城布西 孔子之國師(노성포서 공자지국사)

노성이 서쪽에 넓게 깔려있으니 나라의 큰 인재들이 나오는구나."

박성기 훈장은 85세의 나이에도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 내내 꼿꼿한 선비의 풍모를 흩트리지 않았다. 그와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은 마치 역사를 마주하는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한학자답게 외래어와 외국어에 밀려나는 한글과 한자에 대한 애정이 짙게 묻어 나왔으며, 정적인 동양철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가로서 인문학을 전하는 필자의 생각과도 일치하여 마치 동지를 만난 듯한 반가움에 절로 신날 정도였다. 계룡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이사온 후 엄사리 한 지역에서 75년을 살고 있기에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꼿꼿한 유학자로서 전통 서당문화를 지켜가는 박성기 훈장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후학과 미래 세대들이 올바르게 우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고 싶다.

<인터뷰어 김민수, 스토리텔러 김민수>



당진시

| 당진의 오래된 가게

2대째 이어가는, 인심이 나는 뻐꾸기 둥지 540
사랑과 정성이 담긴 당진의 대표 브랜드 '독일빵집' 547
당진의 대표 서점 '당진서점' 554
민속떡집, '잇담'으로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다 560
80 평생을 오롯이 한길만 걷다 565
어머니의 손재주를 나누며 당진을 지켜온 '영의상실' 570
빛의 삼원색(三原色)을 더욱 선명하게 '정일칼라' 576
이발소의 맥을 지키는 기지시'길이용원' 582

당진의 오래된 가게

김 유 순 (1947년생)
당진시 계성2길

2대째 이어가는, 인심이 나는 뻐꾸기 둥지



배움에 목말랐던 유년 시절

김유순 대표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해는 1945년도이기 때문에 닭띠여야 맞지만, 출생신고가 늦어져 호적상으로는 1947년생 돼지띠로 되어 있다. 김유순 대표의 아버지는 시집간 누이를 따라가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살림을 늘려가며 자식들을 키웠다. 모친은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면서 8남매를 낳아 길렀다.

김유순 대표는 8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동생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우애가 좋은 형제자매들의 관계로 평생 힘든 일 대신 행복한 일들이 더욱 많았다. 부모님들의 성과 본이 같아 혼인신고가 늦어져 그가 14살 되던 해에서야 부모님이 정식적인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고, 김유순 대표도 학교를 갈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이미 초등학교 졸업을 할 나이가 되어 결국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없었다.

학교에 가지 못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고 윗집에 사는 한 살 아래의 친구와 가깝게 지냈는데 놀랍게도 현재까지 그 인연이 이어져 같은 아파트의 윗동, 아랫동에 거주하고 있다. 동생들은 다행히 교육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서 자신들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혼인과 사별, 그리고 식당을 열기까지

김유순 대표가 송악읍 기지시리를 떠나 당진 읍내로 이사 오게 된 이유는 혼인 때문이었다. 이모의 중신으로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안정적인 환경을 가진 집으로 시집을 가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적은 연금으로 많은 식구가 생활해야 하는 환경이라 여유로운 생활은 불가능하였다. 방 두 칸에 시어머니, 시동생과 함께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수도가 집집마다 들어오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현 탑동 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생활을 하였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물을 길어다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남편과 일하였더니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다.

김유순 대표의 자녀들이 어렸던 때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을 켜고 생활을 했다. 쌀 55가마를 모아 신작로 건너에 있는 마루가 딸린 방 2개 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 날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새로 이사 간 집은 전기가 들어와 자녀들이 밤새 전깃불을 켜놓고 좋아라 하며 뛰어다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한다.

구술자의 남편은 공사장을 다니면서 품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품을 파는 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목수 일을 배워 가족의 삶을 이끌었다. 그러나 구술자가 45세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다. 당시 막내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다.

김유순 씨는 시집오면서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일이 식당 일이었다. 32살 즈음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세 달 만에 일을 잘한다고 월급을 올려 받게 되었다. 그 시절 배웠던 식당 일은 결국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서 식당을 개업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탑동의 밭 300평 정도를 팔아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보증금과 집기를 사서 1991년에 뼈국밥집을 개업했다.



[뼈국밥집 손님들의 주 출입문]



[현재 뼈국밥집 간판]

※ 간판은 최근 새로 바꾸면서 현대식이 되었지만, 주 출입문의 창과 창틀 밑 타일을 통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확인된다.

전국에서 손님이 찾는 인심 넘치는 뻐꾸기 둥지가 되기까지

김유순 대표의 식당 운영 철학은 '돈은 잃으면 꾸면 되지만, 인심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다.'이다. 재료의 선정에서부터 그의 운영철학이 드러난다. 뼈국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뼈를 대부분 수입산으로 사용하지만 그의 가게는 반드시 국산 등뼈만을 고집한다.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 나지만 우리 입맛에 맞고 건강한 식재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다른 밑반찬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송순이 대표(2대)의 친가에서 직접 기른 채



[김유순 대표의 신문기사 – 뼈국밥집 김유순 전대표의 신문기사와 송순이 현 대표의 신문기사가 함께 걸려있다.]

소를 기반으로 한다.

뼈국밥과 함께 나가는 밥 또한 한꺼번에 지어 보온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10~15인분만 지어 사기 밥그릇에 가득 퍼 담아 내놓는다. 이 식당의 독특한 점은 밥의 양이 사장님 마음대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바깥일을 하는 사람들,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에게는 고봉으로 밥을 담아준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밥도 양이 절대로 적은 것은 아니다.

뼈국밥에 들어가는 정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다. 장사 전날 애벌로 삶아놓은 뼈를 사용하는데 10시에 가게를 열지만 당일 7시부터 가게에 나가 뼈를 삶는다. 그리고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뚝배기에 담아 또 한 번 양념과 함께 끓여 뜨끈하게 대접한다.



[뼈국밥집의 대표 메뉴인 뼈국밥 – 뼈국밥과 갓지은 콩밥, 4가지 반찬(깍두기와 김은 항상 기본으로 나가고 2가지 반찬은 제철에 맞게 자라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어 나간다.), 새우젓 무침이 제공된다.]



[후식으로 나오는 누릉지탕]

뼈국밥과 함께 먹는 새우젓 무침이 별미인데 이 맛을 잊지 못해 포장해가거나 전국에서 택배로 주문해서 배달을 시키기도 한다. 송순이 대표(2대)는 이 새우젓이 자신보다 더 출세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손님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이 새우젓을 사서 비행기를 태우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다.

이 새우젓 또한 김유순 대표의 노하우가 담겨있다. 새우젓을 무칠 때 마른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고추를 빻을 때 물과 함께 넣은 물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그 맛을 더한다고 한다. 새우젓과 함께 파는 곤쟁이 젓이라는 것이 있는데 곤쟁이는 새우젓보다 훨씬 작은 새우로 담그는 젓을 말한다. 요즘에는 그 어획량이 적어 자주 담글 수 없다고 하는데 주로 봄철 꽃게와 실치가 나올 시기에 잡힌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김유순 대표를 '뻐꾸기 아줌마'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뼈해장국이 아니라 뼈국밥, 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메뉴 때문에 생긴 별명인데 뼈국밥, 뼈국밥을 이어서 편하게 부르다가 뻐꾸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뼈국밥집도 뻐꾸기 둥지가 된 것이다. 김유순 대표의 넉넉한 인심을 따뜻하게 느껴주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별명이다.

김유순 대표가 구술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재차, 삼차 그 이상 강조한 것이 뚝배기를 세척하는 방식이다. 세제를 잔뜩 풀어 뚝배기를 닦으면 지금 당장은 광이 나고 뽀득뽀득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뚝배기 안에 베어 있던 주방세제가 음식을 끓일 때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뼈국밥집의 뚝배기는 세제를 사용해서 닦지 않는다.

뼈국밥집은 손님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음식의 기본인 맛에 집중한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들이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져 지금의 뼈국밥집이 만들어진 것이다.

2대째 이어가는 인심, 뻐꾸기 둥지의 미래

한창 때 김유순 대표는 당진시장에서 재료를 직접 사서 식당까지 운반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고 20kg이 넘어가는 돼지 등뼈를 실어서 식당까지 오곤 했다. 건강하게 80세까지는 너끈하게 식당을 운영할 줄 알았으나, 어느 날부터 인가 쟁반을 들고 걸음을 떼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거운 짐을 들면서 고생을 해서인지, 고관절이 닳아 무릎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75세에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식당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보험회사에 다니며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던 며느리 송순이 대표(2대)가 용기를 내어 일을 이어받게 되었다.



[뼈국밥 집 주방 모습]



[뼈국밥집의 송순이 현 대표]

※ 손님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대기자 명단과 화구 가득 올려져 있는 뼈국밥을 통해 여전한 손님들의 뼈국밥집 사랑을 느낄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김치는 김유순 대표가 담고 있지만, 요즘에는 며느리를 믿고, 다른 식당의 일을 모두 맡기고 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어머니가 훌륭하게 이룩해 놓은 뼈국밥집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인심을 잃지 않고 더 오랫동안 꾸준히 손님들과 함께 하는 뼈국밥집이 되길 기대한다.

<인터뷰어 박찬렬, 스토리텔러 박찬렬>

심 중 섭 (1962년생)
당진시 원당골길

사랑과 정성이 담긴 당진의 대표 브랜드 '독일빵집'



당진의 대표 브랜드 – 독일빵집

독일빵집은 당진의 몇 안 되는 대표 브랜드이다. '꽈배기'는 독일빵집의 상징이다. 당진의 심벌인 '해나루'를 붙여서 '해나루 꽈배기'가 되었다. '꽈배기'를 찾는 손님이 한 해에 17만 명이고, 팔린 꽈배기가 무려 100만 개를 넘는다고 하니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하루 5,000개는 기본으로 팔려나가는데, 손님들이 갓 구운 꽈배기를 사기 위해 2~3시간 줄 서는 것은 기본이다. '백년가게'라는 명칭과 국가 공인 '명인' 칭호의 주인공은 바로 심중섭(沈仲燮) 사장이다.

중학교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심중섭 씨는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細橋里) 출신이다. 아버지는 청송 심 씨 심상호이고, 어머니는 조태근이다. 그는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시골 살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리도 못살았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지만, 자신의 땅을 경작하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의 땅을 도지(소작) 얻어 근근이 생활하였다. 가난은 고스란히 4형제에 떠밀려와서 그의 형과 그는 중학교까지만 졸업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형편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았다. 10대 어린아이가 잔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곳, 빵집이었다. 사람이 비었으니 얼른 가보라고 했다. 처음 간 곳은 천안의 '태극당' 빵집이었다. 천안은 옛날부터 제빵의 도시였다. '호두과자'가 이미 천안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



['독일베이커리'의 현재모습]

었다. 구술자가 한때 가고 싶었던 '학화 호두과자'도 현재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빵과의 만남은 구술자의 운명이 되었다.

심중섭 씨는 빵 기술을 익히는 데 온 힘을 쏟았다. 1년 정도 지나자 주변에서는 '서울로 올라가 본격적인 기술을 익혀라'라고 강권하였다. 그 길로 상경하였고, 서울 종로구 원남동의 '파리제과'에 취직하게 되었다. 심중섭 씨의 후배가 일본에 가서 '생크림 케이크'제빵 기술을 익히고 돌아왔을 때, 그는 후배 밑에 가서 케이크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그 결과 '생크림 케이크' 제빵의 국내 2인자가 되었다.

중학교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심중섭 씨가 당진과 연을 맺은 것은 우연한 기회 때문이었다. 서울에 근무하는 제과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고, 잠깐의 틈을 이용해 지인의 권유로 당진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당시의 당진은 비포장의 먼지 도시였다. 외부인이 살기에 너무 열악했다. 약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라면, 당진을 떠나 대도시로 나가고자 애썼다. 심중섭 씨도 빵집에서의 일과가 끝나면 집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장사가 너무 잘되었기 때문이다. 구술자의 마음과 달리 고용주는 곧 떠날 심중섭 씨 때문에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퇴근 시간만 되면 고용주가 사라졌다. 하루 품삯을 계산해야 할 저녁 시간이 되면, 고용주는 내일 보자며 슬그머니 없어졌다. 항의해보기도 하고, 사정해보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



[독일빵집 신터미널점]

갔고, 엉거주춤하게 정착 아닌 정착하는 형태가 돼버렸다. 가게 이름은 '스위스 제과'였다.

장사는 매우 잘 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당진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고, 당진군청 앞이라는 위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새벽 출근 시간, 4시 30분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원이 되었다.

소소한 이야기지만, 빵 낱개 하나하나마다 비닐 포장을 한 것도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빵은 판 위에 쌓아두듯 했다. 소비자는 집게를 이용하여 빵을 접시에 옮겼다. 하지만, 구술자의 방식대로 낱개마다 비닐 포장을 하니 청결성은 더해지고 소비자의 맛에 대한 믿음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그의 제빵사업이 늘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크라운베이커리를 인수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을 했다. 1980년대 크라운베이커리는 제빵업계의 대기업이었다. 수많은 곳에 대리점을 두고 있었고, 당진에도 옛 군청청사 앞에 매장을 두고 있었다. 심중섭 씨는 골목 상점에서 벗어나 커다란 매장을 갖춘 대기업의 대리점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덤으로 끼워주기가 안된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빵을 구울 때는 소비자에게 한두 개는 기본으로 얹어 주었다. 하지만, 체인점을 운영하니 모든 것이 값을 계산하고 사오는 것이었다. 한 개를 팔면 판 값의 몇 프로를 이익으로 남기는 방식이었다. 덤으로 얹어 주면 그만큼 손해였다. 크라운베이커리의 경영은 단 2년 만에 끝났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잦은 이사도 제빵 사업의 어려움이었다. 어디에 매장을 열어도 늘 사업은 잘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매장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 어김없이 건물주가 나타나 매장을 비워달라고 했다. 건물주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2년 5월 자신의 건물을 마련하여 '독일 베이커리'를 열었다.

드디어 '독일빵집'으로, 본격적으로 '꽈배기'를 만들다

'독일빵집'의 명칭은 '스위스 제과'에서 분가하면서 지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서울에서 일했던 빵집의 이름이었다. 유럽의 빵집들이 역사가 깊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우리말 발음이 쉽고 살갑게 다가오는 느낌이 좋기도 했다.

'독일빵집'이 당진지역 주민에게 어필했던 시기는 구 터미널 로터리에 있을 때였다. 이때

부터 '꽈배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때는 심중섭 씨가 크라운베이커리를 운영하다가 실패를 맛본 직후였다. 자본금이 크게 부족하여 대로변에 매장을 구할 수 없어서 구 터미널 로터리 골목에 상가를 임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를 보고'미쳤다'라고 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성공의 발판을 닦게 되었다.

구 터미널 로터리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었다. 남녀노소 장에서 일을 본 주민들은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집에 남은 식구들의 간식으로 먹일 수 있는 과자나 빵들이다. 이에 심중섭 씨는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왔던'꽈배기'를 생각했다.

당시 '꽈배기'는 하나에 500원이었다. 심중섭 씨는 '꽈배기'의 주성분을 밀가루에서 쌀가루로 바꿔나갔고, 숙성 방법도 물이 아닌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종류도 다양하게 개발하였다. 오징어 먹물 꽈배기, 흑임자 꽈배기, 꿀 꽈배기, 옥수수 꽈배기, 찹쌀 꽈배기, 생크림 꽈배기 등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당진의 브랜드인 '해나루'를 붙였다. '해나루 꽈배기'는 점차 장에 나온 주민의 인기 품목이 되어갔다.

신터미널에 정착, '생활의 달인', '서민갑부' 방송에 출연

그러나 이번에도 구 터미널의 행운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로터리가 만들어지면서 골목에 있던 빵집이 노변에 나오게 되었고, 매상이 크게 오른 만큼 매장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건물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구술자는 새로운 매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SBS '생활의 달인'에 방영된 구술자의 모습]

새롭게 등장한 곳이 신 터미널 로뎀타워의 상가였다. 하지만, 심중섭 씨에게 들려오는 신터미널 상가는 매력적이지 못했다.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데다가 터미널 건널목에는 대형 빵 체인점이 두 개나 들어와 성업 중이었다. 하지만 구 터미널 독일빵집을 기억한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냈고, 점차 소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17년이었다. SBS에서 '생활의 달인'을 촬영하게 된 것이다. 촬영은 1박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어렵게 방영된 다음 날 새벽, 어느 날과 같이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수십 대의 승용차들이 매장 주변 도로변을 빼곡히 감싸고 있었다. 그가 매장문을 열고 전등을 켜는 순간, 승용차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손님이 매장 앞에 줄을 섰다. 이들은 TV에 방영된 '꽈배기'를 사기 위해 매장이 열리기만 고대하며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채널A에서 방영된 '서민갑부'였다. '서민갑부'에 출연한 뒤 또 한 번의 판매고 경신을 이루게 되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만들어진 '꽈배기'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몰려왔다. 한때 제한된 생산량을 나누기 위해 1인당 6개씩 한정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꽈배기'를 새롭게 구매한 소비자는 연간 17만 명에 이른다. 카드 단말기에 새롭게 등록한 인원만 고려한 것이다. 한 번이라도 재구입한 소비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비자는 가늠할 수 없다.

'독일베이커리' 매장을 기반으로 미래를 기약

심중섭 씨는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 갓 구운 빵과 음료를 먹는 베이커리 카페를 구상하였다. 그러한 꿈을 실현시킬 장소로 현재의 '독일 베이커리'를 열게 되었다. 당진 청구아파트 앞에 있는 이곳은 넓은 주차장에 넓은 매장, 그리고 카페를 겸하고 있다.



[독일베이커리 안에 진열된 상장과 감사패들]

'독일빵집'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 명칭을 부여받았고, 아울러 국가 공인'명인'에도 선정되었다. '백년가게' 명칭은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가게를 인증하는 것이다. 심중섭 씨는 이러한 '백년가게', '명인'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빵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특허제품인 '청삼빵', '청삼 쿠키세트', '구운 찹쌀떡'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 계획 이다.

심중섭 씨는 대한적십자사 당진지사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에도 14년째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도 병행한다.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한다.

<인터뷰어 김남석, 스토리텔러 김남석>

당진시

당진의 오래된 가게

안 명 수 (1948년생)
당진시 당진중앙1로

당진의 대표 서점 '당진서점'



당진의 대표 서점 – 당진서점

당진서점은 당진시내 대표 서점이다. 예전에는 읍내만 하여도 몇몇 서점이 있었고, 다른 읍면에도 여러 군데 서점이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지고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서점은 급격히 약화하였다. 서점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서점도 하나 둘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는 서점이 있다. '오래된 가게'로 선정된, 대표 서점, 당진서점이다. 운영자는 안명수(安明壽) 씨다.

송산면 오도에서 태어나다 – 오도항의 추억

안명수 씨는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오도에서 태어났다. 1948년생이니, 올해가 76세다. 관향은 광주(廣州)인데, 석문면 삼화리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안종목, 어머니는 이상원이다. 삼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지금도 형님과 동생은 오도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오도항에 대한 그의 추억은 각별하다. 일제강점기 이래로 오도항은 당진의 관문으로서 '당진항'이라 불렸다. 당진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오도항을 통해 인천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경인선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갔다.

여객선은 당진에서 생산되는 미곡은 물론, 150여 명에 이르는 여객을 실어 날랐다. 배는 하루에 한 번씩 출입하였다. 오도항을 떠난 배는 보덕포에 잠시 들러 여객을 실었고, 풍도를 지나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 도달하였다. 여객선은 석문방조제가 건설되기 직전인 1980



[당진축항준공기념비(오도마을회관앞)]

년대까지 운영되었다.

안명수 씨가 특별히 기억하는 부분은 '노조'였다. 오도에서 출항하는 배에는 많은 미곡을 실었다. 쌀은 선착장 인근에 세워진 창고에 보관되었고, 마차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깨에 얹혀 배로 옮겨졌다. 선착장에서 배 사이에는 널판이 기대어지고, 노동자들은 좁은 널판을 통해 배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균형을 잡지 못한 노동자들은 쌀을 바닷물에 빠트렸고, 때로는 노동자도 함께 빠지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 책임과 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조'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되었다. 노조는 35명 내외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시 노조 기금으로 변상하였고, 물에 빠진 쌀은 잘 말려 나누어 먹었다. 오도의 선착장 주변에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103호가 거주하였다.

사회진출 – 건설회사에서

1979년 10월 삽교천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정부에서는 용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많은 업체가 이에 참여하였는데, 안명수 씨는 1982년경 율산 건설에 취업하였다. 공사 구간은 송산면 도문리, 송산중학교 부근에서 시작하여 우두리를 거쳐 고대면 용두리과 슬항리까지였다. 당진천을 지날 때는 하천 아래로 채굴하여 물을 보냈다. 이 물은 농업용수로서, 고대면과 석문면의 모내기 철에는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이후에도 많은 기간 동안 건설회사 사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당진서점의 시작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슈퍼를 개업하게 되었다. 가게 이름은 '삼지사'로 하였다. 슬하에 3남매가 있는데 '지'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슈퍼는 예전의 계성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있었다. 그는 읍내 서점의 책을 사다가 가게에서 팔았는데 이때 책을 처음 만났다.

애당초 당진서점은 이환욱이 운영하였다. 그는 구술자의 학교 1년 후배였다. 그러던 후

배가 당진서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매각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명수 씨는 서점을 인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세 자녀가 책을 너무 좋아했고 당진 교육계에서 근무하던 친구들도 많이 지원해 주었다. 그 결과 당진서점은 정식으로 인수되었고, 1988년 11월 1일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당진서점의 위치는 원래 성모병원 맞은편이었다. 인수 이듬해인 1989년에 산림조합으로 왔다. 산림조합이 건물을 지으면서 아래층을 임대로 내놨기 때문이다. 그 후 수협 창고를 입찰형식으로 매입하면서 현재의 '당진서점'이 자리를 잡았다.

당진의 유일한 서점으로

당진서점의 초창기 운영은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재와 참고서를 판매해야 이윤이 좋았다. 하지만, 대형 출판사가 주요 교과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은 기존의 당진지역 서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림'이라는 음악교재 전문 출판사가 검인정으로 영어교과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의 판매권을 얻어내면서 상황이 점차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당진지역 11개 중학교 가운데 5개 중학교에 교과서를 납품하게 되었고, 동시에 참고서도 판매할 수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점차 판매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EBS 교재를 취급한 것은 당진서점의 큰 수확이었다. 고등학교의 수학능력시험에서 EBS의 비중이 커져 갔고, 점차 모든 고등학교에서 교육방송 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판매 지역도 확대하여, 당진을 벗어나 서산과 태안까지 넓혀나가게 되었다.

현재도 안명수 씨는 초등학교 인정교과서를 취급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판매 영역은 당진을 넘어, 부여, 서천, 태안, 보령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사업 확대는 당진서점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서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실정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터넷 강의가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서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 대부분이 통신판매를 이용하고 있다. 대형 학원에서는 회원제를 만들어 강의와 교재를 공급하고 있다. 지방의 중소 도시에 남아 있는 서점이 활동할 공간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서관이 확충되면

서 각 지자체에서는 도서 확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서점은 이러한 도서 확보 사업에 참여하여 도서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일명 '유령회사'와 같은 서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명목상의 서점으로, 각종 도서 구입 입찰에 참여하여 당진서점의 설 자리가 다소 줄어들기도 하였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서점은 크게 감소하였다. 9,000여 개를 넘던 서점이 절반 수준인 5,000여 개로 줄었으니 말이다. 안명수 씨에게 서점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다.

당진서점의 미래와 사회봉사

현재 당진서점의 운영은 안명수 씨의 딸과 사위가 맡고 있다. 딸인 안지민 씨는 복자여고를 나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직원도 5명이나 된다. 긍정적인 것은 직원들이 당진서점의 미래를 결코 어둡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안지민 씨는 서점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애쓴다.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서점을 북카페와 도서관의 기능을 접목해 다양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현재의 당진서점의 2층을 개조하여 독서동아리 토론 공간으로 재편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당진서점의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부지도 마련되었다. 호서중학교 정문 앞이다. 이곳의 부지를 활용해 넓은 주차장을 갖춘 색다른 서점을 건축할 구상이



[당진서점의 내부 모습]

다. 이곳의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도서관과 카페, 서점의 기능을 중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명수 씨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작고하신 부모님은 늘 '이웃을 돕자'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구술자는 2004년 이래로 장애인을 후원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후원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과 청소년 상담, 장학금 지원들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장애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주기적으로 '한빛공동체'어린이들을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 것도 큰 기쁨 중의 하나다. 2004년 제17회 군민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구술자가 선정된 것도 구술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작은 보상 중의 하나이다.

<인터뷰어 김남석, 스토리텔러 김남석>

당진시

당진의 오래된 가게

오 명 숙 (1964년생)
당진시 원당동

민속떡집, '잇담'으로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다



당진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 서울에서 성장하다.

오명숙 씨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635번지에서 1964년(실제 1961년생) 2남 3녀 중 둘째로 출생하였고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서울시 북아현동으로 이사하였다. 아현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북성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더 이상은 진학하지 못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중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했다.

당진으로의 귀향과 결혼

오명숙 씨는 당진 읍내에서 슈퍼를 운영하시던 외삼촌을 도와드리며 2년간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1984년 결혼 후, 뜨개질, 구슬 꿰기, 반찬 만들기 등 부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림을 꾸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음식솜씨가 점차 소문이 나면서 배추김치와 만두 등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부업이 나중에는 이웃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권유로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부업으로 하던 일이 주업이 되다.

그의 외할머니는 종가집 맏며느리로 음식솜씨가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안의 제사 때 정갈한 음식을 지성으로 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에서 잔치라도 있을라치면 여기 저기 불려 다닐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였다. 외할머니의 훌륭한 음식솜씨를 물려받은 친정어머니도 구술자의 폐백 음식을 손수 다 만들어줄 정도로 솜씨가 뛰어났다. 오명숙 씨 역시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음식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란 덕에 시아버님 회갑 때에는 갖가지 음식을 혼자서 다 시연해 낼 정도로 남다른 음식솜씨를 이어받았다.

그가 부업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에 보태던 중에 당진 시장의 해장국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안 사정도 사정이거니와 주위의 적극적인 권유로 생각지도 않게 떡집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래 밑천이 부족했던 오명숙 씨는 스스로 계주가 되어 세 개의 계를 모아 3천만 원을 장만하였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친구들이며 시아주버니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충당하였다. 1994년, 그렇게 총 5천만 원을 모아 떡 가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7평에서 14평의 꿈이 실현되다.

좁은 가게에서 떡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때마침 옆에서 장사를 하던 이불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그 점포까지 세를 얻어서 벽을 허물고 14평의 가게로 확장하였다.

당시 오명숙 씨가 장사하던 민속떡집 앞에는 새벽부터 늘어서서 반찬거리를 파는 제자(저자에 온 사투리-필자)보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초보자였던 오명숙 씨는 처음으로 만들어 시연하는 떡들이 팔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자 할머니들에게 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분들의 허기를 채워드렸다.

학교 급식과 말떡의 납품 그리고 떡을 사 먹는 문화가 시작되다.

떡집의 매출은 날마다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평일과 5일장이 열리는 날에도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떡이 수요의 변동이 큰 상품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떡이 학교로 납품되고 특히 주말에 예식장을 중심으로 혼주들이 말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결혼식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고 예식장에서는 식사가 뷔페로 바뀌면서 떡집의 주말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989년 당진에 한보철강이 건립되면서부터 소매떡이라는 문화가 다시 생기고 선물용 혹은 답례용으로 떡을 나누어주는 문화까지 생겨나자 매출의 신장은 물론 떡의 종류도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기도 2019년 코로나 사태로 매출의 급감하면서 끝나고 말았다.

쑥왕송편 등 다양한 떡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다.

떡집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주로 인절미나 증편이 말떡으로 잘 팔려 나갔다. 때문에 오명숙 씨는 매일 매일 신선한 쑥을 구입하고 삶고, 찌고, 떡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이었다. 그러나 빈틈없이 납품 기일을 엄수하여 만들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여 오명숙 씨는 당진 최초로 커다란 냉장고를 구입하여 쑥을 삶아서 대량으로 냉동을 시켰다가 쓰기 시작했다.

송편도 만들자마자 급랭을 시켜 냉장고에 저장했으며 매매 당일 바로 쪄내서 파는 형태로 제작과 판매 방법을 전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떡의 재료가 숙성되어서 훨씬 더 쫄깃하고 풍미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속떡집에서 처음 만들어 팔았던 떡은'엄마 손 개떡'이란 이름으로 판매되었는데 종래는 쑥만 넣어서 찐 순 개떡이었다. 그러나 오명숙 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강낭콩을 넣은 개떡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강낭콩 뿐만 아니라 서리태 콩까지 넣은 개떡도 만들어 판매하였다.

이렇게 시작되어 탄생한 떡이 바로 지금의 '쑥왕송편'이다. 당진의 특색을 살려 출시된 왕송편은 이웃 '당진떡집'에서 동부를 넣어 판매하던 상품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오명숙 씨는 여기에도 아이디어를 더해 왕송편과 차별화한 쑥왕송편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쑥왕송편이 'KBS 6시 내고향'에 소개되면서 당진을 대표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떡을 화두로 학구열을 불태우다.

오명숙 씨는 떡의 어원이 '덕(德)'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문헌을 제시하며 떡은 본래 나누어 먹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도 주장한다. 때문에 그는 '떡의 나눔'이라는 것을 화두로 잡고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학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청운대학교에서 조리식당경영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떡에 관한 실험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졸업 이후에는 관동대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조리외식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졸업논문으로는 '떡 전문점의 스마트 시스템이 고객 만족과 신뢰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다.

그의 딸과 아들 역시 현재 민속떡집을 함께 운영하며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학위를 마치고 딸은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당진쌀로 '좋은 떡' 만들기

오명숙 씨는'맛있는 떡을 넘어서 좋은 떡'을 목표로 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떡'이란 좋은 재료로 만든 떡이다. 그 때문에 오명숙 씨는 당진에서 생산되는 쌀만을 재료로 사용한다.

또한 오명숙 씨는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예쁜 떡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이들의 입맛과 영양에 충실한 떡을 제공하고 이들이 어려서부터 떡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오명숙 씨는 이러한 기회를 자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대한명장'을 향하여 '잇담'으로 힘찬 재도약을 시작하다.

오명숙 씨는 2015년에 처음으로 신지식인에 선발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협회에서 인정한 명장이 되었고 2013년에는 충청남도에서 또다시 명장으로 인정받아 명실공히 명장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노동부에서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발되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대한 명장'이 되는 것이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민속떡집은 당진의 몇 안되는 '백년 가게'로 인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의무까지 생겼다. 때문에 오명숙 씨는 늘 딸과 아들에게 '당진에서 꼭 필요한 가게'는 물론이고 꼭 100년을 가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오명숙 씨는 '떡박물관' 혹은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가게 옆에 새로운 건물을 올렸다. 또한 '잇담'이라는 획기적인 브랜드를 새롭게 등록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였다. 이는 민속떡집이라는 지금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브랜드로 퀄리티 높은 좋은 떡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남다른 각오 때문이다.

<인터뷰어 장수덕, 스토리텔러 장수덕>

오 봉 섭 (1943년생)
당진시 시장서길

80 평생을 오롯이 한길만 걷다



80 평생을 오롯이 한길만 걷다 – 송산기계공구

당진에는 기계 수리의 명인이 있다. 당진에서 오래 농사짓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를 안다. 고장 난 어떠한 기계도 그의 손을 거치면 새것이 된다. 그는 예초기, 엔진 톱, 양수기, 잔디 깎기, 전동공구의 전문가, '송산기계공구'를 운영하는 오봉섭 씨다.

1943년생이니 올해 만 81세다. 가계는 1982년 7월 25일에 오픈했으니, 벌써 햇수로만 42년이 되었다. 한참 농업에 기계화가 시작되던 시기다. 농사짓는 곳곳에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가 보급되었지만, 그만큼 고장이 빈번하여 농민의 속을 태우던 시기였다. 이럴 때 농민들은 고장 난 기계를 들고 송산 기계 공구를 찾았다. 그리고 오봉섭 씨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난 기계 소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농민들은 오봉섭 씨의 기계작동 주의사항을 귀담아듣고 돌아갔다. 기계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요즘, 오봉섭 씨는 농민의 필수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가히'마이더스의 손'이라 하겠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영어 단어 외우며 학교에 다니다.

오봉섭 씨는 당진시 송산면 송석리 79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오덕근(吳德根)이고 어머니는 한숙영이다. 이곳은 해주 오 씨 집성촌으로, 한때는 20여 호가 살았다. 옛날 대부분의 농가가 어려웠듯이, 오봉섭 씨도 유복한 편은 아니었다. 그나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한 덕에 굶지 않고 살 수는 있었다. 그러나 제삿날에도 쌀밥은 먹을 수 없었다. 게다가 끊임없이 정미소에서 일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했다.

그는 송산초등학교와 송악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가는 것이 일종의 탈출구이기도 하였다. 송악면 가학리에 있는 송악중학교에 다닐 때는 영어단어를 30개씩 종이에 써서 외우고 다녔다. 하교 길에는 길가 초가 교회에 들어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돌아오곤 하였다. 집에 오면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력은 중학교로 마감되었다. 당진상업고등학교(현 당진정보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공부는 더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소 좋아했던 영어 공부도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갈증은 군대 생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카투사에서 복무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해외여행 가든지, 외국인을 만나면 늘 자신이 있다.

그렇게 송석리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아이들 자라면서 교육 문제 때문에 읍내로 나와야 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서길 41-1'에 터를 마련하여 가게를 내게 되었다. 오봉섭 씨가 만 39세 때의 일이다.

정미소와 미군 부대에서 익힌 기술로 가게를 내다

오봉섭 씨가 기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차분함이라는 천성과 세밀한 탐구생활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환경적인 탓도 크다. 그것은 정미소를 운영한 경력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미소만큼 많은 기계를 보유한 곳도 없었다. 일종의 공장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계를 알았다.

군대 생활도 그에게 기계에 대한 지식을 강화해 주었다. 미군 부대에 입대했는데, 실제로 주한미군의 학력은 매우 낮았다. 각종 기계에 대한 미군의 대응 능력도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 오봉섭 씨는 이곳에서 수많은 기계를 고쳤다.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도 있었다. 그 덕에 훈련 나간 도중에 타고 간 트럭이 고장 났을 때, 이 트럭을 수십 일에 걸쳐 수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엔진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차량 정비교육을 담당할 정도로 기계에 대한 식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추후 기계 공구점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송산기계공구(당진시 시장서길 41-1)]

1982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상호는 '송산철물점'이었다. 이때 농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였다. 그 후 상호를 '송산 기계 공구'로 변경하였다. 본격적인 기계를 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는 농기구에 엔진을 연결해 쓰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엔진 수리에 대한 전문점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여도 엔진을 고치기는 쉽지 않았다. 엔진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던 시기였다. 오봉섭 씨는 점차 당진지역 엔진 수리의 일인자로 자리매김해갔다.

고장 난 기계는 완벽히 새것으로

그의 기술력은 많은 농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여러 곳에서 수리를 포기한 농기계를 들고 온 농민도 있었다. 그 농민은 다섯 번째 와서야 고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얼마 전에는 고대면 용두리에 사시는 분이 쌀 한 포대를 놓고 갔다. 웬 쌀이냐고 물으니 못 쓰던 기계를 고쳐줘서 고마워서 그런다고 했다. 최근에는 합덕소방서에서도 기계톱을 갖고 와서 수리를 해 달라기에 새것처럼 고쳐줬다.

오봉섭 씨는 고장 난 기계를 들고 온 이들에게 사용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이들은 기계를 단순히 수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고쳐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연로함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제발 돌아가시지 말라'고.

오봉섭 씨의 가게 운영에 특별한 철학은 없다. 그저 정직하게 살고 큰 욕심이나 내지 말자는 것이다. 누구나 가게를 열면 큰 부자를 꿈꾼다. 하지만, 그는 많은 돈을 벌 생각이 없다. 늘 적정 수준에서 수리비를 요구한다. 기계 부속 값에 불과한 수리비에 많은 농민은 또 한 번 고마워한다.

그의 가게는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다. 가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어깨를 틀어야 한다. 한 발짝의 이동을 위해서 무수한 부품을 발로 밀쳐내야 한다. 하지만, 오봉섭 씨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도구 속에서 정확한 물품을 집어낸다. 수많은 벨트와 나사, 못, 그리고 다양한 연장들, 오봉섭 씨는 그곳에 평생의 열정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부품들은 그의 손을 거쳐 새로운 기계를 만나게 되면 강력한 에너

지를 뿜어내게 된다. 오봉섭 씨는 고장난 기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터뷰어 김남석, 스토리텔러 김남석>

당진시

당진의 오래된 가게

이 영 애 (1958년생)
당진시 서문2길

어머니의 손재주를 나누며 당진을 지켜온, '영의상실'



당진에서 나고 자란 평생 토박이

이영애 씨는 1958년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서 태어났다. 현재 영의상실이 있는 곳도 읍내동인데 태어나서 주 거주지가 거의 바뀌지 않고 읍내동 일대에서만 산 당진시 읍내동 토박이이다. 1958년 당진군청 앞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옛 군청 옆으로 조금 이사했을 뿐이다. 이영애 씨는 당진 읍내 변화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애 씨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이다. 그가 당진국민학교를 다닐 때의 기억으로는 학년당 8~9개 학급이 있었고 한 반에는 60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으며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 학구열이 높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였다고 한다.

이영애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의상실을 하는 이모님 댁으로 가서 바느질, 미싱 기술을 배웠다. 이때가 당진을 떠나 있었던 최초의 시기이다.

방학때 놀러갔던 이모님의 의상실과의 만남이 지금의 영의상실의 토대

이영애 씨는 고등학교 방학시절 이모 댁으로 자주 놀러 갔다. 방학 때 이모의 일을 도와주면 이모가 방학이 끝날 때 옷을 몇 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당시 기성복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모가 맞춰준 나팔 청바지, 코트 등으로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었다.



[맞춤옷 가게들이 늘어선 예전 당진 읍내의 모습]

※ 현재는 골목 안쪽으로 의상실 위치가 조금 이전되었지만 예전에는 골목 들어오는 코너에 바로 위치해 있었던 시절의 모습, 주변을 살펴보면 ○○양복집, ○○라사 등 많은 맞춤옷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 당진 읍내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그의 양친 모두가 손재주가 있어서인지 이영애 씨도 이모가 운영하는 의상실 일이 손에 잘 맞았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미싱 기술을 연마했고 이모의 미싱사가 아파서 갑자기 일이 밀렸을 때 실력을 뽐내 이모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모가 시집을 가게 되어 이영애 씨에게 의상실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타지 생활에 겁이 나 예산에 있는 의상실을 물려받지는 못했다. 대신 당진으로 돌아와 지금 당진 제2교 근처에 자리를 얻어 의상실을 열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의상실을 옮기게 되었다.

읍내에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운영된 영의상실

당진 읍내에 의상실이 많을 때에는 옷을 만드는 원단을 사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다. 옷감을 주문하면 바로 배달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문하는 옷감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냈어야 했지만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 이틀 이내로 배달해 주었기 때문에 일하기에는 더없이 편안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성복 옷가게에 밀려 의상실, 라사, 양장점, 양복점들이 서서히 문을 닫자 옷감과 부자재를 구입하러 서울까지 직접 올라가야 했다. 옷감을 가서 고르고 부자재까지 사서 내려오는 날이면 새벽같이 하루를 시작해 밤이 되어야 당진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서 아주 고된 하루였다. 요즘엔 택배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원단을 사러 직접 서울까지 가는 일이 없고 직접 원단 유통사와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욱 편해졌다.



[영의상실 내부]

의상실의 최고 호황기는 한보철강이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토지매입 보상금이 주어지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토지매입보상금을 지급받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옷을 주문을 하면 같은 디자인의 옷을 다양한 색으로 맞춰 갔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좋았다.

당시 옷을 주문하는 방식은 원단 회사에서 옷가게로 옷 카달로그를 보내주면 의상실에서는 그 카달로그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형태였다. 물론 기성복과는 다른 것이 손님의 체형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기술은 의상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에서 단골을 만들지 한 번 거쳐 가는 손님이 될지가 판가름 났다.

이영애 씨는 손재주와 섬세한 상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온 손님은 반드시 단골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옷을 모두 잘 만들 수 있었지만 주로 여성복을 맞춤 제작하였고, 아끼는 옷들을 수선하여 다시 입을 수 있게 고쳐주는 일에도 보람을 느꼈다.

대기업들이 교복시장을 점령하기 전에는 학교의 교복이나 유치원 원복을 맞추는 일도 했었는데 육아와 살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 두 달에 걸쳐서 빠르게 많은 양의 옷을 맞춰서 납품해야 하는 교복일은 자주 하지 않았다.

의상실을 하며 다양한 버릇이 생겼는데 옷을 볼 때 예쁜 옷을 보기보다 '예전에 비해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다리를 많이 써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게 되었



[대표의 오랜 친구 미싱]



[다리미와 다림판]

※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미싱과 다리미, 다림판처럼 이영애 대표는여전히 의상실에서 자리를 지키고 단골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고 수선하고 있다.

다. 하지만 이영애 씨는 의상실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손재주를 나누는 따뜻한 영의상실

이영애 씨는 자신의 손재주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의상실을 찾은 몸이 불편한 손님에게 옷을 맞춰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손님이 직접 옷을 수선하여 입을 수 있도록 수선 기술을 알려주기도 할 정도로 베푸는 마음 또한 일품이다.

한번은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남루한 여성이 고향에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손님의 옷을 맞춰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향에 있는 엄마를 위해 원피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다. 이 일로 인연이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의상실의 일은 손재주로 하는 것이지만 손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려주고 정성으로 대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영애 씨의 마음이다. 믿음으로 손님을 대하여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한 번 찾아오면 잊을 수 없는 단골이 되는 경우를 보면 그의 정성이 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과 직업병

영의상실 이영애 씨는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이 높았다.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은 직업병과도 연관이 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길을 걸어갈 때 이영애 씨가 바라보는 관점



[이영애 대표가 제작한 의상]

※ 이영애 대표가 제작한 옷들이 한가득 걸려있는 옷걸이를 보면 여전히 의상실의 손님이 많은 것을 알 수있다.

은 남다르다. 그냥 예쁘고 멋진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분석을 한다. 저 옷의 디자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신이 다시 만든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지, 우리 단골손님의 체형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수선해야 할지 말이다.

또한 하나의 옷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접목하는 방식에도 일가견이 있다. 서로 다른 디자인의 옷을 섞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일이다. 얼핏 들으면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옷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도전은 사실 손님을 중심으로 둔 사고방식 때문이다.

옷은 옷 자체로 예뻐야 하는 것도 있지만, 걸려있을 때 예쁜 옷이 있고, 사람이 입었을 때 예쁜 옷이 있다. 옷걸이에 걸려 있고, 쇼윈도에 마네킹이 황금비율 몸매로 걸치고 있는 옷들은 어지간하면 다 예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손님이 그 옷을 걸쳤을 때이다. 각각의 손님 개별의 체형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서로 다른 옷을 섞다 보면 내 손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의 조합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영애 씨의 의상실 경영 슬로건이 '내가 만족할 때까지' 라고 한다. 손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라니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 손님의 몸에 딱 떨어지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그 손님이 지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영애 씨는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 영의상실을 몰라서 안와보신 손님들은 많아도 한 번만 왔다 가신 손님들은 많지 않다."

이영애 씨가 오래된 가위와 미싱, 다림판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오래되어 손에 착 달라붙고 내 몸과 같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의상실을 찾는 단골손님들도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이 그렇게 몸에 맞고 편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인터뷰어 박찬렬, 스토리텔러 박찬렬>

당진시

당진의 오래된 가게

이 종 수 (1962년생)
당진시 당진중앙2로

빛의 삼원색(三原色)을 더욱 선명하게 '정일칼라'



빛의 삼원색(三原色)을 더욱 선명하게 – 정일칼라

정일칼라 사장님은 이종수 씨다. 거의 평생을 사진기와 함께 살았다. 당진에 온 지도 30년이 넘는다. 그가 당진에 처음 왔을 때 사진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일사진관, 제일사진관, 대지사진관, 문화사진관 등등 여러 사진관이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사진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증명사진과 영정사진, 그리고 복원사진과 가족사진 부분에서 특화를 가져왔다.

영정사진은 삶을 정리해가는 노년층의 정신적인 편안함을 가져다주었고, 복원 사진은 예전의 잃어버린 추억까지 선명하게 되살려주는 기록의 역할을 하였다. 세월은 하염없이 흐르고, 뒤이어 환경도 변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덧댄 사람도 어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잊어버린 추억과 아련한 기억도 새로이 선명하게 살아난다. 오직 이종수 씨의 손을 통해서다.

어린 시절 – 카메라를 만나다.

이종수 씨는 서산시 팔봉면 출신이다. 지금은 폐교되었지만, 고성초등학교[1]를 나왔다.

아버지가 사과 과수원을 하였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팔봉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16살 때인가, 아버지께서 필름 카메라를 한 대 사 주셨다. 그는 친구들과 가족을 카메라에 담았고, 사진을 인화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눈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자연의 모습은 모두 그의 피사체(被寫體)가 되었다. 이종수 씨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는 대전으로 갔다. 그가 취업을 준비할 당시에는 사진을 유망직종으로 판단하였다. 이종수 씨는 사진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자, 인화 현상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첫 직장은 '대왕칼라'라는 사진현상소였다. 당시 대전에서도 컬러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곳은 '대왕칼라'와 '천광칼라'밖에 없었다. 대왕칼라의 규모가 더 컸다. 직원이 120명 정

1)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에 있던 공립초등학교로, 1934년 5월 10일 설립하였으나 2008년 3월 1일 팔봉초등학교에 통합되면서 폐교하였다.

도이니 지금의 중견기업 정도이다. 회사에서는 각지에서 필름을 수거해왔고, 칼라로 인화해서 돌려줬다. 당진지역에서는 칼라 인화가 불가능했다. 인화할 수 있는 기계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1989년 당진에 정착

군대를 제대한 이종수 씨는 사진관을 개업하고자 하였다. 서산시장 부근에 상가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외로 임대료가 비싸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한국 후지필름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당진에서 사진 기술자를 급히 구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당진에는 컬러 사진 현상소가 없었고, 주변에서도 사진 현상소 개설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이종수 씨는 큰 고민 없이 당진으로 달려왔다. 1989년 2월이었고,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상호는 '정일칼라'였다. 위치는 현재 '제주 보말 칼국수'가 있는 자리였다. 예전에는 이곳에 정일칼라, 세기다방, 합덕식당이 나란히 있었다.

당시, 당진에는 사진관이 꽤 많았다. 가장 오래된 사진관은 조일사진관과 제일사진관으로 추정된다. 언제 개업했는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곳 사장님들의 연세가 꽤 높기 때문이다. 조일사진관은 현재 당진 1동 동사무소 앞에 있다. 당진의 '백년가게'로 선정된 집이다. 제일사진관은 당진성당 초입의 반대쪽에 있었다. 사장님이 하다가 그 동생분이 운영하였고, 현재는 원래 사장님의 아들이 '하늘그림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그 외에도 구 터미널에 대지사진관, 초원예식장 부근에 대한사진관, 당진우체국에서 신



[정일칼라의 원경(공영주차장에서 촬영)]

성아파트 방향으로 평화사진관이 있었다. 평화사진관은 '로즈 스튜디오'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합덕읍은 물론, 면천면과 정미면에도 사진관이 있었다. 사진관은 인기 있는 가게였다.

이종수 씨가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은 1994년 1월경이었다. 당진에 온 지 5년 만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꽤 바쁘면서도 유망했다. 당시 사진 한 장을 인화하는데 250원에서 300원을 받았다. 필름 한 통을 맡기면 족히 5,000원을 넘겼다. 사진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종수 씨도 한때는 4~5명의 직원을 두고 일하였다. 현재는 1층만 운영하고 있지만, 한창 때는 3층을 촬영실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졸업이나 입학 시즌에는 '촬영 시즌'이라 하여 더할 나위 없이 바빴다. 5월의 가정의 달도 바쁜 시기였다. 정신없이 고된 일을 하였지만, 경제적 기반은 정비례하여 나날이 쌓여갔다.

전국 증명사진 촬영지정 스튜디오로

시대가 바뀌면서 카메라도 디지털화하였고, 사진을 촬영하는 동호인도 증가하였다. 특히 휴대폰의 카메라 성능이 발달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진을 인화하는 기구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또한 컴퓨터의 기능도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진화하면서 포토샵 기능도 발달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진관은 누구든지 개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 프로사진가협회에서는 일정한 시험을 부과하여 80점 이상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자격인증서와 회원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이종수 씨도 몇 년간이나 관련 서적을 탐구하며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소기의 성적으로 인증서를 취득하였고, '증명사진 촬영지정 스튜디오'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인증서를 보유한 사진관은 당진지역에서도 정일칼라를 비롯해 두어 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희소성이 있었다.

영정사진과 복원사진에 힘쓰는 정일칼라

이종수 씨는 최근 영정사진과 복원사진 같은 가족사진을 제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일칼라 내부 모습]

영정사진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품이다. 특히 할머니들은 아름다운 말년을 영정사진에 담고 싶어 하였다.

얼마 전에는 한쪽 눈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옛날 사진을 복원해 달라고 하였다. 연유를 물어보니, 현재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마음에 차지 않아 옛 사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종수 씨는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실제 모습을 촬영했다. 그리고 포토샵의 최신 기법을 활용해 깨끗하고 양쪽 눈이 선명한 영정사진을 제작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할머니는 며칠이 지난 뒤에 음료수를 내밀면서 재삼 고마워했다. 옛날 어른들은 수의(壽衣)를 마련하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였는데, 요즘 어른들은 영정(影幀)을 찍음으로써 마지막을 정리하는구나 싶었다.

복원사진은 말 그대로 옛날 사진을 되살리는 것이다. 오래된 사진은 상하기 마련이다. 세월이 덧씌워진 사진은 바래고 흐릿하다. 보관을 잘못해서인지 꺾인 사진도 있다. 어떤 경우는 덧유리에 붙어서 찢기기도 한다. 이종수 씨는 이런 사진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살려낸다. 사진현상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한 모습들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정성을 덧댄다. 모든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한 장의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정성이 가미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종수 씨는 사진관의 본업을 바탕으로 사회활동도 꾸준히 전개하는 봉사맨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프로사진작가협회 당진지부장을 역임하는 와중에도 밝은사회 당진클럽 회장을 맡아 일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당진천 벚꽃길 조성사업도 이루어졌다. 밝은사회 국제클럽 총재인 경희대 이사장 조영식(趙永植, 1921~2012)과 연결하여 벚꽃 묘목 수천 그루를 들여와 당진 천변에 심은 것이다. 김낙성 군수 시절의 일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당진의 중요한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당진시 읍내 1동의 새마을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새마을지도

자로 활동한 경력이 낳은 결과물이다. 게다가 원도심 상가 번영을 위한 번영회 임원도 역임하는 중이다. 빛의 삼원색(三原色)에 정성을 담아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 내듯이, 당진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 정일칼라 이종수 사장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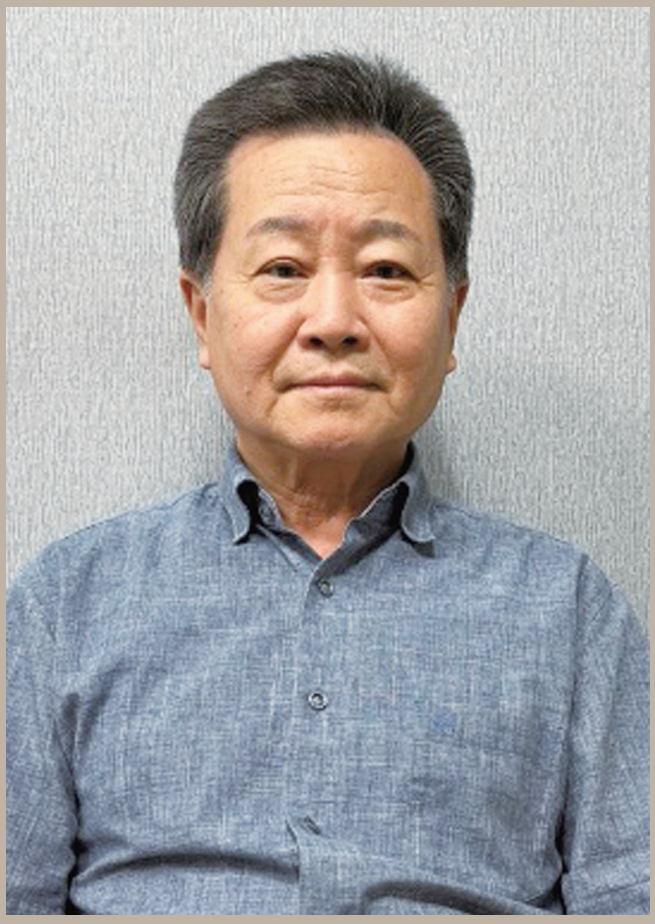
<인터뷰어 김남석, 스토리텔러 김남석>

당진시

당진의 오래된 가게

전 관 수 (1952년생)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이발소의 맥을 지키는 기지시 '길이용원'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하여 이용기술을 배우다.

전관수 씨는 1952년 충남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송악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964년 졸업하였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정규 과정 중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비인가 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던 중 15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상경하여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었던 동원이발관에 취직하여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가 동원이발관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주로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허드렛일을 맡았다. 숙소가 따로 없어서 밤에는 이발관 의자를 마주 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얹어놓고 잠을 자야만 하는 고단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체계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이 없이 짬짬이 이용 기술을 배우고 익혀갔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눈썰미가 생기고 기술이 조금 갖춰지면 주변의 다른 이발소로 이직하였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하나의 기술에 익숙해지면 또다시 다른 이발소로 이직을 하여 또 다른 기술을 익혀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관수 씨는 이렇게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특별한 스승 없이 하루하루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갔다. 그리하여 구술자는 당시의 이용업의 전통적인 기술 전수 방법을 따라 동대문, 신설동, 창신동, 숭인동, 하월곡동, 텍사스 골목을 전전하며 다른 직장을 찾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북선동, 종암동, 수유리, 길음동, 정릉 등에서 이용사 기술을 최종적으로 다지고 익혔다.

당시에는 이용 기술에 대한 특별한 고시나, 자격시험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익힌 실력을 바탕으로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고 책임자 지위까지 오르게 되면서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허드렛일을 시작할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조건이었으며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둥지로 옮길 때마다 겨우 용돈을 할 정도를 더 받았으며 기술자나 책임자가 되어야 적은 월급이나마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에 군에 입대 했다가 제대한 후에도 배운 기술이 이용업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에 고향에 남지 않고 곧바로 상경하여 영등포 등지에서 기술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가정형편상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가정을 돌보며 '천강이발소'를 시작하다.

전관수 씨가 영등포에서 기술자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이

병환이 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말았다. 장남이었던 전관수 씨는 서울에서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귀향을 하게 된 그는 생계를 유지하고자 처가가 있는 송악면 광명리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소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때마침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가 수입소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소 값 파동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소 값이 급락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파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관수 씨는 돼지를 키우고 농장을 꿈꾸며 재기를 시도하였으나 식구들이 먹고살 수 있을 정도만 유지하였을 뿐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어렵게 어렵게 고향에서 정착을 시도하던 중에 한 이발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전관수 씨가 인수할 기회가 주어졌다. 1976년경 당시 전대리 초등학교 앞에는 현대이발소, 천강이발소 이렇게 두 개의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중 천강이발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그곳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전대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관수 씨는 이발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기술을 익혀온 터라 고대기며 모든 이용기구가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사 면허도 없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을 시작한 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여 전관수 씨는 급박하게 천안에 있는 학원에 등록하고 수시로 오가며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수료한 후 76년 3월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길이용원'을 개업하고 기지시에 정착하다.

전관수 씨는 전대리 천강이발소를 접고 1990년 1월 10일 송악면 기지시 차부(정류소) 근처에서 '길이용원'을 개업하였다. 지금의 길이용원이 있는 장소로 정착하기까지 한 번 더 장소를 이전하였다. 기지시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본디 기시에서는 5일장이 유명했지만 구술자가 이발소를 시작한 1990년에는 5일장이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다만 전관수 씨의 기억 속에 5일장의 영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게들로 기억되는 대동약국, 동양약방, 영단방앗간 등은 1990년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당시에도 그 유명한 줄다리기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정말 성대하게 치러

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요즈음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국제적인 행사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보철강이 입주하면서 기지시가 급변하다.

1989년 아산만의 매립공사가 시작되고 한보철강이 당진에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기지시는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기지시는 한보철강과 가장 가까운 교통의 요지로 한보철강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한보철강 건립과 관련하여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지시에서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때문에 자그마했던 상권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숙박업이나 식당, 정육점, 식품 가게,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크게 호황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발소 역시 20% 정도 손님들이 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다고 매출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전관수 씨가 기지시에 개업한 이후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34년을 운영하면서 수입의 변동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발업의 상황이 그닥 녹녹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당진, 합덕, 신평, 기지시 등에 있는 이발업계가 상의하여 영업을 마감하는 시간을 계절에 상관없이 하오 7시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해져서 언제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보니 안타깝다.

이발소의 미래와 미장원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소견은!

30년 전 전관수 씨가 이용업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미용실은 별로 많지 않았다. 여학생들조차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발소는 줄어들고 미장원은 점점 늘어나서 현재 이발소와 미용실의 개업자 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3정도가 된다고 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발소의 풍경도 많이 변했고 현대화되었으나 이미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불리한 상황이 되고 보니 이발업을 평생 해 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하지만 시대도 많이 변했고 손님들도 많이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일과 수상 그리고 소망

수상 경력은 충남 이용 경기대회에서 서너 차례, 서울 킨텍스에 열렸던 대회에 금상 수상,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받은 표창과 당진시장에게 받은 표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본인이 크게 잘한 일은 없지만 소상공업 진흥에 이바지 공로로 받은 것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결과로 주신 것으로 안다고 겸손해 한다.

전관수 씨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봉사활동의 내용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봉사활동을 한번 시작하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봉사 대상이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다녔다. 요즈음에는 노인 보호 요양시설이 많아져서 주로 그쪽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가끔은 미용사들과 협업하기도 한다.

이용 기술자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2015년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이 한창 심할 때 당진시 의장이었던 이재광 의장의 삭발식을 거행했을 당시 직접 머리를 깎아 준 것이다.

<인터뷰어 장수덕, 스토리텔러 장수덕>

금산군

|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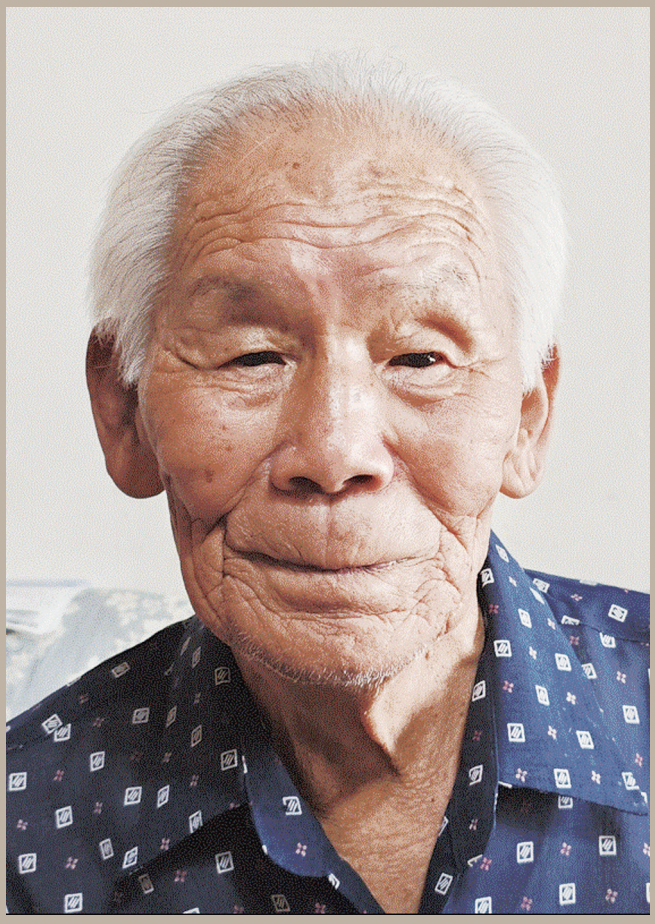
한국동란 참전	588
한국동란 참전	593
한국동란 참전	598
한국동란 참전	603
한국동란 참전	608
한국동란 참전	614
베트남 파병	620
베트남 파병	625

금산군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문 복 동 (1930년생)
금산군 남일면 벌넘어길

한국동란 참전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복동 씨가 태어난 곳은 용담면 송풍리이다. 현재는 용담댐으로 인해 수몰된 소재지이다. 현 위치로 옮겨와서 면 소재지가 되었다. 태어났을 때 조부모님은 생존해 계시질 않았다. 조부모님을 못 뵙기 때문에 생존해 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조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송풍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초현리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심각할 정도로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다. 옆에서 벼락이 쳐도 전혀 듣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 어머니는 안 계셨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가출하셨는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가출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평생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다.

문복동 씨는 여자 형제 없이 위로 형 두 분, 가난한 집의 셋째로 태어났다. 형들과 왕래는 있었지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신을 꿰매는 일이었다. 농사지을 땅도 없었다. 그냥 떠돌아다니시면서 신을 수선하는 일을 하셨다. 장애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이었다고 본다. 형이 두 명이었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두 형은 그래도 나이가 있다고 남의 집에 고용살이하고 있었다. 밥만이라도 먹여주면 감지덕지했던 때였기 때문에 두 형은 그렇게 살아갔다. 큰형은 제2국민병으로 차출이 되지 않았지만 둘째 형은 차출되어 갔다가 사고가 있어서 죽었다.

집도 절도 없다는 표현이 맞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의 사촌들에게 어린 막내를 맡겼다.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군더더기 식구였던 탓에 교육이나 보살핌은 전혀 없었다.

배움이 간절했다. 남들이야 부모 밑에서 교육의 혜택을 누렸지만 돌보아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초현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학교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공부했다. 한문과 일본어로 공부를 시켰다. 공부에 대한 의욕은 강했지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가 재미있을 리가 없었다.

말 타고 훈련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운동장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누런 일본군 군복을 입고 대여섯 명이 말

을 타고 운동장을 도는 모습이 보였다. 앞에 서 있으려니 일본 말로 비키라고 했지만, 그냥 서 있었다. 공부에는 뜻이 없고 해서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때가 17살이었다. 학교생활 1주일째였다. 그들을 따라나서 통영으로 갔다. 통영의 어느 초등학교였던 것 같다. 그곳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목총을 하나 주면서 일주일 군사교육을 시켰다. 교육 후 거제도로 이동했고 교도소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은 처형 대상이었다. 의병 활동을 했거나 포로로 잡힌 사람들로 생각된다. <※17세 이전에 있었던 일로 추정된다. 17세라면 광복 이후가 된다. 구술 채록 시 제보자가 96세로 기억에 혼동이 있었다.>

제주도로 이동하여 9주간 교육을 받았다. <※이때가 17세로 보인다.> 정식으로 군인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2수용대, 3수용대가 있었다. 군사교육을 받고 강원도 속초로 이동했다. 군함을 타고 이동했다. 속초에서 인제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22사단 칠성 부대 창설 멤버가 되었다. 군번은 세 번 받았다. 22사단 창설 때 받은 군번 9264○○○만 기억난다.

사단사령부 연락병이 보직이었다. 인제, 원통, 사창리 이 지역은 모두 관할 지역이었다. 당시 사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었다. 22사단 창설 이후에 3사단인가 7사단인가로 전출되었다. 제대는 5사단에서 했다.

별거 다 해 보았어

백석산 작전을 나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잡았다. 9명으로 구성된 청음초(聽音哨)가 안개를 뚫고 앞으로 나갈 때였다. 제일 앞에 서서 숲을 헤쳐 나갈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위 밑에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어미는 없고 새끼 두 마리가 있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만 본부로 가져왔다. 사단에서 키우지 않고 대구에 있었던 육군본부로 보냈다. 그 일로 인해 상을 받았지만 잠을 못 잤다. 그날 밤 어미 호랑이가 꿈에 나타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했다. 지금이야 호랑이가 없다지만 당시에는 호랑이가 출몰했다. 그 일이 있던 후 병사 하나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전령에서 일반 전투병으로 바뀌어 전차도 따라다니면서 전투했다. 황해도 해주까지 갔

었다. 후에는 105밀리 포까지 담당을 했다. 한 가지 보직으로 군 복무를 하는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때여서 상황에 맞게 보직을 부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화기 소대 분대장도 했다. 그때 '연통'이란 별명으로 불렀던 57밀리 박격포도 다루었다. 전령으로 근무할 때는 권총을 소지했다.

배가 고팠어

전쟁 중에 어려웠던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큰 고통 중의 하나는 배고픔이었다. 원통에서 전투를 치를 때는 15일을 굶었다. 중공군이 몰려왔을 때였다. 휴전될 무렵 포위되는 바람에 보름간을 굶었다. 아무리 사격을 해도 기어오르는 중공군의 숫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포위를 뚫을 수가 없었다.

10여 일 지났을 때 미군 비행기가 와서 드럼통을 투하하였다. 그 안에는 건빵과 전투식량이 들어 있었다. 오래 굶었던 상황에서 앞뒤 안 가리고 정신없이 먹었다. 건빵에다가 미군들이 먹던 기름진 전투식량 레이션을 갑자기 먹었으니 탈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얼마 후 사방에서 복통에 시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속이 놀랐던 것이다. '아이고, 배야!'를 외치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다른 나라에서 참전한 군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미군은 보았다. 미군과 함께 포위되어 있어서 미군이 비행기로 식량을 보급한 것이다. 한국군만 있었으면 보급을 공중 투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인지도 몰라도 미군도 함께 포위되어 있어 건빵과 전투식량을 보급 받았던 것이다. 당시 실탄이나 다른 장비는 공중투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쌍팔년도 제대

문복동 씨는 1955년(단기 4288년)에 제대했다. 제대 후 춘천에서 장사를 했다. 1957년도 그러니까 단기 4290년까지 춘천에서 문관으로 있었다. 장사해서 이윤이 남는 것을 부대로 보냈다. 말하자면 정식 군사 고문이 아니라 군부대를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뜻이다. 제대 특명을 받고도 그대로 소속감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3년간 춘천에 있다가 고향으로 왔다. 3년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사적으로 돈을 모으지는 않았다. 한 푼도 안 가지고 왔다. 모두 부대에 넣었다. 그래서 부대원들의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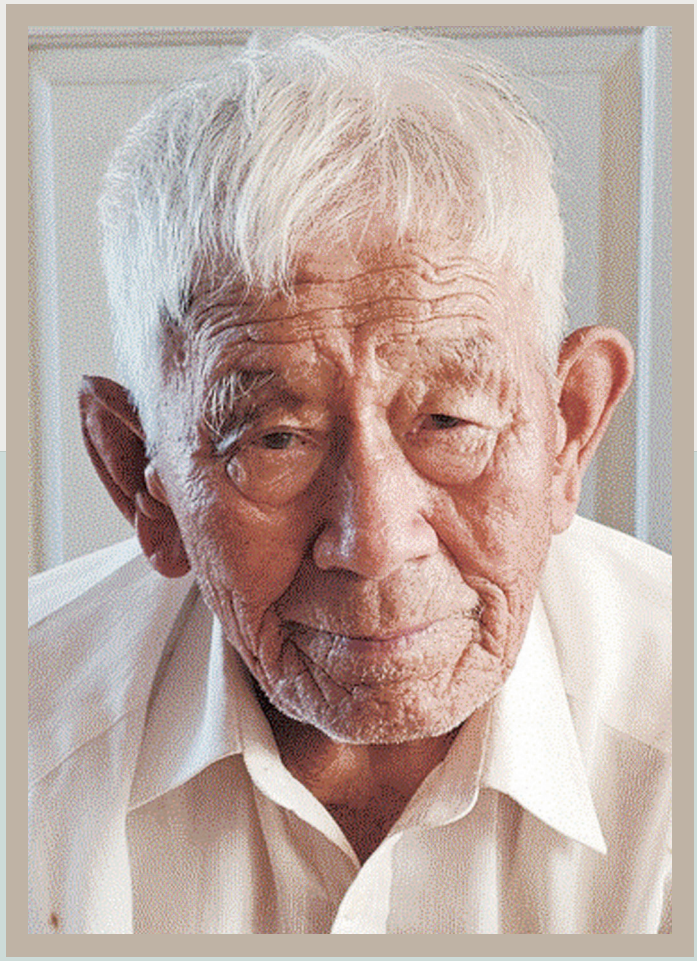
사랑을 받았다. 27세 때 용담 주천 영동리에 사는 19살 처녀와 결혼했다.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지만, 그것이 강한 정신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력으로도 남에게 지지 않았다. 전역 후에 서울에서 잠시 살았을 때 박치기로 유명한 김일과도 교제가 있었다. 금산에 내려와서는 당시 활개를 펴고 다니던 깡패들을 제압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육 덕 균 (1932년생)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은언정길

한국동란 참전



6학년 때 광복이 되다

육덕균 씨는 농사가 본업인 부모님 슬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생 군대 생활을 제외하곤 고향 양지리를 떠나 살지 않았다.

부친은 동기간이 1남 2녀, 독자로 태어나셔서 농사만 지으셨다. 육덕균 씨는 1932년 3월 23일생으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지만, 유년기여서 당시의 기억은 별로 없다. 단지 중앙초등학교 6학년 때 광복이 되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졸업을 못한 것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금산 중앙국민학교에는 학생이 많아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공부했다. 광복이 되었다는 말은 학교에서 들었다. 일본인 교사들은 일본으로 가버리고, 한국인 교사만 몇 명 남다보니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폐교나 다름없었던 차에 부친께서 한문이나 배우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서당을 다녔다. 신학문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던 때였다. 그저 조상님께 올리는 축문이나 쓸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마을에 상주하는 훈장이 아니라 마을마다 순화하는 훈장이 있었는데, 그나마 서당 공부를 시키는 집도 많지 않아서 한 마을에 대여섯 명이 공부하는 정도였다. 아침 학과 마치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다시 오후 학과를 하는 과정을 3년 동안 했다. 서당 경력 덕에 초상이 나면 상가에 만장을 쓰는데 불려 다녔다.

제주도 훈련소로 가다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영장이 나왔다. 중앙국민학교로 집결했다. 트럭에 실려 전주로 가서 다시 열차를 타고 내려갔다. 당시 금산에서 같이 간 병력이 300명가량으로 트럭 7대에 나뉘어 실려 갔다. 트럭에 태웠지만 앉아서 간 것이 아니라 모두 서서 갔으니 모든 것이 얼마나 열악했던 때 인가를 알 수 있다. 마을에서는 5명이 함께 갔고 전사자는 단 한 명도 없이 무사히 전역했다. 전쟁 기간보다 오히려 휴전 이후 빨치산이 횡행하던 때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

제주도 훈련은 1주일 정도 걸렸다. 당장 급한 것은 사격훈련이었다. 빨리 전방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1주일간 사격만 한 듯싶다. 강원도 철원의 3사단 22연대 3대대 9중대로 배치되었다. 병과는 육군 보병, 중대 본부에서 중대장 무전병으로 근무했다. 최전방에서 근

무했지만, 적과 대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서 고향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동안 적과 전투를 하면서 부대원 전원이 전사했다. 7개 대대가 올라갔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하면서 적과 교전하다 보면 누가 죽었는지 어디로 후송이 되었는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1개 분대가 3명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 육덕균 씨도 당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 바로 앞에서 폭탄이 터졌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부상만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 때 박힌 파편이 현재도 몸에 남아 있다.

전투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길어야 두세 시간, 대부분 몇 분 교전하는 것이 다였다. 한곳에 머물러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전황을 알 수도 없었다.

휴전 소식은 전방에서 들었다.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한다는 정보는 무전병이라 일찍 알았다. 7월 27일 밤 10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총소리가 멈췄다. 한바탕 총성이 울리다가 밤 10시에 갑자기 고요해졌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밀고 밀리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벌이다가 거짓말처럼 고요가 찾아온 것이다.

휴전이다, 이제 살았다

7월 27일 밤 10시 고요가 찾아오고 처음에 든 생각이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었다. 생사의 갈림이란 것은 처음 군대 생활을 시작하던 초창기 때뿐이었다. 몇 개월 동안 긴장감 속에서 지내다 보면 생사는 무감각해진다.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그때 맞닥뜨리는 현재 상황만이 있을 뿐이지 내일을 기약한다는 것도 없었다.

무전을 받은 중대장은 각 소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10시 이후 총을 쏘지 말라는 지시였다. 전시에는 휴가가 없었다. 심지어는 편지를 쓸 시간도 없었고, 상황도 아니었다. 휴전 이후 한참 뒤에야 겨우 휴가를 나왔고 복귀하여 사단으로 통신 교육을 받으러 갔다.

담배 한 갑, 군 복무 3년 연장되다

휴가를 간 병사가 미귀했다. 휴전 이후에 휴가를 보내면 귀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돌아오지 않은 병사를 살리기 위해 다시 휴가를 연장한다는 휴가증을 만들어 직접 전달하러 갔다. 대구 병력이라 대구까지 가서 휴가증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구역에서 문제가 생겼다.

기차를 기다리는데 장교가 다가오면서 왜 경례를 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자기가 연대장인데 결례를 범했다는 것이다. 담배 한 갑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은 화가 그대로 다가왔다. 그 장교가 사건의 전말을 상부에 보고해 버린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군 복무를 3년 더했다. 집에서는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같이 입대한 사람들은 모두 제대했는데 육덕균 씨만 돌아오지 않으니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알아보는 방법이 많지만, 당시에는 연락을 취해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나저제나 연락이 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때였다.

어처구니없게 휴가증을 만들어서 전달한 덕에 미귀한 사람은 5일여 동안 더 휴가를 즐겼다면, 담배 한 갑을 상납하지 않아 3년간 군 생활을 더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군대 생활 6년. 말이 6년이지 장교도 아닌 사병이 6년을 복무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담배 한 갑 요구를 거절한 벌칙이 너무 컸다.

우린 그렇게 하진 않았어

구타도 심했다고 하지만 전방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야 더러 있었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었고, 전방에서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심지어는 경례를 하면서 붙이는 구호도 있었지만, 전방에서는 굳이 지키지 않았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대에는 통신중대가 있었다. 일반 보병과는 다른 특수한 보직이었다. 야전에서 통신병은 어려운 보직 중의 하나이다. 전방 부대까지 전화선을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신선의 관리를 위해서는 늘 위험이 따랐기 때문이다.

전방 부대의 부식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일반 중대가 아닌 대대 직속의 통신대라는 부대의 위상으로 부식이 좋았을 수도 있다. 군 복무 기간에 열악한 부식으로 고생하지는 않았다.

26세에 전역하다

군 복무 중 약혼은 안 했지만, 혼약은 했다. 7월에 제대하면서 결혼했다. 혼사 이야기는 양지리에 시집온 아내의 사촌 언니가 주선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랑네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사는 흐지부지 결렬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친정 셋째 오빠가 같은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통성명하였고, 전후 사정을 알게 되면서 사람을 보니 괜찮아서 혼사를 진행해도 되겠다는 말로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남을 알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처남이 양지리로 피난을 오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알고 지냈고, 군대에서도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양가의 처지가 비슷해야 하는데 여전히 신랑 집이 좀 기운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혼인이 원만하게 성사되었다. 경제적으로 시댁이 친정보다는 어려웠지만 시부모 양친이 모두 살아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없이 살아도 어느 정도일 텐데, 새신부가 보기에 시댁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농사지을 땅도 없었다. 시골에 살면서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게 사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의 일만 다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대목을 해서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일만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 겨우 근근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손님이 오면 식사 때가 되기 전에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식사 한 끼도 대접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육덕균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실한 사람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마을 이장을 오래 하였고, 새마을지도자, 마을 청년회장, 수리계장, 학교 육성회장, 명예 경찰 등 감투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사에는 보탬이 되지 않았다. 대개 밖으로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금산군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한 영 복 (1929년생)
금산군 부리면 수통길

한국동란 참전



부자 소리 듣고 살았어요

한영복 씨의 증조부는 고향 수통리를 떠나 금산읍에서 거주하셨다. 6형제를 두셨는데 특별히 뛰어난 모습을 가진 아들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셨다.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증조부의 뜻대로 후손들은 배를 곯지 않고 살았다.

부친은 4형제 중 장남이었다. 슬하에 3남 3녀를 두셨다. 한영복 씨는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갓을 쓰고 두루마기 입은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다. 증조부는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았는데 손자를 불러 손주 자랑도 하셨다. 증조부는 마을 앞 금강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곤 하셨다. 손님들이 오면 물고기로 대접하곤 하셨다. 1944년 해방 전, 한영복 씨가 16살 때 증조부가 돌아가셨다. 증조부가 돌아가시고, 몇 해 있다가 조부가 사망하시고, 다음 해에 이어 부친마저 작고하셨다. 조부가 돌아가시고 연이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 방에 영실(靈室, 几筵)을 두 곳에 마련했다.

17살 때 해방 소식을 듣다

부리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이 되었다. 라디오를 틀어 놓았을 때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방은 되었지만, 정국은 어수선했다. 부친 탈상을 지내고 제2국민병으로 차출되었다. 동네 청년 모두 제2국민병으로 갔다. 경상남도 사천으로 집결 명령이 떨어졌다. 마을 청년들이 모두 경상남도 함양에 도착했는데 사천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길을 피해 간다는 것이 지리산 빨치산이 있는 곳으로 잘 못 들어갔다. 빨치산에게 걸려든 모양이었다. 그들은 굉장히 친절했다. 사상 검열인가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다가 한사람이 손을 들자 모두 손을 들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손을 들었다. 이것저것 캐묻고는 검사가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협조 좀 많이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금산으로 돌아왔다.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은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6.25와 제주도 훈련소

한영복 씨는 남일면 초등학교에서 인민군에게 훈련을 받았다. 인민군 치하에서는 낮에

는 행동하지 못하고 밤에만 돌아다녔다. 어느 날인가 무주까지 밤에 행군했다.

인민군이 쫓겨가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소집이 되었다. 제주도 대기소에 도착한 후에 심사를 했다. 불합격자는 귀가 조치했다. 합격자들은 이제 훈련소로 이동했는데 그때만 해도 막사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였다. 학과 훈련이 끝나고 나서 막사를 짓는 사역을 했다. 막사를 손수 지어서 생활한 것이다.

1개 소대별 인원은 50명이었다. 한라산에도 빨치산이 있었다. 매일 밤마다 내려와서 괴롭혔다. 먹거리는 항상 부족해서 고사리를 채취하여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콩나물을 길러서 부식으로 충당했다.

제주도 훈련은 45일이었다. 사격 이외에 군사교육을 받았다. 훈련을 마치고 대기소에서 대기하면 트럭이 와서 필요한 병력을 이송하였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대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은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이송되었는데 며칠을 대기소에 있었다. 미군 부대로 배치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 후 미군들이 왔다. 먼저 초졸 이상 손을 들라고 했다. 무학자는 제외하였다. 손을 들라고 해서 배치된 곳이 경기도 가평이었다. 2사단 38년대 2중대 3소대로 배속되었다. 미군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주둔한 부대가 2사단이었다. 군기가 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장교와 사병의 구분이 명확했고 지휘체계가 확실했다. 명령에 복종하는,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했다.

미군 부대원이 되다

밤에는 인민군 세상, 낮에는 한국군 세상이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아군이 식사를 하는 중에 인민군들이 8부 능선까지 올라 온 적도 있었다.

인민군은 각자 총기를 지급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개인 화기 없이 방망이를 들고 올라오는 놈도 있었다. 밤이 되면 후방 아군 포대에서 조명탄을 올려준다. 대낮처럼 환했다. 조명탄이 다 타 꺼질 때쯤이면 산 아래 적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적이 물러가면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했다. 낮에는 소강상태로 있다가 다시 밤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낮에는 주로 국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밤이 되면 인민군이 고지 주인이 되는 일을 매일 반복했다. 낮에는 나타나지 않던 인민군이 밤이

면 나타나서 활개를 쳤다.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이나 넘기다

미군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런데 적의 포가 자주 떨어지는 곳에 보초로 배치되었다. 그래서 이곳은 포가 자주 떨어지는 곳이라 이곳에 보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미군이 장소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적의 포 공격이 있었다. 바로 코앞에 포탄이 떨어졌다. 포가 터지는 순간 잽싸게 엎드렸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내기했던 미군 병사를 문책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손을 비비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포가 떨어지는 곳에서도 살았으니, 신이 있어 도운 것 같다.

참호 안에 있던 조명탄이 터지는 바람에 죽을 뻔한 적도 있다. 왜 죽을 뻔했다가 살았는지 휴가를 와서 알았다. 증조모가 매일 손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지에서 용케 살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기도 덕임을 알 수 있었다. 증조할머니는 매일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드디어 휴전

전투 중에 포탄이 날아드는 것을 잡아채서 밖으로 던져 버리고 참호에 있던 전우를 끌고 나와서 살았던 적도 있다. 그냥 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터인데 죽을 운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전우를 전역 이후에 한 번 만났다. 익산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했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내외가 찾아왔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못했다. 전쟁에 참전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인을 세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밤이 되면 인민군이 대남방송을 했다. 고향 생각이 나도록 자극하는 내용이 많았다. 고요한 심야에 방송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약해진다. 고향 생각은 나지, 잠은 오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때를 노리고 잠입하여 신병들을 잡아갔다.

휴전 무렵에 한탄강을 건너서 보초를 섰다. 밤에 한탄강을 건너가 근무를 서고 밝으면 부대로 돌아왔다. 후방에서는 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일 이곳저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죽어 나가는 판에 휴전을 반대한다는 소리에 격분했다. 심지어는 휴전이 되면 나가서 다 쏴 죽이자고 하는 말이 돌 정도였다.

7월 27일 밤 10시, 마침내 휴전이 성사되었다. 다른 부대에서는 총소리가 요란했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총 한 방도 쏘지 않았다. 정확하게 10시 정각에 총소리가 멈췄다. 휴전 5분 전, 5분 동안만 견디면 산다는 말까지 돌았다. 이제 총성이 멎었다. 다음 날 해가 밝아지고 능선을 보니 중공군 전사자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그쪽도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분주했다. 아군은 노무자를 동원해서 전사자를 수습했다.

한국군은 죽어야 나온다

전투 중에는 고개만 내놓아도 총을 맞았다. 미군에 배속되었어도 휴가가 없었다. 미군들은 15일 전투를 하고 15일은 후방을 빼내 휴가를 주었다. 영화도 보고 양식도 먹고 여가를 보낸 후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다. 반면에 한국군은 죽어야 후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들 말했다. 전사해야만 후방으로 빼낸다는 자조적인 말이었다.

4년 6개월 군 복무를 했다. 부대에 있었을 때 백내장이 있었다. 위생병이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했다. 담당 장교가 제대하고 싶냐고 물었다. 다시 울산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제대 강조 주간이 와서 제대할 수 있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길 순 선 (1934년생)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한국동란 참전



밤늦게 나가면 귀신이 따라온다

길순선 씨는 1934년생으로 현재 91세다. 태어난 곳이 수통리이고 이곳에서 자랐다. 길순선 씨는 3녀 1남 중 셋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아들을 보시려고 했으나 3년을 연이어 딸이 태어났다. 그러다가 아들을 얻으셨다. 태를 잘 팔았다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엄격하여 여자는 밤에 밖에 나갈 수 없었으며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당시는 수통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에 보내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마을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당사자인 여자들도 학교에 다니며 공부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죽을 끓여도 열다섯 그릇 – 고생 지겹게 했다

길순선 씨는 같은 동네 총각과 결혼하였다. 동네 결혼은 부모님의 지나친 배려 때문이었다. 3녀 1남의 막내로 태어난 남동생이 외롭다는 이유에서였다. 누나도 한동네에 살고 매형도 한동네 총각이니 형과 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사윗감도 마음에 들고 집안도 마음에 들고 뭐 이렇다 하게 책잡을 일이 없었다.

시댁은 땅이 많았지만,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신랑은 군 복무 중이었다. 시숙부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한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시삼촌네 식구가 다섯 식구, 시댁이 열 식구,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웠다. 장리쌀을 얻어다가 죽을 쑤어 먹었다. 가마솥에 죽을 가득 끓여도 워낙 식구가 많아서 늘 부족했다. 시숙부는 염치없는 사람이었다. 피난 왔다고 눌러앉아서 아이를 다섯 명이나 낳았다. 그렇다고 힘들여 밥벌이하는 것도 아니었다. 밥벌이는커녕 길순선 씨 몰래 타작해 놓은 보릿 가마를 팔아먹으려다 걸린 적도 있었다.

스물두 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다

길순선 씨의 아버지는 이장도 보고, 남들보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전쟁이 나자 반동분자로 몰렸다. 인공 시절에는 농사를 지어도 소용없었다. 현물로 바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해 놓으면 그냥 와서 들어갔다. 심지어는 베를 짜서 농에

넣어 놓은 것까지 그냥 가져가도 말하지 못하는 시절이었다.

낮에는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치안을 담당했지만, 밤이 되면 인민군 천하가 되었다.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힌 아버지는 집에서 잘 수가 없었다. 밤에는 집이 아닌 곳으로 피해야 했다. 아버지는 과년한 딸이 집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잘못될까 봐 걱정되어 길순선 씨를 데리고 피신을 다녔다. 적벽강이라는 곳에 적벽이 있는데, 하루는 배를 타고 그곳으로 피신했다. 바위가 움푹 들어간 곳에 숨었는데, 모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밤새 모기와 사투를 벌였다. 머리 위쪽으로는 총탄이 연방 날아오고 배 위에서는 모기가 온몸을 공격하고 죽을 맛이었다.

날이 밝았다고 마음 놓고 마을로 돌아오지도 못했다. 강가에 작은 집이 있었는데, 먼저 가서 동태를 살피고 아버지를 모셔 왔다. 점심때가 지나면 또다시 그날 밤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동네에 치안소라는 곳이 있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어제 갔던 곳으로 다시 가면 안 되었다.

하루는 강가의 호밀밭에서, 하루는 적벽강 적벽 바위 밑에서, 같은 자리를 피해서 밤마다 피신했다. 반동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남들보다 어려운 인공 치하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치안대라는 이름으로

한동네에서 허물없이 살았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인공 치하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본심을 드러냈다. 좌익과 우익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니, 즐기고 있는 듯했다. 치안대라는 것을 만들어 주민들을 억압했다. 참나무 몽둥이를 깎아 들고 밤마다 마을을 돌면서 설쳤다.

그들은 마을 주민의 동태를 살피는 일을 했다. 누가 누구네 집으로 마실을 가는지, 반동분자로 분류된 사람과 교제하는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밤마다 피신하셨지만, 아버지는 결국 인민군들에게 잡혀갔다. 잡혀가시는 것만 바라보았다.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저지할 수도 없었다. 그 누구도 나서서 인민군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도 없었다. 무주 굴천에 있는 인민군 본부까지 끌려가셨다고 한다.

공산주의 대장에게 방을 임대하다

금산에 사는 노인이 폐병 걸린 아들을 간호하겠다고 방을 빌리고자 했다. 그 방은 아버지가 기거하는 방이었다. 인정 사납게 거절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방을 세놓았다. 그 노인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사회주의자로 인민군과 한통속이었다. 지위가 꽤 높았던 모양이었다. 활개를 치고 다니던 치안대 사람들도 자주 방문했다. 이제 아버지는 전주까지 끌려가셨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예전에 집에서 큰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팔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여자가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해서 부친이 소를 판 돈을 주고 왔다고 한다. 그 여자가 바로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누나였던 것이다. 그 여자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풀려 날 수 있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

인공 치하에서는 여자들에게 모두 감투를 씌워주었다. 그중에 또 공산주의에 열성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인공 치하에서 설치던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을 반동으로 몰아 핍박했다. 다시 국군이 들어오면 역으로 그들을 처단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동분자라고 데려다 린치를 가했다. 멍석을 가져다 덮어놓고 때려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맞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반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 모든 폭력이 명분을 얻었다. 그래도 어디 하소연을 하지 못했다. 무법천지였기 때문이었다.

자기들보다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낫다 싶으면 반동이라고 낙인찍었다. 땅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져가 마음대로 경작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집에서 군것질도 못 했다. 가서 일러바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 감시의 눈이 언제든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부대 – 과연 누구를 위한 부대인가

서울에서 왔다는 독립부대는 인민군이 아니었다. 국군도 아닌 듯하다. 부친이 마을 이장을 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란다.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했는

데, 그날 저녁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가져다가 잡아먹었다. 다음 날에는 강가로 불려 가서 고초를 겪었다.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빨치산이 거처하는 곳을 알면서도 소탕하지 않은 이유, 마을의 사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물건처럼 자세히 아는 것도 좀 수상했다.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주민들을 괴롭혔다.

김일성 이름으로 기를 만들다

하루는 여자들만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바늘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다. 안 가지고 왔다고 하였더니 집에 가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 김일성 이름 석 자를 수놓아 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크기가 멍석만 했다. 여자들 열댓 명이 달려들어 김일성 이름 석 자를 수놓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를 만들었지만 쓰지 못하고 인민군이 망했다는 점이다. 수틀을 가지고 와서 색실로 만들었다. 동네에 김일성 이름의 깃발을 내걸겠다는 의도였다.

두 개를 만들어 마을에 하나를 걸고 산 위에 하나를 건다는 의도였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 한마디로 광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금산군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황 태 원 (1934년생)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한국동란 참전



해방 –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다

황태원 씨는 석동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2남 2녀 중 둘째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셨다. 황태원 씨의 동기간은 7남매로 4남 3녀였고 위로 누님 둘, 형님 둘,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다.

황태원 씨가 5학년 때 광복이 되었다. 광복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마을 주민들이 보석사 앞에서 소를 잡아 기쁨을 나눈 기억이 있다.

마을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으로 보석사에 살고 있었던 태봉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혈혈단신이었던 그는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열렬한 환송을 했다. 그러나 그는 광복 이후에 귀국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으로 징용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자원해서 일하러 갔었는지 아니면 강제로 징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철저한 일본화 교육을 받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몰아붙였다. 학교에서는 일절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한 단어를 집에서 가르치도록 지도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부모나 조부모를 교육하라는 취지였다. 물론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교육 정책은 시나브로 조선어를 일본어로 바꾸어 민족 말살을 기도한 것이었다.

등교 시에도 황국신민서사지주 앞에서 세 번 합장하고 나서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집마다 '가미다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덴노에이카'라고 써서 아침마다 절을 하도록 강요했다. 시계처럼 벽에 걸어 놓는 형태였다. 학용품이 흔한 시절이 아니었다. 운동화도 배급 형식으로 주었다. 운동화라고 하지만 품질이 엉망이었다. 그것도 순번제로 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와야 가능했다. 발 크기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었다. 크든 작든 주는 대로 받아서 신어야 했다.

배급했다고 해서 신발 주인이 마음대로 신어서도 안 되었다. 아껴서 신어야 했다. 청결 문제도 시비를 걸었다. 신발이 지저분하면 벌을 받았다. 배급을 주었는데 잘 신고 있는지까지 시비를 걸었다. 조사하는 당번까지 정해서 감시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

교에 그릇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콩죽을 배식 받아 먹었다. 양복도 신발처럼 배급으로 나누어 주었다.

운동장 주변의 자투리땅도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옥수수를 심거나 쑥을 심었다. 학교 마당은 전부 다 쑥밭이었다. 학업보다는 전쟁에 더 집중했다. 학교에 가면 방공호 파는 일을 많이 강요했다.

경찰 가족 – 고문과 처형의 희생양이 되다

황태원 씨의 둘째 형님은 남일면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한국동란 때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빨치산에게 고문을 받았다. 9월 22일 맏형님과 함께 빨치산에게 잡혀가서 다음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문을 받았다. 큰형님과 함께 고○○ 어머니, 조○○이 아버지, 이렇게 넷이 고문을 당했다. 빨치산들의 고문을 받는데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몰랐다. 모든 질문에 '예'라는 대답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루 종일 물고문을 당했다.

고○○ 어머니는 내보내 준다면서 하루 종일 빨래를 시켰다. 그날은 날씨가 쌀쌀했다. 찬물에 빨래를 시키고는 풀어주지 않고 처형을 했다. 당시 고○○ 어머니는 술집을 했다. 빨치산들이 술을 먹고 소위 인민폐라는 빨간 색의 돈을 내놓자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일로 괘씸죄가 적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일로는 죽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이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빨치산이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장애가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마을의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코지할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부인이 빨치산을 따라갔는데도 빨치산은 그를 처형했다.

구사일생

총 다섯 명이 처형 대상이었다. 처형 여부는 성곡리에 사는 김○○라는 사람이 정했다. 고문 받았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처형, 이 사람은 구제 등 그가 모든 판결을 확정했다. 그때 마을에서 끌려간 사람은 모두 죽었다.

처형장에 도착하니 구덩이를 미리 파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황태원 씨가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다. 총에 대검을 꽂고 마구 찔렀다. 기절했는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그들이 다섯 사람을 처형하고 흙으로 덮어 버리고, 돌아간 뒤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리고 구덩이에서 나왔다. 나와서 보니까 큰형님이 아직 살아 있었다. 형이 황태원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끄집어내달라고 했다. 형님을 끄집어내긴 했는데, 형은 부상이 심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황태원 씨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다.

형님이 시킨 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노부부가 사는 집이 있어 들어갔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냥 방안에 쓰러지고 말았다. 교복을 입은 채 온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돌아온 대답은 자기들을 살려 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도와주었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웃방으로 간신히 몸을 움직여 다시 쓰러졌다.

그 집 바깥양반이 새벽에 황태원 씨의 본가로 찾아와 이런 사람이 자기 집에 있다고 알렸단다. 집에서 들것을 만들어서 찾으러 왔다. 큰형수님이 누워 있는 방문을 열더니만 다시 닫았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 또 그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곧바로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이집 저집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을 피했다.

반장 집 같은 경우는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했다. 바로 아랫집이 반장이어서 그 집에서 오래 숨어 있었다. 어머니가 밥을 지어 날라서 겨우 연명했다.

칼에 찔린 상처는 냄새가 심했다. 썩어 들어가는 냄새였다. 그렇다고 의원을 부를 수도 없었다. 약이라고 해야 바르는 연고뿐이었다. 처음에는 숨을 쉬면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살려고 그랬는지 상처가 더 이상 탈이 나지 않고 아물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은 목숨이 붙어 있었던 큰형님을 그곳에 두고 온 일이다. 빨리 연락을 취해 손을 썼으면 형님 목숨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큰형님 시신은 모셔 와 밭에다 모셨다. 경찰공무원이었던 둘째 형님도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얼마 후에 유명을 달리했다.

살려고 600고지로 갔다

상처가 아물고 나서 전투대가 있는 600고지에 갔다. 더 이상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살 곳

은 전투대에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금산에서 30여 명이 전투경찰에 자원하여 고창중학교로 갔다. 그곳에서 전투경찰 1개 대대가 창설되었다.

전투경찰이라고는 하나 열악한 조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산골짜기마다 빨치산의 노략질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력이나 장비 등이 충분하질 못했다. 당시 최고의 특별식이 고구마 잎으로 만든 국이었다. 그 이상의 부식은 없었다.

전투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징집대상자들이었다. 1개 대대 병력이었던 전투경찰을 경찰로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투경찰은 해체되었다.

전투경찰 해체 후 입대

황태원 씨는 전투경찰이 해체된 해인 1956년도에 22세의 나이로 입대했다. 결혼 이틀 후 징집 영장이 나왔다. 전주로 집결했는데 병사계에게 돈을 주고 집으로 왔다. 그 당시는 병사계가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할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영장이 나와서 입대해야만 했다. 수용연대에 가서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좋았다. 그래서 전반기 훈련만 받고 29연대 본부중대로 배치되었다.

당시 일반 소대는 70명이었는데 본부중대는 20명만 배속되었다. 적은 병력으로 지내어 편했다. 야간 근무도 일반 소대에서 담당했고, 식수 인원이 적어서 밥도 남았다. 그 뒤에 대구에 있는 227수송자동차대대로 배치되었다. 돈을 주면 좋은 곳으로 배치해 준다는 기간병의 말에 속았다.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만 빼앗기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송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송대대 1기생이었다.

운전 교육을 마치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 후 논산에 있는 813수송중대로 파견되었다. 1, 2, 3종 보급과 병력 수송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였다. 당시는 강경역에서 보급품을 취급했다. 매일 세 차례 보급품을 운반하는 운행을 하였다. 논산 수송중대에서 36개월 18일을 근무하고 제대했다.

물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지만 살아났다. 살기 위해 투신했던 전투경찰은 2년만에 해체되었다. 경찰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투경찰이 해체되었지만, 군 입대 후 36개월 18일간의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972년부터 1985년까지 마을 이장과 남이면 이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금산군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김 원 규 (1935년생)
금산군 남일면 금산로

한국동란 참전



금값보다 좋았던 인삼

김원규 씨는 음대리가 고향이다. 6대조 이상은 강원도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음대리로 이주하신 할아버지는 6대조이다. 김원규 씨의 조부는 한의사였고 농사처가 있어서 가정 형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조부 때부터 인삼을 재배하였다. 당시 삼 가격은 금값보다 좋았다. 개삼터도 가깝고 금산의 다른 지역보다 남일면 일대가 인삼 농사를 일찍 시작하였다. 삼 한 뿌리를 팔면 일꾼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삼 한 근이 600g이었는데 쌀 서너 가마 정도로 거래가 되었으니, 삼 재배가 가정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김원규 씨의 어머니가 형제를 낳고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얻었다. 계모께서 2남 5녀를 두셔서 형제는 9남매가 된다.

4학년 때 광복되다

김원규 씨가 11살 나던 1945년 해방이 되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광복 이후 2년간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공부보다도 일본어에 더 신경을 썼던 때였다. 조선어를 쓰면 걸어주었던 패를 조선말을 하는 친구에게 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패를 팔아야 한다'는 말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선어를 썼다는 표식으로 걸어 주었던 패는 그렇게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는 상징이 되었다.

변변한 신이 없었다. 짚신을 신고 등교하다가 산모퉁이에서 짚신을 벗어 감추어 두고, 맨발로 교문을 통과하여 신사당에 절을 하고, 발을 씻고, 교실로 들어갔다. 짚신을 신고 왔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맞기도 했다. 맨발로 다니라는 의미였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맨발로 다리라는 뜻은 건강하게 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스스로 열등한 민족임을 각인시키려는 방법이었다.

지서장 아들 괴롭히고 귤을 얻어먹다

지서장 아들이 동갑내기 학교 친구였다. 말이 서로 달라 소통이 어려웠다. 친구들이 지서장 아들을 많이 괴롭혔다. 방과 후에 돼지처럼 뚱뚱하게 생겼다고 해서 부타노(돼지) 순사라 불렸던 사람이 자기의 상사인 지서장의 아들을 때렸다고 잡으러 왔다. 2, 3학년 아이들

이라 겁이 많을 때인데도 세상 물정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이었다. 무섭게 엄포를 놓으려고 지사 유치장에 가두어 놓았는데 아이들은 그곳에서 천진난만하게 장난쳤다. 일본도로 엄포를 놓았지만, 그것도 잠시 유치장은 금세 놀이터가 되었다.

지서장의 부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 귀했던 귤과 과자를 주면서 싸우지 말라고 달래곤 했다. 아이들인지라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얻어먹기는 했지만, 다음 날 괴롭히는 것은 매일반이었다.

해방과 한국동란

광복 소식은 학교에서 들었다. 어린 나이라 해방이나 광복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본인 교사들이 모두 떠나고 몇 남지 않은 조선인 교사를 보았을 때 광복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광복 이후 2년 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었다. 13세에 5학년에 복귀해야 하는데 1년 뒤인 14세에 5학년으로 다시 학교에 다녔다.

1년을 더 쉬게 된 것은 열악한 학교 사정과 학비 조달 문제였다. 13세 때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다. 필기도구가 엉망이었다. 노트가 없어서 비료 푸대에 글씨를 쓰는데 연필이 무뎌서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다. 게다가 학비 조달이 어렵게 되어 자발적으로 1년을 더 쉬었다.

다음 해 16세 먹은 해 5월 9일에 졸업을 했다. 졸업 한 달여 만에 전쟁이 터졌다. 미군 2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 남일면 쪽으로 후퇴했다. 36도 선상에 있는 송치가 그들의 방어선이었던 것이다. 남루한 형색의 미군들이 마을을 지나자 주민들이 감자와 보리밥을 제공했다. 고추장을 주었는데 입에 맞을 리가 없었다. 미군들은 고추장이 아닌 소금을 찍어서 먹었다. 미군들의 후퇴를 본 후 구석리 모티로 피난을 갔다. 12폭포가 있는 곳이다.

딘 소장이 마을에서 잠시 머물다

미군이었던 딘 소장이 마을에 잠시 피신했다. 농업학교에 다녔던 강복환이라는 사람이 딘 소장과 소통했다. 그는 딘 소장을 자기 집에 은신시키고 낮에도 사립문을 닫아놓았다. 강복환의 할아버지는 딘 소장을 내보내라고 했다. 딘 소장을 보고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서양인, 백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딘

소장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더군다나 피아의 개념도 없어 딘 소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보내라는 조부의 말에도 강복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서 한반도 전체가 인공 치하나 다름없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 천하였다. 만약 발각되면 목숨이 열 개라도 견디지 못할 상황이었다. 치안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였다. 딘 소장이 이곳에서 계속 은신했더라면 포로로 잡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딘 소장은 길을 나섰고 용담에서 피체되는 신세가 되었다.

전투경찰 지원

아버지가 치안대에 잡혀갔다. 당시 반장을 하고 계셨는데 애국반장을 보았다고 반동 올가미를 씌웠다. 마을 규모가 커서 가구 수가 많아 반장이 여러 명이었다. 치안대는 반장을 보던 사람들과 자기들에게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

한번은 잡혀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치안대를 찾아갔는데 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간 감자와 밥을 빼앗아 자기가 먹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녔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다. 이승만 글을 배웠다는 이유였다.

주로 보도연맹, 좌익 활동하던 사람들이 양민들을 괴롭혔다. 유○○라는 분은 그들이 돌로 때려 희생되셨다. 그들의 행위는 잔인하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금산읍에 임시 지서가 있었다. 장○○이란 사람이 금산경찰서 서장으로 왔는데, 그는 18경찰전투대의 인솔자였다. 1950년 12월 13일 황풍리에 망루를 만들고 경비를 섰다가 14일에 남일로 이전을 했다. 김원규 씨는 그때 전투경찰대에 지원을 해서 근무를 시작했다. 전투경찰대는 지원 자격이 필요치 않았다. 사상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했다. 당시 좌익과 우익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좌익, 우익 검증은 어렵지 않았다. 12폭포, 신정리 양골, 600고지를 토벌했다.

사찰유격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활동했다. 그들은 밤이면 산에서 내려와 지서를 습격했다. 당시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전향자나 포로로 잡힌 빨치산, 그리

고 전투 경험이 있는 경찰대 출신을 모아 사찰유격대를 조직했다. 사찰유격대는 빨치산과 유사했다. 밤에는 배낭을 메고 산에서 자고, 하는 일이 공비 토벌, 즉 빨치산을 토벌하는 일이었다.

급작스럽게 결성된 사찰유격대에는 아직 총기 사용에 미숙한 사람도 있었다. 정규군처럼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많아 사고도 빈번했다. 경계를 서다가 얼어 죽은 빨치산의 총기를 수습하다가 총이 발사되어 죽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총에 죽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작전에 나가 교전을 하고 토벌에 성공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총기를 수습하여 사용했다. 사찰유격대가 소지하고 있었던 총기류는 쏘시키기관단총 러시아 총, 따발총, 아시보 장총, 아시보 단총, M1, M2칼빈, M3영국제총, 칼빈, 미식기관단총, 권총 등 다양했다. 총만 있고 실탄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총도 많았다. 후에는 탄약이 보급되면서 총기류도 정리되었다.

길병○가 초대 사찰유격대장을 했다. 이 사람은 좌익 골수분자였는데 전향을 해서 사찰유격대가 된 것이다. 자진 전향하든지, 포로로 잡혀 전향하면 그 자리에서 유격대원이 되었다. 심지어는 어제 포로로 잡아 온 놈이 유격대 동료가 되어 함께 토벌에 나섰다.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방인○이라는 사람은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가 그믐쯤에 덕유산 빨치산 병력이 남이면 600고지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보에 따르면 열댓 명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대부대가 이동하고 있었다. 오히려 유격대가 빨치산 대부대에게 포위되었다.

김영○유격대장이 오늘은 수류탄을 더 많이 가지고 가보자며 수류탄을 가지고 온 것이 목숨을 살렸다. 수류탄을 던지자 빨치산은 인민군 노래를 부르면서 대응했다. 유격대도 빨치산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라 함께 인민군 노래를 부르는 피아가 어렵게 되었다. 1953년도 음력 5월, 장마철로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피아 구별을 못 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침이 되어 금산 경찰서에 연락하여 전사자를 수습했다. 그리고 금산으로 운구하여 화장하였다.

보아라부대로 차출, 그리고 입대

금산 유격대가 유명해지자 이름을 보아라부대로 바꾸었다. 김원규 씨는 보아라부대로 차출되어 덕유산, 지리산, 운장산, 부안 변산까지 토벌 작전에 투입됐다. 보아라부대에 사표를 제출한 뒤에 정식으로 경찰로 발령을 받았지만 발령장을 반려하고 군에 입대했다. 군미필자들은 경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폭포 임호고지에서 총에 맞았다.

제2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미7사단 보급사단으로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38개월 20일 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금산군

한국동란 참전과 베트남 파병

이 연 기 (1943년생)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베트남 파병



너 뒈질라 카나, 이놈아

이연기 씨는 부리면 신촌리 내장 부락에서 1943년(4월 15일생)에 태어났다. 부친은 6남 1녀 중에 장남이셨다. 아버지는 건축 미장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아서 작은아버지가 장남 역할을 했다. 이연기 씨는 2남 1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여덟 살 때 한국동란이 일어났다. 신촌 내장 쪽은 600고지에서 내장산으로 지리산으로 통하는 통로였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평촌 쪽으로는 경찰이, 신촌 쪽으로는 인민군이 대치하고 교전했다.

아이들은 이쪽 저쪽 따지지 않고 탄피를 주우러 다녔다. 교전 중에 사격하는 앞뒤로 다니면서 탄피를 주웠다. 사격을 하면서도 "뒈질라 카나, 이놈아!"라며 경고했지만, 당시는 탄피를 주우려는 욕심에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위험하다고 경고는 했지만, 탄피를 줍는 것은 제지하지 않았다.

탄피를 주워서 장난감(따먹기)을 했다. 금방 사격한 탄피는 색깔도 좋았다. 벽에 부딪혀서 누구 것이 멀리 나가나를 겨루기도 하고, 떨어트려 맞추기도 하는 등 탄피로 놀이하는 방법은 많았다.

당시 고모부가 부리면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교전으로 사망했다. 현 600고지에 마련한 추모비 제일 앞에 고모부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일찍 홀로된 고모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

지방 빨갱이가 더 무서웠어

600고지에 있던 인민군 패잔병들이 금강을 건너 신촌으로 해서 어재리를 통해 성주산을 넘어 영동 학산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다 보니 내장마을은 그들의 이동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다. 먹을 양식도 없던 시절에 추석은 다가오고 아직 익지 않은 벼를 수확하여 추석 음식을 준비했는데, 인민군들이 그것까지도 가져갔다.

물이 많으면 신촌과 평촌은 나룻배로 건너다녔다. 물이 떨어지는 계절이 되면 여울이 드러나서 여울로도 다니곤 했다. 당시 압수에는 나루가 없었고 신촌과 평촌 사이의 나루를 내장나루라 불렀다.

빨치산보다 오히려 지방 빨갱이가 더 무서웠다. 당시 키우던 닭이 딱 잡아먹기 좋은 크기로 자랐을 때였다. 이제 병아리를 벗어난 열여덟 마리의 닭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남

의 닭을 잡아다 먹었다. 모두 한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이야 연세가 있어서 다 작고하셨지만, 당시 그분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

완장을 차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다.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 인민군들은 민간인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사정을 잘 아는 그 고장 사람들이 완장 하나에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었다. 반상의 엄격한 신분제도에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나 평등한 세상, 누구나 똑같이 먹고사는 세상,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 왔다고, 이제는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느냐며 완장을 채워 줬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

어른들에게는 엄혹한 시절이었으나 아이들은 밤이 되면 젊은 2, 30대 여자들이 마을로 찾아와 노래도 지도하고 율동도 가르쳐주니 재미있었다. 어린 나이라 아군 적군이라는 피아의 차이를 몰랐고, 달리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벽지에서 밤마다 시간을 보내 주는 그들이 있어 즐거웠다.

북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매일 찾아와 친숙해지다 보니 거리감이 없었다. 그것이 그들의 수법이라는 것을 성장하여 알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그 누구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일이 용납되지도 않았다.

사상에 물든 것도 아니고, 끌려갔을 뿐인데…

전쟁 막바지에 인민군들은 북으로 가는 퇴로가 막히자, 지리산 쪽으로 집결했다. 패잔병이었던 그들은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짐꾼을 삼았다. 작은아버지가 배추를 뽑으러 밭에 갔다가 빨치산에게 잡혔다. 지게에다가 보급품을 지게 하고 끌고 갔다. 작은아버지는 경계가 느슨한 틈을 노려 어느 집 다락으로 숨었다. 그들이 혈안이 되어 찾았지만, 시간을 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대로 가버려서 발각되지 않고 목숨을 구했다.

신촌 사람들보다도 어재리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도 끌고 가버렸다. 빨치산에 끌려간 어재리 사람들의 자녀들은 연좌제가 있었던 시절에는 취직을 하지 못했다. 어재리 장 씨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1965년 입대

이연기 씨가 7살 때 어머니가 작고하셨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얻으셨고, 이연기 씨는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진학할 여력이 없어서 강진에서 미싱을 했다. 그 후 서울에서 가구점을 하는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다. 가구점에서 일하던 때인 1965년에 영장이 나와 입대했다. 그때 나이 스물세 살이었다.

논산 연무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6주 기본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 2주, 8주간의 훈련을 받았다. 자대 배치 전에 춘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4주 훈련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홍천 맹호부대로 배치되었다. 자대 배치되어 7개월 동안 생활했다. 베트남 파병이 결정되어 홍천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았다.

베트남 파병

맹호부대는 처음 파병되는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자체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후에는 베트남 파병을 위한 훈련 장소가 따로 있었지만, 파병 초기라 자체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맹호부대 1개 사단이 파병되었다. 맹호부대는 일명 수도사단이라고 했다. 수도 경비가 주 임무였던 부대인데, 사단 전체가 베트남 파병 대상이 되었다. 당시 사단에 근무하던 병사 중 외아들만 제외하고 열외 없이 파병되었다.

1965년 10월 5일 홍천을 출발, 부산항에서 10일간 대기하고 환송식을 마친 후 출발하였다. 베트남에 도착하여 베트남에서 다시 실전 겸 훈련을 4개월 받았다.

맹호부대 –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맹호부대의 위상은 대단했다. 작전 계획도 치밀했고 전투 성과도 탁월했다. 대부분 1년이 파병 기간이었지만 이연기 씨는 18개월간 복무했다. 신병 때 갔기 때문에 파병 기간이 좀 길었다. 처음에는 사단 전체가 갔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이동했지만, 후발대는 귀국하는 병력의 수만큼 그때그때 병력 차이가 있었다.

작전을 나갔을 때 동료 하나가 전사했다. 전우가 죽으니까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 동네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굴에 잡아넣었다. 그리고 연막탄 집어넣고 수류탄을 집어넣었다. “이것이 전쟁이구나!” 싶었다. 다시 동네를 순찰하는데 12세, 7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자기 부모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빠 보았느냐고 물었다. 굴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들을 누가 돌 볼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쟁은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참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땅속에서만 살았다

월남 파병 초반에는 지상에 막사가 없었다. 땅속에 움집을 파서 생활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떼를 깔았다. 일개 분대에 하나씩 공간을 만들어 생활했다.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에 만들었던 것이다.

1966년도 8월 9일, 아군 1개 중대가 적 사단 병력에 포위되어 공격받았다. 1박 2일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적의 대부대가 이동하고 있었다. 적정을 보고하면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부대에 돌아와 정비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사방에서 공격을 해왔다. 야광탄이 날아오는 것이 엄청났다. 겁을 먹은 신병을 끌고 교통호로 나갔을 때 막사 입구에 포탄이 떨어졌다. 안에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안에 있었던 병력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크레모아를 터트려 저지했다. 벙커에서 부대원들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두 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적을 막았다. 칼빈총 덮개가 불이 나도록 쏘았다. 심지어는 총열을 물에 식혀가면서 사격했다. 새벽 1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 반까지 5시간을 교전했다. 교전이라고 해야 단 몇 분이면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장장 다섯 시간을 교전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고 보니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아군이건 적군이건 전사자들이 즐비하고 피범벅이었다.

그날 아군 1개 중대 200명이 적 4,000명을 상대로 한 전투였다. 베트남 파병 전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전과였고, 부대원 전원 무공훈장을 받았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이 봉 희 (1942년생)
금산군 남일면 마장3리

베트남 파병



고아 아닌 고아로 큰 겁니다

이봉희 씨는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에서 1942년도에 태어났다. 다섯 살 때 4형제를 두고 어머니가 작고하시자 아버지는 자녀가 있는 분과 재혼하셨다.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돌보아 주실 능력이 없으셨는지 새로 얻으신 새어머니 가족하고만 생활하셨다. 가까이에 사는 친척도 없어서 어린 4형제는 각자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9살 때 한국동란이 일어났다. 전쟁 이후 시골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서울에 가서 벌어먹는 것이 더 나을 듯해서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다.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구두닦이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을 때 영장이 나왔다.

에라, 이렇게 살 바에야 나라에 바친다

논산 연무대훈련소로 입소했다.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고 지내다가 입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흩어져서 각자 겨우 살아가는 처지에 형제가 군에 입대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는 형제도 없었다. 영장 하나 들고 혼자 입대했다.

보병 병과로 6주간의 훈련받고, 6사단으로 배치 받았다. 맹호 기갑연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명칭만 기갑연대라고 했지, 실제로는 보병이었다. 6사단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했다.

파병 지원

경기도 현리에서 2년 반의 6사단 근무를 마치고 파병을 지원했다. 그냥 있으면 만기 전역을 해야 했다. 사회에 나가도 뾰족한 수가 없었던 터라 아예 장기 복무를 신청했다. 군복무 기간이 4년으로 늘지만 개의치 않았다.

베트남 파병 기간은 각자 원하는 기간만 했다. 파병 근무를 하다가 제대하고자 하면 장기 복무 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했다. 신병 때 지원해서 신병부터 파병 근무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대병력 중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급이 들쑥날쑥했다. 일단 국내에서 근무할 때의 계급에서 한 계급 승진해서 파병 근무를 했다.

현지에서는 계급을 따지지 않았다. 계급에 따라 대우를 해 달라든지 보직을 맡는 것도 아니었다. 총탄이 날아오는 전투 시에 계급은 불필요하다. 형제 이상 가는 전우애 때문에 계급은 있더라도 계급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전투 시에 장교, 하사관, 사병을 논하고

있으면 죽음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계급을 거론하지 않았다.

맹호부대에서 베트남 파병을 위한 훈련을 6주간 받았다. 베트남에서 야포 65밀리 2문을 운용했다. 야포 한 문에 사수, 부사수 한 명씩, 탄약병 3명으로 구성되었다. 한 문에 다섯 명씩, 두 문이니까 10명이 생활했다.

개인 화기는 M1소총, 칼빈이었다. 포를 다루었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은 칼빈소총이 지급되었다. 후반기에 칼빈소총에서 M16으로 교체되었다. 포병이었기 때문에 전선의 후방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항시 대기를 해야 했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사격을 하지 않아도 불에 달구어진 것같이 포가 뜨거워졌다. 포를 매고서 이동해야 하는데 포신 자체가 뜨거워서 고생했다.

파병 근무는 1년 했다. 파병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무 잔여 기일에 맞추어 귀국을 시켰다. 따라서 파견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도 많았다.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여 1년 뒤에 파병되었는데도 여전히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생활했다. 전투가 없으면 땅을 파는 것이 일이었다. 생활하는 공간도 필요했지만, 참호를 파야 공격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호 파는 작업이 많았다. 참호도 깊게 파야 총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키보다 깊게 팠다. 땅속에 막사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을 파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습기가 있어 생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앞뒤가 없는 전선

국내 근무 환경은 베트남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었다.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땅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앞뒤가 없는 전선에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다. 24시간 전투에 대한 긴장감 놓을 수가 없었다. 어느 방향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막사를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대 이동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동하기 어려워 참호를 둘러서 팠던 것이다. 수류탄, 크레모아 등 참호에 전투준비를 다 해 놓았다.

보급도 어려웠다. 헬리콥터로 지원을 받았다. 식수나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더운 기온에 몇 개의 드럼통으로 식수를 추진해 주지만 턱도 없었다. 비가 오면

판쵸우의로 받아서 수통에 넣고 약을 넣어서 마셨다.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 유용했다. 개울이 있었지만, 베트콩이 주둔해 있는 곳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PX는 사단본부에나 가야 이용할 수 있었던 터라 기타 보급도 헬리콥터로 이루어졌다.

노루 사냥

베트남 전선에서 베트콩이 주된 적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규군과 베트공은 성격이 다르다. 규모와 성격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규군의 주둔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 주로 있었고, 베트콩은 지방에 산재해 있었다. 정규군은 통일된 군복과 개인마다 개인 소총이 지급되어 있었지만 베트콩은 구성원 중에 두세 명만 소총이나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콩은 예전 한국동란 때 지리산에서 활약했던 빨치산과 같은 비정규군이었다. 베트콩과 전투한다고 해도 치열한 공방전이 아니라 노루 사냥식으로 몰아서 사살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정찰로 이어졌다. 정찰 중에 불쑥 나타나서 총을 쏘는 경우가 많았다.

투코작전 – 무공훈장

투코작전은 월맹 정규군 1개 대대를 상대로 맹호부대 9중대가 싸워 전과를 올린 전투였다. 투코작전은 월맹군 1개 대대와 1개 중대가 싸워 이긴 전투로 월남전의 전투 중에서도 유명한 전투가 되었다.

66년 8월 9일 저녁 6시부터 전투가 벌어졌다. 아군이 수색 작전을 나간 사이에 월맹군이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색 작전에서 돌아오자마자 공격을 개시한 것이었다. 미군 장갑차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적의 포탄이 정확하게 미군 장갑차를 맞췄고, 중대 안테나를 맞춰 망가졌고, 포를 거치시킨 주변으로 정확하게 포탄이 떨어졌다. 아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좌표를 잘 못 설정하여 아군 진지에 포가 떨어졌다. 벙커로 들어오는 월맹군을 칼로 찔러 제압한 이 중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수색 작전을 마치고 무장해제하고 군복도 벗은 상태로 휴식에 들어갈 무렵에 적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군복을 찾아 입을 겨를도 없이 총을 잡아야 했다. 대부분 속옷 차림으로

전투했다. 탱크에서 케리바-50으로 사격하고, 참호에서 소총 사격뿐만 아니라 크레모아를 터트려 밀려오는 월맹군을 막았다. 정신없이 적과 교전하기를 6시간 여를 보냈다. 얼마나 사격했는지 총구가 벌겋게 달아있었다.

당시 보통 전투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6시간 넘게 전투를 한 것이다. 5분 전투하려고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훈련소에서 입버릇처럼 교관들이 말했었다. 6시간의 전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1개 중대의 적은 병력이 대대 병력을 상대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은 그동안 땀흘려 파 놓은 외곽의 참호 덕이었다. 월맹군은 평지에서 공격해 왔지만, 아군은 참호에 들어가 엄폐된 상태에서 방어했기 때문이었다. 월맹군은 엄폐물이 없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어려웠다. 더군다나 사방으로 공격해 왔다면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월맹군은 한 방향에서 공격해 왔다.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착실하게 훈련을 한 결과이기도 했다. 막상 훈련 시에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훈련으로 인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훈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전투가 끝나고 전과 보고를 해야 했다. 상부의 지시로 월맹군의 군복을 벗겨 올려야 했다. 총탄에 맞아서, 아니면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죽은 시신에서 훼손되지 않은 군복을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령 그런 전사자를 찾았더라도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서 전사자 옷을 벗기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워낙 온도가 높은 나라이다 보니 부패가 심했다. 심한 악취와 부패한 시신의 불어난 몸집 때문에 단추도 풀기가 어려웠다. 시신이 부패하는 악취는 코피가 날 정도로 심했다. 어렵게 벗긴 군복을 물에 빨아서 말려서 한국으로 보냈다. 당시 작전에 임했던 병사 전원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부대원 전체가 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부여군

|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은산대동국수, 대를 이어 명품 국수를 만들다 632
단학이용원, 가위 하나로 멋진 사람을 만들다 638
옥산목공소, 나무에 솜씨를 담다 643
청일양복점, 부여 학생들의 교복을 만들다 649
평생을 무사고로 달린 부여의 택시기사 654
금강동물병원, 한평생 부여의 동물을 돌보다 659
영진혼수, 혼수에 정과 인심도 담아 팔다 664
신애철공소, 내 맘에 들어야 다른 사람 맘에도 든다 669
시골통닭, 맛과 추억을 담다 674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이 정 민 (1963년생)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은산대동국수, 대를 이어 명품 국수를 만들다



은산의 이름난 국수집, 은산대동국수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이름난 국수공장인 은산대동국수가 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는 이는 이정민 씨로, 이정민 씨의 아들까지 포함하면 3대를 이어오고 있는 보기 힘든 국수공장이다.

가게 이름인 은산대동국수는 이정민 씨의 할아버지 고향인 평안남도 대동에서 따 왔다.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평안남도 대동에서 은산으로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포목장사를 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정민 씨의 아버지는 방앗간에서 국수를 만드셨다.

방앗간은 주로 떡을 만드는 곳이었지만, 이정민 씨의 아버지는 제면기술을 배워 방앗간에서 국수를 만드신 것이었다. 방앗간에서 만든 국수는 5일장인 은산장에서 팔았다. 장날이 돌아오는 기간에 만든 국수는 장날 하루에 다 팔릴 정도도 반응이 좋았다.

국수집 장남

국수를 만드는 일은 손이 아주 많이 갔다. 국수를 말릴 때에는 국수를 넌 곳의 바닥에 가마니를 깔았다. 국수가 마르는 동안 떨어진 국수 부스러기도 다시 모아서 국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껍고 무게가 나가는 가마니 수 십장을 바닥에 까는 일은 특히 힘들었다.

2남 4녀 중 장남인 이정민 씨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교에 다닐 때도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은산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국수공장 일을 도왔다. 국수공장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일을 도와왔던 이정민 씨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부모님을 도왔던 효자 장남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의 국수공장을 이어 받다.

졸업 후 친척 분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운수회사에 취업하였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이정민 씨는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 '10년만 직장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아버님을 돕자'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서울의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내려가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정민 씨의 아버지도 고향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하였고, 아내와 장모님도 이정민 씨의 부여행을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정민 씨 혼자 먼

저 부여에 내려와 아버님의 국수 공장을 도왔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로부터 1년 후 부여로 내려오게 됐다.

새벽부터 사계절 내내 국수를 만들다.

이정민 씨는 매일 자정부터 국수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물에 정제염을 넣어 소금물을 만들고, 그 소금물에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한다. 믹서기로 반죽을 한 후 롤러를 이용해 성형을 하는데 총 4단계를 거쳐 반죽을 얇게 만든다. 그 얇게 만든 반죽을 칼날에 통과시켜 국수 가락을 뽑아낸다.

예전에는 국수 가락을 대나무에 걸어 말렸지만, 이제는 스테인리스 봉에 걸어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이정민 씨는 이 작업을 새벽부터 아침까지 거의 쉬지 않고 하는데,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인다. 아침 7시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양치질까지 하면 15분이 걸린다. 바로 또 공장으로 와서 오전 10시까지 제면 작업을 반복한다. 10시가 되면 작업실 청소를 하는데 작업 공간이 넓지 않은 데도 기계를 스팀 청소기로 살균하여 세척하는 데에 2시간이 걸린다. 낮 12시 쯤 되면 그제야 하루의 작업을 마친다.

습도와 관련되어 있는 국수 만들기

국수 만들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빛, 바람 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습도이다. 옛날에는 바깥에서 국수를 말렸는데, 스마트 건조기로 실내에서 국수를 말리는 지금보다 습도 조절이 어려웠다. 이정민 씨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 습도 체크를 하고 국수를 말리는 중간에도 습도가 과하면 선풍기를 더 트는 등의 습도 조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습도가 적당히 있는 새벽부터 국수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습도는 국수에 넣는 소금의 양에도 영향을 준다. 습도가 낮을 경우 국수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넣는다.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 국수결이 매끄럽지 않고 잘 찢어진다.

공산품으로 대량 생산되는 밀가루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밀가루의 포대별로 수분의 양이 미세하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민 씨는 직접 밀가루를 만져보며 수분을 체크하고 물의 양을 조절한다. 이것은 수 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 낸 이정민 씨만의 중요한 감각

으로, 이런 이정민 씨의 손에서 명품 국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국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제면업은 과거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전, 비나 눈이 많이 올 경우 국수를 많이 만들 수 없었다. 비나 눈이 오면 국수를 더 찾는데, 국수를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국수가 품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스마트 건조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습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정민 씨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직접 습도를 점검하며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의 국수를 생산하고 있다.

국수 매출은 보통 여름이 가장 높다. 더운 날씨로 입맛을 잃은 사람들이 쉽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 년 내내 국수를 만들지만, 겨울에는 국수 판매량이 낮아서 열심히 만들어 보관해 놓는다. 국수 수요가 많은 여름에는 매일매일 만드는 국수와 더불어 지난 겨울에 만들어 보관해 놓은 국수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의 증표인 해썹(HACCP) 인증을 받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썹(HACCP) 인증제도가 생겼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찾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이다.

이정민 씨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여 일부 공정을 기계화하고 업장 내에 모든 기계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하였다. 불순물이 많은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사용하고 질이 좋은 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한다. 은산대동국수는 규모가 작은 국수공장이지만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비결

은산대동국수는 여러 대기업에서 많은 제안를 받았던 적이 있다. 판매를 같이 하거나 공장을 지어줄 테니 그 곳에서 국수를 만들어보라는 제안, 해외 수출을 같이 해보자는 등의

내용이었다. 여러 제분회사에서도 은산대동국수에서 밀가루를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가게에 찾아와 밀가루 판매 영업을 한다. 그렇지만 이정민 씨는 아버지가 거래했던 밀가루회사와 변함없이 거래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 속에서 은산대동국수가 강소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국수의 품질이다. 이정민 씨는 국수 만드는데 필요한 염도 조절 작업을 세심하게 하고 있다. 그날그날의 습도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염도를 맞추기 위해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오뚜기나 샘표 같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염도는 6-7%인데 이정민 씨는 12-13%로 염도를 정한다. 염도를 낮게 할 경우 국수가 쉽게 불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정민 씨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염도 덕분에 은산대동국수는 쫄깃쫄깃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정민 씨의 아버님은 사업을 크게 확장하지 말고 자신의 힘이 닿는 데 까지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이정민 씨는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초지일관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소박하지만 탄탄하게 은산대동국수를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독자적인 시스템과 맛으로 지금까지 은산대동국수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부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다.

은산대동국수는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굿뜨래 마크 인정을 받은 제품이다. 굿뜨래 마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밀을 써야 하는데 은산대동국수는 예외로 인정받아 호주산 밀가루를 쓴다. 우리밀을 쓸 경우 끈기가 적어 국수가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이정민 씨는 우리밀보다 끈기가 있는 호주산 밀가루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수의 양과 종류

은산대동국수는 중면과 소면 두 가지를 모두 만들지만 주로 중면을 위주로 생산한다. 예부터 은산대동국수를 찾는 손님들은 중면을 많이 찾았었는데, 노인 인구가 급감하고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소면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소면을 만드는 방법은 중면보다 복잡하다. 면이 더 가늘어야 해서 면을 더 납작하게 만

들어야 하고 국수를 말리는 공간도 더 필요하다. 소면이 중면보다 500원 더 비싸지만 중면을 만드는 것보다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중면보다 마진이 더 나지 않는다.

국수의 포장 단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보통 한 관 약 4kg 정도의 단위로 포장을 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지금은 1.2kg 단위의 5~7인분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국수 포장을 한다.

같이 일하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바람

어릴 적부터 잠이 없어서 지금까지 네 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이정민 씨는 낮에 잠깐 잠을 잔 다음 다시 일어나 다음 날 작업을 준비한다. 그의 성실한 노동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정민 씨는 자신을 따라 고향에 내려와 국수 가게 운영을 도와준 아내와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고향으로 내려온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그는 아들이 가업을 잘 물려받아서 은산대동국수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조 정 길 (1943년생)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단학이용원, 가위 하나로 멋진 사람을 만들다



일본에서 태어나다.

조정길 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너무 어릴 때라 일본에서 살았던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조정길 씨에게는 잊혀지지 않은 두 가지 기억이 있다. 오사카에 살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폭격을 피해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 숨어야 했다. 하루는 조정길 씨가 너무 어려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밖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놀란 형이 비행기 폭격을 피해 조정길 씨를 안고 방공호에 들어가다 조정길 씨의 팔이 크게 다쳤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조정길 씨의 팔에 크게 남아 있다.

또 하나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가족들과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보따리를 뒤지던 미국 군인들의 얼굴이다. 조정길 씨는 서양 사람들을 그때 처음 보았고, 미국 군인들의 얼굴이 빨갛게 보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6.25때 능산리로 이사가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정길 씨는 3,4일 후에 전쟁소식을 들었다. 조정길 씨의 가족이 피난을 간 것은 9월이었다. 당시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질 것이 예고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30리 밖으로 피난을 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정길 씨의 가족들은 이미 일본에서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멀리 피난을 가는 것이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근의 외가집으로 피난을 갔다.

이모님 댁의 가족들도 모두 그곳으로 피난을 와서 약 스무 명 정도가 함께 피난생활을 했다. 갑자기 떠나온 피난길에 잠자리가 부족해 불편했고, 스무 명이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식사준비를 하시던 외할머니가 큰 솥에다 죽을 끓인 후 한 사람에게 죽을 퍼주시고 다시 물을 부어 죽의 양을 늘려서 먹을 정도로 전쟁통의 식량 사정이 어려웠다. 피난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자 조정길 씨의 가족들은 약 한 달 만에 부여의 집으로 돌아왔다.

군대간 친척 대신 이발소 일을 돕다.

1943년생인 조정길 씨는 부여중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에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렵기도 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학업에 힘을 기울이지 못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당시 사촌이 은산에서 이발소를 개업하고 이었는데, 이발소를 차려놓고 혼인한 지 3개

월만에 갑자기 군대에 입대하게 됐다. 사촌은 조정길 씨에게 제안 하나를 했다. 사촌의 이발소에서 1년만 일하면 고등학교를 보내 준다는 제안이었다. 조정길 씨는 은산에 있는 사촌의 이발소에서 1년 동안만 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느덧 배운 이발 기술

이발관이 있는 은산은 지금과 달리 꽤 사람들이 많았다. 주변에 금광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발관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장날에는 손님이 많아 조정길 씨도 손님들 머리를 감겨주거나 이발사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손님이 오면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눈여겨 보았던 솜씨로 손님들의 면도를 해 주기도 했다. 가끔은 친구들이 이발관을 찾아오기도 해서 조정길 씨가 친구들 이발을 해 주기도 했다. 친구들이 오면 이발료를 받지 않고 머리도 깎아주고 고데나 드라이도 해 주면서 어느덧 이발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했다. 군대에 간 친척이 군대에서 제대를 못하고 1년 더 군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딱 1년만 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던 조정길 씨는 어쩔 수 없이 은산의 이발관에 더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 대신 이발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발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다.

친척이 운영하던 은산의 이발소에서 기술을 빨리 익힌 조정길 씨는 군대를 가기 전에 이발사 면허시험을 치게 되었다. 이발사 면허 시험과목에는 위생학과 일반 상식 과목이 있는데, 인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발사 면허 시험을 치는 보통의 사람들은 위생학을 가장 어렵게 생각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조정길 씨는 어렵지 않게 위생학에서 만점을 받았다.

오히려 어려웠던 것은 실기시험이었다. 대개 이발사 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울 때 군소리도 들어가면서 엄격하게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조정길 씨는 주인 대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배우는 과정이 엄격하지 않았다. 또 스스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환경이므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도 있었다.

당시 실기시험에는 응시자가 모델에게 대가를 주고 골라야 했다. 두상이 좋고 머리 깎기에 좋은 사람들은 이미 선점이 된 상태였다. 조정길 씨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모델은 지게 지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얼굴이 험상궂고 덥수룩했으며, 수염이 많이 나서 면도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조정길 씨는 모델로 온 사람에게 솔직하게 본인이 좀 서투른 면이 있지만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이발사 면허 시험에 임했다. 시험관들에게 모델의 의견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모델은 조정길 씨가 이발을 아주 잘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조정길 씨는 군대를 가기도 전에 이발사 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군대에 입대해서는 위생병으로 근무했다. 군대의 위생병은 상처 난 곳의 소독 등 간단한 것을 포함해 상처 난 곳을 꿰매거나 주사를 놓기도 했다. 이발소 경험과 위생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적응했던 것 같다.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후반에 개업하다.

조정길 씨는 군대에 다녀와서 이발소를 개업하게 되었다. 이발소 이름은 단학이용원이었다. 당시 조정길 씨는 나이가 젊은 20대였지만 사업 수완이 좋았다. 혼자서 이발을 할 수 없어서 이발사를 둘이나 뒀다. 본인이 직접 이발을 하기 보다는 이발사를 두고 수입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조정길 씨의 이발소에는 손님이 많았고, 이발소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 조정길 씨의 이발소에서 이발을 배우며 나간 기술자들도 상당했다.

이발소를 잠시 쉬고 정당활동에 뛰어들다.

조정길 씨는 1983년 무렵 이발업을 쉬고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이의 추천으로 정당에 이름만 올리는 정도로 알았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었다. 보수가 없는 활동이었지만 해야 할 일과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았다.

당시에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소머리국밥이나 막국수를 주 메뉴로 팔았다. 조정길 씨는 정당 활동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 밥값이나 차를 마시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일이 흔했다. 경제

활동 대신 정당 활동을 하는 조정길 씨 때문에 그의 부인이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2003년에 다시 이발사의 길을 가다.

이발업을 쉬고 정당 활동에 참여했던 조정길 씨는 2003년에 다시 이발업을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이발 기술을 배워 면허가 있었던 조정길 씨는 몸에 배인 이발 기술을 다시 되살려 이발소를 운영할 수 있었다.

마침 막내 동생이 400만원을 보태주어 이발소를 다시 열 수 있었다, 막내 동생의 지원으로 비록 중고이지만 이발소에 필요한 기구와 가구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다시 운영하게 된 단학이용원은 이발소이자 어르신들이 모이는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단학이용원

부여에 있는 이발소들은 협회를 조직하여 소통하고 있다. 한 달에 15,000원의 회비를 내는데, 협회의 사무국장이 매우 유능하다. 이용원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잘 전달해 주고 있어 이용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

조정길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연다. 읍내가 아닌 곳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오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이발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발소 건물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 어떤 단골은 더 이른 새벽에 찾아오기도 한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단골로 오시던 이발소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경우는 돌아가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발소는 일요일에만 하루 쉬고 있다. 얼마 전 수술을 받고 병원생활을 하느라 한 달 간 이발소 운영을 못했더니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다.

나이를 보면 이발을 그만하고 쉬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조정길 씨는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어서 다시 이발을 시작했다.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도 오시는 손님들하고도 대화라도 나누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지내려고 한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박 천 동 (1946년생)
부여군 외산면 복덕리

옥산목공소, 나무에 솜씨를 담다



모시풀 만드시던 어머님의 기억이 선명하다.

박천동 씨는 부여군 외산면 복덕리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박천동 씨의 집은 생활이 어려웠던 편이었다. 농토가 많지 않아 아버지는 다른 집의 농사일도 도와주며 생계를 이었다. 여성들은 모시일을 하거나 밭을 매는 일을 주로 했다.

박천동 씨의 어머니도 모시를 짜거나 입으로 모시를 가늘게 째서 실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 어머니는 짠 모시를 은산이나 대천, 홍산, 논티, 웅천, 한산, 판교의 시장에 가서 팔아 곡식을 사시거나 집에서 가용할 물건을 사 오셨다.

나무로 만든는 것에 관심이 많다.

박천동 씨는 어릴 때부터 나무에 관심이 많았다. 대목장이셨던 친구의 아버지가 박천동 씨에게 얼레 하나를 만들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얼레가 얼마나 좋았는지 잠을 잘 때도 안고 잔 기억이 있다.

박천동 씨가 살던 집의 아랫집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셨는데 목공에 솜씨가 있으셨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교장선생님 댁으로 가서 목공 작업을 구경 했다. 잔칫집에 구경을 가면 잔칫집 음식을 얻어먹는 것보다 나무로 세밀하게 만든 혼수품에 관심이 많았다. 박천동 씨가 걷는 소목장의 길은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 부터 그가 품었던 느낌이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어리지만 손재주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이 변변치 않아서 직접 만들어 노는 일이 흔했다. 박천동 씨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의 팽이를 깎아주고, 썰매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옆집에 도장 새기는 분이 사셨는데, 그걸 보고 와서 초등학생 때 친구들 도장을 파주기도 했다.

박천동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상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대신 한학을 배우면서 집에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이런저런 도구를 만들어보며 약 2,3년 가량을 보냈다.

그러다가 곧 박천동 씨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걸상 제작을 맡았던 목공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상은 규격에 맞춰

서 기술자들이 주로 작업하였고, 박찬동씨는 끌구멍을 파거나 장부를 따는 등 주로 뒷일을 하며 일을 배웠다.

서울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다.

목공소에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무로 목공 실습을 하던 박천동 씨는 군대를 다녀 온 후 서울로 갔다. 외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고 목공에 관해 더 깊게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서울에는 와우아파트나 영천아파트와 같이 서민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많았고, 목공일도 많았다. 일이 없는 겨울에는 집으로 내려와 있고 봄에 날이 풀리면 서울에 올라가 일을 하며 지냈다.

서른 두 살에 옥산목공소를 개업하다,

그 무렵 혼인도 하게 됐다. 혼인 후에도 겨울을 제외한 철에는 서울로 올라가 일을 했는데, 아내만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싫었다.

혼인 후 이듬해인 1972년에 박천동 씨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외산에서 조그만 방 하나가 딸린 가게를 얻어 자신의 목공소를 개업했다. 자신의 목공소를 열었지만 처음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았다.

차츰 주방에서 쓰는 찬장이나 책상, 문짝 등도 만들고, 지붕이나 천정 수리도 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또한 점차 기술력이 향상되고, 개업 2년 후에는 전기가 들어오면서 기계로 일을 하니 능률도 올랐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으로 양옥을 많이 짓게 되며 문을 새로 만들어 다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일거리가 늘어났다.

서툴렀던 시절을 지나 기술력과 능률 향상으로 문짝 제작 작업을 이어가다.

목공소 개업 이후 처음에 부여 안에 있는 작은 절인 화암사에서 문짝 주문이 왔었다. 살을 둥글게 깎아 투미리 기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박천동 씨는 당시 투미리 기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홀로 고군분투 했다. 창살은 등미리·골미리·배미리·투미리 등으로 다듬는데 이 중 투미리가 가장 고급 수법이다. 투미리 기법으로 창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의 꼭짓점이 꼭 맞아야 하며, 작업난이도가 높아 일반 가정보다는 사찰과 같은 곳에 주로 달던 문이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노인이 서투르게 작업하는 박천동 씨를 보고, 본인이 방법을 일러 줄 테니 그것을 보고 따라하라고 했다고 한다. 방법은 바로 얇은 쇠에 날을 만들어서 나무에 밀어서 하는 것이었다. 지나가다가 들른 분에게 기술을 배운 덕분에 화암사의 문은 성공적으로 잘 만들 수 있었다.

가정에서 쓰기 좋은 편리한 3단 찬장을 잘 만들어 이름나다.

지금은 찬장 대신 주방에 싱크대가 있지만, 예전에는 부엌에 찬장이 있는 곳이 많아 목공소 개업 초반에 찬장을 많이 짰다. 찬장은 보통 3단으로 만들었다.

식구가 많은 집은 찬장을 크게 만들었고, 반대로 적은 집은 찬장을 작게 만들곤 했다. 찬장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4, 5일이 걸리고, 간단한 것은 이틀이면 만든다. 개업 초반에는 4, 5만원 정도의 찬장 가격을 받았었고, 1980년대 무렵에는 10만원, 15만원 정도로 올랐다.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다.

박천동 씨는 대전 남간정사의 동재, 서재 등 여러 문화재 건물의 문짝을 짜면서 문화재나 한옥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도 인맥을 쌓게 되었다. 함께 일을 하던 분들로부터 문화재나 문화재급 건물의 문짝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이후 틈틈이 문화재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의 문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면서 자격증 준비를 했다. 드디어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 1999년에 그는 연장을 꾸려 시험장소인 서울의 서오릉으로 갔다. 필기시험은 없고 실기시험만 있었는데, 조그만 창문을 만드는 것이 과제였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가 있었던 박천동 씨는 마침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도 받게 되었다.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뢰를 받아 사찰 문짝을 만들다.

문화재 수리 기능사 자격증 덕분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급 건축물의 창호 제작에도 지속

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 번은 경남 양산의 오래된 절인 신흥사에 있는 한 건물의 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문 의뢰가 있었다.

문짝을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멀쩡한 것은 그대로 두고 삭은 것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박천동 씨에게 직접 문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자문의뢰였다. 박천동 씨가 상태를 보니 문이 너무 낡아서 해체하면 복원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문을 새로 만들어 교체를 하는 편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해 해주었다.

박천동 씨의 의견에 따라 신흥사 주지 스님은 박천동 씨에게 문 한 짝만 짜 오라고 주문을 했다. 주지 스님은 박천동 씨가 제작한 문에 만족했고, 나머지 문도 주문했다. 이후 부산의 범어사, 여수의 진각사, 강화도의 전등사 등 지금껏 여러 사찰의 문 만드는 작업을 이어왔다.

박천동 씨가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문은 세살문이다. 세살문은 가장 무난하며 질리지 않는 문이다. 세살문 이외에도 다른 문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우연히 전에 국립공주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박물관 문을 꽃살문으로 제작해보았다. 꽃살문은 아직도 박물관에서 잘 쓰고 있다.

목수가 쓰는 다양한 나무와 좋은 나무

목수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나무이다. 양옥 붐일 때는 나왕을 주로 썼고, 고급 양옥은 수입 홍송으로 옹이가 없는 무절나무를 썼다. 한옥 같은 경우에는 육송을 많이 쓰는데, 강원도의 금강송이 고급 종이다. 나무가 연하고 뒤틀림이 적은 금강송은 아주 고급종이지만 이것을 쓰고 싶어도 값이 비쌀뿐더러 문화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나무는 지역에 따라서 질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충청지역의 나무들은 구불구불한 상태가 많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충청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나무보다 질이 좋지만, 강원도나 경상도 북부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나무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워, 사찰 문을 짤 때 미국, 캐나다 쪽에서 들어온 홍송을 많이 쓰고 있다

한편 나무는 살아 숨쉬는 재료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는 재료이다.

나무가 덜 마르면 뒤틀릴 수도 있고, 중량이 너무 나가면 문이 늘어져 문이 안 닫힐 수도 있다. 보통 나무를 건조시키는 데는 1년이 필요하다.

박천동 씨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홍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나무를 볼 때에는 나무 종류 보다는 얼마나 잘 컸는지, 옹이가 적고 나이테가 조밀조밀하게 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들과 지역의 목수들과 함께하며 목공소를 운영해나가다.

박천동 씨는 요즘 아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아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그는 아들에게 너무 많이 일러주기 보다는 자신이 그래왔듯 아들도 스스로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을 배우길 바란다. 또한 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목공소의 일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소 도 영 (1942년생)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청일양복점, 부여 학생들의 교복을 만들다



청양군 청남면에서 나룻배를 타고 학교에 다니다.

청양군 청남면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소도영 씨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했다. 소도영 씨가 태어났던 청양의 청남면은 부여와 가깝고 금강변을 낀 지역이었다. 청남면 학생들은 금강 건너 공주 탄천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로 통학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청남면에서 공주 탄천의 학교를 가려면 아침 일찍 나룻배를 타야 했다. 뱃삯은 탈 때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1년에 보리 한 말과 벼 한 말을 사공에게 주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나룻배를 타기 위해 학생 수십 명이 몰렸다.

공주의 이모부가 운영하시는 학생복 점에서 일을 배우다.

중학교를 졸업한 소도영 씨는 집안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다가 스무 살 무렵에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생복을 만드는 이모부의 가게에 취직하였다.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학생복 점은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공주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밀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신학기 때는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이 기본일 정도로 매우 바빴다.

소도영 씨는 직원이 4명인 이모부의 학생복 점에서 막내 직공으로 일하며 바늘을 잡는 법을 배웠고, 단춧구멍을 만드는 법과 옷에 단추를 다는 법을 익혔다. 그렇게 1년을 일하니 바지를 꿰맬 수 있게 되었고 2년째가 되니 상하의 모두를 꿰멜 수 있는 기술자가 되었다.

군대를 전역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가다.

군대를 전역한 소도영 씨는 이모의 소개로 동대문에 있는 점퍼 공장에 취직하고 이모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다.

이모댁에서의 생활을 1년 정도 마치고 소도영 씨는 혼인을 했다. 혼인을 하면서 이모댁의 다락방을 떠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방 한 칸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소도영 씨는 신혼집인 봉천동에서 원효로까지 걸어와, 원효로에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출퇴근했다.

혼인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된 소도영 씨는 점퍼 공장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

우며 일을 익혔다. 점퍼를 만드는 공정은 옆 주머니와 앞 주머니를 뚫은 후 겉감과 안감을 뒤집으면 되는 것이라, 상하의가 있는 학생복이나 양복과 달리 배우기는 쉬웠다.

재봉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 소도영 씨는 미싱 작업 중에 미싱 바늘에 손톱이 찍히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요즘처럼 전기 모터가 달린 미싱기가 아닌 순전히 발로 돌려가며 수작업해야 했기에 의류 공장은 노동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했다.

고향 부여로 돌아와 청일양복점을 개업하다.

점퍼 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소도영 씨는 더 이상 배울 기술이 없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1971년 고향인 부여에서 학생복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맑을 청(淸) 자에 날 일(日) 자. 지인이 작명한 맑은 날이라는 뜻이 마음에 쏙 든 소도영 씨는 바로 청일양복점이라는 맞춤 양복점을 개업하였다. 부여에는 부여중학고, 부여고등학교, 부여상업고등학교, 백제중학교 등 학교가 많아 양복보다는 학생복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개업을 하고 1년을 지내며 소도영 씨의 가게는 재봉틀 3대를 구비하고 직원 3명을 고용할 정도로 번창하였다.

남학생복을 전문으로 만들다.

소도영 씨는 처음 일을 배울 당시 남성복 전문이었던 공주의 이모부 가게에서 배웠기에 여성복은 제작하지 않고 남성 학생복을 전문으로 제작하였다. 학생군사교육 복장인 교련복도 제작하였는데, 교련복은 교복과 같은 맞춤이 아니라 기성복 스타일로 상하의를 만들기에 공정이 쉬웠다.

1970년대에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교복은 상하의 한 벌만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맞춤으로 교복을 장만해야 하던 당시에 교복 맞춤은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줬다. 갈아입을 교복을 별도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한 벌로 지냈다.

사춘기 학생들은 성장이 매우 빨라서 교복이 몸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도영 씨는 학생들의 키가 자라면 바로 수선해서 입을 수 있도록 바지 밑단을 여유 있게 만들었다. 작은 배려이지만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을 듣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손님을 맞을 수 있

었다.

1990년대 이후 맞춤복보다 저렴한 기성복이 학생복 시장에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기성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소도영 씨는 학생복 대신 맞춤 신사복으로 업종을 변경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했다.

청일양복점의 원단과 맞춤복 제작 과정

소도영 씨는 부여에서 가까운 대전에서 주로 원단을 골라서 썼다. 맞춤복 제작 과정은 먼저 원단의 소재와 색감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먼저 벽에 걸려 있는 약 50벌 정도의 원단을 보며 소재와 색감을 고르고, 허리둘레, 밑위, 하의기장, 가슴둘레, 팔기장 등 손님의 몸 수치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원단을 재단하여 가재봉하는 단계인 가봉은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 만약 손님이 고른 원단이 가게에 없으면 원단 업체에 주문해서 받은 후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더 걸린다. 가봉 후 꿰매서 완성 되는 데는 3일에서 4일이 걸린다. 가봉 후 수정까지 포함해서 제작 시간은 총 10일에서 15일 정도이다. 원단에 따라 맞춤양복의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0~70만 원 정도이다.

청일양복점에서 맞춤복을 제일 많이 제작할 시기에는 한 달에 20벌을 만들기도 했다. 양복점 운영이 잘 되었던 80년대에 부여에는 약 15개 정도의 양복점이 있었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원단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류하고자 부여양복협회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기성복의 시대가 도래하다.

2000년대 초까지는 전통적인 맞춤복을 고집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부터 발전한 기성복이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크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맞춤 양복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체격이 너무 크거나 왜소해 기성복을 입을 수 없는 손님과 혼인이나 환갑 등 특별한 날에 입을 옷을 제외하고는 맞춤복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다. 가끔 무도장에서 춤추는 손님이 베이지 색과 자주색 등의 화려한 의상을 맞추고 가는 일이 있지만, 드문 일이다.

현재 청일양복점은 맞춤복 보다는 수선 일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요즘 양복은 옛날처럼 넓게 입는 게 아니라 몸에 딱 붙게 입는 것이 유행이다. 기성복처럼 몸에 붙게 수선해 달라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 소도영 씨는 의뢰한 사람의 몸에 맞는 적당한 바지통를 제안해 수선을 하고 있다.

한 번 온 손님은 다음에 꼭 다시 찾아오다.

성격이 꼼꼼하고 자기 옷처럼 재단하는 소도영 씨의 세심함 덕분에 한 번 청일양복점에서 맞춘 손님은 다음에 꼭 찾아온다고 한다. 어느 날엔 중년의 신사가 찾아와 여기서 학생복을 맞췄는데 아들 결혼식을 맞이해 양복을 맞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랜 세월 부여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며 느낀 큰 보람 중 하나이다.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다.

소도영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백마강 둑길을 걷는다. 하루도 빠짐없이 백제대교까지 약 1시간을 걷고 돌아와 9시에 청일양복점 문을 연다. 매일 걷는 이유는 가게 안에서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퇴근은 6시 반에서 7시쯤에 하는 편이다.

현재 인근 논산과 청양은 양복점이 모두 사라졌다. 오직 청일양복점만이 부여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매일 옷을 재단하며 밤 10시까지 일했던 전성기를 지나 지금은 한 달에 한 두 벌 제작할 뿐이지만, 청일양복점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손님도 있고, 기성복 등 다른 옷감의 수선 작업을 통해 소소한 재미를 찾으며 노년을 보내는 중이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남 상 문 (1933년생)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평생을 무사고로 달린 부여의 택시기사



유금필 장군의 전설이 전해지는 수작골에서 태어나다.

1933년생인 남상문 씨는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서 태어났다. 정암리에는 대서말, 황새말, 청용안, 안골, 수작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남상문 씨는 그 가운데 수작골에 살았다. 남상문 씨는 수작골의 본래 이름이 '목숨 수(壽)자, 떨어질 낙(落)'이라는 의미의 수락골이라고 아버지께 들은 바 있다.

수작골은 백제의 충신인 유금필 장군의 전설이 서려 있다. 유금필은 의자왕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자 충언을 하였다. 그러나 의자왕은 유금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나당연합군에 사로잡히고 백제가 멸망했다.

유금필은 이 소식에 수작골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를 연유로 수락골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한다. 그러나 남상문 씨의 부친이 이장 일을 맡아 볼 때 '떨어질 낙(落)자'를 쓰는 것이 의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작골로 바꾸었다고 한다.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어야 했던 일제강점기 학교생활

1933년생인 남상문 씨는 초등학교에서 일본말로 수업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쓰도록 엄격하게 통제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은데, 학생들이 어쩌다 한국말을 쓰면 교장선생님이 모래를 한웅큼 짚어서 학생들의 입에 넣고 먹으라는 체벌을 하기도 했다.

남상문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책이 귀해서 선배들에게 물려받았다. 수작골에서 학교까지는 3.5km 정도 거리였는데, 교장 선생님의 방침에 따라 한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녀야 했다.

공부 대신 사방공사와 하천공사를 하고 송진을 모으다.

남상문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았다. 월요일은 사방공사를 하고, 수요일에는 하천공사에 동원됐다.

사방공사는 일정한 작업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작업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동원이 되는 것이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공사를 했다. 하천공사는 '땅띄기'라고도 했는데 흙을 파서 하천의 둑을 막고 보강해야 하는 공사였다. 학생들은 일정한 면적을 할당받아 책보에 흙을 담아 옮겨야 했다.

학교의 화단 같은 빈 땅에는 감자를 심었다. 수확한 감자는 학생들을 주기 보다는 일본인 교사들이 주로 먹었다. 석유가 나지 않았던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송진을 모으는 작업도 학생들에게 시켰다. 학생들이 모아간 송진은 현재 장암초등학교 근처에 있었는 공장에서 가공했다,

아카시아 나무 껍질도 벗겨서 학교에 모아갔다. 아카시아 껍질은 밧줄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제강점기의 여러 공사에 동원되었던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다.

6.25 전쟁의 기억

6.25 전쟁이 났을 때는 멀리 피난을 가는 대신 인근의 금광 구덩이로 가서 피신을 했다. 남상문 씨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있고 돌봐야 할 가축들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낮에만 금광의 굴에 피해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돌봤다. 금광으로의 피난은 길게 지속하지 않고 며칠 만에 복귀했다.

군대에 들어가서 수송부에서 운전을 배우다.

남상문 씨는 25살에 군대에 갔다. 조금 늦게 간 셈이다. 군대생활은 남상문 씨가 택시를 운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남상문 씨는 수송부로 배치가 되었는데, 수송부로 배치된 군인들에게는 운전을 가르쳤다.

그런데 운전 교습은 자동차에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먼저 시작했다. 운동장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변속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키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이 때 입으로는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를 내며 일종의 가상적 방법으로 운전을 연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약 2주 동안 하는데, 실수를 하면 교관이 발로 차면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

운동장에서 가상의 방식으로 운전을 연습한 후 3주째는 수송부에 있는 실제 차량을 가지고 시동을 켜고 기어 변속하는 방식 등을 연습했다. 이때도 처음에는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자동차의 각 부분과 작동원리 등을 익히는 과정부터 익혔다. 일주일동안 이 과정을 충분히 익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차를 몰면서 연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전체 10주간의 운전 연습을 마치면 수송부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다.

군대에서 남상문 씨의 주 임무는 사령관들을 태우고 다니는 일이었다. 참모들은 거의 다 중령이었고, 군대 밖에 관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참모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운전을 하였다.

혼인 후 운전 대신 품을 팔며 생계을 유지하다.

군대 제대 후 혼인을 한 남상문 씨는 수작골에서 품을 팔며 생활했다.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지만 활용할 수가 없었다. 사회에서는 군대에서 배운 운전면허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처갓집이 수작골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남상문 씨는 처갓집 있는 곳으로는 품을 팔러 다니지 않았다. 어렵게 사는 모습을 처가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35살에 동업자와 함께 택시를 사서 운영하다.

35살 무렵에는 동업자와 함께 택시를 사서 조수를 두고 운행했다.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사회운전면허로 전환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군대에서 받은 면허가 사회면허로 바뀌었다. 운전을 할 조수를 두지 않고 남상문 씨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것이다.

코로나 택시를 사서 운행하다.

남상문 씨가 운전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 택시가 나왔다. 그러나 새 차를 구입할 목돈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할부로 차를 구입하려 했는데, 처음에 50만원이 필요하여 땅을 저당 잡혀 농협에서 대출을 얻었다. 농협에서 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선이자 5만원을 떼고 대출금을 줘서 부족한 5만원은 일수를 얻어 충당했다.

코로나 택시는 신진자동차가 일본 토요타와 기술협정을 맺고 한국으로 들여와 조립생산하기로 계획하여 1년 남짓 준비한 끝에 출시한 차다. 코로나는 당시 한국 도로 사정에

알맞다는 평가로 높은 인기를 얻어 택시와 상류층의 승용차로 국내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다.

논을 저당 잡혀 택시를 구입한 남상문 씨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택시를 운행하여 농협에서 받은 대출금과 일수를 다 갚고 적금도 들었다.

백제대교가 생기고 부여로 나오다.

1968년 11월 백제대교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부여읍내로 이사를 왔다.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규암이 중심지였으나 백제대교가 생긴 이후에는 부여읍에 사람들이 많았고 택시 손님도 많았다. 당시는 택시 요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부르는 금액이 요금인 시절이었다. 비포장도로가 많아 운행이 쉽지는 않았으나 군내 곳곳마다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없었고 자가용이 보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택시업계는 활황이었다.

당시에는 가끔 택시요금을 곡식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다. 쌀로 받으면 바로 환금이 가능했으므로 남상문 씨도 쌀이든 보리든 가리지 않았다. 1960~70년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집도 짓고 나무도 심어 멋지게 가꾸다.

열심히 택시 운행을 한 남상문 씨는 쌀 100가마 이상의 값을 주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터를 사고 스스로 설계하여 집을 새로 장만했다. 76년 무렵이었다. 남상문 씨는 집을 새로 짓고 집 안팎에 나무도 잘 심고 가꾸어 동네 사람들로부터 나무 많은 집으로 불리고 있다.

60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한 남상문씨는 86세 무렵에 택시운전면허를 반납했다. 평생을 택시운전을 하며 지냈는데, 사고 없이 택시운전을 하며 보낸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윤 지 순 (1946년생)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금강동물병원, 한평생 부여의 동물을 돌보다



금강변 웅포에서 태어나 자라다.

1945년 생인 윤지순 씨는 전북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에서 태어났다. 웅포는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속하지만 금강만 건너면 부여 양화와 가까운 곳으로, 웅포 사람들은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 양화의 입포장을 보기도 했다.

형제는 1남 2녀로, 윤지순 씨는 그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웅포면 맹산리에 12마지기 정도의 논에 농사를 지으셨다. 12마지기의 논으로 꾸리는 생계는 당시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였다.

토끼를 기르던 소년

윤지순 씨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특히 중학생 때는 집에서 토끼를 길렀다. 당시에 토끼 고기는 식용으로 쓰고 토끼털은 방한용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토끼를 기르는 집이 많았다. 윤지순 씨는 토끼를 좋아하고 아꼈던 마음으로 토끼를 정성스럽게 길렀다. 햐얀 토끼를 잘 챙겨 먹이고 돌보는 일이 중학생 윤지순의 중요한 일과였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교과에서 공부하고 수의사 면허를 얻다.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지만 수의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다가 함열 농고 3학년 때 수의학과가 경쟁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학과의 선택에는 수의학과의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토끼를 돌보던 윤지순의 관심이 자연스레 수의학교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는 당시 서울대 1회 졸업생이자 수의학계에서 유명했던 이방환 박사의 지도 아래 진단학, 조직학, 병리학, 내과학, 외과학, 한과학 등의 과목을 공부했다. 3학년 때에는 학교 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심부름을 하며 자연스럽게 실습을 하며 실력을 쌓아갔다.

수의사 자격은 4년간의 수학 이후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국가고시 과목은 10개 이상이 되었었고,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시험이었다. 당시 윤지순 씨를 포함하여 같이 학교에 다녔던 동기들 모두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졸업 후 홍산에 동물병원을 열다.

윤지순 씨는 대학 졸업 후 부여 홍산에 동물병원을 개원하였다. 전북 출신인 윤지순 씨가 부여 홍산에 개원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윤지순 씨가 부여의 친척 집에 방문했을 때 불빛이 훤하게 비치는 곳이 있었다. 친척에게 물어보니 그곳이 홍산이라는 것과 그곳에 가축병원이 한곳이 있는데 수의사가 나이가 많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는 정보를 듣게 된 것이다.

윤지순 씨는 1968년, 홍산에 금강가축병원을 개원하였다. 금강이라는 이름은 그가 금강에 살기도 했고, 금강산의 금강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개원하는 병원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다.

가축병원을 개원하는 데는 비용이 꽤 많이 들었다. 졸업 후 개원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채를 얻어 개원 비용을 마련했다. 성실한데다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 교인들의 도움도 받아 가축병원을 잘 꾸려나갔다.

홍산의 가축병원은 약 2년간 운영했다. 그러다가 부여에서 가축병원을 운영하던 분이 공무원 수의사로 근무하게 되어 윤지순은 가축병원을 부여로 옮겨 운영하게 되었다. 금강가축병원은 약 20년 전 쯤에 법이 바뀌어 금강동물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변함없이 부여의 동물을 돌보는 병원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가축을 치료하다.

개업 초기에는 농사짓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치료 대상은 주로 소와 돼지였다. 부여에서 소를 치료하다 보니 자신이 살던 전라북도 웅포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향인 전북에서는 일하는 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더라도 소를 잘 아는 소 주인이 직접 소의 먹이를 먹였기 때문에 소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부여에서는 소를 빌려간 사람이 소의 먹이를 준비해 먹였기 때문에 소 먹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먹이를 주로 먹이는 집도 있었고, 소를 부리는 집에 따라 소 먹이가 달랐다.

부드러운 먹이를 먹고 소가 탈이 날 경우 해결 방법은 거친 사료를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 소에게 먹이거나 소에게 소화가 잘 되는 주사를 놔 주는 것이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

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소에게 고창증이라는 병이 생긴다. 위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것이다. 상황이 급박할 경우, 가스로 부푼 부위에 투관침이라는 침을 직접 놔 위의 가스를 빼어 치료를 해야 한다.

소를 치료할 때는 소가 발길질을 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의 눈을 보고 소의 성질이나 행동을 보면서 치료하기도 하고, 코뚜레를 잡거나 목책을 사용하여 소가 돌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가면서 치료를 했다.

고단했지만 보람이 있었던 수의사의 일

돼지의 치료도 중요한 분야였다. 돼지는 난산으로 수의사를 찾는 일이 많은데 직접 손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새끼 돼지를 출산하도록 해야 한다. 수의사의 일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직장인처럼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마을에서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윤지순 씨는 추운 겨울 한밤중에도 50cc 오토바이를 타고 돼지 난산을 도우러 다녔다. 춥고 힘들었지만 난산을 이겨내고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고, 무엇보다 각 농가에서 중요한 재산 수단이기도 했던 동물들의 병이나 난산이 잘 수습되면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람이 컸다.

지방질이 많은 고기에 높은 등급을 매기는 한우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다.

윤지순 씨는 신문에 한우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기가 많은 고기에 높은 등급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지방질이 적은 고기를 섭취해야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지방질이 많은 고기를 선호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식용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운동성 없이 길러진 소들의 몸에 지방이 많이 끼게 하는 것과 소에게 유박 같은 지방질이 많은 먹이를 줘서 지방이 많게 개량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공수의로서 또 하나의 책임을 갖고 동물들을 돌보다.

윤지순 씨는 2년 이상의 병원 운영을 해야 그 자격이 부여되는 부여군의 공수의로서 구제역 등 전염병이 돌 경우 진료를 하거나 계절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현재는 부여읍과 규암면이 그의 담당구역이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보통 야생동물이나 해외 축산물로부터 전염병이 전파된다. 위생검사소에서 가축들의 피검사를 하여 전염병 여부를 검사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경우 치료약이 없어 결국 땅에 매장이 되고 만다.

요즘 소에게 유행하는 병으로는 럼피스킨병이 있는데, 충남 서산 쪽에서 처음 발견된 병이다. 소 피부에 발진이 생겨 열이 올라 죽기도 하는 병인데, 작년 10월에 방역 예방주사를 놓기도 했다.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여 힘닿는 데까지 진료하다.

요즘 소나 돼지 닭 등등 대량으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주사도 놓기 때문에 윤지순 씨는 소량의 가축을 키우는 집으로 진료를 많이 가고 있다. 피검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키우든 소량으로 키우든 거의 모든 동네의 가축들은 윤지순 씨의 손을 거치고 있다.

최근 동물병원은 큰 가축보다는 반려동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윤지순 씨는 주로 소나 돼지 같은 대동물 진료를 지속해 오고 있다. 1945년생으로 70대 중반이지만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눠줄 수 있어서 보람과 자부심이 크다. 해가 갈수록 진료를 하는 것이 힘에 부치지만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 힘닿는 데까지 책임감 있게 진료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김 금 순 (1957년생)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영진혼수, 혼수에 정과 인심도 담아 팔다



청남면 아산리 서당골에서 10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다.

김금순 씨는 10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그는 윗 형제들과 달리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초등학교 졸업 뒤 김금순 씨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전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의복 바느질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서울의 백화점에 취업하다.

대전에서 약 2년 정도 지낸 후 15살 무렵 친구 어머니의 소개로 서울 성수동에서 옷가게 점원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김금순 씨는 서울 신정동에 있는 셋째 언니 집에 얹혀살며 서울에서 일하면서 도매시장을 다니고 옷가게의 전반적인 실무를 익혔다. 성격이 활달하고 부지런했던 김금순 씨는 손님들을 잘 대하고 야무진 면이 있어서 서울 생활에 빨리 적응했다.

옷가게 일이 익숙해지자 언니집에서 나와 옷가게에서 먹고 자며 근무했고, 나중에는 백화점에 일자리를 얻어 취업했다. 백화점 취업으로 김금순 씨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살 계획이었으나, 아버지의 중매로 서울살이를 그만두어야 했다. 서울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청양으로 돌아왔다.

냄비 장사라고 오해 받던 양품점을 시작하다.

김금순 씨는 아버지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2세인 1976년 충남 청양에서 부여 규암면 합송으로 시집왔다. 1800평의 논이 있는 남편을 믿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농사 기술이 부족했던 남편은 3년 동안 농사를 실패했다.

김금순 씨는 처녀 때 양품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부여에서 양품점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양품점 일을 한다고 하니 “무슨 장사냐? 냄비 장사 아니냐”하는 말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시어머니의 신뢰를 얻어 쌀 오십 가마를 받게 되었고, 그 쌀을 판돈으로 부여 공설시장에 6평짜리 양품점을 열었다.

뛰어난 안목과 성실함이 가져 온 성공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양품점은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나 되었다. 그 시절 공무원 월급이 7만 원이니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다. 장사는 너무나 잘 되어 명절과 소풍, 어버이날과 같은 주요 행사가 있는 날은 옷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이었다.

보통 아이를 네다섯쯤 낳는 시대라 옷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옷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장 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직접 옷을 골라 구매해 오는 김금순 씨의 좋은 수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사에 대한 뛰어난 안목뿐만 아니라 명절날도 가게 문을 열 정도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자세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양품점의 품목

김금순 씨가 운영한 양품점의 주요 품목은 남녀 기성복이었지만, 당시 양품점에서는 여학생들이 학교 교복에 갖추어 입어야 할 속옷이나 티셔츠, 양말, 스타킹도 팔았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물품들이 꽤 많아서 학생 손님들도 단골이 많았다.

여성 속옷도 판매했다. 60년대만 해도 여성 속옷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70년대가 되어 여성 속옷이 점차 알려지던 시대라 시골인 부여사람들에게 여성 속옷은 낯선 상품이었다. 그런 부여에서 장사를 하며 처음엔 일반적인 속옷들과 함께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팔기도 하였다.

화려한 속옷은 주로 보험사원이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구매했는데 그 손님들은 처음엔 비싼 가격에도 사 갔지만, 차츰 외상을 요구하고 나중엔 가게에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걸 계기로 김금순 씨는 과감하게 일반 손님만을 상대로 평범한 스타일의 속옷을 팔기로 결심하고,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손님들은 상대하지 않았다.

양품점에서 주단포목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장사가 자리를 잡아가자 김금순 씨는 동네 지인의 소개로 빚을 내서 1600만 원짜리 집을 장만하게 했다. 운이 좋게 3년 만에 값이 많이 올라 그 집을 팔고, 집을 판 돈으로 현재의 영진혼수 가게를 구입했다.

이어서 1억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비단 등을 추가해 양품점을 확장시키고 주단과 혼

수를 함께 하는 영진주단포목점을 열었다. 주단포목은 재료값이 비싸서 재력과 신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였는데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다. 그 결과 큰 매출이 나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18만 인구인 부여에서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리면 단체복으로 하루에 500벌의 옷을 팔았고, 환갑잔치 손님이 오시는 날엔 하루에 1300만원까지 매상을 올린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옷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한다.

전통을 중시하고 안목을 고집하여 뜻을 이루다.

주단포목점이 아주 잘되자 소문을 듣고 대전에서 한 도매업자가 찾아와 사업을 제안했다. 원단을 투자할 테니 잘 팔아 보라는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못 팔게 되면 남은 재료값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도 있었다. 남편과 상의한 김금순 씨는 서로에게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협상을 제안해 사업을 더 확장하였다.

장사와 물건 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김금순 씨는 싼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닌 고품질의 물건을 소량 판매하는 고급화 전략으로 상품의 재고관리를 했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없던 상포를 취급하고, 예단 이불, 폐백 이불, 바닥에 까는 요를 판매하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중매를 잘 서기로 이름나다.

사람 좋고 인심도 좋은 김금순 씨는 주단포목점을 운영하는 수완도 매우 좋지만 부여에서 중매를 잘하기로 소문 난 사람이기도 하다. 김금순 씨는 지금까지 48쌍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중매를 잘 설 수 있었던 것은 양품점과 주단포목점을 하면서 아는 사람도 많고, 서로 맞을만한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금순 씨는 그냥 중매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중요시여기고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혼수를 준비할 때 갖추어야 할 전통을 신혼부부에게 쉽게 가르쳐주기도 했다.

혼례에 격식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김금순 씨는 전통적인 의식 갖춰 서로의 첫길을 축복하는 격식이 사라진 지금의 혼례가 무척 아쉽게 느껴진다. 요즘 결혼식장에서 대유행인 갈래치마는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김금순 씨는 겉만 중요시하는 요즘 세태가 결국 결혼 후 높은 이혼율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비추기도 했다.

호황의 시기를 지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1970년대, 김금순 씨는 큰 창고를 임대해 직접 물건을 만들고 관리하여 그가 만든 이불이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 관공서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이불 브랜드도 계속 바뀌어서 예전의 로자니아와 해피론을 거쳐 이제 예모아라는 브랜드의 이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휩쓸고 간 지금은 이불이나 예복을 사러 오는 손님이 아쉽게도 거의 없는 편이다.

사람과 세상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김금순 씨는 손님이 맞춘 한복이 잘못됐다고 하면 군말하지 않고 새로 해주었다. 단골에게는 한복을 서비스로 주기도 했다. 김금순 씨는 그것이 자신을 믿고 평생 찾아와주는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말한다.

명절이 되면 고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고 예나 지금이나 점심에 오는 고객에게는 물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점심밥을 대접해왔다. 오시는 단골들도 참기름, 고춧가루, 김장 김치 등을 챙겨와 인사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사를 하는 당일에도 대추 한 봉지를 든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다. 오며 가며 커피를 얻어 마시고 담소도 나누었던 것을 고마워하며 햇대추 한 봉지를 나눠주러 오신 것이었다.

힘겹게 가꾼 영진주단포목 일을 가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는 없지만 김금순 씨는 전혀 아쉽지 않다고 한다. 되려 각자 자신의 일하면서 사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김금순 씨는 힘이 닿는 한 계속 포목점을 운영할 생각인데, 75세까지 영진주단포목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류 흥 열 (1957년생)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신애철공소, 내 맘에 들어야 다른 사람 맘에도 든다



교육열이 높았던 아버지

1957년생인 류흥열 씨는 세도면 수고리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큰 형을 대학에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높으셨던 아버지는 자녀들의 학교공부를 위해 이사를 많이 다녔다. 부여로 이사오면서 우마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와 구봉광산의 기억

어렸을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류흥열 씨의 아버지는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공무과장으로 일을 하셨다. 구봉광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1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197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광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구봉광산에 근무하시던 아버지는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광산 기숙사(관사)에서 생활했다.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여름방학 때는 같이 해수욕장을 갈 정도로 다른 또래에 비해 유복하고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충남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술을 배우다.

구봉광산은 금맥이 다 채굴되고 생산성이 낮아지자 1971년에 폐광을 하게 되었다. 류흥열 씨의 아버지는 퇴직금 대신 구봉광산 회사에서 받은 기계를 가지고 현재의 충남 제재소 자리에 신애공업사를 세웠다.

아버지는 류흥열 씨가 공업사를 이어 받기를 바라며 대전에 있는 충남공업고등학교 입학을 권하셨다. 그러나 충남공업고등학교의 입학은 수월하지 않아서 첫해 입학시험에 낙방하였고, 다시 준비하여 다음 해에 야간 전형으로 입학하였다.

1년은 학교에서 선반 기술을 배우고, 다음 1년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남선 기공사에서 선반 실무 작업을 통해 기술을 익혔고. 마지막 1년은 부여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철공 기술을 배웠다.

호황이었던 양수기 수리

당시 아버지의 공업사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양수기 수리를 독점하다시피 맡아서 양수기

의 물로 인한 부식이나 노후한 바퀴 등을 수리했다. 그 외에도 수해가 나서 둑이나 제방 저수지가 무너졌을 때 현장으로 가서 물을 관리하는 물문 안에 양수 시설을 다시 만드는 작업도 도맡았다. 양수기 사업을 통해 공업사를 처음 세울 때 얻었던 빚을 다 갚고 난 후 신애공업사는 아버지와 류흥열 씨 외에 2명의 직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호황이었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형님의 뜻에 힘을 보태다.

류흥열 씨는 전역하고 돌아와 1981년에 큰 형과 농기계 대리점을 같이 했었다. 그러나 평소 신앙생활에 더 관심이 있던 큰 형은 농기계 사업에 전념하지 못했다. 결국 큰 형은 류흥열 씨에게 가게를 맡기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단 뜻을 밝혔다.

이후 류흥열 씨는 홀로 공업사를 이끌며 큰 형의 살림까지 책임져야 했지만 큰 형이 정직하게 공부하여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을 보고 형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을 하다.

류흥열 씨는 충청남도 금산 출신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부여 석다방에서 만나 연애한 지 두 달 만에 결혼하였다. 류흥열 씨는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도 소개받은 아내가 맘에 들어 조금도 망설이는 마음 없이 바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목사님의 주례로 1985년도에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었다.

다시 돌아와 철공소를 운영하다.

결혼 후 류흥열 씨는 아버지의 철공소를 운영했지만 양수기 특허로 인해 생긴 빚이 너무 많아 버티지 못하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부여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지만, 서울 생활 내내 류흥열 씨는 부여에 남겨진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결국 아내를 설득하여 다시 부여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그동안 쌓인 채무를 갚으며 성실하게 철공소를 운영했다. 1987년도에 부여에 큰 수해가 발생하여 저수지가 무너지는 큰 재난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부여의 각 지역에서 양수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철공소의 여러 가지 일들

철공소는 매우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다. 시대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철공소에서 하는 일들도 다양하게 변했다. 현재의 철공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취급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연탄보일러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지금은 옥상 난간이나 대문 등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류흥열 씨는 늘 아버지의 말씀인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고치면 된다.'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 류흥열 씨가 마음에 담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신용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류흥열 씨는 이 말을 군대에서 듣자마자 사회 나가서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이 신조를 따라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 여기고 손해가 있더라도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키고 살아서 큰 기업들이 도산했던 IMF 때도 신애공업사는 손님이 줄지 않아 큰 위기가 없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간소하게 공업사를 꾸리다.

류흥열 씨의 아버지는 2002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죽음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 한 번도 아버지와 장난한 적 없던 류흥열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아버지와 시계 건전지 바꾸는 일로 30분 동안 장난스럽게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시계 건전지를 바꾸기 위해 동네 마트에 다녀오시겠다고 나가고 얼마 뒤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버지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 소리였다. 류흥열 씨의 아버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했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류흥열 씨는 보험회사를 다녔던 둘째 형수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와 합의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2003년에는 지금의 자리에 땅을 새로 구입해 공업사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시대가 달라져 공업사의 일도 바뀌다.

예전과 달리 지금의 공업사는 제품 제작은 공장에 맡기고 완료된 상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가격과 제품의 정보를 다 아는 시대라 비교하며 구매하니 아주 까다롭다고 한다.

류흥열 씨는 이제 큰 공사는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뢰나 집수리 등을 한다. 2003년도에 새로 공업사를 이사하며 수요가 없어진 선반은 다 팔고 왔다. 지금은 망가지면 고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사는 시대라 철공소에서 쓰던 장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풀며 살다.

류흥열 씨는 부여에서 오래 공업사를 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경기가 좋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 덕분에 아직 건재한 편이다. 몇 년 전부터 부여군청이 지역 살리기 정책으로 실시한 사업에 신애공업사가 선정되었다. 류흥열 씨는 부여군과 함께 굿뜨래와 궁남지 주차라인 정비 사업과 주력이자 전문 분야인 양수기 펌프의 수리를 진행했다.

얼마 전 고물상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이 안 쓰는 물건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본래는 파는 물건이었지만 그 분의 사정을 생각해서 그냥 드렸다. 이렇게 류흥열 씨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게 된 이유는 11년 전 작은 형이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을 보면서 건강이 전부라 느끼고, 소유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

교회 장로인 류흥열 씨는 기독교의 뜻에 따라 주일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 교인들의 집수리를 도와주는 등 자신이 배운 능력을 베풀며 보람을 느끼는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부여군

맛과 멋과 솜씨로 만나는 부여의 오래된 가게

방 순 남 (1948년생)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시골 통닭, 맛과 추억을 담다



정읍 시골 소녀가 다복한 가정을 꿈꾸다.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서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방순남 씨는 정읍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폐병을 앓으시다 방순남 씨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 방순남 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며 어머니 혼자서 꾸려가는 생계에 보탬을 드렸다.

혼인 후 장사에 도전하다.

방순남 씨는 순창의 정미소집 장남과 결혼 했다. 정미소 운영은 오래하지 않았고, 구멍가게를 차려 연탄, 쌀, 담배 등을 팔았다. 그러나 방순남 씨 부부가 운영했던 구멍가게는 규모도 작고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수입이 변변치 않았다.

어느날 우연히 방순남 씨의 남편이 여름에 인근 가게에서 닭이 완판 되는 것을 보고 방순남 씨에게 닭장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젊은 두 부부는 부여의 시장을 둘러보고 그 곳에서 닭을 팔아보기로 결심했다. 방순남 씨가 25살 되던 해의 일이다.

1975년도 시골닭집 열고 생닭을 팔다.

방순남 씨의 남편은 첫 가게 이름을 시골닭집으로 지었다. 지금처럼 닭을 잡아서 유통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부여 여러 마을의 양계장에서 닭을 떼 와서 팔곤 했다. 산 닭을 사서 잡아서 파는 것이었다. 방순남 씨는 처음에 살아있는 닭을 잡는 것이 익숙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시골닭집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던 초반에는 생닭 장사만으로는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남는 시간에 더 매출을 올릴 만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양계장에서 사료 포대를 주워다가 봉투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비닐 봉지가 없던 시절이라 사료 포대로 만든 봉투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됐던 시절이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닭을잡아 장사도 하고, 봉지도 만들어 팔면서 점점 장사가 익숙해지고 매출이 올랐다.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장사의 비결

외지에서 들어와 작은 닭집을 운영하던 방순남 씨의 성공비결 가운데 하나는 손님이 직접 닭을 고르게 했던 점이다. 남편이 양계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오면, 가게에서는 닭장

에 닭을 넣어놓고 손님이 직접 닭을 고르게 했다.

손님이 고른 닭을 바로 손질해서 드렸는데, 간혹 손님 중에는 자신이 고른 닭이 마르고 살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방순남 씨는 이런 손님이 있으면 맘에 드는 다른 닭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신용을 쌓을 수 있었다.

닭의 판매는 초복 15일 전부터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중복, 말복까지도 장사가 잘 됐다. 예전에는 김장철부터 1월까지는 사람들이 닭을 잘 찾지 않았다. 예전에는 계절별로 매출이 달랐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닭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등 전반적으로 많이 먹는 이유에서인지 계절별 매출이 크게 다르지 않다.

폐계와 폐백닭을 취급해 틈새시장을 겨냥하다.

개업을 한 초기에는 부여 안에 있는 양계장을 다니며 남편이 직접 닭을 사 왔지만, 장사가 잘 되면서 닭을 안정적으로 수급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방순남 씨 가게의 닭 거래처는 홍성, 광천, 경기도 등 다양한 곳에 있었다. 방순남 씨의 남편이 닭을 수급해오고 방순남 씨는 가게에서 판매를 하며 두 부부가 동시에 각자의 몫을 했다.

장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방순남 씨의 남편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폐계를 취급해 한 마리에 500원을 받고 싸게 팔기도 했다. 폐계는 육질이 조금 질기긴 하나 식용으로 먹는데는 일반 닭과 크게 차이가 없어 반응이 좋았다.

방순남 씨는 결혼식 폐백닭을 만들어 주는 일도 했다.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 폐백닭이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했다. 닭을 삶아 모양을 잡고 계란을 삶아 모양을 내서 장식해 단골손님에 드렸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 달에 폐백닭 30마리가 나갈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당시 한 마리를 9만원에 팔았다. 요새는 폐백닭의 시세가 한 마리당 30만원으로 올랐다. 폐백닭의 수요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

시골통닭으로 이름을 바꿔 통닭 장사를 시작하다.

가게 운영이 잘 되자 처음 열었던 가게를 정리하고 규모가 더 큰 곳으로 가게를 이전했다. 생닭도 판매하지만 닭을 요리해서 파는 식당까지 함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장사

를 할 때에 옆 식당 주방장들이 와서 닭을 튀겨서 팔아보라고 조언을 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통닭을 튀기는 일이 서툴렀다. 닭 안쪽까지 충분히 익지 않아 손님들에게 불평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어떻게 하면 속 안까지 닭을 익힐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닭에 칼집을 넣어서 튀겨보니 속까지 잘 익었다고 한다.

한편, 튀김닭을 만들던 초반에는 튀김옷 없이 생닭을 그대로 튀겨내는 방식의 조리법을 선택했었다. 이것을 보고 주변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들이 밀가루에 소금을 넣어 만든 반죽으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보라는 제안을 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땅콩 간 것을 튀김반죽에 넣어 튀김옷을 만들어 보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고소한 맛이 사람들의 구미를 크게 당겼다.

통닭의 맛을 완성시킨 방순남 씨는 닭의 판매 방식도 바꾸었다. 튀긴 닭을 진열장에 놓고 팔았는데, 당시 튀긴 닭이 생소했던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구경을 하면서 사 가는 사람들도 많아 장사가 잘 됐다. 튀김닭이 잘 팔리면서 가게 이름을 시골닭집에서 시골통닭으로 바꿨다. 1980년대 말 무렵에는 3층짜리 건물로 가게를 새로 지었고, 통닭 외에 삼계탕까지 팔았다.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삼계탕을 만들다.

삼계탕은 여름에 700그릇이 팔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시골통닭에서 파는 삼계탕에는 인삼, 녹두, 밤, 대추, 당귀, 감초, 둥글레 등 몸에 좋은 갖가지 재료를 넣는다. 손님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끼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넣고 있는 것이다.

시골통닭의 인기로 단체주문 건수가 늘어나다.

방순남 씨의 시골통닭은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많지만 단체 주문이 많은 가게이기도 하다. 몇 년 전까지도 부여에서는 농민들이 모내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단체로 관광버스를 빌려 관광을 다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체로 관광을 갈 경우 관광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단체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골통닭의 튀김닭은 부여 사람들의 관광에 빠질 수 없는 메뉴였다.

지금은 부여 롯데리조트 손님들도 시골통닭을 많이 주문하고 있다. 리조트 내부에도 치킨가게가 있지만 방순남 씨 가게의 튀김닭이 유명하다보니 주문이 많이 온다.

큰 시련을 넘긴 후 방송출연으로 인한 매출 증가.

닭집의 운영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닭 전염병인 조류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하루에 한 마리도 팔지 못한 날도 있었다. 정부에서 닭 먹기 운동을 펼쳐서 한 두 마리씩 늘면서 지금은 매출량을 거의 회복했다.

가장 힘든 상황은 한여름 삼계탕을 많이 먹는 철에 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였다.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날은 갑자기 인력을 구해오기도 어려웠다. 남아있는 인력으로 식당을 운영해야 해야 했던 그런 날은 마치 전쟁을 치른 것 같았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한 길을 걸어 성장해 온 방순남 씨는 2015년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에 출연한 이후 연이어 스튜디오로 출연 제의가 왔다. 가게에서 직접 쓰는 솥단지를 챙기라고 해서 준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부터 촬영팀 차가 가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보니 광주와 대구의 이름난 통닭집 사장님들도 왔다. 결국 대결 끝에 시골 통닭이 우승을 했고 그 이후로 매출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어려움을 딛은 시골통닭이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나가길 소망하다.

부여에서 성공한 시골통닭은 체인점이 있기도 하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23개의 체인점이 있었지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닭을 튀기는 일은 전부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다보니 힘이 드는 작업이기에 점주들이 도전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젊은 시절 방순남 씨는 아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한 달에 3만원 씩 세를 주던 작은 가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금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젊었을 때 서서 치킨을 튀기다보니 무릎이 아파 요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종종 여행을 가기도 한다. 1남 2녀 중 아들이 가게를 이어 받아

잘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도 가게의 명맥이 잘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인터뷰어 오문선, 스토리텔러 오문선>



서천군

|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전기동 생산의 산실 전련과 682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 해결사 박종성 688
찌꺼기 속에서 건져낸 분은실의 쾌거 694
장항제련소 조동을 지게차로 운반하다 699
노부부의 사랑을 지킨 장항 제련소 704
힘들어 그만 둔다는 사람이 오래 다니는 장항제련소 709
QC활동 전국 최다 제안자 노쌍석 715
장항제련소와 지역 상생의 매개자 오세문 721
42년 경력을 가진 장항제련소 중장비 운전기사 유영휘 726
곽만기는 품질관리 명장이며 장항 택시운전사 732

서천군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전 옥 환 (1950년생), **김 순 자** (1953년생)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건기동 생산의 산실 건련과



계룡사택 11호에서 태어나다

전옥환 씨는 1950년 아버지 전병태 씨와 어머니 장옥진 씨가 살던 장항제련소 계룡사택 11호에서 6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전병태 씨는 6·25 전쟁 전부터 장항제련소에 다니셨다. 아버지는 종천 산천리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와 장항제련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결혼 후 아버지는 장항제련소 사택에서 사셨고 1970년대 퇴직하실 때까지 전련과에서 근무하셨다.

1960년대 사택은 장항제련소에서 광석을 처리하고 남은 슬러그로 빼 붉은 벽돌로 지은 집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에 안방은 한국식 온돌방이고, 뒷방은 일본식 다다미방이었다. 집집마다 마루 밑에 방공호가 있었는데 대동아전쟁 때 공습경보가 울리면 방공호에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다고 들었다.

사택 전깃불 밑으로 모여든 친구들

1950년대 전쟁 끝나고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보릿고개라 하여 무척 힘들었으나 전옥환 씨의 집은 아버지가 제련소에서 월급을 받아오니 다른 집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집들은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사택, 제련소, 부두에는 전기가 들어와서 동네 친구들이 숙제하러 놀러 오곤 했다. 사택은 두 집씩 연결되어 있었고, 여덟 집 중앙에는 공용 수도가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수돗물이 나와서 양동이로 받아 놓았다. 연료는 연탄을 땠으며 전옥환 씨의 집은 2칸 집이었지만 간부들이 사는 집은 3칸 집이었다.

외산댁 김순자와 금 나오는 회사 다니는 전옥환 총각이 결혼하다

전옥환 씨는 1981년 3월, 조중근 목사가 시무할 때 부여의 외산 반교교회에 다니던 김순자씨와 결혼을 하였다. 김순자 씨가 보기에 전옥환 씨는 돈도 없고 그냥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안의 사람, 그리고 둥글둥글 멋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친정어머니가 그 집으로 시집가라고 강력하게 밀었지만 오빠들은 반대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었다.

1983년 전옥환 씨의 나이는 33세, 김순자 씨는 31세에 결혼하였다. 당시 장항제련소 월급을 10만원 정도 받았으니 많이 받는 셈이었다. 그래서 경찰, 교사 등 다른 직장을 다니다

장항제련소에 들어오기도 했다.

장항제련소에 입사하다

전옥환 씨는 1963년 장항중학교를 1학년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군 생활은 미8군 사령부에서 하였다. 제대 후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장항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하셨지만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자 1975년 며칠 몇 시까지 도착하라는 전보를 보내와서 도착해보니 장항제련소에 입사하라는 것이었고, 그 후 입사하여 지금까지 장항에 살고 있다.

당시 장항제련소 입사 시험은 국어, 수학, 도덕으로 기억한다. 도덕 시험은 장항제련소에서 중요한 시험 과목이었다. 왜냐하면 장항제련소는 한정된 사람들이 근무하며 금을 생산하는 곳이라 위계질서와 예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회사로 화학적 지식이 좀 필요했지만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근무하였다.

장항제련소 입사 시험은 일 년에 한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있었다. 1975년도에는 중간에 특별채용이 있었는데 그때 전옥환 씨도 특별채용으로 들어갔다.

장항제련소 근무는 3교대였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에 끝나고, 오후 3시에 시작하여 저녁 11시에 끝나고, 밤 11시에 시작하여 아침 7시에 끝나는 3교대 근무였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하여 옷 갈아입고 작업을 시작했다.

1975년 장항제련소에서의 과업

연제련과에서는 납을 생산하였고, 동제련과에서는 전기동을 생산하였다. 전기동을 빼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금, 은, 동, 비철금속, 희귀 금속이다. 말하자면 금광석에서 금을 빼고, 동광석에서 구리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1936년도에는 구봉광산에서 금광석을 채광하여 장항제련소에서 금, 은을 생산하였다. 금은 당시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결재 수단이었다. 금 다음으로 동을 생산한 것은 소련의 영향이었다. 세계에서 동제련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당시 소련이었다. 일제강점기 동 생산은 탄피 등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였다.

전쟁이 끝난 후 호롱불에서 전기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동 생산이 증가하였다. 1975년경

장항제련소의 주생산물은 동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때 세계적으로도 동이 부족하여 동광석을 많이 수입하여 생산한 다음 수출을 하였다. 동광석은 주로 가루로 수입하였다.

전기동 생산 과정의 부산물 금, 은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이면 비중에 따라 분리가 된다. 1차 비중에 따라 분리가 되면 2차 컨파터라고 2차 정제로에 들어간다. 2차 정제로에서 1080도까지 녹여서 90%의 구리를 생산하게 된다. 90%의 동을 전련과로 넘겨 다시 전기분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기분해를 위해 양극과 음극으로 분리한다. 200kg 정도 되는 것을 양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동판을 얇게 만든 것을 음극으로 한다. 그 다음 전기분해를 통해 99.99%까지 동판을 생산하는데 대개 무게는 한판에 98kg에서 100kg이 된다. 본래 두꺼운 동판을 전기분해 해서 마이너스에 전착시켜 전기동이 생산되는데 이 작업을 습식제련이라고 한다. 전기분해 되는 과정에서 불순물은 밑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은 불순물이 꼭 펄과 같은데 그 펄과 같은 것을 분석과로 보내 비중 차에 따라 금과 은으로 분리한다.

전기동 생산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다. 전련과는 부장과 부장 밑에 과장이 있다. 전련과에는 전해계와 정제정액계가 있었다. 전옥환 씨는 전해계에서 근무하였고 전해계에서 교대반장을 했다.

전기분해를 통해 전기동을 생산하는 데 대개 걸리는 기간은 5~7일이다. 전기분해를 위해 탱크에 들어가는 동판이 33매이다. 탱크에 12셀이 들어가는데 한 셀에 33매씩 들어간다. 33매씩 양극과 음극 24개가 들어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는데 33매 하나에서 100kg씩 3톤 이상이 생산된다.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2셀에서 약 40톤 정도의 전기동이 생산된다.

전기동은 1톤당 1천만 원이었다

당시 전기동은 1톤당 200~300만 원씩 했는데 전옥환 씨가 퇴직할 즈음에는 1톤당 천만 원이 되었다. 1995년경부터 세계적으로 전기동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부르는 게 값이었다. 주로 전기동의 원료는 칠레에서 채광되어 수입하였다. 수입된 동광석은 인천항으로 들

여오면 장항선을 따라왔고, 배로 이동하여 장항항으로 왔다. 수출할 때도 전기동은 철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수입된 동광석은 말집으로 이동한 다음 용광로에서 녹여 1차 전기동을 만든다. 이때 용광로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큰 가마솥과 같다. 가마솥 속에 1000도, 2000도에도 녹지 않는 내화벽돌을 쌓아 만든다. 이 속에 광석만 넣는 것이 아니고 석탄가루, 소석회 등을 넣고 혼합한 다음 불을 지펴 녹인다. 녹일 때마다, 광석과 혼합물을 넣고 밑에서 1차 전기동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된다.

장항제련소 굴뚝의 역할

광석과 석탄이 타면서 아황산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한 아황산가스를 빨아내야 열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황산가스를 빨아내기 위해 높은 굴뚝이 필요하다. 용광로 군데군데에 난 구멍을 통하여 바람을 넣어주면 산소가 공급된다. 이때 원활한 산소 공급과 아황산가스 배출을 위해 굴뚝이 필요하다. 굴뚝에서 배출하기 전에 집진시설을 거친다.

근무 환경은 열악했다

전련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들은 전태철, 김성웅, 구기학, 박정호, 김종원 나규용 씨 등이 있었는데 전기동을 생산하는 과정은 평소에 온도가 65도 이상 되어야 하고 흘러가는 물의 온도는 70~80도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너무 힘든 과업이다. 여름에는 샤워를 해도 찜질방이고, 겨울에도 옷이 다 젖는다. 가족들이 전련실을 찾으면 냄새가 독해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련과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었다.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장치가 별로 없었다. 마스크도 없이 일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새카매졌다. 1980년이 지나서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제련과에 근무한 사람들은 연중독으로 고생을 했다.

근무환경은 열악했지만 직원 가족들을 위한 운동회를 10월에 한 번씩 열어 가족들이 제련소를 구경할 수 있었다. 회식을 할 때에는 아구찜, 물잠뱅이 등을 안주삼아 막걸리를 마셨고 회사에서 돼지고기를 반 근씩을 주었다.

퇴직 후

2008년도에 퇴직을 하였으니 벌써 16년이 흘렀다. 현재 당시 소음 때문인지 난청이 왔다. 하지만 아내가 장어, 꽃사슴 등 보약을 많이 해주어 건강한 것 같다. 장항에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이 많은데 반대하지 않아야 장항이 산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장항제련소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교훈은 '사람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이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서천군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박 종 성 (1949년생)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 해결사 박종성



장항과의 인연으로 태어난 박종성

박종성 씨는 장항제련소에 1975년 입사하여 1998년에 퇴직하였으니 총 22년 동안 근무하였다. 그는 1949년 10월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98번지 황금정에서 2남 6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18년생인 아버지 박지상은 일제강점기에 북해도로 징용을 갔는데 북해도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술을 익혀 해방 후 귀국하였다. 귀국 후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여 용광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장항제련소의 핵심은 용광로였다. 그만큼 아버지는 기술이 뛰어났다.

1940년 결혼 후 22세에 징용을 간 아버지는 해방 후 귀국하여 송림리 모래톱에서 살았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제련소 정문 앞으로 이사와 함께 살다가 굴뚝 밑에 있는 안사택으로 이사하였다. 정문 앞에서 살 때 박종성 씨가 태어났고 후에 송림리 63번지 알매재로 이사를 하였다.

해방 후 장항제련소 그리고 6·25전쟁

해방 후 일본인들이 떠나자 장항제련소는 가동이 중지되었다. 그 후 한국사람 중에서 제련소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어 1946년부터 다시 가동되었다. 이때 북해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박종성 씨의 아버지와 흥남제련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이갑동 씨가 참여하였다.

6·25전쟁 때는 잠시나마 북한 인민군들이 장항제련소를 차지하여 당크매에 대대본부를 만들어 놓고 관할하였다.

아버지는 1970년까지 20여년 장항제련소에서 근무하였다. 아버지가 장항제련소에 근무할 때는 미국 운크타드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감독으로 호주사람이 와 있었고 장항제련소 소장은 노명식이었다. 1960년대까지 일본사람들이 남겨 놓은 방식으로 장항제련소가 운영되었다면 1970년대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다.

동제련과에 입사한 박종성

1975년에 입사한 박종성 씨는 장항제련소 동제련과에 근무하였다. 장항제련소의 공정을 소개하면 광석은 괴광과 분광으로 나눠져 있다. 괴광은 용광로에 바로 들어갔고 분광

은 소결과정을 거친다. 용광로에는 무연탄을 넣고 땠다. 그다음에 용제는 석회석과 규석을 넣고 슬라그를 넣었다. 슬라그를 좀 넣어야 용광로에서 광석이 잘 용해가 되었다.

화학반응에 의하여 용해가 되면 매트와 슬라그가 분리된다. 매트가 어느 정도 차면 래들을 갖다 놓고 뺀다. 매트를 빼고 황토로 이긴 랜도로 매트가 나오는 구멍을 막는다. 매트를 빼서 콤파트로 옮긴다. 콤파트에 에어를 이용하여 규석을 집어 넣는다. 그러면 다시 매트와 슬라그로 분리되어 매트가 조동이 된다. 조동이 되면 슬라그는 다 긁어내고 조동을 래들에다 받아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련과로 보낸다.

고열과 냄새로 힘든 동제련과

박종성 씨는 동제련과에서 용광로의 풍구를 쑤셔 바람을 넣는 일을 했다. 풍구 구멍을 쑤셔주는 것은 매트가 잘 녹고 잘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다. 용광로에서 일하는 것은 엄청 고단한 일이었는데 뜨거운 것이 말로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마스크도 없었지만 나중에는 엷은 천으로 만든 가제를 조금씩 주었다. 가제를 마스크처럼 쓰고 일을 했고 더러우면 빨아 썼다.

용광로 주변에서 나는 냄새는 말도 못 할 정도로 독했다. 매트 빼고 슬라그 분류할 때 온도는 1200도가 넘었고 1200도가 안 나올 때는 버너를 불어 온도를 올렸다. 그래도 박종성 씨가 일할 때에는 안전모를 쓰고 보안경도 썼으니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아버지 시절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다.

용광로에서 동제련과에 근무할 때는 화상사고가 많이 났다. 1970년대에 어떤 사람이 래들에 98% 쇳물을 이동하다 실수하여 쇳물을 뒤집어쓰고 죽었는데 시신이 반절은 타버렸다. 제련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고생이었다.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교하여 보수가 많으니 서로 취업하려고 하였다.

월급날 정문 앞을 지키던 술집주인

1975년에는 월급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봉투가 빵빵했지만,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됐다.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우를 받았다. 당시 동제련과에는 300여명이 3교대로 근무하였다. 월급은 7만 원 정도 받았는데

당시 직원들은 장항제련소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점을 많이 이용하였다. 한 달 동안 매점을 이용한 비용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었다. 매점은 장항제련소 바깥에 있었다.

장항제련소 직원들은 일과가 끝나면 술을 한 잔씩 했다. 주로 장암리에 있는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기억나는 술집은 신성옥, 동일옥, 해양옥 등이 있었지만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 노동자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광석을 팔러온 업자들도 대금을 받으면 술을 마시고 갔다. 월급날이 7일 날인데 정문 앞에는 한 달 동안 외상을 준 술집 주인들이 술값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1970년대 장항경제가 가장 좋았다

장항경제가 1970년대는 참 좋았다. 장항 주변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참외 농사를 지어 지게다 지고 장항 읍내에 오면 얼마 있지 않아 다 팔았다. 또한 장암리 포구에 정박하던 중선배 생선도 잘 팔려 나갔다. 그때는 장항선을 타고 장항역에서 내려 배 타고 군산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아 장항 유동인구도 많았다.

1970년대 장항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걷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다. 장항제련소 출근할 때도 자전거를 탔다. 3교대 시간마다 자전거 행렬을 많이 볼 수 있었다.

1970년대 장항제련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200명 정도가 되었다. 특히 1960년대는 지금의 일용직인 일고자들이 많았는데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일고자를 종업원으로 전환 시켜줘 근로자가 많았다.

납중독이 두려웠다

장항제련소 직원들은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 순환 보직제를 운영하였다. 연제련과 동제련과 등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다. 연제련과의 경우 납중독 되는 사람들이 많아 서울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 후 사택 근처에 납 중독자를 위한 병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1년 내지 2년제로 순환 보직을 운영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없던 연제련과가 1970년대 만들어졌다. 연제련과에 있는 용광로는 약 50톤 정도의 크기였다. 배수반에서 나온 연광석은 대부분 분광으로 되어 있었다. 배수반에서

열을 가해서 찔 때는 무연탄, 석회석, 규석을 넣고 가열하였다. 용광로의 크기도 해방 후 50톤이었다면 1970년대는 100톤으로 확대하였다. 1980년대는 200톤 규모의 용광로 2기가 있었다. 연제련과는 연중독으로 인해 직원들이 기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 연중독은 연제련과가 많았다. 동제련과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동제련과 사람들도 비소 등으로 중독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때만 해도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1989년 '용광로 불을 껐다'고 하는 것은 장항제련소에서 용광로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공정을 멈춘 것은 아니고 광석을 제련하는 것만 그만둔 것이다. 다른 공정은 반제품을 갖다가 용광로에다 녹여서 조동을 뺐다. 조동은 굴뚝이 없으면 뺄 수가 없다. 그래서 굴뚝을 통해 나가는 분진을 잡아야 했다. 분진 때문에 굴뚝을 3년마다 여름에 청소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하여 연제련과를 먼저 폐쇄하였다.

환경운동의 중요성 자각하다

박종성 씨는 어머니가 간암, 아버지는 신장암으로 돌아가시자 환경운동을 시작하였다. 자신의 부인도 부여에서 시집을 왔는데 자신보다 더 심하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가족들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이 되자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장항제련소는 1970년대 이후 필리핀에서 저품위 광석 아트라스를, 칠레에서 초키카라는 광석을 들여와 그때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었다. 이 광석에 규소가 많이 들어 있었고 광석 속에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안 들어간 것이 없었다.

장항제련소에서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배출되어 장항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농사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후에 정읍에서 동박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중금속 오염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박종성 씨가 아픈 것은 장항제련소 동제련과에 근무했을 때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굴뚝 바로 밑인 송림리에 살았던 탓도 크다. 그는 현재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을 앓고 있으며 약이 없는 병 신장결절에 시달리고 있다. 장항제련소는 박종성 씨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한 것이다.

꽃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

장항제련소 주변이 오염되어 토지 정화 작업을 하면서 장암리, 송림리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리고 장항송림산림욕장에는 맥문동을 심었다. 맥문동을 심은 이유는 중금속오염 지역으로 소나무를 베고 토지 정화 사업을 해야 하나 발암물질인 비소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피복식물을 심은 것이다. 꽃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맥문동 꽃밭을 유리관식으로 전환 관리해야 맞다.

그는 장항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첨단산업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특히 방한규의 자동차폐차 소각장 반대, 한솔제지 FRP플라스틱 공장 해저터널 반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서천군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장 민 순 (1940년생)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찌꺼기 속에서 건져낸 분은실의 쾌거



홍성에서 장항으로 오다

장민순 씨는 1965년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여 30년 동안 근무하고 1995년에 퇴직하였다. 그는 홍성군 대영리에서 1940년에 태어났다. 홍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제대하였다. 제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홍성에서 알고 지내던 경찰관 한 분이 장항에 있는 서천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중신을 하였다. 소개받은 사람은 장항제련소의 의사 박용규 씨의 딸 박영자 씨였다. 두 사람은 제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홍성에 차렸는데 박영자 씨가 장항으로 내려가지고 하여 장항에 내려왔다.

그 후 처남 박종천 씨의 소개로 장항제련소 일용직에 들어갔다. 그가 하는 일은 리어카를 이용하여 금, 은, 동 광석을 용광로까지 운반하는 것이었다. 광석은 배, 기차, 트럭을 이용하여 장항제련소 광장까지 운반되었다. 운반하는 양에 따라 보수가 달랐다.

어느 날 일용직 파트너의 실수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대전으로 통원치료를 다녔고 치료비는 제련소 측에서 부담하였다. 퇴원하고 돌아와서 장항제련소 경비원으로 1년 정도 근무하고 연제련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연제련과에서 연중독에 걸리다

대개 첫 발령은 납을 취급하는 연제련과로 냈다. 발령 받은 사람들은 가스가 나오는 데 나쁜지 좋은지도 몰랐다. 마냥 정식직원으로 발령 난 것이 좋았다. 박종천 씨는 연제련과에서 일한지 1년 만에 용광로에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 연중독에 걸려 또 서울에 입원하였다.

연중독에 걸리면 밥맛이 없고 뼈마디가 엄청 쑤시고 몸이 피곤하고 졸렸다. 2024년 현재 연중독의 영향인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분은실에서 금과 은 등을 고르다

퇴원하자 금, 은, 동을 빼는 분은실로 발령이 났다. 분은실은 용광로에서 용해되어 전련과로 보내져 전기동으로 전환되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불순물을 분석하여 금과 은을 골라내는 곳이다. 분은실은 용광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분은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16명 정도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리 오랫동안 근무하지는 않았다.

장민순 씨는 분은실에서 10여 년을 근무하였다. 오래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항제련소 병원 원장이었다는 덕분이었고 또 처남 박종천 씨가 분은실 감독으로 있었으며, 처 작은아버지 세 분이 장항제련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분은실에서 작업할 때 기억나는 일은 어떤 사람이 분은실로 발령을 받아 들어왔다가 금을 훔친 것이 들켜서 금방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던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분은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퇴근할 때 몸수색을 했다고 들었다. 돌이켜 보면 그가 근무할 때도 전혀 몸수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불순물 찌꺼기 속에 금이 들었다

전련과에서 가라앉은 비중이 높은 불순물은 분은실로 왔다. 분은실에서 분석해 가면서 다시 녹여서 금, 은을 뽑아냈다. 그때 금덩어리는 꼭 스슥밥(조밥) 같았다. 그 금덩어리를 네모지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반장이 금괴를 금고에 넣었다.

불순물 찌꺼기에 금 함량이 많으면 많은 금괴를 만들 수 있었고 함량이 적으면 금괴를 몇 개 못 만들었다. 한 번에 5개 정도의 금덩어리를 쌓아 놓는 것을 보았다. 대개 5kg 정도로 보였다. 장항제련소에서 생산하는 금의 생산량을 물으면 그런 것을 왜 알려고 하냐고 뭐라고 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다.

금 은 분리는 약품으로 한다

한데 섞여 있던 금과 은은 약품으로 처리하면 분리가 되었다. 분은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받지는 않았다. 분은실도 근무는 3교대로 했다. 장민순 씨는 분은실에서 근무할 때가 가장 좋았다. 분은실에 근무하는 경우 딴마음을 먹을까봐 인사이동이 잦았다. 분은실에 근무했던 동료 중에 익산 출신 최기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라북도 사람으로 이리공고를 졸업하였다, 장항 사람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분은실에서 전련과로 이동하다

1980년대 전련과에서는 김성흠, 전옥환, 박종성과 함께 근무를 했다. 전련과에서는 어려운 일보다 단락이라는 일을 주로 했다. 단락은 동판과 동판이 늘어붙는지를 위에서 살펴보는 일이다. 또 전기가 센가 약한가를 살폈다. 전련과에서는 3년 동안 근무를 하였다.

전련과에서 나이를 먹었다고 이제 상주군으로 돌려놓았다. 상주군이 되자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중에 문제가 있어 결근을 하게 되면 야간에 투입되어 일을 해야 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한 것은 자녀들이 대학을 셋이나 다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의 행복과 슬픔

자녀는 3남을 두었다. 장남 장인식 씨는 대전대학교 교수이고, 차남 장인정 씨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근무한다. 막내 장인은 씨는 인천대학교 교수를 하다 익산문화재단 책임자로 왔다. 3남의 성공은 모두 부인 박영자 씨의 헌신이 덕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아이들을 가르쳐 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해 더욱더 안타까움이 많았다.

혼자 사는 15년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생활이었다. 당시 10원 한 장 없는 놈한테 치였다고 암것도 그만두고 교회나 나가라고 애들이 그랬다. 15년간 혼자 밥해 먹고 있는데 이제 다리가 저리고 귀도 하나 안 들리고 불편하지만 사람들은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돈 받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서 10원 한 장 주는 놈도 없고 또 남은 돈도 없는 사람이 장민순 씨다.

늙으니 더욱더 생각나는 낚시질과 건강 생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전엔 내가 낚시질하고, 술도 마시고 해서 잘 지냈는데 작년부터 이제 다리를 못 쓰니 꼼짝 못 하고 일 나오라 해도 읍사무소에 못 나가고 대전 병원에만 7번 갔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여기 한일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돌아다니고 밥도 해 먹지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에 갔지. 요양원에 가면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작년 끄러기까지는 낚시질로 서천군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던 안혀. 낚시질만 다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재밌게 살았어. 얘들 삼형제가 다 공무원이고 걱정이 될 게 없어. 그랬는데 작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렇더라니까."

지금은 낚싯대를 보고 있으면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온다. 지금도 낚시질을 하고 싶다. 낚시도구가 한 100만원어치 있다. 늙어서 나갈 수가 없으니 좋았던 그 시절 생각만 난다.

퇴직 후 제련소 매점에 낸 조합비를 돌려받다

장항제련소 매점은 시내에 있는 일반가게보다 물건 값이 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공제하는 조합비가 있었다. 물건은 외상으로 사고 장부에 적어 놓았다 월급날 공제하고 월급봉투를 받았다. 장민순 씨는 3형제를 가르치다 보니 자주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 공제금액 없이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퇴직하고 보니 매점에 낸 조합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당시 럭키금속을 상대로 항의하자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200만원씩 돌려주었다. 너무 좋았다.

퇴직 전 온산에서 2년 근무하였다

퇴직 전에 온산제련소에서 2년간 근무하였다. 60명을 선발하여 보내는 데 자원하여 온산제련소에 갔다. 온산제련소에서 하는 일이 장항제련소에서 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온산제련소에서도 전련과에 있으니 똑같은 작업을 했다. 퇴직할 때는 7~8명이 함께 퇴직을 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자녀들은 벼랑 속 썩이는 것은 없었다. 이제 혼자 있는 거 알고 교대로 찾아줘 정말 고맙다. 한눈팔지 말고 지금 마냥 살아라. 어머니 생각하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쏠리지 말고 50%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김 성 흠 (1949년생)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장항제련소 조동을 지게차로 운반하다



장항제련소 입사 동기

김성흠 씨는 장항제련소에 1970년 입사하여 2005년에 퇴직할 때까지 34년간 근무하였다. 그는 서천군 마산면 신봉리 238번지에서 태어나서 마산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셋째 형님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때 형이 자동차 학원을 다니라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땄다. 그 후 군산 채석장에서 일하던 육촌 매형의 트럭 조수로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장항 풍농에 근무하던 넷째 형이 차라리 장항제련소를 다니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 왔다. 흔쾌히 좋다고 하고 장항에 왔다. 당시 변구순 씨에게 부탁하여 1970년 8월 24일 일용직으로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였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용직 시절

그저 시키는 대로 막일을 하며 일용직으로 3년을 보내야만 정식 발령이 났다. 김성흠 씨는 입사한 다음 날부터 삽질과 광석 운반을 해야 했는데 몸과 마음이 고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전에는 크게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막교대 하면서 일을 시키니 무척 힘들었다. 그가 했던 일은 '소결' 또는 '다마갈이'라고 하는 공정이었는데, 광석과 석탄, 규소, 석회 등을 조합하여 로러에다 집어넣는 작업이었다.

김성흠 씨는 '어떻게든 참고 견뎌야 종업원이 돼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3년을 버텨냈다.

동제련과 지게차 운전수로 정식 발령나다

3년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를 찾은 사람은 변구순 씨였다. 변구순 씨는 김성흠 씨에게 자동차 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제련과 지게차 운전수로 발령이 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장항에서 운전면허 2종을 보유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 또한 지게차 운전면허를 획득한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김성흠 씨가 지게차 운전수로 발탁되면서 동시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이 났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련소 공정

선광장에서 페이로다로 광석을 트럭에 실어주면 광사로 실고 올라간다. 광사에서 용광

로로 내려오는 컨베어벨트에 부으면 용광로로 따라 들어간다. 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받아 콤파타라는 공정에서 화구찌를 쑤셔 얼마 정도 열을 올려 녹인 다음 쇳물을 내들에 받아서 아나도(anode) 공정으로 보낸다.

그러면 정제공정에서 90% 정도 이상 나오는 조동이 생산된다. 그놈을 전련공정으로 가서 또 20일 정도 전기 작업을 하여 전기동이 생산된다. 전기 분해되는 동안 밑에는 불순물 찌꺼기를 받아서 분석과로 이동시킨다. 분석과 분은실에 가서 금, 은을 뽑아낸다.

지게차의 활약이 시작되다

동제련과에서 만들어진 조동을 옮기는 작업은 김성흠의 지게차가 했다. 운전면허 2종을 가진 정식직원 김성흠 씨는 조동을 지게차로 이리저리 움직여 사뿐하게 들어 조동 광장으로 운반하였다. 조동과 전기동은 다르다. 조동은 90%이고, 전기동은 전기분해를 통해 얻은 99.9% 순도의 동을 말한다. 김성흠 씨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90% 조동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 또 적치해 둔 조동을 전련과에서 요구하면 하루에 몇 트럭씩 전해 공정과정으로 넣어주는 작업도 했다. 근무는 역시 3교대를 하였다.

장항제련소 굴뚝만 가리켜도 딸을 준다

김성흠 씨는 장항제련소 굴뚝만 가리켜도 딸을 준다는 얘기가 장항에 파다할 때 입사를 하였고 결혼을 하였다. 장항제련소가 호황을 누리고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 그가 입사할 때는 국영기업체 장항제련소였는데 입사 후 럭키금속(LG)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3~4번 더 바뀌었다.

드디어 1974년 정식직원이 되면서 장항에서 처녀를 만나 24살에 결혼을 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에 철이 일찍 들었다. 결혼하고 화천리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때 잘 알고 지내던 과장님이 사택에 들어가지 말고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사택에 들어가면 집 걱정이 없어서 안일하게 살 수 있다는 충고였다. 그래서 셋방을 전전하다 남만주라는 마을에 당시 일천만원 정도의 집을 구입하여 살았다.

남만주라는 마을에 내 집을 마련하니 출근하는데 너무 좋았다. 자전차를 타면 10분 이내에 제련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3교대 근무라 아침 6시 30분까지 도착하여 근무준비를

하였고 야간근무는 11시에 들어가는데 야근 들어가기 전에 눈을 좀 붙여야 견딜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김성흠 씨는 야간 들어가기 전에 한두 시간씩 쉬었다가 근무에 들어갔다. 행복한 결혼 생활로 2남 1녀를 낳았다.

자녀교육 경제적 뒷받침만이 답이다

2남 1녀를 둔 가장 김성흠 씨는 못 배운 한을 자녀들에게 쏟아 부었다. 남들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세 아이를 대학까지 가르치기에는 힘겨웠다. 큰아들은 우석대학교, 둘째는 군산대학교, 딸은 대전보건대학을 졸업하였다. 김성흠 씨의 아내는 태평양화학에 들어가 가정경제를 분담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에게 감사한다. 아내의 노력과 김성흠 씨의 성실한 회사 생활이 가정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장항에 정착하니 만족스러웠다

1970년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여 장항에 처음 왔을 때는 제련소 직원과 풍농직원들이 장항 시내를 가득 메워서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장항은 당시 3만 인구가 북적거렸다. 매월 7일이 월급날인데 장항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싸전에 들어가면 어깨가 결려서 못 돌아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제련소 봉급 나오는 다음 날이 장항장이라 물건을 사려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돌아다니니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서천장에 사람이 몰리지 장항은 사람이 없다.

1989년 전후한 장항제련소의 감축은 장항경제의 위축이었다

1980년대까지 장항제련소는 과도 많고 직장인도 많았다. 장항경제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서히 장항제련소의 종업원들과 시설을 온산 공장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장항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장항 경제가 가장 전성기일 때 점차 기울기 시작하였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쉽지 않았다.

1989년 제련업이 온산으로 옮겨가면서 제련소 용광로 불이 꺼졌다.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와서 전련공정을 거쳐 조동과 전기동을 생산하는데 조동 생산을 하지 않으니 용광로 불이 꺼진 것이다. 지금은 조동 없이 동을 수입하여 동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

련소 공정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어 그만큼 생산직 종업원이 감축되면서 장항 경제가 위축된 것이다.

퇴임 후 신창1리 이장이 되다

2005년 퇴직 후 게이트볼 장을 출입하고 있는데 나병균 이장이 임기가 다 되었다고 하니 반장들과 개발위원회에서 김성흠 씨에게 이장을 맡겼다. 그래서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장을 18년 동안 하고 있다. 처음 3년 동안은 이장 일을 배우는 기간이었다. 당시 컴퓨터를 가르쳐준 조성훈 강사가 기억에 남는다.

김성흠 씨가 2006년 이장을 맡았을 때 신창1리 동사무소는 화신약국 2층에 있었다. 이에 2009년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성금을 추렴하여 120평 부지를 6천만 원에 마련하였다. 도지사, 부지사, 군의원 등이 힘을 써 지금의 자리에 신창1리 마을회관을 건축하였다. 김성흠 씨는 마을회관 건립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벽화를 그린 것 역시 기억에 남는다.

장항제련소와 같은 기업이 유치될 수 없을까?

장항경제가 말이 아니다. 1989년 이후 점차 장항제련소의 감축으로 장항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 다시 장항제련소에 2~300명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기업이 유치되더라도 장항의 정주여건이 좋아야 한다. 군산이나 서천에서 거주한다면 장항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장항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서천군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추 길 호 (1945년생), **최 후 자** (1949년생)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

노부부의 사랑을 지킨 장항제련소



추부자 만석꾼네

추길호 씨의 백부인 추교영 씨와 그의 동생 추교태, 추교철 씨는 당대 서천군의 큰 부자였다. 추교영 씨의 집은 누에머리에 있었는데 만석꾼이었으며 서천군에 추부자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추부자가 살던 집을 나상진 씨가 헐어서 지금 장항농협 근처에 재건축하였다. 추부자는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남사당패를 불러 주민들에게 흥을 돋워 주었다. 당시 추교영 씨댁에 오정숙 소리꾼이 묵으며 노래를 불렀다.

추부자 만큼은 아니지만 동생 추교태 씨는 2천석을 하던 집이고, 추교철 씨도 2천석을 했다. 추길호 씨는 추교철 씨의 7남매 중 막내로 장항읍 옥남리 321번지에서 태어났다. 추교철 씨의 집은 솔리 마을에서 부자집으로 알려져서 인근 동네 처녀 총각들이 자주 집에 놀러 왔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를 많이 주었다.

1964년경 설 때 마을 주변에 살던 남녀 친구들이 그의 집으로 놀러 왔다. 청춘남녀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대화 내용이 불미스럽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모두 쫓겨났는데 붙잡힌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마서면 남전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이었다. 추길호 씨는 부모님에게 붙잡힌 여자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아이에게 동생을 삼고 싶다고 말했다. 그 당시는 이성을 동생 삼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인사를 해야 했다. 인사하러 간 날 뒷걸음치다 아버지 안경을 밟아서 부숴버렸다. 그게 인연이 되었는지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다.

추길호 씨는 1968년 맹호부대원으로 월남전에 파견되었다. 그는 월남에 있을 때 편지를 그녀에게 많이 보냈다. 월남에서 1년 반 정도 전투에 참여했다 솔리로 돌아온 후 급격하게 동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군대 갔다 돌아와 남자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추길호 씨는 그녀와 1970년 결혼을 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월남에서 돌아와 집에서 놀거나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때 솔리에 살고 있던 당숙이 '너 그러지 말고 장항제련소를 다녀라' 라고 말해 제련소에 입사를 하였다. 당숙은 당시 장항제련소 경리부장으로 지역 사람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에 추길호 씨는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여 전련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조동에서 전기동을 만들다

전련과는 90%의 조동을 넘겨받아 전기분해를 통해 99.9%의 전기동을 생산하였다. 조동하나의 무게는 240kg이 된다. 추길호 씨는 운전공으로 지게차가 들어서 보내오면 바가지를 젖혀주는 일을 했다. 조동을 빼는 일만 8년을 했다.

당시 복장은 불에 강한 안전복과 마스크, 작업화, 안전모, 장갑 등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작업장에서는 2시간 마다 로테이션을 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전련과에서는 물탱크에 액체가 있어 쁘라마이너스 혀가지고 불순물을 빼냈다. 그리고 그 불순물에서 금, 은을 빼냈다. 그는 장화를 신고 전류가 잘 흐르는지를 살피는 일을 했다. 그 후 자재과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3교대 출퇴근길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를 하였다. 1근은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3근은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근무를 했다. 한 달에 닷새씩 교대근무를 했다. 사실 3근 할 때가 가장 피곤하였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서 쉬는 시간이었다. 나머지 16시간은 잠을 자고 안식구와 함께 집안일을 도왔다. 솔리에서 제련소까지 4km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였다. 출근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교대근무 야근은 내외간의 고생이었다. 특히 아내가 그를 깨워서 출근 준비를 도왔기 때문에 함께 힘들었다.

날이 화창할 때는 장뚝을 따라 알매재를 경유하여 출근하였다. 비 오는 날은 자전거를 타고 신작로를 달렸다. 화천양조장에서 사택을 경유하여 출근하였다. 한 달간 월급은 많아 보이질 않았다. 아내 역시 월급봉투는 받았지만, 보너스 봉투는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월급은 당시 쌀 3가마니 값이 나왔다.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정도를 받았다. 촌이라 농사도 짓고 뭐라도 나오니까 20만원이면 나쁘지 않았다. 자녀들 가르치는 데는 장항제련소가 좋았다. 수업료를 지원해 주니 교육비가 덜 들었다.

솔리에서 제련소 다닌 사람

솔리에서 장항제련소 다닌 사람은 어림하여 7~8명이었다. 교대근무가 같은 시간이면

함께 출근을 했다. 기억나는 사람은 송기찬, 송기철, 윤연아 인데 모두 죽었다. 제련소 물이 독한가 보다. 지금 추길호 씨는 80세인데 그들은 5년 전 75세에 죽었다. 당시 솔리에 살았던 사람은 5~600명인데 그중 7~8명이 제련소를 다녔다. 그 집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장항제련소 월급날

장항제련소 월급날은 정문 앞에 사람이 꽉 찼다. 술값, 외상값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여자가 와야 외상값을 받지, 남자가 오면 돈을 못 받았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싸납기 때문이었다. 술집은 장암리 해광옥을 비롯하여 10여 집이 있었고 제련소에서 운영하는 구판장, 즉 매점도 많이 갔다. 구판장에서는 이름만 적으면 다 줬는데 주로 쌀과 술을 구입하였다. 평소에는 장암리와 구판장에서 술을 한 잔하지만 월급날은 대개 지금의 공단 주유소 근처 생맥주집에서 한 잔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연돌 청소하던 날

굴뚝 청소는 1년에 한 번 했다. 한번은 연돌을 청소하는데 돌이 굴러와 허리를 삐끗하여 한 달간 입원한 적이 있다. 용광로 불을 끄고 종업원들이 들어가 청소를 했다. 엔바이(烟煤; 그을음)라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 한 달 정도 불을 끈다.

지게를 지고 들어가 엔바이를 퍼내는 일을 했는데 연돌 안에서 청소 시간은 1시간씩 한다. 우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했다. 30kg 정도만 긁어 내면 작업은 끝났다. 엔바이가 가스여서 엄청 위험했는데 연돌 청소하는 날은 전련과, 연제련과 등 모든 직원이 참여했지만 사무실 직원들은 안 왔다. 직원들은 연돌까지만 하고 굴뚝은 청소하는 업체가 했다.

연돌 청소만 아니라 제련소 정비하는 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보완하였다. 연돌에서 가지고 나온 엔바이는 백에 담았다. 담아진 백은 다시 용광로에서 연소시켜 광석과 함께 반복 처리하였다. 용광로 불을 다시 지필 때는 장작을 채우고 에어를 불어 살렸다. 용해를 하고 남은 슬러그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 그 찌꺼기는 해안을 메우는 데 사용하였다.

연돌 청소 후 돼지고기 반근을 주다

연돌 청소가 끝나면 돼지고기 반 근을 줘서 함께 모여 돼지고기를 삶아서 술과 함께 먹

었다. 이것은 폐에 낀 불순물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도 탄광에서 일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먹은 것과 똑같다.

퇴직후 2톤 배를 하다

2000년 추길호 씨는 퇴직을 하고 2톤짜리 선외기를 마련하였다. 아내와 같이 선외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날은 부부의 가슴이 후련하고 마음이 탁 트여 좋았다. 퇴직 후 2년은 외국관광을 많이 다녔다. 일본 오사카, 중국 장가계, 싱가포르, 태국 등을 다녀왔다. 여행 비용은 퇴직 후 나온 고용보험료로 지불했다. 2년 후 경제 활동을 위하여 선외기를 구입하여 어업을 하였다.

추길호 씨는 배를 직접 건조해서 20년 동안 운영하였다. 유부도에서 생합을 잡아 팔았고 배가 없는 사람들을 싣고 가는 데 5,000원 씩을 받았다. 다른 배와 함께 유부도로 조개를 잡으러 가기도 했다. 조기, 꽃게, 대하도 잡았다. 4년 전에 배를 팔아서 지금은 바다를 나가지 않는다.

자녀를 위한 기도

추길호 씨는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광명에서 사업을 하고, 차남은 한솔제지를 다닌다. 딸 둘은 광명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었던 장항제련소가 있어 감사하다. 또한 지금까지 자녀들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녀를 위해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길 기도한다. 셋째는 손자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길 기도 한다. 추길호 씨는 아내가 살림을 절약하여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회고하며 감사하고 있다. 아내는 성실한 추길호 씨와 장항제련소 덕분에 행복했다고 고백한다. 노부부의 사랑은 장항제련소와 어업으로 인하여 1964년 처음과 같았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서 정 권 (1947년생)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힘들어 그만 둔다는 사람이 오래 다니는 장항제련소



양용주 목사의 소개로 입사하다

서정권 씨는 전북 삼례에서 1947년에 태어나 익산에 있는 이리공고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군대를 제대하고 1975년 제련소에 입사하기 위하여 장항에 왔다. 장항과의 인연은 장항에 있는 신창교회 양용주 목사가 취직자리를 알선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용주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는 처형의 지인이었다. 처형이 양용주 목사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이다. 양용주 목사는 서정권 씨에게 장항제련소를 소개하였다.

신입사원 교육에서 성적이 1등 아닌 2등 이었다

장항제련소에 교육생으로 입사했는데 교육은 3개월 정도 했다. 장항제련소 4기 교육생으로 40명이 수료하였다. 서정권 씨는 공부를 잘해 1등을 했는데 2등을 주었다. 이유는 바지에 혁대를 안 찼다는 억지였다. 속으로 2등을 주든 1등을 주든 내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교육 내용은 장항제련소 공정과정을 동제련과, 연제련과 및 전기, 기계 등 작업과정을 과별로 담당자들이 교육을 하였다. 당시 최진이라는 과장이 교육하는데 너무 좋았다.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며 교류를 하고 있다. 최진 과장은 퇴직 후 스텐레스 협력사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공부하여 포항공대 화공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장항제련소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성과에 따라서 각 과별로 배치되어 근무를 했다.

연중독은 두려웠다

1975년에 장항제련소는 한국광업제련소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광업제련소는 주 업종이 구리 생산이었다. 생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금, 은 등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로 보았다. 그래도 금, 은도 많이 생산을 하였다.

납도 생산을 하였는데 연제련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중독에 걸려 회사가 시끄러운 적도 있었다. 서정권 씨도 병원 생활을 하였는데 한국광업제련소에 병원이 있었다. 사택 근처에 병원이 있었는데 연중독이라고 하여 특별히 치료하는 것은 없었다. 직업병 중 가장 큰 것이 연중독 이었다. 회사는 골치가 아팠다. 1970년 후반 연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항의하였기 때문이다.

전련과 정액실에 근무하다

서정권 씨는 전련과 정액실에서 근무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우수한 전기동을 생산하기 위해서 액 중에 있는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는 공정을 맡았다. 그 액 중에서 특히 비소(AS)나 안티몬(SB)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또 하나의 주업무는 조황산니켈을 다시 재 공정해서 황산니켈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정액 과정은 듣기에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정말 재미있는 공정이었다. 니켈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재미있다. 연구실에서 공정과정을 연구해서 현장으로 와서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하였다. 화학공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황산니켈에서 황산니켈로의 성공

니켈 생산은 전련과에서 커튼까지 쳐가면서 외부에서 누가 볼 수 없도록 비밀을 지켰다. 황산니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돈이 되는 생산품이었다. 조황산니켈은 액 중에 있는 것을 농축시킨 것이다. 농축시키면 하얗게 침전물이 되는데 이것이 조황산니켈이다. 이것을 본사 연구실에서 개발하여 황산니켈을 제조하였다.

전해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다

정액실에서는 전해액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이때 전해액에 캐소드(cathode 음극)를 넣으면 비소, 안티몬 같은 불순물이 전착된다. 이때 탈동, 탈비를 해야한다. 탈동은 1차에 동을 제거하고, 다음에 탈비를 한다. 비소나 인티몬를 제거한다. 다시 말하면 동, 비소, 안터몬, 니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즉 사람 몸에 피를 맑게 해주는 작업과 비슷하다. 탱크 밖에서 덮개를 덮고 안티몬이나 비소를 팬으로 빨아냈다. 비소와 안티몬은 여과시설을 거쳐서 바깥으로 배출된다.

당시에는 이것이 환경문제라고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굴뚝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관계가 없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화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계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아쉬운 장항제련소의 굴뚝 환경시설

1980년 후반 장항제련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농민들이 항의 방문을 하였다. 농민들이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할 때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오염을 막는 환경시설을 갖추었더라면 장항제련소 사업이 엄청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온산은 제련 시설이 엄청 커져 버렸다.

막걸리 한잔 먹자

근무하면서 재미있는 일은 작업자들끼리의 화합이었다. 지금은 예전처럼 화합이 없고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인간미가 없다. 예전에는 회사 주변에 술집이 많이 있었다. 피곤하고 지치면 '야 가자, 우리 막걸리 한 잔 먹자.' 또는 '어느 술집에 가서 안주 좀 시켜 놔라' 하면 퇴근 후 한 잔 먹곤 했다.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정이 더 많았다.

입사 후 장항에서 월세를 살았다

1969년 25살에 연애결혼을 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결혼 후 부모님 밑에서 살다 1975년 장항으로 이사와 월세방에 살았다. 월급으로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쌀을 갖다 먹었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장항으로 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부모가 주는 쌀이라 버릴 수도 없었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였다.

서정권 씨 보다 아내가 더 힘든 생활을 하였다. 특히 신앙이 깊지 않던 그 시절 술집을 전전하였으니 아내로서는 지인이 교인밖에 없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공정 하나 개선되면 작업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기업은 끊임없는 업무 개선을 요구한다. 관리자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면 좋아하지만, 근로자는 개선된 만큼 인력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하다. 육체적인 노동도 그만큼 가중이 된다. 개선된 과정이 완전 자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남은 노동자의 육체적인 노동량이 증가하여 힘이 든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동화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각박하고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때 회사 일이 힘들어 그만둔다는 후배들

을 보면 '야 인마,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사람이 오래 다니더라.'라고 하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하고 뒤돌아보니 서정권 씨야말로 퇴직할 때까지 오래 다녔다.

마지막 공정과 판매

서정권 씨는 전해 탱크 액 조정을 몇 그램에 딱 맞추면 자동으로 니켈이 제거되고, 또 불순물 철(F)이 제거 되는 것이 재미있었다. 참 신기하고 묘한 화학반응이다. 이렇게 99.9% 동판이 생산되면 마지막으로 분석과에서 검사하여 양호하다면 끝이고 불량이라고 하면 다시 녹여 재공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된 동 A급은 전자제품회사로 가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또 군수물자로 팔린다. 동 B급은 동파이프 제작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최종 생산된 동은 판매과에서 판매를 한다.

장항제련소 이름만 대면 외상을 주던 시절

1970년 후반까지만 해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였다. 작업복은 군복 같은 옷 뒤에 안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회사 안 공기는 좋지 않아 각 과마다 특이한 냄새가 났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지만, 월급날만큼 기분 좋은 날은 없었다. 그러나 월급은 구판장, 시내 가게의 외상값을 갚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평소 아프면 처방전과 돈이 없어도 약을 사 먹을 수 있었다. 옛날에 약국 같은데 가면 외상으로 이름만 대면 다 주었다. 약국에서 월급날을 전후해서 경리과로 청구하기 때문이었다. 장항제련소 직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외상이 늘 가능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다

서정권 씨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건강하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회사에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보람이다. 1980년대에는 노태우 대통령상을 받았다. 품질관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생전 촌사람이 가보지 못한 예술의 전당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때 본사에서 가보로 잘 모시라고 했다. 이것이 큰 보람이었다.

제련소에 대한 미련과 그리운 딸

LS 광업제련에서 퇴직할 때쯤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다. 그때 황산니켈 공장이라는 것을 협력하여 운영하라 하였다. 전에 LS산전으로 이직하여 스텐 파이프를 생산도 하였지만 황산니켈은 매력적인 업종이었다. 그러나 조황산니켈 원재료가 없어 황산니켈을 생산하지 못했다. 결국 수익성이 없어 문을 닫았다. 황산니켈과 10년이란 세월을 함께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아쉬움이 지금도 가슴에 맺혀 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이 나이 30세에 뇌종양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 또한 큰 아쉬움이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노 쌍 석 (1947년생)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QC활동 전국 최다 제안자 노쌍석



첫 직장 길산 철공소

노쌍석 씨는 1947년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 계촌 마을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께서 쌍둥이라고 노쌍석, 노쌍열 이라고 지어주었다. 기산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 17살 되던 해에 길산에 있는 철공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길산 철공소에서 주로 선반, 용접, 발동기 보링 등 기술을 익혔다. 3년 동안 밥만 먹여주고 월급을 주지 않고 명절 때 검은 양복을 한 벌 해주는 것으로 끝났다. 3년 지나서야 3천 원씩 주었다.

두 번째 직장 서천 신흥 농기계

아버지의 소개로 집안 아저씨가 운영하는 서천 신흥농기계에 취업했다. 길산 철공소에서 눈 떠가지고 가니까 딴 사람보다 조금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신흥농기계에서는 사장 노승남 외 5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였다. 주로 농기구, 발동기, 탈곡기 등을 제작하는데 조수로 일을 하였다. 그런데 선배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노쌍석 씨가 일찍 선발을 잡았다. 신흥 농기계에서는 7년쯤 일을 했다. 그리고 후에 30사단 수색 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다.

세 번째 직장 장항제련소

신흥농기계에 다니던 조수의 큰아버지가 장항제련소를 다니고 있었다. 그 큰아버지가 소개하여 1974년 27살 때 장항제련소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였다. 신흥농기계 사장은 '내가 키워주었는데 장항제련소로 도망가냐'며 화를 냈다. 가려면 조수로 있는 이질도 데려가라고 야단이었다. 그럼에도 장항제련소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고 시험은 간단한 용접 실기를 보았다. 그리고 볼트 사이즈를 묻는 면접을 했다.

한복을 짓는 처녀와 결혼하다

신흥농기계에서 근무하면서 노쌍석 씨 밑에서 일하는 애가 서천 화성리에 살고 있는 이모를 소개시켜 주었다. 얼굴을 보니 괜찮았다. 드디어 신부 김용자를 만나 화성리에서 1975년 구식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올리고 기산 두북리 계촌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두

북리부터 장항제련소까지 출퇴근을 하였다. 자전거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정도 타면 회사에 도착하였다. 자전거 길은 계촌, 길산, 삼산리 가르매, 계동까지 가서 큰 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장항에 도착하였다.

장항으로 이사오다

기산 두북리에서 신혼살림을 1년쯤하고 장항 전세집으로 이사를 왔다. 월급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아내 김용자가 한복 바느질을 했다. 처형이 한복 장사를 했는데 주문을 받으면 처가 바느질을 하여 그 삯을 받아 저축하였다. 장항 생활의 첫 집은 무척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집은 신창리의 따스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 후 장항제련소 기계과에 근무하면서 관리자를 만나 사택을 부탁하여 새마을 사택에 입주하였다. 기계과는 밤낮 따지지 않고 호출을 했는데 사택은 호출하면 쉽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아이들을 여기에서 다 키웠다.

장항제련소 기계과 근무

기계과에서는 주로 선반 업무를 하였다. 기계공작과는 작업실에서 선반을 가지고 부러지거나 없는 부품을 깎는 일이었다. 간혹 주물장이랑 함께 깎고 제작하였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조업이 중단되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노쌍석 씨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부품의 상태를 보고 직접 선반으로 깎아서 부러지지 않도록 고쳐주었다. 고장 난 것을 고치고 개선하여 그것을 제안하거나 QC(물질관리) 활동을 연계시켜 함께 제안하면 효용성이 높았다.

처음 제안서를 내다

정제로는 지하에 있는 쇠를 녹이는 기계이다. 바람을 불어 녹이는 건데 물체가 중앙에 있지 않으면 로라가 탈선을 한다. 그러면 조업이 중단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이에 회사에서 QC를 적극 장려하고 교육도 시켰다. 교육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1인당 회사에 제안을 몇 건씩 하라고 배당을 한다. 대부분 관심이 없기에 무관심하지만, 기계과에서는 고장난 기계를 고쳐야 하기에 계속 생각하고 팀과 상의를 했다.

그 결과 1974년 입사하여 2004년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70여 건의 제안서를 내서 장항, 온산 전국 최다 제안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정제로의 받침 노라를 설치하는 제안을 하여 육중한 정제로의 탈선이 방지되었다. 안전하고 중단 없는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뻤고 첫 번째 제안서가 성공하여 제안서 작성 요령이 생겼다.

수리 불가능한 기중기 개선 제안

기중기는 장항제련소에 4대가 있었다. 필수 불가결한 장비였는데 며칠 만에 고장이 났다. 기중기가 높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육중한 것을 내리고 올리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리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을 때, 작업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만 했다.

이에 QC와 연계하여 노쌍석 씨가 분임장으로 방법을 찾았다. 베아링을 새로 만들어 전부 교체를 하였다. 고장 없이 작업이 계속되었다. 고장률이 제로가 되었다. 전국대회에 베아링 제작 교체를 제안하는 QC로 금상을 타자 회사 잡지에 나왔다. 그 대가로 홍콩,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대통령 상을 받다

노쌍석 씨는 제6회 전국 제안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창안상과 제7회 최우수인 제안자 상을 받았다. 그리고 1994년 품질 명장이 되어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그 상을 수여하였다. 당시 품질 명장은 서정권, 박명순과 함께 3인, 온산에 2인이 있었다. 장항에는 기술 명장 곽만기가 있었다.

새마을 사택 50동

전세를 살다 사택으로 입주하니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노는 것이 행복이었다. 사택은 17평으로 2집이 붙어 있는 집이었다. 방 2칸과 부엌 1칸으로 세 칸이었다. 사택의 규모는 50동이 줄지어 있었다. 말 그대로 새마을 사택이었다. 2남 1녀 아이들을 여기서 키웠다. 큰놈은 대전고등학교, 둘째 놈은 한밭고등학교, 막내는 장항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아이들 둘이 대전에서 하숙하니 하숙비가 비싸 고생을 하여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했다. 부

부가 맞벌이를 하여 가르쳤는데 집사람이 욕봤다. 다행히 1995년경에 학자금 제도가 생겨 부담이 줄어든 것은 장항제련소 덕분이다.

상을 받은 후 축하 회식 자리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뒤로 빼면 노쌍석 씨가 앞장서서 QC 활동을 했다. 돌아가면서 할 때 내 차례가 되면 남들보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기계실에서 고장 수리를 한 것을 제안서로 만들어 제안하면 심사위원들이 칭찬을 하였다.

대개 근로자들은 분임조 시간에 말이 없다. 상을 타가지고 오면 회식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는 별소리가 다 나온다. 그 회식 자리를 자주 만들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 회식하는 집은 장암리에 광주집, 은행나무집이 있으며, 시내에서는 공단주유소 주변에 있던 손모아 식당을 즐겨 갔다. QC 활동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회사는 약 1억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제안 활동, QC 활동의 보상

제안 활동과 QC 활동으로 모범 사원에 선발 되어 가지고 상을 탈 때는 용돈이 떨어질 때였다. 그때 꼭 상을 받았다. 그래서 살림에 보태 쓰기도 하고 동료들과 회식도 하였다. 해외 연수도 일본으로 2번이나 갔다 오고 홍콩, 대만에서 현장 실습도 하였다. 선상 연수는 6박 7일 동안 배 안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활동을 했다. 그래서 해외 연수에 다녀오면 기분이 좋았다.

아쉬운 점은 제안 활동과 QC 활동으로 남보다 일을 많이 해도 상금은 줄지언정 특진 기회를 주지 않아 아쉬웠다. 특진 기회를 주어 신바람 나게 일하면 회사가 이익일 것이다. 이것이 불만이었지만 스스로 취미라고 생각하고 계속했다.

가족에 대한 아쉬움

노쌍석 씨는 제련소에 다니고 아내는 바느질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형편은 안 되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달라는 것을 다 못 사주고 장난

감 가게를 나와야 했다. 그러면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 난리를 쳤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QC 활동을 하면서 차드를 벽에 걸어놓고 연습하는 아버지 모습을 통해 산교육을 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자녀들이 자수성가하여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애들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잘살고 있다.

장항발전의 기대

장항에 제련소가 있어야 발전하는데 제련소가 떠나니까 모든 경제가 다 무너졌다. 공해 때문에 제련소가 이전하였다. 황산공장을 지으면 공해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다시 장항제련소가 가동되었으면 좋겠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오 세 문 (1951년생)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장항제련소와 지역 상생의 매개자 오세문



돌다리 출신이 엄청 소문난 장항제련소에 입사하다

오세문 씨는 1951년 생으로 1975년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여 2018년까지 42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돌다리에서 태어나 서천중학교, 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였다.

1975년도 휴가를 맞아 장항에 왔는데, 장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말하길 장항제련소 옷만 입어도 외상이 다 가능하고, 딸과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당시 공무원, 교사들의 보수가 상당히 적었다. 장항제련소 직원들과 보수가 대비되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딸을 안 줘도 제련소 옷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였다. 7일 날 봉급이 나오면 8일 날 장항 시가지 쌀값이 좌우된다고도 하였다. 이런 좋은 얘기로 권유해서 장항제련소 채용시험을 보고, 고졸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직업훈련에서 1등 하자 사무실 근무자로 배치되다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여 6개월 정규 코스 교육을 받았다. 사내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 부서별 교육을 하고 중간평가 최종 평가를 하였다. 37명이 입사했는데 1등을 하였다. 1등한 사람에게 소장의 표창을 주었다. 덕분에 2호봉 특진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영광을 얻었다.

사촌 형수님 장항제련소 입사 권유는 적중했다

오세문 씨는 1976년 1월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식을 하고 부모님이 계신 시초면 신흥리 돌다리에서 신혼생활을 3개월하고 출퇴근이 편한 장항으로 분가하였다. 장항에서 셋방을 얻어 1년 동안 생활하다 사택으로 들어갔다. 당시 장항제련소 직원은 980명 정도인데 사택은 252세대 252가구가 살고 있었다.

사택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관리자, 직반장, 일반사원, 현장 기능직 등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살았다.

장항제련소는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다

장항제련소는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장항 시가지가 온통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항의 물건 값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타지에서 구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구매하였다.

장항제련소를 국가에서 운영할 때를 돌이켜 보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하였다. 장항제련소는 최대한 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방재 시설도 하고 있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주민들이 한 번 더 얘기할 것도 미안해서 못 할 정도로 기업이 함께했다. 그래서 마을별로 노인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진행하면 장항제련소에서는 음료수, 주류 등 성의를 다 보여주었다.

그러나 온산제련소에서 소장을 마치고 말년에 장항제련소에 부임한 소장님들은 장항제련소와 지역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온산은 큰 공장이 많은데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없었다. 왜 지방신문에 창간광고를 내야하고, 지역주민이 초대장, 청첩장을 보내오는지 이해를 못 했다. 당시 성주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고, 야유회 간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찾아다녀야 하는지 주재 임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장항제련소 소장은 서림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장이다. 그렇게 지역주민과 함께해야 했다.

서천군에는 기업이 적었다. 서천화력발전소, 풍농 등이 있어 지역사회가 어려우면 서로 도왔다. 기업이 어려우면 지역사회가 도왔다. 기업이 장항에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있으면 기업도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관리했다.

계속 승진하는 오세문 차장

오세문 씨는 양성교육에서 1등을 한 덕에 기능직 사원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중간에 시험을 거쳐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여 과장을 거쳐 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평사원에서 관리자로 있으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지역에서 구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접근했다.

연제련과 사무 보조로 출발하여 관리과에서 제련비 분석을 하며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 후 자재과에서 통계를 냈다.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전표도 끊곤 했다. 모든 제련소 물건은 코드화하고 전산화 작업을 했다. 그 후 총무과로 옮겨 서무담당을 하였다. 서무담당은 장항제련소 살림부터 손님 접대까지 다해야 한다. 소장 일정, 손

님 접대, 대민관계, 대관청 업무, 경찰서, 법원, 군청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무담당에서 총무과장으로 승진을 하였다.

IMF와 LS 니꼬 그리고 LS MNN

1997년에 IMF 사태가 터졌다. 제련소는 채무가 많아지면서 광업제련으로 있기에는 버거워졌다. 이때 일본 니꼬 금속에서 제련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1999년 일본과 한국이 절반씩 맡는 조건의 공동대표제로 운영하였다. 2022년 LS 니꼬 동제련에서 LS MNN으로 바뀌었다. LS MNN은 일본에게 다 보상을 해주고 철수시켰다. 지금은 LS 그룹에서 100%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2023년에는 새만금에서 황산니켈을 통한 2차전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2023년 현재 장항제련소 LS메탈에서는 동파이프만 생산하고 있다. 제련소 부지는 총 3만 4천 평인데 전망산부지 1만 4천 평을 뺀 2만평에서 LS메탈이 동파이프 사업만 하고 있다.

1936년 장항제련소에서 LS메탈까지 역사

1936년도 6월에 금광석을 처리하는 조선제련광업주식회사가 장항에 창설되었다. 광석에서 금을 제련해서 금만 가져가기 위한 공장이었다. 해방 후 1962년에 한국광업제련공사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 1962년 2월에서부터 1971년 6월까지 10년 정도를 국가에서 운영하다 계속 적자가 나자 민영화를 선언하였다.

1971년도 6월 달에 한국광업공사에서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로 바뀐다. 럭키금속, 지금 LG그룹이다. 럭키하고 풍산금속하고 대한전선 3개 그룹이 민영화에 참여하였다.

1979년도 12월에 온산제련소가 준공이 된다. 장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0배 이상의 전기동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설립되었다. 온산동제련은 국가에서 운영하였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적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에 장항제련소에서 온산동제련소를 흡수합병하게 된다. 10배로 큰 온산동제련에서 장항제련소를 흡수합병 한 게 아니고 노하우나 기술력이 뛰어난 장항제련소 중심으로 온산동제련소를 합병 운영하였다.

1982년도 7월 달에 합병 작업이 마무리 되고 5개월 뒤인 12월에 100% 럭키 금성그룹으로 된다. 대한전선이나 풍산금속이 투자를 포기하면서 럭키 금성그룹이 지분을 모두 인수했기 때문이다.

82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제련소는 LS그룹에 속해있다. LG가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LG는 계열 분리 작업을 하였다. 1차적으로 LG그룹에서 GS그룹이 떨어져 나갔고, LG도 같은 사촌끼리 사업을 하다가 커져서 다시 LS그룹으로 분리가 됐다. 그래서 LG는 LG그룹, GS그룹, LS그룹 이 3개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온산하고 장항은 82년도 12월 달에 100% LS 그룹으로 들어갔다가 IMF 때문에 1999년 합작 법인 LG 니코동제련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된다.

2005년도에 LG그룹에서 LS그룹이 분리되면서 제련소는 LG니코동제련에서 LS니코동제련으로 사명이 바뀌게 된다.

이제 LS니코동제련, LS-NIKKO 동제련에서 니코가 빠져나간 뒤 2021년 9월에 LS-MNN주식회사로 바뀌었다. 2023년도 11월달 새만금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제 관광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항제련소는 매년 30억에서 50억 적자이다. 다행히 온산에서는 1년에 경상 이익이 보통 4천억 5천억 났고 지금은 조 단위가 넘는다. 니코에서 제련 사업이 철수하니 공장 부지만 남았다. 그 자리에 자동차 리사이클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역사회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 또 LS 전선에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유치하려 하였는데 군에서 승인하지 않아 이 사업은 단양으로 갔다. 이제 장항은 2024년 2차 전지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이 장항을 관광사업으로 키울 계획이라면 장항제련소 부지도 관광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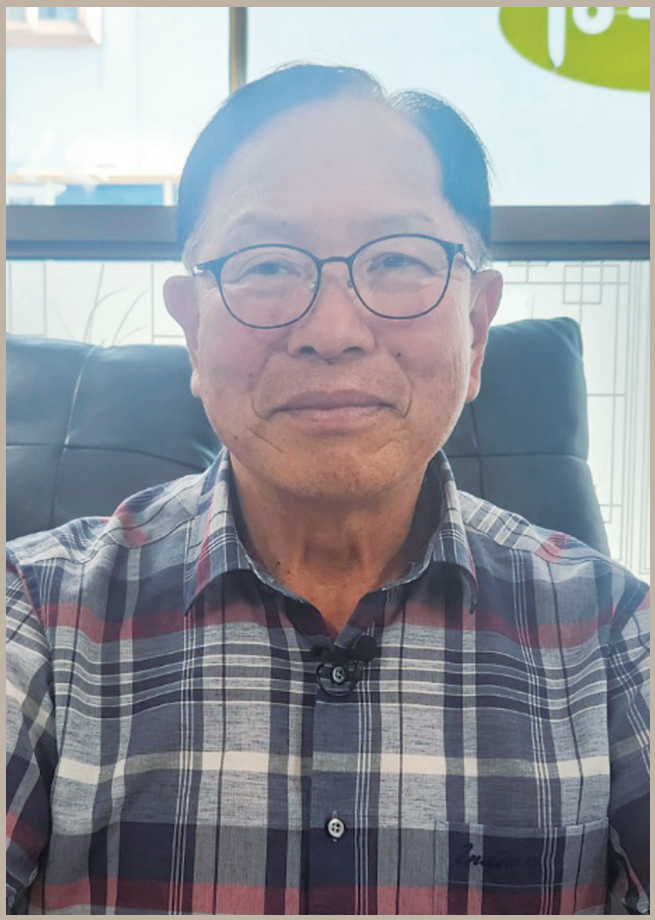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서천군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유 영 휘 (1946년생)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42년 경력을 가진 장항제련소 중장비 운전기사 유영휘



알뫼재에서 태어나다

유영휘 씨는 1946년 장항읍 송림2리 알뫼재에서 태어났다.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장항제련소에 다니지 않았지만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장항제련소에 다녔다. 1968년 입대하여 운전을 했기에 제대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당시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기술자로 알아주었다.

군 제대 후 사촌형이 장항제련소 생산부장에게 유영휘 씨를 부탁하여 입사하게 되었다.

연제련과 일고자로 입사하다

1971년 장항제련소 연제련과 일고자로 출근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다. 반장이 하는 약간의 주의 사항을 듣고 삽, 망치, 함마를 잡고 일을 했다. 처음 입사하여 조합공으로 잡일을 했다. 나비광차라고 부르는 미는 차에 광석을 실어 용광로에 투입하는 일을 2년 동안 했다.

1970년대 안전 장비는 실장갑뿐이었다. 소위 삼지 장갑 두 켤레씩 받았다. 이것을 아껴 쓰기 위하여 헌 구두 가죽을 장갑에 덧대었다. 그 장갑을 꼬매 쓰고 또 꼬매 썼다. 삼지 장갑은 광목으로 만들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덮개를 만들어 댔다.

용광로 사고도 발생한다

동제련 용광로는 아주 크다. 쇳물을 담는 래들(Ladle) 즉, 큰 그릇에 담아서 천정크레인이 옮기는데, 뭔가 잘못되어 래들이 엎어지고 말았다. 그때 뜨거운 쇳물이 사람을 덮쳐 죽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일고자로 일할 때는 잡광과 광석을 깨는 장소가 있었다. 돌덩어리를 깨면 깬 광석을 올려 괴광으로 만들어 광사에 쌓아 둔다. 그것을 나비광차에 실어 운반하여 용광로에 넣는 작업을 했다. 앞의 사고는 용광로에서 녹은 쇳물을 담는 래들이 잘못되어 일어난 사고였다.

광석은 연광석과 동광석으로 크게 분류된다. 대부분은 광석은 수입을 하였다. 외국에서 수입한 광석은 배로, 기차로 이동하여 왔다. 연광석은 납이 나오고, 동광석은 구리가 나온다.

광석이 배로 들어왔을 때

기차로 들어오는 것은 석탄이지만 가끔은 배로 들어올 때도 있었다. 배로 들어올 때는 대한 통운에서 운반한다. 그때 유영휘 씨가 큰 배 안으로 로다를 끌고 들어가서 퍼주는 작업을 했다. 로다를 끌고 배 안에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하게 크고 배도 몇 칸으로 나눠져 있었다.

일본제국주의 시대는 소 구루마로 운반했다고 들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광석을 실어 나르는 조그마한 기차처럼 생긴 것이 있었다. 이것을 가시롱차라고 불렀다. 가시롱차 운전원이 따로 있었고, 철길 역시 좁았다. 1960년까지 가시롱차로 운반하였다.

수송부로 발령도 나고 그해 결혼도 했다

유영휘 씨는 1973년 봄에 수송부로 사원 발령장을 받았다. 이 때 안식구를 만나 결혼하고 2남 1녀를 두었다. 지금은 모두 여위어서 며느리 사위까지 6명이다.

국영일 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방문하다

1957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항제련소에 왔다. 초등학교 시절 군산에서 장항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왔을 때 태극기를 흔들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또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도 왔다 갔다. 이때는 장항제련소가 국영이니 대통령이 왔다 간 것이다. 국영일 때는 국가적으로 하나 뿐이 없고 성장하기에 참 좋았다.

1979년 온산제련소 건립의 영향이 크다

1979년에 온산제련소가 건립되는 바람에 장항제련소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장항제련소에서 임원, 이사급 관리자 등 용광로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온산제련소로 갔다. 1980년 중반부터는 공해문제가 발생하면서 장항제련소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그 후 장항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합병하였다. 합병 후 장항제련소 직원들이 온산제련소로 가자 더 축소되어 연제련 용광로가 폐쇄되고 그다음에는 동제련 용광로가 폐쇄되었다.

2016년 2월까지 근무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동파이프 공장만 돌아가고 있었다. 그전에는 동파이프 공장과 스텐파이프 공장이 가동되었으나 스텐파이프 공장은 폐쇄되었다.

일고자 일당 고작 240원

월급체계에 대해서 국영화일 때는 입사하지 않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민영화로 넘어가면서 1년에 퇴직금을 한 번씩 주었다. 지금도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있다. 그때 일고자 하루 일당이 240원이었다. 한 달 동안 야근까지 해도 월급은 7,000원 정도 나왔다. 당시 쌀값으로 따지면 80kg 당 한 가마니가 2,500원이니까 3가마니 값이다.

1973년 8월에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월급이 1만 2천 원 정도 되었다. 그리고 보너스도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받았다. 보너스를 800%까지 받았다. 연말에는 연차라고 해서 월차, 연차를 주었다.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 달 봉급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런 혜택은 노조가 있어 사원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싸워 주었기 때문이다.

정식직원으로 트럭 운전을 하다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은 뒤 첫 근무는 광석을 옮기는 트럭 운전이었다. 1975년부터 로다, 페로이다 운전을 했다. 중장비 면허증을 취득하였더니 특별수당 9,000원을 주었다. 이제 용광로가 폐쇄되고 하니 동제련과에서 지게차 운전을 했다. 이제는 로다, 페로이다, 지게차, 바브케트 등을 운전했다. 이것들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증은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가 있어 그걸로 대신했다.

수송부에서 연제련과로 파견 되다

수송부 인원이 46명인데 9명씩 동제련과로 파견되어 용광로 감독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다. 동제련과에 근무하면서 용광로 감독의 지시에 따라 3교대가 이루어졌다. 소속은 수송부이지만 용광로 감독이나 반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다.

처음에는 페이로다 운전을 했다. 용광로에서 나온 쇠 녹인 물을 개광이라 하는데 이것은 완전 슬러그(Slug)도 아니고 완전히 버려야 하는 동도 아니다. 동이 좀 섞인 슬러그를 마당으로 옮겨서 굳으면 다시 페이로다로 퍼서 광사로 올려준다. 그럼 다시 용광로로 들어가서 녹아서 나온다. 그러면 다시 그 슬러그를 반복해서 옮긴다. 완전히 광석이 빠진 슬러그는 빨간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바다 매립으로 분리되기도 했다. 그 후 13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수송부로 원대 복귀하였다,

수입광석 분광석을 광사로 운반하다

수입광석인 분광석을 5천 톤, 만 톤 배로 들어오면 화물차로 운반하여 제련소 마당에 적치하였다. 적치한 분광석을 차량반에서 로다로 트럭에 실어서 굴뚝 밑에 있는 광사까지 계속 운반한다. 차량반은 밤새도록 광사로 분광석을 옮기고, 동제련과 직원은 용광로에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했다.

드디어 2006년 공해문제로 용광로가 없어지고 온산제련소로 흡수되는 바람에 끝이 났다. 유영휘 씨는 26년간 근무한 장항제련소에서 퇴직하였다.

퇴직 후 협력업체 동파이프 공장에서 일하다

2006년 퇴직하고 협력업체인 동파이프 공장에서 16년간 일을 했다. 동파이프 공장도 슬러그가 나온다. 친구와 함께 폐품 파이프가 나오면 그것을 잘라서 정리했다. 짚다발처럼 묶어 놓으면 다시 동파이프 공장에서 녹이게끔 준비해 주는 일을 했다.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로다 운전을 오래 하여 귀가 왕왕거리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왔다.

장항제련소 근무하면 기억에 남는 일

일고자 시절에 변구술 과장이 운전면허가 있다고 황산과로 보내주었다. 황산과에서 타벨로다를 운전했다. 운전을 하니 일당이 240원에서 480원으로 2배를 받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변구술 과장을 잊지 못한다.

또 우수사원으로 노조 지부장상을 받았다. 말 잘 듣고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따지지 않고 말썽 안 부리고 했다고 받은 상이 기억에 남는다. 회사 덕분에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된다. 회사 복지가 잘되어 있어 학자금이 모두 나왔으니 지금 생각해도 고맙다.

사택 운동장에서 체육대회하다

사택 운동장에서 가족 체육대회를 했다. 안식구는 물동이를 이고 뛰어서 시계를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회사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 1천여 명의 직원이라 그날 모이는 인원은 대략 5~600명이 되었다. 아쉬운 것은 1근자는 용광로 불을 끌

수 없으니 근무를 해야 했다.

장항제련소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사람

전국노래자랑에서 상을 받은 김만규, 임원 중에는 윤기성 상무이사가 기억에 남는다. 윤기성 씨는 마서 옥산 사람이며 제련소장과 본사 임원을 역임하였다. 온산제련소를 더 생각한 이종용 임원도 있다. 또 국영 시절 박상혁 공군 중령이 기억난다. 식당은 임원들이 잘 가던 보생루가 기억에 남는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장항제련소 사람들의 삶

곽 만 기 (1945년생)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곽만기는 품질관리 명장이며 장항 택시 운전사



아버지를 찾아 장항으로 오다

곽만기 씨는 1945년 전북 익산시 춘포면에서 태어났다.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1961년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장항으로 왔다. 그때 나이가 16세였다. 아버지를 찾아 춘포에서 장항으로 왔다는데 아버지도 장항 성주리에서 뚜렷한 직업이 없이 살고 있었다. 곽만기 씨도 직업이 없이 허드렛일을 하였다.

25세가 되던 1969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은 광주 포병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대에 갔다. 그 후 원주 육군 제1하사관 학교를 나와 하사가 되었다. 2년 동안 포병부대 측지반장을 하다 제대하였다.

장항제련소 입사하다

곽만기 씨는 1972년 1월에 군을 제대하고 10월 달에 장항제련소에 입사하였다. 송림리 간사지에 살고 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 동생이 장항제련소에 다니고 있어 그 아주머니가 소개하여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장항제련소에 인부가 부족하여 재직자가 소개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일용직으로 들어갔을 때 모습은 영화 속 죄수가 징역살이를 하는 것 같았다. 정식 직원은 안전 제복을 입고 일을 했지만, 일용직은 군대 동정복을 까맣게 염색해서 입었다. 일용직 등에는 하얀 페인트로 안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신발은 군인들이 신던 군화를 신고 안전모는 원래 동색인데 바래가지고 울긋불긋하였다. 그런 것을 쓰고 일을 하는 모습이 꼭 소설의 한 장면 같았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였으나 1년 6개월의 일용직 생활은 절박한 심정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에 견뎌냈다.

병역을 면제해 주던 국가방위산업체

장항제련소는 국가방위산업체였다. 공고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해당되어서 이에 대전공고, 충남공고, 장항공고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다. 어린 학생들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1974년 장항제련소 6개월 과정 교육원을 설립하였다.

곽만기 씨를 비롯한 일용직을 교육원에 넣으려고 면접을 봤는데 경력도 있고 똑똑하다

고 교육원에 입소시키지 않고 그냥 발령을 냈다.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연제련과에 첫 근무 하다

첫 발령을 연제련과로 받았는데 연제련과 용광로가 1년 뒤 폐쇄되어 이주하였다. 장항제련소를 보면 가운데에 종합사무실이 있고 능선 끝에 굴 하나가 있다. 굴 너머 남쪽은 동제련, 북쪽은 연제련과가 있었다. 지금은 동파이프 공장이 있다. 1년 있다가 연제련과가 이사 갔는데 곽만기 씨는 동제련과에 남았다.

연제련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광차에 광석을 실고 밀고 올라가서 노 앞에 내려놓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1년도 안 되어 용재를 섞어서 노에 집어넣는 일을 했다. 용재는 석회석, 무연탄, 규석, 차돌 등을 고루 섞어 노에 넣는다. 연제련에서는 용해도가 6~700도가 되면 녹는다. 동제련은 1,200도이다. 이때 연제련에서 녹이면 나오는 전해물이 납(pb)이다.

납(pb)환자 시들시들 했다

연제련과에서 근무할 때 안전 장비가 열악하다. 장항제련소에는 부속병원이 있었다. 납(pb)환자는 1시간 일찍 퇴근하여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연제련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동제련으로 이직시켜 주었다. 연제련과와 동제련과의 월급 차이는 없었다,

동제련과에서 다시 근무하다

동제련과로 옮겨서는 컴바타에서 근무하였다. 용광로 광석을 녹이면 쇳물이 나오는데 정제로 컴바타에 받는다. 컴바타에 규석을 넣고 고압 송풍을 보낸다. 송풍을 불면 규석이 타면서 불순물은 날아가고 아황산가스가 발생한다. 97~8%의 동이 남는다. 컴바타는 정제로이다. 원형으로 동그랗다. 동그란 파이프처럼 생겨 가지고 양쪽을 막고 위에서 집어넣는다. 옆에 바람구멍이 있다.

속에는 내화벽돌이 쌓여 있고 용량은 100톤을 처리한다. 컴바타에 바람을 계속 넣어주면 속이 막히는데 곽만기 씨는 그 막힌 구멍을 뚫어주는 일을 했다. 세 사람이 달라붙어

서 40분 정도 한다. 한 1년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늑막염에 걸려 1975년 늑막염으로 6개월을 휴직했다.

천정 크레인을 조정하다

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하니 힘이 덜 드는 천정 크레인 조정 분야로 보직을 바꿔주었다.

쇳물을 받아야 할 그릇을 '래들'이라고 한다. 래들에 쇳물을 받으면 40톤짜리 크레인으로 들어서 전로에다 부어준다. 즉 컨바타에다 부어주면 정제된 놈을 들어다가 정제로에 넘겨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크레인이 2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한 대씩 맡아서 조종을 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한 대당 두 사람이 편성되었다.

조정실 내부 온도가 30~40도가 됨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8m 높이에서 크레인을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노동자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복지 문제가 거론되었다. 곽만기 씨는 크레인을 15년 정도 탔다.

노조 대의원이 되다

똘똘하다고 노조원들이 노조 대의원을 하라하여 4선이나 하였다. 80년대 현대, 대우조선에서 노동자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크레인에 올라가 1인 시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서 아우성치는 것을 장항제련소는 이미 다 받고 있었다. 우리는 전부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었다. 사실 장항제련소 임금은 국영기업 때부터 내려온 시스템이라 잘 되어 있었다.

노조 지부장 최재희는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최재희는 돈 욕심부리다 구속되었다. 최재희는 구내식당 운영, 구판장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투서와 부정으로 결국 사표를 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은 김용겸으로 김용겸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 김용겸 다음에 설광섭이 했다. 설광섭은 오기부리다 병에 걸렸다. 장항제련소 노조 위원장은 악착같이 악바리 짓을 해야 좋은 것이 없었다.

반장 5년 후 직장이 되었다

크레인 반장을 5년을 하고 직장으로 승진하였다. 직장은 현장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즉

현장 감독이다. 당시 근로자 70여 명과 함께 일했다. 직장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다.

품질관리 활동을 열심히 하다

일본인이 만든 공정으로 정제로가 1차 제련 마지막 정제인데 회의 때마다 정제로 직장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 곽만기 씨는 컴바타 직장이었는데 제련부장인 지인이 부임해서 그를 정제로 직장으로 보냈다. 그때부터 하나씩 개선 제안을 했다. 장항제련소는 대기업이라 품질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 곽만기 씨는 품질관리 활동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결국 우수상도 받았고 대전 시민회관에서 발표도 하였다.

드디어 대통령상을 받다

기억에 남은 제안은 시설 트러블이었다. 이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편 명장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산업체 근로자의 명장 조건으로는 첫째, 한 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둘째, 나이가 만 50세가 넘은 자였다. 추천인은 심대평 도지사였다. 1996년도에는 면접에서 떨어지고, 1998년도에 재도전하여 명장이 되었다. 주조분야에서 동판조직으로 명장이 된 것이다.

동판은 모판인데 모판을 만들어 전해로 간다. 전기분해도 습식제련으로 전해지로 담가 가지고 전기분해 시켜서 동만 99.9%로 뽑아내는 모판을 만든다. 모판의 함량이 산소, 동 등이 맞아야 한다. 명장은 그동안의 모든 공적을 살펴 만들어진다.

아내가 기숙사 서관을 관리하다

1991년부터 9년간 그의 아내가 기숙사 서관을 관리하였다. 기숙사 서관에는 기술직이 생활한다. 독신사원 숙소가 되었다. 그때 동관이 신축되어 기능직 사원들에게 서관에서 동관으로 이동하라 했으나 옮기지 않겠다고 항의해서 기술직과 기능직을 섞어 배치하였다. 결국 회사가 축소되어 폐쇄되었다.

58세, 나는 장항 택시 기사이다

2003년에 곽만기 씨 나이 58세에 택시 운전사가 되었다. 처음에 경력이 없어 개인택시를

못했지만 무사히 2년 6개월이 지났다. 그때 회사 택시는 하루에 5만원을 입금해야 했는데 그 돈을 벌 자신이 없었다. 그 와중에 지입차가 있어 번호판을 1500만원, 자동차를 1500만원에 구입하여 3,000만원에 택시를 갖게 되었다. 8번의 사고를 통하여 멀리 보지 않고 근거리만 확인하는 운전자의 실수를 깨닫고 개인택시 운전을 마무리하였다.

<인터뷰어 유승광, 스토리텔러 유승광>



청양군

| 청양의 장인

청국장 제조 장희문 - 향도 맛도 깔끔한 청국장 740
내포제 시조창 김영애 - 내포제 시조를 보존하자 745
춘포짜기 김희순 - 명주실과 모시의 사랑탑 750
구기자 재배 명영석 - 구기자로 청양을 빛내다 756
조각가 이한수 - 나무에 숨결을 불어넣다 761
묵(도토리) 제조 김정숙 - 찰지고 탄력있는 묵 768
술(칠장주) 제조 이영채 - 물이 좋아서 청양 774
대목장 송찬의 - 목수의 꽃 779
대금장 우종실 - 대밭만 봐도 좋다 784
짚공예가 윤장훈 -생짚 찾아 삼만리 790

청양군

청양의 장인

장 희 문 (1941년생)
청양군 정산면 백곡길

청국장 제조 장희문 - 향도 맛도 깔끔한 청국장



출생과 성장

장희문 씨는 1941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에서 태어났다. 인동장씨인 아버지 장재석 씨와 어머니 우정례 씨의 5남매 중 둘째다. 딸 쌍둥이 중 동생이다.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하여, 그녀의 부모님은 밥이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9살 딸을 서울로 보냈다. 그녀는 당시 전쟁통으로 정산으로 피난 온 할머니를 따라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할머니는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였다. 어린 장희문은 옷 짐을 머리에 이고, 오고 가며 심부름을 하였고, 물을 긷는 등 집안 잔일을 하며 20살 넘게까지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24살에 당시 정산면장이었던 박여태 씨의 소개로 고향이 정산인 남편 박병호(1938~2005) 씨를 만나 혼인하였다. 박병호 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월북하였으며, 형님 한 분과 시어머니 세 식구였다. 박여태 씨는 남편의 당숙이었다.

장희문 · 박병호 씨 부부는 서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3남 1녀를 낳았다. 고물상을 하며 돈을 많이 번 박병호 씨는 1980년경 당뇨로 몸이 안 좋아 정산으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버섯, 구기자 등을 재배하며 농사를 지었다.

정산으로의 귀향

장희문 씨는 남편의 건강을 이유로 정산으로 이사를 오길 원했지만, 남편은 정산에 가지 않겠다며 반대였다. 정산 사는 당숙(박여태 씨)도 그냥 서울에서 살지 뭘 오려 하느냐 하며 말렸지만, 장희문 씨는 정산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당뇨에 좋다는 보리밥을 해주어도 남편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몸이 불편했던 탓인지 자주 화를 냈다. 심지어는 종업원들과 웃고 떠드는 것도 싫어하였다. 본인 몸이 안 좋으니 모든 면에서 짜증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보기 싫었다. 그래서 장희문씨는 정산의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농사나 지으며 살면 남편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오래 살게 하려고 정산으로 내려왔지."

정산으로 내려올 때, 큰아들은 시어머니와 서울에 남았다. 노량진에 집을 사 드리고 반찬 등을 만들어 서울로 날라다 드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시골로 내려오신다고 하였으나,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정산으로 내려와서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농사용 하우스도 지었다. 주로 구기자와 버섯 농사를 지었다. 남편은 매일 12동의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것이 일이라면 일이었다.

"버섯하고 구구자하고, 맨날 문 여닫고 하는 게 일이구,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러다가 가셨어요."

청국장의 길로 들어서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IMF 당시에 땅을 많이 샀다. 그 땅에 콩을 많이 심었으나, 콩값이 워낙 싼 탓에 콩만을 팔아서는 이익을 낼 수가 없었다. 당시는 콩을 비롯하여 팥 등 곡류의 가격이 쌌다. 생각 끝에 청국장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살고 있던 안채의 안방에 콩을 띄웠다. 콩을 파는 것보다는 청국장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익이 남을 듯하여 청국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국장을 만들어 팔아도 순수익은 많지 않았다. 소금, 고춧가루, 인건비, 비닐 등 작업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빼면, 애들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생각보다 이익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어서 하던 차에 본격적으로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콩 띄울 방을 2칸 더 지었으며, 바깥에 큰 솥을 2개 설치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청국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장곡사 입구의 식당 식단에 청국장은 없었다. 장희문 씨의 영업 수완으로 몇몇 식당에서 청국장 끓이는 법을 가르쳐달라 하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대대적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팔았다. 그때는 차가 없어 식당에서 와 청국장을 실어 가기도 하고, 육촌 시누 남편 차로 나르기도 하고 택시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남편은 장사하면서 동네마다 다니며 마을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어주었다(사진값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남편은 본인 영정사진은 물론 부인 장희문 씨의 영정사진도 찍어 놓았다.

"할아버지는 (그때 찍은 사진을 장례식 때) 그냥 갖고 가고, 내 것은 너무 젊어서 손자보고 다시 찍어 달라고 해야 하려나(웃음)"

박병호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청국장을 팔면서도 계산 또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인천 사는 아들에게 누구네서 몇 말 가져갔다고 일일이 얘기해 둬야 했으니 힘든 점

이 한둘이 아니었다. 남편이 그 일을 하다 돌아가시니, 모든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장희문 씨는 '남편은 아파도 오래 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청국장 만드는 비법

장희문 씨는 성격 탓인지, 청국장 또한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좋았다. 옛날 방식으로 장작을 때고 짚과 이불을 잘 덮어 청국장을 띄웠다.

콩은 잘 무를 때까지 8~9시간 삶는다. 이때는 불 조정을 잘해야 하는데, 장작불이라서 어렵다. 콩이 질면 잘 안 뜨기 때문이다. 잘 삶아진 콩은 포슬거리도록 물을 쪽 뺀 후 이틀 정도 뜨뜻한 방바닥에서 띄운다. 짚 또한 한 포기 한 포기 껍질을 다 까서 사용한다. 벼포기를 까면 깨끗하고 흰 속 살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묶음으로 짚 방망이를 만들어 깨끗이 빤 이불속에 넣고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이불을 덮는다. 약간 덜 뜬 것 같으면 한나절을 더 띄운다.

잘 띄운 청국장은 볼그스름하니 맛있는 색을 띠며, 위로는 하얀 꽃을 피운 것처럼 뽀얀 실(진, 효소)이 올라와 있다. 그런 상태면 맛으로나, 냄새로나, 색상으로 백 퍼센트 잘 띄운 것이다. 3일을 띄우면 까만색이 되니 맛이 없어 보인다. 청국장 냄새 또한 예전처럼 심하게 풍기지 않도록 현대인에 맞추어 뜬다. 잘 띄운 청국장을 손으로 만들 때는 넓적하고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조그맣게 만들며 포장을 한다.

"그렇게 깔끔하게만 하면 돼요"

장희문 씨 본인만의 비결이다. 지금은 후계자로 손자인 박정기 씨가 기계로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손으로 할 때가 좋아서 가끔 생각이 난다고 했다. 이미 후계자에게 모든 일을 맡겼지만, 그래도 고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콩은 하얀 콩으로 할 것과, 삶을 때는 반드시 장작불로 삶기를 강조한다. 예전에, 한창 청국장을 많이 만들 때는 1주일에 콩 120kg을 사용했다.

현재, 다행스럽게 큰손주인 박정기 씨가 대를 이어 청국장 사업을 하고 있다. 장희문씨는 청국장을 만들면서 크게 힘들었던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우리는 크게 많이는 안 했으니 그

냥 한 것뿐'이라며, 후계자인 손주 박정기 씨가 배우며 맡아 하려니 힘이 들었을 것이라며 마음 아파했다. 크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님에도 열심히 따라주는 것이 늘 고마울 따름이다.

청국장 사업을 장손이 대를 이어줘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지만, 걱정도 따른다. 청국장 사업을 하다 벌이가 좋지 않아 딴 길로 뛰어들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다. 사실 오래오래 해주길 바라면서도 불안한 것이다. 게다가 후계자인 박정기 씨는 사진을 잘 찍는다.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것까지 남편을 닮았다. 그래서 장희문 씨는 남편을 생각나게 하는 손자 박정기 씨가 더, 늘 예쁘다.

"멸칫국물에 두부 넣고 버글버글 끓여유. 그러면 시원하지. 너무 되게 끓이지 말고 조금 흥건하게."

청국장은 멸치를 끓여 낸 육수에 청국장을 조물조물 깨트린 후 멸치, 마늘, 파, 두부를 넣고 끓이면 맛있다고 장희문 씨는 청국장 맛있게 끓여 먹는 비법을 팁으로 주었다.

보람, 바람

장희문 씨는 살면서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기뻤던 일은 자녀들 소풍 가는 날이었다고 회상한다. 밤늦게까지 김밥을 쌌던 것이 고스란히 떠오른다.

장희문 씨는 어린 시절 지지리도 가난하여,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4남매가 모두 남부럽지 않게 배우고 직장을 잡아 그것이 늘 자랑스럽다. 큰아들은 인천 법원에 근무하다 정년을 맞이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둘째는 비행기 조종사다. 셋째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장희문 씨는 청양군 인재육성장학금에 500만 원을 내기도 했다.

이제는 4남매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 있고, 손주들 또한 제각기 밥벌이를 다 하고 있어서 걱정도 없다. 다만 장희문씨는 청국장 후계자인 큰손주 박정기 사장이 일이 많아 걱정이다. 하는 일도 많고, 두 자녀도 키워야 하는데, 많은 일로 잠이 부족한 박 사장이 안쓰럽기만 하다.

<인터뷰어 김현락, 스토리텔러 김현락>

김 영 애 (1941년생)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내포제 시조창 김영애 - 내포제 시조를 보존하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泰山雖高是亦山)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登登不已有何難)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世人不肯勞身力)
뫼만 높다 하더라 (只道山高不可攀)

이 시조는 조선 시대 문인 양사언 선생의 시조 '태산가(泰山歌)'이다. 시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정형화된 곡태에 이러한 시조를 가사로 얹어 부르는 것이 시조창이다. 지역별로 곡태 및 창법이 다른데, 경기도 지역의 시조창을 '경제', 경상도 지역의 시조창을 '영제', 전라도 지역의 시조창을 '완제', 충청도 서부의 내포지역에서 부른 시조창으로 '내포제'등이 있다.

이 중 내포제 시조창은 1992년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로 등록되었다가 2014년 위내포제와 분리되어 17-1호 아래내포제로 변경되었다.

출생과 성장

김영애 선생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강복리에서 아버지 김동학과 어머니 김영준의 슬하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약방을 운영하며 머슴을 여럿 두고 살았을 정도로 부유하였다. 이처럼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애씨는 배움에 관심이 없었다. 오직 음악이 좋아서 국악원에 다니며 민요와 판소리를 배웠다.

"부여국악원에 놀러 다녔는데 김원실(내포제시조 2대 전수자)씨가 친정쪽으로 아저씨뻘 되는데 국악원에 다니지 말고 시조나 하라고, 상놈의 것을 왜 배우느냐…. 두 세시간씩 배우고 집에 오지. 시집 식구들한테는 말 안허구 몰래 다니면서 배웠지."

그때 김영애 선생의 나이 23세 때이다. 바로 60여 년 전의 일이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은 시조창 한 가락쯤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던 때이다.

내포제와의 인연

김영애 선생은 현재 내포제시조보존회 청양지회장이며 사범으로 활동 중이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제 시조를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역

부족임을 절실히 느낀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겠지만 시조창도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부여군에 내포제 시조 전수관이 있어 그곳이 일명 본부다. 그리고 서천, 보령, 공주, 청양, 홍성, 서산, 예산, 청주, 세종 등지에 지회가 있다. 부여의 전수관과 각 지회에서 1년 또는 격년으로 경창대회도 연다. 경창자들의 수준에 따라 을부, 갑부, 특부, 명인부, 국창부, 대상부로 나뉘며, 전수관에서 열리는 대회의 대상부에 입상하고 4~5년 후에 전수관으로부터 사범 자격을 부여받는다. 사범 자격을 부여받으면 경창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을부 나갔는디 옳게 부르지도 못했는데 상을 주나 싶어서 찢어 버리고 다시 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을부 나왔는디 뭘 다시 허냐구."

그녀는 상을 받고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상을 거부했다. 매끄러운 대회의 진행을 바라는 주최 측에서는 김영애 씨의 그런 고지식한 행동이 달갑지 않았다.

"또 갑부라구 있어, 갑부 붙으면 특부루. 진짜루 잘 허야 대상부까지 올라가는 거여. 2~3년 배워선 안뎌. 제 소리가 나오고 대상부까지 가는데 빨라두 5년은 허야뎌."

김영애 선생은 출중한 실력으로 대상부 금상에 도전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부여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은상에 머물며 사범 자격을 주어 이후 경창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입상을 하고도 4년 후에 주는 사범 자격을 당해년도에 받은 것이다. 즉, 사범이라 더는 대회에 나갈 수 없었다. 그때가 40대였다. 대상부 금상과 내포제 시조 전수자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룰 수 없었다. 부여에서 계속 살았다면 전수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녀는 무척 아쉽기만 했다.

"제가 문화재 돼야겄다 혔는디, 부여서 살았으면 문화재 됐지. 제1대 전수자였던 소동규 선생이 늘 김영애가 제일이라구."

당시 청양지회장이었던 이장훈 님과의 인연으로 청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김영애씨는 청양지회의 살림살이를 도맡았다. 올해 25회 경창대회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내포제로만 25회지. 그 전에두 경창대회는 했어. 공식적으로 군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

한 대회가 25회지. 내가 죽기 전에는 허야지.”

시조창에 관심이 멀어지면서 회원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대회를 포기할 수 없다.

소리에 정성과 혼 담아

내포제 시조는 청양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1대 전수자인 소동규 선생의 스승이 청남에 살던 안종선 선생으로 본부는 부여에 있지만, 그 근본은 청양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청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지회를 움직였다. 안종선 선생의 시비도 세우고,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를 열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시조창을 하며 우의를 다지곤 했다. 김영애 선생도 청양의 사범으로 시조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불러 가르쳤다.

시조창은 다른 음악에 비해 화려하지 않다. 원래 시조창은 정가에 비롯된다. 정가를 대중적으로 다듬어 짧게 부르는데 특히 내포제 시조는 더욱 담백하고 시조창의 원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호흡이 길다. 그렇다 해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시조창은 듣기에도 지루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품격이 고고하여 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대단하다. 언뜻 정형화된 곡에 가사만 얻어 부른다고 하여 단순하고 쉬울 듯하지만, 소리의 변화와 긴 호흡을 소화하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리에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담는다고 생각하며 긴 세월 꾸준히 연습해야 그나마 들을 만한 소리가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구 저녁 먹고두 허구. 그리구 시조라는게유 도막도막 끊어서 배워야 허니께 선생하구 오래 같이 뒹굴어야 혀. 그걸 쌓고 쌓아야 제소리가 나오니께. 내가 내 목소리는 잘 모르쥬, 많이 허면 내공이 되서 제대로 되구 그래유. 무조건 많이 허야 혀. 흥얼흥얼 혀도 많이 허야 혀.”

얼마나 깊은 곳에 자리한 소리샘인가
두레박을 내려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
그리하여 다시 풀잎에 이슬이듯
소리로 가득한 침묵 혹은 고요

명창이라 이르는 분들의 시조창을 들으면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하게 된다. 김영애 선생의 시조창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 또한 그랬다. 그녀의 소리에 담긴 애절함은 절절한 인생살이에서 오는 듯 했다. 그녀는 일찍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힘들게 살았다. 그러나 두 아들은 시조창에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큰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김영애 선생도 이제는 시조를 하지 않는다.'끔찍이도 애틋하게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앞세운 어미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런데도 경창대회를 지속하려 하는 것은 내포제 발전에 헌신해 온 일생을 온전히 마감하고 싶어서다. 누구라도 청양의 내포제시조보존회를 이끌어갈 제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나서는 제자가 없다. 이미 청양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회원이 고갈되어 보존회를 폐회하거나 경창대회를 포기하였다. 내포제 시조의 본향인 청양에서도 김영애 선생이 홀로 애쓰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같은 처지에 놓일 듯하다. 이러한 비관론에 대하여 한마디 하신다.

"아직은 물러유."

<인터뷰어 김기상, 스토리텔러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장인

김 희 순 (1959년생)
청양군 운곡면 후덕동길

춘포짜기 김희순 - 명주실과 모시의 사랑탑



출생과 성장

춘포짜기 전승 교육사 김희순 씨는 경주김씨로 1959년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에서 태어났다. 농업에 종사한 아버지 김기창(1929~?), 어머니 박순분(밀양박씨, 1930~?)사이에서 태어난 2남 3녀 중 장녀다. 청양초등학교와 청양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에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가 고향인 이석희와 혼인했다. 남편은 경주이씨로 1957년생이며 2남 3녀 중 차남이다. 결혼할 당시 시댁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 시할아버지는 이권용이며, 시할머니는 양이석(1906~1999), 시아버지는 이상준(1927~2023), 시어머니는 수원백씨인 백순기(1927~2017)이다. 김희순씨는 남편과 사이에 1남 1녀를 낳았다.

시할머니로부터 전수

'춘포'는 봄에 입는다는 뜻으로, 모시보다 가볍고 시원하여 옛 어르신들은 봄과 여름에 주로 춘포옷을 입었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을 씨실로 하고, 모시풀에서 작업한 모시를 날실로 해서 짜는 것이 '춘포'로 노랗게 치자 물을 들였다. 청양의 춘포짜기는 1998년 충남도 무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됐다. 당시 기능보유자는 김희석씨의 시할머니인 양이석인데, 애석하게도 문화재지정이 된 그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춘포짜기 문화를 지켜온 양이석의 가족이 전통문화가정으로 지정되었다. 춘포짜기 가업을 잇고 있는 김희순 씨가 혼인 후 1년간 함께 살았던 시할머니로부터 춘포 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김희순 씨의 친정어머니도 삼베를 짜셨다. 친정에서 베 짜는 일은 안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베 짜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이다. 결혼 후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베 짜는 일을 자연스럽게 옆에서 거들다 보니, 둘째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다. 손끝이 야무지고 눈썰미가 있어,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잘 해내는 김 씨를 시어머니는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시할머니는 시증조할머니와 함께 춘포를 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일제는 누에고치를 강제로 일본으로 가져가서 조선 사람들이 실을 못 뽑게 했다고 한다. 시할머니는 고치와 모시를 몰래 남겨놓았고, 베틀바위라는 곳에 숨어서 춘포와 삼베를 짰다고 한다. 운곡면 뒷산에 있는 베틀바위는 바위가 양쪽에서 가려져 있고 딱 베틀 하나 들어갈 정도였다. 밤에 몰래 올라가서 밤새 짜고 새벽이면 내려와 일하였다. 김씨의 시

할머니도 그렇게 춘포와 삼베를 짰다. 후덕리 이씨 가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내려온 춘포 짜기는 시 증조할머니(송동섭)가 1대, 시할머니(양이석)가 2대, 시어머니(백순기)가 3대, 김희순 씨가 4대가 되어 이어오고 있다.

경제적

춘포는 시할머니가 짤 때가 최고의 전성기로, 춘포 팔아 땅도 이곳저곳에 샀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춘포를 짠 시기에는 합성섬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누에고치로부터 명주실을 짜는 일이 시들해지면서, 더구나 나일론이 유행하면서 춘포나 삼베를 짜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손을 못 놓고 계속 이어서 하신 것이다. 어머니는 19살에 시집와 50년을 춘포를 짜셨다고 한다. 70살에 뇌출혈로 그 후로는 별로 못하셨으니, 50년을 베틀 앞에 앉아 계셨다. 현재 남아있는 춘포도 시어머니가 짜신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도 시어머니의 춘포옷을 입으신 분들로부터 춘포 있느냐는 전화가 많이 오지만 아쉽게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희순 씨는 올해 '춘포짜기'의 모든 과정을 처음처럼 다시 시작했다. 누에를 키우고 모시도 심었다. 지난봄에 누에씨를 사다 누에를 직접 키워서 고치를 만들어 보관했다. 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내며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과 같지 않았다. 명주실을 뽑을 때도 꼬아가며 뽑아야 실이 단단해서 안 끊어지는데, 꼬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애를 먹기가 일쑤다.

명주실 뽑기

누에씨는 '장'이라고 한다. 10g이 한 장이다. 올해 김희순 씨는 3장을 키웠다.

"처음 키워봤는데, 처음에 알을 갖다가 키우는데 밥(뽕잎)을 먹는 대로 계속 줬어요. 개미만큼이나 적으니 이게 잠을 자는지 먹는지 구별이 안 되니 첫잠에는 그냥 계속 줬죠. 나중에 누에가 층이 많이 지더라고요. 자고 깨고 할 때 똑같이 해야 같이 먹고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3장의 누에씨는 고치를 만들었다. 고치는 다 명주실을 뽑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만 남겼다.

실을 뽑을 때는 누에고치 개수로 명주실의 굵기를 조절한다. 고치를 많이 넣으면 실이 굵고, 적게 넣으면 가늘게 나온다. 실의 굵기를 일정하게 뽑는 것이 중요하다. 누에고치 1개에서 1km의 실이 나온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방법은 예전하고 같다. 다만, 예전에는 불을 피워서 했지만, 지금은 전기밥솥을 이용하는 것만 다르다.

"정확하게 제가 한 번도 용량을 재어본 적이 없어서요. 올해는 무게를 보며 명주실을 뽑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독단적으로 누에를 키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전부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죠."

모시실 째기

모시 키우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심어놓고 거름만 주면 스스로 잘 큰다. 문제는 그것도 조금 일찍 수확하면 나무가 속에서 부러져 안 째진다. 모시는 단오, 칠석, 9월 9일 전후로 3번 수확하여 찐다.

"이전에 우리 할머니랑 하실 때는 봄 · 가을 2번밖에는 안 찐 거 같아요. 모싯대를 쪄서 겉껍질과 속껍질 다 벗기면 새파래요. 그것을 물에 담갔다 말리기를 반복해서 하얗게 바래야 해요. 바랜 다음에 이빨로 전부 다 째는 거지 이빨로. 짼 것을 한 가닥 한 가닥 무릎 위에다 놓고 길게 삼아야지.(꼬아서 잇는 것)"

모시는 이(이빨)로 일일이 째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짠 춘포는 한 필에 2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한다.

모시와 춘포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른다. 만져보면 비단이 들어간 춘포가 부드럽다. 옷을 만들면 모시는 뻣뻣해서 서 있는데, 춘포는 보들보들한 느낌이다. 즉, 모시만으로 짠 옷은 늘어지면서 실이 잘 끊어지지만, 춘포는 명주실이 들어 모시보다 질기고 가볍고 시원하다. 덜 껄끄럽기도 하며, 모시의 윗 단계라고 보면 된다. 한산모시 얘기를 하다가 김희순 씨는 말한다.

"춘포는 그렇게 크게는, 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색은 콩물을 들인다. 콩물은 명주실과 모시의 잔털을 잠재운다. 옛 어르신들은 노란 치자 물을 들였다. 김희순 씨는 하얗게 짠 춘포에 콩물을 들인 후 색은 그 위에 입혀도 가능

하다고 생각했다. 또, 노란 춘포 외에도 여러 색상을 입히고 싶었다. 춘포로 일상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그건 먼 훗날의 바람이다.

옷 한 벌을 만들려면 춘포 한 필(40자)이 필요하다. 한 필을 짜려면 10일 정도 걸리지만, 춘포 한 필을 짜려면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다. 봄부터 누에를 길러 명주실을 뽑아야 하고, 모씨를 뿌려 모시(실)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은 저온 창고가 있고 건조기가 있으니 누에고치를 말리고 보관하는 것은 많이 쉬워졌다. 예전에는 고치 보관이 어려워 고치가 썩으면, 명주실이 안 뽑혔다. 고치를 말리는 것도 솥에다 볶았다고 한다.

후계

김희순 씨의 자녀 이재영(1982년생)이 대를 이어 배운다고는 하지만, 후계자로서의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한다고만 하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수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수자가 되면 5년 동안 한 다음 '전승 교육사'가 된다. 그 후 또 5년 뒤에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 후계자 전승이 어렵다. 보유자가 되면 활동비는 있지만, 그때까지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승 교육사는 현재 월 60만 원을 받고 있다.

춘포짜기는 일의 성격상 부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김희순 씨 역시 남편의 사업상 대전에서 생활하며, 시간이 될 때만 와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직접 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유자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본인이 그랬듯이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딸도 전통을 이어가길 바랄 뿐이다. 요즘은 작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개량 베틀도 있지만 우리는 전통으로 이어 내려왔으니, 어렵더라도 전통 베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었으면 하는 것이 부탁이고 바람이다.

"요즘 베틀에서 베 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누에 길러서 실을 뽑아 날고 매고 하는 과정이 그게 쉽지 않아요. 누에 그렇지, 모씨 또한 키워 째서 삼어야지, 또 뿌리 감아야 하고, 그것도 그렇게 만만한 게 없어요. 하기로 맘먹고 시골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 어렵기는 해도 계속 이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제 또 내 대에서 끝내

야 하는 건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 답답하죠.”

중간에 안 하려고도 해봤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것을 내 대에 와서 포기한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보람, 바람

김희순씨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못하는 것, 옷감 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구나’하면서 그렇게 보람을 느꼈다. 김씨는 올겨울에 본격적으로 춘포를 짤 생각이다.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곱게 짠 춘포에 비하면 아직은 거칠기 짝이 없지만, 곧 윗분들이 짠 결만큼이나 고운 결을 만들 것이다.

실용적이고 차르르 귀태 흐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춘포, 아직 춘포옷을 입어보지 못했다는 김희순 씨는 앞으로 본인이 직접 짠 춘포로 옷을 해 입을 예정이다. 딸에게도 해 줘서 ‘직접 입어보니 이렇게 좋고 멋지구나’를 알려줘 후계를 잇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김씨는 옛날에도 춘포는 청양에서만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명주와 모시를 반반씩 짜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양 지방에서 많이 했다고 한다. 청양에서도 춘포는 김희순 씨가 유일하다. 김희순씨의 바람이라면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춘포를 짜던 곳에 ‘춘포전시관’을 세우고 싶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잘 지켜온 전통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시관을 세우고자 노력하려 한다.

마루에 매끈한 베틀 3대가 나란히 있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춘포를 짰을 2대와 친정어머니가 사용했던 베틀이다. 베틀은 삼베 베틀이나 춘포 베틀이나 똑같으며, 실만 다를 뿐이다. 베틀은 미송으로 만드는데, 현재 김희순 씨의 남편 이석희씨도 ‘베틀장’후계자가 되려고 배우고 있다. 남편 또한 손재주가 좋아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베틀을 손봐 주었다고 한다.

<인터뷰어 김현락, 스토리텔러 김현락>

청양군

청양의 장인

명 영 석 (1957년생)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구기자 재배 명영석 - 구기자로 청양을 빛내다



구기자는 청양군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로, 만병통치 불로장생의 영약으로도 알려졌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눈을 건강하게 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또, 체중조절에 도움을 두며, 혈당을 조절해 당뇨병을 예방한다. 게다가 소화촉진, 간·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정서적 안정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한다.

이러한 구기자는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 꾸준히 먹어야 효과도 볼 수 있다. 매일 같이 구기자차를 상복한다는 명영석 선생은 구기자의 효능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70세의 나이에도 인력을 쓰지 않고 4천 평의 구기자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그의 건강 비결은 구기자 때문이 아닐까.

휘 휘 늘어진 가지마다
자줏빛 꽃이 고와라
농사꾼에게 꽃이란 결실의 약속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꽃만큼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눈에 아홉 송이
주렁주렁이란 말로는 부족하여 구기자라

한눈에 아홉 개의 열매가 달려 구기자라 할 만큼 그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이 구기자다. 그만큼 수확을 위해 인력도 매우 필요하고 잔일도 많은 것이 구기자 농사이다. 그러니 명영석씨는 혼자 힘으로 구기자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체력도 좋아야 하겠지만 숨겨진 비결 또한 있으리라.

명영석 씨는 아버지 명보식과 어머니 이병희의 슬하에서 5녀 1남 중에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 나름대로 귀하게 자랐다. 청양에서 태어난 그는 청양의 운곡초등학교, 신양중학교, 청양농고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에는 마을의 구기자밭에서 구기자를 따서 용돈벌이 하였다.

"위라리 박관용 선생이 제일 먼저 구기자를 갖다 심었거든요. 그다음에 명 '무'자 '식'자

되시는 분이 또 심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거기 가서 구기자를 따고 그랬지. 따는 만큼, 1근 따면 1원이나 2원 받았지. 풀빵 사 먹을 수는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구기자 농사를 일찍 시작한 운곡면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밭마다 구기자였다. 그의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때부터 줄곧 구기자 농사를 지었으니, 그만하면 구기자에 대한 선생의 자부심을 알만하다.

명영석씨는 그의 나이 28세에 이선희 씨를 만나 결혼하였다. 1년 6개월 정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분가하였다.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빚이 1천 400만 원이다. 80년대 1천400만 원이면 큰돈이다.

절대빈곤
그런 세월이 있었다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시간 속에는 끼니를 걱정하고
쌓여가는 빚더미 짓눌리던
그런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부모가 남긴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농사만으로는 어려워 식당을 겸하였다. 부인은 식당을 하고 선생은 구기자 농사의 규모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식당을 하며 가까운 곳에 땅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 약4천 평이 되었지만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적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평당 수확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라 평당 수확량이 떨어져요. 5,000근 정도 본다고 해도 요즘 시세로 조수입 1억 5천만 원, 이것저것 제하고 1억 정도의 수입이 되죠"

지금은 억대 농부가 되어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물려받은 빚을 청산하는데도 40여 년이 걸렸다.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줄였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전에는 구기자를 손으로 따니 따는 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값이

비싸지도 않아서 별로 남는 것이 없었어요. 손으로 따다가, 막대기 떨어 따다가, 지금은 바람으로 따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것만 말립니다."

놀라운 일이다. 아무리 기계화로 해결한다고 해도 자그마치 4천 평이다.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은 있을까. 심지어 부인조차도 농사일을 시키지 않는다는데, 여러 가지 경험에서 비롯된 기술이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선생의 일상이다.

"보통 오전 5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10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몇 몫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사람도 아니래요."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농군

지역에서 오래 살면 여러 단체의 일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체육회장, 품목연구회장, 구기자연구회장을 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장, 게이트볼회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점심 먹고 더울 때는 게이트볼을 5시까지 치고 돌아와 잔일을 한다. 보통 근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상이다. 선생은 모든 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 친구들과 술 잔뜩 취해 객기로 갔던 교회이다. 친구들은 다 떠났어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구기자 하나를 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농사만 짓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못살았어요."

사실 농사는 짓는 일보다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좀 더 나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직거래며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판매처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값은 바닥을 치기 일쑤다.

"구기자원예조합에 내고, 전에는 제가 텔레비전을 많이 찍었어요. 하루 찍었다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전화통을 들고 살아요. 그런데 요즘은 촬영해도 주문이 안 와요. 그래도 단골들이 많아요. 인터넷 판매도 청양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대학생이던 아들이 학비 보태준다고 그걸 만들어 줘서 판매를 시작했지. 그리고 경산 영농법안에서 우리 무농약 구기자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그만의 농사 기술 돋보여

선생은 시설재배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 무농약 구기자를 노지에서 하고 있다. 하우스는 탄저병 방지에는 좋으나 해충들의 피해가 심한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노지는 해충 피해가 덜한 편이다.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심으면 무농약 노지재배가 가능하고 생각한 것이다. 구기자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품종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어 신품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시험 삼아 심는다. 각기 소유한 토지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것이지 특별한 비결이 더 없단다.

청양하면 구기자가 대표 소득작목이지만, 농촌의 일손은 점점 줄어들고 구기자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구기자 농사에 대한 애정을 놓을 수 없다.

"단일 품목으로 해볼 만한 작목이에요. 소득 면에서 구기자를 따라올 작목이 없어요. 인건비를 줄이면 돼요. 인건비만 벌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반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80살 되면 하우스 3동만 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은 없겠지요."

명 씨는 그만의 농사 기술로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내로라하는 부자 농부에 든다. 차곡차곡 하나씩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이 근면하고 노력한 결과 부부의 살림살이도 여유롭다.

"집을 다섯 번 지었어요. 형편이 좋아질 때마다 지어서 이사하고. 집사람한테 나이 들어 다 정리하고 읍내 나가서 아파트 살자고 했더니 이사하기 어려워서 싫대요. 저는 농사를 즐겨요. 진짜 재미있게 해요. 귀농인들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길 해요.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해야 한다고."

<인터뷰어 김기상, 스토리텔러 김기상>

이 한 수 (1970년생)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조각가 이한수 -
나무에 숨결을 불어 넣는다



출생과 성장

조각가 이한수 씨는 성주이씨로 1970년에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청남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청남중학교 1회 졸업생이다. 아버지 이규태(1932~1977)와 어머니 이연순(경주이씨, 1939~) 사이에서 태어난 4남 1녀 중 넷째이자 3남이다. 농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예전에는 광산 일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한수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이순남이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목수 일을 조금 한 적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는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대패 등의 공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할아버지는 겨울이면 썰매를 친구들에게까지 만들어 주곤 하였다. 이한수씨는 그림을 그리고 어머니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조각과의 인연

이한수씨는 중학생 시절에 미술을 좋아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미술을 포기하였다. 그러다 조각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아주신 미술 선생님이'조각을 한번 배워봐라'라는 말씀을 듣고는 조각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손재주를 이어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목공예로 시작을 하였다. 공주에 사는 유석근 명장을 알게 되어 목공예를 배웠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라, 돈은 받지 않고 잠자리만 받았다. 88올림픽 때(당시 19살) 공주에서 진행한 '충남목공예경진대회'에서 처음 조각으로 입선했다. 4년째 목공예를 배우던 차에 유석근 명장님의 제자라고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코끼리 · 호랑이 등의 간단한 기념품을 깎는 공방이어서 1년 만에 그만두고 무작정 강원도로 갔다. 강원도에서 운좋게 한 스님을 만나 인물과 불상 조각을 배우게 됐다. 그 후로 여기저기 스승을 찾아 많이 돌아다녔다.

조각을 배우려 강원도와 전라도를 떠돌다, 2002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중산리에 살고 계신 어머니의 몸이 불편해서였지만, 이리저리 떠돌면서도 주소지는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고향에는 그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가 계시기도 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의 큰 마음 때문이었다.

탈과의 인연

어머니 곁에서 이 조각 저 조각을 새기며 나날을 보내던 2005년 어느 날, 송권오(당시 백제기악보존회장)씨와 심우성(1934~2018, 당시 한국민속극연구소장) 선생으로부터'백제기악'인 백제 탈을 복원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조각하며 인물상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탈을 만든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 특히 백제 탈은 한국에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겁은 났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일본에 200여 개 있다는 백제 탈을 심우성 선생이 촬영해 온 사진을 보고 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백제 탈은 '백제기악면', '백제미마지기악'이라고도 한다.

백제 탈은 다른 탈과 다르게'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귀의 모양도 탈마다 다 다르다. 작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눈썹이나 수염은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서 사람 머리카락을 심는 것이다. 그래야만 탈놀이를 하거나 빗으로 빗겨도 뽑히지 않는다. 백제의 탈을 깎다 보면, 안동하회탈은 눈감고도 깎는다. 톱으로만 깎아도 안동하회탈이 나온다. 2년에 걸쳐서 복원했더니, 심우성 선생이'재주가 좀 놀랍다'라는 칭찬을 하였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제가 힘을 좀 실었겠구나'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5년부터 복원된 백제 탈은 2006년 52회 백제문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탈은 얼굴에 써야 하는 것이라서 가벼운 오동나무를 사용한다. 조각한 이후 백제 탈을 만들고는 많이 놀랐다. 장승도 그렇지만 탈은 뭔지 모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계속 탈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탈을 쓰면 힘이 생긴다. 평소의 성격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탈의 힘이다.

장승,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며

어머니 집에서 공주로 부여로 오가며 백제 탈을 만드는 중에 청양군으로부터 장승공원의 장승체험관 관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장승 또한 강원도에서 스님으로부터 나무 불상 조각을 배운 것이 원동력으로, 인물상을 깎으면서도 늘 해 오던 것이라서 관장직을 맡았다. 그 이후에 장승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다.

장승의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은 금강송이다. 금강송은 워낙 비싸므로,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이 육송이다. 그 나무들은 사람처럼 뼈가 있다. 썩으면 썩은 것이 보여, 쓰러져도 사람을 덮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아카시아 등의 나무는 장승 밑이 썩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안에 세우거나 장식용의 장승은 가죽나무, 느티나무, 참죽나무 등을 쓴다.

생나무의 나무껍질을 벗긴 후 그늘에서 6개월간 말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6일 정도에 1기의 장승을 깎는다. 완성된 장승을 세울 때는 뿌리 쪽이든 머리 쪽이든 별 상관이 없다. 다만 예전에는 남자 장승용 나무는 양달에서 잘라 오고, 여자 장승용 나무는 응달에서 잘라 와 하나의 조화를 맞췄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깎은 장승으로 치면 3천 평 야산만큼은 깎았을걸요. 가장 크게 깎은 장승으로는 오래전 금산의 인삼 장승으로,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억에 남는 장승으로는 고성 통일전망대에 있는 청양 장승으로 키가 8m입니다. 지하로 2m, 지상으로 6m죠."

이한수 씨는 장승을 깎을 때 톱질을 많이 한다. 섬세한 조각을 배우려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다. 작품의 70~80%를 기계톱으로 다듬는다. 대충 톱질만 해 놓고 1~2년이 되면 멋진 장승이 나오기도 한다. 그만의 장승 만드는 비결이다. 특히 이한수 장승의 특징은 그의 철학이 들어간 크고 잘생긴 '귀'다.

장승 얼굴은 마을 어른의 모습

장승은 이정표로, 액막이로 마을 입구에 세웠다. 나쁜 기운, 전염병 등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주술적인 믿음이 있어 예부터 그 마을의 손재주 있는 어르신들이 만들었다. 그 마을 사람과 장승의 얼굴 모습이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한수 씨는 장승을 깎는다는 것은 옛 어른의 모습을 깎아내는 것으로 여기며,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장승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백 년이 넘으면 장승이 아니라고 본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장승 역시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 시간이 흐르면 썩어지기를 바란다. 마치 장승을 만든 사람이 혼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살다 죽기를 바란다.

나무 장승을 고집하는 이한수 씨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해, 돌장승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다. 순환적인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 생각되며, 돌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늦은 인연

이한수 씨는 청양에 오면서, 결혼 안 하고 조각만 하면서 어머니와 겨우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장승 깎는 공부를 하던 제자의 소개로 42살에 7살 적은 이정미 씨를 만났다. 한산이씨로 고향이 영광이다.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독특하게도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탈을 쓰고 탈춤을 추며 퇴장했다. 현재 1남 1녀가 있다.

장승은 돈벌이는 안 되었다. 그냥 애들 키울 만큼만(아직 자녀가 어리긴 하지만), 딱 그만큼은 경제적으로 유지가 된다. 사실 이한수 씨는 한옥 짓는 일을 많이 한다. 오히려 장승보다는 그쪽 일이 수입이 된다. 돈벌이로 장승이나 조각을 했으면 이미 예전에 그만뒀을 것이다. 좋아서 하는 조각이다. 어린 시절부터 조각이 정말 재미있었다. 좋아했던 미술에 대한 미련도 조각하며 풀렸다. 오히려 옆에서 보는 형제들이 사업이나 하라고 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미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몰입하며 즐길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마냥 즐겁다. 좋은 나무만 봐도'뭔가 나오겠구나'먼저 생각된다.

어머니는 장승 깎는 일이 위험하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한수 씨가 조금 편한 일을 했으면 한다. 그런 어머니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만 세상이 돌아가니까, 쓰레기 청소부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해서, 누군가는 이런 일(장승)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

가훈, 철학

부모님으로부터 가훈이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지만, 이한수 씨는 그만의 철학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의 내용 중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란 문장을 좋아하여, 본인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장승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미 떠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늘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바로'조각을 배우기 전에 인간성을 배워라'이다. "모든 공부는 하나를 제대로 배워 놓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인다고 생각한다. 조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진 것을 다 주려 한다. 나

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한수씨는 스승으로부터 배운대로 ‘하나만 배우면 백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고양이 하나만 제대로 깎으면, 호랑이도 잘 깎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그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느낀 것은 말을 하되 생각을 많이 하고,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이 들어야 공부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한수씨는 자식들과 제자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귀’를 많이 생각한다.

장승의 의미

이한수 작가는 장승을 깎는 사람으로 마을에 장승을 세우고 싶었다.

“어머니가 ‘만약에 거기다 세웠다가 조금이라도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네 책임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장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종교하고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나무토막 하나의 형상을 깎아 놓는 건데 엄청난 의미가 있고 엄청난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승을 제가 깎으면서도 놀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충청도, 충남에 사시는 특히 청양에 사시는 분들은 귀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작가가 깎은 장승의 가장 큰 특징은 ‘장승의 큰 귀’에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본인의 철학이자 자녀들에게 가훈으로 심은 ‘듣자’라는 의미이다.

즉, 장승은 삶과 사람이라고 본다. 그냥 인간.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처럼, 장승도 그 시대에 왔다가 그 시대에 사라지는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본다. 미술품이나 어떤 조각품도 다 오래 남으려고 하는 게 예술품이지만, 장승은 최고의 예술품이면서 사라진다. 그것이 더 매력적이다.

우리 조상들은 나쁜 기운, 귀신, 병을 물리치기 위한 여러 가지 액막이 도구들을 사용해 왔는데, 탈이나 장승도 그중 하나다. 조각의 한 분야인 장승이나 탈은 모양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특징을 닮기 때문이다. 충청도 장승은 순하고 너그럽다. 그러나 침략을 받은 해안가라든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험한 모습이다. 글귀 또한 액운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람, 바람

2년에 걸쳐 백제 탈을 완성했을 때, 심우성 선생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뻤다. 그 과정이 어렵기도 했지만, 한국에 없었던 백제 탈을 복원했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하다. 더구나 그 탈을 쓰고 백제의 잊힌 전통을 재현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백제 탈을 좋아해서 청양군 내의 초등학교 몇 곳에도 빌려줬다.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우선 내년(2025년)에 백제 탈 전시를 할 생각이다. "한 천여 개 정도 깎으면 뭔가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깎아 놓고 있습니다. 60살까지는 무엇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백제 탈 제작자로서의 문화재에 도전해 보려 한다. 소목장이나 대목장을 꿈꾸는 것은 아니고 조각가로서 탈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조각을 배우기 전에 인간성 먼저 배우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늘 새기며 탈을 조각하고 장승을 세우려 한다.

장승은 그냥'동네 입구에 서 있는 동네 어르신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아, 하나의 예술, 어르신이 서 있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면 된다. 장승의 의미를 알고 나중에 아이들한테라도 그런 뿌리를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전통이 살아나갈 수 있는, 문화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승 작가로, 조각가로 꼭 당부하고 싶다.

장승, 탈, 동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조각하며, 한옥을 짓는 일도 하는 이한수 씨는 '조각가 이한수'로 불리길 좋아한다. 조각가라면 손이 거칠 듯한 데 아주 곱다. "손이 조그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먹을 쥐면 큽니다. 다른 사람들 주먹보다 좀 커요."

<인터뷰어 김현락, 스토리텔러 김현락>

청양군

청양의 장인

김 정 숙 (1958년생)
청양군 장평면 닭우리길

묵(도토리) 제조 김정숙 - 찰지고 탄력있는 묵



출생과 성장

여성 농업인으로서 장평면 회장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김정숙 씨는 1958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의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동네 언니의 소개로 25살에 현 남편을 만나 청양군 장평에 긴 인연의 터를 잡았다. 김정숙씨는 의성김씨로 김덕칠 · 안태선 씨의 2남 6녀 중 여섯째이며, 넷째딸이다. 현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김정숙 씨의 남편 이준규 씨는 1954년생으로 용인이씨이며 청양군 장평면 사람이다. 이준규 씨는 5남 2녀 중 다섯째이며 남자 형제로는 셋째다. 시부모님 역시 두 분 다 돌아가셨다.

묵과의 인연

김정숙 씨는 처음에 '묵'이라는 것을 몰랐다. 친정인 경북 의성에서는 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성에서는 상수리나 도토리를 주워 군밤처럼 구워 먹었지, 묵을 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당시에도 도토리보다는 상수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릴 때 외갓집 뒤에 큰 상수리나무가 있었는데 상수리가 영글어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구워 먹었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상수리'라고 안 하고 '꿀밤'이라고 한다. 경상도에서 묵이라면 '메밀묵'뿐이었다.

김정숙 씨는 청양 장평에 와서야 '묵'이란 것을 먹었고, 배웠다. 신혼집 위쪽에는 미장원이 있었는데, 그 미장원 원장의 남편이 교사였다. 당시만 해도 직장인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때라, 미장원 원장은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쌌다. 원장은 가을이면 산에 가 도토리를 주워다 묵을 만들어 남편의 도시락 반찬으로 묵을 넣었다. 그때마다 원장님은 먹어보라며 묵을 나누어 주었다. 얻어먹기만 할 수가 없어, 원장님으로부터 묵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김정숙 씨 역시 묵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매일 얻어먹기 미안하다고 묵을 팔라고 하였다. 그렇게 배운 묵 만들기는 40년을 이어왔다. 처음 묵을 가르쳐 준 원장님은 남편이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여 공주에서 살고 있다.

"제가 묵을 배우게 된 것은 남편이 굉장히 묵을 좋아했어요. 신랑이 묵 좋아하는 것을 알고 사모님이 맨날 묵을 줬지요. 지금은 옛날만큼 덜 먹어요. 그래도 가끔 묵밥을 해주면 먹기는 하지만, 옛날만큼은 덜 먹어요. 저도 옛날만큼은 많이 안 먹어도, 지금도 잘 먹지요."

남편은 전파사를 운영하였고, 당시 시댁은 농사가 많지 않아 일이 적었다. 그러니 시간이 많아, 묵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한 도토리가 있는 가을 한 철이었기 때문에 묵 만드는 일이 가능했다.

도토리 구매

묵은 상수리와 도토리를 섞어서 만든다. 일단 도토리와 상수리를 따로따로 사도, 둘 때는 섞어두기 때문이다. 옛날 임금님 상에는 상수리로 쑨 묵을 올렸다고 하지만, 맛은 상수리나 도토리나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도토리로 쑨 묵이 맛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상수리로 쑨 묵이 맛있다고 하지만, 정작 묵의 장인 김정숙 씨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떡갈나무에서 나는 도토리는 늦가을에 줍는데, 묵을 쑤면 색깔이 하얗다.

상수리와 도토리는 모양부터 다르다. 상수리는 겉껍데기가 밤송이처럼 까칠까칠하고, 도토리는 베레모를 쓴 것 같은 모양이다. 장평면 마을의 야산에는 참나무가 많다. 위쪽으로는 옛날에 참나무를 땔감으로 베어가서 상수리가 없었고, 도토리나무가 많았다. 더구나 상수리나무는 크지 않으면 상수리가 열리지 않지만, 도토리나무는 작아도 잘 열린다. 상수리가 귀했고 도토리가 많았으므로, 주로 도토리묵을 해 먹었다. 상수리는 구슬치기 놀이 시 구슬로 사용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다. 지금은 여기저기 상수리나무가 많다.

도토리(상수리도 도토리로 통합)는 청양군의 청남 · 장평 · 목면과 부여에 사는 할머니들로부터 구매한다. 할머니들은 산에서 도토리를 40~50kg 주우면, 김정숙 씨가 산으로 가서 도토리를 받아 온다. 가끔은 직접 도토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도토리를 주워 김씨에게 파는 이들 또한 대부분 40년 단골들이다. 장에 내다 파는 가격보다 김정숙 씨는 100원~200원을 더 주다 보니, 자연스레 단골이 된 것이다. 그렇게 사들인 도토리는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이듬해까지 묵을 쑨다(만든다). 옛날에는 9월 말부터 12월~1월까지만 묵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저온 창고 시설이 돼 있어 1년 내내 묵 작업을 할 수 있다.

묵 만들기

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작업으로 해서 힘이 많이 든다. 도토리를 방앗간에서 빻아 온 후에는 우려서 다 걸러야 한다. 녹말 앙금을 내는 것으로, 그 과정이 제일 어렵다. 불에

익히며 묵을 잘 저어야 한다. 잘못 저었다가는 밑에서 타기 때문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을 쓰며 힘껏 저어야 하는데, 그것이 또한 어려운 과정이다.

도토리를 물에 담가 씻은 후 2~3일 말린 후, 방앗간에서 곱게 갈아와 물에 담근다. 껍질째 갈아야 색도 곱고 맛도 좋다. 껍질은 녹말 낼 때 다 나가고 하얀 녹말만 가라앉는다. 빻아 온 가루는 자루째 수돗물을 틀어 놓고 새카만 물이 다 빠지도록 한다. 물이 빠지면 녹말을 거른다. 다시 7~8시간 후에, 녹말이 다 가라앉으면 윗물을 조금 따라 버리고 그 물 자체로 묵을 쑨다(끓인다). 제일 마지막에 소금을 넣는다.

도토리 가루로 묵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가루로 만들면 묵 맛이 덜 나고 묵 색깔 자체가 안 나온다. 겉껍질을 까고 알맹이로만 묵을 쑤어도 색이 좀 연하다. 보통 집에서 조금씩 만들어 먹을 때에는 들기름을 넣기도 하는데, 기름이 들어가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김정숙 씨는 기름을 넣지 않는다. 굳이 비결이라면, 도토리나 상수리를 갈아 물에서 거를 때, 아주 곱게 거르는 것과 끓일 때 오래 끓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묵이 막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지만, 김정숙 씨는 5~10분을 더 끓인다. 그래야만 맛도 좋고, 쫀득쫀득하다. 100% 도토리에 녹말을 곱게 거르고, 오래 끓여주고, 그러면 묵이 더 쫄깃하고 탄력이 좋다. 그렇게 쑨 묵은, 손으로 잡고 흔들면 찰랑찰랑 흔들린다.

예전에는 끼니 대용으로 먹던 묵이 최근 들어 중금속을 해독시킨다는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다. 묵은 잘라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 맛있지만, 묵을 채 썰어 멸치 육수에 묵밥을 해서 말아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해 얼음 둥둥 띄워 묵은지와 마른김을 넣어 먹어도 맛있다. 묵무침도 맛있고, 묵을 말렸다가 튀겨서 간장 소스에 물엿을 버무려서 먹어도 별미라고 김정숙 씨는 '묵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 말한다.

김정숙 씨는 보통 1년에 도토리 3t을 묵으로 만든다. 묵 12모 1판이 7kg이다. 도토리 한 가마니는 80kg이다. 한 가마니는 거의 11판이고, 묵으로 하면 132모다. 하루에 제일 많이 작업할 때는 한 가마니까지는 가능하다. 하루에 도토리 80kg을 묵으로 만들려면, 3솥 작업을 해야 한다.

후계

김정숙 씨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지만, 굳이 묵을 쑤는 후계자로 삼고 싶지 않다. 아들

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40년을 해 온 일이지만, 직원을 두고 하기에는 경영상 타산이 맞지 않을뿐더러 묵 거르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본인이 좋아, 시간이 남아서, 남편이 맛있게 먹어줘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단골도 생겨서 본인의 묵을 찾으니 고마울 뿐이다. 가격으로도 판교묵 한 모에 5천 원이지만, 김정숙 씨는 몇 년째 4천 원을 받고 있다. 대량으로 공장을 운영하면 모를까 직업으로 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으로 하려면 기계로 해야 한다. 두부도 옛날에는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기계로 하는 것처럼. 판교농협에서는 기계로 묵을 만든다. 이젠 손으로는 묵을 만들 수가 없다.

"시골 할머니들 웬만하면 묵 다할 줄 알아요. 그 자녀들, 자기네가 하려면 할머니가 하라는 식으로만 하면 돼요. 묵 쑬 때 물 조절, 양 조절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물을 적게 부으면 묵이 되직하고 많이 부으면 묵이 묽은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어릴 때 저의 친정엄마는 뭘 못 한다고 하면 하시는 말씀이'남의 속에 든 글도 배우는데 눈으로 보고 이것도 못하냐?'고 하셨거든, 맞는 말이잖아요. 글은 남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보면 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것은(묵) 몇 번만 해보면 다 할 줄 아는 그런 거예요. 굳이 후계까지는 뭐."

다만 계절에 따라, 도토리의 상태(말랐거나 통통하거나)에 따라, 물의 양을 잘 조절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마음으로는 앞으로 70세까지는 할 수 있을 듯하다며, 김씨는 체력이 닿는 데까지 이 일을 할 생각이다. 묵 쑤는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람과 바람

"사 가시는 분들이 또 묵을 찾을 때, 서울분들은 묵을 사러 오며 뭐(선물)를 막 사 가지고 오셔요. 묵 사 가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사 오시냐 하면'내가 건강해야만 맛있는 묵을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사 온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굉장히 좋아요. 돈보다 그런 분들 오면 뿌듯하고, 또 맛있다고 했을 때가 뿌듯한 거죠." 힘은 들지만 고객들이 맛있다고 하는 한마디 말에 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이 또한 40년간 묵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힘들 때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돈이 되니까 후회는 안 했다. 본인은 통뼈로 체력이 좋아서 가능했다고 한다.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봉사 다 하고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1,500~2,000만 원은 된다. 생각해 보면 가을철에만 하는 일치고는 괜찮기도 하다. 하루 품값이 비싸 혼자 작업을 하고, 가끔 남편이 도와주기도 한다. 묵 일을 안 했으면, 직장 생활은 못 하고 어디 품 팔러 다녔을 것이다. 앞으로 여유가 되면 봉사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것이다. 현재 아코디언을 배우는데 어렵다. 색소폰도 배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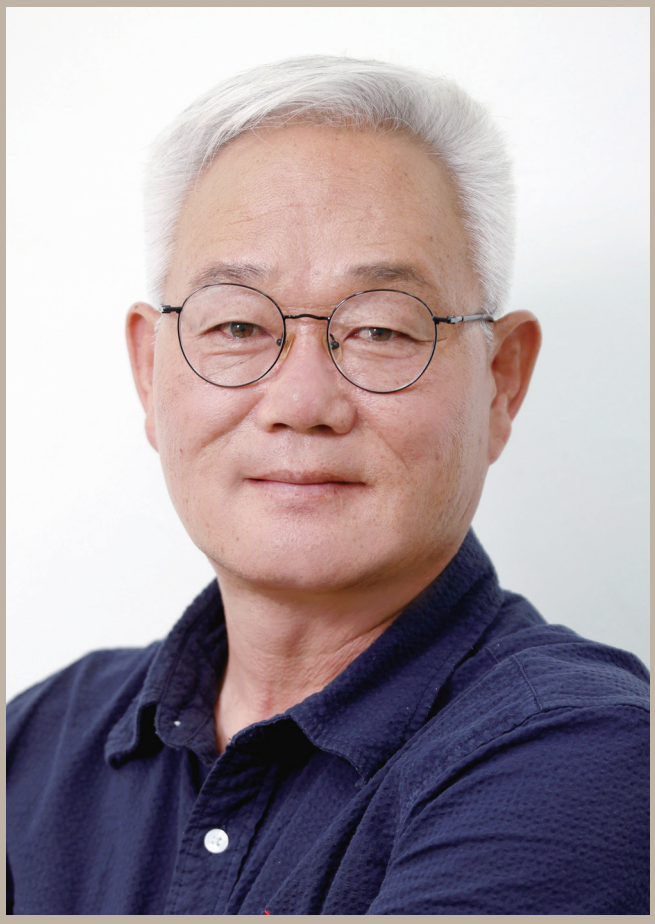
"나이가 있으니 꼭 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냥 건강하고 애들 잘 되는 게 바람이죠. 우리 나이가 이제 모든 면에서 정리할 나이잖아요. 나이 칠십에 건강하면 그게 최고죠. 돈에 뭐 큰 욕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서 만족 느끼면서요. 내 현재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우리 청양이 산골이잖아요. 산에는 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도토리 같은 것. 누가 또 배워서 우리 청양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묵 때문에도 청양이라는, 청양 칠갑산이라는 곳을 내가 많이 홍보하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어 김현락, 스토리텔러 김현락>

청양의 장인

이 영 채 (1969년생)
청양군 장평면 안터골길

술(칠장주) 제조 이영채 - 물이 좋아서 청양



꽃들 가운데 술 한 병을 (花間一壺酒)
벗도 없이 홀로 마시네(獨酌無相親)
술잔을 들어 밝은 달 맞으니(擧杯邀明月)
그림자도 마주하여 세 사람이 되었네(對影成三人)

이백의 월하독작(月下獨酌)의 일부다. 마신 술잔의 수만큼 시를 지었다는 시인의 풍류와 고독감이 물씬거리는 시다.

백제인주조 이영채 대표는 서울에서 주류 유통사업을 하다가 26년 전에 청양에 정착하였다. 주당이라 자칭하며 술을 빚는 일이 행복하다.

"서울에서 주류 도매상을 하면서 전통주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포천막걸리를 취급하면서 좀 더 좋은 것을 찾아 조껍데기술, 옥수수 막걸리, 더덕술 등을 유통하여 성공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렸더라면 청양과 인연이 닿았을까. 많은 사람이 그랬듯 IMF를 겪으며 부도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청양으로 향하게 된 것은 물이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좋은 술을 만드는 제일의 조건은 물이다. 트럭과 자금 1천만 원을 가지고 분향리 양조장에 세를 들었다. 와서 보니 과연 물맛이 좋았다. 단맛이 나고 청량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1999년에 와서 2010년까지 밤농사를 지으며 술을 담갔다. 와인, 소주 위스키, 여러 가지 농산물을 첨가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술이 뭘까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전통주의 범주에서 신세대의 기호에 맞는 술이 앞으로 대세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거듭하였다.

알코올 도수 6% 탁주
순수 국내산 7가지 재료
찹쌀, 멥쌀, 보리, 밀, 구기자, 맥문동, 밤
전통 방식 민속주

"미당에 도림사지가 있어요. 칠갑산 7부 능선쯤 되는데 백제 시대 군사 양성소였답니다. 그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약술을 만들어 먹었대요. 궁궐에서 먹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 술의 이름이 '칠장주'였대요. 칠장주 참 좋다. 그래서 2010년 그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본인만의 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곳에서 비슷하거나 복제품이 나오게 되면 역시 싸구려 술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서 상표등록을 서둘렀다.

만약 가격이나 맛에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혼자만의 술로 남을지라도,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술의 2배 가격 정도는 받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총판이나 도매의 권유를 과감하게 물리친 것도 그 같은 원칙을 지키려는 생각에서다.

"보통 막걸리는 빨리 만들어서 바로 판매하기 위한 술이고요. 저의 복합주는 여러 재료를 합해서 만들고 저온에서 후숙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2배 더 힘듭니다. 당연히 2배 가격을 받아야지요."

첫째, 누룩취가 없어야 한다. 누룩의 특이한 냄새와 맛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뉜다. 누룩을 넣어 발효했다는 긍정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다. 둘째 머리가 아프지 않아야 한다. 실패하지 않는 술, 빠르게 만드는 술에는 발효제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리고 발효 중에 생긴 냄새를 제거해야 뒤끝이 깨끗하다. 셋째, 탄산의 톡 쏘는 맛이 있어야 젊은 층이 선호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소멸한다. 그 맛을 30일까지 유지한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

좋은 것은 소비자가 먼저 안다. 남들이 2천500원 받을 때 5천 원을 받아도 해마다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술을 만드는 과정만도 2배나 걸리고 재료값이 많이 들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다.

"해외 사례를 보니, 포도주를 담가서 완성되기 전 축제를 해요. 완성되기 전 단계의 술맛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술의 도수는 낮아도 포도의 단맛과 싱그러운 느낌을 즐기는 거지요. 제가 정한 표준입니다.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훗날 칠장주

의 네이밍이 커지면 욕심을 부려 좀 더 완성단계의 백제 시대 칠장주도 만들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구기자. 밤, 맥문동 등 일곱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술맛의 표준화를 위해 모든 재료를 진액화 한다. 그래서 복합주라고 표현한다.

“반찰이라는 쌀이 있는데 농민들이 재배를 꺼려요. 그래서 멥쌀과 찹쌀을 섞어서 씁니다. 누룩을 직접 만들어 쓰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료비나 품삯이 너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전통 누룩은 다양한 균들을 가지고 있어서 술맛의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입국이라고 있어요. 균 중에 백곡균만을 증식시킨 일종의 누룩인 셈이지요.”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이 년 9억 정도 되다가 코로나 이후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8억 정도에서 차츰 상승하고 있다. 충남은 직원들이 직접 배송하고 택배와 통신판매를 주로 한다. 전국에 약 2만 명 정도의 고정 고객이 있다.

“사업 초기였어요. 눈이 30~40cm는 쌓였는데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요. 젊은 남자가 막걸리를 사러 왔대요. 그것도 서울에서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고 졸라서 그것도 밤길에 차를 몰아 왔대요. ‘아! 이런 맛도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청양에 와서 26년을 살고 있다. 로터리클럽 회장도 하고 전국복싱협회 부총재로 활동 중이다. 청양체육회 일을 해보고 싶어서 회장에 출마했다. 두 번 출마해서 두 번 낙선이다. 타지에서 왔다는 것이다. 26년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외지인 취급하는 것이 못내 서운하다.

이제는 사업이 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었다. 2녀 1남의 자녀들에게 각기 사업에 동참의사를 묻는데 모두 싫단다. 자녀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다. 아니 모든 것을 넘겨줄 의향도 있다.

밤농사 3만 평, 밭농사 2만 평, 농업 쪽으로 외국인 노동자 7명, 술 공장 쪽에 2명이 일하고 있다. 힘든 점이라면 계절 근로자라 올해 일을 가르쳐 놓았는데 내년에는 오지 않는다.

“다시 와 달라고 세 분에게 비행기 표를 사줬더니 한 분만 왔어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 한 분이 처음 오신 분들을 가르쳐요. 나도 그분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꿈, 혹은 희망
친구들과의 여행이다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그 나라 말로 건배사를 외치며
그 나라의 술을 마시고 싶다.

<인터뷰어 김기상, 스토리텔러 김기상>

송 찬 의 (1952년생)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대목장 송찬의 - 목수의 꽃



출생과 성장

"대목장은 한옥 목수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궐 또는 사찰이나 민가,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총괄하는 사람이 대목장입니다."

송찬의 대목장은 화성면 농암리에서 아버지 송광현 씨와 어머니 윤춘향 씨의 슬하에서 3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화암초등학교와 청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다.

"공고를 쳤는데 떨어졌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나는 공부는 안 되겠다. 기술 쪽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방학 때 만들기 숙제를 내거든요. 내가 만들기를 잘했어요. 모형 배를 만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야, 너는 솜씨가 대단하다'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형 송진의 님이 부산에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목공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주변에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된 후 군대에 입대했다.

제대한 후 1976년 새마을 사업으로 시골 마을에서는 지붕개량 사업이 한창이던 때였다.그는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집을 고치고 짓는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옥에 관심이 갔다.

"양옥을 짓는 목수로 일할 때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양옥과 한옥은 다릅니다. 진짜 세밀하고 한번 지어 놓으면 지진에도 넘어지질 않아요."

나무 다루는 손재주

한옥은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지을 때 해체와 복원까지 계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그런 집은 한옥 외에는 없다. 하늘을 품에 안은 듯 유연하게 뻗어 오른 지붕의 선은 한옥이 유일하다. 그런 집을 지으려면 과학적인 설계와 수학적인 계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도 못 했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 할 때 저는 두 개 세 개를 해요. 저 자신이 손재주는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1980년, 부여 궁녀사를 수리할 때 지붕을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신흥수 밑에서 일하던 부편수가 함께 일하자 권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일하는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일하는데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혹시 서울로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 나는 기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 따라가서 처음 한 일이 덕수궁 중화문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1981년, 청와대 안에 상춘재를 지을 때 참여하고, 다음 해 창경궁 복원사업에 참여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었는데, 과천으로 이전하고 궁궐로 복원하는 일이었다.

그 현장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이광규 대목장 밑으로 추천을 받아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청도 운문사의 종각, 사리암 법당과 채경당 건립에 참여하였다. 한편, 1984년 순천 송광사의 대웅전을 옮기고 그 자리에 108평 대웅전을 다시 지을 때, 대웅전 상량식을 하고 이광규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공사를 송찬의 대목장이 마무리 짓고, 독립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 후 1987년에 도편수 자격증을 받았다.

도편수로서의 삶

"도편수는 대목장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목장은 총괄하고, 도편수는 나무에 관한 전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도편수가 되고 1988년 첫 번째 일이 오대산 사고지 복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곳인데 6·25 때 소실된 것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사고지는 실록의 소실을 염려하여 세 곳에 보관하는데, 오대산 사고지는 그 중의 한곳이다.

한옥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나무다. 강원도에서 나오는 육송을 주로 쓰는데 나무의 물이 완전히 내린 10월 이후에 베어 반 탈피 상태로 1년 이상 건조한다. 완전 탈피는 건조과정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다. 큰 건물을 짓는 나무는 3년 이상을 건조하고, 일반 가정집은 1년이면 갈라지거나 틀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도편수로서 대목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비로소 2024년 대목장에 추천되어 자격을 얻었다. 대목장은 경력과 실사로 결정한다. 문화재관리국의 주관으로 교수 5~6명이 실사를 하였다.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인연들이, 사람들을 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됐어요."

겸손하게 하는 말이다.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목수로서의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력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한길로 이미 정해진 길을 가듯 일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다. 이제 많은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다.

"아직 편수 정도의 수준이지요. 도편수는 한옥 한 채를 지을 때 시작에서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집에 와서 12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편수도 되고 도편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의 손으로 만든 집, 사찰, 궁궐

집은 사람의 생명보다 길다. 일부러 허물지 않는 한 천년을 만년을 처음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가다 자신이 지은 건물들을 만날 때 감회가 늘 새롭다. 행여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어쩌나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잘 지은 집인지 못 지은 집인지를 어쩌면 해체할 때 그 집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여에 정림사지 석불 보호각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해체했다가 복원했어요. 1994년도의 일이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부여에서 논산 가다 보면 사비문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각까지 올라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추녀선이라든지 모두가 지을 때 그대로였어요."

1990년 청양군 화성으로 귀향해 선생이 살 집을 지었다. 화성에서 대천 가는 길가에 멋들어진 한옥이 지어졌다. 서울의 효자동에 살았는데 주차 문제나 차량 정체로 늘 바쁘게 일터를 오가는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고향인 화성면에서 일이 들어왔다.

"원각사라고 있어요. 그 절을 지으면서 보니 마음에 드는 밭이 있어요. 그렇게 밭을 사서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이니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도 고향 사람 쓰고."

그 외에도 용산암의 지장전, 장곡사 수리, 운곡면 후덕리의 사당 등 고향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현재, 도 지정 대목장에서 국가 지정 대목장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지정 대목장은 원래 4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신응수 대목장은 숭례문을 짓다가 실수가 있어 자격이 취소되고 2명은 세상을 떠나 현재는 1명뿐이다. 국가 지정 대목장이 되려면

우선 도 지정 대목장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낙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제 아들도 제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주 놈도 대학을 졸업하고 목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어 김기상, 스토리텔러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장인

우 종 실 (1940년생)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대금장 우종실 - 대밭만 봐도 좋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밤길
소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눈 어두운 아버지를 마중 나간다
듬성듬성 별들이 반짝이고
어느 날은 초승달 달빛이 고왔으리라
멀리서 아버지의 지친 모습이 그림자처럼 어둡고
불목재 노생원의 대금소리가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에 섞여 아련하게 들려온다
그 풍경 그 소리에 대여섯 살의 어린 소년은 일생을 취한다

출생과 성장

대금연주가이자 대금 제작자인 우종실 씨는 1940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509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단양 우공 쌍룡 씨와 칠원윤씨 묘순 씨의 사이에서 5남 3녀 중에 차남이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마중을 나가곤 했다.

"큰 도로까지 가는디 거기 지명이 장승백이여.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어렴풋이 멀리서 들리더라구. 어머니께 저게 뭔 소리냐 물었더니 불목재 노 생원이 부는 퉁소소리랴. '저런 소리 나두 할 수 있을라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디 성장하면서두 그 소리가 내 몸에서 떠나질 않구. '나두 저걸 한번 해봐야것다'했지."

그때 나이가 대여섯 살이라고 하니 아마 지금 말로 절대음감을 타고 나신 듯하다. 청남은 금강 변에 위치한다. 지금은 강둑을 높게 쌓아서 그런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그때는 7~8월 장마철이 되면 강이 범람하여 들판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강변의 논과 밭에 수확을 기다리던 농작물들이 모두 쓸려가는 뼈 아픈 순간이 해마다 반복되었다.

"그때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리코더라구 허지, 둘째 큰아버지가 그런 악기 하나를 주워 오셨더라구, 그걸 얻어서 불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본격적으로 배워보구 싶은 생각이 들었어. 둘째 큰아버지가 단소를 잘 부셨어. 그래서 그걸 빌려다 단소를 만들었지. 대밭 주인한티 양해를 구하구 대나무를 구해다가 규격대로다가 만들었지.

그렇게 처음엔 단소를 만들기 시작헌겨."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손으로 만든 단소가 어련했을까. 겉모양은 비슷했지만, 음에 맞는 제 소리를 내기는 어려웠다. 아쉬운 대로 리코더와 단소를 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청남은 부여와 가깝다. 강을 사이에 두고 배로 왕래하였다. 훗날 성인이 되어, 부여 국악원에 갔을 때 국악원 원장님께 자신이 만든 단소의 미흡한 점을 말하고 라디오에서 들었던 좋은 소리가 나오는 단소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대전에 사는 강신철 씨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때 두 개를 구매했지. 역시 스스로 닮고 싶고 하고 싶으니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두 아리랑이나 노들강변 같은 민요는 자연적으루 되더라구."

강이 보이는 정자에 둘러앉아
태사-안이 노옵다-허되 하아느-을 아래 뫼이로다
장구가락과 대금 소리가 어울리고
느릿한 시조가 울려 퍼지면
이곳이 선계(仙界)가 아니던가

대금과의 인연

청남에는 금강의 경치가 고스란히 담기는 자리마다 정자가 자리한다. 지금은 가요만이 음악인 듯한 세상이지만, 70~80년대만 해도 시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청남은 내포제 시조의 본거지다.

"어머니가 을묘생인디 을묘생 어른들의 합동 회갑 잔치가 마을회관에서 열렸어. 그때 부여에 있는 시조회관에서 시조허시는 분들 20~30명이 오셨어. 대금을 연주하시는 영감님 두 한 분 오셨는디 그때 대금을 처음 봤어. 아, 그런디 내가 불던 단소 허구는 차원이 다른겨. 소리두 좋구 크기두 허구"

다시 한번 대금 소리에 반하던 순간이다. 그때 나이 30대 초반이다. 그 자리에서 영감님께 대금을 구해달라 부탁하였다. 쌀 5말을 주었다. 쌀이 귀했던 시절이라 값으로 치면 큰돈이었다. 알고 보니 단소를 만들어 주었던 대전의 강신철 씨가 제작한 대금이었다.

단소에 비해 커서 지공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단소를 불던 가락을 대금에 옮겨 부단히 연습하니 곧잘 불게 되었다. 대금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제작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처음엔 주변의 일반 대나무(분죽)로 만들다가 좋은 대금을 만들려면 왕대밭에서 나는 쌍골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걸 찾으러 대밭을 헤매고 다녔어. 근디 좀처럼 만날 수가 있나. 서천군 마서면에 가니 역시 일반 대나무와 다른 왕대밭이 있더라구. 거기서 처음으로 쌍골죽을 발견했지. 그렇게 대금을 만들어 불기 시작헌겨"

대금의 수려한 모습에
누군들 입 맞추고 싶지 않으랴
그 소리에 가슴 저 깊은 곳을 쥐어 뜯겨 보라
농사꾼이 농사를 잊고
밤낮을 잊고
세월을 잊는다

대금을 만들기 시작하다

24세 되던 해, 한 살 연하인 전주이씨 순옥 씨와 결혼을 했다. 슬하에 5녀 1남의 자녀를 둔 농사꾼 남편이 대금이나 만들고 불고 있으면 살림살이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금 불 대만 있으면 일은 뒤로 미뤄놓고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좀 살기가 어려웠어. 그러다가 50세 때, (TV 방송프로그램)'6시 내고향'에 청양군의 우종실이가 대금을 만든다구 전국에 선전이 된겨.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었지. 대금도 팔구 연주 활동으로 사례금두 받구."

그러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다. 농사도 접고 대금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연주가로서도 명성을 얻어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조경창대회에 다니며 연주를 하다 보니 자연히 시조창도 배우게 되었다. 완전 가객이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저렇듯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위 시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오우가 중 대나무를 노래한 시다. 대금의 주된 재료가 대나무다. 대나무 중에도 쌍골죽이라 하여 마디의 양쪽에 골이 있다. 3년 이상 나이를 먹어서 단단해진 것으로 대금을 만들어야 변형이 없고 좋은 소리를 낸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쌍골죽으로는 수요가 부족하여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서 쓰기도 한다. 일반 대나무는 위아래 굵기와 살의 두께가 달라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지만 쌍골죽은 굵기가 일정하고 살이 두텁다. 정악 대금을 기준으로 약 75cm 길이의 대나무에 15~18㎜의 일정한 내경을 만들어야 해서 살이 두꺼운 쌍골죽을 선호한다.

"3년 이상 묵어야 하는디, 초보자들이 놔두질 않어, 채취하는 시기두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허구, 물오르면 안 돼. 반듯한 대나무는 읎어. 조금씩은 휘었지. 열을 가해서 똑바로 피는 것이 관건이여. 한번 만들어 완벽하게 음이 나는 게 아녀, '내경을 넓혀야것구나, 지공을 키워야것구나', 연주와 교정을 반복하면서 보다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내는거지. 처음에 어느 정도 완벽하다 하지만 연주하다 보면 성질을 알게 되지. 자꾸 손질하면서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가는 겨. 가운데 천공이라는 게 있어, 갈대가 커서 사람이 안 보일 만큼 될 때가 5월 단오 무렵여. 그때 갈대의 속살을 채취하는겨. 그걸 천공에 붙여서 이게 잘 울어줘야 좋은 소리가 나."

어린 시절 만난 그 소리가 좋아서
소리를 따라나선 길
죽순이 장애를 만나 쌍골죽으로
대금이라는 악기로 다시 나듯
일생의 질곡을 건너는 힘
좋아서

시조하는 가객, 대금 제작자, 대금연주가 모두 좋다. 그중에도 나는 대금연주가로 불리길 원했다.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소리가 좋기 때문이다.

"궁중음악은 좀 장엄혀, 뭐 슬프다거나 흥이 나서 신명이 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수제천이란 곡이 있어.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천상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 신이 하늘에서 오는. 부모님두 주변에서두 이걸 잘 해봐라 칭찬해 준 사람이 읎어. 그걸 해서 밥은 먹구 살것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어."

그런데도 오직 내가 좋아서 걸어온 한평생이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충남도 지정문화재 신청도 했는데 장비 미흡으로 탈락했다. 장비를 사들여 재도전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서 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재도전을 포기했다. 돌이켜 보면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대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어 김기상, 스토리텔러 김기상>

청양군

청양의 장인

윤 장 훈 (1941년생)
청양군 청남면 가경자길

짚공예가 윤장훈 - 생짚 찾아 삼만리



출생과 성장

윤장훈 씨는 1941년에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에서 태어났다.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 윤상호 씨는 칠원윤씨며, 어머니 임을례 씨는 예천임씨다. 부친 역시 동강리가 고향이다. 형제로는 달랑 남매로 누님 윤춘 씨가 있으며, 현재 동두천에서 살고 있다. 청남초등학교 28회 졸업생이다. 22살에 부여 신정리가 고향인 장경분(1941~) 씨와 혼인하여 3남 2녀가 있다. 장경분 씨는 인동장씨로 부인은 8남매 중 맏이다. 자녀 5남매를 낳아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다 27살에 청양농지개량조합(현재 농어촌공사)에 임시 직원으로 들어갔다. 7년 후에 정식 직원이 되었고, 30년간 성실히 일하다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동강리 이장을 8년 맡아 했고, 동강리 노인회 회장도 8년 맡아서 했다. 현재는 노인회 청남분회장을 2년째 맡고 있다.

짚공예에 물들다

젊은 시절 내내 농촌에서 살다 보니, 일을 끝내거나 퇴근 후 저녁에는 할 일이 없었다. 겨우 갈 수 있는 곳이 마을 사랑방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이, 친구들이 짚공예를 하곤 했다. 그렇게 어깨너머 배운 것이 지금까지 해 온 짚공예다. 윤장훈 씨는 눈썰미와 꼼꼼한 성격으로 뭐든 배우면 잘해야 하는 근성이 있고, 거기에 손재주까지 있었다. 당시에도 남들보다 매끄럽게 잘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밤이면 대부분 사랑방에서 이것저것 만들었다. 삼태기, 메꾸리, 똥아리(똬리), 닭 알집, 용구새(용마름), 멍석 등 햇수로 따지자면 60년이 됐다.

사실 옛날에 만든 것이 짚으로 만든 진짜 짚공예다. 예전에는‘신짚’이라고 하는 짚으로 공예품을 만들었다. ‘신짚’은 볏짚 그대로를 말린 것으로, 벼를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전에(거의 추석 즈음) 조기 추수를 할 때 구할 수 있다. 그때는 사람이 직접 낫으로 벼를 베고 홀태로 벼 나락을 훑었다. 나락을 훑어낸 볏짚을 상하지 않게 말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콤바인)로 벼를 베고 추수를 하니 짚이 잘리거나 많이 상하게 되므로 깨끗한 짚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짚 대신 왕골속으로 만든다. 굳이 따지자면 짚공예가 아니라, 왕골공예긴 하다.

윤장훈 씨는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 실질적인 짚공예 전통을 유지하려고 주민자치회에서 동아리 모임도 만들었다. 신짚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신짚으로 만들면 윤기는 나지만, 모양새는 왕골속으로 만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짚으로 만든 것과 왕골속으로 만든 작품을 한 자리에 내놓으면 짚공예는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왕골속은 재료가 거의 똑같아서 작품이 더 예쁘고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짚공예라는 명칭, 전통을 잃는 것이다. 짚으로 견본을 만들긴 해도, 아무리 쳐다봐도 왕골속으로 만든 것만 못 하다. 더구나 짚은 좀이 먹어서 오래 보존도 못 한다.

짚공예품 만들기

짚공예는 재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재료만 준비되면 언제 어디서든 다 가능하다. 그냥 어느 정도 손재주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짚은 그렇다 쳐도, 왕골속 또한 전라도 해남에 가서 구해와야 한다.

짚공예에 입문하면 우선 기본으로 배우는 것은 새끼꼬기다. 새끼를 많이 꼬다 보면 손가락의 지문도 없어진다. 새끼를 꼴 때 중요한 것은 강약 조절이다. 빡빡하거나 느슨하게 꼬면 안 되고 미끈하게 꼬아야 하며, 반드시 바로 꼬기를 하여야 한다. 오여 꼬기(왼쪽으로 꼰 새끼)는 금줄 등 부정적인 곳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강약 조절, 세 번째는 같은 굵기의 실(짚)을 써야 하는 것으로 재료가 중요하다. 짚으로 만들기는 수월하지만, 길이가 짧아서 이음매가 많고 거칠다. 짚공예 특징은 시작한 곳과 마무리한 곳을 못 찾는 것이다. 시작할 때 끝낼 곳을 준비해 놓고 다 똑같이 뺑 돌기 때문이다.

첫 작품으로는 '삼태기'를 만든다. 삼태기나 메꾸리는 강약 조절을 잘못하면 오그라지고 벌어지고 뒤틀어진다. 강약 조절과 날(날실) 박기가 중요하다. 누가 알려준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다 보면 방법과 요령이 생기는 것이다.

짚공예 매력이라면 색깔이 자연스럽고 예쁘다. 자세히 오래 보아야 그것이 보인다. 거칠지만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이 짚공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짚공예를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왕골속 작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판매도 왕골속 작품이 많이 나간다. 대부분 사람은

오래 보지 않고 스치듯 보며, 미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경제력

짚공예 한 것을 팔지는 않고, 이웃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사용했다. 아직은 주로 취미로 하고 있지만, 청남면 벚꽃축제 때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하나씩 선물도 하고, 또 팔기도 하였다. 지금은 청남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4년째 짚공예 동아리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짚공예품을 많이 만들어 '청양고추구기자문화축제'에서 판매도 하였다. 올해부터는 1년 동안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고, 대전 학하동에 있는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서 판매도 한다. 판매수익금은 동아리 회원들에게 지급한다.

후계자

예전에는 공예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농기구류를 만들어 사용했다. 현대사회에 접어 들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면서 농기구를 비롯해 농사 도구 등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옛 조상들이 생활의 일부분으로써 만들어 사용했던 것들을 '짚공예'라는 명칭을 붙여 전통과 추억을 살리고자 하였다. 윤장훈 씨는 그렇게라도 하여 그 추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못하더라도 장식품으로라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중에도 다행인 것은 실제 짚이 아니고 왕골속으로 만들어도 후계자로 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윤장훈 씨는 그중 채종열 씨와 남상일 씨가 후계자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바람, 보람

그가 60년간 짚공예를 놓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좋다'거나 '잘 만들었다'는 소리 때문이다. 또 탁상 위에 놓는 조그만 바구니 등은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주문도 늘어나면 보람도 느낀다.

윤장훈 씨는 식탁 위에 놓는 과자 그릇을 잘 만든다. 주로 작은 작품을 많이 만들지만, 큰 작품으로 멍석을 만들기도 한다. 추수 시 볏나락을 너는 멍석은 크기가 1.5m×2.5m짜

리로 '네귀멍석'이라 불리는데, 제작기간은 10일 정도 걸린다. 장식용(길이 10cm 정도) 짚신은 한 짝에 30분씩, 한 켤레 만들려면 1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왕골속으로 만든 것이 좋다고 하지만, 윤장훈 씨는 짚으로 만드는 것을 원한다. 짚공예 후계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청남에 '짚공예전시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청남의 고유명물로, 청남의 이름을 걸고'참 짚공예'를 크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다.

비결이라면 (화학) 염색을 하고 색을 잘 맞춰 무늬(색줄)를 넣는 것이다. 특별히 꼭 지킬 것은 없고, 특이한 기술이랄 것은 없으니 명맥 안 끊기고 계속 이어졌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욕심을 낸다면, 나중에 후계자들이 '윤장훈한테 배웠어'그 소리가 남았으면 좋겠다.

<인터뷰어 김현락, 스토리텔러 김현락>

홍성군

|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광천양조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찾아서 796
결성양조장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모습을 찾아서 803
사라진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의 옛 모습을 찾아서 811
홍동양조장의 창업부터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찾아서 816
사라진 은하양조장의 옛 모습을 찾아서 821
사라진 서부양조장의 옛 모습을 찾아서 825
사라진 금마양조장의 옛 모습을 찾아서 831
사라진 홍북양조장의 옛 모습을 찾아서 834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윤 경 희 (1948년생)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광천양조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찾아서



광천양조장 연혁

- 위치 : 광천읍 신진리 결성통 철길 건널목 앞
- 1939년 장원영 씨가 설립
- 1972년 윤주한 씨(윤경희 대표 아버지)가 인수
- 1974년부터 윤경희 씨가 운영
- 1980년 경에 옹암양조장 인수
- 1983년 경에 대원양조장 인수
- 2024년 현재까지 운영 중임

광천양조장의 운영권 이동 모습

광천양조장은 1939년에 장원영 씨가 광천읍 신진리에 처음 설립했다. 이후 40여 년 동안 운영하던 광천양조장은 1972년에 안면도 출신 사업가 윤주한 씨가 인수했다. 광천양조장을 인수한 윤주한 씨는 1990년대 중반에 셋째 아들 윤경희 대표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이때부터 2024년 현재까지 3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윤경희 대표가 운영해 오고 있다.

광천양조장 윤경희 대표는 안면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다. 이후 중·고·대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했으며, 아버지의 명으로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광천에 정착하며 양조장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광천시장의 흥망성쇠와 함께해 온 광천양조장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광천을 생활권으로 하는 서해 원산도와 안면도 등 많은 섬 주민들이 광천장을 찾았다. 광천 장날을 전후하여 수십 척의 배가 옹암포항으로 들어와 해산물과 어패류를 판매하고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유동인구가 많았다. 광천과 가까운 천북면, 은하면, 결성면, 장곡면 주민들도 광천장을 생활권으로 하여 드나들었다.

특히 광천장(4일과 9일)이 서는 전날에는 원산도 등에서 섬 주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섬 지역에서 옹암포항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오후부터 장이 섰다. 배로 들어오는 어물 등은 짐꾼들이 리어카로 광천장까지 운반했다.

당시에 광천 장날은 사람이 부딪혀서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다. 리어카나 자전거는 시장 안에서 돌아다닐 엄두도 못 내었다.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혀서 간신히 오고 갈 정도로 장꾼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후 1970년대에 옹암포가 위축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광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옹암포항에 토사가 쌓이고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폐항이 되었고 배들이 드나들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안면도에 연육교가 설치되면서 광천으로 몰리던 해안도서 주민들이 육상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광천으로 찾아오던 해안도서 주민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활발하던 옛날의 광천시장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광천장이 가장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시작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였다. 1970년대 이후로 농어촌 인구감소와 함께 광천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번창하던 양조장 운영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광천양조장의 번창하던 시절 모습

제보자인 윤경희 대표가 광천양조장 운영을 돕기 시작하던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번창하던 광천장이 서서히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경까지는 광천장이 나름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상태였으며 광천양조장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어촌 지역이나 서민들이 마시는 술은 막걸리가 대세였다. 맥주가 유통되었지만 막걸리에 비해 월등히 비싼 가격이므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요즘은 소비자의 입맛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소비자의 입맛이 막걸리에 길들여져 있었으므로 양조장의 매출이 크게 뚝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장날이나 농번기에는 하루에 20리터가 500여 통이 소비될 정도였다. 또한 관내에 초상이 나면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아니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막걸리가 수십 통씩 소비되었다.

양조장이 한창 번창할 때는 배달 직원만 15명이 있었다. 옛날 운송수단이 없을 때는 술통을 자전거에 싣고 배달했다. 자전거 아래쪽에 양쪽으로 한 통씩 2통을 매달고, 뒤쪽 짐

칸에 6통을 높게 쌓았다. 한꺼번에 8통을 자전거에 싣고 배달하는 모습이 큰 구경거리였다. 광천읍 지역 전체에 술을 배달하면서 어느 마을이 술을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는지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무렵 정부에서 양조장을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광천지역에는 양조장이 세 곳 있었다. 독배에 옹암양조장이 있었고, 광천 오거리에 대원양조장이 있었고, 현재 운영 중인 광천양조장 등 3곳이었다.

당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광천에서도 한곳에서 합동 운영을 시작했다. 광천양조장 에서 두 곳 양조장을 합쳐서 단독으로 운영했다. 운영 형태는 세 곳 양조장이 지분을 각자 따로 갖고 있으면서 생산과 소비 등을 광천양조장이 도맡았다. 3,4년 후에는 대원양조장 지분을 광천양조장이 인수했고 옹암양조장은 지분을 비롯하여 부동산까지 인수했다.

일제가 정해놓은 주세법과 영업 관할 구역 지키기

양조장을 비롯한 개인의 주류 허가 등 주세법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제정된 법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주세법은 광복 후에도 상당히 엄하고 단속이 심했다.

과거에 개인 집에서 술을 빚다가 세무서 직원의 단속에 걸려 고초를 겪은 주민들이 많았다. 특히 집안에 혼인이나 환갑잔치 등을 위해 개인이 누룩이나 술을 빚다가 세무서 직원의 단속에 걸려서 고초를 많이 겪었다.

잔칫집이나 개인 집의 주류 단속은 되려 양조장이 오해를 받기도 했다. 양조장이 막걸리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양조장에서 약주나 소주도 생산할 수 있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정부에서 양조장의 약주와 소주 생산을 취소시키면서 막걸리만 생산하게 되었다.

요즘은 옛날의 엄하던 주세법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집에서 술을 빚어도 단속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민속주 허가도 쉽게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양조장을 관리 감독하던 관청도 세무서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막걸리 병에 사용하는 글자 하나도 규격에 맞아야 하므로 상당히 엄격하다. 막걸리의 도수 검사도 상당히 엄격하여 허가된 도수와 차이가 많으면 제재를 받는다. 이제는 7, 8년 동안 겪어오면서 많이 적응되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지역별로 양조장 영업 관할 구역을 정해주었다. 양조장들이 타 시·군으로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은 정부에서 경계를 정해주지 않았으므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홍성군은 읍·면 지역 양조장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관할 구역을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양조장이 위치한 읍과 면 내에서만 영업 관할 구역으로 삼아서 막걸리를 소비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져서 타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현재는 시·군지역을 경계로 하는 법도 모두 해제되었으며, 읍·면 지역 양조장끼리 타 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모두 없어졌다. 구역, 경계 없이 아무 지역이나 넘나들며 무한경쟁을 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함께 했던 읍·면 양조장 모두 폐업

1980년대 초부터 윤경희 대표의 형님 윤장희 씨가 광천에서 운영하던 극장을 정리하고 홍동양조장을 인수했다. 윤경희 대표는 형님이 사양 업종인 양조장 운영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했다. 굳이 하려면 대도시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윤장희 씨는 홍성군 홍동면 내에 위치한 홍동양조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40여 년 동안 홍동양조장을 운영하던 윤장희 씨가 1987년에 타계했다. 홍동양조장은 폐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읍·면에서 운영되던 양조장들이 모두 폐업된 상태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막걸리 매출 감소,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막걸리 업계의 경쟁력 약화 등이 폐업의 주된 원인이다.

홍성군 내에서는 윤경희 대표 형님이 운영하던 홍동양조장이 폐업하지 않고 광천양조장과 함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 양조장을 운영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던 동종업계 대표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현재 종업원 없이 대표 부부가 운영

옛날에는 혼례식이나 초상이 났을 때 막걸리가 최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막걸리를 몇 말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세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했다. 막걸리를 생산하는

양조장 주인은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며 대외활동의 전면에서 지역 유지로 대우받는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과거 지역을 이끌어가던 양조장은 사양길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다. 어느 한때는 막걸리가 민족 고유의 술이며 조상의 얼이 담겨있고 몸에 유익하다며 반짝 반등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도 하며 수출과 매출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한두 해 반짝하다가 시들해졌다.

홍성군 각 읍·면에 한두 곳씩 자리 잡고 번성하던 양조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 광천양조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유지하고 있는 홍성군 내 유일한 양조장이다. 하지만 윤경희 대표 역시도 양조장의 매출 감소로 인한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번창하던 시절에는 23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대표 부부 단둘이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 술을 빚기 위해 사용하던 70여 개의 술 항아리는 현재 8개만 사용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던 막걸리 시장이 2013년부터 반짝 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3년부터 인기가 식어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윤경희 대표는 술 빚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고 있었다. 막걸리 업계가 사양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비상 경영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

2013년부터 막걸리 빚는 모든 과정을 윤경희 대표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무렵부터 술빚는 재료가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원료인 밀가루를 직접 보일러로 쪄서 빚었지만 요즘은 모든 재료를 공장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술 빚는 과정은 옛날이나 비슷하지만, 과거에 공정마다 손으로 하던 재료들이 공장에서 제공되므로 일손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

종업원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너무 편하기만 하다. 과거에 몇몇 종업원들이 말썽을 피우면 사정하고 달래던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몸이 고되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다행히도 윤경희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광천 막걸리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다. 요즘은 동종업계끼리 무한 경쟁 시대이므로 서비스와 막걸리 품질 경쟁은 얼마든지 환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동종업계끼리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저가 제공 등 출

혈 경쟁은 피하고 있다.

윤경희 대표가 앞으로 양조장 운영을 몇 년이나 더 이어 갈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는 날까지는 열심히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새벽 운동 등으로 체력 유지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것이 큰 힘이다.

양조장 운영 중 기억에 남는 일화

과거에는 초상이 날 때 노름꾼들이 모여들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노름꾼들이 수시로 양조장에 전화를 걸어 초상집을 알아보곤 했다.

양조장이 한창 바쁘던 시절에는 밤에도 술 배달을 요청하므로 잠을 자다가도 배달을 나가야 했다. 당시에는 초상이 나면 요즘처럼 현금이 아니고 술로 부의금을 대신하기도 했다. 양조장에 전화로 술 배달을 요청하면 주문자 이름으로 배달을 해 주었다.

과거에 막걸리 소비 모습을 살펴보면 막걸리를 유난히 많이 마시는 마을과 적게 마시는 마을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박 성 호 (1944년생)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결성양조장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모습을 찾아서



결성양조장 연혁

- 위치 : 결성면 읍내리 5거리 부근
- 1940년 경에 박용화 씨가 설립
- 1970년부터 장남 박성호 씨가 운영을 물려받음
- 1980년대 이후부터 부인 하혜자 씨가 운영
- 2020년에 폐업

결성양조장의 배후 입지

옛날부터 결성은 서해 모산만 바닷가에 위치하여 바다와 육지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결성현감이 상주하며 주변 고을을 다스리던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신금성과 결성읍성 등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서해 모산만과 연결되는 성호포구와 창말포구 등을 통해 해산물과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며 물산이 풍부한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섬 지역에서 유입되는 해산물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결성장, 용호장, 번천장 등이 형성되며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했다.

결성양조장은 결성지역의 번창하던 배후 입지를 안고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결성양조장의 설립 역사가 80여 년이 지났으므로 설립 시기는 조국광복 직후이거나 일제강점기 말경쯤으로 보인다.

결성양조장의 운영권 이동

결성양조장은 박성호 대표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친 박용화 씨가 처음 설립했다. 결성양조장 박성호 대표의 나이를 감안하면 8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박용화 씨가 운영하던 결성양조장은 자연스럽게 장남 박성호 대표가 물려받았다. 5남 5녀 중에서 장남인 박성호 대표는 학업을 마치고 군대 제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양조장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박성호 대표 부부가 결성양조장을 본격적으로 물려받아 운영을 시작한 것은 1970년 무렵부터이다.

부부가 전심전력으로 운영하던 양조장은 1980년대 이후부터 부인 하혜자 대표가 주도

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성호 대표가 간척사업과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양조장 운영은 자연스럽게 부인 하혜자 대표가 혼자 책임을 맡게 되었다.

홍성지역과 외지에서 술맛 좋기로 소문난 결성양조장은 2020년에 문을 닫았다. 하혜자 대표의 연로한 나이와 피로 누적 등 건강 문제가 양조장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결성양조장과 지곡양조장의 장점을 이어받은 술맛

박성호 대표 부부는 양가 모두 양조장을 경영하던 집안의 아들딸이다. 부인 하혜자 대표는 서산 지곡양조장의 딸이고 박성호 대표는 결성양조장의 아들이다.

특히 부인 하혜자 대표는 결혼 직전까지 친정 지곡양조장에서 경리를 보았다. 처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양조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술 빚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시댁인 결성양조장을 이끌어 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오랜 세월 하혜자 대표가 양조장의 개선점을 많이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했다.

결성양조장의 독특한 술맛은 양쪽 집안 양조장의 장점만을 이어받아 터득한 독특한 주조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쪽 양조장을 잘 아는 사람 중에는 결성과 지곡양조장의 술맛이 비슷하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박성호 대표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대한민국 제일의 술맛을 개발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일했다. 미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술자가 있는 양조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울탁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했다.

두 부부는 젊은 시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술 빚는 방법을 공부했다.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미생물 전공 전문가를 찾아가서 며칠씩 묵으며 견학하고 배웠다. 전문가에게 배운 내용을 결성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며 연구에 매달렸다.

처음부터 원하는 술맛이 나올 리 없었다. 순천에서는 소량으로 연구하며 맛을 내었지만, 양조장에서 실제 적용할 때는 많은 양의 술을 빚어야 했다. 원하는 맛을 얻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서 연구하며 보낸 날들이 많았다.

박성호 대표 부부를 지도해 준 선생님은 일본의 예를 들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어라.”며 격려하고 가르쳐주었다. “일본은 물려받은 가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

대로 이어간다. 그뿐만 아니라 뭐든지 최고를 추구한다. 일본에서 최고이면 세계에서 최고이다. 막걸리도 한국에서 최고이면 세계에서 최고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만들어봐라."

하며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그토록 젊은 시절 술맛 연구에 매달리던 때가 1970년대 초·중반 무렵이었다. 그 당시에 미생물 연구에 매달리는 양조장은 많지 않았다.

막걸리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은 갓난아기 돌보듯 어린 아기 달래듯 발효과정을 수시로 살펴야 한다. 청결한 환경에서 정상 발효해야 술맛이 좋으며 효소와 효모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참외 향이 나온다. 술이 잘되었는지 공기로 냄새를 맡아 보면 알 수 있었다. 박성호 대표는 지금도 막걸리를 마주하면 먼저 냄새를 음미하고 다음에는 혀로 맛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신다.

막걸리는 사람 손맛이므로 같은 날 빚었어도 술독마다 맛이 약간씩 다를 때가 많다. 물과 쌀과 누룩 등의 혼합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하며, 심지어 출입구 환기가 잘되는 곳과 안쪽에 있는 술독도 장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마다 미생물 발효 기술이 다르다.

정말로 미생물은 갓난아기 돌보듯 한시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실패하므로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맛 좋은 술이 생산되고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성양조장은 이런 노력과 체험들이 쌓이며 기술자를 따로 두지 않고 대표 부부가 주도적으로 술을 빚었다. 술빚는 주요 기술은 대표 부부가 중심이 되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르게 했다.

결성면 인구가 만 명을 넘나들 때는 막걸리 20L들이 200통 정도를 소비했으며 결성장이 설 때는 더욱 소비가 많았다. 잔칫집이 생기면 보통 한섬씩(20L들이 10통)은 기본으로 주문했다.

막걸리는 정성과 청결과 물맛이 좌우

막걸리 맛의 제일은 물맛이 좋아야 한다. 결성은 결성읍성 물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다. 결성양조장은 석당산 기슭이어서 좋은 지하수를 파서 사용했다. 지하수를 파는데 암반에 막혀 여러 날 동안 고생했다. 어느 순간에 덜커덕하며 암반이 뚫리고 맛좋은 물

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결성양조장은 막걸리로 요기가 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막걸리가 좋다는 말을 들을 때는 보람을 느꼈고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는 자책하며 더욱 노력했다.

막걸리는 원래 쌀·보리·옥수수·조·밀가루 등 그때그때 원료 수급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각 재료마다 맛과 향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술빚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결성 막걸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쌀과 밀가루를 최선의 맛을 내는 비율로 섞어 만들었다. 전분질을 수증기에 쪄서 효소를 넣고 발효과정을 거쳐 만드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고 소중히 다루며 술을 빚었다.

결성양조장의 독특한 술맛은 물맛과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된 미생물과 술빚는 전 과정을 어린 아기 다루듯 정성을 쏟은 노력들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생막걸리 연구 필요

우리나라 양조장에서 빚어내는 막걸리는 대부분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막걸리이다. 이런 이유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상온에서 쉽게 변질된다.

일부에서는 막걸리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효모균·유산균 등 몸에 이로운 미생물들을 죽여서 살균주로 시판하기도 한다. 이런 막걸리는 진정한 막걸리라고 볼 수 없다. 몸에 이로운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생막걸리인 것이다.

막걸리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마실 수 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몇 잔 마시면 속이 든든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다. 노인들은 막걸리를 데워서 마시기도 하는데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술은 막걸리가 제격이다. 또한 농사철에 힘들 때나 배고플 때도 막걸리는 힘을 내게 해준다. 그만큼 막걸리 속에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다.

세계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 고유 술이 있다. 양조장에서 술 빚는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맛을 보고 구입하는 관광코스도 있다.

우리나라 막걸리도 연구 가치가 충분한 술이다. 소주, 맥주, 양주 등 모든 술은 알코올이 주성분이다. 그러나 막걸리는 알코올뿐만 아니고 영양분, 효모 등 사람 몸에 좋은 수많은 미생물이 함께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막걸리를 약주라고 불렀다.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막걸리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 술에 대해 깊게 연구해서 세계 시장에 명주로 내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막걸리 발전 막아

과거에 양조장을 통해 거둬들이는 주세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서는 양조장의 탈세 방지 목적으로 영업 구역을 정해주었으며 세금 확보 차원에서 밀주 단속을 엄하게 실시했다.

국가에서는 막걸리 제조 방법도 일일이 정해주었다. 원료도 세무서에서 한 항아리에 누룩을 얼마씩 넣으라고 정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한 항아리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양과 세금이 딱 맞아 떨어져야 했다. 세무서에서는 수시로 막걸리 재고와 전표도 검사했다. 검사에서 숫자가 틀리면 많은 벌금을 내야 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원료도 제한하고 자주 바뀌었다. 원료 수급 양에 따라 밀가루 원료, 쌀 원료, 옥수수 원료 등으로 바뀌곤 했다.

양조장들은 자신들만의 경쟁성 있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조장 운영은 경쟁상대 없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비자의 입맛도 다양화되면서 막걸리 시장을 다른 술에게 빼앗기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막걸리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아마도 국가에서 세금 확보 목적을 위한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막걸리가 세계적인 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양조장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가 막걸리 시장의 침체를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막걸리는 원료와 재료를 적당한 양으로 섞는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효모가 생명이므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종류의 술과 경쟁하려면 미생물을 살리면서 보존할 수 있는 연구와 가스발생 문제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막걸리 발전을 가로막은 것이다.

양조장 운영에서 축산으로 전업

박성호 대표는 막걸리 업계가 서서히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고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령 바닷가의 해안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을 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발전소에 매도했다.

간척사업 이후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축산업이었다. 축산은 박성호 대표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분야이기도 하다. 가업이 양조장이지만 원래부터 농장에 꿈을 갖고 있었다.

축산농장을 시작하면서 미생물 발효를 가르쳐주었던 선생님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선생님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축산과 양조장을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연구한 세월과 성과물이 아까우므로 양조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는 미생물 선생님의 조언대로 축산과 양조장을 병행했다. 하지만 양조장도 축산도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야 하는 사업이었다. 어정쩡한 상태로 양쪽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축산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양조장 운영은 부인 하혜자 대표가 모두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혜자 대표의 피로 누적과 폐업

하혜자 대표는 1980년대부터 혼자서 결성양조장을 운영해 왔다. 그때만 해도 40대 젊은 나이여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이제는 80이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피로 누적과 체력이 달리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남편 박성호 대표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도와줄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박성호 대표는 홍성군의회 2대부터 4대까지 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 의정활동 이외에도 축산 등 양조장 밖의 사업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부부는 양조장 폐업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인 하혜자 대표가 보기에 남편 박성호 대표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남편이 겉으로는 양조장 폐업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눈치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본인 대에서 마치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성양조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은 하혜자 대표의 건강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깊은 고민

끝에 폐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에 8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결성양조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결성양조장의 폐업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결성양조장의 존속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관내 대학교 식품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결성양조장을 이어가겠다고 제안해 오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들도 결성양조장의 술빚는 노하우의 계승을 타진해 오기도 했다.

박성호·하혜자 대표는 결성양조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결성양조장의 옛날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또한 양조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준다고 해도 신경 쓸 일들이 많을 것도 같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대로 멈추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조장 운영과 관련된 일화

박성호 대표는 양조장과 관련된 여러 기억들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다. 마을 주민 중에 혼사가 있거나 초상이 났을 때 술 살 돈이 없어 난처한 집에 슬그머니 누룩을 보냈다. 양조장에 와서 술을 사가지 말고 밀주를 빚어서 잔치에 사용하라는 배려였다.

또한 박성호 대표도 양조장에 관한 추억이 있다. 기억 나는 추억 중에는 세무서 직원의 밀주 단속에 적발된 주민이 가끔 찾아와 하소연하던 일이다. 박성호 대표가 주민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찾아가 사정하여 무마하기도 했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이 현 구 (1943년생)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사라진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 연혁

1) 갈산양조장 연혁

- 위치 : 갈산면 상촌리 갈산면사무소 앞쪽
- 1943년 경에 이칠규 씨가 창업
- 1963년 이상윤 씨가 인수
- 2005년 폐업

2) 구항양조장 연혁

- 위치 : 구항면 오봉리 옛 구항장터 앞쪽
- 1937년 이은직 씨가 설립
- 1943년 한근표 씨가 인수
- 1970년 경에 이광국 씨가 인수
- 이광국 씨가 10여년 후에 작고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이 10여년 동안 운영
- 이후 폐업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의 배후 입지

갈산양조장은 1980년대 서산 A·B 지구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거대한 개펄과 해안을 끼고 있던 지역이다. 바다를 통해 잡아들인 해산물이 갈산장으로 들어와 농산물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동성리 쪽으로는 해산물이 직접 들어오면서 백야장이 개설되었으며 개펄에서 잡아들인 해산물과 생산되는 살조개는 전국 최고의 생산지였다. 갈산양조장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관내에 갈산장, 백야장이 개설되어 생산과 소비가 활발했다.

한편 구항장은 갈산에 비해 내륙에 위치해 있으므로 농축산물 위주의 생산이 이뤄졌지만, 결성·서부·갈산의 해안을 통해 유입되는 해산물이 구항장을 통해 소비되었다.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을 창업한 부자(父子)

갈산양조장보다는 구항양조장의 창업이 빨랐다. 구항 양조장은 1937년에 이은직 씨가

창업했다. 이은직 씨는 구항양조장을 창업하기 전에 덕산면 대동리에서 아버지가 양조장을 운영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항에 양조장을 창업하여 운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항양조장 창업 전에 전반적인 양조장의 운영 과정과 술 빚는 기술 등을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직 씨는 1943년까지 구항 양조장을 운영하다가 구항면 오봉리 발현에 사는 한근표 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전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인수하였고 1970년대 말에는 이광표 씨가 인수하여 운영했다. 이광표 씨는 구항양조장을 10여 년 동안 운영하다가 세상을 떴다. 이후에 이광표 씨 어머니와 동생이 운영하다가 1980년 경에 문을 닫았다.

한편 갈산양조장은 1943년에 이칠규 씨가 창업했다. 이칠규 씨는 구항양조장을 창업했던 이은직 씨의 아들이다. 아버지 이은직 씨가 구항양조장 매각 후에 아들인 이칠규 씨를 통해 갈산양조장을 창업한 것으로 보인다.

갈산양조장은 1963년에 이상윤 씨에게 매각했다. 당시에 대부분 양조장들은 막걸리 제조와 판매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입이 좋은 양조장을 매각한 것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칠규 씨의 동생을 도와주며 경제적인 출혈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후 갈산양조장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다가 2010년 경에 문을 닫았다.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을 증언해 준 손자

현재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의 운영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후손들도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다행히도 두 곳 양조장을 창업했던 후손 이현구 씨가 갈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채록할 수 있었다.

제보자 이현구 씨는 젊은시절부터 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지역 지도자이다. 두 곳 양조장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학창 시절까지 선대의 양조장 운영 모습을 보며 자랐다. 양조장을 매각한 후에도 지역에서 양조장의 운영자들이 바뀌는 과정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제보해 주었다.

구항양조장은 제보자 이현구 씨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창업하여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갈산양조장은 아버지가 창업한 후에 20여 년 동안 운영하다가 제보자의 대학 시절에 매각했으므로 운영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갈산양조장의 경우에는 한 달에 쌀 100가마씩 소비할 정도로 호황이었다. 술을 빚는 원료가 수시로 바뀌었으며 처음에는 쌀로 빚다가 밀가루로 바뀌었고다시 쌀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나무통에 술을 담아 실어 나르던 시절이었다.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으며, 구역 제한은 1980년대 쯤 해제되었다.

1960년대부터 소주가 시판되었으며 소비자의 입맛 변화로 서서히 막걸리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는 막걸리 업계가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양조장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곳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양조장과 관련한 일화

갈산양조장과 구항양조장 운영과 관련한 일화들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구항양조장의 술 관련 일화가 2020년 홍성문화원에서 발간한 '사라진 장시편'에 구술 채록되어 전해온다.

구항장이 개설된 것은 1953년 경이고 구항 장날은 2일 7일이었다. 구항장에서 가장 잘된 곳은 뭐니뭐니 해도 술집이었다. 술집이 다섯 집 정도 있었는데 모두 잘되었다. 구항 주민들이 봄에는 보리 매상을 하고 가을에는 벼 매상을 한 후에 장터로 많이 찾아왔다.

장터 바로 앞에 구항양조장이 있는데, 구항 장날 양조장은 술집과 음식점에 술 배달로 바쁠 정도였다. 양조장에는 마차로 술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별명이 말애비였다.

구항장의 술과 관련한 일화 중에서 구항면사무소 재무계장 이 모 씨 얘기가 전해온다. 이 모 씨는 집안 살림도 넉넉하고 인심도 좋았다. 구항 장날에 가끔씩 주민들에게 잔술을 사서 대접하기도 했다. 너도나도 공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도대체 몇 잔을 마셨는지 계산을 할 수 없었다. 술집 주인이 대충 계산해서 백 잔 값을 받았다. 이 얘기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술을 좋아하는 주민이 아침에 양조장으로 해장술을 마시러 갔었다. 양조장 일꾼에게 술

이 왜 이렇게 싱거우냐고 푸념을 했다. 양조장 일꾼이 일부러 모래미를 한 잔 주었다. 모래미는 술의 원액을 말한다. 주민이 독한 모래미를 한 잔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못 일어났다.

이와 비슷한 일화들은 구항양조장을 비롯한 대부분 양조장과 장터에서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주 정 모 (1953년생)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홍동양조장의 창업부터 현재까지 변화 모습을 찾아서



홍동양조장 연혁

- 위치 : 홍동면 운월리 홍동면사무소 4거리 앞
- 일제강점기에 이병열 씨가 창업
- 1970년대 말경에 윤장희 씨가 인수하여 운영
- 2017년에 윤장희 씨 작고
- 이후 주정모 씨가 세를 얻어 운영하고 있음
- 홍동면의 옛지명이 번천면이어서 번천양조장으로 부르기도 함

홍동양조장의 변화 과정

홍동양조장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병열 씨가 창업하여 현재까지 80여 년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운영자가 이병열 씨에서 윤장희 씨로 바뀌었다. 광천에서 극장을 운영하던 윤장희 씨가 인수하여 40여 년을 운영해 왔다. 윤장희 씨가 2017년 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양조장이 문을 닫을 상황이었다. 홍동양조장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정모 씨가 이어받았다.

홍동면 내에는 2010년대 이후에 설립된 내포막걸리와 홍주막걸리를 생산하는 양조장 두 곳이 신설되었다. 대부분 양조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홍동면 내에 세 곳의 막걸리 양조장이 운영 중인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홍동양조장은 신설 양조장에 비해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다. 주정모 씨 혼자서 종업원 없이 재래식으로 막걸리를 빚으며 타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다행히도 홍동양조장의 술맛을 좋아하는 고정 소비층이 많은 편이다. 양조장의 월세를 내고도 현상 유지할 정도의 막걸리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3대 운영자 주정모 씨와 홍동양조장의 인연

제보자 주정모 씨는 홍동면 운월리 운곡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5세에 집안 형님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일을 했다. 이후 서울로 가서 3년여 동안 생활하다가 어

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내려와 할 일을 찾던 중에 홍동양조장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당시에 양조장 직원이 7,8명 정도 되었고 하루에 20L를 80~100통 정도를 배달했다. 막걸리는 경운기로 배달했으며 잔칫집이나 초상집이 생기면 120통을 넘게 배달하기도 했다.

당시 홍동양조장에서 3,4년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술빚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막걸리 제조 기술자는 좀처럼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어깨너머로 기웃거리며 술 빚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당시 홍동양조장에 근무하던 아내와 결혼도 했다.

이때 배운 막걸리 제조 기술이 50여 년 후에 또다시 홍동양조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만약에 술 빚는 기본적인 기술이 없었다면 홍동양조장 운영은 엄두를 못 내었을 것이다. 총각 시절 아내와 함께 홍동양조장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70세 가까운 나이가 되어 또 다시 술을 빚게 되었다.

옛날에는 아내와 처녀·총각으로 근무한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되어 홍동양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무렵 홍동양조장 주인 윤장희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직후 2017년부터 시작한 일이다.

아내는 식당을 계속하며 2년 정도 양조장 운영을 옆에서 도와주었다. 이후에 주정모 씨 혼자서는 양조장 운영에 힘들어서 식당을 완전히 접었다.

식당에서 양조장으로 전업

주정모 씨는 결혼한 이후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송풍마을 이장을 12년 역임했고 주민자치위원장 5년, 홍동면 체육진흥회장 5년, 새마을지도자 2년, 농촌지도자협의회장, 진보 진영 정치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보수 없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는 식당 운영으로 집안을 꾸려왔다. 다행히도 식당 운영이 잘되어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도 집안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되었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은 홍동양조장과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수시로 들락거리며 양조장 주인과 대화하며 운영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홍동양조장의 존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인 윤장희 씨가 연로하고 건강상 이유로 양조장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양조장 근무 경험이 있는 주정모 씨와 양조장 운영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홍동양조장 주인 윤장희 씨와 주정모 씨 사이에 양조장 매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양조장 인계인수에 대한 땅값 가격 절충만 남겨둔 상태에서 윤장희 씨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 입원하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홍동양조장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모 씨가 세를 얻어 7년째 운영하는 중이다.

낮에는 풀무신협 운영, 밤에는 양조장 운영

주정모 씨는 현재 풀무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낮과 밤에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낮에는 풀무신협 이사장으로 사무실 일에 전념하고 밤에는 양조장 일을 돌본다. 낮에는 아내가 술 판매와 소소한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해 준다. 술 빚는 일은 주정모 씨가 밤에 퇴근하여 맡아 처리한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고 자본이 부족하므로 사업을 확대하기는 힘들다. 막걸리 판매를 위한 판촉 활동이나 배달은 하지 않고 집에서만 판매한다.

다행히도 7년 전보다 막걸리 소비가 늘어난 상태이다. 옛날 맛을 좋아하는 소비층이 있으며 홍동 관내보다는 외지 주문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루에 20L가 10통 정도 소비가 된다.

옛날에는 양조장 이익이 50% 이상은 되었는데 요즘은 40% 이익 정도 되는 것 같다. 통보다는 병으로 판매하므로 옛날보다 포장비용 등이 더 많이 들어간다.

홍동양조장의 술 허가 도수는 7도이다. 원료는 수입산 쌀만을 사용한다. 국산쌀보다는 수입산 쌀이 맛이 더 좋은 것 같다. 술빚는 재료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거의 모든 원료가 공장에서 제공되므로 온도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홍동 관내 신생 양조장에서 자신들의 술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전업할 것을 제안한 적

도 있었다. 하지만 양조장 운영을 접을 생각이 없으며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김 지 영 (1969년생)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사라진 은하양조장의 옛 모습을 찾아서



은하양조장 연혁

- 위치 :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 1935년 김정목 씨가 창업
- 1963년부터 셋째 아들 김산경 씨가 운영
- 2017년 김산경 씨 작고
- 이후 폐업 신고

손자가 들려주는 은하양조장 창업

은하양조장의 옛 모습을 제보해 줄 관련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은하양조장을 운영하던 김산경 대표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가족들은 외지에 거주한다고 했다.

차선책으로 은하양조장을 잘 알 수 있는 집안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고(故) 김산경 대표의 아드님인 김지영 씨가 홍성군청에서 퇴직했으며 연결이 닿는다고 정보를 주었다. 때마침 홍성문화원 조남민 사무국장이 김지영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곧바로 연결이 되었다.

제보자 김지영 씨는 은하양조장을 창업한 김정목 씨의 손자이며 김산경 대표의 장남이다. 할아버지의 은하양조장 창업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김지영 씨의 할아버지 8세 때에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형제들은 어린시절부터 자수성가하며 가세를 일으켰다.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형님은 결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셨고 동생은 은하에서 양조장을 운영했다.

은하양조장은 1935년에 김지영 씨의 할아버지 김정목 씨가 창업했다.

양조장 가업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

은하양조장 창업자 김정목 씨는 슬하에 11남매를 두었다. 은하양조장은 1963년 경에 셋째 아들 김산경 씨가 물려받았다. 큰아들은 일찍부터 공직에 나가 있었으므로 양조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둘째 아들은 몸이 불편하여 양조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아들이 집안 형편상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3년만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리겠다고 생각하며 낙향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이 그리 많지 않다. 3년만 양조장을 돕기로 한 생각은 현실에서 벽에 부딪혔다. 1.2년 세월이 흐르면서 양조장을 벗어날 수 없었고 평생을 술 빚는 일에 몰두했다.

1960년대는 양조장이 호황기였다. 당시에는 막걸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술이었다. 막걸리 이외에는 다른 술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였다. 국가의 밀주 단속이 엄격했으므로 개인이 밀주를 함부로 담그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 국가에서 밀주 단속을 엄하게 했던 것은 국가 재정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밀주는 불법이고 세금을 걷을 수 없었으므로 단속이 엄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많이 했다. 잔칫집 등에 밀주 단속이 나오면 양조장에서 고발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양조장과 세무서가 밀착되어 막걸리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은하양조장에서 하루에 20L를 100통 정도 생산했다. 750L 원액이 담긴 술항아리 3개에서 술을 걸러 내었다. 초상이 나거나 잔칫집이 있으면 더 많이 소비되었다.

양조장들은 이웃한 읍·면끼리 영업 구역을 철저하게 지켰다. 은하양조장은 광천 생활권이었던 장척리와 포항 등 멀리까지 배달했다. 양조장끼리 약속한 영업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구역이 다르면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배달을 안 했다.

은하양조장은 1997년까지 술빚는 기술자와 배달 직원이 있었다. 나중에는 소비가 둔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직원을 고용했다.

김지영 씨의 양조장 경험

김지영 씨는 학생시절에 방학 때면 아버지를 도와서 막걸리 배달을 많이 다녔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양조장 운영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 아침 7,8시부터 시작하여 밤 7,8시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 김산경 씨는 아들에게 특히 많은 경험을 시켰다. 그 덕분에 김지영 씨는 양조장 운영을 도우면서 술빚는 요령도 어느 정도 터득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건이 주어지면 술을 빚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양조장으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술을 내어주거나 술을 배달하면서 겪은 일도 많다. 낯면

이 있는 손님이 찾아오면 넉넉하게 술을 퍼주기도 했으며, 막걸리 배달을 엉뚱한 곳으로 해서 당황한 적도 있다. 화물차에 술을 배달할 때 술통이 깨져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다.

은하면 곳곳을 배달하다 보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막걸리 배달 차를 기다리던 어른들이 양조장으로 전화를 하면 집에서 불똥이 떨어졌다.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배달하고도 양조장으로 돌아와서 꾸중을 듣기도 했다.

어떤 곳에서는 배달한 막걸리 보관을 잘못하고 술이 상했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소비자들과 언쟁을 벌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다시 배달해 주기도 했다.

김지영 씨는 아버지 김산경 대표의 살아생전 양조장 운영 모습이 눈에 아련하게 남아있다. 가끔은 양조장 술이 싱겁다고 소비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동네 주점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양조장에서 배달한 술에 물을 섞어서 팔았던 모양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점에 배달하는 막걸리 가격은 낮게 책정해 주었다. 막걸리 값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대신에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김산경 대표는 홍성군 양조장협회장을 수년간 역임했다. 당시에 사양길에 접어든 양조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산경 대표는 양조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양조장이 각자 규모에 따라 지분을 갖고 합동으로 운영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양조장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아마도 당시에 양조장 운영이 합동체제로 변했더라면 막걸리의 경쟁력이 어느정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김산경 대표 작고와 폐업

김산경 대표는 2017년에 향년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산경 대표가 세상을 떠나면서 양조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협의 끝에 양조장 주조 면허를 반납했다.

1935년에 창업한 은하양조장은 8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2017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한동안 비어있던 양조장 시설은 노후되어 2014년에 정리하고 터와 건물만 남아있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박 필 수 (1950년생)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사라진 서부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



서부양조장 연혁

- 위치 :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 일제강점기 박팽수 씨가 창업
- 1970년대 말부터 장손자 박필수 씨가 운영
- 1994년경부터 박필수 대표 동생 박의수 씨가 운영
- 2015년 폐업

서부양조장의 배후 입지

서부면은 천수만 해안을 끼고 있으며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궁리포구, 어사리포구, 남당리포구 등 바다와 육지로 통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부양조장은 바닷가 포구가 많아서 농촌과 어촌 양쪽으로 막걸리 소비가 비교적 많았다. 특히 포구에서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배들마다 작업 중에 마실 술을 많이 싣고 나갔다.

1980년대까지 어선에 싣고 나가는 술은 대부분 막걸리였으므로 서부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많은 부분을 해안지역에서 소비했다. 이처럼 서부양조장은 해안과 포구가 이어진 천혜의 자연 배후 입지를 안고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현재도 서부면과 인접한 천수만 해안과 많은 포구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1980년대 서산 A·B 지구 방조제 건설로 인해 어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포구와 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다.

서부양조장의 창업

서부지역에는 옛날부터 박 씨들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내려왔다. 서부양조장 박필수 대표의 5대조부터 서부에 정착했으므로 200여 년 가까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

서부양조장은 박필수 대표의 할아버지 박팽수(마을에서는 박정규로 부르기도 함)씨가 창업했다. 서부양조장 박팽수 씨는 당시에 서울 경신중학교를 졸업했으며 4대 독자였다.

당시 서부양조장의 창업자는 박필수 대표의 할아버지 박팽수 씨였지만 증조할머니의 술 빚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전해온다. 증조할머니는 평소에도 집안에서 술을 빚는 기술이

유명했다고 한다. 증조할머니의 술 빚는 기술이 양조장 창업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증조할머니는 양조장 술 빚는 일을 도와주었고 1978년에 작고했다.

서부양조장을 물려받은 손자

제보자 서부양조장 대표 박필수 씨는 1972년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양조장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박필수 대표는 대학 졸업 후에 할아버지로부터 집안의 장남이며 장손이므로 양조장 후계수업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다. 직장생활 3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양조장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당시에 박필수 씨 대표의 아버지 박용복 씨는 서부면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집안에서 설립한 사설 서부우체국장으로 근무했다.

할아버지는 공직에 있는 아들 대신 집안의 장손자인 박필수 대표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다. 서부양조장은 1970년대 말에 장손자 박필수 대표가 창업자인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운영권을 물려받았다.

박필수 대표는 창업자인 할아버지 박팽수 씨가 양조장 수업을 시키면서 여러 차례 시험해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의 됨됨이를 시험해 본 것이었다.

어느날은 할아버지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돈이 떨어져 있었다. 박필수 대표는 다음날 할아버지 자리에서 주운 돈을 돌려드렸다. 박필수 대표가 서울로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용돈을 충분하게 주셨다. 서울에서 쓰고 남은 돈을 할아버지에게 다시 반납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는 손자의 됨됨이나 경제관념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남의 돈을 탐내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일부러 방바닥에 돈을 떨어뜨렸던 것이었다. 용돈을 일부러 넉넉하게 주신 것도 씀씀이가 헤프지 않고 알뜰한지 시험해 보는 과정이었다.

어느날 외부 모임에 참석했던 할아버지가 박필수 대표를 방으로 불렀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박필수 대표는 영문을 모르는 채, 손바닥을 쫙 펴서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조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손자의 손바닥에 얹어 주셨다. 할아버지가 박필수 대표의 손에 쥐어주신 열쇠는 평소에 소중하게 관리하던

금고 열쇠였다. 할아버지가 열쇠를 주시면서,

"이 열쇠를 네 아버지에게 주어야 하지만 부득이 손자인 너에게 준다. 네가 잘 관리할 것 같아서 믿고 주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또 다른 말씀도 하셨다.

"오늘 이웃 양조장 업자들을 만나서 약속한 것이 있다. 결성양조장과 장곡양조장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서부양조장은 손자에게 물려주자고 서로 약속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웃 양조장 대표들과 회식을 하며 서로 후계자에 관해 말씀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박필수 대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금고 열쇠를 물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아버지가 사실을 알면 서운하거나 오해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열쇠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박필수 대표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게 확실하냐?"고 확인하며 되물었다. 아버지의 물음에 "확실합니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빨리 서류를 갖춰서 정식으로 물려받도록 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양조장 운영권을 물려받았다.

박필수 대표는 양조장 이외에도 아버지를 경유하지 않고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다. 현재 서부면 게이트볼장 부지 500평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땅이다. 이 땅은 값진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부면 게이트볼장 건설 때 마을에 무상 제공했다.

박필수 대표는 학교를 외지에서 다녔다. 초·중·고등학교를 홍성에서 다녔으며 대학도 외지에서 다녔다. 이런 이유로 처음 낙향했을 때는 지역 분위기를 잘 몰랐다.

또한 젊은 나이 때부터 군 단위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 홍성군 체육회 이사, 제1기와 2기 평통위원, 군정자문위원, 제2건국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서부양조장의 변화 과정

서부양조장의 호황기 시절에는 기술자를 비롯한 3명의 직원과 배달 직원 3명을 두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서부양조장이 호황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시골에서 막걸리는 배를 든

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서부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업인구들이 많았다. 마을 구판장에는 생활필수품과 함께 막걸리가 항상 진열되었으며, 며칠씩 바다로 고기잡이 나가는 배에는 필수적으로 막걸리를 여러 통씩 싣고 나갔다.

이와 같은 환경들은 서부양조장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었다. 안타깝게도 1980년대 서산 A·B지구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포구도 축소되었고 어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양조장도 많은 타격을 입었다.

서부는 특이하게도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양조장이 술을 빚는 데는 질 좋은 물이 중요한데 지하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양조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물맛 좋고 물이 철철 넘쳐나는 샘이 있었다. 이 샘에서 지하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양조장까지 물을 끌어왔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비용도 꽤 많이 지출되었다.

양조장은 정부 시책으로 술을 빚는 원료가 자주 바뀌었다. 쌀 → 밀가루 → 옥수수 → 보리 → 쌀(정부미) 순으로 자주 바뀌었다. 쌀이 남으면 소비 차원에서 쌀 원료로 대체하고, 쌀이 부족하면 다른 원료로 교체하곤 했다.

막걸리는 원료별로 맛이 다르므로, 원료가 바뀔 때마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밀가루 원료가 맛이 좋아서 소비자가 많이 찾았는데 원료별로 맛의 차이가 컸다. 또한 막걸리는 주로 기성세대들의 입맛에 길들여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도 많이 변했다. 막걸리가 소비자들의 바뀌는 입맛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외면받는 원인이 되었다.

서부양조장이 사양길로 접어든 가장 큰 원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이다. 서부면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7,8천명 정도까지 되었지만, 현재는 3,4천명 정도로 인구가 뚝 떨어졌다. 막걸리 소비를 주도했던 농·어촌 인구감소와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 등으로 양조장이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막걸리 배달은 처음에는 지게로 져서 배달했다. 그다음에는 먼 거리를 자전거나 우마차로 배달했다. 이후 경운기가 생기면서 짐칸에 탱크를 싣고 나가서 통에 따라주는 방식으로 변했다. 나중에는 자동차로 배달하는 등 시대가 발전하면서 막걸리 배달 방식도 바뀌었다.

막걸리를 담는 플라스틱 통은 80년대 초에 처음 나왔는데, 10L· 20L · 40L 등이 있었

다. 서부양조장이 호황기 무렵에는 하루에 20L로 100여 통을 소비했다.

양조장은 세무서의 간섭이 많았으며 술 제조 방법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다. 주세법도 상당히 엄격해서 개인은 함부로 술을 빚을 수 없었다.

당시에 정부의 주세법은 양조장을 통해 국가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이유로 세금 탈세로 이어지는 밀주 단속을 엄하게 했다. 그런데 밀주 단속이 양조장과 세무서가 결탁하여 매출을 올리려는 담합이라고 애매한 소문에 휘말리기도 했다.

박필수 대표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양조장 운영을 1994년에 동생 박의수에게 넘겨주었다. 사설 서부우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으므로 양조장 운영을 병행하기가 어려웠다.

서부우체국장은 1994년 6월 30일부터 2014년까지 6월 30일까지 20년 3개월 근무했다. 이후 큰딸에게 우체국장 자리를 물려주고 야인생활을 하고 있다.

동생 박의수 씨가 운영하던 서부양조장은 2015년에 문을 닫았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이 병 성 (1946년생)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사라진 금마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



금마양조장 연혁

- 위치 :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 일제강점기 이병헌 씨가 창업
- 집안 할아버지 이성윤 씨에게 관리·운영 맡김
- 창업자 이병헌 씨가 공직에서 퇴직하며 직접 운영
- 2000년대 말경 폐업

금마양조장의 변화 과정

금마양조장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변화 과정을 설명해 줄 후손이나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홍성이나 금마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후손이 없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금마양조장과 집안 사람 되는 이병성 씨를 소개받았다.

제보자 이병성 씨는 금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금마에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젊은시절에는 마을 이장과 소방대장 등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금마양조장 창업자와는 집안 관계이므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조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마면 부평리는 신평 이 씨가 40여 가구 사는 집성촌이다. 신평 이 씨 이병헌 씨가 일제강점기 무렵에 창립했다고 전해온다.

제보자 이병성 씨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금마양조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기억을 떠올려 볼 때 대략 일제강점기 말엽에 창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마양조장의 창업자는 이병헌 씨이다. 이병헌 씨는 당시에 세무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세무공무원의 지위에서 금마양조장을 창업할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다.

이병헌 씨는 공직자였으므로 직접 양조장 운영이 힘들었다. 집안 할아버지인 이성윤 씨에게 양조장의 관리와 운영을 맡겼다.

이후 이병헌 씨가 공직에서 퇴직하며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잘 기억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 양조장 직원이 3,4명 있었으며 서기 1명을 두었다.

이병헌 씨는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이 양조장 운영을 도와주다가 교통사

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금마양조장은 이병헌 씨가 2000년대 말경에 직접 폐업했다. 현재는 금마초등학교 부근에 옛 양조장 터만 남아있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

사라져가는 홍성의 양조장

윤 명 식 (1959년생)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사라진 홍북양조장의 옛모습을 찾아서



홍북양조장 연혁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 일제강점기 윤 씨가 창업
- 1966년 윤석태 씨가 인수
- 2000년 김형배 씨가 인수
- 2010년경에 폐업

제보자 윤명식 씨가 전하는 홍북양조장의 변화 과정

홍북양조장의 변화 과정은 1966년부터 양조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윤석태 씨의 아들 윤명식 씨로부터 제보받을 수 있었다.

제보자 윤명식 씨는 홍북양조장의 창업 시기를 일제강점기 말엽 또는 조국 광복 직후쯤일 것으로 추정했다. 창업자 이름은 자세히 알 수 없고 윤 씨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윤명석 씨는 예산군 신양면 죽철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윤석태 씨가 1966년에 양조장을 인수하며 국민학교 2학년 때 홍북으로 이사왔다.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서울로 옮기면서 객지 생활을 했다. 서울에서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낙향했다.

윤명석 씨는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하여 설계사무소에 취직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설계사무소 취직을 거절하고 1981년에 홍북으로 왔다. 당시에는 설계사무소 월급보다도 양조장 수입이 좋았다.

윤명석 씨가 기억하는 홍북양조장은 1980년대까지는 비교적 순탄한 편이었다. 양조장 직원이 기본으로 2명 있었으며 배달 직원까지 10여 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다. 술 제조 직원이 따로 있었으며 주인은 전체적인 관리를 했다.

당시는 하루에 20L들이 통으로 50여 통 이상 소비되었다. 초상집이나 잔칫집이 생기면 100여 통을 소비하기도 했다.

윤명석 씨의 기억으로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홍북양조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 무렵 아버지에게 양조장을 매각하자고 건의했다가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아버지 윤석태 씨는 2000년에 양조장을 매각했다. 양조장 매각 후에 과수원과 축산으로 사업을 전

환했다.

윤석태 씨로부터 홍북양조장을 매입한 김형배 씨는 10여 년 동안 운영하다가 세상을 떴다. 홍북양조장은 김형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2010년경에 문을 닫았다. 현재 홍북양조장이 자리 잡았던 자리는 홍북읍 개발로 인해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양조장 합동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모색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로 인해 막걸리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양조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개책이 필요했다.

1990년 무렵에 흩어져 있는 양조장을 하나로 합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각지 지분을 갖고 합동으로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면지역에서는 찬성했지만 읍지역에서는 미온적이었다. 읍지역은 인구감소가 크지 않아서 타개책 모색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합동으로 운영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으면 양조장이 모두 문 닫는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북양조장 운영과 일화

윤명석 씨는 아버지를 도와서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배달을 했다. 차에 커다란 술탱크를 싣고 다니며 소비자들이 갖고 온 술통에 따라주었다. 시골 노인들이 양조장 배달차가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시골 노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술통 마개에 종이돈을 접어서 넣어두었다. 배달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배달자는 지정된 장소에 놓인 술통 마개를 열어서 돈만큼 술을 따라서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소비자들은 배달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른 일을 하다가 술통을 찾아가면 되었다.

당시에 읍·면 양조장들은 영업 구역을 철저하게 지켰다. 양조장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다른 지역 양조장의 막걸리는 구입하지 않았다. 시골 마을에서는 읍내 장날마다 짐을 실어 나르는 소달구지가 있었다. 아침에는 읍내 장으로 짐을 실어 나르고 오후에는 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마을까지 실어 날랐다.

아침에 소달구지로 짐을 싣고 장에 나갈 때는 양조장에서 술을 구입해 갖고 갔다. 점심

시간이나 중간중간 목이 마를 때는 단골 음식점에 지역 막걸리를 갖다 놓고 마셨다.

막걸리를 배달하는 직원이 술 탱크에 남몰래 물을 타서 배달하기도 했다. 많은 양이 들어 있는 막걸리 탱크에 물 한 통 정도는 맛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배달 직원은 자기만 아는 것처럼 속였지만 소문이 나서 양조장 주인 귀에 들어온 적도 있다.

홍북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전문적으로 배달받는 주점들이 외상을 많이 했다. 외상값이 적을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외상이 쌓이면 한꺼번에 갚기에 부담이 되었다. 외상이 많이 쌓인 주점은 외상값을 모두 탕감해 주고 이후부터는 현금 거래만 했다.

<인터뷰어 유환동, 스토리텔러 김정헌>

홍성군내 1930년대~1960년대 설립 양조장 명단

순	양조장 명칭	위 치	설립자	설립 년도	폐업 년도	비고
1	홍성 양조장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김 씨	일제 강점기	2016년경	
2	호서 양조장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서창순	일제 강점기	2020년경	
3	광천 양조장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장원영	1939년		운영 중
4	옹암 양조장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김영옥	1950년대 초반	1980년경	
5	대원 양조장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진기동, 한동관	1960년대 초반	1980년경	
6	홍북 양조장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윤 씨	1940년대 초반	2010년경	
7	금마 양조장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이병헌	1940년대 중반	2000년대 말경	
8	홍동 양조장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이병열	1940년대 초반		운영중
9	은하 양조장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김정목	1935년	2017년	
10	서부 양조장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박팽수	1940년대 초반	2015년	
11	결성 양조장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박용화	1940년대 초반	2020년	
12	갈산 양조장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이칠규	1943년	2005년	
13	구항 양조장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이은직	1937년	2010년경	



예산군

| 예산의 참전 용사

한국동란 참전	840
한국동란 참전	845
한국동란 참전	851
한국동란 참전	857
한국동란 참전	862
한국동란 참전	867
한국동란 참전	872
한국동란 참전	877

예산군

예산의 참전 용사

강 태 구 (1932년생)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한국동란 참전



다섯 살 때 어머니를 잃다

강태구 씨는 2남 1녀 중 둘째이다. 위로는 형님이 한 분,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형님과는 다섯 살 차이로 형님은 현재 99세로 한마을에 살고 있다.

그의 나이 다섯 살 때 어머니가 작고하시고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드셨다. 사실 여동생은 새어머니가 낳은 이복동생이다.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찍 죽었다. 집안 경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봉산초등학교 7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덕산중학교로 진학했는데 중학교는 1회 졸업생이다. 고등학교는 합덕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합덕고는 고등학교라고 했으나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라 교사가 없이 창고를 빌려 공부했다. 1950년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합덕고 재학 중에 영장이 나와서 군에 입대했다.

전쟁과 징집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 그해 한국동란이 발발했다. 그때는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모두 징집 대상이었다. 3월에 입학, 그리고 5월 16일에 입대, 정신을 차릴 시간이 없었다. 봉산에서 징집 대상은 40여 명이었다. 예산중앙초등학교에 집합시켜 놓고 겨우 몇 가지만 숙지시키고 바로 예산역으로 이동하여 화차에 몸을 실었다. 신체검사도 없었다. 그냥 신원 파악만 하고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훈련소라면 번듯한 건물이 갖춰진 막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함석지붕에 날 땅에 가마니를 깐 정도의 막사 아닌 막사가 전부였다. 양쪽으로 침상을 만들고 가운데는 흙을 파서 통로를 만든 형태였다. 침상이라고 해야 볏짚을 깔고 위에 가마니 거적을 깔아 만들었다.

당시 논산은 21, 22, 23연대 세 개 연대가 있었다. 23연대 10중대 4소대로 배속되었다. 8주간의 훈련으로 고된 나날이었다. 8주 후 특과를 못 받으면 무조건 전방으로 배치했다. 전방으로 배치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전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훈련생 1기는 군번이 08이고 2기는 9310으로 시작했다. 12중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훈련생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 소총은 M1을 지급했다. 훈련할 때는 하루 종일 메고 다녔고, 저녁때는 분해해서 총기를 관리해야 했다. 총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

고 구타가 가해지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당시는 인권을 논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구타가 만연해 있던 시기였다.

모두 다 엉터리

훈련소에서는 관등성명, 직속상관 이름, 심지어는 대통령 이름까지 외웠다. 갑자기 지적당하면 긴장을 해서 알았던 내용도 입에서만 맴돌았다. 6시 기상, 10시 취침은 변함이 없다. 부식은 말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수통에 밥을 주었다. 식판으로 된 식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사역이었다. 훈련소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업이 많았다. 아침 기상 후 사역을 하고 와서 보면 밥이 불어서 큼직해져 있었다. 흡사 구더기처럼 보이기도 했다. 입영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배가 고파 안 먹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

조금 지나서는 미니 식기 뚜껑에다 배식했다. 취사 당번이 드럼통 반 자른 것에 밥을 타온다. 양쪽에 구멍을 내어 철사로 연결하여 나무로 걸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온다. 당번은 돌려가면서 했다.

취사장 청결은 사치였다. 가마니 채로 쌀을 솥에 붓고 그냥 밥을 해냈다. 반찬은 따로 배식하지 않고, 그냥 밥과 함께 부어주었다. 김치 같은 반찬은 구경하지 못했다. 그냥 된장국에 밥 말아서 먹었다. 간혹 미역국, 콩나물국이 나오긴 했다. 어떤 때는 날 새우젓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담배는 하루에 10개피 지급되었다. 화랑으로 기억된다. 언제나 부족했다. 왜냐하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간부들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이다. 훈련소에서는 건빵이 지급되지 않다가 자대 배치 이후에 건빵이 지급되었다. 그것도 정량이 아닌 부족한 양이었다. 참 엉터리가 많았다.

눈물의 분실물

군복은 한 벌, 광목으로 만든 허술한 것이 지급되었다. 한여름에 훈련으로 인해 땀으로 범벅이 되면 가관이었다. 내복도 지급되었지만, 위아래 속옷 한 벌씩으로 사람 꼴이 나지 않았다.

모자란 물자는 남의 것을 훔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속옷도 남의 것에 손을 댔지만, 제일 분실이 많은 것이 모자하고 대검 같은 것이었다. 화장실도 개방형이어서 일을 보다 보면 모자를 벗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모자를 다시 찾기는 어렵고 똑같이 남의 모자를 벗겨오는 수밖에 없었다.

모자 분실은 대부분 기간병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간병들은 돈을 요구했다. 분실물을 보충해 준다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훔치고 분실했다고 구타하고, 돈 받고 그 모자를 돌려주고, 훈련병들은 알면서도 더 이상 탓할 수 없었다.

집 생각, 고향 생각을 혀!

논산훈련소 1기생은 더 많이 고생했다. 훈련시설이 갖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역으로 훈련을 대신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기생들도 사역을 많이 했다. 틈만 있으면 사역했다. 기상 후 조식을 배식할 때까지 사역했다. 일요일에도 쉬는 시간이 없었다. 일요일,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조금 숨을 돌릴라치면 고향 생각하고 있다고 집 생각하고 있다고 무조건 집합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역으로 채워졌다.

불침번과 오징어

입대할 때 가지고 들어간 돈은 개인이 소지했다. 훈련을 받을 때도 띠를 만들어 몸에 둘러 보관했다. 누구에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훈련을 나가면 물건을 파는 아줌마들이 따라다녔다. 훈련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때 교관들이 간식을 사 먹게 허락했다.

늘 배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먹는 것에 민감해 있었다. 근무 중에도 몰래 군것질거리를 마련해 먹곤 했다. 특히 불침번 시간에는 피곤해서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면 PX에서 마른오징어를 사서 불침번 때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조금씩 먹으면서 잠을 쫓기도 했다.

일요일에는 PX에서 빵이나 우동을 사서 먹곤 했다. 개인이 돈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했고, 또 먹거리를 구매해서 먹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았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남의 돈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돈을 분실했다는 이야기는 한 건도 없었다.

병과 – 통신

논산에서 8주 훈련을 마치고 전라도 광주 상무대로 배속되어 통신교육을 받았다. 병과는 통신 보급, 8주 교육을 다시 받았다. 다시 대구 기계창으로 자대배치되었다. 광주 상무대는 논산훈련소보다는 좋은 환경이었다. 통신 보급, 교환, 무전, 가설 등 다양한 병과를 교육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병과만 교육했다. 통신 보급은 통신에 필요한 통신기, 배터리 등을 취급했다.

통신병과는 편했다. 교육환경도 좋았고, 자대배치를 받아 일하는 것도 어려운 점은 없었다. 고장난 통신기가 들어오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거나, 수리를 요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기계창으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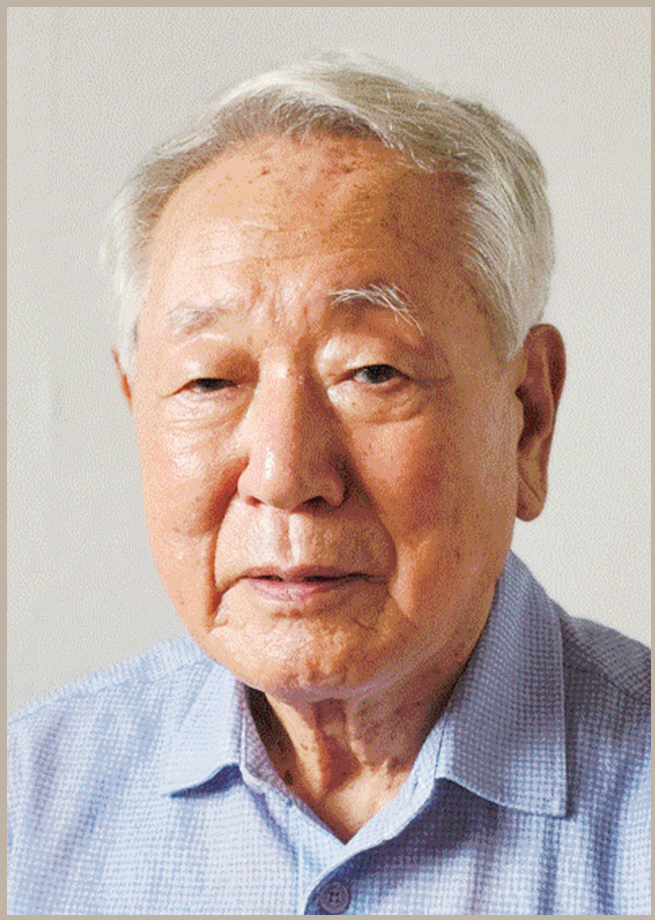
자대에는 선임들이 많았다. 통신부대 단위였기 때문에 신병이 몇 안 되었다. 대구에서 서울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대구로, 다시 전라도 광주 송정리로 파견을 다녔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부산으로 들어온 배터리를 운반하는 일을 주로 했다.

송정리에서 근무했던 것이 많이 생각이나 일전에 가족들과 송정리를 찾았는데 너무 변해서 옛 보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6년 근무하고 제대했다. 고참들이 많아서 그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김 성 배 (1931년생)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

한국동란 참전



맏이로 태어나서 농사지었죠

김성배 씨의 아버지는 3대 독자였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 아버지는 4남매를 두셨다. 그는 4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군대 생활 이외에는 현재 살고 있는 오가면 신석리를 떠난 적이 없다. 독자로만 3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친인척이 없었다.

오가초등학교를 나와 예산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5년제 농업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로 편제되어 중학교 3년이 인정되었고 자연스럽게 예산농고 1기생이 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웠던 때였지만 같은 학년이 4백에서 5백 명 정도 되었으니, 학구열이 대단했다.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물론 당시 다른 지역에는 학교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농고의 인기는 대단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숙을 했다. 농사가 주업이었던 시절이라 하숙비도 쌀로 대신했다. 보통 다섯 말 정도였는데 조건이 좋은 곳은 일곱 말을 받기도 했다.

농과를 졸업하고 농사를 거들었다.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를 시작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돕는 정도였다. 논이 60마지기 정도였는데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당시는 세경으로 일을 잘하는 머슴은 5가마, 그렇지 못한 경우 3가마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머슴, 상머슴을 보조해 주는 사람은 언머슴이라고 불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난리가 났지

195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난리가 났다.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자원하는 분위기였다. 그냥 있다가는 인민군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학도병이건 징집이건 모두 대구에서 이루어졌다. 동생과 함께 길을 떠났다. 대구에 가서 학도병으로 이름을 올리고 전장에 나간다는 생각이었다.

동생은 한 살 아래라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아직 미성년이지만 집에서 혼자 가느니 형제가 의지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동생도 딱히 거부할 수 없었던지 순순히 따라나섰다. 그래서 형제는 용감하게 예산에서 대구까지 길을 나섰다.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멀리 집을 떠나 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가 집을 떠나서 청양으로 갔다. 청양에서 1박을 하고 청양에서 출발하여 금강을 건너서 계룡산을 넘어 신도안에서 1박을 했다. 황간 가서 1박, 황간에서 추풍령을 넘어 김천에서 1박을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천에서 군인들에 의해 길이 막혔다. 갈 수 없다고 막는데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자 한들 거처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동안 동행하며 지냈던 친구와 함께 옥천에서 1박을 하고 대전을 경유하여 친구네 집이 있다는 논산 벌곡으로 향했다. 벌곡에서 하루 잤던 것 같다. 벌곡에서 청양, 광시, 대흥을 거쳐 예산군 응봉면까지 와서 처가에서 잤다. 3대 독자로 아들을 보셨으니까 할아버지 당신이 손자며느리를 보아야겠다고 하셔서 일찍 응봉의 처녀와 혼인했던 터였다.

후일담이지만 처가에서 하루저녁 잤는데 이불에 이가 득실득실 남아있더란다. 왜냐하면 경상도 김천까지 며칠을 오가는 길에 제대로 씻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온몸에 이가 성하였던 것이었다.

오고 갈 적에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도중에 어디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었다. 때가 되면 무조건 길가의 집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했다. 난리통에 자기네 식구들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을 텐데, 인심은 야박하지 않았다.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십시일반 나누어 주었다. 황간에 갔을 때는 방에서 자지 못하고 부엌에서 잠을 잤다. 계절이 겨울이었지만 불을 땐 후라 춥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다

학도병 지원하려고 김천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가했다. 다시 학교에 나가 졸업하고 52년도에 입대를 했다. 당시 예산에서 50여 명이 입대했는데, 석탄차 타고 논산까지 가서 8주간 훈련을 받고 김해로 자대 배치되었다. 보병이 아니라 공병대로 배치를 받았다.

부산 대연동에서 다시 8주간의 훈련을 받았다. 8주 훈련을 마치고 1802 정비보급단으로 배치되었는데. 신설 부대였다. 부대 본부는 춘천으로 이동했고 처음 배치된 곳은 양구

였다. 훈련을 마치자마자 부대가 창설되면서 춘천으로 본부가 자리를 잡았고 양구로 파견을 나가게 된 것이다. 한창 전쟁 중에 국군이 방어선을 그곳에 두고 있었다.

열악했던 훈련소

전쟁통이라 그랬는지 훈련소에 갖춰진 것이 별로 없었다. 침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흙바닥 위에 짚으로 만든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관물대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 그냥 머리맡에 피복을 개어 포개 놓는 수준이었다. 피복이라고 해야 지급된 것이 별로 없어서 사실 관물대가 필요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배고픈 것이 가장 어려웠다. 식사 당번이 배식을 받아오면 한쪽에 쌓아두었던 반합 뚜껑을 모두 모아 놓고 배식했다. 반합 뚜껑도 속뚜껑과 겉뚜껑이 있는데 속뚜껑에다가 밥을 푸고 작은 양은그릇에 국을 담아주었다. 쌀이라고 해야 안남미라고 하는 쌀인데 풀기 없는 밥이었다. 그것도 양이라도 많이 주면 괜찮겠지만 반합 뚜껑에다가 주면서 채워 주지도 않았다.

배고픔과 풀빵, 그리고 PX 국수

당시는 전 국민이 풍족하게 먹지 못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영외로 훈련을 나가면 풀빵 장사들이 따라다녔다. 빵이라고는 했지만, 밀가루로 만든 개떡이나 다름없는 빵이었다. 그나마도 돈이 있어야 사 먹지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지금이야 개인 통장으로 돈을 관리하지만, 예전에는 개인이 소지하고 다녔다. 마땅히 보관할 곳도 없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 훈련 담당 조교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영내에서는 PX에서 국수를 사 먹기도 했다. 당시 PX를 주보라고 했다.

훈련 중에 가족이 면회 오는 경우 음식을 싸 오니까 좀 먹을 수 있었지만, 면회를 올 수 없는 형편이 못 되는 경우도 많았다. 면회 온 전우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어쩔 수 없었던 이야기

면회는 가족 간의 정으로 고된 훈련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

나 절박한 목적이 있는 면회도 있었다. 자손이 귀하거나 아니면 외아들의 경우 씨라도 남겨야 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자들도 전장으로 내몰렸다. 궁여지책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와 씨를 남기려는 경우도 많았다. 하루 외출이 가능한 면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우비(판초우의)를 여러 장 연결하여 가리고 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왔다.

김해에서 8주 교육

훈련을 마치고 김해에서 8주 교육을 받았다. 예전에는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 소위 빽을 쓰기도 했다. 전방이나 어려운 보직을 피해 후방에서 조교나 식사 당번이나, 취사장에서 근무하도록 선을 대기도 했다.

함께 훈련받은 12중대는 각각 분산 배치를 하지 않고 모두 김해 공병학교로 가서 교육훈련을 받았다. 사단 공병과 야전 공병으로 배속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비 보급단 보직을 받았다. 사단 공병은 전방 사단으로 배치되어 주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했다. 야전 공병은 그야말로 야전에서 도로나 다리 등 토목공사를 주로 담당했다.

정비 보급단은 공병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역할이었다. 급수나 야전 공병이 작업하다가 고장 난 장비를 정비해 주는 일이 정비보급단의 주된 일이었다.

분위기가 좋았던 부대생활

말년에 1년 정도 1등 중사로 근무했다. 당시 서무를 담당하면서 신임을 얻어 중대장 관인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다. 업무처리를 모두 맡기다시피 했다. 전쟁통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휴전 이후에는 전적으로 믿어 주어 일 처리하기도 쉬웠다.

40개월 군복무 기간에 말년에는 보직 덕분에 외출도 자유롭게 했다. 보직에 따라 영내에서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출이나 휴가도 어려웠지만, 서무를 담당하다 보니 외출은 자유로웠다.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 세 명이 장교 시험을 보겠다고 대구로 갔다.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허락하에 대구에 왔는데, 한 친구가 시험을 보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장교가 되면 전방으로 배치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논리였다. 그 말에 혹해서 시험을 보

지 않고 복귀했다. 대구까지 갔었는데 그냥 시험을 보지 않고 귀대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만 생각되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심 성 근 (1928년생)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한국동란 참전



18세 때 광복, 그리고 19세 때 청양군청의 직원이 되다

심성근 씨는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가 고향이다. 화성국민학교를 21회로 졸업했다. 5년제 공주농업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이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일본인 교사들이 모두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남은 교사라고는 농업을 지도하였던 조선인 선생 한 사람 뿐이라 수업이 재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해 뒤인 1946년도, 19살에 청양군청에서 근무했다. 군청이라고 해봐야 내무과와 산업과 두 개 과에 직원은 30여 명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겠지만 청내 근무나 출장이나 선임자를 따라다니면서 눈치로 업무를 익혀 일을 했다.

2년 뒤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농촌진흥청이 개원했고 각 군에 농촌지도소가 만들어졌다. 각 면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을 농촌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발탁을 해서 농촌지도소를 조직했다. 1948년, 21살 때 농촌지도소 차석으로 발탁되었다. 당시 10개 면에 각각 지도사라 불리던 직원들이 있었고 군에는 소장, 사무장, 차석, 직원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었다.

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면의 지도사를 불러서 교육했다. 한번은 레그혼을 농촌진흥원에서 부화해서 요청하는 대로 보급한 적이 있었다. 부화기를 설치해 놓고 1주일 간격으로 부화시켜 보급했다. 그런데 1주일 간격으로 보급한다는 말에 원래 21일 만에 부화하는 병아리가 기술이 좋아져서 1주일이면 부화가 되는 줄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일이었다. 병아리가 1주일 만에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부화기에 1주일 간격으로 달걀을 넣어서 1주일 차이로 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화다.

수원 비행장 제8공군헌병대 경비

농촌 지도소는 195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해체되었다. 심성근 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수원 비행장에서 경비를 했다.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를 조금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학업을 그만두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비행장이라면 당연히 군인들이 경비를 해야 했지만 워낙 규모가 큰 곳이고, 또 정문과 후

문을 전부 경비하기가 어려워 일부는 민간인에게 위탁했다. 못 알아들으면 보디랭귀지까지 동원해서 의사소통을 했다. 일이 생기면 직접 가서 미군들과 상대하다 보니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경비반장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입대

예산, 홍성, 청양 지역의 병력이 홍성중학교로 소집되었다. 심성근 씨가 화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상도 포항이었다. 포항에서 며칠 대기하다가 제주도로 갔다. 심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제주 모슬포에 도착하였다.

심성근 씨는 7연대 124중대로 배속되어 5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훈련 중에 육군소위 교육을 지원하라고 했으나 포기하고 운전병을 지원했지만, 그것도 무산되었다. 5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부산 대기 중에 밤낮없이 호출하여 전방으로 배속했다. 기차로도 수송하였지만, 급할 때는 비행기로 실어 갔다.

제주도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안질이 생겼는데 부산에 도착한 후로도 안질로 인해 고생했다. 안질 때문에 부대 배치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마침 중학교 이상 다닌 사람을 차출하였다. 40여 명이 불려 나갔다. 그들은 인도한 상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팔자 고쳤다'고 했다. 육군 수송학교로 배치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심성근 씨는 김해 구포 수송학교에서 두 달간 교육을 받은 후 춘천으로 배속되었다. 주임무는 전방부대에 보급품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60킬로 쌀가마를 트럭에 싣고 전방으로 이송하는 데, 운전은 고참이 했고 심성근 씨는 조수역을 했다. 중학교를 나왔다는 조건으로 운용과로 배치되었다.

1957년 7월 27일 휴전이 된 후에는 서웅 6관구사령부 수송근무대로 전출되어 영등포 당산동에서 근무했다. 심성근 씨는 당시 이등 상사였는데, 이등 상사만 해도 영외에 거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위관급과도 차이가 없는 대우를 해줬다. 심성근 씨는 보병으로 입대를 해서 수송병과로 근무한 후 이등 상사로 제대했다.

병력이 외부 근무로 나가면

1종계를 할 때 이등 상사로 주로 1종, 쌀을 보급 받아 와서 배분하였는데 그가 배속된 수

송부는 식수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른 부대에서 차용 요청하게 되면 때를 맞춰 오는 경우가 드물었다. 식수 인원은 잡혀 있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병력이 많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쌀을 보급할 때는 식수 인원대로 보급하였다. 현 인원으로 취사를 해서 배식을 해야 하는데 식사 인원은 근무를 나간 열외 병력까지 포함하여 빼먹기가 일쑤였다.

식수 인원으로 잡힌 대로 밥을 지으면 인원이 적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심성근 씨는 정량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유도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자, 병사들이 좋다고 했다. 그 말이 군 생활에 있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영외에서 거주하는 간부들도 부대 내의 부식으로 해결했다. 아예 부식을 부대 내의 보급으로 살다 보니 취사장의 상황은 언제나 사병들에게 풍족하게 돌아가지 못했다. 심성근 씨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세 스푼의 식사

배고픈 서러움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기에 그것도 놀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된 군사훈련을 한 후에 오는 공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950년대 당시 모든 국민이 식사를 풍족하게 누리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군사 훈련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좀 배려가 있어야 했다. 식사 때는 즐거워야 하는데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식사량이 부족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석식을 마친 후 밀려오는 배고픔은 그 무엇보다도 괴로웠다. 반합 속뚜껑에다 배식을 했는데,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게다가 설렁설렁 퍼 담기 때문에 실제 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미제 스푼 세 숟가락, 배식병이 퍼준 밥을 모아 눌러 놓으면 겨우 세 스푼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세 번만 숟가락질하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야속했다.

콩나물국이 나왔지만, 콩나물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죽지 않고 살 정도의 배식으로 보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콩나물이 그렇게 몸에 좋은 줄 몰랐다. 매 끼마다 콩나물국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급기야는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졌다. 그래도 잔밥이 나왔던 모양이다. 어둑어둑할 무렵 취사장 뒤에 놓여 있던 잔밥통에 거꾸로 박혀 목숨을 잃은 병사가 있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잔밥통에 있는 밥알을 주워 먹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그만 통에 거꾸로 빠진 것이었다. 어두운 밤에 이동하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표고버섯과의 인연 – 도유림사업소 근무

심성근 씨는 제대하고 1년 후 1959년도에 보령에 있는 충청남도 도유림사업소에 취업했다. 사무소는 대천에 있었고, 사업소는 성주에 있어서 성주 관사에서 살았다. 그 당시 처음으로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했다. 처음 하는 재배였는데도 표고버섯 자목이 4만 본이었으니 대단한 양이었다. 버섯 관리를 1년간 했다. 시험 재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었다.

지금이야 경험이 쌓여 재배 기술이 향상되어 일이 쉽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우선 자목을 만들어 놓고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4만 본의 자목에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나무 가지를 잘라다 덮어 주었는데 그 양만 해도 적은 것이 아니었다.

상품이 좋은 것은 화고이고 아직 갓이 펴지지 않은 것은 동고라고 했다. 문제는 7월에 발생했다. 어느 정도 비가 와주어야 균사가 퍼지고 버섯이 나오는데 그 해는 비가 오질 않아 봄에 수확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7월이 되어 비가 많이 내린 후 콩처럼 버섯이 매달렸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버섯이 자라 있었다.

많은 양이 나왔지만 건조 시설이 없어 말릴 수가 없었다. 관사에 건조 시설을 마련한 것이 비닐하우스 한 동 뿐이었다. 그나마도 빨리 말려야 한다고, 불까지 때는 바람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비가 오는 우기에 건조장 안의 버섯은 제대로 마르지 않았다. 버섯 상하는 냄새는 시신이 상하는 냄새와 흡사했다. 열악한 상황에서 표고버섯 재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처음 접하는 표고버섯 재배는 걸음마 단계였고 생산된 표고는 상품성이 없었지만 이후

농가로 보급되어 농가 소득원이 되었다. 표고버섯의 맛은 일품이었다. 간혹 일을 마치고 인부들과 돼지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해보았는데 표고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맛이 있었다. 1년 근무를 마치고 공주 사방관리소로 이직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김 문 갑 (1931년생)
예산군 삽교읍 역리2길

한국동란 참전



조선어와 개패

김문갑 씨의 증조부는 동학에 참여하셨다고 한다. 고향은 아니지만 해미 개심사에 논 세 마지기를 희사하셨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심사가 있는 산자락에 고조부의 산소가 있어 자손들이 찾아오면 점심 식사라도 제공해 주길 바라셨다고 한다.

선친은 4남 1녀 중 둘째이셨다. 조부는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조모는 96세까지 사셨다. 백부는 결혼하시고 얼마 있다가 작고하셔서 둘째인 선친께서 장남 역할을 하셨다.

덕산초등학교를 9살인 1939년에 입학했다. 당시 덕산초등학교 재학생이 많았다. 한 학년에 두 개 반. 한 반은 남자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반은 남학생과 여학생 혼합반이었다. 여자 동창들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철저하게 일본어로만 교육시켰다. 조선말을 쓰면 목에 패를 걸어 무안을 주는 등 한국어 말살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패에 '개패'라고 일본어로 썼기 때문에 개패라고 불렀다. 개패를 하고 있던 학생이 다른 학생이 조선어를 쓰면 개패를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조선어를 쓰는 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개패를 받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일본어만 구사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었다.

등교하면서부터 하교 때까지 일본어만 쓰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참으로 치밀한 민족말살정책이었다. 방과 후 마지막 개패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개패를 반납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하루가 마감되는 것이었다. 당시 교장은 덕산 분이 했다가 일본 군인 출신인 일본인으로 교체되었고 담임은 일본 여자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학교 진학보다는 서당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은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권고로 마을에 있었던 서당에 다녔다. 고정적으로 서당이 있는 마을도 있었지만, 당시 훈장 선생님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지도했다. 수업료는 봄에 겉보리 서 말, 가을에 나락 서 말을 주었다. 그럭저럭 서당을 3년 다녔다. 교육방식은 선생님이 구절을 풀어주면 그것을 외울 때까지 읽었다. 외울 때는 지팽나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 용도는 공부하는 부분을 찾기 좋게 끼워두기도 하고 글

자를 짚어가면서 외기도 했다.

김문갑 씨는 열심히 한문 공부를 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알려준 내용을 공부하고 서당에 갔다. 공부한 내용을 훈장님께서 검사한 후 진도를 나가는 방법이었다. 서당에 가서 처음 선생님을 뵈올 때는 항상 절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당시에는 먹이나 벼루, 붓 등 문방구를 팔러 다니는 노인이 있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문해서 구입했다. 교재도 노인을 통해 구입했다. 서당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서점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참 고마운 존재였다. 천자문이나 다른 경전을 마치면 그 책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역할도 담당했다.

입대, 그리고 사고

1950년, 20살에 입대를 했다. 논산훈련소 1기 생이다. 23연대 12중대에 배속되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총을 분해 소지하는 것이 일과 중 중요한 일이었다. 방아틀뭉치에 있는 공이치기가 잘 부러졌다.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셔서 주보(PX)에 다녀온 사이에 동료가 부러진 자기 총의 방아치기와 바꾸어 놓았다. 특무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방아틀뭉치 부러진 것 아느냐는 것이었다. 안 부러졌다고 말했지만, 총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안 부러졌다고 하느냐고 문책했다. 특무상사의 주먹질에 기절하면서 넘어졌는데 내무반에 박아 놓은 말뚝 못에 코를 꿰는 일이 벌어졌다.

코가 찢어지는 사고로 병원에 1주일을 입원했다. 1주일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다. 23연대에서 다음에 들어오는 신병 기수 25연대로 가야 했다. 그러나 같이 훈련받던 동기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남겠다고 우겼다.

훈련을 마치고 휴양소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소원수리를 받았다. 당시 중대가 5소대로 편제되어 있었다. 공통적인 의견은 특무상사 김 모가 악질적이다, 그러니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만장일치로 특무상사의 악행을 적어 제출하였다. 소원수리 이후 김 모 상사도 고초를 겪었다고 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돈이었다. 기간병, 특히 조교들이 일부러 저지른 일이었다. 병기 부품이 손상되면 바꾸어 주면 되는데, 일부러 훼손되었다고 조작해 놓고 돈을 받고는 해결해 준답

시고 벌이는 짓이었다. 조교나 선임하사, 인사계가 한패가 되어 사로 상납하는 작태를 벌였던 것이다.

일등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

논산 훈련소에서 8주 훈련을 마치고 김해 공병학교에서 8주 훈련을 받았다. 논산에 비해 공병학교는 인원도 적고 교육환경이 좋았다. 공병학교 훈련을 마치고 ○○야전 공병대로 배치되었다. 함께 간 다섯 명 중 2명은 다른 부대로 배치되고 3명은 같은 부대로 배속되었다.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원통에서는 얼마 있지 않았다. 포천 6사단으로 옮겨 위병소에서 근무했다. 다시 대대장 연락병으로 차출되었다. 연락병은 어려운 점이 없었다. 서류나 문서를 넣어 메고 다니는 가방을 '똥가방'이라고 했다. 특별한 명칭은 없었으나 어깨에 메면 엉덩이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락병은 헌병들도 심하게 다루지 못했다. 어느 부대 연락병 누구라고 신원을 밝히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데 차 좀 잡아 달라면 도움을 주곤 했다. 다른 일반 사병이었으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연락병으로 근무할 때 헌병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일등병 때의 일이다. 경례 강조 주간인데 상급자에게 경례를 안 했다고 육군본부로 통보가 넘어갔었다. 같은 부대 간부도 아니고 다른 부대 간부였는데, 상급자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올려 버린 것이다. 그 일로 일등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 그래서 제대 때 일등병으로 제대했다. 부대 배치를 다시 받고서 다시 일등병으로 올라가서 제대한 것이다.

많이 걸었다

연락병은 대대에 하나씩, 연대에 딸린 대대에 하나씩이라 3명이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 유선통신으로 보내지 못하는 전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락병의 역할이 컸다. 일반 보병직보다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계절에 따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시간이 지체되어 늦게 복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고 부대 차량을 부를 수도 없는 일, 길에 다니는 차량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고 군부대가 있는 곳은 민간인들의 출입이나 자동차 운행이 자유

로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발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보병 못지않게 연락병도 많이 걸어 다녔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나무를 채취하여 후방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운이 좋으면 나무를 운반하는 차량을 만나 쉽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다. 간성이나 원통 쪽으로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았다.

24세에 3년 6개월의 군생활을 마치다

일반 소대에 소속되었지만, 행정병과 다름없었다. 연락병으로 근무하면서도 인사계의 일을 많이 보조했다. 공병 병과를 받아 공병대로 가지 않고 대대로 배치되어 연락병을 하게 된 것이다. 연락병의 직무는 고단했지만 군대생활은 즐겁게 했다.

당시 원통은 참 시골이었다. 인제나 간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당시는 미군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다. 밤에는 나가지를 못 하니까 밤에 어떠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 오로지 부대 안에서만 생활했다. 외출해서 나가도 뭐 사 먹을 곳도 없었고, 심지어 부대 내에 PX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당시는 면회라는 것은 꿈도 못 꾸었다. 장교들도 홀로 생활해야 했고, 장교 부인들도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원통 검문소에서 미군들이 들여보내지 않아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물며 사병들의 면회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원통은 전방과 가까워서 밤새 포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전방에서 나오는 차량의 경우 전사자를 싣고 오는 차량도 많았다. 주변의 분위기 자체는 전방과 다름없었고 늘 긴장감이 맴돌았다. 포천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3년 6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쳤다. 그때가 54년, 24살 때였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예산군

예산의 참전 용사

가 한 로 (1930년생)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한국동란 참전



윤봉길 의사가 외사촌 형님

가한로 씨의 아버지는 4형제이셨고, 삽교에서 살다가 덕산으로 이사하여 1남 4녀, 5남매를 두셨다. 아버지는 농사에 종사하지 않았다. 농사짓는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의술이 있었다. 예전에는 종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종기 치료가 부친의 주특기였다. 한곳에 의료원을 내서 하는 업종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셨다. 따라서 농사일은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다.

예전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치료비는 상관하지 않는 풍토였다. 치료비로 생각한다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 술 한 병, 담배 한 갑을 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런 욕심이 없었던 부친으로 인하여 생활은 어려웠다.

가한로 씨의 집은 도중도 내 건너에 있었다. 윤 의사를 기리는 충의사를 조성할 때 현재의 집으로 이주했다. 윤봉길 의사와는 내외종 간으로 스무 살 차이의 외사촌 형님이 윤 의사이시다. 큰외삼촌의 큰아들이 윤 의사로 어머니가 윤 의사의 고모가 된다.

어머니가 윤 의사를 업어서 키웠다고 한다. 윤 의사가 어머니를 "우리 고모, 우리 고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다고 한다. 사람들이 "윤 의사 업어 키우다가 허리 잡는다."라고 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윤 의사를 애지중지하시면서 많이 업어 키우신 바람에 윤 의사가 고모 허리를 안 떠났다는 말들을 했다고 전하셨다.

어머니 동기간은 셋이었는데, 외삼촌이 두 명이고 어머니가 맏딸이었다. 윤 의사가 1932년도에 일본에서 돌아가실 때 가한로 씨는 다섯 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윤 의사에 대한 기억은 없다.

초등 5학년 때, 해의 3배 되는 무지개를 보다

아버지의 집안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겨우 하천가의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지만, 형편이 좋을 리 없었다. 덕산초등학교에 다녔는데, 5학년 때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날 6교시까지 수업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5교시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오다 보니 가야산에 무지개가 서려 있었다. 비가 온 후도 아니었다. 서쪽 하늘 가야산의 산봉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무지개가 떠 있었는데 해의 3배나 되는 크기였다.

그날의 무지개를 잊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았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지개가 무엇인가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린 나이에도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 이후 3년 뒤에 조선은 광복이 되었다. 해방될 것이라는 징조를 알려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대전으로, 대전역 참호 작업

초등학교를 마쳤지만 중학교 진학은 하지 않았다. 왜정 때라 일본 사람들이 청년훈련소라는 것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은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다. 목총을 나누어 주고 사격훈련을 시키고 제식훈련도 받았다.

해방 후에 예당수리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일을 조금 했다. 그러나 예당저수지는 한참 뒤인 1960년대 초에 완공되었다. 현재의 이장 격인 구장이라는 사람이 쌀 한 말을 주면서 대전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 동네 친구와 함께 대전에 갔는데 대전역에 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웬일인지 일을 시키지 않아 되돌아왔다.

대전에서 덕산까지 걸어서 왔다.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밥그릇 하나, 숟가락, 간장을 가지고 다녔지만, 밥을 해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돌아올 때는 길가에서 파는 참외를 사서 나누어 먹었다. 일을 시키려고 소집했지만 아마도 해방 전후의 전세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쌀 한 말은 돌려주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돈으로 바꾸었다.

군입대

군입대 전에 누님이 당신 아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기계창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권했다. 거기에서 일하면 군입대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계창에서 일을 하는 중에 영장이 나와서 입대했다.

인천에서 논산훈련소로 직접 입대했다. 인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 병력으로 차출된 것이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 줄을 서야 군번을 빨리 받는다고 서로 다투어 나갔다. 남들이 서두를 때에도 그냥 있었다. 그렇게 받은 군번이 9520○○○번이었다. 뒤에 번호가 두 번 죽더라도 구사일생할 수 있다는 군번으로 해석했다.

8주간 훈련 후 보충대로 갔다. 보충대에 간 날이 묘하게도 6월 25일이었다. 1차도 호출

되어 이송 후에 몇몇 병력이 남았다. 먼저 출발한 병력은 실제 전투지로 배치를 받았다고 했다. 인솔 장교가 이제는 공격보다는 방어만 하면 되니 우리는 운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휴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때로 여겨진다. 15사단, 소위 달부대 39연대로 배속되었다. 강원도 화천에 주둔한 부대였다. 실제 부대 배치를 받고 보니 중대장은 있는데 소대장이 없었다. 아마도 전투에 전사했던 모양이었다.

아! 휴전

함께 훈련받은 동기 중 4명이 포병으로 배치받았다. 포병들은 포탄을 까서 포탄의 일부분을 소지하고 다니면 재수가 좋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4명의 동기가 포탄 화약 제거 작업을 하다가 터지는 바람에 불귀의 객이 된 사건도 있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생명에 대한 절박한 기원이 가지고 온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란 말인가.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아팠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런 바보스러운 행동은 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루는 참호 속에 있다가 충동적으로 M1을 연발로 쏘았다. 남과 북이 단지 땅을 가지고 목숨을 빼앗으면서 싸우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갑자기 들리는 총소리에 부대 전체가 초비상사태가 되었다. 대대에서 연락이 오고 선임하사가 상황을 살피러 오고 난리가 났다. 총을 조작하다가 연발 사격이 되었다고 얼버무려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3일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다.

행운! 구사일생 – 기분이 안 좋아서

남북 양쪽에서 휴전이 오고 가던 때였나 보다. 낮에 근무를 서는데 줄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밤에 근무해야 하는데 소대마다 1명씩 차출해서 소대 대표로 갔다. 무엇을, 어떤 임무를 줄지는 모르고 있었다. 소대마다 불려 온 병력이 두 줄로 나란히 자리 배정을 받았다.

배정된 자리에 바위가 있었다. 이상하게 처음부터 그 자리가 꺼려져서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날 저녁 적의 포사격이 있었는데 그 바위에 포탄이 떨어졌다. 적은 바위 있는 쪽으로 포를 조준해 놓고 있었던 듯하다. 바위 가까이에 있었다면 벌써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그날 저녁 적의 포사격으로 전사한 사람

은 없었다.

의가사 제대

휴가를 나왔다가 배가 아파서 자대 복귀를 못 했다. 중대장에게 편지를 썼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해서 일단 자대로 복귀했다. 중대장이 입원하라고 해서 갔더니 맹장이었다. 맹장이 터져서 12시간을 수술했다. 맹장이 터지면 위험하다는데 12시간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수술을 했으면 복귀가 원칙이었다.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후송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트럭에 태우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으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누워서 아픔을 달래라고 했지만 누우면 더 아파서 웅크리고 자대까지 왔다. 자대에 와보니 수술한 곳이 벌어져 있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물고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소화가 안 되어 늘 더부룩했다. 일시 처방으로 까스명수를 복용하면서 겨우 연명했다. 제대를 한 후에도 수술 후유증이 지속되었다.

군 복무 중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마지막 야전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가장 위험한 고비였다. 당시 군의관도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된다. 재수술해야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군 생활 1년 3개월 만에 의가사로 제대했다. 수술은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막상 제대했어도 몸이 불편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김 무 현 (1932년생)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한국동란 참전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

김무현 씨는 5대조가 상가리로 이주하셔서 5대째 상가리에 살고 있다. 본래 세거하던 곳은 현재 해미 한서대학교가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2대 독자셨다. 독자이신 아버지는 3남 2녀를 두셨다. 상가리에서 밭농사를 주로 하셨다. 밭농사라고 해야 보리농사였다.

학교에 다닐 처지가 아니었다. 상가리 지형 자체가 산속에 옴폭 들어앉아서 논이 별로 없다. 그러면 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산기슭에 만든 밭이 대부분이었다. 학교도 멀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한학을 하셨는데 한학도 배우지 못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만 공부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전쟁이 나고서

한국동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은 직접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사방에서 천둥 치는 폭음이 들여 무슨 소린가 궁금했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어 인민군들이 몰려왔고 굴안골이란 곳에서 경찰과 대처하다가 경찰이 다 죽자 자발적으로 의용 경찰이 결성되었다. 청방이라는 것이 생겼고, 의용 경찰과 함께 방위군으로 바뀌었다.

전쟁 중에 방위군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자발적으로 지역을 지키자는 의도였다. 인민군들은 밤에 다니면서 벼 이삭 수를 헤아리고, 콩도 몇 꼬투리인가를 헤아리기도 했다.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했겠지만, 상황이 변해서 무산되고 말았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마을과 지역을 지켜보겠다고 모였지만 화톳불만 지펴 놓고 모여 앉아 아무것도 없이 인민군을 막아 보겠다고 했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개성에서 온 박씨라는 사람이 상가리에 숯을 구워 팔았다. 소변을 보러 갔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났다. “손들어!” 하니까 손들고 나오더란다. 알고 보니 인민군 장교였는데 패잔병이었다. 이 사람을 미군에게 넘겼다. 이 일이 상가리 지역 방위군의 최대 전과였다.

자원입대 – 공군시설대

김무현 씨는 10살 때부터 가사를 도왔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16살 때부터 품앗이

일을 다녔다. 마을에 토지가 많지 않으니 부쳐 먹을 곡식도 많지 않고 해서 품삯을 주고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없었다. 노동 인력도 풍부했기 때문에 품앗이를 주로 했다. 산골이다 보니 조금만 가물어도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늦게 비가 좀 와야 겨우 모내기를 했으니 소출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웠다. 모내기를 못한 곳에는 조를 심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가정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남연군 묘를 마을 사람들은 대원위 대감 묘라고 했단다. 묘소 앞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기가 좋았다고 한다. 왜정 때 소나무를 벚나무(사쿠라나무)로 대체했고, 현재 신도비가 위치한 곳에는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당은 후손들이 팔아 없어지게 되었다.

공군으로 자원입대하게 된 동기는 서울에서 삽교로 피난 내려온 사람이, 이렇게 먹고살기 어려운데 군에 가면 옷이나 밥은 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공군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다.

공군 지원자는 대전비행장으로 집결했다. 그가 배정받은 곳은 공군시설대로 육군으로 말하면 공병대라고 보면 된다. 당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이장 아들이 영장이 나오면 이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보내는 때였다. 정규 징집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대를 했다. 당시 예산에서 3명, 홍성에서 1명이 지원했었다. 대전비행장에서 4주 교육을 받았다.

밥은 견딜만 혔어!

4주 훈련을 받고 40명이 대구 시설 전대로 배치되었다. 이어 10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으로 파견되었다. 전대 본부는 대구였고 강릉 근무는 파견이었다. 참으로 열악했던 때였다. 비행기에 짐을 싣고 12명이 탑승했다. 1차로 강릉에 파견되었는데 후속 병력이 1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았다. 비행기는 열악하고 일기가 험해서 지연되었던 것이었다.

몸으로 하는 일이야 문제가 없는데 외우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다. 식사야 워낙 없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먹는 식사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다. 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처음 먹는 군대 밥이 어려웠던 모양이나 조금 지나자 배가 고프니까 적응을 해갔다.

4주 훈련 기간에 교육받은 인원은 전국에서 온 병력이라 숫자가 많았다. 강릉에서의 임무는 활주로 공사였다. 낮에는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때문에 활주로 공사를 하지 못했고, 석식을 일찍 마치고서 미군 하사의 지휘를 받아 공사를 했다. 흔히 말하는 '아나방'이라는

것이 비행장 활주로에 까는 철판이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굴곡이 생기면 아나방을 해체하고, 흙을 깔고, 가마니를 위에 깔고, 아나방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다.

1년 열두 달 아나방과의 사투

1년 열두 달 아나방 작업만 했다. 낮에는 취침, 밤에는 아나방 작업. 아침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주야를 바꾸어 거꾸로 생활하다 보니 누구나 다 병든 사람처럼 변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바늘로 찔러야 피 한방을 안 나올 것 같은 얼굴로 변했다. 겨울에는 동상이 문제였다. 양발에 동상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 어떤 병사는 손에 동상을 입어 절단할 정도였다. 동상이 심해 썩어들어가니 달리 대책이 없었다.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지만 아마도 절단했으리라 생각한다.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최상의 활주로를 유지 보수하는 일이었기에 어려움이 참 많았다. 대낮처럼 조명을 밝히고 작업을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가마니로 두르고 자다가 흙을 실어 온 트럭이 후진하면서 치어 죽은 사고도 있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4대 독자였다. 화장하여 유골을 전달하러 갔을 때 그 집은 풍비박산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직접 목도하지 않은 사람은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4대 독자의 유골을 전달하는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4대 독자가 왜 군에 입대했을까? 육군으로 입대하면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으로 공군으로 지원 입대한 것이다. 공군으로 입대하면 전방으로 배치받을 염려가 없고 보병보다는 좀 편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전혀 편하지 않은 생활의 연속이었다.

주야를 바꾸어 생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낮에 잠을 자라고 독촉하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았다.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할 야간에 주간보다 강도가 강한 노동을 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잘 지어진 막사도 아니고 1년 내내 천막생활을 했다. 일시적인 야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생활을 천막에서 한다는 것은 혹독한 환경일 수밖에 없었다. 겨울 난방은 필수다. 그러나 유류 보급이 충분치 못했던 시기라 취침에 들면 난로를 꺼 놓았다. 아침에는 입김이 얼어 서리처럼 엉겼다. 강릉 비행장이 바다 옆이라 겨울에 매우 추웠다. 방한복을 입어

도 추위를 막기 어려웠다. 여름에는 활주로 끝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 해수욕을 하곤 했다.

10전투비행단이 수원으로 이전했다. 이제 공군본부를 짓는 곳에서 작업을 했다. 현 성남중고등학교 자리에 천막을 치고 작업을 했다. 진해에 있었던 사관학교가 서울 당골로 이전하면서 학교 건물을 짓는 곳에서도 작업을 했다.

중노동을 하는데 잘 먹이지도 않았다. 밤에 지급되었던 것이 빵 하나가 전부였다. 비행장 아나방 작업, 공군본부, 사관학교 건물 공사 등 공사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은 공군시설대의 운명이었다.

입대 7명, 전사 2명

상가리 가구 수는 100호가 넘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100호가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나면서 피난 차 유입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곳보다 나무를 해다가 팔기에 용이한 지역이라는 장점이 작용했던 것이다. 난리통에 벌어먹을 것이 시원찮은 상황이었지만 가야산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 장사로 그런대로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다.

장작이나, 솔가지, 솔잎도 땔감으로 이용했지만, 이 지역은 국유지라 나라에 돈을 내고 숯을 만들어서 팔았다. 상가리에서는 당시 7명의 청년이 입대했고, 2명이 전사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예산군

예산의 참전 용사

이 석 호 (1932년생)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한국동란 참전



농사짓는 집안의 7남매 중 둘째

이석호 씨는 신암면 조곡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장남이신 부친, 그리고 7남매의 형제자매 중 위로 형님 하나에 둘째로 태어났다.

신암에서 대를 이어 오래 살았는데 몇 대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진에서 예산으로 이주했다가 중간대에 다시 당진으로 이주했다가 이곳 조곡리로 다시 이주했다. 조곡리의 환경상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업이었다.

신암초등학교를 마치고 예산 농업학교에 입학했다. 걸어서 통학도 하고 겨울이 되면 예산 향천동에서 하숙을 하기도 했다. 어려운 시절이어서 하숙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집안이 좀 살 만해서 하숙을 하곤 했다. 전공은 축산과를 선택했다. 당시 농업학교는 인기가 많았다. 입학생만 해도 400여 명으로 원예, 농과, 축산과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진학을 하지는 못했다. 시험을 보다가 옆 친구와 싸움이 있었고, 그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당시 합덕에 고등학교가 생겨 그쪽으로 진학하라고 권했지만, 학교에 흥미가 없어 말로는 간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진학하지 않았다. 그 후 2~3년간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입대 그리고 전령

이석호 씨는 징집 1차로 군에 입대했다. 시기로는 전쟁 전이었다. 먼저 군산으로 집결했는데, 전국의 사고뭉치들이 다 모인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기다리다가 인원이 차면 그냥 제주도로 보냈다.

제주도에서 96일 동안 훈련을 받고 7사단 5연대, 양구로 배치를 받았다. 제주도에서는 훈련 기간 중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서무계 기간병의 조수로 일을 하다 보니 훈련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서무를 보던 기간병이 휴가를 갔다가 미귀하는 바람에 서무 요원으로 발탁이 되어 아예 훈련병이 기간병 노릇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기간병이 복귀했지만, 결국 훈련 끝나도록 서무계 일을 보았다.

서무계, 보급계에서 일만 하다가 전방으로 배치를 받았으니, 걱정이 앞섰다. 다행스럽게 전방에서도 일반 보병이 아니라 연대 전령으로 지목되어 바쁘게 근무했다. 계급은 사병으로 보잘것없었지만, 보직이 좋아 편하게 지냈다. 영외로 나갈 일이 있으면 차량도 지급되

었다. 운전병은 2등 중사가 했으니 좀 우스운 구성이 되었다. 2등 중사도 운전이 편한 보직이었기에 인기가 있었다.

육군본부로 차출이 되었지만 마다하고 의가사 제대를 택했다. 당시 의가사 제대가 쉽지는 않았지만, 서류를 갖추어 통과한 뒤 그대로 전역을 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입대해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까지 어려웠던 시기였다. 하지만 양구라는 전방 지역에서 전령으로 일했던 짧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인생에 있어 가장 즐겁게 일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자활 대책 – 이 하사로 불렸다

이석호 씨가 복무하던 시기는 부식 보급이 어려웠던 때였다. 자활 대책이라고 해서 호박도 심어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다. 제주도에서 훈련할 때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셨다. 제주도로 면회를 온다는 것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신 연락도 어려웠던 때에 어디에 있는지, 더군다나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식을 찾아오시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면회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면회 장소인 교회로 가다가 헌병들과 마찰이 있었다. 헌병에게 자식이 맞는 모습을 보셨으니, 마음이 좋을 리 없다.

만나자마자 내어 놓으신 것이 호박씨였다. 아버지는 사리에 밝은 분이었다. 면회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 호박씨를 준비해 오신 것이었다. 훈련병이 직접 호박을 심어 재배할 수는 없었다. 아마도 취사반에서 취합하여 파종하고 가꾸어 부식에 보탰던 것으로 생각된다.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동원하기도 했다. 벌목하는 곳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며 보냈다. 부대를 벗어나면 흔히 일탈하게 되는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내서 보충하면 되었지, 문책까지 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서무 처리를 잘하고 있으니 믿는다는 말만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사가 아닌데도 이 하사로 불렀다. 그만큼 신임한다는 의미의 호칭이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시키면서 얼굴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일처리는 서무 처리로 해결되는 것이었기에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로 마무리하려 했다. 장교들도 미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잘 처리 해달라는 말로 대우를 잘해준 것이다.

휴가를 가서 제시간에 귀대하지 않고 미귀하는 경우도 많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일 처리도 모두 서무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실 일의 전말이 맞아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건보고를 하면 그 일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탈영의 경우 휴가를 가서 귀대하지 않으면 10일 후에 탈영으로 보고하면 그만이었다. 보고 후에 15일이 경과하면 삭제해 버렸다. 물론 찾으러도 가고, 계속 연락도 하지만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운 경우도 전혀 없었다.

부득이하게 행방을 모른다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미귀했더라도 진정서를 첨부해서 보고하면 다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사람 사는 일이 정해 놓은 규칙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군대의 경우도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았다.

직책이라는 게 참 좋은 거야

휴전이 된 후에는 휴가병이 많아졌다. 그동안은 전시라 전방에서 병력을 빼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휴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정기휴가는 예나 지금이나 거리로 계산하게 되어 있었다. 모처럼 휴가를 가는데 주어진 휴가 날짜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루라도 더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휴가 날짜를 늘리려고 하였다.

부탁이라는 것이 맨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법이다. 연줄을 대서 오든지, 아니면 돈을 쥐어주고 오든지 해서 날짜를 더 얻고자 했다. 사정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별의별 이유를 붙여 사정하는데 그것 또한 안 들어 주기 어려웠다. 사실 사정을 밝히고 상신하더라도 마지막 지휘관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군대나 사회나 직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은 낮지만, 서무 담당은 좀 당당하게 행세할 수 있었다. 아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서무계였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주머니가 두둑해질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군 복무를 같이하는 처지에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처지라 간부들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휴가 복귀 일이 지난 것 같은데 복귀하지 않으면 "누구 복귀하려면 아직 멀었나?"라고 하며 한마디씩 던진다. 알면서도 은근히 길게 휴가를 주었다고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다.

아주 처량하게 잘 해요

하루 종일 훈련을 받다 보면 피곤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잠자는 습성도 다 다르지만, 잠꼬대를 많이 했다. 자다 보면 상여소리를 아주 구슬프게 잘하는 사람도 있었다. 본인이 직접 뒷소리까지 먹여가면서 그럴듯하게 잘했다. 갑자기 자다 말고 만세를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때려서 중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훈련으로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보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먹는 것이 부실해서 기력이 소진되어 잠꼬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다.

지금이야 구타가 인권 문제로 취급하지만, 당시는 상시적으로 구타가 이루어졌다. 구타를 당하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훈련에 열외를 요청했고, 그럴 경우 후방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 죽기 살기로 버텨 전방 배치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검지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왕에 잘린 손가락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었는지 그냥 돌려보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손가락을 훼손하고 군 면제가 된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보았다.

이(蝨)와의 전쟁

당시는 식판으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항고'라고, 야전에서 사용하는 반합 뚜껑 같은 것으로 식기를 대용했다. 소대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지해야만 했다. 하루 종일 몸에 달고 다니다 보면 먼지나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식사 때는 취사장에 들고 가서 밥 한술 떠 주면 그것이 한 끼였다. 어떤 용기에 밥을 먹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밥이라도 많이 먹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했다. 심지어는 훈련 조교들이 항고를 빼앗아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잔밥이라도 주워 먹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어렵게 하는 것은 몸에 기생하는 이였다. 하루 종일 땀에 축축해진 훈련복 속에서 이란 놈들이 자기들 세상인 양 활보하고 다녔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황 정 래 (1932년생)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한국동란 참전



험담하는 것, 욕하는 것은 용케 알아듣다

황정래 씨의 부친은 6남매, 5남 1녀 중 맏이셨다. 부친은 4남매 3남 1녀를 두셨고, 형제 중에 맏이로 집안의 대소사를 다 감당해야 했다.

황정래 씨는 오가초등학교를 22회로 졸업했다. 10살 때 학교에 입학해서 5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다. 광복이 되었다는 소식은 학교에서 들었다. 광복되기 얼마 전부터 B-29 비행기가 현재의 예당저수지 위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소문을 자주 접했다.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행운이 하얗게 보였다. 비행기가 나타나면 모두 방공호로 들어가 피신했다. 어떤 국적의 비행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터라 방공호로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지만 한국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임시직이었다. 교장부터 담임선생까지 모두 일본인 교사가 맡았다. 철저하게 한국어 말살을 했다. 한국말을 하면 하루 종일 벌을 받았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런지 5학년이 되어서는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했다. 일본어를 쓰지 않은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어로 험담을 하면 용케 알아들을 정도다.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일본어, 집에 가서는 조선어 이중언어 속에서 성장했다.

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국 관련된 것은 오직 하나 한국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뿐이었다. 공산품도 일본 것을 썼다.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은 품질이 좋았으니, 조선식으로 만든 것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장간에서 만든 낫보다 왜낫이라는 것이 선호되는 바람에 당시 대장간이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운동화를 심지 뽑기로 구입하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시기였다. 학교에 가려면 땅이 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때 신으려고 나막신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학교에서 운동화를 주었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었다.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에 두세 켤레가 배정되었다. 운동화를 직접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산장에 가서 살 수 있는 표를 뽑아서 가렸다. 예산장 신발가게에서는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표가 있어야 운동화를 팔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운동화를 살 수 없었다. 학교에서 심지를 뽑아서 소위 당첨이 되어야만 운동화를 사서 신을 수 있었다.

해방공간은 그야말로 기쁨 자체였다. 어려워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일본인을 도운 사람들이었다. 서슬이 퍼렇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라도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본인의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동안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일본인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 일본인들을 등에 업고 행세를 부렸던 사람들이 문제였다. 당시 맞아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함구해 버렸다. 그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징집 1기생

해방 후 6학년을 다니고 양막 중학교에 들어갔으나 집안이 어려워서 졸업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입대했다. 징집 1기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입대를 해야 했다. 영장 받은 사람은 절대로 보류가 없었다. 부모상을 당해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입대해야 했다.

1기생의 입대는 대단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나와 태극기를 흔들어주고, 군민들까지 나와 환송했다. 게다가 어깨에 띠를 둘러 징집 1기생임을 표시했다. 각 면에 따라 색을 구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징집 1기생은 자부심이 있었다. 군청에서 모여 신체검사하고 예산역으로 이동한 후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예산역은 눈물바다였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환송 나온 가족들은 영원한 이별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입영일은 날씨도 흐리고 비가 왔다. 징집 대상자가 아무리 나이를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17, 18, 19살 먹은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겁을 잔뜩 먹었다. 장항에 도착했다. 탄차를 타고 왔지, 또 비가 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장항에서 배로 군산 보충대로 갔다. 보충대에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논산훈련소로 갔다.

한숨뿐이었다

이동 중에 하는 말이 병력의 반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반은 제주도로 간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느 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막막했다.

훈련소에서 지급된 군복은 제각각이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입으라는 것이었다. 군복을 입은 상태로 자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4시에 기상시켰다. 조교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나팔 소리가 기상나팔이다. 이제부터는 이 나팔 소리에 무조건 기상을 한다. 말을 마치자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라졌다.

귀가 어두운 사람도 들어왔다. 이런 사람은 입소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지시 사항도 못 듣고 무슨 소리 했느냐고 묻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했다. 묻거든 일러주면 좋으련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기간병이 엿듣고서 무슨 말을 했냐고 닦달했다. 나중에는 기간병이 나타나면 서로 눈치를 주어 사정을 알렸다. 동기가 좋다는 것을 실감했다.

무조건 사격장으로

훈련소에서 중점적으로 훈련한 것은 사격이었다. 1주일은 M1으로 사격했는데, 사격 성적이 좋아 다음 주에는 칼빈으로 사격 훈련을 했다. 사격 훈련만 2주간을 했다.

다음으로는 총을 분해하는 훈련을 했다. 눈을 가리고 분해 결합을 하는 훈련이었다. 전투가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분해 결합을 시켰다. M1이 보기보다 분해하면 부속이 많았다. 분해 시에 순서대로 놓지 않으면 조립할 수 없었다. 눈을 가리고 분해와 결합이 숙달되도록 훈련을 시켰다. 나중에는 감각적으로 분해와 결합이 이루어졌다.

고깃국에 휴식이 주어졌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라 그저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즐겁게 먹고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10시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10시가 되자 연병장으로 들어오는 GMC 소리가 요란했다. 배낭에다가 철모가 지급되었다. 훈련기간에는 철모 없이 하이바만 쓰고 훈련을 했었는데, 막상 철모를 지급받으니 이제 가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3월이었는데 외투까지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니 천상 전방으

로 배치되는 것이 확실했다.

논산역에서 춘천역으로 열차로 이동했다. 춘천역에 도착하자 전방에서 온 GMC 트럭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이곳이 전방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3군단에서 나온 장교가 먼저 병력을 점검했다. 외관을 보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를 가려냈다. 군 생활이 어렵겠다 싶으면 열외 시켰다. 이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 전방에 투입되었다.

보충대에 있다가 화기 중대로 배치되었다. 80미리 박격포 사수로 임명되었다. 화기 중대는 전방에 나가지 않았다. 적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사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었다. 낮에는 전투가 없었고, 주로 밤에 공방이 이루어졌다.

졸지 않을 재주가 없었다

3, 4일 잠을 못 자면 졸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낮에는 인민군들이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보이지만 전투는 없었다. 꼭 밤이 되면 대낮같이 조명탄을 쏘아 놓고 사격을 해댔다. 고지를 빼앗았다가 빼앗기기를 여러 차례 후퇴했다가 전진하기를 반복하면서 몸은 몸대로 피로가 누적되었다.

아군이 경계를 서다가 기관총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적이 오는 줄도 몰랐다. 전방에서 생명과 같은 총기를 빼앗긴 죄는 죽음밖에 없었다. 결국 그 병사는 군법으로 처리되어 총살되었다.

10시까지만 참고 지키자

장교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겠지만 사병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 10시까지만 참고 지키자."라는 말을 했다.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다. 북에서 쳐들어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10시 정각에 전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휴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였다. 중대장이 10시까지만 참고 지키자는 말이 휴전이 이루어지는 시각이었음을 알았다.

휴전 후 1주일 동안 시신을 수습했다. 전사자의 인식표를 수습하고, 인식표가 없으면 머리를 수습했다. 7월이라 시신은 부패되어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부패로 인해 머리를

수습하기는 쉬웠다. 전방에서 철수해서 양평으로 이동했다. 명분은 훈련이었지만 전방에서 고생했으니,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3개월 훈련 후 연천으로 이동했다. 연천에서 3년 만기 전역을 했다.

<인터뷰어 박광수, 스토리텔러 박광수>

태안군

|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태안의 새마을운동 - 근흥면 884
태안의 새마을운동 - 원북면 889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 원북면 894
태안의 6 · 25전쟁 – 안면읍 899
태안의 새마을운동 - 안면읍 904
태안의 새마을운동 - 태안읍 909
태안의 새마을운동 - 소원면 913
태안의 새마을운동 - 이원면 918
태안의 6 · 25전쟁과 새마을운동 - 이원면 923
태안의 새마을운동 - 남면 928
태안의 6 · 25전쟁 – 태안읍 933

태안군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윤 용 옥 (1944년생)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태안의 새마을운동 - 근흥면



윤용옥의 어린 시절

윤용옥은 1943년 3월 1일,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얼음골에서 3남 중 2남으로 태어나 1972년도 결혼한 뒤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분가했다. 부인은 서산시 부석 출신으로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그는 근흥초등학교를 마치고 서령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0년 8월에 지방 공무원 공채에 합격하여 근흥면사무소로 첫 발령을 받아 공직을 시작했다. 태안군청에서 정년을 한 윤용옥은 문화관광 해설사와 향교를 출입하며 서예와 한시를 익혀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평생 공직에 있었던 그는 새마을운동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을 계기로 1년간 준비하고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국민 계몽운동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농촌에는 번듯한 농로도 없었고 가옥은 비 오면 비가 잘 새는 초가지붕이 대부분이었다. 전기와 전화도 없어 배급받은 석유로 등잔불을 사용했다. 초창기 새마을운동은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 반장 등이 독려하고 주도했다.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면사무소 직원들은 각 마을의 이장 집에서 묵는 일이 허다했다.

그 시절의 농촌 경제나 생활환경은 몹시 열악했다. 농사를 지어도 비료가 부족한 때라 소출이 적었다. 식구들이 많은 탓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보리밥을 먹거나 무밥과 고구마밥을 먹기도 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밀기울이나 고운 쌀겨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집들도 있었다. 의복은 아낙들이 길쌈으로 만든 무명옷을 많이 입었다. 당시 잘 사는 집들은 머슴을 뒀는데 새경(1년품삯)은 벼 두 섬, 쌀 4가마니 정도였다. 윤용옥은 1970년도 후로는 머슴살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기억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다.

새마을운동으로 바뀐 대표적인 변화는 농로 개설과 마을공회당, 초가지붕개량이었다. 농로 개설은 땅 주인을 설득하여 희사를 받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면장이나 지서장 등이 찾아가서 설득했고, 이때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았다.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읍면마다 성과 그래프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하느라 마

을간에 경쟁심을 유발했다. 농로 개설 공사는 마을주민들이 가래 등 농기구를 이용해 부역했다. 이장이 마을방송으로 이른 새벽에 새마을 노래를 틀면 마을주민들이 깃발을 꽂은 곳으로 모여 작업했다.

마을공회당은 새마을회관의 전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할 공간이 필요하여 주민들이 손수 흙벽돌을 찍어서 세운 건물이 공회당인데 창고와 비슷했고 가마니를 깐 바닥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했다. 공회당은 나중에 마을회관이 됐다.

초가지붕 개량은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줘서 기와지붕, 양철지붕, 슬레이트로 개조했다. 윤용옥은 그 당시 지원금이 가구당 5만원이었는데 자부담이 얼마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지붕개량은 자부담 때문에 여유 있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주택부터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점차 확산하였다. 지붕개량이 인기가 높았던 건 매년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는 번거로움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1971년에는 본격적으로 새마을사업이 진행되면서 소득 증대 운동으로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IR 667) 재배를 강제적으로 권장했다.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는 농가에는 이미 침종한 벼 종자에 통일벼 종자를 섞거나 파종한 못자리를 면 직원이 짓밟기까지 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이 낫을 들고 공무원을 쫓아다닌 일화를 들려줬다. 윤용옥은 1970년대는 우리나라에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때라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회고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무렵엔 전국 3만 3천 개 마을에 시멘트 336포씩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다. 또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씩 지원하니 공직자와 주민들은 더 열심이었다. 처음엔 새마을지도자를 마을 이장이 지정했으며 그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새마을부녀회도 생겼는데 부녀회장이 앞장서서 절미운동과 부엌 개량에 힘썼다. 부엌 개량은 흙으로 된 부뚜막에 시멘트를 바르고 아궁이에 쇠로 된 문을 달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정신교육을 병행했는데, 특이한 점은 가족계획이었다. 피임을 적극 권장하면서 부인들에겐 난관수술, 남편들에겐 정관수술을 독려했다. 심지어 정관수술을 한 남자들에게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1979년 10월 장기 집권을 한 박정희 대

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 정권이 이어받으며 조금 방향이 바뀌었다. 1980년도 초에 가정의례준칙을 공표하고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적극 권장했으나, 그 중 장례의식과 관련해 초상은 3일만 치르고 허례허식을 삼가라는 지침에 대해서 주민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윤용옥은 '돌이켜보면 그때 미신타파니, 뭐니 하면서 마을의 서낭당 같은 전통 민속을 모두 부정하며 없앴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전국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새마을운동에서 주민 자발적 참여 민간단체 기관 형식으로 개편했다. 윤용옥 씨는 그때부터 새마을운동 초창기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근면, 자립,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단합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각 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마을부녀회의 명칭과 명예만 남은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는 요즘 새마을단체가 하는 일은 경로잔치 외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촌평했다.

새마을운동과 에피소드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윤용옥 씨는 새마을운동에 주민의 입장에서, 혹은 새마을운동을 독려한 공직자로서 애정과 많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중 특별한 것은 마을에 전기와 전화가 개설된 것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근흥면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안기리는 1976년도에 전기와 전화가 들어왔는데, 당시 전봇대 숫자에 따라 전기 개설비가 부과되었다. 비싸다고 전기를 안 놓은 집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옆집의 편리한 생활을 보고 추가 비용을 내고도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근흥면사무소 사무실에 분향소를 마련했는데 많은 면민이 조문하면서 애도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삶이 개선된 점도 있었으나 박 대통령이 근흥면을 직접 다녀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근흥면 안흥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워지고 1976년부터 서산에서 안흥까지 일찍 아스팔트 도로가 생겼던 건 1978년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다녀갔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믿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보안을 위해 도로변 짚 누리를 모두 쇠꼬챙이로 쑤셨다는 소문도 있었다. 당시에는 검문검색이 심하여 불편했으나 그 연유로 근흥면 지방도가 소원면이나 남면보다 빨리 비포장도로에서 벗어났다고 술회했다. 그런 사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근흥면 사람

들이 유난히 애도한 게 아니었나 추측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윤 경 상 (1952년생)
태안군 원북면 신주로 장원길

태안의 새마을운동 - 원북면



장대리의 새마을운동

무송윤씨 대사동공파 28세손인 윤경상은 1952년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32번지에서 아버지 윤태목, 어머니 조예호 사이에서 2남 2녀,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쟁 중에 태어난 그는 원북국민학교를 마치고 태안중학교를 졸업한 후 한학을 공부했다. 젊은 시절 2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한 후는 줄곧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켰다. 태안향교 전교를 역임한 구술자는 스물일곱 살에 유선희 씨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뒀다.

새마을운동은 그가 스무 살 무렵에 몸으로 체득한 정신운동이자 농촌 부흥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 당시 장대리 마을의 첫 번째 숙원사업은 농로 개설이었다. 달구지 한 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아 마을 사람들은 곡식이나 물건을 운반할 때 모두 지게질을 해야 했다.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과 농로에 편입되는 지주의 토지기부, 마을주민들의 협동 정신으로 농로 사업은 인근 다른 마을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

두 번째 사업은 지붕개량 사업이었다. 당시 장대리에는 기와집 한 채와 흙으로 지은 토담집 두 채 외에는 모두 초가였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 지붕개량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으로 개조한 집들도 있었지만 '쌍골 기와' 지붕이 인기가 좋았다. 쌍골 기와는 태안읍의 블록 공장에서 전통 기와를 개량한 시멘트로 만든 기와로 기왓장에 골이 두 개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값이 저렴한 것도 지붕 개량하는데 한몫했다. 윤경상은 지붕개량을 하는 데 정부 지원은 없었다고 기억했다. 장대리는 이장 중심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지붕개량을 완료했는데 인건비는 모두 품앗이로 해결했다.

당시 원북면 새마을운동은 자조마을, 협동마을, 자립마을로 평가해서 마을별로 경쟁을 유도했다. 자립마을로 선정되면 시상금을 주기도 했다. 장대리 마을은 선진마을로 명명되어 상금을 받았다.

1960년대 장대리 마을 사람들의 삶

장대리 주민들의 마을 회의와 윤경상이 활동했던 4H구락부 회의는 일제강점기 때 세운 공회당이라고 부르던 조그마한 창고에서 자주 개최했다. 겨울에는 이장네 사랑방을 많이 이용했다. 윤경상은 그곳에서 마을 회의와 새끼 꼬기, 멍석 만들기, 멱서리를 만들기도 하

고 심심하면 성냥골 내기 윷놀이도 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한참 전 마을 사람들의 의식주는 열악한 편이었다. 어른들은 무명으로 만든 고의적삼, 청년들은 근처 삭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헌 군복을 구입해 입었다.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는데 '진짜 다이아표' 꺼먹고무신이 인기가 많았다. 마을주민 대다수는 식량이 부족했다. 부잣집은 쌀밥을 먹었으나 가난한 집들은 쌀이 조금 섞인 보리밥과 고구마밥, 무밥을 많이 먹었다. 그 당시 부잣집에 집안일을 봐주는 머슴 새경은 상머슴이 쌀 열 가마니, 중머슴은 쌀 다섯 가마니 정도 받았다.

한편, 장대리에는 1979년도에 전기가 들어왔고 전화는 1984년도 개통되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석유를 배급받아 등잔불을 켰다고 한다.

윤경상의 농사에 얽힌 회고담

그는 그 당시 벼농사 이야기를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생생히 설명했다. 정월대보름 지나고 2월이 되면 논에 물을 가둔 뒤 소 쟁기로 논을 갈아서 못자리하는데, 살얼음에 보잡이의 장딴지가 빨갰다고 기억했다. 그때 어른들은 백양나무 새순이 트면 못자리할 때라는 말을 자주 했다.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고 논물을 넣었다가 낮추며 모를 키운 뒤에 모내기하고 나면 도살이[1], 애벌매기, 두벌매기, 호미 덩이질, 만물[2] 등 네 번의 논매기를 했다. 그런 수고 끝에 벼 이삭이 나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벼가 익기도 전에 찌갱이쌀[3]을 만들어 먹었다. 그걸 초련벼라고 불렀다. 익은 벼는 베어 논둑에 볏가리[4]를 세워 말린 뒤에 타작마당으로 운반했다. 타작은 개상[5]을 설치하고 개상제[6]를 지낸 뒤에 볏단을 자리개질[7]로 두드린 뒤에 호롱기(탈곡기)로 남은 볏낱을 훑어냈다.

타작한 벼는 마당 한가운데 모아 죽가래[8]로 날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 냈다. 개상제를 지내고 타작할 때는 일꾼들이 단출한 농악을 곁들여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해학을 곁들인 놀이를 했다. 윤경상은 이런 노동 속의 놀이문화는 마을의 두레와 단합을 유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사에서 큰 몫을 하는 소에 대한 특별한 수냇소 이야기를 했다. 수냇소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가 키워 새끼를 낳으면 어미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송아지는 키운 사람이 갖는다는 말이다. 그는 그 기간을 장대리에서는 '이태 반'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

이태 반'은 30개월로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아 젖을 떼는 기간이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뜻이었다.

윤경상의 술 조사와 산림감수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60년대 태안지방 농촌 가정에서는 가양주를 많이 담갔는데 흔히 '밀주'라고 했다. 몰래 담가 먹는다는 뜻이다. 쌀이 부족한 시절이라 세무서의 단속이 엄격했는데 집집이 돌아다니며 밀주를 찾아내는 사람을 술 조사라고 불렀다. 마을에 술 조사가 나타나면 '손님 왔다-' 라는 암호로 소리쳐서 술독을 감추게 했다. 땔감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솔잎이나 솔가지 채취에 벌금을 부과하는 산림 감시원도 무서운 존재였다. 이렇듯 고달픈 삶은 전기가 들어와 문명이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이 남긴 에피소드

장대리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거친 윤경상은 새마을운동으로 농로 개설, 지붕개량, 개인펌프 샘 파기, 부엌과 화장실 개량 등이 빠르게 변화되었음을 시인했다. 장대리 새마을운동도 다른 마을처럼 의식개혁 운동과 함께 통일벼 심기와 자녀를 둘만 낳으라는 가족계획을 엄청나게 강권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가족계획 추진운동본부 직원들이 부녀회를 앞세워 산아제한, 임신중절을 권장했다. 어떤 집은 며느리가 중절 수술을 했다는 걸 듣고 시아버지가 "애 초상" 났다며 화를 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의 변천에 대해 윤경상은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 정권에서 동생, 전경환이 전국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때는 새마을의 권력이 엄청나서 읍면 단위 회장 취임식 행사가 군 단위 단체장 취임식만큼 거창했다. 그러나 전경환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새마을 자체가 훼손돼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윤경상은 1989년 태안군이 서산시에서 분군 했을 때 태안군 발전을 기대했는데 큰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새마을운동도 지도자급 임원들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행사 요원처럼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그는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마을운동도 재정립할 때라고 봤다.

1)도살이 - 벼를 살리다

2)만물 - 마지막 김매기

3)찌갱이쌀 - '올게쌀'이라 불리는 '찐 쌀'

4)볏가리 - 논둑에 볏단을 이어 세워서 말리는 것.

5)개상 - 곡식의 낟알을 떨어트리는 도구. 돌. 나무통.

6)개상제 -벼를 타작한 후 개상 앞에서 지내는 제사.

7)자리개질 -개상에 볏단을 내리치는 일.

8)죽가래 - 나무로 만든 넓적한 자루가 긴 가래. 넉가래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신 상 호 (1944년생)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 원북면



아버지, 신인식의 기구했던 삶

동해리는 원북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외진 산골 마을이다. 가까이에 신두리 사구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소원면 소근리가 있다. 고령 신씨인 신상호는 1943년 원북면 동해리 108번지에서 아버지 신인식과 어머니 박한규 사이에서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신상호의 아버지인 신인식은 기구한 삶을 살았다.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군 해군으로 편입되어 5년 동안 필리핀 북부에서 전쟁에 참여했다. 해방되어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대한청년단원, 원북면 잠업사업소 서기로 일했다. 당시로는 지식인에 해당하였다. 이후 그의 아버지는 6 · 25전쟁 때 인공 치하에서 강요에 의해 마을 자위대장을 한 것 때문에 9.28 수복 후에는 부역자로 몰려 원북면 지서에 갇혀 죽을 뻔했다. 숱한 매질 끝에 그가 총살당하지 않은 것은 할머니가 우익을 몰래 살려준 게 참작됐지만, 땅과 소 판 돈을 뇌물로 바친 게 효과를 봤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또 노무자로 차출되어 전쟁터에서 국군의 밥과 탄약을 운반하였다. 그러다 휴전 후 집에 돌아왔는데 건강이 나빠진 데다 매 맞은 게 화근이 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가장이 사라진 신상호의 집안은 급속히 기울었다. 어린 소년이었던 신상호의 눈에 그의 집은 불안하기만 했다.

신상호가 기억하는 6 · 25전쟁

동해리 마을 사람들은 신두리 사구 쪽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전쟁 난 줄 알고 가까운 반계리 밧개 솔밭으로 피난 가서 하룻밤 지새고 왔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신상호는 학교에서 북한 노래를 배우기도 했다.

그는 3개월의 인공 치하와 수복 이후 마을에서 벌어진 처참했던 일을 보고 들은 대로 들려줬다. 마을의 큰 마당에 모깃불 피우고 자주 집회했던 기억, 다른 동네 자위대원들이 경찰 가족을 체포해 죽였다는 이야기, 소원면 소근리에 사는 경찰 가족인 한의원 '심○○'가 신상호의 집에서 침놓고 한약을 달이던 모습, '심○○'의 손자를 할머니가 좌익들 몰래 광에다 숨기고 밥을 줘서 도망시킨 일, 9.28 수복 후 우익 자경단들이 원북면 숨틀다리에 부역자들을 쭉 세워놓고 본보기로 총살했다는 이야기, 학교에 다닐 때 다리 아래에서 부역자들을 묶었던 동아줄을 본 끔찍한 기억, 아버지가 부역자로 몰려 잡혀가자 할머니가 구출하려고 소고기 반찬을 해서 머리에 이고 지서로 가던 기억이 있다.

6 · 25전쟁 중 동해리에는 인민군 본 군대가 들어오지 않았다. 군복을 입은 인민군 딱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갔는데 낙오병이라고 했다. 동해리는 전쟁 전에 좌우 대립이 없었다. 전쟁 발발 직후 우익이 좌익들을 태안의 냉장골, 한티재에 끌고 가서 죽인 뒤로 좌익이 복수하고, 수복 뒤엔 우익이 복수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다른 동네와 비슷했다. 전쟁 중에는 바다 건너 인천에서 동해리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신상호는 아직 어려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말도 한참 후에 알았다고 했다.

해방 전후와 전쟁 당시 동해리 사람들의 생활상.

산골짜기 외진 마을, 동해리는 농토가 적어 식량난이 심했다. 신상호는 조부모,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생활 형편은 먹고살 만한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 식생활은 부잣집을 제외하고 철 따라 보리밥, 무밥, 고구마 밥, 감자밥, 도토리 밥을 먹었다. 보릿고개에는 풋보리를 베어 말려 맷돌에 갈아 먹는 '갈밥'을 많이 먹었다. 심지어 식구는 많고 먹을 게 없는 집 사람 중에는 부잣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대신 공짜로 일을 해주기까지 했다. 6 · 25전쟁이 나던 해는 몹시 가물어서 하지(夏至) 지나서 호미모를 심었는데 소출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장리쌀을 5할정도 얻어 먹었다. 당시 부잣집은 머슴을 뒀는데 새경은 쌀 10가마니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식량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은 부업으로 신두리 백사장에서 삘기 풀을 베어 방석을 쳐서 팔았다. '뜸'이라고 부르는 방석을 중선배에 실어서 인천의 염전에 팔았다.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논이 됐지만, 그때는 마을 앞 갯고랑으로 배가 드나들었다. 뜸은 염전에서 소금 가마니를 덮는 데 사용했다.

밤엔 배급받은 석유로 등잔불을 켰고 소나무 관솔불을 밝히는 집들도 있었다. 의복은 무명옷이나 삼베길쌈을 해서 손수 만들어 입었다. 물은 공동 샘이나 포강에서 길어다 먹어서 그런지 배앓이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름엔 모기와 각다귀가 극심했다. 화로에 보리꺼럭으로 모깃불을 놓아 방 안에 들여놓고 억새를 휘둘러 모기를 내쫓았다. 나중에는 DDT 농약에 석유를 섞어서 입으로 뿜기까지 했다. 논두렁을 깎을 때는 각다귀가 하도 많아 모깃불 화로를 들고 다니며 깎았다. 신상호는 그 시절은 가난해도 이웃 간에 인정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새마을운동과 마을의 변화

1971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농로 개설이 시작됐고 지붕개량, 부엌의 아궁이 개량, 화장실 개량 사업이 진행됐다. 동해리는 워낙 외진 마을이라 다른 마을처럼 새마을사업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았다. 농로 확장 포장 공사용으로 면사무소에서 시멘트를 보급해도 공사 진척이 되지 않아 면장이 찾아와 야단을 치기까지 했다. 산골 마을이라 공사가 더디기도 했지만 토지 수용에 난관이 많아서였다. 반면, 지붕개량 사업은 자부담이 있었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다.

우여곡절 속에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방송시설이 갖춰지면서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농로가 개설되어 벼 방아를 찧을 때 달구지로 옮기게 되자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을 실감했다. 농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길이 비좁아 어쩔 수 없이 발동기 엔진과 휠 바퀴를 분해해서 지게로 지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화장실 개량은 짚으로 허름하게 지은 걸 시멘트 블록으로 개조했다. 신상호는 푸세식 화장실을 변소, 똥 뒷간이라고 불렀는데, 똥을 누면 똥물이 궁둥이로 튀어서 난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에는 똥물을 채소밭에 거름으로 줬는데 그 채소로 김치를 담가 먹어서 그런지 채독 환자가 많았다. 그런데 김치에 참기름을 듬뿍 넣으면 괜찮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밖에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절미운동과 가족계획을 장려하면서 콘돔을 보급하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정신교육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군 복무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느낀 점

1965년 입대하여 1968년에 전역한 신상호는 군대 생활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군 복무는 파주시 장단의 비무장지대에서 보초병으로 근무했다. 밤에 보초를 나갈 때는 얼굴에 난로의 그을음을 발라 위장한 뒤, 적에게 들킬 염려가 있다고 버클, 명찰, 수통을 떼고 매복 근무했다. 근무 수칙의 첫째는 졸지 않는 것이었다. 매복조 분대장은 그 수칙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막상 매복에 들어가면 그가 먼저 졸았다. 신상호는 군 복무 시절 보초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매복 중에 다른 분대원이 졸다가 북한군이 넘어와 죽이고 귀를 떼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근무 시 보초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나 그 사건을 겪은 뒤 모든 일에 꾀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원북초등학교 졸업하고 원북면에 개설한 사설 고등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과 농업, 축산업을 배운 신상호는 간재학파 제자, 운계 조세환 선생에게 한문 수학을 했다. 그런 연유로 풍수학을 공부하여 현재 소일거리로 지관을 하고 있었다. 아내 김본정 사이에서 1남 3녀를 뒀다.

그는 가난과 전쟁, 군대 생활, 새마을운동을 통해 얻은 교훈은 잘난 체하지 말고 덕을 쌓으며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이 순 옥 (1938년생)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태안의 6.25전쟁 - 안면읍



일제강점기의 생활상

태안군 안면읍에 거주하는 이순옥은 안면도 지역의 일제강점기 생활상과 6 · 25전쟁의 참상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 1938년 11월 12일 아버지, 이천봉과 어머니, 지기태 사이에서 4남 4녀 중 3남으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인 두 살 때, 홍성군 홍북면에서 안면도로 이주했다. 당시 안면국민학교 31회 졸업생인 이순옥은 가정형편으로 동네 서당을 조금 다니다 말았으나 후에 농촌지도자회원, 안면농협 대의원, 새마을금고 대의원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했다.

일제강점기 그가 살던 안면읍 승언리 3구는 가구 수가 120호였는데 그중에서 일본인 가구가 15호였다. 일본인들의 집은 기와나 함석집이었고 나머지는 초가집이었다. 현재 안면중학교가 일본인들이 살던 집터다.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 건 안면도 임야가 일제 탄광 재벌인 아소상점 소유여서 산림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데다 부역에 시달렸다. 식량은 대두박과 안남미를 배급받아 도토리를 섞어 먹었는데 다섯 식구 기준으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적은 분량이었다. 해방 뒤에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내리 5년 동안 가뭄으로 식량난이 극심해 보리죽에 해초를 넣고 끓여 먹는 집이 많았다. 옷은 대개 무명이나 삼베였고 신발은 아이들도 짚신을 신었다. 훗날 4성 장군이 된 승언리 마당 터에서 살던 친구만 부잣집 아들이라 일본 양복을 입었다고 회상했다. 이순옥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순서가 물, 나무, 양식이라며 당시 안면도는 산이 많아도 일본인 감시가 심해 땔감이 부족하여 몹시 고생했다고 말했다. 밤에 도둑나무를 하거나 보릿짚을 땔감으로 사용했는데 굴뚝 연기를 보고 일본인 산림 감시원이 집을 수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끔찍했던 6 · 25전쟁의 기억

6 · 25전쟁이 발발한 걸 알게 된 것은 3일~4일 후에 좌익들이 안면읍사무소에 '이승만 도당, 김일성 만세'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어서였다. 좌익패들은 중장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잘 사는 지식인과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동맹원도 있었는데 검은 몸뻬에 하얀 블라우스, 빨간 완장을 차고 돌아다녔다. 그들은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도 전사하리라. 우리 눈은 붉은 기를 날린다. 김일성 장군 만세…", "백산에 눈 내린

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아이들도 따라 불렀는데 안 배우면 반동분자라고 혼냈다. 3개월 남짓 인민공화국 치하에서는 벼나 조 같은 곡식의 낱알을 세어 평균치를 낸 뒤에 몇 할의 현물세를 매겼다. 밤에는 매일 저수지 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했다.

전쟁 당시, 안면도에 온 정식 인민군은 20명 정도였는데 모두 18세 정도의 소년병으로 키가 작아서 총을 끌고 다닐 정도였다. 어린 인민군들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순옥은 자기 집에 자전거를 맡겼던 어린 인민군들이 자전거를 타고 고남으로 가던 게 생각난다고 말했다.

9.28, 수복 무렵 인민공화국 치하가 끝나고 소년병들이 서둘러 퇴각할 때 우익 패들이 그들을 붙잡아 총살하려는 걸 이순옥의 아버지가 불쌍하게 끌려온 어린애들이니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서산 어디쯤에서 죽였다는 소문이 들려왔다고 한다.

이순옥은 당시 안면국민학교 교사 중에 남로당이 많았다며, 기계체조를 잘했던 원산도 출신 담임을 우익 세상으로 바뀌자, 경찰이 돌을 매달아 장고도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끼리의 살육은 인민군과 국군의 교전이 아니라 지역의 좌익 패와 우익 패의 짓이었다며, 이것은 모두 가족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전쟁 직전, 경찰과 우익이 좌익을 처단하고 도망갔는데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좌익들이 복수심으로 날뛰었고 안면 지서를 불태웠다. 그때 피신하지 못한 어떤 경찰의 부모가 죽었는데 9.28 수복 후 돌아온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좌익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패고 죽여서 ‘몽댕이 순경’이라고 불렀다. 참다못한 같은 우익이 그를 창고에 가두는 일도 벌어졌다고 회상했다.

당시 대한청년단과 경찰은 좌익부역자들을 체포하여 어업조합 창고에 감금했다가 ‘오늘 해대러 가세’하며 수시로 총살했다. ‘딱콩딱콩’하는 총소리가 많이 들려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딱콩골망’으로 부르는 총살 장소는 현재 안면중학교 뒤편 산이다. 그런 끔찍한 일들은 매일 벌어졌다.

태안읍에서 온 좌익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로는 귀한 구두와 넥타이를 맨 신사들이었다. 그들도 우익들에게 잡혀 처형당했는데 수습하는 사람이 없어 시신에 구더기가 난 것을 소방대원들이 삽으로 대충 긁어 묻는 걸 봤다. 당시 이순옥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다. 얼

마 후 가족들이 시체에서 혁대와 넥타이를 보고 찾아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안면도 수복의 후일담.

안면도의 완전 수복을 알린 사람은 편○○, 김○○이다. 주민들이 세상이 뒤바뀐 지, 모를 때 두 사람이 지서에 있던 M1 총으로 백사장 허공에 쏴서 지역에 남은 좌익들이 다 도망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들은 수복된 안면도에서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여 경찰도, 군인도 아니면서 민병대처럼 행동하며 권력을 행사했다. 나중에 주민들은 공덕비를 세워주자는 공론이 돌았으나 비리를 많이 저질러 흐지부지됐다. 안면도 대한청년단 초대 단장은 훗날 도의원을 역임한 채○○이었다.

안면도에는 유난히 이북 피난민이 많이 정착했다. 38선이 그어진 뒤에 공산당을 피해 황해도 해주, 옹진 사람들이 승언리 독개에 40가구, 방포에 13가구가 피난 와서 살았다. 창기리에도 몇 가구가 정착했다. 또한, 전쟁 중에 미8군에서 보급을 담당했던 서북청년단 유격대 출신들이 전쟁이 끝나자 해산하여 가족과 함께 백사장, 삼봉에 정착했다. 이순옥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먼저 피난 와서 정착한 사람들과 전쟁 후에 정착한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피난민들은 이북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미국 원조 물자인 강냉이 가루, 쌀, 우유, 설탕과 농기구 쇠스랑까지 다 무상으로 배급해 주고 심지어 오줌독까지 묻어줬다. 해방 전에 북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황해도 사람 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안면도 정책사업소장을 하며 피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간척지를 싼값으로 불하했다. 불하 조건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방식이었는데, 10년 후에 안면 저수지 1호, 2호가 생겨 간척지가 수리안전답이 되면서 그들은 큰 덕을 봤다. 그걸 계기로 홍○○은 안면도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다.

새마을운동 이후의 삶

이순옥은 1965년 스물여섯 살에 결혼한 아내, 김순덕 사이에서 3남 2녀를 뒀다. 현재 거주하는 안면읍 승언리 346번지는 그가 결혼하여 분가한 곳이다. 그는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주민들이 잘살아보자는 정신으로 길을 넓히고 지붕개량과 생활개선 운동을

하면서 삶이 나아졌고 했다. 그때 안면도에는 간척사업이 활발하여 급속도로 논농사를 지을 농토가 늘어났다. 그는 안면도 사람들이 변화에 적극 부응한 것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 · 25전쟁과 휴전이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안면도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급급했다.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서 전복과 해삼을 잡아서 곡식과 바꾸었던 기억, 해초인 말, 청각, 듬북, 고시락, 세모 등을 보리죽에 섞어 끓여 먹던 기억, 황발이를 잡아 끼니 대용으로 먹었던 이야기를 하며 그때 안면도 바다에 흔하던 전복과 해삼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태안군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김 병 길 (1940년생)
태안군 안면읍 여수해길

태안의 새마을운동 - 안면읍



해방 전후 안면도 사람들의 생활

김병길은 1939년 안면도 정당리 4구에서 아버지 김홍팔과 어머니 이미점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녀는 아내 박순자 사이에서 3남 1녀를 뒀다. 안면국민학교와 안면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평생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안면도 농촌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마을 반장을 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1978년부터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소대장, 안면읍 농촌지도자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활동을 활발히 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6 · 25전쟁을 치른 1950년대와 정치가 혼란했던 1960년대 안면도 농촌 생활상도 태안의 다른 농촌과 차이가 없었다. 의식주가 열악했는데 특히 식량이 부족하여 먹고살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정당리 앞에는 천수만 갯벌이 펼쳐져 있고, 산에는 예부터 유명한 안면도 소나무가 울창하여 마을 사람들은 수산물과 약재를 채취하여 팔아서 식량을 보충했다.

천수만 갯벌에서는 어살을 맸다. 그 당시에는 갑오징어가 흔해서 많이 잡혔다. 어살에서 잡은 갑오징어는 쌀이나 보리죽을 끓일 때 넣어 먹었는데 식량이 부족하니 밥그릇 수를 늘리려고 쌀은 조금 넣고 오징어는 많이 넣었다고 회상했다.

산에서는 복령과 더덕을 캐서 팔았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 근처 땅속에서 자라는 한약재인데 안면도엔 소나무가 많아 복령이 흔했다. 채취한 복령과 더덕은 홍성 광천의 약재상에게 팔았다. 그 당시 정당리에는 밥을 굶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온종일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그 집은 '굶는 집'이었다고 했다. 다행이도 그의 집은 아버지가 안면도 산림벌채 감독으로 다녀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

새마을운동의 시작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970년 초엽, 정당리의 모든 길은 달구지도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이었다. 가구 수는 70호 정도였고 모두 초가집에 섶 울타리였다. 새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지붕개량과 농로 확장 등 많은 일을 했다. 지붕개량은 정부 지원이 있어 인기가 좋았으나 각 마을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갈등도 발생했다. 어떤 집

에서는 블록 담장으로 개량하기 위해 마을 지도자들과 공무원이 섶 울타리를 강제 철거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쇠스랑을 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붕개량과 아궁이 개량 등 생활개선 사업은 빠르게 진척되었다.

그러나 농로 확장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지주들의 토지 승낙이 쉽지 않아서였다. 나중에는 승낙을 받았지만, 설득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주민들의 인력 동원은 협조가 잘 되었다. 새벽에 새마을 노래를 방송하면 주민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삽과 곡괭이 등으로 자갈을 깔고 시멘트 포장을 했다. 그는 당시 농로를 개설할 때 앞날을 내다보고 넓게 내지 못한 걸 후회했다.

김병길은 새마을운동의 정신교육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관청은 지시만 했지 뒤처리를 못 했다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 지원으로 정당리 마을회관을 지을 때 지주의 승낙으로 회관을 건축했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법정 소송하다가 패해 결국 5백만 원의 벌금까지 냈다며 당시 공무원들이 세심히 지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새마을사업이 성과경쟁으로 치우친 까닭이었다. 정당리 마을은 새마을사업을 열심히 했으나 우수마을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그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고남면 영목마을이었다.

새마을운동의 후일담

김병길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며 열정적으로 안면도 정당리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다. 자신이 선도해야 주민들이 따라온다는 솔선수범 정신으로 주민들의 단합을 유도했다. 그는 공공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간척사업에도 마을 주민이 동원됐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같은 동네 김○○이 정당리 앞 갯벌에 간척사업을 벌였는데 공사 중에 제방이 두 번 터질 뻔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제방 공사를 도왔다. 주민들은 집에서 사용하던 멍석이나 가마니를 들고 와서 바닷물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둑을 막았다. 주민들을 동원하여 개인 사업에 부역한 것이다. 간척사업주 김○○은 고마움을 표시하며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겠다고 했고, 김병길에게는 간척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를 일부 불하

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모두 빈말이었다. 주민들 품값을 떼먹은 것이다. 간척한 그 땅은 훗날 논이 되어 김○○은 큰 부자가 되었다. 김병길은 새마을운동 때는 자조, 근면,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물불 가리지 않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안면도 발전의 계기

안면도는 1976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윤주욱'이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정부 지원으로 전기 개설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1가구당 전등을 3개 정도 킬 수 있게 했으나 나중에 해제됐다. 마침내 전기가 들어오면서 생활은 급속도로 변했다. 간척사업으로 농토는 늘어났으나 수원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던 땅에 지하수를 뚫었고, 이때 전기 모터로 물을 푸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병길은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변화시킨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마을은 온통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후 1980년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전국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되면서는 농촌 새마을운동이 조금씩 시들해지며 교육만 많았다고 새마을운동을 평가했다. 그는 1970년대는 봉사 정신, 책임감으로 모두 똘똘 뭉쳐 일했지만, 한편으로 관청 주도로 과하게 밀어붙인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1980년 이후 새마을운동은 민간 주도 형식으로 변모했으나 임원들의 조직만 있고 하부구조는 옛날처럼 단합되지 않고 명칭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태안군으로 복군된 뒤의 안면도

1989년 서산시에서 태안군으로 복군한 뒤의 안면도는 부동산 바람이 불어 펜션 사업을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이주했다. 김병길은 서산시 안면읍에서 태안군 안면읍으로 바뀌었을 뿐 지역 주민들에겐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새마을지도자 선출에 대해 덧붙였다. 70년대에는 마을 회의에서 어른들이 할 일이 많으니 봉사 정신이 많은 아무개를 추천하자는 형식으로 지도자를 뽑았지만, 지금은 서로 감투를 쓰려는 사람이 많다며 새마을회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조직체로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병길은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발전 대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새마을운동을 열성적으로 해서 그런지 자신이 '한국 인사 연감'에 등재되었다고 자랑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김 홍 기 (1950년생)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태안의 새마을운동 - 태안읍



어린 시절의 반곡리 마을에 대한 기억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산 김홍기는 1989년도부터 반곡리 새마을지도자 6년, 태안읍 새마을협의회장 6년까지 총 12년 동안 새마을운동에 관여했다. 나주가 본관인 김홍기는 1950년 태안읍 반곡리 334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성재, 어머니는 가봉춘으로 4남 2녀 중 장남이다. 군대를 다녀온 뒤 1975년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 아내 한상희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낳았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 반곡리 마을도 다른 마을처럼 경제적으로 먹고살기가 힘들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간척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지가 적어 늘 식량이 부족했다. 몇몇 부잣집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쌀밥은 고사하고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정부로부터 미국 원조의 밀가루 배급을 받았으나, 그것도 모자라 철에 따라 고구마 밥, 무밥, 감자밥, 콩나물밥을 먹었다. 또, 천수만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 식물 나문재를 뜯어다 밥을 짓기도 했다. 이는 밥그릇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보릿고개 때는 풋보리 모가지를 따서 말린 뒤 맷돌에 갈아서 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 김홍기는 보리죽을 쑤는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새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하다

김홍기는 태안국민학교 6학년 1학기 때, 송암분교가 개교하자 그곳으로 전학갔다. 이후 태안중학교, 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거들었다. 그러다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때가 바로 1971년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이 막 시작하던 시기였다.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니 그가 사는 반곡리, 송암리, 남산리 일대의 야산은 개간 사업이 한창이었다. 야산 개발은 1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무료로 중장비를 투입하고 임야 소유주는 나무를 벌목하여 팔았다. 공사 완료 후 정부에서 임야를 밭으로 지목 변경하고 필지를 등록해 주었다. 야산 개발로 밭이 많이 생기면서 소득이 높아졌으며 농업진흥 사업, 식량 증진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전역한 그도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반곡리 마을 길은 달구지나 인력거도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이었다. 그 좁은 길은 주민들이 부역으로 넓히고 자갈을 깔았다. 정부로부터 시멘트 334포

대를 지원받아 농로를 포장했다.

그 당시 새벽이면 마을 방송에서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왔다. 라디오에서도 새벽 5시가 되면 항상 새마을 노래를 틀어주던 때다. 주민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연장을 들고 작업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한낮에서는 각자 생업을 해야 하므로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 농로 개설 작업을 했다. 주민들은 짧은 시간 동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다 2~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각자 집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은'부역하며 땀 흘리면 3대가 빌어먹는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당시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남녀노소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다. 간혹, 농로 편입에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일이 어려웠을 뿐이었다. 사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근 농로 공사를 할 때 소유주 노인이 땅바닥에 드러누워 청년들이 공사장 밖으로 번쩍 들어내는 일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상 편입 농로에 말뚝을 박아 표시하면 밤에 토지 소유주가 뽑아내는 일도 빈번했다. 그러나 대개는 희사가 많았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했다. 초가지붕에 짚 울타리였던 집들은 함석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서서히 바뀌었다. 처음엔 지붕개량 사업비 전액이 국비 보조였다. 당연히 지원자가 많았다. 나중에는 자부담에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는데도 순번을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당시 김홍기가 살던 반곡리는 가구 수가 100호 가까이 됐는데 모두 초가집이었다.

우물에 대한 기억

새마을사업이 진행되기 전 반곡리 주민들은 거의 공동 우물에서 식수를 길어다 먹거나 빨래를 했다. 우물이 부족하다 보니 우물가는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낙들은 물동이로, 남자들은 물지게로 물을 이고 날랐다. 김홍기는 열두 살 때 처음 물지게를 졌는데 수왕(물양동이)이 앞뒤로 출렁거려 물이 쏟아지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개인 펌프 샘 공사가 시작됐다. 샘은 2인 1조로 구성되어 삽과 괭이, 도르래를 이용하여 팠다. 깊이 5~6m로 파고 무너지지 않게 노깡(콘크리트 수로관) 넣었다. 대개 안마당에 판 샘엔 수동 펌프를 설치했는데 2일이면 완공했다. 그는 한동안 샘 파는 기술자로 뽑혀 다녔다.

전등불과 마을의 변화

석유 등잔불을 밝히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편리해졌다. 새마을운동도 1980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했다. 초창기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지시로 일부 강제성 띤 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통일벼 권장이다. 식량 증산을 목표로 통일벼를 심지 않는 농가는 공무원들이 찾아와 못자리를 짓밟는 일도 있었다. 특히 반곡리는 야산 개발 후 퇴비 증산을 독려하며 마을별로 경쟁을 시켰다. 규격대로 퇴비장을 만들게 하고 1등 하면 상금과 비료를 주기까지 했다.

새마을지도자는 동네 어른들이 성실한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의논하여 선출했다. 지도자로 선정되면 새마을중앙회에서 정신교육, 군사교육 수료 후에 교육 이수증과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 1980년 전경환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실험하다.

김홍기는 1989년도부터 6년 동안 반곡리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고 태안읍 새마을협의회장을 6년 동안 맡았다. 총 12년 동안 새마을운동의 리더로써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태안읍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시대에 맞게 새마을사업을 혁신했다. 1980년대 이후 새마을 단체가 관에서 민간기구로 편성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어 읍면 단위 연합회는 기금이 부족했다. 이에 김홍기는 조직의 기금 마련을 위해 소득사업을 펼쳤다.

태안읍 인평리에 밭 3,000평을 임대하여 소득사업으로 무, 배추를 심어 판매했다. 새마을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이 틈틈이 공동 작업했다. 처음 시도한 일이지만 성과가 좋았다. 자신감을 얻은 새마을회원들은 천수만 A · B 지구 내 휴경 답을 임대하여 쌀농사도 지었다. 연 1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 수익금은 독거노인 집수리와 난방비 지원, 불우이웃 돕기 등을 했다. 그는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는 동안 그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위한 본보기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곡리에도 귀촌인 가구가 50여 호 이주하여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며 새마을정신으로 단합했던 70년대 중반의 인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최 융 근 (1947년생)
태안군 소원면 사라실길

태안의 새마을운동 - 소원면



가난했던 법산리 마을

법산리는 태안군 소원면에서 부자마을로 손꼽힌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바지락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기 때문이다. 최융근은 1946년 법산리 450번지에서 아버지 최창옥, 어머니 김금순 사이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소원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님을 따라 농사일을 거들며 성장했다.

6 · 25전쟁이 끝난 후 법산리도 여느 마을처럼 궁핍했다. 법산2리는 가구 수가 100호쯤 됐는데 모두 초가집이고, 기와집은 고인권 씨 집 한 채였다. 고인권 씨는 법산리 농토를 거의 소유한 땅 부자로 주민들이 그의 땅에 소작을 부쳐 먹고 살았다. 가의도 출신인 그가 부자가 된 건 배 사업을 하다가 중국을 드나들며 장사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 당시는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최융근은 회상했다. 쌀밥 구경은 고사하고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계절에 따라 무밥, 고구마밥, 감자밥을 먹었다. 그는 무밥이 가장 맛없어서 먹기 싫었다고 말했다. 그 시절에 고구마는 큰 식량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 안 구석에 밀짚 방석으로 만든 통가리에 고구마를 저장했다가 밥 대신 먹었다.

식량 못지않게 주거 형태도 매우 열악했다. 특히 땔감이 부족하여 여름엔 푸장나무, 보리 짚으로 불을 때서 밥을 해 먹었다. 당시 마을의 산은 모두 거의 벌거숭이여서 겨울엔 땔감이 없어 추운 방에서 자기 일쑤였다. 좁은 방에서 여럿이 지내는 여름은 모기와 빈대, 이가 물어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다. 최융근은 잠을 못 잔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졸려서 공부를 못했다고 한다. 동네에는 공동 샘이 몇 개 되지 않아 식수는 물론 빨래할 물도 모자랐다. 그러다 보니 샘터에는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늦게 오면 샘물이 바닥나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비누가 귀한 시절이라 양잿물로 빨래했는데 샘물까지 귀하니 빨래를 자주 못 해 옷을 깨끗이 입고 다니지 못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마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최융근이 전역하던 무렵이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마을의 좁은 길을 넓히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이었다. 도로

에 편입되는 땅의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길이 넓어지고 마침 지붕개량에 사용할 슬레이트 운반에 지게질하지 않게 되자, 동의하기 시작했다. 농로 확장 사업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지붕개량을 시작했다. 지붕개량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서로 먼저 하려고 난리였다. 법산리 2구의 지붕개량은 7~8년 걸쳐 완료했다. 초가지붕이 기와집이나, 함석지붕, 슬레이트로 바뀐 것이다. 지붕개량 사업은 일부 정부 지원이 있었다. 생활개선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부엌을 개량했다. 흙 부뚜막을 시멘트로 고치고 아궁이에 문을 달아 온돌방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

법산리에는 1974년 전기가 들어왔다. 60년대 초에는 배급한 석유로 등잔불을 켜고 살았다. 전등불이 켜진 마을은 천지개벽하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집마다 개인 펌프로 샘을 파기 시작했다. 생활만 편리한 게 아니라 전기는 농사에도 큰 도움을 줬다. 법산리는 천수답이 많아 매년 가뭄에 시달렸다. 물이 부족해 모를 심지 못한 논은 늦게 호미모, 꼬챙이모를 심었다. 전기가 들어오고 모터 펌프가 보급되면서 어느 정도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새마을사업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길이 넓어지고 지붕개량 등으로 생활이 개선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법산리는 새마을운동 이전에 자치법이 있었다.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의 최고 어른인 동장이 대동회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표창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혼을 냈다. 그런 전통 때문인지 법산리는 소원면에서 단합이 잘 된 마을로 유명했다.

갯벌은 법산리 마을을 부자로 만들었다

가난했던 법산리가 부자마을이 된 건 갯벌 덕분이었다. 법산리 갯벌은 바지락과 낙지 등 해산물이 풍부했다. 낙지를 잘 잡는 전문가는 물때에 따라 갯벌에 나가면 하루에 100~200마리씩 잡았다. 바지락도 흔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산물을 보관하지 못해 바지락은 조개젓으로 담았고, 낙지는 건낙지로 만들어 팔거나 곡식과 바꿔 먹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와 조개와 낙지를 산 채로 팔면서 수익이 많아졌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엔 하루에 낙지를 잡아 팔면 보리쌀 한 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전기가 들어온 뒤에는 쌀 한 가마니 값을 벌었다. 최융근은 옛날엔 낙지가 엄청 흔했는데 요즘은 10%로 줄었다며 밤에 배를 타고 주낙으로 잡아 낙지가 갯벌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산리 어촌계는 역사가 깊었다. 주민들이 1960년대 초에 설립한 신덕리 어업조합이 오늘날 법산 어촌계의 시초였다. 최융근은 양식장 갯벌 면적을 정확히 몰랐지만 수십 헥타르라고 말했다. 현재 어촌계원은 201명으로 주요 소득원은 바지락이다. 사리 물때가 되면 어촌계원들은 1가구당 2명씩 갯벌에 나가서 어촌계에서 정해준 대로 바지락을 80kg씩 잡았다. 전체 어촌계 1년 수익은 20억 원 정도였다. 어촌계원들은 해마다 다르지만 개인당 연 1,700~1,8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전했다. 많을 때는 2,500만 원, 적을 때는 500만 원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바지락잡이는 한 달에 약 15일 정도 작업했다. 대금결제는 계원들이 어촌계에서 받은 전표를 수협에 제출하면 즉시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법산리 어촌계에서 잡는 바지락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뻘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아서였다. 태안 안면도의 황도 바지락은 크고 여물기로 유명하지만, 모래밭에서 자라서 생존율이 낮다. 바지락 1kg당 가격은 2,700원~3,000원 사이인데 경쟁 입찰 통해 계약한다고 했다. 1kg당 수수료 3%를 떼는데 그 돈으로 어촌계장 급여와 판공비, 기타 운영비를 충당했다. 어촌계장은 계원 205명이 투표로 선출했다.

바지락은 떼를 지어 이동하는 데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서식하는 패류다. 법산 어촌계 양식장은 근소만에서 바지락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었다. 최융근은 몇 년 전 어린 바지락이 산더미처럼 몰려와 하루에 20톤씩 잡아 종패로 전라도에 팔았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생각

1974년 스물여덟 살에 결혼한 그는 아내 김춘자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다. 젊은 시절 마을 사람들과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한 최융근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마을 이장을 했다. 농촌을 잘살게 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독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새마을운동 덕분으로 교육을 많이 다니며 배운 것이 많았는데, 특히 대전 농도원에서 받은 정신교육이 잊히지 않는다고 술회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국민교육헌장 이야기를 했다. 군대 생활할 때 취침 시간에 국민교육헌장을 내일까지 다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그 말이 구구절절 옳았다고 구술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사라진 건 품앗이, 지게질, 물지게, 나뭇짐이고, 변한 것은 80kg 쌀 한 가마니가 40kg 혹은 20kg 포대로 바뀌고, 비료 무게도 40kg에서 20kg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현 철 주 (1947년생)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태안의 새마을운동 - 이원면



멀고 먼 만대

'가다가다 만대'라는 말의 뜻은 태안군의 서북부에 있는 이원면 내리 만대 포구를 지칭한다. 가다가 너무 멀어서 그만뒀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태안읍에서 이원면 내리의 만대까지는 30km 거리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 내리 사람들은 태안읍내를 왕래할 때 약 80리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서 다녔다.

1971년 결혼한 현철주는 그 당시 도로 사정이 워낙 나빠서 결혼하던 날 신랑, 신부가 걸어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신부는 서천군 비인면 출신인데 홍성까지 기차를 타고, 홍성에선 태안까지는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한다. 태안에서는 이원면 소재지인 관리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신랑 집이 있는 수억 마을에는 길이 좁아 택시가 들어가지 못해 신랑, 신부가 택시에서 내려 걸어왔다고 한다. 이원면 내리는 태안군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그야말로 오지 중에 오지였다.

현철주는 1947년 그 오지마을인 태안군 이원면 내리 120번지에서 아버지 현봉순과 어머니 손채옥 사이에서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스물네 살에 정복순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그는 연주(延州) 현씨 조상이 이원면 내리에 낙향한 지 370년 됐다며 예전에는 씨족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았지만, 후손들이 모두 떠나 살고 현재는 자신 혼자 남아서 외로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삶이 고달프던 시절.

내리는 이원면 소재지인 관리 옆에 위치한 마을이다.'수억 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철주는 '만대'는 나중에 만 세대가 살게 될 거라는 속설이 있으니 '수억'이라는 말뜻도 수(壽) 자가 들었으니 내리가 장수마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원국민학교 내리 분교를 졸업했다. 그 당시 내리 분교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급은 40명이었고 자신의 학급은 26명이었다고 또렷이 기억했다. 국민학교를 마친 현철주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당시 이원면에는 서당이 여러 곳 있었는데도 그마저도 다니지 못했으니, 그만큼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일찍이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한 그는 그 시절 고달팠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전답이 늘어났지만 60년대 전후에는 쌀농사를 지을 논이 매

우 적었다. 게다가 모두 천수답으로 흉년이 잦았다. 1964년 현철주의 집도 남의 논 2,200평을 소작했는데 가뭄이 심해 한 마지기에서 벼 한 가마니도 수확하지 못했다. 당시 소작료는 5할이었다. 가뭄은 곧 배고픔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봄에 비가 자주 와서 모를 심으면 우순풍조(雨順風調)라며 좋아했다고 한다. 가뭄에는 마른 논에 호미모, 꼬챙이모를 심었다.

마을에서 쌀밥을 먹는 집은 겨우 한두 집에 불과했다. 대부분 마을 사람은 보리밥, 감자밥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내리 마을 사람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준 건 바다였다. 예나 지금이나 내리 굴은 유명했다. 생산량도 많았다. 교통이 불편한 시절이라 굴을 즉시 팔지 못할 때는 소금에 절여서 팔았다. 버스가 통행하기 전에는 태안읍에서 장사들이 지게를 지고 굴을 사러 왔다. 마을 사람들도 지게에 굴을 지고 태안시장에서 팔아 호미, 낫, 삽 등과 생필품을 사 왔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다.

현철주가 군대에서 전역하던 해인 1970년, 내리에도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었다. 라디오에서 매일 새마을 노래를 들었는데, 구석진 이원면 내리에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면사무소에서 면장과 공무원들이 마을에 찾아와 주민 상대로 근면, 자조, 협동으로 우리도 잘살아 보자고 정신교육을 했다. 교통이 불편한 시절이라 공무원들은 걸어 다니며 독려하다가 날이 저물면 이장네 집에서 자고 가기까지 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새마을사업은 마을 안길 확장과 시멘트 포장 사업이었다. 시멘트는 정부 지원을 받고 공사는 주민들이 부역으로 했다. 농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농한기에는 한 달에 25일 동안 작업할 때도 있었다. 농로 확장에서 토지 수용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으나 나중에는 지주들도 자발적 승낙을 하게 됐다.

그 당시 내리에는 정미소가 없어 몇몇 개인이 이동식 발동기 정미 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적으로 방아를 찧었다. 통통기라고 부르는 발동기는 일제‘얌마’ 발동기나 대동기계 8마력 원동기에 정미 기계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농로가 좁으니 무거운 발동기를 이동할 때는 지게로 져 나르는 실정이니, 마을 주민 모두가 농로를 넓히는 걸 좋아했고 그 불편이 농로를 확장하는 데 지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억 마을은 새마을운동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었다. 5 · 16군사정변 뒤

재건운동본부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흙벽돌을 찍고, 지붕에 이엉을 올려서 공회당 건물을 두 채 지은 것이다. 내리에서 만대까지 지형이 길쭉하여 거리가 6km나 되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인 작은 수억 마을에도 공회당을 하나 더 지었다. 공회당 지을 땅은 지주가 희사했다. 주민들은 공회당에서 마을 회의를 자주 했다.

지붕개량은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자재를 공동 구입하여 진행했다. 정부에서 사업비를 50% 지원해서 인기가 많았다. 내리는 함석 지붕개량이 많았는데 태안읍의 자재 부족으로 서산에서 구입했다. 현철주는 서산에서 구입한 함석을 팔봉면 구도에서 내리까지 배로 운반했다. 한번은 운반 도중, 풍랑을 만나 배에 실은 함석이 바닷물에 젖기도 했다. 그 함석은 새마을지도자인 현철주 집 지붕개량에 사용했는데 짠물 때문인지 일찍 녹슬었다고 회상했다.

전등불이 켜지고 버스가 들어오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개설한 뒤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비포장도로지만 그때부터 태안읍내에서 관리까지 하루에 노선버스가 4회 운행했다. 1972년에는 종점인 관리에 버스 기사 숙소가 생겨 아침 버스를 타고 태안읍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에서 내리더라도 만대는 노선버스가 없어 여전히 걸어 다녔다. 내리에서 관리까지 20리, 즉 약 8km 정도의 거리였다.

전기는 1978년도에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리도 석유를 배급받아 등잔불을 켰다. 다만 석유를 쉽게 살 수 있었던 건 동네에 석유 파는 가게가 있어서였다. 1960년대는 내리에서 바다 건너 인천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이틀에 한 번 다녔다. 이후 1970년대는 횟수가 늘어나 여객선이 매일 다녔다. 그래서 석유 가게는 인천에서 드럼으로 석유를 떼어다가 됫병으로 나눠 팔았다.

현철주는 1976년 내리 마을총회에서 내리 2대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되었으며 후에 이장을 시켜서 연임했다. 그는 충청남도교육원에서 일주일 정도 교육받은 것과 성남시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홍성군 청석수련원, 복지 농도원 등에서 받은 교육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자, 마을 사랑방에 구판장을 열어 생필품을 팔기도 했다. 운영은 부녀회원들이 교대로 근무했고 수익금은 미약했으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

공한 것이 보람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1979년에는 정부의 장비 지원으로 장구섬에서 내리 수억 마을까지 비포장 버스 길을 개설했다. 드디어 만대까지 버스가 통행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환호했다. 그때 수용된 토지는 소유자들이 희사했는데 나중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면서 지주들은 보상을 받았다.

한편,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젖었다. 1989년 태안군으로 복군 됐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건 부동산 바람이 불어 외지인들에게 내리의 임야가 많이 팔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보수적인지 몰라도 새마을정신이 예전 같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정 원 영 (1939년생)
태안군 이원면 신재생로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 이원면



정원영의 어린 시절

1938년 이원면 관리 산244-3번지에서 태어난 정원영은 돈 버는 사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버지 정명호와 어머니 김일례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 온양 정씨 11대손인 할아버지는 관리에 일가친척이 없어, 외로움 속에서 손자 정원영을 무척 아꼈다.

그는 다섯 살 때 부모와 인천으로 이주했다가 몇 년 후 어머니와 관리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인천 주안에서 벽돌공장을 다녔고, 어머니는 행상을 했는데도 생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관리로 돌아온 정원영은 어린 시절, 지금 염전이 된 곳인 바닷가 백사장에서 친구들과 삐비(삘기꽃)를 뽑아 먹으며 놀곤 했다. 열 살에 이원국민학교 내리분교에 입학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간에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농사처가 적었던 정원영의 할아버지는 자염을 만드는 염벗 일과 어살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린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돈 버는 방법을 터득했다. 대로 엮어 갯고랑에 설치한 어살을 '골살'이라고 불렀는데 봄엔 전어와 실치, 가을엔 사스랭이(꽃게 새끼), 풀치(어린 갈치)가 많이 잡혔다. 어살은 하루에 두 번 물을 보았다.

자염은 끓인 소금인데, 만드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관리에서 자염을 만드는 집은 여럿이었다. 자염을 끓이는 염벗(움막) 하나에는 갈통이 5개~6개 있었다. 가마솥 하나에 소금물을 끓이려면 땔나무가 여섯 짐이 필요했다. 할아버지는 자염을 오쟁이(짚으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 배에 싣고 가서 팔았다. 관리에서 자염을 만드는 것은 천일염을 만들기 시작하던 6 · 25전쟁 직후까지 이루어졌다. 정원영은 어살 매는 방법과 자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해방 전후에서 6 · 25전쟁 시기에는 정원영이 사는 관리도 다른 마을처럼 살기가 힘들었다. 식량이 매우 모자랐기 때문이다. 천수답은 가뭄이 잦아 벼를 심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호박이나 메밀을 심었다. 그러다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호구지책으로 부잣집에서 5할 장리 곡식을 얻어 먹었다.

6 · 25전쟁의 기억

6 · 25전쟁에 대한 정원영의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그의 나이가 열두 살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가 자염 굽는 일과 어살에서 고기 잡는 것 외에 세상일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서였다. 그가 본 것은 해방 때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는 모습과 건달 같은 아버지가 인천에서 슬그머니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인민공화국 치하인지, 수복 후인지, 인천에서 피난민 가족이 10명쯤 정원영의 집에서 지냈는데 언제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나중에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인민군이 이원면에 들어왔었다는 것, 우익들 몇 사람이 좌익에 의해 서산 양대리에서 죽었다는 것, 인민군들이 앞산 파금봉에서 서해에 비행기가 몇 대 인천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지 살폈다는 것, 수복 후에 우익들이 마을의 좌익 부역자들을 면사무소 창고에 가뒀다가 고문한 뒤 사창리 넘어가는 말새기재와 옹동 벗터에서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인민공화국 치하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으나 수복 후에는 좌우익의 갈등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회상했다.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다

부산에서 군 복무를 한 그는 일반 하사로 전역했다. 고향에 돌아오니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원영은 관리 1반장이 되어 새마을사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당시 반장은 주민들에게 석유를 배급하고 비료를 두 됫박씩 나눠주며 세금을 걷는 일까지 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일이 더 많아졌다. 처음 시작한 새마을사업은 좁은 마을 안길을 넓히고, 농로를 새로 내는 일을 했다. 농로를 확장할 때 그는 자발적으로 땅을 먼저 희사했다. 그걸 보고 지주들도 따라 했다. 자갈을 깔고 시멘트로 포장하는 모든 공사는 주민들이 부역했다. 길을 넓히고 시멘트 포장을 하니 지게질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다음 사업으로 지붕개량을 했다. 당시 관리는 가구 수가 30호 정도였는데 기와집은 한 채이고 나머지는 초가집이었다.

정원영은 목공 일을 조금 할 줄 알았다. 한때 서울 이문동 주택 건축공사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였다. 그 기술을 새마을운동 지붕개량 사업에 요긴하게 써먹었다. 관리 지붕개량 공사는 물론 다른 마을 지붕개량 공사에 목수로 뽑혀 다녔다. 그는 자기가 지붕개량 한 집은 예순아홉 채라며 품삯이 제법 되었다고 구술했다. 마을에서는 정원영에게 이장을 맡으라고 추천했으나 그는 사양했다.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자신부터 울었다며 마을 사람들 모두 슬퍼했다고 말했다.

사업가 정원영의 화려한 시절

정원영은 이재에 밝았다. 시대 흐름을 읽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이원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용성염전'에서 잠깐 염부 일을 했는데 월급이 쌀서 말, 보리쌀 두 말로 매우 적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는 염부들을 상대로 양말과 담배를 팔면서 장사에 눈을 떴다.

사업의 시초는 삼굿이었다. 관리에는 삼베 길쌈 하는 집이 많았다. 그는 삼굿 3개를 설치하여 삼을 쪄주고 삯으로 첫해에 보리 32가마를 벌어 돈맛을 알게 됐다. 다음은 이동 발동기로 삯을 받고 방아를 찧어주는 사업이었다. 대동 10마력 발동기를 구입하여 보리타작, 벼 타작을 해주고 번 돈으로 논 열다섯 마지기를 샀다. 사업은 번창했다. 갯벌 27,000평을 허가받아 시작한 굴 양식장은 해마다 큰돈을 벌어줬다. 그 돈을 밑천으로 가을에 마을의 벼를 사서 봄에 방아 찧어 파는 쌀장사도 했다. 한해에 1,000가마니의 쌀을 거래했다. 3년 동안 쌀장사를 한 뒤에 6~7년간 마늘 장사도 했다.

그는 연승어업을 시작하면서 어선 6척을 건조한 사람이었다. 또한, 어선을 간척사업 제방 쌓는데 임대해 돌을 운반해 주고 하루 임대료로 벼 한 가마니씩 받았다. 당시로는 큰돈이었다. 제방 사업이 끝나자, 정원영은 연승어업 하던 작은 배를 팔고 큰 배를 건조하여 소금 장사를 했다. 덕적도 근방 섬을 돌아다니며 소금과 새우젓을 물물교환 한 뒤, 온양과 덕산 상인들에게 팔았다. 나중에는 선장과 아버지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건달 아버지는 그만 배까지 팔아먹었다고 회상하며 매우 안타까워 했다.

독특한 시골 사람

정원영은 1956년 열여덟 살에 스무 살의 손의숙과 결혼했다. 슬하에는 2남 8녀를 뒀다. 그는 배움은 짧았으나 총명한 사람이었다. 관리의 볏가리 체험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면서 그는 농업대학, 관광대학 등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 한때 볏가리마을에는 주말마다 체험하러 온 사람들로 관광버스가 2~3대씩 몰려들었다. 몇 년 동안 볏가리마을

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볏가리 해설, 염전 해설을 했다. 그 무렵 '시골 풍경'이라는 숙박시설과 뽕나무 오디와 여러 과일나무를 심어 체험농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점 휴업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1938년에 태어나 소년 시절에 6 · 25전쟁을 겪고, 궁핍한 60년대를 살아 넘긴 그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외갓집에서 잠깐 배운 사진 기술로 카메라를 메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 도민증 사진을 찍는 일도 했다. 호롱불 아래서 직접 사진인화로 하여 지금도 그 방법을 다 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쓴 일기장이 있었는데 2,000년도 집을 수리할 때 챙기지 못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을 더듬어 다시 회고록을 썼다며, 자신은 '증거 없는 이야기'는 절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태안의 6·25전쟁과 새마을운동

김 광 모 (1946년생)
태안군 남면 진산1길

태안의 새마을운동 - 남면



김광모의 어린 시절

김광모는 본관이 김해 김씨로 1944년 태안군 남면 진산리 478-3번지에서 출생했다. '동아실'이라고 부르는 진산리 1반은 15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였다. 아버지 김순선과 어머니 박일분 사이에서 2남 5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일찍 철이 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남면국민학교와 태안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군의회 의원 등을 지내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했다. 김광모는 새마을운동 이전의 진산리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궁핍과 낙후,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길은 폭이 1m도 안 되어 모든 운반수단은 지게질로 해결했다. 인력거도 없는 시절이었다. 주거 형태는 대부분 초가집이었는데 부잣집은 아래채, 모채를 지어 울타리가 없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겨릅댕이(삼베속대), 싸리, 갈대로 울타리를 하고 살았다.

그의 가계는 마을에서 잘 사는 편에 속해 고구마밥, 무밥, 감자밥은 먹지 않았으나 식량 절약을 위해 명절 때 외엔 항상 쌀과 보리를 섞은 반죽 밥을 먹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김광모가 쌀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았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은 장난삼아 아이들에게 씨름을 시켰다. 덩치 큰 김광모가 이기면 어른들은 "쟤는 쌀밥 처먹어서 근력 세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보리쌀 한 되로 밥을 지으면 두 사발, 쌀 한 되로 밥을 지으면 한 사발로 밥의 양이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먹고살 만한 집들도 식량을 아끼느라 쌀과 보리쌀을 섞어 먹었다. 그는 어려서 친구네 집에서 밀기울밥을 먹어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 당시 진산리 동아실 마을은 대여섯 집이 한 공동 우물을 사용했다. 부잣집은 이 우물에서 가깝고 가난한 집은 멀었다. 공동 우물에서 식수를 조달하고 아낙들이 빨래했다. 농사를 짓는데도 늘 물이 부족했다. 마을의 논은 모두 천수답이라 가뭄이 들면 장마철을 기다리다 못해, 결국 마른 논에 모를 심는 호미모를 했다. 논에 들깨 모를 심듯 벼를 심었는데 장마철이 되어 비가 내리면 죽은 것 같던 벼가 살아나서 이삭이 나왔다. 하지만 소출이 턱없이 적었다.

진산리는 갯벌 바다에 인접한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해루질을 자주 다녔는데 등잔불을 켜던 시절이라 배급받은 석유로 호야 등불을 켜고 봄엔 알밴 꽃게를 잡았다. 꽃게가 흔하

던 시절이라 손으로 주워 담을 정도로 지천이었다. 잡은 꽃게는 쪄서 먹거나 게장을 담가 반찬 했다. 보리밥도 귀해 실컷 먹지 못했으나 꽃게는 실컷 먹던 시절이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단상

김광모가 전역을 한 1970년 진산리에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마을에서 청년단장을 하였던 그는 여러 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다른 마을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 안길이 넓어졌고, 농로가 만들어졌다. 비록 반강제로 토지를 수용하여 낸 농로였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다닌다며 옛날을 회상했다.

주민들은 부역으로 새마을사업에 열중했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사후 보고서 같은 간단한 행정 처리를 해야 했다.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김광모는 그때 면사무소나 군청 행정이 낙후된 걸 보고 공무원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976년, 새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그 당시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이나 군수가 지시하면 주민들이 죽으나 사나 따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됐다. 지금 같으면 국민에게 '잘살아 보세' 하면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호응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는 다 같이 못 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며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할 당시를 나름대로 분석했다.

새마을사업은 농로 개설 외에 지붕개량, 아궁이 개량 등도 시행 했다. 아궁이에 쇠문을 설치하는 사업은 땔감이 귀하던 시절이라 온돌방의 온기 유지에 도움이 됐다. 생활개선 운동의 하나로 새마을부녀회의 절미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나 식량이 모자란 사람들은 시늉만 할 수 밖에 없었다.

김광모는 몇 년 동안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한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알려주었다. 전통적으로 상례는 초상, 소상, 대상을 치렀는데 정부에서는 허례 의식이라며 간소화를 반강제적으로 권했다. 그런 지침 때문에 동아실 마을에서는 굴건제복(상복)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사용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공동 상복을 입었는데, 삼베옷이라 금방 너덜너덜해져서 상주들의 모습이 거지처럼 초라했다고 말했다. 그런 연유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손수 상복을 장만하여 초상을 치렀다.

혼례도 간소화를 권장했다. 전통 혼례는 신랑 신부가 사모관대와 활옷을 입고 초례를 치른 뒤에 동네잔치를 했는데 그걸 금지시켰다. 새마을운동에서 세운 가정의례준칙은 형식과 구호에 불과한 정책이었다.

새마을문고 권장도 마찬가지였다. 새마을문고는 마을에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사업이었다. 좋은 발상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은 '독서고 나발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고 아우성 치며 동참하는 마을이 드물었다. 결국 주민들 뜻에 따라 진산리는 마을문고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슬퍼했으나 세월이 지나며 존경심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1980년도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 개편한 뒤에는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한 바가 있었다.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졌고 동네별로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이취임식이 거창하게 치러졌다. 당시 새마을부녀회장이 면사무소 회의에 참석하러 갈 때는 한복을 차려입고 다닌 걸 기억한다며 권위 의식이 대단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새마을사업의 본래 취지가 약해지고, 허례허식이 늘어난 것이다. 지금도 존재하는 새마을단체를 옛날 새마을운동과 비교해 보면 옛날엔 지도자들이 봉사, 헌신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단체만 존재하는 것 같고 자리만 차지하는 권력 단체 비슷하게 변질한 것 같다고 혹평했다.

태안군 복군 이후의 삶

1989년도에 태안군은 서산시에서 복군되었다. 태안 사람은 옛날 서산시에 편입된 태안군을 되찾았다고 '분군'이라는 표현 대신 '복군'이라고 하고 있다. 김광모는 개인적으로 태안군이 분군한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군의회 의원 시절에도 분군을 반대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광역화되어야 하는데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장, 계장 숫자가 늘어나니 일부 공무원들만 좋은 일 시켰다고 촌평했다. 태안군이 복군 되면서 부동산 바람이 불었지만, 돈 많은 외지인이 땅을 사들인 뒤 땅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담보 잡혀서 또 그 땅을 사니, 그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말했다.

김광모는 부인 한명옥 사이에서 2남 1녀를 뒀다. 군의회 의원을 끝으로 사회활동을 마감하고 10여 년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소금 명품화사업단 사업을 했었는데, 동업자들의

의견 충돌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염전 6천평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며 단순하게 소일하고 지내고 있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배 광 모 (1942년생)
태안군 태안읍 서문5길

태안의 6.25전쟁 - 태안읍



배광모의 어린 시절

경주 배씨, 배광모는 1941년도 태안읍 송암리 1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배생춘과 어머니 라서희 사이에서 5남 1녀 중 5남으로 태어난 그는 아내 성영옥과 결혼한 뒤 서른두 살 때 태안읍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자녀는 2남 1녀를 뒀다. 학력은 태안국민학교, 태안중학교, 공주사대부고를 중퇴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서였다. 그는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 태안군에서 정년까지 근무했다.

동이점라고 불렸던 송암 1구는 윗말, 아랫말로 나눠진 제법 큰 마을이다. 윗말엔 열 집이 넘는 배광모의 일가와 박씨, 이씨, 문씨, 김씨, 홍씨, 전씨 등이 살았다. 아랫말은 청주 한씨 집성촌으로 열 집가량의 배씨가 함께 거주했다. 송암리에는 태안 부자 백남복의 땅이 많았다.

송암 1구를 동이점이라 부른 연유는 옹기를 구워 팔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가마터가 사라졌으나 배광모의 조부와 김씨, 이씨, 전씨가 큰독, 항아리, 시루, 물동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집안은 옛부터 마을에서 부잣집 소리를 들었다. 조부모와 부모, 형제들까지 열 네 명이 사는 대가족으로 집은 송암 1구에서 제일 컸다. 그의 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해서 그런지 자녀들 교육에도 힘써 큰아들을 태안초등학교 교사로 배출시켰다. 배광모는 어린 시절 배고픔을 모른 채 자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950년 6 · 25전쟁이 나기 전의 일이다.

6 · 25 참상의 기억

배광모는 그의 나이 10살 때 6 · 25전쟁을 겪었다. 태안읍내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마을 뒷산 후박이산에 올라가 봤더니, 백화산으로 사람들이 도망치듯 올라가는 걸 보고 전쟁이 났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 마을에서 사상갈등으로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말았다.

해방 후 마을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사상이 유행처럼 퍼졌다. 지역의 좌익들이 저녁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국의 양코배기 물러가라'라는 노래를 가르치며 세뇌하는 걸 봤다.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이 공평하게 산다는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못 배운 사람들을 좌익에 가담시켰다. 배광모의 숙부와 당숙 몇 명도 좌익운동을 했다. 그런 걸 보고 아버지는 숙부와 당숙들에게 좌익에 가담하지 말라며 혼을 내곤 했다. 그래서인지 당숙들은

아버지를 싫어했다. 이후 아버지의 걱정은 사실이 되었다.

6 · 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경찰은 송암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배광모의 집에도 들이닥쳐 숙부를 체포했다. 숙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좌익으로 몰린 것이었다. 어린 배광모는 작은아들이 끌려가는 걸 막으려고 매달린 할머니를 경찰이 냅다 발길질하여 땅에 뒹구는 모습을 보았다. 숙부는 결국 태안 한티재에서 학살당했다. 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보도연맹이 뭔지 모르고 좋은 거라고 해서 가입한 청년들과 머슴들이었다. 경찰과 우익들은 그들을 학살하고 도망갔다.

배광모는 할머니를 따라가서 숙부의 시신 수습 광경을 직접 봤다. 총살당한 시신들이 불에 태워져 새카맣게 그을린 시체더미 속에서도 숙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키가 유난히 컸기 때문이었다. 한티재에서 학살당한 시신 30구를 태안읍사무소 느티나무 밑으로 옮겼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했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세상은 인민공화국 치하가 됐다. 가족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복수로 또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태안읍내에는 인민군 소년병이 왔었지만, 그는 송암리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인민공화국 치하는 3개월 만에 끝났다. 곧이어 9.28 수복이 되자 인민군은 퇴각하고 대한민국 세상이 됐다. 그런데 이번엔 지역의 우익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치안대원들이었다. 그들은 경찰관 앞잡이로 좌익에게는 인정사정없었다. 그는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악랄한 좌익들도 있었으나 수복이후 우익이 더욱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 배광모는 그 당시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몰랐다. 그 사상이, 그 단어가 끔찍한 줄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소설 같은 이야기

배광모의 집은 숙부가 죽은 것과 아버지가 죽도록 매 맞은 것 외에 더는 희생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에선 별별 일이 많이 발생했다. 친한 중학교 동창지간이었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좌익 활동하다가 세상이 바뀌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친구를 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배광모의 셋째 형도 친구와 잡혀가다가 동네 사람인 한 씨가 어린 것들이 뭣 하러 여기 오느냐고 냅다 발길로 차는 바람에 갯고랑에 빠져 살아난 기막힌

일도 있었다.

또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다. 논 30마지기를 짓는 부잣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의 이야기다. 주인은 지식인으로 사회주의자였다. 세상이 뒤집히자, 피신한 주인을 머슴이 고발하고 재산과 부인을 차지한 것이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비난하지 못했다.

비슷한 사연이지만 상황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머슴의 부인이 굉장히 예뻤는데 머슴이 좌익으로 몰려 죽자, 눈독을 들였던 이장이 부인을 납치해서 살았다. 훗날 그 사연을 알게 된 아들이 같이 사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혼자 고민하다가 절친한 친구에게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한 말은 옛일은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조언밖에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세월이 흐르니 동네에서는 옛날 원수였던 사람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집들도 생겨났다. 부모들은 옛날 사연을 일부러 잊었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였다. 송암리에서는 좌우익간 갈등으로 배씨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반곡리는 신씨가 몰살당하다시피 했다. 경찰에게 죽임을 당한 곳은 사기실재로 송암 2구 바닷가다.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논이 된 천수만 B 지구 후미진 곳이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

6 · 25전쟁 후 부유했던 배광모 집안의 가세가 많이 기울기 시작했다. 전쟁 당시 작은 형이 1차로 징집 대상으로 뽑혔다. 전쟁 중에 군대에 간다는 건 전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학교에 다니면 징집이 면제된다는 소리를 듣고 중학교도 안 나온 작은 형을 서산농고에 입학시켰다. 돈을 써서 그 일을 벌였을 터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노력은 허사였다. 결국, 작은형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전투 중에 곡사포 파편을 맞고 말았다. 다행이도 구사일생하여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형의 팔뚝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보고 어머니는 자식이 두 번 태어났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형이 노름으로 집안을 파탄 냈다. 공부를 잘했던 배광모가 공주사대부고를 중퇴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났어도 부역자 딱지가 붙은 가족들은 연좌제에 떨었다. 군에 입대한 배광모

는 정보 주특기 병과를 받아 정보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됐는데, 6 · 25 때 좌익활동으로 죽은 숙부 때문에 신원조회에 걸릴까 봐 마음을 졸였다. 경찰의 착오였는지 신원이 깨끗하게 처리되어 군대 생활과 공직 생활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가 아직도 궁금하다고 했다.

배광모는 잘못한 사람이 면장하고 고급 공무원 노릇을 하는 걸 안다면서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에게 위안이 된 것은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의해 좌익으로 몰려 사망한 숙부 배재성을 재판해서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족에게 배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상금보다 숙부가 명예 회복된 것이 더 기쁘다고 했다.

배광모는 공직 생활 중 문맹 퇴치에 관심을 쏟았고, 퇴직 후에도 자원봉사로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며 이야기를 끝마쳤다.

<인터뷰어 고종남, 스토리텔러 정낙추>

구술자 목록

천안시동남구

전병길 12
이금선 17
이의순 22
이이주 26
박봉연 31
주영자 36
김태인 41
박준애 46

천안시서북구

김기창 52
안수영 59
성제선 66
김월순 73
윤성희 79
박순래 87
김광근 93
주복식 102
이종석 108

공주시

강태의 116
노 연 123
서재홍 131
이은찬 138
서병대 146
강태윤 152
김종균 159
홍종운 165

보령시

문영용 174
문영복 174
윤창석 188
유수근 218
전윤수 230
김진권 246
이동규 256
김종구 274
최성한 293
고경식 310
김영준 322
손영희 334

아산시

황의덕 360
이순희 366
주웅노 371
김용호 377
이희종 382
오성규 388
유숙위 393
임봉자 398

서산시

류해영 404
유희채 409
한기춘 413
김종옥 418
최병성 423
장경옥 428
이관엽 434
이기창 440

논산시

오세복 446
박승덕 452
조효상 456
권평식 461
김인규 466
서평석 471
김용남 475
이정숙 480
송종은 484
박노삼 489

계룡시

이덕재 494
정병선 498
안봉인 503
김용한 508
김원섭 513
이해상 518
김정수 523
김정수 528
박성기 533

당진시

김유순 540
심중섭 547

안명수 554
오명숙 560
오봉섭 565
이영애 570
이종수 576
전관수 582

금산군

문복동 588
육덕균 593
한영복 598
길순선 603
황태원 608
김원규 614
이연기 620
이판임 625

부여군

이정민 632
조정길 638
박천동 643
소도영 649
남상문 654
윤지순 659
김금순 664
류흥렬 669
방순남 674

서천군

전옥환 682
김순자 682
박종성 688
장민순 694
김성흠 699
추길호 704
최후자 704
서정권 709
노쌍석 715
오세문 721
유영휘 726
곽만기 732

청양군

장희문 740
김영애 745
김희순 750
명영석 756
이한수 761
김정숙 768
이영채 774
송찬의 779
우종실 784
윤장훈 790

홍성군

윤경희 796
박성호 803
이현구 811
주정모 816
김지영 821
박필수 825
이병성 831
윤명식 834

예산군

강태구 840
김성배 845
심성근 851
김문갑 857
가한로 862
김무현 867
이석호 872
황정래 877

태안군

윤용옥 884
윤경상 889
신상호 894
이순옥 899
김병길 904
김홍기 909
최융근 913
현철주 918
정원영 923
김광모 928
배광모 933

2024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6

발 행 일 | 2024년 12월 24일

발 행 인 | 임호빈

편 찬 위 원 | 김윤식, 이일주, 신재완, 정종호, 백종신
권선옥, 김윤숙, 장 호, 정찬국, 최명규
임호빈, 유환동, 김종옥, 고종남, 임영우

감 수 | 홍제연, 김용순, 금교순

행 정 지 원 | 주혜원, 류림

발 행 처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041-635-9102~3

편 집 인 쇄 | 도서출판 한국문화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개목4길 50
041-573-5977

I S B N 978-89-6531-170-6

|비매품|

2024ⓒ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 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고와 사진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